

충남미술 연구총서

충남미술가편람 Ⅱ

책을 펴내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일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선행해야 할 기초 작업이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미술관 건립과 더불어 ‘지역성’을 중심으로 지역 대표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설정하고, 소장품 수집정책과 향후 아카이브 구축의 방향을 마련하고자 ‘충남미술사 조사·연구 및 집필’ 사업을 4개년으로 계획하였다.

이 책은 ‘충남미술사 조사·연구 및 집필’ 사업의 두 번째 결과물이다. 지난해부터 충청남도과 충남문화재단이 추진해온 이 사업은 충남미술관의 전략 목표인 ‘충남미술의 가치 탐구’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물을 『충남미술 연구총서』로 발간해왔다.

『충남미술 연구총서』는 충남미술사 조사·연구의 내용을 담아 연차적으로 출간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인명사 I (~1949년생)’을 발간하였으며, 올해는 ‘인명사 II (1950~1959년생)’를 진행하였다. 2023년은 문화사(미술 유입 및 전개 과정), 그리고 2024년은 활동사(소집단활동과 미술운동)와 부록에 미발굴 사항과 보완점을 담기로 하였다.

이 사업의 결과물은 충청남도와 충남문화재단이 올해 10월 개관한 ‘CN갤러리’의 개관기념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충남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 4인의 작품을 통해 충남미술의 맥락을 보여준 이 전시는 ‘충남미술사 조사·연구 및 집필’ 사업과 연계된 소기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충남미술 연구총서』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충남미술관 개관 이후 더 많은 연구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충청남도도 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미술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국제지명설계공모’를 추진하였으며, 내년 2월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충남미술관은 도민들이 지역미술에 직접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고, 미술사적 관점에서 충남미술을 재조명하는 등 지역미술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책자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세계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여 충남미술의 자료를 계속 축적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은 충청남도과 충남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였다. 사업 추진의 뜻이 있어도 많은 분들의 애정과 관심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다.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의 미술사학자 신수경, 정경숙, 김미정, 이안나, 김재영 님의 노력과 충남미술사편찬 자문위원회 최영근, 허진권, 이진자, 이순구, 송미경, 윤후영, 김종길 위원님의 도움에 힘입은 바 크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자료를 제공해준 대전시립미술관을 비롯해 여러 미술관, 화랑,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충청남도 · 충남문화재단

발간 개요

충청남도 문화정책과와 충남문화재단은 2025년 개관 예정인 충남미술관 건립 및 작품 수집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충남미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에 이어 『충남미술 연구총서』 발간을 추진하였다. 충남미술 연구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새로운 모델이 될 두 번째 책자인 『충남미술 연구총서: 충남미술가편Ⅱ』는 1950년대(1950~1959) 충청남도에서 태어났거나, 충청남도를 연고로 활동한 미술가들에 대한 자료와 작품을 조사·수집하여 책자로 묶은 것이다. 수록 순서는 충남미술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출생연도순이며, 같은 연도에 태어난 작가들은 가나다순으로 배열되었다.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충남문화재단이 주관,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가 수행한 ‘충남미술사 발간 및 조사연구(2단계)’ 연구 용역(2022. 3. 22.~ 11. 10 / 8개월)은 그동안 작가 개인별로 소장하고 있거나 여러 미술관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자료를 조사·수집·정리한 것이다. 현재 파악되는 1950년대 태어난 충남미술인은 수백명에 이르나 이 책자에는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연구진이 충남문화재단과 충남미술사편찬 자문위원단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선정한 179인의 충남미술가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다.

충남미술가(2차) 179인의 선정과정은 2020년 충청남도 문화정책과의 연구 성과물인 『충남미술사 간행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비롯한 대전·충남미술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연구진이 1950년대 출생한 충남미술가 1차 명단을 작성하였다. 이후 충남문화재단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충남미술사편찬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총 179인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1950년부터 1959년까지 출생한, 대전(1989년 대전직할시로 분리됨)을 포함한 충청남도 전 지역 작가
- 나. 출생, 성장, 근무, 거주, 주소, 묘지, 학교 등 충청남도과 연고가 있는 작가
- 다. 타 지역 출신 작가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학교 등 근무지가 충남인 경우 충남미술사에 미친 영향력 등 고려

이 책자에 수록된 작가 개요는 해당 작가에 대한 정보(신문기사, 논문 및 단행본, 전시도록 등에 게재된 내용) 및 작가들에게 연구진이 직접 연락을 취해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작가들이 제공해준 자료의 형태나 양은 차이가 많았지만, 해제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생몰년, 가족관계, 학력, 경력, 작품활동 등 작가의 생애와 작품세계 전반의 특성을 개요에 기술하였으며, 작품세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표작을 함께 실었다. 작가 연보는 작가들이 직접 작성하여 보내준 자료를 기초로, 전시 자료 등 수집한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작가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거나 제공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 가능한 범위에서 활동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개요나 연보의 분량 및 내용은 기초자료의 유무, 작가가 제공한 자료 및 활동에 따라 편차가 있다. 1950년대 충남에서 출생했거나 충남을 연고로 활발하게 활동했으나 연구진의 부족으로 책자에 수록되지 못한 작가들은 후속 작업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일러두기

1. 책자의 작가 수록 순서는 출생연도-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2. 본문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한자나 영문 등 원어는 필요한 경우 괄호 속에 병기하였다.
3. 도판의 캡션은 작가, 작품명, 제작연대, 재질, 크기(세로×가로cm), 소장처(또는 출처) 순이다.
4. 작품명은 〈 〉, 전시명이나 화첩·연작물은 《 》, 단행본과 문집·신문·잡지·전집류는 『 』, 논문명은 「 』, 원문 인용은 “ ”, 강조는 ‘ ’로 표기하였다.
5. 연보의 전시회 표기에서 전시명 옆에 전시가 열린 장소를 지역명과 기관을 괄호 속에 넣어 표기했다. 다만 대전시립미술관, 대전문화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과 같이 장소가 기관명에 들어 있는 경우는 지역명을 넣지 않았다.
6. 전시명 중 《대전시미술대전》, 《대전광역시미술대전》은 시기에 따라 명칭이 다르나 《대전시미술대전》으로 통일하였다.
7. 본문의 지명과 학교명은 해당 시기 지명(학교명)을 그대로 쓰고, 현재 지명은 괄호 속에 표기하였으나 송전대학교(현 한남대학교)와 공주사범대학(현 공주대학교)은 현재 명칭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8. 충남미술가의 선정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본문에 붉은 색의 굵은 서체로 표기하였다.
9. 이 책에 수록된 원고의 저작권은 충남문화재단에 있으며, 사진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개별 자료에 표기한 소장처 및 출처로 귀속된다.
10. 이 책에 게재된 사진은 무단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진 자료 이용에 대해서는 소장처 및 이미지 저작권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목 차

책을 펴내며	2		
I. 발간 개요	4		
일러두기	6		
II. 충남미술가 개요 및 연보			
김기반(金基班, 1950~)	10	오숙환(吳淑煥, 1952~)	74
김정호(金正鎬, 1950~)	13	유동조(兪東朝, 1952~)	76
남영자(南英子, 1950~)	15	이장하(李長夏, 1952~)	79
박권수(朴權洙, 1950~2005)	17	이춘호(李春浩, 1952~)	81
박일규(朴日奎, 1950~)	20	이충우(李忠雨, 1952~)	83
손화동(孫和東, 1950~)	22	장지원(張志媛, 1952~)	85
임선빈(任先彬, 1950~)	24	전인선(全仁仙, 1952~)	87
임옥상(林玉相, 1950~)	27	정옥희(鄭玉嬉, 1952~)	89
조용진(趙鏞珍, 1950~)	30	정장직(鄭章植, 1952~)	91
황동희(黃東喜, 1950~)	32	정찬국(鄭燦國, 1952~)	94
구권환(丘權煥, 1951~)	34	구경회(具敬會, 1953~)	97
김대열(金大烈, 1951~)	37	김동창(金東昌, 1953~2015)	99
김명태(金明泰, 1951~)	40	김무호(金武鎬, 1953~)	101
김문식(金文植, 1951~)	43	김학원(金學園, 1953~)	103
김창일(金昌一/ CI KIM, 1951~)	46	김해심(金海心, 1953~)	105
박토을(1951~)	48	박인규(朴仁圭, 1953~)	108
정덕영(鄭德永, 1951~)	50	박정옥(朴貞玉, 1953~)	110
정 채(1951~)	52	박홍순(朴洪淳, 1953~)	112
정태희(鄭台喜, 1951~)	54	백준기(白俊基, 1953~)	114
홍석출(洪錫出, 1951~)	56	백 철(白喆, 1953~)	116
고창환(高昌煥, 1952~)	58	복원규(卜元圭, 1953~)	118
권대섭(權大燮, 1952~)	60	양충모(梁忠模, 1953~)	120
김대열(金大烈, 1952~)	62	윤여환(尹汝煥, 1953~)	122
김영숙(金英淑, 1952~)	64	윤장열(尹長烈, 1953~)	125
김용선(金容善, 1952~)	66	이재호(李在皓, 1953~)	127
박세은(朴世殷, 1952~)	68	정길호(鄭佶浩, 1953~)	129
송순영(宋淳永, 1952~)	70	홍성경(洪性暻, 1953~)	131
신웅순(申雄淳, 1952~)	72	고석산(高錫山, 1954~)	134

김철겸(金哲謙, 1954~)	136	문정규(崔秉圭, 1956~)	230
유순식(俞淳植, 1954~)	139	박기호(朴起鎬, 1956~)	233
이종구(李鍾九, 1954~)	141	박수용(朴壽用, 1956~)	235
이종협(李鐘協, 1954~)	144	박홍준(朴洪峻, 1956~)	238
임동락(林東洛, 1954~)	147	배결주(裴結珠, 1956~2017)	240
전일국(全一國, 1954~)	150	백승업(白勝業, 1956~)	242
지석철(池錫哲, 1954~)	153	백인현(白仁鉉, 1956~)	244
최기성(崔基成, 1954~)	155	변영환(邊英煥, 1956~)	247
김두한(金斗漢, 1955~)	158	손차룡(孫車龍, 1956~)	250
김옥연(金玉演, 1955~)	160	오치균(吳治均, 1956~)	252
김인옥(金仁玉, 1955~)	162	이숙휘(李淑徽, 1956~)	255
김준섭(金駿燮, 1955~)	165	장금자(張金子, 1956~)	257
민동기(閔東基, 1955~)	168	장인성(張寅成, 1956~)	259
박관우(朴寬雨, 1955~)	170	정세훈(鄭世薰, 1956~)	262
박세관(朴世寬, 1955~)	172	조용복(趙鏞福, 1956~)	264
박학규(朴學圭, 1955~)	174	최병규(崔秉圭, 1956~?)	266
방효성(方曉星, 1955~)	176	황인자(黃仁子, 1956~)	268
손석만(孫錫萬, 1955~)	179	강위종(姜渭宗, 1957~)	270
송인현(宋仁憲, 1955~)	181	김성경(金聖卿, 1957~)	272
신동국(申東國, 1955~)	183	김영진(金榮珍, 1957~)	274
신현진(申鉉珍, 1955~)	185	김해민(金海敏, 1957~)	277
안치인(安致仁, 1955~)	187	박동교(朴東敎, 1957~)	280
양승호(梁承豪, 1955~)	190	박동운(朴東潤, 1957~)	282
염호택(廉浩澤, 1955~2012)	192	박선영(朴宣映, 1957~)	285
윤진섭(尹晉燮, 1955~)	194	상성규(尙成圭, 1957~)	287
이병한(李炳韓, 1955~)	197	서성관(徐成寬, 1957~)	289
이 열(李烈, 1955~)	199	안재옥(安在玉, 1957~)	291
정기해(鄭基海, 1955~)	202	오금숙(吳錦淑, 1957~)	294
정영진(鄭英鎭, 1955~)	205	이계길(李啓吉, 1957~)	296
조순호(趙舜鎬, 1955~)	207	임재광(林栽光, 1957~)	298
허진권(許鎭權, 1955~)	209	장정란(張貞蘭, 1957~)	301
강정현(姜貞憲, 1956~)	212	전영신(田永信, 1957~)	303
고승현(高昇鉉, 1956~)	215	정진숙(鄭鎭淑, 1957~)	305
고웅곤(高雄坤, 1956~2022)	218	최명규(崔明圭, 1957~)	307
김석우(金錫宇, 1956~)	220	한인수(韓仁洙, 1957~)	309
김일환(金一煥, 1956~)	222	홍정화(洪貞花, 1957~)	312
김호중(金浩中, 1956~)	224	강구철(姜求鐵, 1958~)	314
나진기(羅鎭其, 1956~)	227	고영환(高榮煥, 1958~)	317

김기택(金基澤, 1958~)	320	류영석(柳泳奭, 1959~)	378
김난희(金蘭姬, 1958~2016)	323	박애정(朴愛正, 1959~)	380
김영호(金永鎬, 1958~)	325	박완용(朴完用, 1959~)	383
노상균(盧尙均, 1958~)	328	복종순(卜宗淳, 1959~)	385
도병락(都秉洛, 1958~)	331	안병국(安炳國, 1959~)	388
류승애(柳勝愛, 1958~)	334	양병호(梁炳浩, 1959~)	390
박상국(朴尙局, 1958~)	336	엄기환(嚴基煥, 1959~2014)	392
심웅택(沈雄澤, 1958~)	338	유경자(柳京子, 1959~)	394
심응길(沈應吉, 1958~2013)	340	유천균(庾天均, 1959~)	396
안의종(安義鍾, 1958~)	342	이순구(李淳求, 1959~)	399
윤승호(尹承鎬, 1958~)	345	이영배(李永培, 1959~)	402
윤양숙(尹良淑, 1958~)	347	이응우(李應雨, 1959~)	404
이근희(李根喜, 1958~)	350	이장원(李長遠, 1959~)	407
이종관(李鍾貫, 1958~)	352	이진자(李鎭子, 1959~)	409
이종호(李鍾浩, 1958~)	355	이창민(李彰民, 1959~)	412
이창수(李昌洙, 1958~)	357	이헌구(李憲九, 1959~)	414
정구인(鄭求仁, 1958~)	360	임의수(林義洙, 1959~)	417
조재성(曹在成, 1958~)	362	전형주(全炯柱, 1959~)	419
최무용(崔武鎔, 1958~)	364	정광호(鄭廣鎬, 1959~)	422
한정수(韓楨洙, 1958~1998)	367	정대영(鄭大永, 1959~)	425
허 강(許疆, 1958~)	369	정태궁(鄭泰宮, 1959~)	428
가국현(賈局鉉, 1959~)	372	진정식(陳正植, 1959~)	430
강봉승(姜奉昇, 1959~)	374	황선익(黃善翊, 1959~)	433
노재경(盧載京, 1959~)	376		
III. 참고문헌	435		
IV. 색인	441		

김기반(金基班, 1950~)



김기반, 〈기억된 풍경〉, 2013, 폴리에스테르· 혼합재료, 42×58cm, 작가 제공

김기반은 1950년 충청남도 서천 출생으로 금강변 작은 마을에서 농부 겸 목수의 장남으로 태어났다.¹ 서울 소재의 미술대학교에 진학하려 했으나 부친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교편을 잡았다. 그러나 신학에 뜻을 두고 한성신학대학(현 한민학교)에 편입했지만, 중퇴한 뒤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 1971년부터 36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한남대학교 조형예술학부에 출강하다가 작품 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교

편을 내려놓고 명예퇴직했다. 교직 첫해인 1971년 충남 대천에서 첫 개인전을 연 이후 현재까지 20회 가까이 개인전을 열었으며, 국내외 단체전과 초대전에 400회가 넘게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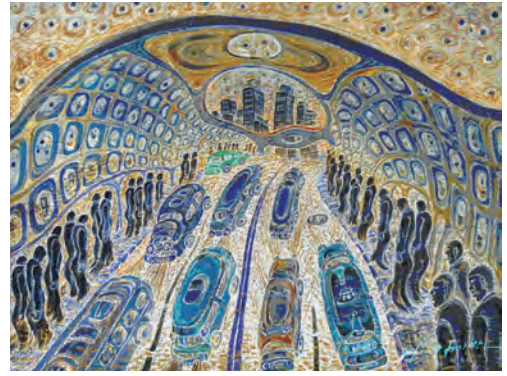
초기 작품은 반구상의 유화 작업을 주로 했지만, 점차 표현 도구를 확장하고 재료의 변화를 추구했다.² 컴퓨터 칩과 알루미늄 호일 등을 활용한 입체작품을 비롯해 황토를 이용한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작품세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신(神)과 삶에 대한 의구심과 갈등을 주제로 기도, 십자가, 천지창조 등을 반추상으로 형상화한 유화를 그렸다. 그 후 ‘무한대로의 여행 저 끝’이라는 주제로 캔버스에 매직펜을 활용한 검은 화면과 빛의 형상이 표현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바다의 녀》이라는 연작을 그리다가 시골 바닷가에서 수집한 재료를 활용해 입체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는 한국교원대학원에 입학한 이후 조소를 전공하면서 관화도 익혔으며, ‘변이형상성’이라는 주제로 설치미술을 시작했다. 2000년대에는 흙을 주재료로 사용한 작업을 하며 땅·물·불·바람 이 네 가지 생명의 이미지를 화면에 구현하고자 했다. 2004년 이후 환경 보존 프로젝트로써 회화(繪畫, Paintings)·부조(浮彫, Relief)·사진(寫眞, Picture)·실물(實物, Object)을 결합하는 방식을 탐구해 ‘회조사실(PRPO)’ 기법을 창출했다. 이 기법은 여러 가지 표현재료를 넣고 폴리에스테르로 투명하게 굳힌 다음 그 위에 채색과 조각으로 입체감을 살린 독특한 표현 방식이다.

1 김종영, 「흐르지 않는 예술은 썩는다」, 『사람과사회』(2019. 2. 8); 「17일까지 서양화가 김기반 개인전」, 『금강일보』(2015. 11. 9).

2 김기반 작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kimkiban/221758439540>

2010년 이후에는 화석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시도해 화석과 컴퓨터 칩으로 입체작품을 제작했다. 이 작업 후에는 다시 평면 회화로 돌아가, 캔버스에 유채가 아닌 한지에 수묵 채색을 사용해 《도시사원》 연작을 그렸다. 이 연작에는 거리의 사람들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대단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2015년에는 《생성-사랑 이야기》 연작을 발표하며 새로운 추상 이미지를 시도했고, 2017년 인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산화’라는 주제로 작업하던 중 ‘국제관화 레지던스 입주작가’로 선정되어 다시 관화 작업에 집중했다. 이렇듯 김기반은 50년 이상 화업을 이어오는 동안 삶과 생명의 본질을 향한 근원이라는 주제를 화두로 삼아 다양한 화풍을 시도하고 탐구해온 작가로, ‘늘 새로운 변화를 찾는’ 변화무쌍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³



김기반, 《도시사원-목적교》, 2021, 혼합매체, 96×131cm, 작가 제공

김기반은 대전시미술대전, 아시아미술대전,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등에서 심사위원을 맡았으며, 2017년에는 국제관화레지던스 입주 작가로 선정되었다. ‘2014대한민국’ 선정 작가상(미술과비평), 전국대학미전 우수상, 신미술대전 신미술상, 국제현대미술협회 IMAA상, 아시아미술대전 초대작가상, 대한민국아카데미미술대전 초대작가상, 한국미술협회대전지부 창작상, 문화체육부장관상, 녹조근정훈장 등 수상경력도 화려하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조형연구소 연구원, 대전국제아트쇼 운영위원, 대전현대미술협회 회장 겸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연보

- 1950년 충청남도 서천 출생
- 1971년 공주교육대학교 졸업 / 《개인전》(대전, 양지다방)
- 1983년 한성신학대학 4년 중퇴
- 1986년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편입
《제17회 전국대학교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우수상 수상
- 1987년 《개인전》(대전, 중앙갤러리) / 《대전한발제 초대전》(대전시민회관)
- 1988년 《신미술대전》 신미술상 수상
《한국88올림픽 기획 초대전》(미국 L. A., K·T·E전시관)
- 1990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과 입학
- 1995년 문화체육부장관상 표창 / 《대전미술 50년전》(대전시립미술관)

3 「김기반 드로잉 세계 삶의 근원에 대한 질문 담아냈다」, 『중도일보』(2019. 10. 22).

- 1996년 현대미술교류회 운영위원장 역임 / 《현대미술 교류전》(대전시민회관)
- 1999년 《JAPAN·KOREA전》(일본 교토, 나침반(羅針盤) 화랑)
- 2000년 한국미협대전지회 창작상 수상
《한국현대미술18인초대전》(일본, 物語갤러리)
- 2003년 부총리겸교육인전자원부 장관상 수상
《자유의지 & 현상이동전》(대전, 우연갤러리)
- 2004년 대전현대미술협회장, 현대미술청년작가위상전 추진위원장 역임
- 2006년 국제현대미술 IMAA상 수상 / 《현대미술 중심전》(대전, 우연갤러리)
- 2008년 녹조근정훈장 수훈 / 《북경미술학원 초대전》(중국, 북경미술학원 전시실)
《국제현대미술제 개인초대전》(인도 뉴델리, Nandi house)
《개인전》(대전, 우연갤러리)
- 2011년 《개인전》(대전, 우연갤러리) / 《장춘 동아시아미술축제 부스전》(중국, 장춘도서관)
- 2012년 《뉴욕 어포터블 아트페어》(미국 뉴욕, gallery Tableau)
- 2013년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대한민국아카데미미술협회 초대작가상 수상
《프랑스 천년의 숨결전》(프랑스 옹플뢰르, Honfleur salt창고 14600)
《대한민국미술대전 'K-아트프로젝트' 선정작가 개인 초대전》(서울, 예술의전당)
《개인전》(서울, 한국미술관)
- 2014년 《개인전》(독일 드레스덴) / 《아! 대한민국초대전》(서울, 갤러리 미술세계)
‘2014대한민국’ 선정 작가상(미술과 비평)
《밀라노엑스포 현대미전》(이탈리아 밀라노, Uiuille cle ricl)
《이스탄불 코리아아트쇼》(터키 이스탄불, Cennet문화원)
《한국·러시아초대전》(러시아, 태평양대학)
- 2015년 《개인전》(청주, 갤러리H) / 《독일 Cologne 아트페어》(독일 쾰른, Staaten haus)
《캐나다·코리아 아트 페스티벌》(캐나다 토론토, D. Carrier art gallery)
- 2016년 《개인전》(독일 드레스덴, Kunstlerbund)
《Korea-India 초대전》(인도, Hauz khas-16)
- 2017년 국제판화레지던시 입주작가로 선정
《Korea Live Art Fair-KLAF 초대 개인전》(프랑스 옹플뢰르)
《오사카시립미술관 특별 초대전》(일본, 오사카시립미술관)
- 2018년 충청예술문화 초대작가상 수상 / 저서 『김기반 드로잉 세계 1』(오늘의문학사) 출간
대전현대미술협회 회장, 《대전시미술대전》 서양화 부문 심사위원장 역임
《한국·몽골작가교류전》(몽골국립미술관)
- 2019년 개인전 《삶과 생명의 본질을 향한 존재론적 근원 찾기》(대전갤러리)
대전광역시장상 미술부문 문화예술공로상 수상 / 《전국보문미술대전》 심사위원장
- 2021년 한국미술역사관 초대작가 및 한국미술진흥원 초대작가로 선정
- 2022년 대전원로작가 《화연전》(대전, 갤러리 탄)
부스 개인 초대전 《양데팡당전》(경기도 일산, 킨텍스)

김정호(金正鎬, 1950~)

김정호는 1950년 대구 출생으로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을 졸업한 이후 1976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입학해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¹ 초창기 대전구상작가협회 창립 회원으로 활동했고, 34년간 논산 선별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1978~1982년까지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특선을 5번 받았고 교직에 재직하는 동안 교육감 표창 및 지도교사 표창을 여러 차례 수상했다. 2000년 초대개인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14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1978년부터 지금까지 500여 회에 가까운 단체전과 초대전에 참여했다.



김정호, 〈동네-情 I〉, 1987, 캔버스에 유채, 72.7×90.9cm
(출처: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김정호는 ‘한국인의 얼’이라는 주제로 추상과 구상을 넘나들며 다양한 경향의 작품을 제작했다. 1987년 작품인 〈동네-情 I〉은 언덕에서 내려다본 동네의 모습이 묘사되었는데, 지그재그로 연결되는 가옥의 지붕들이 사실적인 기법을 기반으로 했지만, 기하학적인 추상화를 보는 듯하다.² 2000년대 들어 개인전을 통해 자연풍경과 내면의 심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발표했는데, 마치 화면 바탕에 모래를 뿌려놓은 것 같은 울퉁불퉁한 마티에르와 색조에서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후 2010년 개인전에서는 표면의 질감을 이전과 같이 표현하면서도 토기, 달, 피리, 도자기, 고목, 누런 소 등이 새롭게 등장하거나 사물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중첩되는 형상으로 묘사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작품 배경에는 기하학적 문양을 배치하기도 하고 사물들을 나란히 또는 반복해서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적인 소재를 화면에 구성했다. 특히 도자기 안에 한국적 소재의 학이나 소나



김정호, 〈경년백호〉, 2009, 캔버스에 유채, 45.5×53cm(출처: 김정호 홈페이지. <https://ace2097.wixsite.com/kim-jeong-ho/home>)

1 「자연을 품다」 김정호 화가 청암아트홀 개인전, 『세종포스트』(2019. 9. 26).

2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대전시립미술관, 2008), p. 131.

무 등을 그리거나 과일을 긴 그릇에 나란히 배치하는 등의 표현은 1975년부터 15년간 목원대학교에 출강했던 박창돈(朴昌敦, 1928~2022)의 작품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2016년 개인전에서는 '계룡의 사계(山)'라는 제목으로 계룡산과 전국 명산의 풍경을 담아 전시를 개최했다. 2019년에는 세종시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자연을 품다'라는 주제로 소나무와 어우러진 풍경을 담은 유화 30점을 선보인 바 있다.³

대전구상작가협회, 영우회, 화연전(畫緣展) 등에서 활동해 왔으며, 2022년 현재 대전·충청남도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보문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대전국제아트쇼 자문위원, 대전구상작가협회 고문 등을 역임하고 있다.

연보

- 1950년 대구 출생
- 1969년 서라벌예술대학교(현 중앙대학교) 입학
- 1976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입학
- 1978~1982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연속 5회 특선 수상
- 1978~1999년 지도교사 표창
- 1988~1999년 《대전·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전》
-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 햇불대제전》(천안시민회관)
- 1996년 《한발 어제와 오늘전》(대전시민회관)
- 1998년 《대전회화전》(대전, 한림갤러리)
- 1999년 《자연의 숨결전》(대전, 한림갤러리)
- 2000년 《초대개인전》(대전, 갤러리 호텔롯데)
- 2004년 《초대개인전》(대전, D.K&WORLD)
- 2010년 《개인전》(대전, 롯데갤러리)
- 2012년 《초대개인전》(대전, 우연갤러리)
- 《대전미술제-대전미협회원전》(대전시립미술관)
- 《한·중·일 신춘초대작가전》(서울, 디자인포장센터)
- 2013년 《초대개인전》(프랑스 옹플뢰르 / 서울, 한국미술관)
- 2014년 《초대개인전》(대전, DK&WORLD) / 《독일 드레스덴 아트페어》
- 2016년 초대개인전 《계룡의 사계(山)》(대전서구문화원)
- 2019년 《초대개인전》(세종, 청암아트홀)
- 2021년 《대전시미술대전》초대작가상 수상
- 2022년 《화연전》(대전, 갤러리 탄)

³ 대전중구문화원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djcc_or_kr/222657390525

남영자(南英子, 1950~)

호는 우란(友蘭). 1950년 12월 대전에서 출생하였고, 목원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하였다. 남영자는 남들보다 다소 늦게 미술을 시작하였으나, 조평휘(趙平彙, 1932~) 교수, 허진권(許鎭權, 1955~) 교수와 같이 좋은 스승과 동료들을 만나 1976년 화단에 데뷔했다. 이후 충청남도미술대전, 백양회 등에서 수상하였으며, 충청남도미술대전 및 대전시미술대전의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한국화회원으로도 참여하며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 활동을 펼쳤다.

남영자는 주로 자연 풍경을 소재로 한 수묵채색화를 그렸는데, 특유의 서정적이면서도 힘있는 터치로 개성있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1984년 《백인초대전》에 〈구릉(丘陵)〉을, 1991년에 《대전한국화회전에 〈산山〉을 출품하였다. 이후, 1996년 《제8회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에서는 작품 〈혹한(酷寒)을 보내며〉를 출품하였고, 1999년 《대전시립미술관초대전 '새 천년을 향한 도전'》에서 〈계절 I〉을 선보였다. 2001년 〈봄3〉으로 《제13회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에, 2006년 〈입암리의 가을〉로 《겸재와 함께하는 미술여행(겸재미술상 수상작가 및 제자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이외에도 《충남미협전》, 《목목회전》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활발한 전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남영자는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¹



남영자, 〈계절 I〉, 연도미상, 한지에 수묵담채, 70×181cm, 작가 제공



남영자, 〈입암리의 가을〉, 2006, 순지에 수묵담채, 73×54cm, 작가 제공

1 작가 제공.

연보

- 1950년 대전 출생
- 1975~1990년 《대전 한국화회 창립전 및 회원전》에 참여
- 1977년 《대전시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우수상 수상
《백양회전》 입선
- 1979년 목원대학교 한국화전공 졸업
- 1979~2000년 《목목회 회원전 및 목원대학 동문전》에 참여
《대전시미술대전》에 참여
- 1980년 《충남미협전》(대전시립미술관)
《천안시 미술교사전》(천안시립미술관)
《향토작가 초대전》(대전시립미술관)
- 2006년 《겸재와 함께 하는 미술여행》(서울, 세종문화회관)
- 2020년 《한국조형미술협회 정기전》(대전, KBS 갤러리)
- 2022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 중

박권수 (朴權洙, 1950~2005)

1950년 충청남도 서천에서 태어난 박권수는 한산중학교와 서천고등학교를 다녔고, 1970년 홍익대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했으며 1977년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2년 서울 미술회관에서 ‘소외된 인간조건의 군상’을 무채색의 자화상으로 표현한 작품들로 첫 개인전을 가졌다. 1986년 미국 뉴욕 바자렐리센터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1990년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러시아의 모스크바 프롤레타리아 뮤지엄에서 초대전을 열어 화제를 모았다.¹

1978~1985년에 제작한 작품들에서는 극한의 상황에 놓인 인간의 모습을 자화상을 통해 표시했다. 박권수는 주로 고뇌하는 인간의 이미지와 구원받는 인간 형상을 표상한 작품들을 제작했다. 이 작품들은 단색으로 처리된 배경 위에 등장한 ‘박권수와 박권수들’로 화면이 구성되었는데, 회색조의 인물이 화면을 가득 채운 대형작품이 주를 이루었다. <UNTITLED>(1984)에 등장하는 흰옷을 입은 인물들은 실제 작가 자신의 모습을 대변한 것으로, 화면에는 단색으로 표현된 같은 얼굴의 인물이 동작을 달리하며 군상을 이루고 있다. 이 작품은 각각의 인물에게서 느껴지는 어두운 정서가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게 묘사되어 주목을 받았다.²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제작한 평면 회화에서는 유년 시절 보았던 옛 동산의 풍광과 소나무 형상을 배경으로 하여 소외된 인간상을 표현했다. 소나무를 붉게 채색하고 자화상을 그려 넣은 화면이 한결 밝고 따스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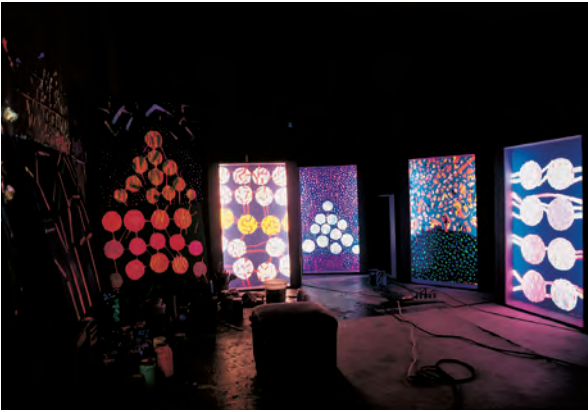
1988~1991년에는 네온 컬러(Neon Color)로 작품을 제작해 블랙 라이팅(Black Lighting)을 이용한 대형 평면작품을 창작했고, 크고 작은 상자 형태들로 작품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국내에서 주목받았다.



박권수, <UNTITLED>, 1984, 캔버스에 유채, 220×740cm, 유족 제공

1 「목숨보다 그림을 더 사랑했던 사내를 그리며...서양화가 故 박권수 유작전」, 『국민일보』(2014. 10. 30).

2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mmca.go.kr/collections/collectionsDetailPage.do>



박권수, 'Black Lighting과 Neon Color'로 연출한 전시 전경, 1992, 각 나무박스, 90×30×120cm, 유족 제공

1991년부터는 일본 도쿄(東京)의 무라마쓰 갤러리와 나고야의 APA 갤러리의 전속작가로 활동했다. 이 시기 작가는 네온 라인을 이용한 네온칼라 페인팅과 아크릴로 채색한 33.4×24.2cm 크기의 작은 작품들을 독립적으로, 또는 하나의 유닛(Unit)이 되는 크고 작은 화면을 구성하는 형식의 작품을 제작했다. 이러한 독특한 작업 방식으로 박권수는 국내에서 최초로 평면 미디어아트를 창시했다고 평

가받는다. 또한 캔버스 위에 여러 재료를 오브제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나무의 질감을 살리거나 거친 질감의 삼베 등을 사용해 표면 질감이 강하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구조전, 현상전, 인간전, 오리진 등의 단체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치열한 삶을 살았던 박권수는 간암으로 투병하다가 2005년 55세의 나이로 작고했다. 작고 후 2013년 박권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졌으며, 2015년에는 서천문화원과 서울 아라아트센터에서 《10주기 추모 유작전》을 개최해 박권수의 작품세계와 작품에 깃든 미학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연보

- 1950년 충청남도 서천(한산) 출생
- 1970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입학
- 1977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학과 졸업
《박권수·최효순 2인전》(서울, 서울화랑)
- 1978~1986년 《구조전》(서울)에 참여
- 1981년 《싸롱 청년작가 표현전》(프랑스 파리)
《싸롱 비판적 형상전》(프랑스 파리)
- 1981~1986년 《미술의 제전, 동경전》(일본, 동경미술관)
- 1982년 《개인전》(서울, 미술회관)
《한국현대미술 80년대 조망전》(서울, 미술회관)
《제14회 까뉴 국제회화제》(프랑스 까뉴)
- 1983년 《청년작가전》(국립현대미술관)
- 1984년 《미술의 제전, 수상작가전》(일본, 동경미술관)
- 1984~1987년 《인간전》(서울)에 참여
- 1985년 《개인전》(서울, 전화랑 / 후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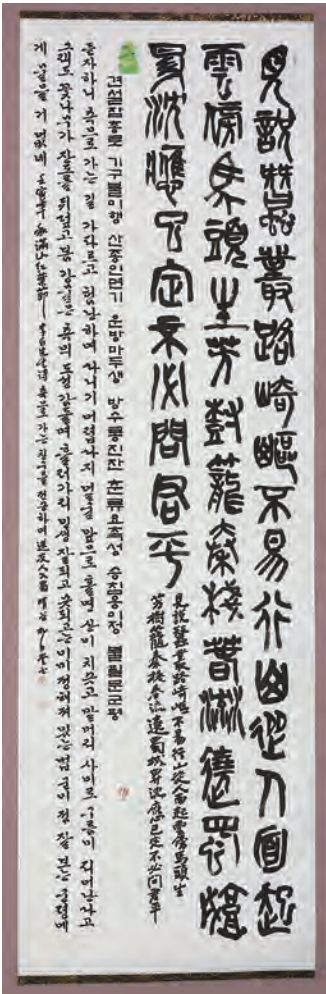
- 1986년 《개인전》(미국 뉴욕, 바자렐리 센터)
- 1986~1987년 《에폴드 서울전》(서울)에 참여
- 1986~1989년 《오리진회화협회전》(서울, 일본, 대만)에 참여
- 1987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졸업
 《12인의 한국작가전》(이탈리아 로마, 라꼬스띠니아 화랑)
 《제7회 스톡홀름 아트페어》(스웨덴 스톡홀름)
 《제9회 뉴욕 아트페어》(미국 뉴욕)
- 1987~1989년 《제2회 오늘의 국제미술전》(헝가리 부다페스트)
- 1988년 《아르코 '88》(스페인 마드리드)
 《개인전》(서울, 현대갤러리)
 《개인전》(미국 뉴욕, 에밀레오나르드 갤러리)
 《서울올림픽 기념 한국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
- 1989년 《개인전》(서울, 현대갤러리 / 광주, 인제미술관 / 서울, 미술회관)
 《개인전》(미국 뉴욕, 에미르롯 갤러리)
- 1990년 《개인전》(서울, 현대갤러리 / 서울, 백송화랑, / 대구, 세일화랑)
 《개인전》(러시아, 모스크바 프로레타리아 MUSEUM)
- 1991년 《개인전》(일본 도쿄, 무라마쯔 갤러리 / 미국 LA, NEON ART MUSEUM))
- 1992년 《개인전》(서울, 최갤러리 / 일본 도쿄, 무라마쯔 갤러리))
- 1993년 《개인전》(일본 나고야, APA 갤러리 / 일본, 시모노세키 갤러리)
- 1994년 《개인전》(대구, 세일화랑) / 대구, 남경화랑)
- 1995년 《개인전》(일본 나고야, APA 갤러리 / 서울, 최갤러리)
- 1996년 《개인전》(서울, 인더루프갤러리 / 서울, 최갤러리)
- 2000년 《개인전》(서울, 인더루프갤러리)
- 2001년 《개인전》(일본 나고야, APA 갤러리 / 서울, 갤러리 다임)
- 2003년 《개인전》(서울, 서림화랑)
- 2005년 작고

박일규 (朴日奎, 1950~)

호는 청곡(晴谷). 1950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한 박일규는 1984년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전 삼천초등학교, 산내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고, 2014년 대전 둔산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정년퇴임했다. 대전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제1회 한밭교육상’을 수상했으며, 정년 퇴임 후 대통령황조훈장을 수훈했다.

스승 임재우(林裁右, 1947~)로부터 배운 글씨와 전각을 연마해 1991년 《대한민국미술대전》 한문서에 부문에서 입선을, 이듬해 《대한민국미술대전》 한문서에 부문에서 특선을 수상했다. 1984년 《제1회 청곡 박일규 서예전》을 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13회의 개인전을 열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4년간 ‘충남서예가협회장’을 역임했으며 2014년부터 지역 언론사인 『충청투데이』에서 「박일규의 서예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2019년에는 만 개의 인장을 모아 전시하는 《중국 만인루 전각 공모전》에 〈순온이륜(純溫以倫) 둔민이종(鈍悶以終)〉과 〈관해자(觀海者) 난위수(難爲水)〉 작품을 출품하여 명가 칭호를 받았다.¹ 현재는 대전평생학습관, 대전서구보훈회관에서 서예지도와 함께 청곡서예연구실을 운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박일규, 〈李白, 送友人〉, 2022, 종이에 수묵, 200×70cm, 작가 제공

1 최윤서, 「전 대표 서예가 청곡 박일규 '명가' 등극」, 『충청투데이』(2019. 9. 12).

연보

- 1950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84년 공주교육대학교 졸업
《제1회 청곡 박일규 서예전》
- 1985~1988년 보령 청라초등학교 부장교사
- 1990년 제1회 한밭교육상 수상
- 1991년 《대한민국미술대전》서예(한문부문) 입선 수상
- 1992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졸업
《대한민국미술대전》서예(한문부문) 특선 수상
- 1993년 《제8회 서예대전》(한문부문) 입선 수상
- 1999~2002년 대전 산내초등학교 교사
- 2002~2006년 서대전 중앙초등학교 교감 재직
- 2006~2019년 충남서예가협회장 역임
- 2009년 《제2회 청곡 박일규 교장 서예전》(대전시교육청 교육미술관)
- 2009~2014년 대전둔산초등학교 교장 재직, 정년퇴임
- 2010년 《제29회 대한민국미술대전》(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부문 초대작가
대전시미술대전 운영위원장 역임
특별공로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수상
- 2010~2019년 충남서예가협회장 역임
- 2013년 《제6회 청곡 박일규 서예전》(대전, 용운국제수영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전》(대전, 예술가의 집)
대통령 황조훈장 수훈
- 2014년 《제7회 청곡 박일규 서예전》(대전, 대흥침례교회)
《2014 갑오신년 서예초대전》(대전, MBC갤러리)
- 2014년~현재 「박일규의 서예이야기」, 『충청투데이』에서 연재
- 2016년 《제9회 개인전》(서울, 아트플라자 갤러리)
《한국교장서화가전》(서울, 인사아트플라자 갤러리)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전》(대전예술가의 집)
- 2017년 CMB 대전방송,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의 예술인들」 방영(2017. 11. 16)
- 2018년 KAFA 아트페어축전 《제12회 청곡 개인전》(일산, 킨텍스)
- 2019년 《중국 만인루 전각 공모전》(중국 웨이팡시(濰坊)) 참여, 명가 칭호 제수
- 2022년 《제14회 개인전》(서울, 한국미술관)

손화동(孫和東, 1950~)



손화동, 〈향(郷)-98〉, 1998, 캔버스에 모래와 유채, 53×45.5cm(출처: 『한국현대미술 100인 초대전』, 월간미술 시장, 1999)

1950년 충청남도 당진에서 태어난 손화동은 독학으로 그림을 익혔고, 1970년 문교부 중등학교 미술교사 전형 검정시험(서양화 부문)에 합격하며 미술교사의 길을 걸었다. 온양중학교, 영인중학교, 당진중학교, 합덕중학교, 고대중학교, 순성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했고, 2012년 원당중학교에서 교사로 퇴임하며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1973년 당진의 미술교사들이 모여 ‘청림회’ 창립전을 열었을 때 참여했다. 당시 미술 단체의 불모지였던 당진 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손화동은 1974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입선했으며, 1980년 당진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1982년

‘학동인회’가 조직될 때 창립 멤버로 참여해 당진 지역 미술 교사들과 교류하며 화업의 길을 이어갔다. 이후 《학동인전》을 비롯해 《신형상전》, 《향토청년작가초대전》, 《충남작가초대전》, 《남부현대미술제》, 《오늘의 한국미술전》, 《아름다운 금강전》, 《이신회전》 등 여러 단체전에 참여했다.

화업 초기였던 1970년대 초반부터 손화동은 한국의 정서가 담긴 대상을 소재로 형태, 선, 색채, 무늬 등에서 느낀 운치와 분위기를 새로운 조형언어로 찾아내는 작업을 시도했다.¹ 캔버스에 모래를 입히기도 하고, 나이프를 사용한 작업도 시도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아크릴을 활용해 한국적인 이미지를 일련의 연작으로 화폭에 담았다. 이후 다시 모래 작업으로 전환해 모래를 섞은 유화물감을 사용해 거친 질감을 바탕에 구현한 후, 그 위에 향토성 짙은 형상을 강렬한 색채로 그려 작품을 완성했다.

손화동의 작품에는 나무와 초가, 둥근 언덕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림에 표현된 도상들은 모난 구석 없이 모두 부드러운 형태다. 한 화면 안에 같은 계열의 색조를 조화롭게 구성하면서 두터운 질감으로 표현한 시골풍경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손화동은 이처럼 토속적 조형미가 담긴 작품 세계를 펼치며 40여 년간 당진 지역 서양화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¹ 「아틀리에 에세이, 화가 손화동」, 『당진시대』(2000. 5. 22).

연보

- 1950년 충청남도 당진 출생
- 1970년 문교부 중등학교 미술교사 전형검정 합격
- 1973년 《청립회전》창립에 참여
- 1974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입선
- 1979~1982년 《구상전》에서 입선
- 1980년 《손화동 개인전》(당진)
- 1982년 《82-3인전》(당진)
- 1982~1996년 《학동인전》(당진)에 참여
- 1983~1984년 《신형상전》(서울, 아람미술관)에 참여
- 1984~1989년 《충남중등미술교사 교직원 작품전》에 참여
- 1985년 《kis85국제현대미술전》(진주) / 《창립 형상전》(대전시민회관)
《제3갤러리개관 2주년 기념전》(서울, 제3갤러리)
- 1986년 《충남작가초대전》(서울, 경인미술관)
- 1987년 《향토청년작가초대전》(대전)
- 1991년 《충남중등미술교사 교직원 작품전》에 참여
- 1992년 《향토작가초대전》(당진) / 《이신회전》(대전, MBC문화공간)
- 1996~1997년 《남부현대미술제》(천안, 대구)
- 1999년 《오늘의 한국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 / 《5월 미술축제》(서울, 미즈갤러리)
《미즈갤러리 5인 초대전》(서울, 미즈갤러리)
《현대미술 100인 초대전》(서울, 덕원미술관)
- 1999~2000년 《한국미술전》(서울, 관훈미술관)
- 2000년 《밀레니엄 4인 초대전》(서울, 미즈갤러리)
- 2001년 《5월 미술축제》(서울, 미즈갤러리)
- 2002년 《당진미술교과 중등작품전》(당진)
《전국소년체전기념 초대전》(천안)
- 2003년 《천안 작가 100인초대전》(천안, 현민갤러리)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회원전》(천안)
《천안작가 100인 초대전》(천안)
- 2005년 《KAF 2005 코리아아트 페스티벌》(세종문화회관)
《당진 문예의전당 개관 초대전》(당진, 문예의전당)
《한국미술협회 충남도지회전 및 당진미협전》(당진, 문예의전당)
《제1회 충남 출향작가 및 향토작가 초대전》(당진, 문예의전당)
- 2012년 원당중학교에서 정년 퇴임, 황조근정훈장 수훈

임선빈 (任先彬, 1950~)



임선빈, 〈무등을 태우고〉, 1983, 은행나무, 22×22×42cm, 작가 제공



임선빈, 〈꿈을 꾸다〉, 2009, 참죽나무, 23×12×83cm, 작가 제공

1950년 충청남도 보령에서 출생한 임선빈은 국민학교 재학 중 쓴 그림일기로 담임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대표로 사생대회에 나가 입상을 하였으나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의 권유로 미술대학이 아닌 공주교육대학에 진학하였다. 당시 공주교육대학 미술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던 조각가 황교영(黃敎泳, 1939~1986) 교수의 목조 작품을 보고 목조각에 매료되었고 개인지도를 받으면서 더욱 조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임선빈은 대학 졸업 후 교사로 취업을 하는 대신 조소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1974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에 편입해 윤영자와 남철(南徹, 1936~2017)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대학 재학 중 1975년 《전국대학미술대전》에서 동상, 1976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1983년 작품 〈무등을 태우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체가 지닌 다양한 표현성을 조형언어로 구현하는 인체 조각을 주로 제작해왔다. 전체적인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얼굴·손·발 등 세부는 단순화 또는 추상화하는 점이 임선빈 조각의 특징이다.¹ 임선빈의 작품은 경건함·평화·소망·사랑·화목과 같은 종교적 체험으로 승화된 인간의 숭고한 감정을 담고 있다. 표현된 감정을 읽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형태만 남긴 절제된 양식때문에 작품은 동적이기 보다는 정적이다.

이후 공개한 작품에는 운동감을 부여하면서 오히려 각진 형태의 새로운 조형적인 해석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였다. 2009년 ‘자연과의 만남 그리고 공존의 세계’라는 부제의 개인전에서 20여점의 목조각을 선보였는데, 나뭇결이 지닌 순수함과 부드러운 질감을

¹ 신항섭, 「임선빈 초대전에」, 『임선빈 초대전』(대림화랑, 1992).

잘 살린 것으로 평가받았다. 2009년 작품 <꿈을 꾸다>에서 느낄 수 있듯 동체의 안정적인 곡면과 불륨에 대응하는 각 면의 설정은 새로운 시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임선빈은 조각가로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조각가협회장, 대전·충남지회장 등을 맡아 대전·세종·충남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연보

- 1950년 충청남도 보령 출생
- 1974년 공주교육대학 졸업
목원대학교 미술대학에 편입(1978년 졸업)
- 1975년 《제4회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 산강화랑)에서 <염원> 특선
《제5회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에서 <모정>으로 특선
《전국대학미전》(서울대학교 강당)에서 동상
- 1976~1988년 《제25~30회》국전과 《제17회 미술대전》에 연달아 11회 입선
- 1976년 《제6회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강당)에서 <비향>으로 최우수상
- 1977년 《제7회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여상강당)에서 <토르소-6>으로 추천작가상
- 1979~2017년 《개인전》(대전, 남계화랑 / 서울, 관훈미술관 등)을 18회 개최
- 1980년 계명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조소 전공) 졸업
- 1981~1984년 《국제아시아 현대미술전》 3회 연속 입선
- 1982~1988년 《충청남도미술대전》심사위원 역임
- 1985년 《목우회 공모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생류> 특선
《제1회 한국조각가협회 창립전》(서울갤러리)
- 1986년 《한국조각가 100인 초대전》(서울, 관훈미술관)
- 1987년 《한·일 교류 목우회전》(국립현대미술관)
- 1989~2022년 대전시미술대전·충청남도미술대전 운영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조각부문 심사위원
특허청 특허 기술상 디자인부문 심사위원 역임
- 1993년 《엑스포기념 야외조각전》(갑천 야외광장)
- 1996~1997년 사단법인 대전조각가협회장 역임
- 2002년 충청남도교육청 공모당선 CI 제작(로고·심볼마크·마스콧)
- 2004~2022년 모산조형미술관 관장 역임
제1회 보령국제조각심포지움 예술총감독(모산미술관) 역임
- 2009~2015년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조형문화연구소장
안건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 2010~2013년 사단법인 한국예총 충청남도지회 연가지부장 역임
- 2010~2015년 사단법인 한국전업미술협회 대전·충남지회장 역임

- 2012년 한국예총 공로상 수상(한국예총)
- 2013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선정(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조각 부문(국립현대미술관) 심사위원장
《임선빈 조각초대전》(세종, 소피아갤러리)
- 2013~2014년 모산미술관 WCAS 세계문화예술제 예술총감독 역임
- 2014년 한·중 대표작가 초대 《제15회 조각개인전》(북경, 주중한국문화원)
- 2014~2021년 사단법인 한국예총 세종시연합회장 역임
- 2016년 《제17회 한국전업미술상 수상기념 조각개인전》(대전, 예술가의집)
- 2018년 《2018 한국현대조각초대전》(춘천, MBC 호반광장)
- 2019~2022년 세종시문화재단 이사 역임
- 2020년 스포츠서울 2020 Innovation 기업&브랜드 문화·예술부문 대상 수상
- 2021~2023년 사단법인 한국조형미술협회 이사장 취임
- 2022년 세종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세종특별자치시) 재임

임옥상(林玉相, 1950~)

1950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난 임옥상은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나와 1974년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9년부터 광주교육대학과 전주대학교에서 13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1986년 프랑스 앙굴렘 미술학교를 졸업했다.¹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민족미술협회 대표를 역임했으며, 1980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 ‘현실과 발언’ 동인으로 활동했다.

1970~1980년대에 민중미술 운동을 주도했던 임옥상은 회화를 비롯해 사진, 영상, 입체, 퍼포먼스, 공공미술, 미술교육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예술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작업하는 작가다. 농촌풍경, 땅, 기지촌, 농민과 노동자의 생활, 아프리카 민족의 역사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제작했다. 유화를 비롯해 종이부조와 흙을 재료로 한 조각과 철을 주재료로 활용한 조형물 등 임옥상의 작품은 형식과 주제가 다양하다. 특히 1980년대 초반 전주의 한지 공장에서 한지를 발견하고 오랜 기간 한지를 활용한 종이부조 작품을 제작했다.

1984년부터 1986년까지 프랑스 앙굴렘미술학교에 유학하면서 초대형 두루마리 그림 <아프리카 현대사>를 제작했는데, 이는 한국의 현대사를 아프리카의 역사에 투영한 것이다. 정치적 격변기였던 1980년대 실제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들을 다루었던 임옥상은 1990년대 들어 분단된 한국의 현실과 다양한 시대적 이슈들을 작품화했다. 임옥상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주제 중 하나가 땅으로, 흙을 재료로 활용해 땅의 사회학적 측면을 작품에 담았다.² 즉 미술의 재료로 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흙으로 만든 캔버스, 흙 물감, 흙 회화와 흙 부조를 발명했으



임옥상, <보리밭>, 1983, 캔버스에 유채, 98×134cm, 개인 소장



임옥상, <귀로>, 1983, 종이부조에 먹·채색, 190.5×284×10.3cm, 서울시립미술관(가나아트 이호재 기증, 2001)

1 임옥상 미술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oksanglim.com/index.php>

2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s://sema.seoul.go.kr/>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 2022, 흙·혼합재료, 200×200×10cm(36), 1,200×1,200×10cm(전체), 국립현대미술관 제작 지원

며, 논바닥을 탁본해 벽에 걸기도 했다.³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술관 밖’으로 나가 이벤트, 설치, 퍼포먼스 등 다수의 현장 참여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소외된 계층의 현실과 분단, 시대적인 화두를 작품으로 형상화했다.⁴ 2000년대 들어서는 공공미술과 공공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했다. 근래에는 민통선 내 통일촌 장단평야의 실제 논에서 ‘예술이 흙이 되는’ 형식을 빌려 일종의 환경미술 혹은 대지미술, 현장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이는 임옥상의 예술관이 총체적으로 담긴 실천의 장이라 할 수 있다.⁵

‘1세대 민중 미술가’로 사회 참여적 활동을 펼쳐왔던 임옥상은 꾸준히 물·불·흙·쇠 등의 물질세계를 풍경과 결합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옥상의 작품세계는 은유적 리얼리즘 회화, 직설적 정치사회 메시지 그림, 퍼포먼스, 참여프로그램, 공공미술, 설치, 흙산수, 대지미술, 환경미술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이처럼 임옥상은 50여 년의 화업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하고, 꾸준히 매체를 탐구하며 자신의 관심과 사회적 이슈를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다.⁶

1981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한바람》전이라는 이름으로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아프리카 현대사》(1988), 《임옥상 회화초대전》(1991), 《일어서는 땅》(1995) 등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다. 《민중미술 15년전》(1994), 《해방5주년 기념 민족미술전》(1995), 《한국미술 2001: 회화의 복권전》(2001)을 비롯한 많은 단체전과 기획전에 참여했다. 학원미술상(1985), 가나미술상(1992)과 토탈미술상(1993) 등을 수상했으며, 문화개혁 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평화예술인 국제연대, 갯벌살리기 문화예술인 모임에서 활동해왔다. 대중미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거리미술 이벤트 ‘당신도 예술가’를 진행했으며, 현재 임옥상 미술연구소 대표와 세계문자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다.

3 조선희, 「임옥상 전(傳)」,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국립현대미술관, 2022), p. 49.

4 아르코예술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t500.or.kr/blog/limoksang.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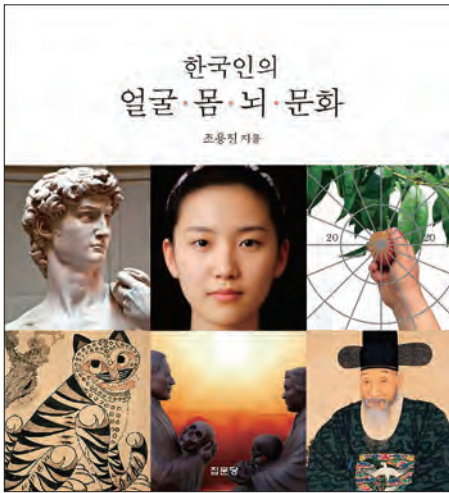
5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mmca.go.kr/exhibitions/exhibitionsDetail.do?exhFlag=1>

6 김형미, 「고착(固着)적 트라우마와의 유목(遊牧)적 대결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 위의 책, p. 77.

연보

- 1950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
- 197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72~1982년 《십이월전》에 참여
- 1974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졸업
- 1977~1982년 《제3그룹전》에 참여
- 1979~1981년 광주교육대학 교수 역임
- 1980~1990년 《현실과 발언 동인전》 참여
- 1981년 개인전 《한바람》(서울, 미술회관) 개최
- 1981~1992년 전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역임
- 1984년 개인전 《한바람 임옥상》(서울, 미술회관)
- 1985년 학원예술상 수상
- 1986년 프랑스 앙굴렘 미술학교 졸업
- 1988년 개인전 《아프리카 현대사》(서울, 가나아트갤러리)
- 1990년 개인전 《우리시대 풍경》(전주, 온다라 미술관)
- 1991년 개인전 《임옥상 회화 초대전》(서울, 호암갤러리)
- 1992년 가나아트상 수상
- 1993년 토탈아트상 수상
- 1993~1997년 민족 미술협의회 대표 역임
- 1994년 《민중미술 15년》(과천, 국립현대미술관)
- 1995년 개인전 《일어서는 땅 Rising Land》(서울, 가나아트갤러리)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호랑이 꼬리》(이탈리아 베니스)
- 1997년 개인전 《역사의 징검다리》(서울, 가나아트갤러리)
- 2000~2003년 《개인전》 연속 개최
- 2004년 《평화선언 2004 세계 100인 미술가》(과천, 국립현대미술관)
- 2006년 《한국미술 100년: 2부》(국립현대미술관)
- 2010년 베이징 비엔날레(중국 북경) / 《현실과 발언 30년》(서울, 인사아트센터)
- 2011년 개인전 《토탈아트: 물, 불, 철, 살, 흙》(서울, 가나아트센터)
- 2013~2016년 종로문화재단 이사 역임
- 2013~현재 평창문화포럼 이사 / (사)세계문자연구소 대표
- 2015년 개인전 《무릉무릉》(광주, 메이홀) / 《Lim Ok-Sang》(독일, Gallery Hana)
- 2017년 개인전 《바람 일다》(서울, 가나아트센터 / 미국 LA, CMay Gallery)
- 2019년 개인전 《흙》(홍콩, SA+ H Queen'sr) / 개인전 《흙의 소리 흙의 침묵》(미국 덴버, ASLD Art Students League of Denver)
- 2021년 개인전 《나는 나무다》(서울, 갤러리 나우)
- 2022년 개인전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조용진 (趙鏞珍, 1950~)



조용진 저, 『한국의 얼굴·몸·뇌·문화』, 집문당, 2019

미술해부학자. 얼굴박사로 불리는 조용진은 1950년 충청남도 서천에서 태어났다. 국민학교 3학년 때 담임교사의 영향으로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화가’하면 당시 극장 간판을 떠올렸던 어린 그에게 담임 선생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예술가가 돼라’고 가르쳤다. 이때부터 그림 그리기와 더불어, 해부학, 발명, 음악 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¹

조용진의 해부학에 대한 관심은 1968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에 입학하며 본격화되었다. 졸업 후 1972년부터 만 7년 간 가톨릭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조교로 육안해부학을 비롯하여, 신경해부학, 비교해부학 등 각종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한국적 미

술해부학의 정립을 위한 응용을 꾀했다. 작가는 첫 사체해부를 기억한다며, 화가로서 해부학에 입문하는 목적을 부신해진(剖身解眞-사람의 몸을 해부하여 자연의 진실을 풀어내다)으로 정하고 전율이 흘렀다고 술회하였다.²

이후 일본의 도쿄예술대학 미술해부학연구실에 미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꾸준히 미술해부학을 연구하여, ‘얼굴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다. 1982년 일본교육계의 뇌에 관한 학문적 동향에 자극받아, 문화유뇌론(文化唯腦論)³의 대중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했다. 특히 조용진은 한국인의 형질과 문화와의 상관성 연구를 위하여, 등고선 촬영장치를 사용하는 인체 계측법을 완성, 한국문화성에 대하여 계량화 연구를 시도하면서, 한국인의 기원과 용모의 나라별차, 민족차, 지역차, 시대차 및 씨족특징 등을 밝혀, 고인골의 복원두상, 선현의 얼굴, 한국인의 형질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⁴

또한 조용진은 홍익대학교, 서울 교육대학교, 한서대학교, 한남대학교 미술대학 등에서 강

1 「[문갑식의 하드보일드] 한국의 다빈치 조용진, 『조선일보』(2010. 6. 19); 「해부학에 빠진 화가... 先賢 재현하는 ‘얼굴 학자’로, 『조선일보』(2019. 3. 16).

2 「[내만사]의대 해부학교실에서 보낸 7년, 『청년의사』(2013. 7. 28).

3 조용진이 주장하는 이론으로, 언어, 미술, 음악, 무용, 스포츠 등 문화와 뇌의 관계를 살피어, 사람의 문화는 뇌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본다. 앞의 신문(2010).

4 「[J포럼 명사 인터뷰] 한국인 얼굴 탐구하는 조용진 한국형질문화연구원 원장, 『월간중앙』(중앙일보사, 2021. 3).

의를 맡아, 후학 양성에 힘쓰는 한편, 기업체, 공공단체, 교육방송 등의 미술교양강좌에 적극 참여하여 미술문화의 대중화에도 앞장서 왔다.

조용진은 한국형질문화연구원을 개설하여 지난 20년 동안 한·일 미술해부학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폭넓은 연구활동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조용진 한국인 대학’에서 꾸준히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여, 많은 이들에게 관련 지식을 전달하면서 한국적 미술해부학의 정립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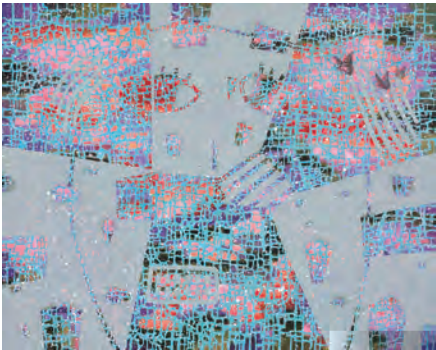
연 보

- 1950년 충청남도 서천 출생
- 1972년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 1972~1979년 가톨릭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조교 역임
- 1978년 홍익대학교 대학원(동양화 및 미술학 전공) 졸업
- 1979년 저서 『불상계측법』(성의출판사) 출간
- 1981~1984년 군산대학교 미술과 교수 역임
- 1984~2003년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
- 1986년 인체형상 계측법 완성
- 1989년 저서 『동양화 읽는 법』(집문당) 출간
- 1992년 저서 『우리 몸과 미술문화』(미술교육사) 출간
- 1994년 일본 도쿄예술대학 대학원 졸업, 미술해부학 박사학위 취득
- 1999년 저서 『얼굴, 한국인의 낮』(사계절) 출간
- 2001년 저서 『채색화 기법』(미진사) 출간
- 2002년 휴대용 등고선 촬영장치 개발. 시베리아 북방소수민족 형질연구
- 2003~2006년 한서대학교 교수 겸 부설 얼굴연구소 소장
- 2004년 한국인의 얼굴유형 DB 구축(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 2007년 저서 『미인』(해냄출판사) 출간
- 2008년 한국우주인 배출사업에 ‘미소중력상태에서의 얼굴변화’ 연구수행
- 2012년 고려 말 천문학자 <금현 류방택 표준영정> 제작
- 2014년 국내 기업의 시장개척을 위한 중국, 동남아 12개 도시 주민 형질연구
- 2015년 한국 뇌 연구원 상징 <뇌학자 군상조각> 제작
- 2019년 저서 『한국인의 얼굴·몸·뇌·문화』(집문당) 출간
- 2020년 문체부 국가표준영정 심의위원장 사퇴
충남 서산시 팔봉면으로 이사
‘조용진 한국인 대학’ 유튜브 채널 운영
- 2022년 <현동자 안전 흉상> 제작

황동희 (黃東喜, 1950~)



황동희, <나비의꿈(구절초와이상향)>, 2016, 캔버스에 유채, 130.3×97cm, 작가 제공



황동희, <마음의 얼굴1>, 캔버스에 혼합재료, 130.3×162.2cm, 작가 제공

황동희는 충청남도 천안 목천 출생으로 대전여자 중·고등학교와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했고 1972년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에 편입학해 서양화를 전공했다. 대전여자중학교 시절 윤후근(尹厚根, 1923~2008)에게 그림을 배웠고, 대학에서는 이지휘(李志輝, 1935~)에게 지도를 받았다. 서산중학교와 금산여자고등학교 등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결혼과 함께 서울로 이주했다. 6년간의 서울 생활 후 대전으로 다시 거주지를 옮겼다.

1984년부터 20여 년간 미술학원을 운영했으며 1991년 첫 개인전을 가졌다. 2005년 공주 신관초등학교에 교사로 부임했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대전 유평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이후 2013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조형미술학과를 졸업했다.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을 비롯해, 대전미술협회 여성특별위원회 회장, 대전사생회 회장, 신개념전 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전 지역 미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0년 대전미술협회 공로상과 대전시장 표창을 받았으며, 350회에 이르는 단체전에 참여하면서 2022년까지 부스전을 포함해 32회에 이르는 개인전을 가졌다.

초기에는 사실적 묘사를 통해 자연풍광을 주로 그렸으며 이후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작품세계를 보여

주는 황동희의 작품에는 나비, 꽃, 물고기 등 일련의 소재가 등장한다. 추상적인 이미지는 여러 번 물감을 겹치는 방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지우고, 덧그리고, 뿌리고, 긁고, 흘리는 등 다양한 표현기법을 구사한다. 다채로운 기법으로 표출한 이미지는 화려한 색채로 구성되어 색 그 자체만으로도 풍성한 화면을 연출한다. 최근 작업에서는 수직으로 붓 터치를 더해가며 화면을 부드럽게 처리하고, 눈이 내리듯이 물감을 흘뿌려 화면을 덮는 표현 기법을 활용해 환상적인 화면 분위기를 자아낸다. 평론가 신항섭에 따르면, “황동희 작가의 작업은 모더니즘과 추상표현주의가 가져온

장점을 잘 살리고 있다. 사실적인 형태 감각을 떠나 자유롭게 변형하거나 왜곡하는가 하면, 서정적인 추상으로 풍성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평가하면서 작품의 특징을 설명했다.¹

연 보

- 1950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
- 1970년 공주교육대학교 졸업
- 1970~1971년 조치원 대동초등학교 교사
- 1972년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편입학(1974년 졸업)
- 1975년 서산중학교 미술교사 / 《충청남도미술대전》 입선
- 1976년 금산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
- 1985~2002년 백조미술학원 운영
- 1987년 《제21회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
- 1990년 《한국미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
- 1991년 《개인전》(대전, 마음의고향 갤러리 / 프린스호텔 갤러리)
- 1992년 《대전시미술대전》 / 《금강미술대전》에서 입선
- 1993년 《개인전》(대전, 대화문화사랑)
- 1995년 《한발 어제와 오늘전》(대전시민회관) / 《대전미술의 어제와 오늘》(대전문화원)
- 1999년 《금강산 기행전》(롯데 갤러리 개관 기념 초대전)
- 2000년 《21C 대전미술의 미래 모색전》(대전시립미술관)
- 2001년 《구상작가회 한일 교류전》(대전시립미술관)
- 2002년 《개인전》(대전중구문화원)
- 2005~2015년 신관초등학교, 유평초등학교 교사 재직
- 2007년 《개인전》(대전, 대청미술관)
- 2009년 《대전미술 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
- 2010년 《개인전》(대전, 교육미술관)
- 2011~2013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조형미술과 졸업
- 2013년 《개인전》(대전, M갤러리) / 《국제 아트 페스티벌》(대전무역회관)
- 2013~2016년 《대전시미술대전》(대전시립미술관)에서 연속 특선
- 2014년 《대한민국미술제》(서울, 예술의전당)
- 2016년 《한일국제예술화전》(일본, 삿포로시 자료관)
- 2018년 《미술세계개관 34주년기념 초대개인전》(서울, 미술세계갤러리)
-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100인 초대전》(대전중구문화원)
- 2020년 《개인전》(대전, 명화갤러리) / 《2020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 2020~2022년 《새롭게 걷다전》(대전, M갤러리) / 대전미술제(대전예술가의집)
- 2022년 대전문화원연합회 회장 표창 / 《개인전》(대전, 이룸갤러리)

1 「황동희 개인전, 내 '마음의 창'을 연다」, 『충청매거진』(2020. 10. 24).

구권환(丘權煥, 1951~)



구권환, <토혼2014-Ⅳ>, 2014, 청자토, 33×33×28.5cm(출처: 『구권환 도예전』, 통인화랑, 2014)



구권환, <설백색 달 항아리>, 2016, 백자토, 33×33×27.5cm(출처: 『구권환 도예전』, 가나아트스페이스, 2016)

충청남도 서천에서 출생한 구권환은 1974년 공주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도예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에 재입학하였다.

구권환은 전통방식의 물레성형기법을 선호하며 일반인의 생활용기로 사용된 용기를 주로 제작한다. 항아리의 기본 형태를 만든 다음 전통 용기성형에서 주로 사용하던 방식을 적용해 넓적한 수레방망이로 기형의 밋밋한 외벽을 두드리고, 안에서 둥근 형태의 도개가 받아 주는 수레질을 이용해 항아리의 기벽에 활력을 넣으며 균열문, 빗살문, 격자문, 기하문, 마대문 등 다양한 문양을 표면에 새긴다.¹ 이러한 문양은 토기 시대부터 전해오는 것으로 전통에 대한 작가의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용기 특유의 색을 지닌 다양한 크기의 항아리를 주로 선보였던 구권환은 2014년 서울 통인화랑에서 개최한 <제5회 개인전>에서 전통적인 용기의 성형과 시유기법으로 이전에 제작하던 항아리보다 커다란 설백색의 달 항아리를 선보였다. 백자토를 재료로 수레질이 아닌 물레를 이용하여 만든 설백색의 달 항아리

는 이전에 주로 적용한 문양과 다르게 구름문과 물결문을 응용해 표현한 다음 건조와 초벌을 하고 다시 다듬고 유약을 바른 후 1250℃의 고온에서 구워 완성하였다. 작가는 달 항아리를 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달 항아리에서 둥근 보름달처럼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였다.²

1 최병길, 「작가와 작품 이야기-4」, 『통인미술』 (통인미술관, 2015 겨울), p. 30; 수레질은 독(옹기)을 만들 때 흙가래를 쌓아가면서 그 흙을 수레라는 도구를 이용해 두드리 만드는 방법으로 물레를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수레질을 할 때 사용하는 나무 주걱과 비슷한 도구를 수레라 하고, 밖에서 수레질을 할 때 기물 안 부분에 받치는 도구를 도개라 한다. 도개를 조마구, 수레를 부채, 수레질을 부채질로 부르는 지방도 있다. 「도자기가 있는 단상 9. 수레질항아리」, 『영남일보』(2005. 10. 26).

2 최병길, 위의 글.

도예에 대한 작가의 마음은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꾸준히 개인전을 개최하고 단체전에 참여한 점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다.

1988년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구권환은 초등교사를 양성하며 향토작가 초대전, 한국현대도예가회전, 한국공예가협회전에 참여하였다. 또한 2001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과 미술세계대상전, 신사임당미술대전, 한국공예대전 등 심사위원에 참여하였고 교육부 교육과정 심의위원, 초등미술교과서 저술,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장 활동 등 교육자이자 도예가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2016년 공주교대 교수를 끝으로 40여 년간의 교직생활에서 은퇴한 후 구권환 갤러리를 운영하며 여전히 작품 제작에 매진하고 있다.

연보

- 1951년 충청남도 서천 출생
- 1970년 공주고등학교 졸업
- 1974년 공주교육대학교 졸업
- 1974~1987년 서울 개봉·동구로 초등학교, 동북고등학교 교사 역임
- 1978년 《서울교원미전》(서울, 예총회관)에서 <성장> 우수상
- 1979년 《서울교원미전》(서울, 예총회관)에서 <기79> 최우수상
- 1980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졸업
《창작도예전》(서울, 덕수미술관) 참가
- 1980~1981년 《제16회&17회 전국산업미전》(서울, 디자인포장센터)에서 입선
- 1980~2003년 《도상전》(서울, 일본 등)
- 1981~1985년 《제1·3·5회 서울신문 현대도예공모전》(서울갤러리)에서 입선
- 1982년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산업공예 전공) 졸업
- 1983~1986년 《제2~5회 창공예전》(공주문화원)
- 1984년 《구권환도예전》(서울, 그로니치화랑)
- 1986~2022년 《한국공예가협회전》(서울, 디자인포장센터 / 서울시립미술관 등)
- 1987~1988년 《대한민국공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입선
- 1988~2016년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역임
- 1990~1996년 《제20회 홍익도작가회전》(서울시립미술관 / 서울, 디자인포장센터 등)
- 1991년 《IA도예초대전》(미국, LA문화원)
- 1991~2022년 《한국현대도예가회전》(서울, 예술의 전당 / 부산·광주문예회관 등)
- 1992년 《충남산업디자인전》(공주·천안문예회관)
- 2000~2001년 《한국현대도예전》(영국, 체코 등)
- 2001년 《제2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2001~2015년 《향토작가초대전》(공주, 입립미술관)

- 2004년 《한·중 현대도자교류전》(중국 경덕진)
- 2007년 원광대학교 대학원 조형미술학과에서 조형미술학 박사학위 취득
《제8회 신사임당미술대전》심사위원 역임
- 2008년 《금강전》(공주문예회관) 출판
《한국공예가협회전》(천안문화원)
《제9회 한국공예대전》심사위원 역임
- 2008~2010년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회장, 교과서 심의위원장(교육부) 역임
- 2009년 《도예개인전》(공주, 임립미술관 / 서울, 예술의전당)
- 2009~2010년 교육과정심의회(교육부) 역임
- 2011~2013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예분과 위원장 역임
- 2012년 《구권환 도예 초대전》(공주, 임립미술관)
- 2013년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청주 일원)
- 2014년 《공예 일상에 스미다》(전북도립미술관)
《제5회 도예개인전》(서울, 통인화랑)
- 2014~2016년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원장 역임
- 2015년 《한국현대공예의 힘》(서울시립미술관)
《계룡만남전》(공주교육대학교 갤러리)
《제6회 도예개인전》(이탈리아, 밀라노시립미술관)
- 2016년 공주교육대학교 정년퇴임
대한민국 황조근정훈장 수훈
《제7회 정년기념 도예개인전》(서울, 가나아트스페이스)
- 2017~2018년 초등학교 3·4·5·6학년 미술교과서 저술(천재교육)
- 2017년~현재 공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 2019년~현재 구권환 갤러리 운영 중

김대열 (金大烈, 1951~)

1951년 경상남도 합천에서 출생한 김대열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어 프랑스 파리 국립장식미술학교로 유학을 떠나 연구과정을 수료한 후 1986년 파리 8대학 조형미술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중앙미술대상전》에서 연이어 장려상과 특선을,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연속 특선을 수상하였다. 1983년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한 작가는 2017년 35년간의 교직에서 정년퇴임하였다.

김대열의 작품 기저에는 때 묻지 않은 자연에 대한 동경이 담겨 있다. 김대열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공해를 주제로 돌·철 혹은 오브제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문명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제작했다.¹ 1980년대 중반부터 형상들이 서서히 변모해 피라미드의 입체 형태를 기본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이미지들을 형상화하였다. 이들 형상은 때로는 단순하게, 때로는 현란하게 변해 마치 스스로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변모할 수 있는 어떤 신비한 대상처럼 현실을 지배하는 물리적 세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처럼 보인다. 피라미드 형상을 근간으로 한 자유로운 형상의 생성과 변형의 미술은 1990년대 들어서서 점차 사라져가고 대신 화강암을 통해 보다 유기적이고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듯한 형상들이 등장한다. 이 형상들은 수직으로 용솨음치는가 하면, 좌우로 퍼지기도 하고, 때로는 대각선 방향으로 뻗어나가기도 한다.

1993년에 선보인 《자연으로부터》 연작에서는 입방체의 각진 선과 면들이 굽어지고 부드러운 볼륨을 가진 곡선의 유기체 형태로 등장한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둥근 표면과 끝을 말아 올린



김대열, 〈자연으로부터〉, F·R·P, 77×90×43cm
(출처: 『김대열조각전』, 서경갤러리, 1994)



김대열, 〈공간풍경〉, 1998, 철판·나무, 120×100×180cm(출처: 『테마공간』, 포스코미술관, 1998)

1 이영재, 「원초적 자연을 향한 메시지」, 『김대열 조각전』(서경갤러리, 1994).

형태는 이전과 다르게 유연한 구성력을 보여준다. 부드러운 곡면의 볼륨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생명체의 탄생을 예고하는 조형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형적 특성은 유기체의 생동감을 주는 추상형태와 함께 여러 가지 변형된 공간감이 주목된다.²

김대열은 인체나 구체적인 형상의 외형적 미보다 내면적인 것에서 출발해 순수한 조각적 구성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 돌담과 계단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견고하고 구축적 형태의 김대열의 작품은 작고 단단한 구조 속에 모든 힘을 다 쏟아 내고 있다고 평가된다.³ 작가는 자신의 작품관에 대해 “버려진 나무판재를 재생하여 수십 개를 붙여 하나의 형태를 만든다. 어떤 때는 형상이 있기도 하고 형상이 없는 미니멀리즘적인 정방형 형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독특한 것은 전체를 구성하는 작은 단위의 나무 조각들이 각각 독립적인 형태와 색채, 그리고 조형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한 덩어리의 작품 안에서 공존한다. 나에게 작품은 작업 자체가 유희이며 즐거움과 재미라는 행위 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조형 속에 빠진다. 아울러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유희적 조형, 하지만 미학적 의미성을 갖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이 추구하는 작품 세계다.”라고 설명하였다.⁴

연보

- 1951년 경상남도 합천 출생
- 1977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제1회 작품전》(서울, 청년작가회관)
- 1978년~ 《홍익조각회전》(국립현대미술관, 미술회관 등)
- 1979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 1979년~ 《한국현대미술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 1980년 《한·일 현대조각전》(일본, 복강시미술관)
- 1981~1984년 《제4~6회 중앙미술대상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장려상 및 연속 특선
- 1982년 《한·일 현대조각전》(일본, 복강시미술관)
- 1983년 공주교육대학 미술교육학과 부임
- 1983~1985년 《제2~4회 대한민국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연속 특선
- 1984년 《한·일 현대조각전》(일본, 복강시미술관)
- 1985년 《향방전》(서울, 윤깁러리)
- 1986년 파리 8대학 조형미술과 석사과정 졸업
《형상화와 구조화 조각전》(서울, 후화랑)
- 1987년 《30/40 기하학이 있는 추상》(서울, 미술회관)

2 유재길, 「구축적 성의 형태에서 곡선의 추상 조각으로 변신」, 『김대열』(공주문화원, 1993).

3 이영재, 앞의 글.

4 서울국제조각페스타2014 블로그. <https://m.blog.naver.com/sculpfesta/50190602428>

- 1989년 《한·일 현대조각회전》(서울, 토탈미술관)
- 1990년 《일·한 현대조각전》(일본, 복강시 미술관)
- 1992년 《IAA 국제전》(서울, 예술의전당)
- 1993년 《제2회 개인전》(공주문화원)
《오늘의 충남미술》(천안시민회관)
《오늘의 한국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
- 1994년 《제3회 개인전》(서울, 서경갤러리)
- 1997년 《제4회 개인전》(공주, 청산분교 열린 작업실)
《공주시 미술교수 연합전》(공주문예회관)
- 1998년 《공주시 미술교수 연합전》(공주문예회관)
- 1999년 《공주시 미술교수 연합전》(공주문예회관)
- 2010년 《한·중 현대미술작가전》(중국 상해, EXPO)
- 2011년 《제5회 개인전》(서울, 예술의전당)
《제6회 개인전》(공주, 임립미술관)
《제7회 개인전》(공주문화원)
《국제조각페스타》(서울, 예술의전당)
- 2012년 《한국현대조각회》(서울, 예술의전당)
《미술교육과 교수작품전》(공주문예회관)
- 2013년 《제8회 개인전》(서울, 예술의전당)
《서울국제조각페스타》(서울, 예술의전당)
- 2014년 《서울국제조각페스타》(서울, 예술의전당)
- 2015년 《공주교대 교수작품전》(공주, 일락갤러리)
- 2016년 《김대열 정년퇴임전》(공주, 이미정 갤러리)
- 2017년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정년퇴임
- 2021년 《홍익조각회 정기전》(서울, 금보성 아트센터)

김명태 (金明泰, 1951~)



김명태, 〈봄의 메시지〉, 1984, 스프러스, 110×10×101cm, 작가 제공

호는 늘원(訥元). 1951년 서울에서 출생한 김명태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약 3년간 두산산업에서 디자이너로 재직하였다. 1983년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2002년 대전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6년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교수로 정년퇴임하였다.

작가는 1982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입선, 1984년 《제2회 신미술대전》에서 작품 〈슴-84〉으로 금상, 1986년 《한국 우수작가 100인 국제초대전》에서 〈봄의 메시지〉로 은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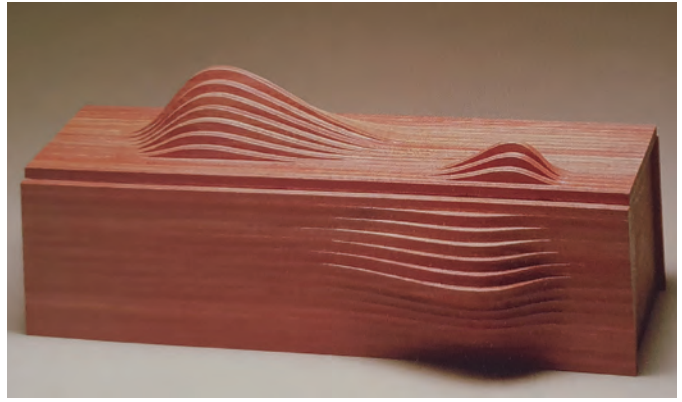
나무를 주재료로 작업을 하는 김명태는 기술적 가공을 되도록 배제하고 나무가 가진 본래 형태와 질감, 그리고 색감을 그대로 살려 나무에 담긴 순수한 '조형적 미'를 작품에 담아내려고 한다. 목공예술가로서 나무에 얽힌 다양한 시각적 관념을 작가적 시선으로 관조하여 나무가 지닌 자연의 조형미를 극대화한 작품들을 제작해왔다.¹

1980년대에는 《봄의 메시지》, 《울》, 《조우》와 《관조》 연작을 제작하였다. 《봄의 메시지》 연작은 목재 고유색감과 결을 살리면서 구상적인 이미지를 통한 조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초반의 작품들이다. 《울》 연작은 판재의 쪽을 일일이 붙여 면을 형성하면서 높낮이와 조밀도를 조절하여 1990년대 들어서면 원숙한 기교와 테크놀로지를 결합시킨 심플하고 리드미컬한 작품들로 탄생된다. 작품 〈울-9002〉는 정교한 수작업의 접합으로 기하학적 구조 속에서 섬세하지만 요란스럽지 않은 도회적 세련미를 보여준다. 《조우》 연작에서 작가는 나무라는 소재의 속박에서 벗어나 조형성 자체로 독립적인 생명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정년 퇴임 후, 작품 제작에 매진하고 있는 김명태는 나무가 지닌 본연의 조형성을 표현하는 데 천착해 있다. 이 때 제작한 《관조》 연작은 옹이를 그대로 노출시켜 조형적 요소로 활용하고 드러낸 나무결은 질감을 대신한다.

¹ 양한우, 「2021 공주 이시대의 작가전, '김명태 : 나무에 머물고 품고, 따르다' 전시」, 『대전일보』(2021. 6. 9).

즉 조형적 속박에서 벗어나 나무 자체로 독립적인 생명성을 부여한 것이다.²

김명태는 나무와 실용성, 그리고 조형을 평생 작업의 화두로 삼았다. “자연에서 얻은 본연 그대로의 형태와 함께 나의 조형의지가 투영된, 그리고 혼재되어 다시 태어난 형상으로 노장미학적 관조에 의한 또 하나의 조형언어가 드러



김명태, 〈울-9002〉, 1990, 느티나무, 55×25×21cm(출처: 『김명태 정년기념 작품집』, 미감사, 2016)

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형태로 만들어지고 보여지는데, 그 무엇이 형상으로 나타난 것을 규정하고 표출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세월 천착해오던 목공예 충실함에 속박되었던 조형적 관념에서 벗어난 원초적 형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³라고 철학을 전공한 공예가답게 자신의 작업을 철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작가는 목공예 작품을 제작하면서 조선시대 가구처럼 비례미를 중시한다. 최근에는 조선가구의 맥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CNC(Computerized Numerically Control)⁴를 활용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작가는 실용공예를 기반으로 하면서 순수 조형을 지향하고 있으며, 소재 본연에 충실하지만 인위적 가치를 추구한다. 교육자로서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자유로운 창작의 끈을 놓지 않는 작가다.

연보

- 1951년 서울 출생
- 1975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 1978~1980년 (주)두산산업 유리제품부 디자인실 재직
- 1982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입선
- 1983년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졸업
- 1984년 《제2회 신미술대전》(서울, 디자인포장센터)에서 〈슴-84〉으로 금상
- 1986년 《한국 우수작가 100인 국제초대전》(S.F HOAM Art Center)에서 〈봄의 메시지〉로 은상 수상
- 1987년 《제2회 대한민국공예대전》 목칠공예 부문에서 입선
- 1988년 《제3회 대한민국공예대전》(국립현대미술관) 목칠공예 부문에서 〈울〉 우수상

2 장희정, 「아름다움과 본질」, 『김명태 정년기념 작품집』(미감사, 2016), p. 7.

3 「작가노트」, 『2021 공주 이시대의 작가전- 김명태 '나무에 머물고 품고, 따르다.'(공주문화재단, 2021)』.

4 CNC는 컴퓨터로 도면을 그려 기계를 통한 자동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 1988년 《SPACE A.D. 2000 화랑 초대 김명태-목조형전》(일본 도쿄, SPACE A.D. 2000)
- 1990년 《김명태 가구공예전》(서울, 동숭아트센터)
- 1993년 (사)한국공예가협회상 수상
- 2002년 대전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 졸업(철학박사 취득)
- 2004년 (사)한국예총예술문화상 수상
- 2010년 목양공예상 수상
- 2011년 《김명태 초대전》(공주문화원 제1전시실)
- 2014년 (사)한국가구학회 학술대상 수상
- 2016년 《2016 한국현대공예 원로·정예작가10인전》(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정년퇴임
《김명태 정년 기념전》(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회관 전시실)
- 2018년 대한민국 미술인상 수상
- 2021년 《2021 공주 이 시대의 작가전 : 김명태》(공주, 아트센터 고마)

김문식 (金文植, 1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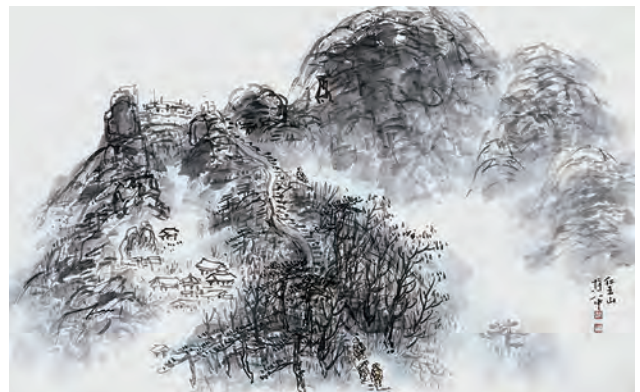
호는 팔중(八中), 팔중산인(八中山人). 김문식은 1951년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팔중리 출생으로, 중국 청나라 화가 팔대산인의 예술세계를 흠모하여 작호하였다. 1984년 《동아미술제》에서 나무와 숲을 주제로 한 작품 〈서림〉으로 동아미술상을, 2004년에는 작품 〈산정〉으로 초대작가상을 수상하였다. 김문식은 백두대간과 전국 명산을 다룬 《그림산행》(조선일보사, 1997), 나무의 모습을 담은 《나무의 숲》(선 미술관, 2005), 물의 표정을 다룬 《폭포》(월전 미술관, 2008) 등을 포함하여 21차례의 개인전과 200여회의 국내외 전시회에 참여하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숲』(선화랑, 2005), 『산수경』(선화랑, 2012), 『팔중 수류화개화첩』(앤지오컴, 2016) 등의 화집을 출간하였다.



김문식, 〈서림〉, 1984, 한지에 수묵담채, 180×160cm, 국립현대미술관

김문식이 주목받는 데에는 자연의 본질에 대한 그의 사유 자세에 있다고 할 것이다. 작가는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이상향의 산수를 표현하기 위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심산유곡(深山幽谷)을 찾아 오르고 또 올랐다. 그곳에서 모든 생명의 호흡과 온기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담고 머리로 걸러내면서 작품을 제작해 왔다. 또한 김문식은 전통을 잊지 않기 위해 산을 오른다. 겸재 정선(謙齋 鄭歎, 1676~1759), 표암 강세황(豹菴 姜世晃, 1713~1791),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 등의 앞서간 대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오르고 걸으면서 그들을 잊지 않는 동시에 그들로부터 에너지를 받고자 한다.

이러한 김문식의 모습에 대해 프랑스 평론가 장루이 포아트벵은 다음과 같이 평했다. “팔중 김문식 작가가 표현하고 있는 풍경화에는 무엇보다도



김문식, 〈인왕산〉, 2018, 한지에 수묵담채, 60×94cm(출처: 『2018 겸재 맥 잇기 초청기획展』, 겸재정선미술관, 2018)



김문식, 〈노적봉 중성문〉, 2018. 한지에 수묵담채, 94 × 60cm(출처: 『2018 겸재 맥 잇기 초청기획展』, 겸재 정선미술관, 2018)

전통이 풍겨 나오고 있다. 특히 세월의 복잡한 흐름을 각종 역사적 분기점을 통해 재현하는 서양 풍경화와 달리 그의 풍경화는 전통의 기저를 파고들어 그 내면을 표출하고 있다.¹ 이처럼 김문식은 자신이 정립한 확실한 이상과 철학의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각도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김문식은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는 수류화개는 인간이 꿈꾸는 산수의 이상향을 말한다. 인간은 속세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보고 싶고, 놀고 싶고, 아예 살고 싶은 유토피아의 자연 경을 그리게 마련이다. 나는 전국의 산과 명승지를 탐방하며 산수화를 제작하여 왔다.”고 작품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² 이에 작가는 수목산수의 준법(皴法)과 수지법(樹枝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실경산수화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는 관념적인 절차를 최대한

배제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자연과 직접 교감하며 사유하고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술평론가 오광수와 김백균은 김문식의 돌출되면서 자유로운 필법을 짜릿발을 연상시키는 준법이라 하여 ‘짜릿발 준법’이라 이름하였다.³

김문식은 왕성한 작품활동을 비롯하여 한국미술협회, 미술동우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서미회, 한국소상회, 동방예술연구회 등의 단체에도 참여하였으며 한남대학교 사범대학과 수원대학교에서 후학양성에 힘쓰며 미술계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 김용권, 「팔중 김문식 초대 기획전에 부쳐-팔중 김문식 작가, 겸재 정선의 길 따라 걷고 그리다」(2018. 11) 참조. <https://donglakjae.tistory.com/16187316>

2 팔중 김문식 작가 약력 참조. https://www.insaauction.com/service/author_view.html?idx=2261

3 김문식, 「나의 山水·景」, 『八中山人 金文植 山水景』(선화랑, 2012).

연보

- 1951년 충청남도 서산 출생
- 1984년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수상
- 1984~1985년 《서울신문사 정예작가 초대전》
- 1991년 《현대미술초대전》(서울, 국립현대미술관)
- 1991~1993년 《한국의 풍경전》(국립현대미술관 움직이는 미술관)
- 1993년 《예술의전당 전관개관기념전》(서울, 예술의전당)
- 1996~2001년 《경기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1997년 《경인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한국현대서예대상전》 문인화부 심사위원 역임
- 1998년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심사위원 역임
- 1999년 《서울시미술대전초대》(서울시립미술관)
《안건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 2000년 《수목화 새 천년전》(서울시립미술관)
《광주광역시 한국화 특장대전》 심사위원 역임
- 2000~2004년 《안건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2001년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심사위원 역임
- 2002년 《한·중 현대미술 조명전》(서울, 세종문화회관)
- 2004년 《풍경 산수 풍경전》(부산시립미술관)
《동아미술제》 심사위원 역임
《경기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목우회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동아미술제 초대작가상 수상
- 2005년 《국립현대미술관 신소장품전》(서울, 국립현대미술관)
화집 『나무와 숲』(선화랑 선아트센터, 2005) 출간
- 2012년 《서미회전》(서울, 아트스페이스 H)
《꿈, 몽유도원전》(서울, 자하미술관)
- 2018년 《김문식: 겸재 정선의 길 따라 걷고 그리다展》(서울, 겸재정선미술관)
- 2021년 개인전 《명불허전, 사군승경》(서울, 겸재정선미술관)

김창일 (金昌一/ CI KIM, 1951~)



씨킴, 〈무제(Untitled)〉, 2017~2018, 청동에 도색, 시멘트·혼합 재료, 가변크기, 작가 제공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창일은 씨킴이라는 이름으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다.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천안고속터미널 광장을 ‘아라리오 스포시티’로 조성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업가이자 미국의 미술잡지 ‘아트뉴스’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200대 컬렉터’ 명단에 이름을 올린 미술품 수집가로 유명한 씨킴은 40대 후반부터 직접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¹

“미술 장르를 정하는 것에 대한 반항심으로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는 작업을 원한다.”는 작가는 회화, 조각, 설치, 드로잉 장르 구분 없이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무리와 동떨어져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한 작가는 쓰임이 다해 본래의 자리에서 소외된 물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들에게 ‘생명과 영혼’을 불어넣는다는 생각으로 작업해 왔다.

씨킴의 작업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재료의 실험’이다. 20여 년 동안 씨킴은 이질적인 재료들의 조합을 실험하며 기성 예술의 문법에 도전해왔다. 회화의 재료로 인지되지 못했던 토마토, 블루베리, 들기름, 커피 같은 식재료를 활용한 작업들이 대표적이다. 또한 자신의



씨킴, 〈생명 Life〉, 2020, 브론즈, 580×420×420cm, 작가 제공

오랜 사업적 경험과 맞닿아 있는 시멘트, 철가루, 목재, 목공용 본드 등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재료들도 작업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크레파스와 파스텔을 이용해 마치 어린아이 그림처럼 자유롭고 순수한 터치가 엿보이는 페인팅과 손글씨를 네온으로 제작하여 거울에 부착해 반사시키는 작업, 죽은 분재를 브론즈로 캐스팅한 조각 등 끊임없이 새로운 물성을 탐구하고 실험해 왔다. 씨킴은 현재까지 총 13

1 이한나, 「내가 장르다」 예술 경계 허무는 늦깎이 작가, 『매일경제신문』(2022. 7. 1).

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예술의전당, 독일 라이프치히,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탐동시네마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연보

- 1951년 부산 출생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단국대 경영대학원 졸업
- 1986년 (주)아라리오 창립
- 2003년 《아트벤처》(서울, 여의도공원)
《제1회 개인전: Contemporary Art Continues》(천안, 아라리오갤러리)
《제2회 개인전: CI KIM, Union Project》(영국 런던)
- 2004년 《Bug-Eyed; Art, Culture and Insects, Redding》(미국 캘리포니아)
- 2004~2006년 독일 모노폴(MONOPOL) 세계 100대 컬렉터 선정
- 2005년 《제3회 개인전: extra seeing》(천안, 아라리오갤러리)
- 2006년 《Ballkünstler, 라이프치히 MdBK》(독일, 라이프치히)
- 2006~2014년 미국 아트뉴스 '세계 200인 컬렉터' 선정
- 2007년 《제4회 개인전: Trauriger Tiger Toastet Tomaten》(천안, 아라리오갤러리)
영국 아트리뷰(Art Review) 미술계의 영향을 미치는 인사 87위 선정
- 2009년 《제5회 개인전: To Make a Rainbow》(천안, 아라리오갤러리)
《Art in Superstar》(서울, 예술의전당)
《농성동 블루스》(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 2010년 《Art in Superstar》(창원, 성산아트홀)
- 2011년 《제6회 개인전: Who Can Say What》(천안, 아라리오갤러리)
- 2013년 《제7회 개인전: SAILING》(천안, 아라리오갤러리)
- 2014년 미국 Blouin Art + Auction에서 Power Players로 선정
《Really?》(서울,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By Destiny》(제주, 아라리오뮤지엄 탐동시네마)
- 2015년 미국 미술전문매체 '아트넷(Artnet)'이 선정한 세계 200대 컬렉터로 선정
《제8회 개인전: The Road is Long》(천안, 아라리오갤러리)
- 2016년 '아트넷(Artnet)'이 선정한 세계 200대 컬렉터 선정
- 2017년 《제9회 개인전: 논(楸) - 논다놀아》(천안, 아라리오갤러리)
- 2018년 《징안 국제 조각 프로젝트》(중국 상해)
- 2019년 《제10회 개인전: Voice of Harmony》(천안, 아라리오갤러리)
- 2020년 《제11회 개인전: I Have a Dream》(제주, 아라리오뮤지엄 탐동시네마)
- 2021년 《제12회 개인전: I Have a Dream: Part II》(제주, 아라리오뮤지엄 탐동시네마)
- 2022년 《제13회 개인전: Overcome Such Feelings》(천안, 아라리오갤러리)

박토을(1951~)



박토을, 〈풍요〉, 2004, 캔버스에 아크릴릭, 53×46cm, 작가 제공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1년 출생한 박토을은 1989년 대전에 정착했다.¹ 30대 초반 교직을 그만두고 동국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을 마친 후 로마로 유학을 떠났다가 파리로 옮겨 파리국립제7대학에서 박사과정인 Initiaux-Dr 학위를 취득했다.² 그리고 파리 몽파르나스 미술학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했다. 학업을 마친 후 1995~2008년까지 파리에서 활동하며 오르세 미술관에서 초대전을 열었고 루브르박물관에서도 개인전을 개최했다. 1995년 파리 시청 문화협회가 기획 초대한 개인전은 KBS TV에 방영되어 국내에 소개되었으며, 프랑스 레제 미술관 공모전, 샬롱 도-똘느 등 여러 공모전에 출품해 20회 이상 입상했다.

동서양의 미학을 통합해 일체화시킨 독창적인 양식으로 현지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박토을은 동양인 최초로 프랑스 투르(Tours)시로부터 기획초대작가로 선정되었다. 마르세이유 공모전 은메달, 레제미술관 공모전 최고상 등을 받았고 벨기에 비엔날레에 초대작가로 참여해 '색채구성작가상'을 수상했다. 또한 《프랑스 망트 미술관 초대전》을 개최하는 등 1990년대 중반 파리의 각 미디어 및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작품세계가 조명되었다. 그리고 1996년 중앙일보사 선정 '한국을 움직이는 인물'에 등재되었으며, 2011년 대한민국 신지식경영대상, 2012년 헤럴드 주최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 2013년 올해를 빛낸 창조경영 인물대상(서양화 부문)을 수상했다. 《씨올회전》, 《대전현대미술협회전》 등의 단체전과 초대전에 참여했으며 동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학원 강사 및 광주여자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했다.³

박토을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정신이 빈약해져 가는 현대인의 문제를 화폭에 담아내고자 했다.⁴ 화면에는 주로 난색(暖色)을 사용해 따스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연출되며, 주제는 약해져

1 작가와의 전화 인터뷰(2022. 10. 28).

2 한국미술협회, 『(2016) 한국미술 50년사』(이화문화출판사, 2016), p. 570 참조.

3 「2021 한류문화원 특별초대전: 박토을 작가, 초대작가로 선정-대한민국 국가미술원」, 대한민국국가미술원 홈페이지.
<http://www.knaart.com/932>

4 「〈비전코리아〉 박토을 작가, 예술 본고장 佛서도 인정한 한국 서양화 대가」, 『헤럴드경제』(2011. 8. 4).

가는 인간의 정신세계와 물질 풍요의 비대칭적 현실을 독창적인 캐릭터로 형상화해 화면을 구성한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캐릭터는 중심 요소인 '정기질(精氣質) 인간'과 나무·학·개 등과 같은 보조적 요소로 구분된다. 박토올이 창조해 낸 '정기질 인간'은 허리를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하체는 크고, 상체는 가늘고 왜소한 형상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왜소한 상체를 통해 인간의 정신 빈약을 표현하고, 거대하게 큰 하체를 통해 물질 풍요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박토올은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의 근본은 정신·에너지·물질이 합일된 상태라는 미학 개념을 이론으로 주창하며 '정(精), 기(氣), 질(質) 주의'라는 미학을 작품에 담아내는 작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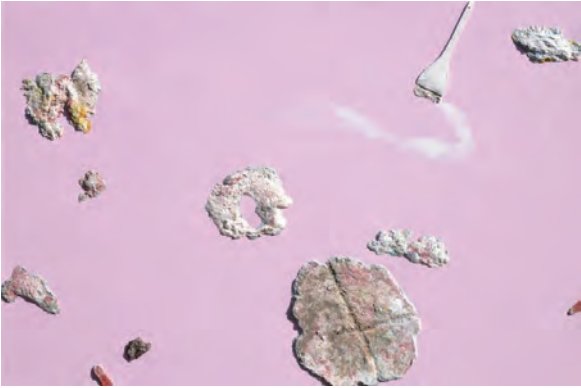


박토올, <나무여인>, 1995, 캔버스에 유채, 45.5×37.9cm(출처: 『제8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대전·충남지회전』,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대전·충남지회, 2005)

연보

- 1951년 한국전쟁 중 출생(출생지 미상)
- 1993~1995년 파리제7대학교 박사과정 initiaux-Dr 학위취득
- 1994년 《프랑스 국립 연방 예술협회 회원전》에서 색채구성작가상 수상
《프랑스 뚜르시 특별기획초대 개인전》(프랑스 뚜르, ESPACE MALRAUX)
- 1995년 벨기에 비엔날레 구성작가상(벨기에, Brugge미술관) 수상
《파리시청 문화협회 기획초대 개인전》(프랑스 파리, ESPACE 13)
- 1997년 《서울·파리 동시 초대개인전》(서울, 동주갤러리 / 프랑스 파리, Artpresnt)
- 2007년 《2007 한밭의 함성》(대전, 갤러리 오픈스페이스)
- 2008년 《세계미술연맹 최우수작가전》(서울시립미술관)
- 2009년 《대전현대미술협회전》(대전, 모리스갤러리)
- 2011년 대한민국 신지식영영대상(시사투데이) 문화인대상 수상
- 2012년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헤럴드경제 선정) 대상 수상
- 2013년 올해를 빛낸 창조경영 인물대상 서양화부문 대상 수상
- 2014년 《개인전》(대전,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 갤러리)
- 2017년 《국토의 美 작품전》(서울, 국회의원회관 1층 문화공간)
- 2018년 《대한미협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전》(춘천, KBS춘천)
- 2021년 《한류문화원 특별초대전》(서울,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정덕영 (鄭德永, 1951~)



정덕영, 〈박제된 풍경 11-24〉, 2011, 캔버스에 혼합기법, 97×147cm, 작가 제공

1951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의 정덕영은 공주 금학국민학교를 다니다 대전으로 이사한 후 한밭중학교와 충남고등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작가는 고등학교 시절 은사였던 서양화가 이동훈(李東勳, 1903~1984)과 임봉재(任奉宰, 1933~)로부터 회화의 기본적인 표현기법을 학습했다고 회고한다.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대전지역 고등학교 연합 미술단체인 미상록에서 활동하며 회

장직을 맡기도 했다.¹ 10대 시절을 대전에서 보낸 정덕영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에 입학해 서울로 이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80년 서울 관훈미술관에서 개최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출품하며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덕영은 회화의 순수성을 의문시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조형언어를 구축한 한국의 탈모더니즘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작가는 1980년대부터 ‘회화적 귀소를 위한 회화적 모험’의 연장선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비회화(non-painting)’ 또는 ‘반회화(anti-painting)’의 기치 아래, 대상과 세상을 묘사하거나 재현하는 것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특히 회화적 표현성이나 인위적으로 절제된 추상성 양자 모두를 거부하고, 회화의 본질인 ‘평면성’에 집중하며 해체주의적인 회화를 선보이고 있다.

세부적인 묘사에서 벗어나 마치 퍼포먼스를 하듯 행위적이면서도 절제된 붓질을 캔버스에 등장시키고 있으며, 일상적 오브제를 한 화면에 배치한 양상 또한 회화의 순수성을 해체하는 특징이다. 특히 합성수지로 빚어 만든 돌, 부목형태의 기둥 등과 같이 캔버스의 프레임 밖 혹은 가장자리에 얹혀 있는 오브제 성격의 사물들을 통해 작가는 회화성과 사물성을 동시에 실험하고 있다.² 또한 여백의 공간을 통한 비움의 미학을 강조한 화면에서는 동양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1 정덕영과의 전화인터뷰(2022. 12. 8).

2 『정덕영展』(갤러리 정미소, 2007).

며 작가만 독자적인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³

정덕영은 작가 활동과 함께 미술교육자로도 오래 활동하였다. 한남대학교, 배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 등에서 강의했으며 2003년부터 2015년도까지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주로 서울에서 거주하며 활동해 왔지만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주최하는 이동훈 미술상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충남화단에서의 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연보

- 1951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71~198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 1975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입선 수상 / 《현대회화전》(공주문화원)
- 1978년 《한국미술 청년작가회 지방순회전(춘천, 청주, 대전) 참여
- 1981년 《금강현대미술제》(공주, 금강백사장)
- 1982년 《개인전》(서울, 관훈미술관) / 《금강현대미술제》(대전문화원)
- 1983년 《Independants전》(서울, 국립현대미술관) / 《부산 청년 비엔날레》(부산시민회관)
- 1984년 《개인전》(대전문화원) / 《서울현대미술제》(서울미술회관)
- 1984~1991년 《오리진회화협회전》에 참여
- 1985년 《한중현대미술전》(서울, 관훈미술관)
- 1986년 《중·한 현대회화전》(대만, 타이베이시립미술관)
- 1987년 《서울 19인의 단면전》(광주, 대전) 참여
- 1989년 《에플 드 서울전》(서울, 관훈미술관)
- 1990년 《한국 현대미술 90년대 작가전》(일본, 후쿠오카시립미술관)
- 1993년 《93 대전 엑스포 기념: 바람과 외연》(대전, 흥인갤러리)
- 1995년 《한국 현대미술의 표현 매체》(서울시립미술관)
- 1996년 《한국 현대미술, 평면회화 주소찾기전》(서울, 성곡미술관)
- 1998년 《대전, 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
- 1999년 《금호미술관 개관기념전: 그림보다 액자가 좋다》(서울, 금호미술관)
- 2003년 《한발미술의 여정 II - 이동훈과 대전화단》(대전시립미술관)
- 2013년 《개인전》(서울, 이유진갤러리)
- 2015년 《개인전》(서울, 초이갤러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서양화과 정년 퇴임
- 2017년 《개인전》(서울, 아트드보라)

3 박만우, 「그림을 그리는 행위의 역설 : 타락도 구원도 아닌 ...」, 『정덕영展』(표갤러리, 2011).

정채 (1951~)

정채는 1951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출생했으며, 서울예술대학 영화과를 졸업했다. 1981년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8대학 조형미술과와 아카데미 샤프팡티에(Academie Charpentier)에서 건축 디자인을 공부한 후 독일로 진출해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다.¹ 1986년 스위스 주네브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고, 1992년 독일 바이로이트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작가는 스스로 끊임없이 새롭고 어려운 문제를 내고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작업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미술의 경계를 넘어 연기자, 보디빌더, 건축가 등 다양한 이력을 지닌 정채는 1994년부터 양평에 작업실을 짓고 작업에 몰두해왔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독일 브레멘에서 작업을 하면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정채는 신과의 사랑, 본능적인 사랑, 가족애, 우정 등의 사랑과 관련한 감성을 점과 선이라는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다.² 2019년 개인전에서는 흙과 모래, 건축 재료와 연장, 타일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회화 재료의 영역을 넓혔으며, 간결한 선으로 화폭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화면 위에는 깊은 동굴 속에 자리하고 있을 법한 고대 원시부호 혹은 아라베스크 문양 같은 형상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작가만의 방식으로 성(性)을 시각화한 것이다.

여러 가지 기하학적 형태와 깊이 있는 마티에르로 표현된 형상들은 성(性, sex)과 성(聖,



정채, 〈사랑 J-12〉, 1999, 합판 위에 혼합재료, 122×122cm
(출처: 『성성애(聖性愛)전』, 갤러리 CASA AGIO, 1999)



정채, 〈구름사랑〉, 2017, 캔버스에 혼합매체, 150×140cm
(출처: 『정채 개인전』, 이안아트스페이스, 2019)

1 『정채 개인전』(이안아트컨설팅, 2019); 김달진미술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http://www.daljin.com/display/D059065#dummy>

2 「그림속엔 사랑이 있다」, 『중도일보』(2000. 2. 28).

sacred)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약 40년 동안 천착해 온 작가의 사유 세계를 보여준다. '성을 성스럽게 보아야한다'고 말하는 정채의 작품에는 면을 분할하고 정확한 비례에 따라 형태를 묘사하는 방식의 독창적 표현 요소를 통해 아름다운 성의 표현이 잘 드러난다. 정교한 공간의 분할과 여백의 활용은 보는 이의 감성을 자극하고, 곡선과 직선이 교차하며 관객의 눈 속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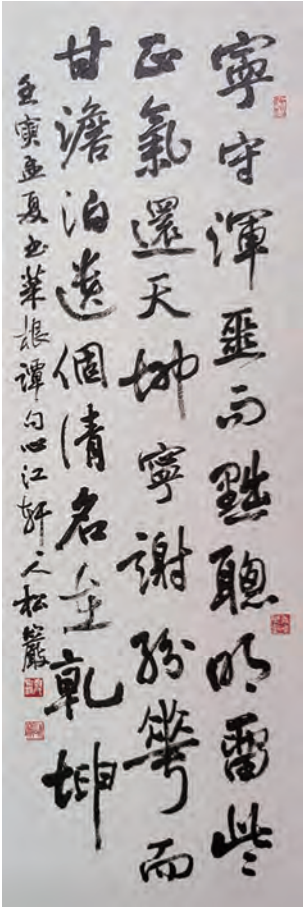
프랑스에 지낼 때 제프 쿤스(Jeff Koons), 키스 해링(Keith Haring), 데이비드 살(David Salle), 마따(Matta)와 같은 성(性)을 소재로 작품을 창작하는 화가들의 작품을 접하면서 성(性)에 접근하는 방식에 관해 고민했던 정채는 대담하고 독창적인 표현 양식으로 성(性)을 표현하는 방식을 창출해냈다는 평을 받는다.

연 보

- 1951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
- 1969~1971년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 1981~1993년 프랑스 파리 8대학 조형예술학부, 아카데미 샤르팡티에(Academie Charpentier) 건축디자인 수학
- 1986년 《개인전》(스위스 슈네브, 까뜨린느 반 노트 화랑)
- 1992년 《개인전》(독일 바이로이트, 스타트 키르헤 화랑)
- 1993년 《개인전》(서울, 갤러리 아미)
- 1996년 《제42회 백제문화제 기념: '96 향토작가초대전》(부여군민회관)
- 1997년 《개인전》(서울, 유경화랑)
- 1999년 《개인전》(경기 양평, 카사 아지오 화랑)
- 2000년 《개인전》(대전, 갤러리 롯데호텔)
- 2002년 《개인전》(서울, 웅갤러리)
- 2004년 《정채 聖愛性전》(서울, 가산화랑)
- 2009년 《개인전》(서울, 인사아트센터)
- 2013년 《정채, 사랑을 말하다》(서울, 서호미술관)
- 2014년 《정채 초대전》(서울, 금보성아트센터)
- 2017년 《한국국제아트페어 키아프》에 참여
- 2019년 《정채 개인전》(서울, 이안아트스페이스)

3 김중근, 「성과 빛사이에 단 하나의 눈 - 정채」, 금보성아트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kbs5699/220195415374>

정태희 (鄭台喜, 1951~)



정태희, 〈채근담(菜根譚) 前 37〉,
2022, 135×50cm, 작가 제공

호는 송암(松巖). 1951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한 정태희는 1970년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충남대학교에서 물리학과에 진학해 1974년 졸업했다. 그러나 서예를 배우고자 했던 정태희는 인천에서 활동하던 박세림(朴世霖, 1924~1975)에게 사사해 22세가 되던 1973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서예 부문에서 최고상을 받았다. 이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와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입선과 특선을 수상해 충남미술대전 서예 부문 초대작가가 되었다.

1974년에는 ‘송암한묵회(松巖翰墨會)’를 창설해 이른 나이에 후학을 양성하기 시작했으며, 이듬해에는 대전 송아지다실에서 《제1회 송암 정태희서전》을 개최했다.¹ 1994년에는 최정균(崔正均, 1924~2001)의 소개로 원광대학교 서예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1998년 대전대학교 문과대 서예학전공 부교수로 부임하게 되면서 서예학과 창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² 또한 대전대학교 서예디자인학과 내에 ‘송암장학회’를 설립,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부·대학원생들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후학양성에 이바지해 왔다.³ 2015년부터 《대한민국 서예 청년작가 선발전》을 개최해 한국서단의 부흥과 청년작가 인재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태희는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동시 제정되는 데 기여했다. 조례를 근거로 대전지역 서예 4개 단체가 참여하는 《2020 대전서예 화합전》과 대전광역시와 대전MBC가 후원하는 《2021 대전서예한마당과 퍼포먼스》를 개최해 서예의 대중화와 발전을 도모하기도 했다.

이후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로서 운영위원장과 심사위원장을 역임하고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및 초대작가상 수상과 더불어 심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1 박세림에 대한 자료 참조.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672>; 최정균은 1924년 전라북도 익산 출신으로 원광대학교에 우리나라 최초로 서예학과를 개설하였다.

2 황효순, 「대전 서예·문인화의 선구자들」, 『대전문화』 제27호(2018), pp. 114~116.

3 이성현, 「대전대 정태희 특임교수, 제15회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본상’」, 『충청뉴스』(2021. 11. 23).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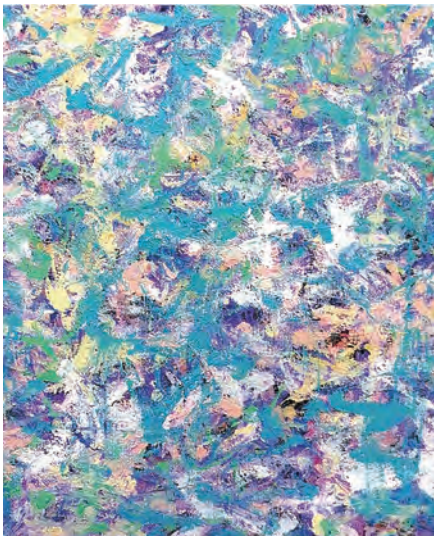
- 1951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70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 1971~1973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연 3회 특선
- 1974년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물리학과 졸업
- 1974년~현재 송암한묵회(松巖翰墨會, 現 송암서학회) 창설 및 지도
- 1975년 《제1회 송암 정태희서전》(대전, 송아지다실) / 《충청남도미술대전》서예부 초대작가 지정
- 1975~1985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및 《대한민국미술대전》서예부 입선 6회, 특선 2회
- 1985년 《제8회 동아미술제》(동아일보사) 동아미술상 수상
- 1986년 《제1회 한국서예술연구회전》(백악미술관) / 《충남서단창립전》에 참여
- 1987년 《현대미술초대작가》(국립현대미술관) 지정 및 초대 작품
- 1988년 《국제현대서예전》(서울, 예술의전당)
- 1991년 대전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문학석사 학위 취득
《제2회 송암 정태희서전》(대전, MBC문화공간)
- 1993년 원광대학교 서예과 교수 부임
- 1996년 대전대학교대학원 철학과 철학박사 학위 취득
- 1997년 《'97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 《한국의 예술세계전》(독일 프랑크푸르트)
《전각, 초서의 오늘전》(서울, 예술의전당)
- 1998년 대전대학교 서예학과 교수로 부임
- 1999년 《갑골문발현100주년기념(海內外甲骨文書法展覽)》(중국 북경)
- 2000년 고등학교2종도서 검정위원 위촉
- 2002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 위촉
「대전 서예의 흐름과 방향」(대전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저술
- 2003~2007년 대전대학교 박물관장 역임
- 2004년 '대한민국서예문화상' 수상
- 2005년 동아미술제 초대작가상 수상
- 2008년 대전시립미술관 기획초대 《제3회 송암 정태희서전》(대전시립미술관)
- 2010년~현재 국제서예가협회 부회장
- 2016년 대전대학교 정년퇴임 / 정년퇴임기념 《사제동행전》(대전, 예술가의 집)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전》(대전, 예술가의 집)
- 2020년 《대전서예 화합전》 / 대전 동구 식장산문화공원 현판 제작
- 2021년 제15회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본상 수상
- 2022년 대전대학교 대학원 서예학과 특임교수 재직

홍석출(洪錫出, 1951~)



홍석출, 〈옹암석주〉, 1988, 캔버스에 유채, 53×45.5cm(출처: 홍석출, 『구원의 여정』, 오늘의문학사, 2018)

홍석출은 1951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으로, 공주 중동국민학교와 공주 중·고등학교를 거쳐 공주교육대학교 및 한밭대학교를 졸업했다. 1971년 공주교육대학교 서양화 동아리에서 창립한 《제1회 빌리잔 유화전》(공주교육대학 미술실) 출품을 시작으로 1975년에는 공주교육대학교 미술부 회원들이 결성한 ‘그릴회’ 창립에 참여했다. 이후 《그릴회전》, 《향토작가초대전》, 《한국미술협회전》, 《한국교육미술작품전》,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 《한국조형미술협회전》 등 다양한 단체전에 작품을 출품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40년간 재직한 이후 2014년에 33년간 근속했던 대전성모초등학교에서 정년으로 퇴임했고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정년퇴임을 기념해 대전교육미술관에서 특별개인전을 개최했다.



홍석출, 〈생명의 터〉, 2016, 캔버스에 아크릴, 90.6×72.7cm(출처: 홍석출, 『구원의 여정』, 오늘의문학사, 2018)

공주교육대학교 교수였던 조영동(趙榮東, 1933~2022)의 제자인 홍석출은 화가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성실히 지도한 미술교사로서 소년한국미술대회 전국단체우수지도상을 7회 수상했으며 모범교원 및 우수지도교사상을 8회 수상한 바 있다. 2015년을 빛낸 올해의 예술가상, 2018년 충청예술 초대작가상 등을 받았다. 퇴임 후에도 대전교육연수원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미술시간 운영을 위한 강의’를 비롯해 초등학교생들에게 미술 수업을 진행하며 미술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초기 작품은 주변 풍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화풍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화면에 옮기는 데 주력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사물이나 자연을 보고 느낀 것들과 심상에서 우러나온 이미지를 감성적으로 표현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작가의 내면 심리를 형상화한 추상회화를 주로 제작했으며, 추상화된 형상은 “해독하기 어려운 방언처럼, 캔버스에 춤을 추는 듯” 푸른 빛 문자로 화면에 매워졌다.¹ 그리고 이전 시기 그의 풍경화나 회화에서 종종

을 이루었던 푸른색의 색조가 다양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2018년에는 초기 작품부터 최근 작품까지의 작품세계를 정리한 화집 『구원의 여정』을 발간했다.

연보

- 1951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71년 《제1회 빌리잔 유화전》(공주교육대학 미술실)
- 1973년 《모듬미전》(공주문화원)
- 1975~현재 《그릴회전》창립에 참여, 이후 연속 참여
- 1980년 《향토미전》(부여문화원)
- 1981년 《한국미협공주지부 창립전》(공주문화원)
- 1983년 《백제문화제 향토출신작가 초대전》(부여문화원)
- 1985년 《도솔화랑 개관기념 초대전》(천안, 도솔화랑)
- 1987년 《제21회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
- 1988년 《한국 88올림픽미술대전》(대전, 여일미술관)
- 1989년 《한국미협대전직할시지부 창립 회원전》(대전시민회관)
- 1991년 《제25회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
- 1994년 《한발미술의 오늘과 내일전》(대전, 한밭도서관)
- 1995년 《대전미술 50년전》(대전, 한밭도서관)
- 1996년 《한발미술의 어제와 오늘전》(대전, 한밭도서관)
- 1999년 《중구작가초대전》(대전중구문화원)
- 2000년 《2000계룡만남전》(충남, 보령문예회관)
- 2000~2016년 《대전초등교원미전》(대전, 학생문화회관)
- 2006년 《대전미술제》(대전시립미술관)
- 2007년 《한국·터키 수교 50주년기념 미술교류전》(대전시립미술관)
- 2008년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
- 2011년 《장춘 동아시아미술전》(중국, 장춘도서관)
- 2012년 《대전 초·중등 We 감성 팡팡전》(대전갤러리)
- 2013년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관 개관 기념전》(공주교육대학교 일락갤러리)
- 2014년 홍조근정훈장 수훈 / 《홍석출 정년퇴임기념 특별전》(대전교육미술관)
- 2015년 '2015년을 빛낸 올해의 예술가상' 수상
- 2016년 대전교육연수원 강사 역임 / 《대전 명소 12선》(대전, 예술가의집)
- 2017년~현재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광주, 천주교광주대교구청)
- 2018년 '2019 충청예술 초대작가상' 수상 / 《조형미술의 확산전》(대전광역시청)
화집 『구원의 여정』(오늘의문학사, 2018) 출간
- 2022년 《제3회 충청예술 초대작가전》(대전중구문화원)

1 홍석출, 『구원의 여정』(오늘의문학사, 2018), p. 5.

고창환(高昌煥, 1952~)



고창환, 〈가을의 서정〉, 1998, 은·백동·닥 종이·연필, 20×40×5cm(출처: 『고창환 개인전』, 홍화랑, 1998)



고창환, 〈가을의 길목에서〉, 2018, 황동 비취·은·철·동, 30×45×5cm(출처: 『제9회 고창환 귀금속공예작품전』, 갤러리 봄, 2018)

1952년 대전에서 출생한 고창환은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응용미술학과에 입학했다. 편지봉투와 시계 톱니바퀴를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작가는 작품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대학 3학년 때 처음 만난 공예가 신권희(申權熙, 1937~1995)를 지목하며 그로부터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¹ 신권희는 작가가 가끔 보낸 편지를 보고 편지봉투 형태를 금속으로 만들고, 자신과 함께한 추억의 시간을 시계의 부속인 톱니바퀴로 표현해 보라고 권했다.² 작가는 스승의 말씀을 따라 ‘편지봉투와 톱니바퀴’를 평생의 화두로 삼아 지금까지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데, 편지봉투는 추억과 일상을 담은 것이고 톱니바퀴는 흐르는 시간의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1983년 홍익대 산업대학원에서 귀금속디자인을 전공하였다.

고창환은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대상과 특선을 연이어 수상하였다. 1998년 작품 〈가을의 서정〉은 세로로 긴 봉투를 바탕으로 산, 구름, 갈대와 빗줄기를 연상케 하는 선들이 담겨있다. 작가 자신이 겪었던 사건이나 감정의 변화를 봉투와 톱니, 두 물상의 결합에 회화적 드로잉을 더하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무언가 잊어서는 안 될 추억과 삶의 현실, 자신에 대해 보충하고 싶은 노력의 재확인 일지도 모른다. (중략) 쓰임의 미술로서의 기능미를 넘어선 기하학적인 형태 위에 회화적인 단위로서의 평면성을 부과하여 사물의 현실성 리얼리티를 표현하고 싶다.”³고 하고, “생은 시간의 흐름을 타고 희로애락, 시작과 종말, 사랑과 증

1 작가가 제공한 노트에서 정리함.

2 고창환, 「작업속에서」, 『제9회고창환귀금속공예작품전』(갤러리 봄, 2018).

3 고창환, 「가을의 서정」, 『고창환귀금속작품전』(컬트갤러리, 2007).

오, 긍정과 부정, 상상과 구현 속에 명멸하고 미는 것이기 때문이다.”⁴라고 설명한다.

고창환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을 표현 도구로 삼아 미적 형태의 이미지에 몰두함으로써 일 상성을 탈피하고자 하며 형태·크기·색채·질감 등의 시각적 도구에 대한 모색과 다양한 금속 기법을 사용하여 상징성 있는 프레임에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작업을 풀어나가고 있다.

연보

- 1952년 대전 출생
- 1980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 졸업
- 1980~2007년 《홍익금속공예가회》(서울, 통인화랑 / 홍익대박물관 / 위커힐미술관 등)
- 1981~1987년 《충청남도미술대전》공예부문에서 대상 1회, 특선 5회
- 1981~2007년 《한국공예가회전》(서울, 문예진흥원 / 디자인포장센터 / 대전문화원 등)
- 1983년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귀금속 디자인 전공 졸업
- 1988년 《개인전》(대전, 쌍인갤러리)
- 1988~1998년 우송정보대학 정보디자인계열 시각디자인계열 교수 역임
- 1988·1992년 《충청남도·대전시 미술대전》초대작가·심사위원·운영위원 역임
- 1989~1992년 《충남미술작가전》공예부 운영위원
- 1990년 《충남산업미술대전》운영위원
- 1991년 《제3회 한국현대장신구전》(서울, 위커힐미술관)
- 1992년 《고창환 금속작품 개인전》(대전, 갤러리 비전)
- 1992~2017년 《고창환 초대전》(일본 교토, 베니홍)
- 1993년 《고창환 금속작품 초대전》
- 1993~2010년 《대전금속조형회전》(대전, 홍인갤러리)
- 1994년 《한국현대장신구디자인전》(서울, 위커힐미술관)
- 1995년 《대전·충남작가초대전》(대전, 한림갤러리)
- 1996년 《금속공예 3인전》(대전, 21세기 대학로미술관)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대전시립미술관) / 《고창환 초대전》
- 1999년 『순은제 악세사리』(조형사) 출간 / 제18회 《대한민국공예대전》심사위원 역임
- 2000년 《공간과 현실의 간극전》(대전시립미술관)
- 2007년 《고창환 금속작품 초대전》(대전, 켈트갤러리)
- 2008년 《공예의 향기전》(대전시립미술관)
- 2010년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
- 2017년 《고창환 금속작품 초대전》
- 2018년 《제9회 고창환귀금속공예작품전》(대전, 갤러리 봄)

4 고창환, 앞의 글, 2018.

권대섭 (權大燮, 1952~)



권대섭, 〈백자호〉, 작가 제공



권대섭, 〈백자호〉, 작가 제공

1952년 대전에서 출생한 권대섭은 국민학교 때부터 전국그림대회에서 상을 많이 받았으며, 충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에 진학하였다.¹

대학 시절부터 골동품에 관심이 많았던 작가는 제대 후 복학을 앞둔 3학년 때 인사동에서 우연히 조선시대 백자를 본 뒤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² 평면 회화를 할수록 입체작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 대학에서 서양미술을 전공했지만 본격적으로 도예에 입문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1979년부터 5년간 일본 규슈 이만리에서 나베시마요(鍋島窯)의 가업을 잇고 있는 오가사와라(おがさわら小笠原) 도예몬에서 도자를 배우고, 규슈 나베시마에서 조선 도공의 흔적을 찾고자 노력했다.³ 학업을 마치고 일본에서 귀국 후 권대섭은 석림요업과 분원백자 연구소 등에 근무하면서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이석리에 작업장을 마련해 직접 가마를 지어 작품을 제작하였다. 일과 작품 활동 외 15년간 전국 도요지를 찾아다니며 도자 파편을 수집, 분석하는 연구를 지속하였다.

작가는 40년 이상 꾸준히 백자 달 향아리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나 대중에게 공개되는 작품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작가는 “좋은 작품을 가마에서 꺼낼 때는 즐거움을 느끼고 말을 거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부수어 버린다. 보통 1년에 약 10여 점의 백자 향아리를 완성작으로 빚어낸다.”⁴고 설명한다. 또한 작가는 “달 향아리는 빚는 이유는 전통

1 권대섭에 관한 자료를 보면 서울 출생으로 표기된 경우가 있는데 작가에게 문의한 결과 대전 출생으로 충남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한다.

2 김중호, 「오후여담 : 권대섭 달향아리」, 『문화일보』(2019. 10. 23).

3 작가가 제공한 노트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4 출처: 작가노트.

을 잇기 위해서라기보다 달 항아리는 입체에서도 가장 현대적이며 가장 미니멀하고 가장 추상적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였다.⁵

권대섭의 달 항아리는 프랑스 기메미술관, 미국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 시카고, 멕시코 국립 박물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박물관 등에 소장되었다.

연보

- 1952년 대전 출생
- 1978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1979~1984년 일본 규슈 오가사와라 도예몬에서 수학
- 1985~1998년 석림요업·분원백자연구소 근무
- 1993년 국립민속박물관 진열용 반상기 제작
- 1995년 《제1회 개인전》(서울, 덕원미술관)
- 1997년 《제2회 개인전》(일본, 한국문화원) / 《제3회 개인전》(일본 요코하마, 프렌즈갤러리)
- 1998년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선정 미술부문 최우수예술인상 수상
- 2000~2014년 《개인전》(서울, Seomi Tuus Gallery / 동원화랑 등)
- 2009년 《디자인 마이애미 바젤》
- 2013년 《이탈리아 밀라노 트리에날레 디자인 미술관 52주년 기념전》
- 2014년 《백자예찬: 미술, 백자를 품다》(서울, 서울미술관)
- 2015년 《정창섭·권대섭 2인전》(벨기에, 악셀 페르보르트 갤러리)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Korea Now!》(파리국립장식미술관)
- 2016년 《2016 Korea Now! Korean Crafts & Design》(뮌헨, Bavarian National Museum)
《Art Monte Carlo with Taste》(모나코 몬테칼로)
《Art Geneve 2016 with Taste》(스위스 제네바)
- 2017년 《Moonstruck: TASTEat Artgenève》(스위스 제네바)
《Matsuyoi: between Imperfection and Perfection》(도쿄, The Club Gallery at Ginza Six)
- 2018년 《권대섭 작품전》(벨기에, 악셀 페르보르트 갤러리)
《평창동계올림픽기념 한국공예전》(강릉, 올림픽파크 라이브사이트)
- 2019년 《박여숙 갤러리 개관기념전》(서울, 박여숙갤러리)
- 2020년 《권대섭 사발전》(서울, 박여숙갤러리)
- 2021년 대한민국 문화훈장 수상 / 《100 Korean Life Ceramics Exhibition》(경기도 광주, 한국도자재단)
《권대섭 초대전》(부산, 조현갤러리) / 《Boundless Union: Bae Bien-U and Kwon Dae-Sup》
(벨기에 Antwerp, Axel Vervoordt Gallery)

5 정형모, 「우리 민족의 DNA를 빛다, 달항아리 작가 권대섭」, 『Forbes Korea』(2019. 10. 23).

김대열 (金大烈, 1952~)



김대열, 《비상비공(非相非空)》, 2014, 화선지에 수묵, 41×72cm
(출처: 김대열 네이버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goldy0303>)



김대열, 《석본무성(石本無聲)》, 2013, 화선지에 수묵, 91×63cm
(출처: 김윤섭, 「김대열의 상외지상, 형상 밖에서 형상을 구하다」, 『Arts&Culture』, 2014. 1. 13)

호는 범석(凡石). 1952년 충청남도 청양 대치면 광금리에서 출생한 김대열은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학사, 중화민국 국립대만사범대 대학원에서 예술학 석사를 마치고 단국대 대학원에서 미술사 전공으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작가는 물이나 산, 숲을 소재로 선(禪), 깨달음과 같은 관념적 경지를 회화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김대열은 거침없는 필력의 속도감과 세련된 공간 운용의 여백미가 돋보이는 수묵화 작업을 중점적으로 선보이며, 단순한 선과 간결한 면으로 화면을 구성하여 농묵과 담묵의 조화를 보여준다. 이에 “김대열의 그림은 신운(神韻)이 생동하는 그림”이라는 평을 듣기도 하였다.¹ 김대열의 작품은 불교의 선종(禪宗)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 특히 선종의 수행이나 명상적 사유 등을 작품제작의 키워드로 삼고 단색

(單色)과 감필(減筆), 사유적인 정신성 추구, 구상과 추상을 한 뿌리에 두고 그 경계를 넘어선 조형 어법은 김대열이 한 평생 천착해온 화법이자 화두이다.²

이러한 작품활동 외에 김대열은 미술계에서 교육자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단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경희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으며, 현재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와 중국 남개대학 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³ 또한 『수묵언어, 견산 30년』, 『수묵화 출현과 선종』, 『선종사상과 시각예술』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한국불교

1 「수묵으로 펼친 청산유수…김대열 씨 개인전」, 『한경라이프』(2011. 8. 29); 「한국화가 김대열교수의 농묵과 담묵의 ‘상외지상’전」, 『이주경제』(2013. 9. 23).

2 김윤섭, 「김대열의 수묵언어」, 『Arts&Culture』(2017. 7. 8).

3 동국대학교 김대열 교수 프로필 참조. <https://edulife.dongguk.edu/ngrade/site/teacher/1845>

학회, 한국중고교육학회, 한국선학회, 한국문화사학회, 동양예술학회 등의 회원으로 학술연구 발전에도 이바지하였다. 나아가 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 (사)한국미술협회 이사 등⁴을 역임하며 한국 미술계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연 보

- 1952년 충청남도 청양 출생⁵
- 1985~1996년 단국대학교 회화과 강사 역임
- 1987~1997년 동국대학교 강사 역임
- 1988년 《개인전》(청주, 청남미술관)
- 1988~1996년 추계예술대학교 동양화과 강사 역임
- 1994~1996년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강사 역임
- 1995~1997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역임
- 1997년~현재 동국대학교 미술학부 교수로 재직
- 1990년 《개인전》(서울, 동덕미술관)
- 2002년 단국대학교 대학원(미술사전공) 문학 박사
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 2006년 개인전 《물소리 자유자재-감성과 화두》(서울, 인사아트센터)
- 2009년 《한국화의 현대적 변용》(서울, 예술의전당)
- 2011년 개인전 《푸른산 흐르는 물 전》(서울, 장은선갤러리)
- 2012년 《한국화 새로운, 모색 2012》(서울, 갤러리 라메르)
《안전회화정신전》(서울, 세종문화회관)
- 2013년 개인전 《상외지상(象外之象)전》(서울, 공아트스페이스)
- 2015년 《한중 회화교류전》(중국, 산둥예술대학)
- 2017년 개인전《견산 30년》(서울, 한벽원갤러리)
화문집 『견산30년』(헝사곤) 출간
저서 『선종사상과 시각예술』(헝사곤) 출간
저서 『수묵화 출현과 선종 영향』(헝사곤) 출간
- 2018년 《신 금강산도전》(이천시립월전미술관)
- 2019년 《수묵의 조형, 수묵의 확장》(홍콩, 한국문화원)
- 2021년 개인전 《십우도- 잃어버린 소를 찾아》(서울, 공아트스페이스)
저서 『십우도』(헝사곤) 출간
- 2022년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및 중국 남개대학교 객좌 교수 역임

4 김윤섭, 「김대열의 상외지상, 형상 밖에서 형상을 구하다」, 『Arts&Culture』(2014. 1. 13).

5 백두현, 「김대열 화가 7번째 개인전」, 『청양신문』(2005. 12. 5).

김영숙(金英淑, 1952~)



김영숙, <기다림>, 2002, 천·염색, 미상(출처: 『대전공예가협회』, 평송수련원, 2002)



김영숙, <자연>, 2008, 가죽, 30×30cm(출처: 『대전 섬유조형회원전』, 대전중구문화원, 2020)

있으며, 천연염색의 저변화와 더불어 활용 영역을 넓히고자 노력하면서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1952년 경상북도 상주에서 출생한 김영숙은 청주를 거쳐 충북 괴산으로 이주해 성장하였다. 1972년 청주여자대학교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한 후 태안중학교부터 금산중학교까지 20여 년간 충남 소재 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였다. 재직 중 꾸준히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에 참여하였으며 대학원에 진학해 염직 공예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1992년 전업 작가로 작품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교직생활을 그만두고 다수의 공모전에 출품해 수상했다.

자연이 좋아서 자연의 염료에 매료된 작가는 ‘가장 자연스러움이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으로 작품에 임한다.¹ 순수염색 작업을 하던 작가는 천연염료로 염색한 천으로 의상을 만드는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였다. 아울러 천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색상의 염료로 물들인 끈, 종이, 가죽 등을 활용해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2002년 작품 <기다림>이 따뜻한 톤으로 염색한 천을 바탕 화면으로 강렬한 원색의 대비를 보여주는 반면, 2008년 작품 <자연>은 무채색 위주로 염색한 가죽을 이용해 출렁이는 파도를 연상케 하는 화면을 조성하였다.

작가는 천연염색 패션쇼 7회, 개인전 20여회, 학교전 30회 등 열심히 활동하며 2020년 천연염색 부문 전통천연염색디자인 명장(제20-명203호) 칭호를 얻

1 김영숙, 「초대의 글」, 『김영숙 개인전』(대전: MBC방송국 갤러리M, 2019).

연보

- 1952년 경상북도 상주 출생
- 1968년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1972년 청주여자대학교 응용미술학과 졸업
- 1972~1992년 태안중학교, 홍성여자중학교, 대덕중·고등학교, 웅천중학교, 금산중학교 미술교사 역임
- 1986년 《한국우수작가100인 국제전》(미국 샌프란시스코)
- 1987년 《충청남도 산업미술대전》 공예디자인 부문 특선 / 《김영숙 개인전》(서울, 아람미술관)
- 1988년 《충청남도미술대전》 공예 부문 특선 /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미술학과(임직 전공) 졸업
- 1989년 《충청남도미술대전》 공예 부문 우수상 / 《대한민국공예대전》 섬유·임직 부문 입선
- 1990~2022년 《대전공예가협회전》(대전문화원 / 평송수련원 / 대전시청 전시실 등)
- 1991~2018년 《대전섬유조형회원전》(대전문화원 / 대전, KBS 전시실 등)
- 1993년 《김영숙 개인전》(대전, 갤러리쉽)
- 1995년 《김영숙 개인전》(서울, 갤러리터)
- 1995~2021년 《대전여성미술가협회전》(대전, 대청문화전시관 등)
- 1996년 《김영숙 개인전》(부평, 동아갤러리 / 대전, 갤러리쉽)
- 2000년 San Francisco Academy of Art College 수료(fine art 연수)
- 2001년 《김영숙 개인전》(대전시청 1층 전시실 / 대덕, 롯데호텔 갤러리)
- 2002년 《대전공예가협회전》(대전, 평송수련원)
- 2003~2009년 《제33회·35회·37회·39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광주광역시,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심사위원 역임
- 2005년 《김영숙 개인전》(대전, 에스닷갤러리)
- 2009년 《김영숙 개인전》(서울, 갤러리소나무)
《김영숙 천연염색 패션쇼》(대전,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대전엑스포 컨벤션 센터)
- 2010년 《김영숙 천연염색 패션쇼》(대전, 김영숙 크레프트)
- 2011년 《김영숙 개인전》(대전, 유성 빌딩 지하전시장)
- 2011년~현재 주) 아람누리 대표이사
- 2012년 《대한민국 전통미술대전》 천연염색 공예 부문 대상
- 2018년~현재 대전대학교 교육원 자연염색아카데미 주임교수
- 2019년 《김영숙 개인전》(대전, MBC방송국 갤러리M)
- 2019년~현재 한국천연염색디자인협회 회장
- 2020년 천연염색 부문 전통천연염색디자인 명장 제20-203호 선정
《대전섬유조형회원전》(대전중구문화원)

김용선 (金容善, 1952~)



김용선, 《존재의 숲-1》, 2001, 캔버스에 유채, 162.2 × 130.3cm(출처: 김용선 블로그 '별밭아뜨리에')



김용선, 《만물상 계곡》, 2009, 캔버스에 유채, 72.7 × 60.6cm(출처: 김용선 블로그 '별밭아뜨리에')

김용선은 1952년 대전 출생으로, 충남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1968년 충남고등학교 1학년 때 고교 미술부 단체인 '미상록'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미술에 입문했다.¹ 1978년부터 2011년까지 잠실여자고등학교와 일신여자중학교 등에서 교직 생활을 했으며, 교직 생활 시작 후 《성남문화원 개관기념 초대전》에 참여했고 《미상록회원전》, 《우정의만남전》 등에 출품했다. 50세에 접어든 2001년 서울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2009년까지 세 번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숲, 계곡, 냇가, 산 등을 주요 소재로 삼아 일상 풍경과 명승지를 섬세하게 포착한 풍경화를 주로 그린다.

여러 가지 조형적인 실험을 시도하면서 예술의 본질을 모색해 온 김용선은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늘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그 속에서 뛰어놀던 계룡산의 숲과 계곡 같은 소재가 결국 내 작품의 주요 모티브가 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² 김용선은 투박하고 두터운 질감을 살려 화면의 표면을 매우 두껍게 처리하는데, 나이프를 사용해 선을 반복해서 긁는 ‘스크래치’ 기법으로 밑작업을 완성한다. 나이프로 작업하는 것은 동네 아이들과 함께 흙 마당에서 나뭇가지나 대못 등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어린 시절부터의 오랜 습관으로, 그 시절에 대한 향수와 동경을 담고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에 관해서 평론가 윤익영은 “추상할 수 있을 만큼만 추상하게 하고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만 사실적으로 묘사”한 형식이라고 평

1 『2016 중구작가초대전』(대전중구문화원, 2016), p. 12.

2 김영재, 「투명한 본질식각을 향한 사모곡」, 김용선 블로그 '별밭아뜨리에' 참조. <https://blog.naver.com/dragon52kr>

가했다.³

2010년 《동서의 만남전》(미국 L.A), 2012년 《TGKAF전》(일본 도쿄), 2012년 《파리-서울 신년초대전》(프랑스 파리) 등의 해외 전시에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매해 개최되는 《한·중 교류전》에 참가하고 있다. 현재 2000년대 후반 교사로 퇴임하기 전에 마련한 양평군 전수리 작업실에서 텃밭 농사와 작업을 병행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연보

- 1952년 대전 출생
- 1971년 충남고등학교 졸업
- 1976년 홍익대학교 미술교육과(서양화 전공) 졸업
- 1980년 《성남문화원 개관기념 초대전》(경기도, 성남문화원)
- 2001년 《개인전》(서울, 관훈갤러리)
- 2005년 《개인전》(서울, 인사갤러리)
- 2009년 《개인전》(서울, 라메르갤러리)
《우연갤러리 초대전》(대전, 우연갤러리)
- 2010년 《동서의 만남전(East & West meet exhibition)》(미국 L.A, Hancock design center gallery)
- 2011년 《도쿄 긴자 미술 교류전》(일본 도쿄, 긴자 西區갤러리)
- 2012년 《Greet the New Year Paris-Seoul Exhibition》(프랑스 파리, B.Vhara gallery)
《TGKAF전》(일본 도쿄)
《한·중 미술교류전》(중국 흑룡강성, 수분하무역전시관)
- 2013년 《제7회 광주 동관 국제예술박람회》(중국 광주)
《중국-통위 국제서화예술제》(중국 감숙성 통위, 서화산업원 悅心화랑)
- 2015년 《Asian way 한·중교류전》(중국 하얼빈, 中關村文化藝術中心화랑)
- 2016년 《52! 리멤버 미상록전》(대전, 갤러리 J)
- 2018년 《2018-한·중교류전》(서울, 풍데아르갤러리)
- 2019년 《2019 Asian 신바람전》(서울, 마루갤러리)
- 2022년 《5월 빛》(서울, 아리수갤러리)

3 김용선 블로그 '별밭아뜨리에' 참조. <https://blog.naver.com/dragon52kr>

박세은(朴世殷, 1952~)



박세은, 〈나의 옛구두〉, 1971, 캔버스에 유채, 45.5×53cm(출처: 사단법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홈페이지)



박세은, 〈뒷세오름(II)〉, 2021, 캔버스에 유채, 61×61cm(출처: 대전중구문화원 홈페이지)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난 박세은은 1971년 《제1회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나의 옛구두〉로 특선을 수상했다. 《제2회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특선을 하면서 이듬해 열린 《제3회 충청남도미술대전》에 초대작가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1973년 대전 산강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고 십여 년이 지난 1985년 두번째 개인전을 대전 반도화랑에서 개최했다. 1978년 대전시미술대전에서 초대작가상을 받았고, 1982년부터 대전시미술대전 운영 및 심사위원을 5회 역임했다.

1977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던 박세은은 회사생활과 화업을 병행하며 단체전을 통해 꾸준히 작품을 선보였으며, 2017년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자연의 응시(凝視)를 통한 정념(情念) 표현 연구」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박세은은 대상에 대한 철학적 응시와 융합표현으로 대상을 구현해내는데, 단순한 시각이 아닌 관념적인 표현에서 독특한 조형적 방법을 제시한다.¹ 풍경과 정물을 주로 그리는 작가로 푸른색과 보라색 계열의 색감을 파스텔 색조와 같이 부드럽게 혼합해 화면에 담아낸다. 정물화나 인물화에서는 중심 대상을 사실

적으로 묘사하는 반면, 풍경화에서는 배경의 면을 구획하지 않고 색면과 면의 경계를 흐리게 처리해 추상적으로 화면을 구현한다. 이러한 박세은의 회화 세계는 “일회적이고 일시적이며 우연한 것이 아닌, 깊은 서정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숭고 미학을 지향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²

2022년 현재 대전광역시 초대작가, 한국미술협회, 대전구상작가회, 원로작가회, 대전국제미술교류회, 크로키연구회, 화연회 등 많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TJB 갤러리고트 빈 초대전》(2021), 《화연전》(2022) 등에 참여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1 정장직, 「박세은 프랑스 파리 展 전시평」, 사단법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okja.org/europe_dong/71546

2 아트허브 홈페이지 참조. http://www.arthub.co.kr/sub01/board05_view.htm?No=22729

연보

- 1952년 충청남도 논산 출생
- 1971년 《제1회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나의 옛 구두〉로 특선
- 1973년 《개인전》(대전, 산강화랑)
- 1973~1982년 《목우회전》(10·15·19회)에서 입선
- 1977~2000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근무
- 1978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 1982년 《한국미협전》(국립현대미술관)
- 1984년 《제7회 이신회전》(대전, 신신화랑) / 《제8회 충남구상작가협회전》(대전문화원)
- 1985년 《개인전》(대전, 반도화랑)
- 1987년 《제21회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
- 1988년 《아름다운 금강전》(대전, MBC문화공간)
- 1988~1994년 《대전시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1991년 《제3회 대전시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
- 1992년 《이신회전》(대전, MBC문화공간)
- 1993년 《EXPO대전의 빛전》(대전시민회관)
- 1994년 《오늘의 한국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
- 1995년 《대전미술의 어제와 오늘》(대전문화원) / 《대전미술50년전》(대전, 한밭도서관)
- 1996년 《한밭 어제와 오늘전》(대전시민회관)
- 2002년 《월드컵기념 아름다운 세계전》(대전시민회관)
- 2003년 《유성문화원개관기념전》(대전, 유성문화원)
- 2010년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
- 2013년 《대전중구문화원개원 60주년 기념전》(대전중구문화원)
《이웃사랑 나눔전》(대전, MBC갤러리)
- 2015년 《밀라노 엑스포 한국의날 기념전》(이탈리아 밀라노)
- 2016년 《개인전》(대전, 모리스갤러리)
- 2017년 충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회화전공) 졸업
《개인전》(프랑스 파리, 폰데자르 갤러리)
- 2019년 《대전아트대전 부스 개인전》(대전, KBS갤러리)
- 2020년 《MBC 새롭게 걷다》(대전, MBC갤러리M)
- 2021년 《대전에 세계의 색을 입히다》(대전중구문화원)
- 2022년 《화연전》(대전, 갤러리탄)

송순영 (宋淳永, 1952~)



송순영, 〈푸른산〉, 1998, 실크·바틱, 79×53cm
(출처: 『송순영개인전』, 현대아트갤러리, 1998)



송순영, 〈나무〉, 2011, 실크·파라핀, 70×70cm
(출처: 『송순영개인전』, 한가람미술관, 2011)

1952년 대전에서 출생한 송순영은 숙명여자대학교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였다. 대학원에서 염색공예를 전공한 작가는 1985년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응용미술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공예 속에서 염색 분야는 대체로 의상이나 벽면 장식에 국한되어 있지만 송순영은 제한된 평면 공간 속에서 나름대로 변화를 주고자 노력하였다. 염색은 천을 이루는 미세한 결과 질 사이에 스며드는 것으로 작가는 맑고 안정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초염(草染)기법을 주로 이용해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염색은 보정이나 덧칠이 어려워 철저한 계획에 의해 진행해야 하는 까다롭고 힘든 공정의 연속이다. 작가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 나무와 산의 조화로운 조합을 통해 한 폭의 수채화와 같이 맑은 화면을 창출한다.

초기에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한 반복적 패턴의 작품을 선보였던 작가는 1998년 개인전에서 〈푸른산〉, 〈회색산〉, 〈산과 붉은 나무〉, 〈등꽃〉 등 순수 회화적인 요소가 강한 작품으로 변화를 모색하였다. 〈푸른산〉은 근경에 두 그루의 나무를 배치하고 뒤로 갈수록 점점 연하게 변지는 그라데이션을 통해 첩첩산중의 원근감을 보여준다. 농담의 변화를 선염법으로 처리해 채색수묵화를 보는 듯 화사하다.

송순영은 2011년 개인전에서 배경을 최소화하면서 전경의 나무를 클로즈업해 나무 기둥과 줄기의 디테일을 살린 《나무》 연작을 선보였다. 작가는 2013년 전시에서는 나무를 더욱 확대해 그 속에 내재된 자연

의 질서를 표현하는 《정렬》 연작을 출품하였다. 평면적인 염색에 머물지 않고 세밀한 면분할을 통해 디테일을 살리는 섬세함을 더해 입체적인 느낌을 살리는 변화를 주었다.

송순영은 교직에 있으면서 연구와 작품활동에 매진하다 1999년 대학에서 정년 퇴임하였다. 퇴직 후에도 개인전 및 단체전에 꾸준히 참가하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연보

- 1952년 대전 출생
- 1975년 숙명여자대학교 응용미술학과 졸업
- 1976년~현재 《청미회전》¹
- 1977년 《제11회 동아공예대전》에서 입선
- 1978년~현재 《현대공예창작회전》(서울, 미도과화랑·출판문화회관전시실 등)
- 1980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수료
《한국공예가회전》(서울, 미도과화랑)
- 1982년 《대한산업미술가협회전》(서울, 디자인포장센터)
- 1983년 《대한민국 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 입선
- 1984년 《제1회 한국섬유비엔날레전》(서울, 미술회관)
《송순영 개인전》(서울, 백상기념관 / 대전, 한국화랑)
- 1985년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응용미술학과 교수로 부임
- 1988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전
《대한산업미술가협회전》(서울, 디자인포장센터 / 한전아트센터)
- 1991년 《대전섬유조형회 창립전》
- 1993년 《충청남도미술대전》 /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
- 1994년 《대전섬유조형회전》(대전, 한림갤러리)
- 1998년 《송순영 개인전》(서울, 현대아트갤러리)
- 1999년 한남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과 정년퇴임
- 2008년 《송순영 염색전》(서울, 예술의전당)
- 2011년 《송순영 염색전》(서울, 예술의전당)
- 2012년 《제16회 대덕미술초대전》(대전, 대덕문예회관)
- 2013년 《송순영 염색전》(서울, 예술의전당)
- 2014년 《공주국제미술제》(공주, 임림미술관)

1 '청미회'는 숙명여자대학교 동문들의 모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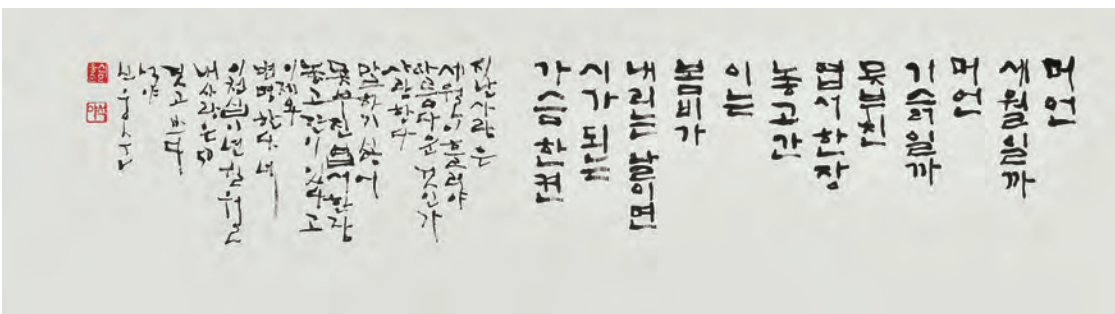
신웅순(申雄淳, 1952~)

호는 석야(石野). 신웅순은 1952년 충청남도 서천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적부터 교내 어린이회에서 서기로 활동할 정도로 글씨 쓰기를 좋아했다.¹ 1970년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주교육대학교에 들어가 1973년 졸업했다. 이후 1982년 한남대학교에 진학해 국어교육을 전공했다.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김충현(金忠顯, 1921~2006)과 정주상(鄭周相, 1925~2012)의 글씨를 스승 삼아 독학으로 한글 궁체를 익혔다. 초·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1975년도에는 《전국법첩임서대회》에서 입선했고 1986년에는 《전국서예대회》에서 특선을 수상했다. 서예를 본격적으로 배우고자 김명자(金明子)를 사사했고, 한글 궁체에 정진, 꽃들 이미경, 늘샘 권오실, 유정 김명자의 한글 계보를 이었다. 김명자 문하에서 《옥원동회연》, 《서한연의》, 《낙성비룡》, 《봉서》, 《서간문》 등을 비롯 현대 궁체 정자, 흘림, 반흘림, 판서체 등을 여러 글자체들을 섭렵했다. 또한 정병례(鄭昞例, 1947~)로부터 전각을 사사 받기도 했다.

신웅순의 한글 석야체는 현대한글서체의 지평을 넓히고 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신만의 시·서로 새로운 서예 장르를 개척했으며 시·캘리그래피라는 또 하나의 현대서예술을 창작, 연구하고 있다. 또한 『서예문인화』에 한글 서예 평론을 최초로 연재하며 현대 한글 서예가 45명을 조명했다. 한글 평론 『서예평설』을 저술해 척박한 한글서예 평론사에 한 획을 긋기도 했다. 또한 『한국주간문학신문』에 「관전」, 「광개토대왕비」, 「추사유묵, 금석문이야기」를 108회 연재했고, 『월간서예』에도 「금석문 이야기」 10회를 포함해 김홍도의 「서당」, 신윤복의 「월하정인」 등 옛 그림 이야기를 연재해 한글서예 외에도 한문, 옛 그림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널리 알려려고 하였다.

중부대학교를 퇴임한 후에는 한글 서예 제자 양성에도 힘을 쏟았으며 동시에 고어(古語) 한



신웅순, 〈내사랑은 50〉, 2012, 23×80cm, 작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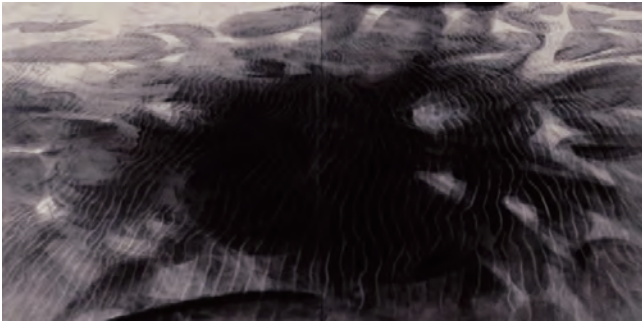
¹ 실제로는 1951년 출생했으며, 주민등록상 출생년도는 1952년이다.

글 정자, 흘림, 진흘림 그리고 현대 한글 서예정자, 흘림, 판서체에 자신이 창안한 석야체 등에 이르기까지 한글 9체를 발전·연구했다. 최근에는 실용성 있는 도자기에 예술성을 가미한 도자기 핸드 페인팅 작업을 하며 생활 서예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연 보

- 1952년 충청남도 서천 출생
- 1970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 1973년 공주교육대학교 졸업
- 1975년 《전국법첩임서대회》에서 한글 입상
- 1982년 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 1986년 《전국서예대전》에서 한글 특선
- 1991년 명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졸업
- 1996년 명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
중부대학교 국문학 교수로 부임
- 2001년 《충청서단전》에 참여
- 2006년 《세종한글서예대전》 초대작가
- 2009년 《대한민국한글서예대전》 초대작가
- 2011~2016년 『서예문화』에 「한국 근현대한글서예작가」 45인 서예 평론 연재
- 2013~2016년 『주간한국문학신문』에 「유묵(遺墨) 이야기」 108회 연재
- 2014년 주미한국대사관 워싱턴 한국문화원 주최 《568돌 한글날기념 한글서예초대전》
- 2015년 《한국교수서예가초대전》(서울,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 2016년 평론집 『서예평설』(장수출판사) 출간
『한국미술작가명감』(대한민국미술협회 발간)에 수록
- 2017년 중부대학교 정년퇴임 / 중부대 명예교수
《대전고등학교 개교100주년기념미술전》
- 2020년 ‘한국캘리그래피창작협회’ 연수교육(「문학과 캘리그래피」) 특강
- 2021년 《제4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1차 한글분야 심사위원장 위촉
- 2022년 《한국미술협회 제25대 임원초대전》

오숙환(吳淑煥, 1952~)



오숙환, 〈빛과 시공간〉, 2001, 한지에 수묵, 200×400cm, 국립현대미술관

1952년 충청남도 당진 출생인 오숙환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동양화과를 전공하고 순수미술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미술협회, 이원전, 채연전, 기독교미술인협회, 후소회, 회화2000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¹

오숙환은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인정받아 1981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대상, 2004년 제7회 이당미술상, 2012년 이중섭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작가는 1980년대 초부터 수묵화를 지향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일관되게 수묵화를 창작하고 있다.² 빛과 시공간이라는 원초적이며 추상적인 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하고 있는 오숙환은 ‘먹으로 빛을 그리는 추상화가’로 불린다. 화선지에 먹이 스미고 번지면서 나타나는 깊이 있는 공간감, 물과 공기의 일렁이는 느낌은 오숙환 수묵화의 특징이다. 그는 국전 대상 작품을 시작으로 ‘빛’의 세계를 수묵화로 표현하였으며 빛과 시간과 공간이라는 주제로 확대된 공간감을 표현하고자 노력하며 오숙환의 독자적인 작업세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³



오숙환, 〈시간과 공간〉, 1997, 한지에 수묵담채, 200×200cm, 서울시립미술관

작가는 주관적인 변형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차분한 관조의 시선으로 관찰하고 그 현상을 대중 앞에 담담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오숙환의 수묵화 작업에는 조용하면서도 역동적인 자연의 이중적 면모가 공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

즉 오숙환의 추상화는 ‘빛과 시공간’이라는 전통적인 범주를 현대적인 주제로 부활시켜 새로운 추상

1 오숙환 프로필은 한국 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참조. <https://www.daarts.or.kr/handle/11080/19463>

2 오광수, 「수묵의 조형과 자연의 숨결」, 『오숙환 빛 · 시간 · 공간』(학연문화사, 2017).

3 오숙환 작가의 작품세계 웹사이트 참조. <https://blog.naver.com/chojih0918/222690346073>

4 네이버 지식백과 ‘오숙환’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68017&cid=58863&categoryId=58863>

산수화를 창안한 것이다. 이에 미술평론가 오광수는 “종래의 관념으로서의 산수도, 실경을 묘사한 산수도 아닌 오숙환의 작품은 시원으로서의 풍경이자 산수라고 하는 편이 어울린다”고 평하였다.⁵

연보

- 1952년 충청남도 당진 출생⁶
- 1975년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1978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순수미술과 졸업
- 1981년 《제30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대상 수상
- 1983년 《경인미술관 개관기념전》(서울, 경인미술관)
- 1989~1997년 《서울현대한국화전》에 참여
- 1994~2017년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동양화 전공 교수 역임
- 1998년 《대전-공간 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
- 1998~2017년 《후소회전》에 참여
- 2000년 《東洋畫 새 千年: 수묵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서울시립미술관)
- 2001년 《수묵의 향기, 수묵의 조형-한 중 일 현대수묵화전》(과천, 국립현대미술관)
- 200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300주년 기념 한국현대미술: 자연의 숨결展》 큐레이터 역임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시 심의위원 역임
《나혜석 여성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대한민국청년비엔날레 운영위원 역임
- 2004년 제7회 이당 미술상 수상
《동양화-새천년》(서울, 예술의전당)
- 2007년 《한국의 멋, 한국 현대수묵 10전》(중국 상해, 한국문화원)
- 2008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유물구입 심사위원 역임
- 2011~2015년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학장 역임
- 2012년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인상 수상
24회 이중섭 미술상 수상
- 2016년 《한국화 추상작가 6인전: 어제와 오늘》(경기, 안상철미술관)
- 2017년 《먹의 멋과 맛》(이천시립월전미술관)
- 2019년 《개인전 자연의 호흡, The Breath of Nature》(서울, 동덕아트갤러리)
- 2021년 《우리 시대의 화가》(서울, 한원미술관)
- 2022년 《동음과 이음》(서울, 동덕아트갤러리)

5 오광수 앞의 글.

6 「먹으로 빛을 머금다... 붓으로 바람을 붙잡다」, 『조선일보』(2012. 5. 15).

유동조 (俞東朝, 1952~)



유동조, 〈세 가지 물 2004-1〉, 2004, 흙·철·물, 240×400×40cm, 대전시립미술관



유동조, 〈세 가지 물 2004-1〉 부분

1952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한 유동조는 1973년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회화과 입학해, 같은 해 육군에 입대했다. 군대에 있던 1975년 10월 초부터 1976년 초까지 6개월간 유행성질병으로 한 달 반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던 작가는 군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 후, 재생하는 경험을 했다. 이 경험은 인생관을 바꾸어놓아 후에 〈물과 죽음, 그리고 재생〉을 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6년 복학한 유동조는 1978년 경북 경산읍에서 지내면서 숙소 근처의 하양천과 금호강에서 수석 수집에 취미를 갖고 한국 최초의 수석잡지 『수석과 분재』를 정기구독하며 물과 돌의 관계를 공부했다. 이는 작가가 물과 관련된 작품을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유동조는 블루진과 물·돌·벽돌·빨래판·백묵에 탈색제를 이용해 흔적을 남기는 〈계단위에 블루진과 크기가 다른 돌들〉(1980)과 같은 설치작품을 제작했다. 이 작품에서 블루진은 캔버스를 대체하는 화면이자 오브제였다.

대학교 졸업 후 유동조는 1981년 야투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는 한편, 1984년까지 인천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이후 1986년까지 2년 동안 안양에서 화실을 운영하며, 안산시 외곽에 위치한 고잔 저수지에서 밤낚시에 몰두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1990년 《바람이 그린 그림》 연작과 〈물은 물이다〉, 1991년 〈오늘의 낚시〉 등 설치작품을 제작했다.

1989년 유동조는 야투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전시를 위해 독일 함부르크를 방문하면서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1990년 독일에서 동향인(同鄉人)인 방

영자 여사(당시 간호사이자 미술가로 활동)를 만나 그녀의 도움으로 함부르크 국립미술대학 자유미술과에 입학한 후, 독일에 정착했다.¹ 1994년 함부르크 국립미술대학 교수인 클라우스 뵘러(Claus Böhmler)와 예방미술운동을 공동 창설한 유동조는 1998년 졸업 후 귀국해 대전에 거처를 마련하고 작품활동을 이어갔다. 유동조는 2000년 예방미술 한국연구소를 개원하여 2014년까지 예방미술연구회 대표로 활동했다.² 또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물-행위 설치프로젝트 <물이 있으면 ‘물’이 없고, ‘물’이 없으면 물이 있다>를 의왕시 백운호수를 시작으로 덴마크, 캄보디아, 호주, 노르웨이, 인도, 중국, 이집트 나일강, 페루 티티카카호수, 러시아 바이칼호수를 순회하며 진행했다.

유동조의 대표작인 <세 가지 물 2004-1>은 작품이 설치된 지역의 날씨와 기후, 자연과 인간의 환경 등이 관련된 설치 조각으로 세 가지의 종류가 다른 물을 보여준다. 실제 ‘물’과 물 위에 반영된 문자 ‘물’, 그리고 그림자 ‘물’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물은 일기와 계절에 따라 형상, 양과 질, 크기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한순간도 같은 모양과 상태를 지속하지 않는다. 그림자 ‘물’은 하지를 전후로 볼 수 없을 만큼 가장 작고, 동지에는 가장 길고 크며, 결빙기에는 반영된 ‘물’이 없다. 또한 ‘하늘을 배경으로 한 물’은 하루하루의 시간과 일기변화 등 주변 세계와 영향을 주고 받는다. 물이 세계의 표정이 되는 이유이다. 작품의 재료인 물·흙·철은 오행의 상생원리 ‘土生金, 金生水’에서 가져온 것으로, 강철 수조에 약 3.8톤의 물을 채운 후 물의 상태와 질적 변화는 자연에 맡긴다. 즉 물의 양과 오염(汚濁)은 기후와 날씨의 변화에 따라 좌우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조는 지면과 같은 높이로 땅속에 설치되어 있어 빗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통해 주변 환경의 흔적들을 담는다. 수조가 인간의 행태를 반영하는 근거이며 설치된 또 다른 이유이다.

연보

- 1952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71년 공주고등학교 졸업
- 1973년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회화과 입학
- 1979년 《제5회 대구현대미술제: 내일을 모색하는 작가들》(대구, 매일화랑 외)
《유동조 제1회 개인 설치미술전》 개최
- 1980년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서양화과 졸업 / 《금강현대미술제》(공주, 금강백사장) 참여
- 1981~1982년 《오오(五悟)현대미술동인전》(공주문화원 / 대전문화원)

1 독일에 정착한 후 유동조는 1990년 초, 한 선배로부터 사기를 당하면서 커다란 난관에 봉착했다. 이때 디자인회사와 갤러리, 공동주택의 대표였던 미카엘 뢰셀(Michael Fessel 1941~2000)의 우정과 지원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한다. 미카엘 뢰셀과의 인연과 우정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자세히 나와 있다. 유동조, 「한발춘추-독일인 친구」, 『대전일보』(2002. 11. 1).

2 예방미술은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떤 부정적인 일이 생기기 전에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서 미리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일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목적으로 만든 새로운 미술운동이다. 독일어 동사 “예방하다-Vorbeugen”와 명사 “미술-Kunst”을 합성하여 Vorbeugungskunst라 칭했다.

- 1982~1984년 인천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87년 《실내에서의 자연요소전》(대전, 동아미술관)
- 1988년 《세 곳의 섬으로부터 전》(대전문화원)
- 1989년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독일, 함부르크 국립미술대학 전시관)
- 1990년 함부르크 국립미술대학 자유미술과 입학
- 1992년 《함부르크-서울 동시 Fax 전》(서울, 토탈갤러리)
- 1993년 《어디로부터-바람, 어디에-땅, 어디로-물 : 개인 설치미술전》(독일 함부르크, Villa Lupi 갤러리)
- 1994년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 교수인 클라우스 뵘러와 예방미술운동 공동 창설
《Made in Hamburg 5-Bahomas Land》(함부르크 쿤스트하우스) 참여
- 1996년 《Dialog 2, 13개 국가의 작가들-퍼포먼스, 설치전》(함부르크 순회전) 참여
- 1998년 독일 함부르크 국립미술대학 자유미술과 졸업, 귀국 후 대전 거주
- 1999년 《중심의 이동전》(서울, 문예진흥원미술관)
- 2000년 《예방미술을 위한 동서양의 만남-2인 설치 퍼포먼스》(독일 함부르크, 비넨알스터 호수)
《어디로-물》(대전, 호수 실내뉘시터 / 대전, 이공갤러리)
- 2000~2014년 예방미술 한국연구소 개원 및 예방미술연구회 대표로 활동
- 2000~2009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조형예술과에서 강의
- 2002년 《미디어 아트 2002 : 대전-뉴욕》(대전시립미술관)
- 2003년 《세 가지 물 2002》(독일 함부르크, Kunststueck 갤러리)
- 2004년 《제1회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공주영상대학)
《안양천 프로젝트-FLOW》(안양)
- 2004~2014년 물-행위 설치프로젝트 <물이 있으면 '물'이 없고, '물'이 없으면 물이 있다> 진행
- 2005년 국제미술가그룹 'Art On the Way' 덴마크 현대미술가 미카엘 한센과 공동 창립
《Concern on the Way(4개국 5인)》(서울, 토탈미술관) 기획 및 참여
《6인의 한국현대미술가》(덴마크, 실케보르그바드 아트센터) 참여
- 2006년 헤드마크 Kunstbanken 아트센터 주최, p'Art 프로젝트(노르웨이 솔리아) 참여
- 2008년 《Water Installations by Dongjo Yoo》(일본, Contemporary Art Space Osaka)
'한발국제현대미술협회' 공동 발기
《국립현대미술관 움직이는 미술관: 한국현대미술과 과학정신》(대전, 카이스트)
- 2009년 《Water of Nile》 조각 설치(이집트, 나일강 보호개발청 아스완 본부)
- 2010년 《Water and Dream》(대전, 스페이스 SSEE)
- 2012년 《프로젝트 대전 2012-에너지》(대전, 창작센터)
- 2014년 《대전미술의 지평 4인》(대전시립미술관)
- 2015년 《세계 자연미술가 30인》(공주, Nature Art Center)
- 2016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공주)

이장하(李長夏, 1952~)

1952년 대전에서 태어난 이장하는 대전고등학교를 나와 1971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했고 동 대학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대전 시내 고등학교 연합 미술단체인 미상록에서 활동했다. 1980년대 후반 ‘르쁘동인’의 회원전과 ‘TA-RA’의 회원전에 참여했으며, 《금강현대미술제》, 《남부현대미술제》, 《홍익 M·A·E 전》, 《화연전》 등의 단체전에서 활약했다. 계원예술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이장하는 1982년 관훈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이후 10여 년의 기간을 두고 1990년과 2010년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장하의 작품 속 장소는 넓은 들판, 숲, 사막 등으로, 지평선과 넓은 여백의 공간이 화면에 드러난다. 배경을 흐리게 처리해 광활하게 열린 공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반해, 선명하게 처리한 기하학적인 형태는 비교적 명확한 형태를 지닌 숫자, 원, 시계, 바코드 등으로 묘사했다.

2010년 개인전에서는 자연 안에서 변화하는 삶의 흐름을 추상화한 이미지를 담은 《지평에서》 연작을 선보였다.¹ 작품마다 지평선의 높낮이를 달리하면서 화면을 등분했는데, 작품에 구현된 지평선에 대해 이장하는 몽골의 사막과 티베트의 초원을 여행하면서 광활한 지평선을 보게 되었고, 지평선을 따라 오갔을 수많은 사람과 역사를 상상하며 지평선에 중첩된 시간을 화면에 표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²

2017년 개인전에서는 《심상》 연작을 선보였다. 2014년 무렵 시작한 이장하의 《심상》 연작



이장하, 〈지평에서〉, 2010, 캔버스에 아크릴, 60.6×72.7cm
(출처: 『地평에서-이장하展』, 화봉갤러리, 2010)



이장하, 〈심상17112-2〉, 2017, 캔버스에 아크릴, 112×145cm
(출처: 『이장하 개인전』, 아리수갤러리, 2017)

1 《地평에서》(화봉갤러리, 2010) 전시정보, 아트허브 홈페이지. http://www.arthub.co.kr/sub01/board05_view.htm?No=1403

2 「지평선과 하늘... 끝모를 풍경서 만난 '중첩된 시간」, 『대구신문』(2017. 12. 13).

은 하늘과 산, 폭포, 길 등의 풍경을 푸른색을 중심으로 시각화했다. 이장하의 풍경화는 실재하는 풍경이 아니라 상상 속 풍경을 그렸다는 점에서 동양의 관념산수화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제목을 ‘심상’이라고 붙인 점 역시 관념적인 요소를 극대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이장하의 작품에는 자동차, 혹은 기차를 타고 갈 때 마주치는 풍경을 담고 있는 듯하지만, 경계와 형태를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색다른 풍경을 제시한다.

연보

- 1952년 대전 출생
- 1971년 홍익대학교 회화과 입학
- 1981년 《금강자연미술제》(대전문화원)
- 1982년 《개인전》(서울, 관훈미술관)
- 1983년 《회화전》(서울, 미술회관)
《서울현대미술제》(서울, 미술회관)
《TA,RA Group전》(서울, 관훈미술관)
- 1984년 《71회화전》(서울, 미술회관)
- 1987년 《'87르뽀 상황전》(대전, MBC문화공간)
《남부현대미술제》(부산시민회관)
《방향전》(서울, 윤갤러리)
- 1988년 《충남 어제와 오늘 전》(대전시민회관)
- 1989년 《제3회 홍익 M·A·E 전》(서울, 서울갤러리)
- 1990년 《개인전》(서울, 관훈미술관)
- 1995년 《향기와 맥전: 안건 이후 600년의 충청미술》(대전시민회관)
- 1996년 《한밭 어제와 오늘전》(대전시민회관)
- 2000년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
- 2010년 《개인전》(서울, 화봉갤러리)
- 2015년 《52! 리멤버 미상록전》(대전중구문화원)
《한일현대미술동행전》(서울시립경희궁미술관)
- 2016년 개인전 《지평너머 은유로서의 풍경》(서울, 갤러리시:작)
《화연전》(대전, 유성문화원)
- 2017년 《개인전》(대구, 김결수갤러리 / 서울, 아리수갤러리)
《제13회 한일현대미술동행전》(서울, 조선일보미술관)
- 2018년 《제10회 Asian way 한·중교류전》(서울, 풍테아르갤러리)
- 2020년 《작업 관계 전》(대구, 갤러리문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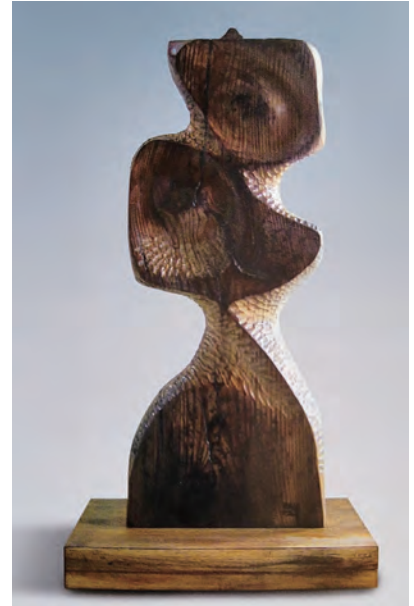
이춘호 (李春浩, 1952~)

1952년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에서 출생한 이춘호는 국민학교와 중학교 시절 미술대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만큼 미술적 자질을 갖추었으나 가정 형편과 부모님의 권유로 미술대학 대신 공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하였다. 미술과 인연은 당시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과 교수였던 황교영(黃敎泳, 1939~1986)이 만든 청조회에 가입하면서 조각으로 이어졌다.¹

찰흙으로 얼굴 부조를 처음 만든 이후 대학교 재학 2년 내내 쉴 틈 없이 작품 제작에 전념하여 1971년 《전국대학 미술전람회》에 입상하였다. 대학 졸업 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초등미술교육과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40여 년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대전과 충남에서 교사, 장학사, 초등학교 교감,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작가는 2013년 정년퇴직 하였다. 이춘호는 교직 생활을 하면서 1973년 충남조각회, 1996년 중원조각회의 창립에 참여하여 조소계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한국미술협회 보령지부 지부장을 역임하는 등 충남지역의 미술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 생활과 작품 활동을 꾸준히 병행하여 《충남조각회전》에 빠짐없이 참가한 작가는 1992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조각 부문에서 〈전진〉으로 대상을 비롯해 《화합》 시리즈로 3회 연속 특선을 하면서 조소 부문 초대작가로 선정되었다.

조각에 입문한 이후 이춘호는 자연에 내재된 조형적인 요소를 찾아 자신만의 구조적 조형으로 표현하는 비구상 작품을 주로 제작했다. 초기에는 주변의 나무를 이용해 목조작업을 하였다. 〈향념〉에서 작가는 인체를 3등분한 기하학적인



이춘호, 〈향념〉, 2011, 소나무, 23×7×58cm, 작가 제공



이춘호, 〈부부이야기-가족〉, 2012, 오석, 38×18×58cm, 작가 제공

¹ 청조회는 1971년 황교영의 지도를 받던 공주교육대학 미술과 학생 강중식, 박병규, 정찬국, 김연숙 등이 만든 모임이다. 이를 기반으로 황교영은 충남지역에서 최초로 결성된 조각가들의 모임인 '충남조각회'를 결성하였다. 정찬국, 「정열과 사랑의 고리」, 『조각가 황교영 고리와 섭리』(황교영기념사업회, 1988), pp. 120~122.

형태로 표현하였는데 곡선미와 비례감이 돋보인다. 이후 작가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정리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령의 특산물인 흑색사암(오석)을 활용한 석조작업을 진행하였다. 오석으로 제작한 <부부이야기-가족>에서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미와 질감을 강조하면서 매끈하고 거친 표면의 조화가 돋보인다. 작가는 석재에서 풍기는 질감과 작품에서 나타나는 조형미가 소박함과 친근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² 이춘호는 강도 높은 오석을 활용해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질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작가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성실함, 소박하고 정겨운 감성을 조형언어로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³

작가는 교직 생활을 하면서 충남지역 조소계의 발전을 위해 1996년 중원조각회를 창립하였으며 한국미술협회 보령지부 지부장을 역임하는 등 충남지역의 미술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연보

- 1952년 충청남도 보령 출생
- 1971년 《전국대학미술전람회》(국립현대미술관) 입선
- 1973년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73~2015년 충남조각회 창립 및 전시 참여
- 1986~2015년 《보령한국미술협회 보령지부전》(보령문예회관)
- 1992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조각부문에서 <전진>으로 대상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선정
- 1993년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초등교육전공) 졸업
《이춘호 조각개인전》(대전, 신금갤러리) 개최
- 1994~2004년 충남교육연수원 미술과 강사 역임
- 1995~2015년 중원조각회 창립 및 전시 참여
- 2009~2013년 보령 대천 동대초등학교 교장 정년퇴임
- 2013년 《이춘호 정년퇴임 기념전》(보령문화예술회관 / 보령, 모산조형미술관)
- 2017년 충남조각회 회장 역임

² 작가에서 받은 자료를 참조.

³ 리현석, 「조각에 담은 그리움, 사랑, 화해」, 『디트 NEWS24』(2017. 9. 6).

이충우 (李忠雨, 1952~)

1952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한 이충우는 공주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진학하였다. 1978년 대학을 졸업하고 태평양화학 기술개발부에서 약 6년간 재직하였다. 재직 중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 진학하여 졸업하였다. 공주전문대학과 공주문화대학을 거쳐 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교수로 부임해 2017년 정년퇴임하였다. 1991·93·94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특선과 공주대학교 총장상에 이어 대상, 《충남공예품 경진대회》에서 2회 은상을 수상하였다.

이충우의 작품 경향을 보면, 1980년대에는 공예품의 기본에 충실한 기능과 쓰임을 중시한 조명기구, 합지막, 꽃병 등을 주로 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 역시 기(器)로서 공예품의 기본을 간직하면서 디자인적으로 변화를 주어 티 탁자, 촛대, 수반 등의 제작과 더불어 칠보를 접목한 2m 길이의 십장생 벽장식 등 다양화를 추구하였다. 끊임없이 망치를 두드리는 단조기법(鍛造技法)으로 작품을 제작하던 작가에게 십장생 액자와 같이 칠보와 다색을 활용한 변화는 작업에 새로운 즐거움을 주었다.¹

2000년대에 들어서 작가는 기존의 공예품과 함께 거울, 목걸이, 귀걸이, 핀 등 장신구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작품의 소재는 공주의 송산리 고분을 모티브로 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 꽃 등으로 확장하였다. 2011년부터 전원생활을 시작해 자연과 접하면서 작품의 소재 역시 자연물에서 택하고 있다. 왁스 캐스팅 기법(Wax casting)을 적용해 나비, 메뚜기, 잠자리, 이름 모를 꽃과 열매 등을 제작하고 반사경을 활용한 《실내반사경》연작 등 다양한 변화를



이충우, 〈두드림의 메이라-2〉, 2016, 동·구리, 80×36×39cm
(출처: 『이충우 정년퇴임전-자연속의 호흡』, 가나아트센터, 2016)



이충우, 〈나비 때는 날고〉, 2016, 동·구리, 50×50×10cm(출처: 『이충우 정년퇴임전-자연속의 호흡』, 가나아트센터, 2016)

¹ 이충우, 『이충우 정년퇴임전-자연속의 호흡』(가나아트센터, 2016).

시도하였다.

작가의 작품은 공예품으로서의 본질은 유지하면서 회화적으로 그 안에 스토리를 담고 있다. 2016년 작 <나비 때는 날으고>는 반사경을 배경으로 작은 꽃들이 핀 넝쿨에 나비들이 떼 지어 앉아있거나 날아오는 모습이 담긴 한편의 초충도를 연상케 하는 매우 정교한 작품이다. 공예품에 장식성과 스토리를 더한 작품으로 외국 전시에서 호평을 받았다. 2017년 대학에서 정년퇴임한 후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연보

- 1952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78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 1982년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졸업
- 1989~1991년 공주전문대학 민속공예과 교수로 재직²
- 1989년 『한국민속공예론』(세진사, 1989)을 저술
- 1990년 《생활공예 창작공모전》(서울 인간문화재 공예품 상설 전시관)에서 장려상
- 1991년 《충남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은상 /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에서 특선
- 1993년 《제23회 충남미술대전》공예 부문 <옛사랑-93>으로 공주대학교총장상
- 1993~1998년 공주문화대학 산업공예디자인과 교수로 재직
- 1994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대상
- 1996년 《충남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은상
- 2001~2017년 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주얼리디자인전공 교수 재직
- 2002년 《이충우 금속조형전》(대전, 현대아트갤러리)
- 2007년 《이충우 금속조형전》(대전, 켈트갤러리)
- 2008~2009년 《이충우 주얼리 패션쇼》(중국, 우씨패션주얼리쇼)
- 2010년 《이충우 금속공예전》(일본 도쿄, G2갤러리 / 중국 장춘, 길림예술대학 갤러리) / 『조형디자인의 발상』(공주대학교 출판부, 2010) 저술
- 2011년 《이충우 금속공예전》(중국 칭다오, 명가미술관)
- 2012년 《이충우 장신구전》(중국 칭다오, 빈해대학 박물관)
- 2013년 《이충우 금속공예전》(공주 법원 갤러리 /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3층 /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시 시민회관) / 《제1회 대전 국제아트쇼》(대전무역전시관)
- 2015년 《이충우 금속공예전》(일본 후쿠오카현, 야메시 팔너시민회관 / 스위스 몽트뢰 라트페어 / 일본 도쿄, G2 갤러리/ 일본 교토, 마로니에 갤러리 / 러시아 우스리스트, 사랑의 빛 교회)
- 2016년 《이충우 교수 정년퇴임전-자연 속의 호흡》(서울, 가나아트센터)
- 2017년 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주얼리 디자인전공 정년퇴임

² 국립공주전문대학 민속공예과는 이후 산업공예디자인과, 귀금속디자인공과로 변경되었다. 국립공주전문대학은 1998년 공주문화대학으로 다시 2001년 공주대학교에 통합되었다.

장지원 (張志媛, 1952~)

1952년 서울에서 출생한 장지원은 원로 도예가 김석환(金碩煥, 1932~)의 장녀로 태어났다. 도예가인 어머니 작업실이 자택에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흙과 친해질 수 있었다. 도자기에 내재된 화려하지 않은 감성과 흙에 대한 애정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에서 공예를 전공하였다. 1984년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자 공예를 전공하였다.



장지원, <악보들>, 작가 제공

1991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2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015년부터 《한울회전》¹⁾을 비롯한 한국현대도예가회, 대전도예가회, 대전공예가회 등 단체전에 꾸준히 출품하고 있다. 작가는 1990년부터 충남 공주군 도예촌에 거주하면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장지원, <그릇들>, 작가 제공

장지원은 입체적인 도자공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제작방법을 고민하였다. 전시를 위해 도자기를 운반하고 관리하는 과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전형적인 도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도자의 부피를 운반하기 편리하도록 콤팩트하게 줄이면서 지지대 없이 벽에 거는 형태를 탄생시켰다.

벽에 거는 도자기의 제작은 전형적인 제작방법보다 작가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지만 이미지 파일을 프린팅해서 흙판에 실크스크린을 밀어 굽거나 도자기 안료를 활용해 도자기 표면에 직접 그린 후 굽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첫 출발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옛 사진이었으며 점차 맘에 드는 노래의 악보로 변화하였다. 작품 <악보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즐겨 부르시던 유모레스크, 클레멘타인, 사랑의 찬가 등 노래

¹⁾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여성동문회로 1980년 청림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6회의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를 도자기 악보로 재현한 작품으로, 벽에 걸고 보면서 예전의 감성을 느낄 수 있었다.

작가는 미국 도자기 워크숍을 다녀온 후 서양의 화려한 색감과 함께 도자기에 장식성을 더하고자 하였다. 벽에 거는 도자기에 이어 도자기를 단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든 것에 주안점을 두고 〈그릇들〉과 같이 도자기 바구니를 탄생시켰다. 색의 적용에 있어서 인위적인 채색을 더하기 보다는 도자기의 흙과 유약의 조화를 이루는 자연적인 색감을 강조하였다.

연보

- 1952년 서울 출생
- 197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공예 전공) 졸업
- 1984년 홍익대학교 대학원(도자공예 전공) 졸업
- 1991년 《제1회 개인전》(서울, 예총화랑 / 대전, 현대화랑)
- 1995년 《제2회 개인전》(서울, 토아트스페이스)
《제3회 개인전》(대전, 21세기갤러리)
- 2000년 《제4회 개인전》(대전, 갤러리 쉼)
- 2004년 《제5회 장지원 그릇전》(서울, 가나아트스페이스)
- 2007년 《제6회 장지원 타일전》(대전, 대청문화전시관)
- 2014년 《제7회 장지원 도예전》(대전, MBC 갤러리M)
- 2015~2022년 《한울회전》(서울, 가나아트센터·한전아트센터 갤러리 등) 출품
- 2017년 《파리루브르아트페어》(파리, 루브르박물관)
《아트경주2017》(경주, 화백센터)
- 2018년 《파리루브르아트페어》(파리, 루브르박물관)
《제8회 장지원도예전》(서울, 갤러리 자작나무)
- 2019년 《제9회 장지원 도예전》(서울, Gallery Dandy)
《제10회 장지원 도예전-On the Table by Chang, Jeewon》(대전, MBC갤러리M)
- 2022년 《제11회 장지원 도예전》(서울, 갤러리 자작나무)
《제12회 장지원의 그릇전》(서울, 스페이스 금채)

전인선 (全仁仙, 1952~)

1952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한 전인선은 공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학창 시절부터 미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림 실력이 뛰어나 사생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 대학에 진학할 당시 공주사범대학에 미술학과가 없어서 청주의 외가로 가서 청주여자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 입학했고, 1974년 졸업했다. 졸업 후 1975년 공주 정안중학교에 중등 미술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다. 1978년부터 공주여자중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공주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김치중(金致中, 1947~2012)과 함께 교사 작품 전시를 개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교직에서 퇴직한 후 전업 작가로서 대전사생회, 전업작가회, 여류작가회, 아그모회, 조형미술협회 등의 단체전에 꾸준히 참여했고, 누드크로키와 인물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약 36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고 《충청남도미술대전》, 《대전시미술대전》에 출품해 여러 차례 특선과 입선을 했으며 2000년부터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가 되었다.

2004년 중부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08~2010년까지 3년 동안 대전여류작가회 회장직을 맡았으며, 전업작가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개인전을 비롯해 해외 초대전과 교류전에 지속적으로 작품을 출품하며 지역 화단이 풍성해지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렇게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2010년 대전광역시 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시각적으로 파악 가능한 형상과 색채의 묘사에



전인선, 〈쉼터〉, 2009, 캔버스에 유채, 162.2×130.3cm, 작가 제공



전인선, 〈여성〉, 2022, 캔버스에 유채, 53×45.3cm, 작가 제공

집중했던 전인선의 작품 경향은 자연을 변형시키기보다는 관찰과 묘사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을 택했다. 꽃과 자연경관을 접하면서 느끼는 내면의 감정은 보는 이에 따라, 혹은 저마다 인식에 따라 다르므로 전인선은 작품을 통해 대상을 관찰하면서 느끼게 되는 각별한 자신의 미감을 화폭에 구현하고자 했다. 예술의 가치를 승화하고자 일관했던 전인선이 그리는 자연의 일면은 낙천적이면서도 순수한 내면의 심리에 근원을 두고 있다.

연보

- 1952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74년 청주사범대학(현 서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75~1981년 공주 정안중학교, 공주여자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86~2000년 《대전사생회 회원전》, 《한국 전업 작가 회원전》, 《향토작가전》, 《아그모 회원전》, 《누드크로키전》 등에 참여
- 1993년 《회화 6인전》(서울, 삼정아트스페이스)
- 1998~2022년 《한국미술협회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
- 1999~2022년 《대전여류화가회전》
- 2001년 《교차로 창립 초대전, 구상전》(서울, 세종문화회관)
- 2003년 《제1회 개인전》(서울, 인사아트페어갤러리)
- 2004년 중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 졸업
- 2005년 《제2회 개인전》(대전, 대덕문화원)
- 2008~2010년 대전여류화가회 회장 역임
- 2009년 《제3회 개인전》(대전, 롯데갤러리)
- 2009~2022년 《한국조형미술 협회전》
- 2010년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대전광역시 지역문화 예술상 표창
- 2011년 《조형언어의 표현전》(대전, LH아트갤러리)
- 2014년 《한·중 문화예술교류전》(중국 위해시, 시민문화예술센터)
- 2015년 《독일 피테 문화원 초대전》(독일 드레스덴, 피테센터)
- 2016년 《가고 싶은 세종 명소 13선》(서울, 세종문화회관)
- 2017~2019년 여성 특별 위원회 이사 역임
- 2018~2019년 한국조형미술협회 이사 역임
- 2019~2022년 《한·중 미술 교류전》
- 2021년 『대전광역시 의정회보』에 표지화 수록
- 2022년 《대전 서구-보령시 미술교류전》
《대전 보문미술대전》 심사 위원 역임
대전서구문화원 운영위원 역임

정옥희 (鄭玉嬉, 1952~)

1952년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난 정옥희는 화가의 꿈을 이루고자 독학으로 회화를 익힌 작가이다. 홍성에서 1982년부터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화업에 임해 4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미술시간에 재능을 보였던 정옥희는 학교 미술부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각종 미술 실기대회에서 특선과 입선 등 여러 차례 입상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탓으로 미술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직장에 취직했다. 직장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서울을 오가며 미술 도구를 구입해 시간이 나는 대로 그림을 연습했다.



정옥희, 〈자작나무〉, 2019, 캔버스에 유채, 53×72.7cm, 작가 제공

2000년 들어 남편의 발령과 함께 대구로 가게 되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웠다.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해서 유화를 연습했고 그 결과로 현재 탄탄한 구성과 섬세한 색채 감각을 표현한 유화를 창작하고 있다. 연습에 매진한 결과를 모아 2001년 서울 운보갤러리와 2002년 홍성 홍주문화회관에서 두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각종 공모전에 연이어 출품해 여러 차례 특선과 입선을 차지하며 독학으로 익힌 실력을 인정받았다. 2008년부터 매년 홍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내포현대미술제》에 출품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우수상, 《구상공모전》 특선, 《대전시미술대전》 특선, 《형상미술대전》 특선 4회, 《충청남도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2005년에는 《형상미술대전》 초대작가, 2009년에는 《신미술대전》 초대작가로 선정되었다. 미국 뉴욕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렸던 《국제미술초대전》, 헝가리 프라하문화원 《국제 미술교류 초대전》 등 국제전에 참여했으며 각종 초대전, 단체전에 출품하며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정옥희, 〈서귀포〉, 2019, 캔버스에 유채, 50×100cm, 작가 제공

2020년에는 《제39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한 후, 세 번째 개인전을 열어 서정적인 자연을 읊겨 그린 유화 풍경화 40점을 선보인 바 있다.¹ 정옥희는 ‘자연을 닮은 화가, 자연을 품은 화가’로 불리는 작가이다. 꽃도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듯이 어디를 가든 주변 풍경을 눈으로 담으며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사진으로 찍어와 화폭에 옮기는 작업을 한다. 그렇게 화폭에 담아낸 풍경은 고향마을의 풍광을 비롯해 자작나무 숲과 제주도 앞바다, 서해의 바다 풍경 등이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연보

- 1952년 충청남도 서산 출생
- 2001년 국립현대미술관 개최 《구상전 공모전》에서 특선
《제1회 개인전》(서울, 운보갤러리)
- 2002년 《제2회 개인전》(홍성, 홍주문화회관)
《제4회 형상 미술대전》 특선 수상
《충청남도미술대전》 특선 수상
《제16회 대한민국회화대전》 입선 수상
《대전시미술대전》 입선 수상
《구상전 공모전》 입선 수상
《제18회 무등미술대전》 입선 수상
- 2003년 《한국현대미술대전》에서 우수상 수상
《대전시미술대전》 입선 수상
- 2005년 《형상 미술대전》에서 특선 수상, 초대작가로 참여
- 2008년~현재 《내포현대미술제》(홍성문화회관)에 참여
- 2009년 《코리아 미술제》에서 ‘국제미술상’을 수상
《대한민국신미술대전》에 초대작가 출품
- 2013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입선
- 2018년 《충청작가전》(공주, 임립미술관)
- 2019년 《향토작가 초대전》(공주, 임립미술관)
- 2020년 《제39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 수상
《제3회 개인전》(서울, 인사아트센터)
- 2021년 《제4회 개인전》(서울, 갤러리 미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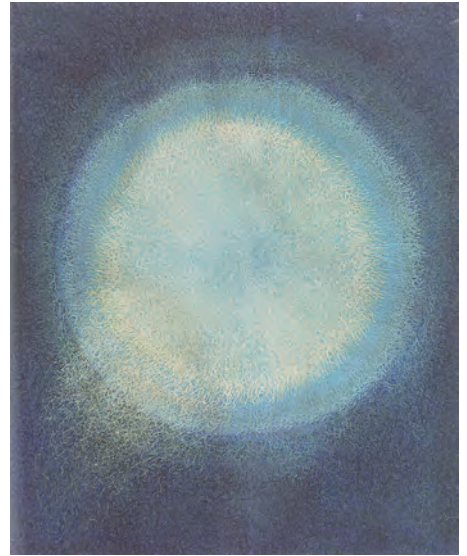
1 「정옥희 세 번째 개인전」, 『홍성신문』(2020. 7. 6).

정장직 (鄭章植, 1952~)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난 정장직은 대전고등학교와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를 다녔고, 1984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정장직의 아버지는 초기 충남 화단에서 판화가로 활약한 정택은(鄭澤殷, 1925~2005)이다. 1973년 《제3회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입선했고, 1977년 《제7회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특선을 받았다. 1970년대 초반부터 활발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정장직은 ‘19751225그룹’ 창립 회원으로 활약했고, 1980년 금강 백사장 일원에서 열렸던 《제1회 금강현대미술제》에도 참여했다.

정장직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그림자, 빛, 태초의 혼돈과 같은 개념을 탐구했고 1981년 “흑인가 흑연인가”라는 화두로 대전문화원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그리고 1981년 자연미술 그룹 ‘야투(野投)’가 창립할 때 참여했다. 1987년 제1회 충청남도문화예술인의 날 기념 미술 부문 표창을 받았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어간 정장직은 1997년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공로 표창(창작활동상)을 받았다. 충남대학교, 대전실업대학교, 한남대학교 등에 강사로 출강했으며, 우송대학교 컴퓨터 디자인학부 조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2015년 대전광역시 문화상(예술부문)을 수상했으며 개인전을 20회 이상 열었고 단체전 참여는 470여 회가 넘는다. 현재 야투, 대전판화협회 회원으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보문미술대전 운영위원장,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정장직은 주변의 모든 개념과 사물을 단순한 형태로 상징화하고, 독창적인 감성으로 풀어내는 이른바 ‘픽토그램(Pictogram)-사물, 시설, 행위, 개념 등을 상징화한 그림문자’ 형식의 작품을 창안했다. 1990년대 이후 픽토그램으로 연구하고 풀어내는 주제는 인간의 얼굴인데, 얼굴에 드러난 표정의 원형들을 조합하고 패턴을 활용해 화면을 완성했다. 정장직은 이러한 자신의 표현 방식에 대해 “주역의 64괘(卦)와 얼굴 표정의 원형을 합성하여 상징적인 미술형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며 『주역』을 탐독한 후 괘의 원형을 연구해 작품에 참고했다고 말한바 있다.¹ 즉 세상의 모든 인간이 얼굴을 통해 관계하고 소통한다는 점에 착안해, 내면의 영혼과 심상을 나타내는 복잡다단한 얼굴의 모습을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고 편안하게 풀어내는 일련의 작업을 하고



정장직, 〈작업 76-3〉, 1976, 캔버스에 유채, 162.2×130.3cm, 작가 제공



정장직, <웨이스트드로잉(Face drawing 98-1)>, 캔버스에 아크릴, 120×330cm, 국립현대미술관

있는 것이다.

정장직의 작품은 회화이면서 동시에 상징 언어이고 의미체계이며 삶의 총화다.² 대상을 감성, 기술, 철학으로 개념화하고 현실화하여 화폭에 담아내는 정장직은 영상과 설치 등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에도 힘쓴다. 이렇듯 독특한 화법의 작품세계를 창출한 정장직은 1970년대부터 대전·충남의 현대미술 현장에서 활약하며 지역 미술의 풍성한 전개와 발전을 위해 힘써온 작가이다.

연보

- 1952년 충청남도 예산 출생
- 1971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 1973년 《제3회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입선
- 1975~1992년 《1971225 그룹》 회원으로 참여
- 1977년 《제7회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시립도서관)에서 특선
- 1978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79년 《앙데팡당전》(국립현대미술관)
- 1980년 《서울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
《제1회 금강현대미술제》(공주, 금강백사장)
《제1회 미상록출신 작가전》(대전문화원)
- 1981년 개인전 《흑인가 흑연인가》(대전문화원)
- 1982~2014년 《야투현장미술연구회(1987년 이후 야투자연미술연구회)》 참여
- 1983년 《제16회 충청남도미술대전》 서양화 부문 우수상 수상
- 1984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1 「정장직 개인전, '얼굴표정'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 『충청매거진』, (2018. 12. 18).

2 김종길, 「삶의 총화로서의 사면 언어-정장직의 회화 미학과 상형 추상」, 『정장직: 대전미술의 지평』(대전시립미술관, 2014), p. 17.

- 1984~2014년 대전판화가협회 회원으로 참여
- 1987년 우송정보대학 전담교수 역임
제1회 충청남도문화예술인의 날 기념 미술부문 표창
《개인전》(대전, 중앙갤러리)
- 1993년 개인전 《붓가는 대로 칼가는대로》(대전, 홍인갤러리)
충남대학교, 대전실업대학교 강사로 출강
- 1996년 개인전 《회화의 끝에 서서》(대전, 오원화랑)
- 1997년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공로 표창 창작활동상 수상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조형미술과 출강
- 1998년 《대전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
- 1999년 《개인전》(서울, 갤러리마로니에)
《한시대의 연금술 옛보기》(부산시립미술관)
- 2000~2010년 우송대학교 교수 역임
- 2001년 《정장직: 웨이스드로잉전》(독일 함부르크, 쿤스트화랑)
《한국미술 2001: 회화의 복권》(국립현대미술관)
- 2002년 《정장직전: 청수그릇에 물을 올려라》(대전, 이공갤러리)
《제17회 아시아국제미술전람회》(대전시립미술관)
- 2004년 《정장직교수전》(중국 남경, 효장학원 전시실)
- 2004~2014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운영조직위원 역임
- 2005년 《한러아트페어》(서울, 세종문화회관 / 러시아 모스크바)
- 2006년 《정장직개인전》(중국 산둥, 산둥예술대학 전람회관)
- 2007년 《정장직초대전: 재가 될 때까지》(수원, 대안공간 갤러리 눈)
《정장직드로잉전》(중국 양주, 양주대학교 전시실)
- 2008·2014년 《대한민국미술대전》 비구상부문 운영위원 역임
- 2009년 《공주국제미술제-정장직부스전: 행운을부르는 그림 씨리즈》
- 2010년 프랑스 파리 씨떼(Cite) 레지던시 / 《파리 드로잉전》(프랑스 파리, 에스파세 5 에뚜왈)
- 2011년 《마주보기》(파리, 루멘갤러리)
- 2015년 제27회 대전광역시 문화상(예술부문) 수상
- 2017년 《정장직전: Face & Face》(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 2018년 《개인전》(대전, 홍인갤러리)
《개인전》(대전, 갤러리 모인)
- 2020년 《판화소장품전》(대전, 미림갤러리)
- 2022년 대전원로작가 《화연전》(대전, 갤러리 탄)

정찬국(鄭燦國, 1952~)



정찬국, <무지개>, 1993, 브론즈, 60×30×42cm, 작가 제공



정찬국, <1500년의 선율>, 2012, 브론즈, 165×86×168cm, 작가 제공

와 유사하게 평온과 따뜻한 정감을 바탕으로 한 본질을 유지하면서 표면 질감 처리에 변화를 주었다. 《제3의 수난》 연작에서는 강렬한 거친 표면 처리와 직각으로 꺾인 큰 동세를 강조하였다. 1993년 작품 <무지개>에서 산등성이들 사이에 걸쳐 떠 있는 무지개를 연상케 하는 반원 위에서

1952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출생한 정찬국은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보다 깊이 있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1980년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 재입학하였으며 이어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였다. 1972년부터 10여 년간 초·중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작가는 1983년부터 약 15년간 대전·충남 교원연수원 강사로 미술 관련 강의를 하였으며, 1996년부터 약 7년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겸임교수로 조소 강의를 하였다.

정찬국은 대학 재학 중 1981년 《제12회 전국 대학미술전람회》에서 작품 <풍요>로 동상, 이후 1982~1985년 《제12~15회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우수상과 세 번의 특선을 수상하면서 초대작가의 반열에 들었다. 1987년 《제1회 개인전》에서 선보인 두 소녀가 먼 곳을 응시하는 모습을 구현한 <정 84-4>와 젊은 여인이 아이들과 함께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표현한 <망 86'> 등 인체 조각에서 친근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표면을 부드럽게 다듬은 점이 특징이다.

1993년 《제2회 개인전》에서는 브론즈로 예수의 수난기를 구현한 <제3의 수난Ⅱ>와 <상한 영혼의 노래>, <돌아온 탕자> 등을 선보였다.¹ 제1회

¹ 『제2회 개인전 도록』은 1993년 우수미술자료(한국문예진흥원)로 선정되어 해외 미술유관기관 및 재외한국문화원에 한국현대미술의 홍보자료로 소개되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미끄럼 타는 듯 놀이장면을 재현하였다.

1999년 부여에서 열린 《제3회 개인전》에서 작가가 언급한 바와 같이 부여 인근의 야산을 떠올리게 하는 경관이 반영된 〈동산에서〉, 〈술숯바람〉 등을 선보였다.²

작가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지닌 부소산과 풍요로운 구룡평야를 반달모양으로 넉넉하게 굽이쳐 흐르는 백마강변의 모래밭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두꺼비집 짓던 어린 시절로부터 석양에 빛나는 정립사지 오층석탑의 균형 잡힌 아름다운 자태에 넋을 잃고, 예술에 대한 구도적 삶을 살았다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애뜻한 사랑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예술에 대한 꿈을 잉태하게 되었나 봅니다.”³라고 말하며 자신의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유년시절 보고 자랐던 고향 부여의 자연과 백제의 조형예술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 보

- 1952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
- 1971년 《제2회 전국대학미전》(국립현대미술관) 입선
《제1회 충청남도미술전람회》(대전문화원) 입선
- 1972년 공주교육대학교 졸업
- 1972~1980년 송학, 삼성, 부여국민학교 교사로 재직
- 1975~1992년 《그릴회전》(공주, 대전 등)
- 1976~1992년 《향토미전》(부여)
- 1980년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재입학(83년 졸업)
- 1981년 《제12회 전국대학미술전람회》(국립현대미술관)에서 〈풍요〉로 동상
- 1981~2022년 《충남조각회전》에 출품
- 1982년 《제12회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에서 〈자매〉로 특선
- 1982~1988년 《제1~7회 대한민국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 연속 입선
- 1983년 《제13회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에서 〈정〉으로 우수상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과교육학과(미술교육 전공) 입학
서울 중앙 중학교에 미술교사로 재직
- 1984~1985년 《제14·15회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에서 〈정85-4〉, 〈정84-5〉로 특선
- 1986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과교육학과(미술교육 전공) 졸업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선정 및 전시에 작품 출품
- 1986~1992년 《제3조각가협회전》(서울, 동경, 대만, 대구, 광주 등)
- 1986~2022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전》(대전시민회관)
- 1987~2010년 《정찬국 조각전》(대전, 중앙갤러리 / 서울, 조형갤러리 / 부여, 청소년수련원 전시실

2 〈사랑으로〉, 〈실낙원〉 등 50여점 출품.

3 정찬국, 「서문」, 『제2회 정찬국개인전』(조형갤러리, 1993).

- 서산, 서인사랑⁴ / 중국, 연변대학교 전시실⁵
- 1989~2012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에 출품
한국교원대학교 및 한남대학교에서 강의
 - 1991년 《91 금강국제자연미술제 초대전》(공주와 청주 일원)
《비무장지대예술운동전》(서울, 예술의전당)
 - 1991~1999년 《구드레야외미술제》 운영위원장 역임
 - 1993년 《대전 EXPO 야외조각전》(대전, EXPO공원)
《전국환경조각대전》(대전)
《'95 햇불 미술대제전》(천안)
《대전·충남 작가 초대전》(대전)
《부여인 미술전》(서울)
《향토작가 초대전》(부여)
 - 1996년 한국예총 예술문화상(미술 부문) 대상 수상
부여 구드래조각공원 기획 및 추진
 - 1997년 충남 경찰청 경찰충훈탑 제작
 - 1999년 제1회 부여국제현대조각심포지움 집행위원장
 - 2002년 역사조형물 〈백제오천결사대출정상〉 제작
 - 2007년 제50회 충청남도문화상(예술 부문) 수상
부여군재향군인회 〈6.25 베트남 참전탑〉 제작
 - 2009~2010년 제11대 전국조각가협회 이사장 역임
 - 2013년~현재 부여문화원장 재임

4 서산 최초의 조각전으로 〈동산에서〉 등 20점 출품.

5 〈위로자〉 등 20여점 출품.

구경회 (具敬會, 1953~)

호는 노정(盧丁). 구경회는 1953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출생했다. 유년 시절 서당에서 천자문을 공부하며 글씨를 배웠다. 이후 인천으로 거처를 옮겨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천자문을 임시(臨書)하며 서예에 매진했다. 군대에서 전역한 후, 포항제철에 입사했으나 1982년 《제3회 근로자 노동문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자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인 서예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대전으로 이주한 후, 1988년 《대한민국미술대전》 한문서예 부문에서 입선했고, 1989년 《제1회 대한민국서예대전》 한문서예 부문에서 〈포은선생시(圃隱先生詩)〉로 특선을 수상하며 초대작가로 위촉되었다.¹

구경회의 글씨는 해서를 바탕으로 완성되었는데 특히 전서와 전각분야에서 윤양희(尹亮熙, 1942~)의 영향을 받았다. 대전에서는 서예가 조중국(趙鍾國, 1943~)을 만나 서예가로서의 초석을 다졌고, 점차 지역예술인들과 융화하며 대전에 자신의 호를 딴 ‘노정서실’을 개원하였다. 서예의 바탕이 되는 공부를 위해 대전대학교에서 국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서예의 새로운 문화예술장르의 저변 확대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



구경회,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2021, 각 130×30cm, 작가 제공

¹ 《대한민국서예대전》은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를 탈퇴한 서예가들이 창립한 전시로 1989년 4월에 창립, 9월에 《대한민국서예대전》을 개최했다. 1998년 제10회까지 운영되다가 1999년 제18회 때부터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 부문에 포함됐다.

연보

- 1953년 충청북도 청주 출생
- 1982년 《제3회 근로자 노동 문화제》 대상 수상
- 1983년 포항시내 서실 개원
- 1988년 대전으로 이주
《대한민국미술대전》(한문서예 부문) 입선
- 1989년 《대한민국서예대전》(한문서예 부문) 특선
- 1991~1992년 《대한민국미술대전》(한문서예 부문) 입선
- 1995년 《대한민국미술대전》(한문서예 부문) 특선
- 1999년 국군간호사관학교, 계명대학교 서예과에서 강사 역임
- 2003년 개인전 《노정 연서회전》(대전시민회관) 개최
- 2007년 《제7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참여
- 2013년 한국미술협회대전지부 감사 역임
《제11회 노정 연서회전》(대전시청) 개최
- 2018~2019년 제 33회~34회 충청서단 이사장 역임
- 2020년 《8·15광복 특별기획, 통일미술대축전》(서울, 한국미술관)에 참여

김동창(金東昌, 1953~2015)

김동창은 1953년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에서 태어났고 청마국민학교, 옥천중학교, 옥천실업고등학교를 거쳐,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와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8년부터 2015년까지 모교인 **한남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평생교육원장, 미술대학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미술협회, 창형전, 구상전 등에서 회원으로 활약했다. 22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했다.

1985년 《제15회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휴일〉로 특선을 받은 후, 첫 개인전을 열었던 김동창은 초기의 작업에서 단색조의 물감을 나이프로 덧붙이거나 긁어내어 얻는 거친 질감의 화면 처리에 관심을 기울였다.¹ 1990년대 초 갈색조의 화면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이후 회청색의 푸른색 계열로 화면 전반의 색조 변화를 시도했다. 1990년대 말에는 추상표현을 중심으로 작업하다가 2000년 이후 인물에 초점을 맞춘 구상화로 전환했다.² 다양한 원색을 새와 여인, 평온한 오후의 응접실 풍경, 연꽃 등의 평범하고 친근한 소재들을 다루며 정감이 넘치는 화면을 구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프를 이용한 두터운 표면 질감을 표현하는 것에서 벗어나 붓의 운필에서 드러나는 부드러운 화면을 구현하는 표현 방식을 추구했다.

《정이 있는 풍경》 혹은 《정이 있는 정물》 연작을 평생에 걸쳐 제작했던 김동창은 일상적인 모습에서 포착한 주변 풍경을 추상화시켜 표현했다. 작가적 상상력을 가미해 인물 군상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김동창의 작품에는 몽환적 분위기가 드러난다. 이러한 자신의 작품 경향에 대해 “자연과 끝없는 만남의 사랑을 통하여 나는 자연의 본질을 깨닫고, 작업의 방향을 제시받는다”고 말한 바 있다.³ 교육자와 예술가로서 충남미술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김동창은 2015년 62세에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작고 후 ‘김동창 교수 1주기 추모전’으로 《情이 있는 風景 속 사람들》이 한남대학교 미술전시실에서 열려 《정이 있는 풍경》 연작이 전시되었다.



김동창, 〈휴일〉, 1985, 캔버스에 아크릴, 112×112cm, 대전시립미술관

1 「예술인의 향기: 풍경해체...수상작품 물두」, 『중도일보』(1995. 1. 26).

2 「작가의산실」(30) 서양화가 김동창 화백, 『중도일보』(2005. 7. 7).

3 『한발미술의 미래 모색전』(대전시민회관, 1997).

연보

- 1953년 충청북도 옥천 출생
- 1983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구상전》 공모전에서 은상 수상
- 1984년 《IA 모던아트갤러리 초대전》
- 1985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제15회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휴 일〉로 특선 수상
《85-12시·도미술대전 수상작품전》(서울, 문예진흥원)
- 1986년 《개인전》(대전, 동방프라자갤러리)
- 1987년 《오늘의 형상전》(서울, 신세계미술관)
- 1988~2015년 한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 1991·1993년 《서울화랑미술제》(서울, 예술의전당)
- 1992년 《'92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92 현대한국작가전》(도쿄, 아오야미 갤러리)
- 1993년 《개인전》(대전, 현대아트갤러리)
- 1994년 《그랑에중》(프랑스 파리, 에펠브랑니)
- 1995년 《대전·충남작가초대전》(대전, 중도일보사 / 한림갤러리)
- 1996년 《뉴델리 국제 아트페스티벌》(인도 뉴델리)
- 1997년 《움직이는 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선화랑개관 20주년기념 200인 작가초대전》(서울, 선화랑)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대전시립미술관)
- 1999년 《오늘의 대전미술전》(대전시립미술관)
- 2000년 《움직이는 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 2002년 《개인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 / 《아세아국제미술전》(대전시립미술관)
- 2004년 《구상회화제》(대구시민회관)
- 2005년 《한국구상대전》(서울, 예술의전당)
- 2008년 《개인전》(대전, 롯데화랑)
- 2009년 《5인의 인도기행 스케치》(대전, 모리스갤러리)
- 2011년 《창형전》(대전, 모리스갤러리)
- 2012년 《서양화 3인전》(대전, 갤러리 HOSA)
- 2013년 《제21회 개인전》(대전, 현대갤러리)
- 2015년 작고

김무호(金武鎬, 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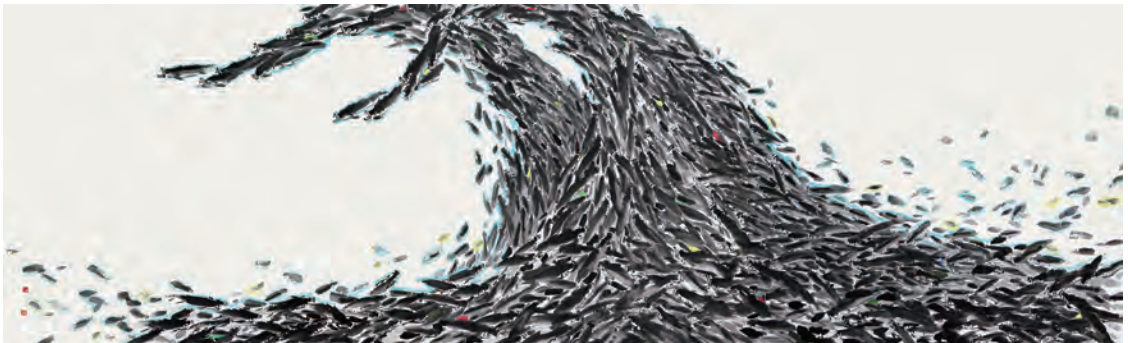
호는 화정(華丁). 김무호는 1953년 전라남도 진도에서 출생했다. 소치 허련을 비롯해 수많은 문인화를 배출했던 진도에서 허백련의 수제자인金玉진(金玉振, 1927~2011)에게 산수화를 사사했다. 이후金玉진의 소개로 허백련의 제자였던 이범재(李範載, 1910~1993)의 문하에서 4년간 사군자를 비롯한 문인화를 배웠다.

1985년 김무호는 부인의 고향이기도 한 **천안 목천읍에 자리를 잡으며** 화가로서 입지를 다져갔다. 1987년 천안문화원에서 첫 개인전 《김무호 화전》을 가져 천안에서 기성작가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후 1989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입선과 특선을 반복해 작가로서 명성을 쌓았다.

김무호 문인화의 기초는 수묵을 통한 전통적인 선묘 기법으로 대상을 그려나간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그의 선묘에 나타나는 특징은 농담의 무한한 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선에 농담의 변화와 기운의 강약이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먹의 농담만으로 역동적이면서 생동감 넘치는 청어 떼의 모습을 그린 〈어락도 Ⅷ〉가 있다. 거대한 화폭에 군집을 이뤄 윤행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청어 떼는 감상자를 압도하며, 김무호는 물고기들이 뿜어내는 생명력, 움직임의 방향성을 그려냈다.

이처럼 작가의 치열하면서도 강인한 붓 터치에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해 오면서 스스로를 담금질해 온 결과물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19년 올해의 작가상 수상을 기념해 열린 《잠시 이 자리展》에서 선보였으며 전통화 현대 사이에 만들어진 인위적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온 화가로 평가받았다.

2022년에는 천안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 《없음으로부터 있음까지》 전시에 천안의 지역 작가로 초대받았다. 현재는 대한민국 전통문화계승원의 이사장으로 후학을 기르고 있으며, 2020년에는 문화재청 산하의 ‘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원’ 제3대 이사장직을 역임했다.



김무호, 〈어락도 Ⅷ〉, 2019, 종이에 수묵채색, 157×540cm, 작가 제공

연보

- 1953년 전라남도 진도 출생
- 1987년 《김무호 화전》(천안문화원)
- 1988년 《제7회 대한민국미술대전》서예(사군자) 부문 입선
- 1989년 《창립 천안한국화회전》(천안시민회관)
- 1990년 《천안한국화회전》(천안시민회관)
- 1991년 《청학미술관 초대전》(서울, 청학미술관)
- 1994년 《華丁 金武鎬 文人展 : 전통과 현대 그 만남전》(천안, 아라리오화랑)
《천안미술의 흐름과 그 기념전》(천안문화원)
- 1995년 《오늘의 천안미술전: 천안 미술의 상황과 모색전》(천안문화원)
《한국문인화협회 창립전》(예술의전당)
- 1998년 《오늘의 천안미술전: 오늘의 시각 그 이미지》(천안문화원)
- 2005년 《화정 김무호 문인화전》(서울, 갤러리상)
《제5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2006년 《남도를 걷다 6인 초대전》(서울, 갤러리상)
- 2013년 《김무호 화문집 출판 기념전》(한국미술관)
- 2015년 《월간미술세계 창간 31주년 기념 기획 초대전》
충남 천안시 문화상 수상
- 2019년 월간미술 문화상(미술신문) 수상
한국미술 공로상(한국예총)
- 2021년 대한민국 미술인 본상 수상
- 2022년 《없음으로부터 있음까지》(천안시립미술관)

김학원 (金學園, 1953~)

김학원은 1953년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중학교까지 다닌 후, 고향 평택에서 평택종합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부친과 형이 미술대학 진학을 반대했으나 친구의 권유로 1973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제1회 입학생**으로 들어가 1977년에 졸업했으며, 1990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1982년 한광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경기도 이천 경남중·고등학교, 안성여자고등학교 등에서 34년간 교직에 몸담은 후 평택중학교에서 정년 퇴임했다.

김학원은 1974년 목원대학교에 부임한 김한(金漢, 1938~2008) 교수로부터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받았고 1976년 대학 4학년 때 같은 학교 학우인 복원규, 조재성, 허진권과 의기투합해 《두령전》(대전문화원)을 열었다.¹ 1980~1990년대에는 교직에 임하며 《목원대학교동문전》, 《목원대학교 교수작품전》, 《평택미협지부전》, 《경기미협전》, 《한국미술협회전》 등의 단체전에 출품했다.

1992년 서울 인데코화랑에서 개최한 첫 개인전에 출품한 〈풍경 1989〉는 어느 가을 붉은 노을로 물든 길목에서 느꼈던 깊은 고요의 순간을 포착해 그린 작품으로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풍경 1989》 연작을 제작했다. 1996년 《제2회 개인전》(서울, 관훈갤러리)에서는 〈햇불나무 1996〉와 〈붉게 타는 항구〉, 〈Black & White〉 등을 선보였다. 〈햇불나무 1996〉은 한겨울에 플라타너스들이 전지(剪枝)로 인해 가지들이 잘렸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겨울을 지내는 모습을 포착한 작품이다. 김한 교수는 이 두 번째 개인전에 관해 “그의 표현방법은 선(線)적 그라데이션으로 처리된다. 간혹 선과의 대비개념으로 사용된 모자이크 같은 점(點) 그것 역시 점증(漸增)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해석했다.²

김학원의 작품에는 상징적인 대상이 화면에 등장하지만, 마치 꿈속의 장면인듯한 몽환적인



김학원, 〈풍경 1989〉, 1989, 캔버스에 유화, 97×130.3cm, 작가 제공



김학원, 〈햇불나무 1996〉, 1996, 혼합재료, 97×145.5cm, 작가 제공

1 이 4인 그룹전 《두령전》은 1981년과 1994년 두 차례 더 개최되었다.

2 김한, 「김학원의 그림전에 부쳐」, 『제2회 개인전』(서울, 관훈갤러리, 1996) 전시 리플릿 참조.

화면 구성을 통해 추상적인 영감이 화폭에 담겼다. 김학원은 동물이나 곤충의 눈을 통해 사물이나 풍경을 보는 것처럼 일상에서 보는 형태와 색이 아닌 왜곡된 형상을 화면에 구사했으며, 각기 다른 공간을 한 화면에 표현하거나 표현대상을 상·하 혹은 좌·우로 대칭 시킴으로써 독특한 시각적 표현을 모색했다.

연보

- 1953년 경기도 평택 출생
서울, 계성국민학교, 한영중학교 졸업
- 1972년 평택중합고등학교 졸업
- 1975년 《구상전》,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입선 / 《전국대학미전》 장려상 수상
- 1976년 《전국대학미전》 특선 / 《두렁4인전》(대전문화원)
- 1977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제1회 졸업
- 1980~1981년 《목원대학교동문전》(대전시민회관)
- 1982년 한광여자중학교에서 교직 생활 시작
《양데팡당전》(국립현대미술관)
- 1983~1997년 《평택미협지부전》(평택문화원)
- 1983~1999년 평택시 중등학교 미술대회 지도교사상 9회 수상(평택군·시 교육장)
- 1988년 공로표창장 수상(평택시장) / 《8인전》(평택, 세현상호전시실)
《'서울-세계' 오늘의 미술전》(서울, 디자인포장센터)
- 1990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국제방법전》(서울, 미술회관)
- 1990~1996년 《현대미술교류전》(서울, 미술회관)
- 1991년 《갤러리 수 개관기념 초대전》(대전, 갤러리수)
- 1991~1992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에 강사로 출강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작품전》(대전문화원)
- 1992년 《제1회 개인전》(서울, 인데코화랑) / 《목원대학교동문전》(대전시민회관)
- 1994년 교육공로상(경기도 교육감) 수상 / 《한국미술협회전》(서울, 예술의전당)
《평택문예회관 개관기념전》(평택문예회관)
- 1996년 《제2회 개인전》(서울, 관훈갤러리 / 평택, 베아트리카)
《서울방법작가회전》(서울, 국립도서관)
《제15회 평택미협지부전》(송탄, 문예회관)
- 2000~2004년 미술지도교사상 연속 수상(안성시교육장)
- 2000~2005년 《안성시 교사 미술작품전》(안성시민회관)
- 2008년 제27회 스승의 날 표창장(과학기술부장관)
- 2017년 평택중학교에서 정년퇴임, 녹조근정 훈장 수훈

김해심 (金海心, 1953~)

김해심은 1953년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다. 1972년 중앙대학교 문과대학에 입학하면서 미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76년 대학교를 졸업한 후 화실에서 소묘를 배우기 시작하던 무렵 야투그룹의 사계절연구회 흑백작품집을 보고 자연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86년 야투그룹의 사계절워크샵에 첫 참가한 이후 2008년까지 80여회 다양한 현장

작업에 참가했다. 1991년부터 《금강국제자연미술전》을 비롯해 《예술과 마을전》, 《바깥미술전》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특정 장소의 환경과 현장에서 구한 재료를 작품의 구성요소로 삼는 작업을 했다. 1999년 늦은 나이에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떠나 첼시미술대학 대학원에 진학했다. 주말마다 지도 한 장을 들고 런던을 비롯해, 영국 전역의 도시와 미술관을 찾아다녔으며, 대학원 과정 중 처음으로 비디오 작품 〈일식(Eclipse)〉을 발표했다.

2003년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작업을 알려주는 책 출판 프로젝트에 초대받아 『예술가와 함께하는 자연미술여행』(보림출판사, 2003)를 출간했으며, 2004년부터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를 비롯하여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서울도시갤러리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태국·일본·오스트리아·루마니아·불가리아·독일 등지에서 전시와 심포지엄에 참여했고, 한국과 영국, 오스트리아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2007년 이후에는 마을미술,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기획했으며, 『자연과의 대화: 김해심 작품집』(다빈치기프트, 2006), 『자연의 미술가, 김해심』(존그란테 공저, 보림출판사, 2013), 『자연사용설명서』(스물바치북스, 2015) 등 자신의 작업과 외국작가들의 작업을 알리는 책도 여러 권 발간했다.

야투그룹 워크샵에 참여하던 시기 김해심의 작업에 대해 김종길은 “자연에서 자



김해심, 〈프린트〉, 1994, 흰모자에 그림자 무늬, 공주 동해동, 작가 제공



김해심, 〈물을 생각하며〉(작품&관객), 2006, 나무, 360×70×15cm 두 개, 공주연미산, 작가 제공

연이 ‘자연’ 스스로를 키워 형상을 만들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온전히 ‘자연’ 그 본래의 모습을 갖추듯이 자연 안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산책하며, 사유하고 유희했다.”고 평했다.¹

김성호는 영국 유학 이후 김해심의 작업은 “자연과 환경과의 교감이자, 인간이 양 차원과 조응하고 관계하는 차원을 노정한다. 즉 자연-인간-환경 사이의 관계들을 통섭하는 움직임으로 그녀의 자연미술이 진행되는 것이다.”고 평했다.² 자연 환경과 관객들이 상호작용하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제작해온 김해심에 대해 존 그란데(John K. Grande)는 “김해심의 조각 작품, 퍼포먼스, 상호작용이라는 특이한 조합은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작업에 사회적 요소를 더해주는 독특함이 있다.”고 평가했다.³

연보

- 1953년 전라남도 여수 출생
- 1972~1976년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졸업
- 1986~2008년 《야투 자연미술 세계절위크샵》 80회 참여
- 1991 · 1995 · 2001 · 2003년
《금강국제자연미술전&심포지엄》(공주 산성공원) 참가
- 1992년 《여기 그리고 저기: 슈베르그국제자연미술전&심포지움》(독일 슈베르그)
- 1997년 《역사와 환경전》(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정원)
- 1998~2005년 《예술과 마을전: 금강국제자연미술전&심포지엄》(공주) 3회 참가
- 1998~2018년 《바깥미술전&심포지엄》(대성리 / 양평 / 자라섬) 야외설치 19회 참가
- 1999년 《우먼이페스트 심포지엄》(태국 방콕, 샤람롬공원)
- 2000년 영국 런던대학교 첼시미술대학원(종합매체 전공) 졸업
《디스플레이스먼트: 김해심개인전》(영국 런던, 코벤트가든로) 개최
- 2002년 《재개발 프로젝트》(잠실시영아파트 4단지, 서울&스톤엔위더, 안양)
- 2003년 《국제야외 미술표현전&심포지엄》(일본, 동경전기대학 정원) 참가
- 2004년 《에피소드: The 2nd Asia Art Now》(청주, 예술의전당)
《임진강시각예술축제》(파주, 적성면 임진강변) 참가
- 2004~2010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심포지엄》(공주, 장군봉 / 연미산) 4회 참가
- 2006년 《미술농장 프로젝트》(안성, 대안미술공간소나무)
《쾌적한 공포: 김해심 개인전》(안성, 대안미술공간소나무) 개최
《히키 국제야외미술표현전&심포지엄》(일본 도쿄, 호토야미숲)
《릴리엔펠트 랜드아트심포지엄》(오스트리아, 릴리엔펠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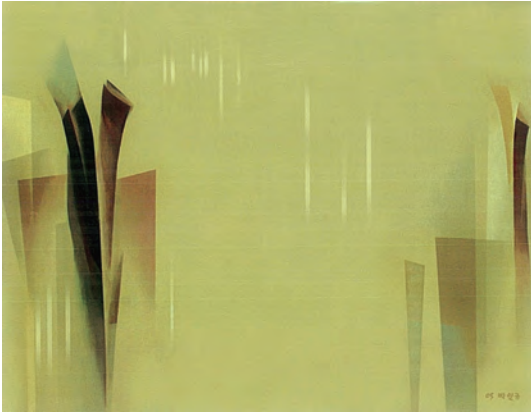
1 김종길, 「고요한 풍경으로 잠입하기」, 『자연과의 대화: 김해심 작품집』(다빈치기프트, 2006), p. 12.

2 김성호, 「김해심_생성, 소멸하는 자연의 시공간」, 『현대미술의 시공간과 존재의 미학』(사문난적, 2016), p. 168.

3 존 그란데, 「김해심과의 대화」, 『Sculpture, may 2010: the site generates the sculpture』 33(2010).

- 2007년 《경기1번국도: 경기도미술관개관전》(안산, 경기도미술관)
《새에게 가는 길: 경기문화재단 공공미술프로젝트》(성남, 울동공원) 개최
《서울도시갤러리프로젝트: 북한산에서 불광천까지》(서울, 불광천)
《홍천환경미술제&심포지엄》(홍천, 주음치리)
《창원 아시아미술전: 복숭아꽃 살구꽃》(창원, 성산아트홀)
- 2008년 《비시간성의 향해: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부산 광안리)
《서울도시갤러리 프로젝트: 함께 흐르자》(서울, 신학초등학교)
《레닌자연미술심포지엄》(독일, 클러스터오우공원) 참가
- 2009년 《문턱값(Threshold Value): 김해심 개인전》(영국, 메트로폴리탄대학미술관) 개최
《라자르성 여름심포지엄》(루마니아, 라자레아) 참가
《광장유희전》(안산, 예술의전당)
- 2010년 《경기도의 힘: 경기도미술관 개관 기념전》(안산, 경기도미술관)
『Sculpture』, 『the site generates the sculpture』(2010. May)에 인터뷰
- 2011년 《아비코 국제 야외미술 심포지엄》(일본 아비코) 참가
- 2011~2012년 《벤트예술심포지엄: 자연_조각_문학》(오스트리아, 외츠탈공원) 2회 참가
협성대학교 미술대학 출강
- 2012년 《지구프로젝트: Viertel Festival》(오스트리아, Weyer) 참가
《전망: 건다》(오스트리아 와이드호펜, 5E Museum)
《Landscape 예술프로젝트 심포지엄》(오스트리아, 가스 암 캠프) 참가
- 2013년 《화성공공미술프로젝트: 들꽃마을 상기리》(상기리마을회관 & 화성문화재단) 개최
- 2014년 《경기문화재단 별별미술프로젝트: 자연사용설명서》(성남시청갤러리) 개최
《매향리 평화예술제&심포지엄》(화성, 매향리 미군반환기지) 참가
- 2015년 《구름의 의무: 김해심 개인전》(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노스부가갤러리) 개최
《변형 (Transformation): 환경미술 심포지엄》(오스트리아 쾨센) 참가
- 2016년 《바깥미술 35년 아카이브전 / 세미나》(양평군립미술관) 참가
- 2018년 《경기아카이브_지금: 경기천년도큐페스타, 경기상상캠퍼스》(안산, 경기도미술관)
- 2018~2019년 《두터운잎 프로젝트》(판교낙생대공원 / 상상채굴단&판교도서관) 개최
- 2020년 《태양에서지구까지8분: 경기문화재단예술백신프로젝트》 온라인 전시 개최
<https://www.youtube.com/channel/UCs2TVFoz9yqEdr6qu82tkGQ>
- 2021년 《풀잎을 모으다: 김해심 개인전》(성남, 에버브라운) 개최
- 2022년 《고요한 강: 바깥미술 남한강전》(양평, 양강섬) 참가

박인규 (朴仁圭, 1953~)



박인규, 〈이미지 공간 05-5〉, 2005, 캔버스에 유채, 72.7×90.9cm(출처: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박인규, 〈자연과 인간〉, 2016, 캔버스에 아크릴, 60.6×72.7cm(출처: 『52!리멤버 미술록전』, 대전중구문화원, 2016)

1953년 대전에서 태어난 박인규는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한밭미술학원을 운영했다. 대전현대미술협회, 금강현대미술제, 양태광당전, 미상록회원전 등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대전현대미술협회 회장과 이동훈미술상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1980년 공주 금강백사장에서 열렸던 《금강현대미술제》 창립전에 참여해 높이 150cm, 직경 140cm의 철근으로 만든 원뿔형의 구조물을 모래사장에 놓고 젖은 모래를 채운 설치미술 〈백사장〉을 선보이기도 했다.¹ 이 작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르고 바람에 의해 흐트러지고 가라앉아 골조만 드러나게 되는 변화를 보여준 작품이었다.

1990년대 초반(1991, 1993) 대전현대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박인규는 무의식 속 시공간의 재현을 추구하며 심미적 색채로 구현된 바탕화면에 사물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즉 서사적 구조 대신 단색 위에 반복적인 형태를 구성해 화면을 구현해내지만, 바탕에 그려지는 사물의 형상은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이다. 그 사물의 이미지에는 그림

자가 함께 등장한다. 이는 실제 화면에 표현된 물체의 사실적 이미지와 추상화된 이미지가 동시에 보이는 효과를 구사하며, 이러한 표현 방식은 실재의 존재와 이미지의 차이를 통해 심미적 공간을 창출해낸다는 평을 받는다.²

박인규는 2000년부터 대전에서 우연갤러리를 열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에게 전시의

1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대전시립미술관, 2018), p. 163.

2 《박인규전》(우연갤러리, 2011); 아트허브 홈페이지. http://www.arthub.co.kr/sub01/board05_view.htm?No=3529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많은 전시를 기획해 지역 미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작가로서도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연보

- 1953년 대전 출생
- 1980년 《금강자연미술제 창립 야외현장전》(공주, 금강백사장)
《제8회 앙데팡당전》(국립현대미술관)
- 1981년 《금강자연미술제》(대전문화원)
- 1987년 《제21회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
- 1991년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 1992년 《1992 대전미술》(대전시민회관)
- 1993년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 1997년 《한발미술의 미래 모색전》(대전시민회관)
《제8회 현대미술교류회전》(대전, 동양타임월드갤러리)
- 1998년 《대전현대미술표상전》(대전, 현대화랑)
《한발미술의 오늘전》(대전시민회관)
- 2000년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
대전 중구에 우연갤러리 개관
- 2003년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
- 2008년 《대전미술 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
- 2010년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
- 2011년 《개인전》(대전, 우연갤러리)
- 2012년 《미상록작가전》(대전중구문화원)
- 2013년 《대전중구문화원개원 60주년 기념전》(대전중구문화원)
- 2016년 이동훈미술상 운영위원 역임
《52! 리멤버 미상록전》(대전, 갤러리 J)
- 2018년 《대전현대미술특별전》(대전, 우연갤러리)

박정옥 (朴貞玉, 1953~)

1953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출생한 박정옥은 일찌감치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아버지를 따라 동생들과 서울로 올라갔다. 여고 시절에는 미술활동을 하면서 화가의 꿈을 키워나갔으며 홍익대학교 미술디자인 교육원에서 이경수(李景洙, 1941~)에게 채색화 과정을 수료하고 세한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초기에는 구상채색화 작업을 주로 하며,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입선하고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대전시미술대전에서는 특선을 수상하는 등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혀갔다. 박정옥은 한지를 재료로 자연적인 소재를 표현하여 청정함과 순수함을 보여주는 작가이다. 특히 결이 살아있는 한지와 시간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마른 풀잎과 꽃잎을 통해 자연의 순수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했다.

1990년대까지 구상회화를 하다가 자연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소재로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표현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작가는 이 시대의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어린 시절 갖고 놀던 곤충을 소재로 삼기 시작한다. 유년 시절의 맑고 깨끗했던 자연환경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특히 청정지역의 상징인 무당벌레를 등장시켜 자연과 인간성의 회복과 치유를 담론화 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 곤충의 모습은 거대한 자연 속 한낱 점에 불과한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나아가 박정옥은 청정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일상도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지를 알려준다. 이와 같이 서정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시대적 이슈에 대한 미술의 역할을 외면하지 않고 도전과 실험정신으로 자기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박정옥의 작품세계는 지속적으로 주시할만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박정옥은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로서 현재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전개 중이다. 총 9회



박정옥, 〈자연에 노닐고〉, 2022, 혼합매체, 60×90cm, 작가 제공



박정옥, 〈자연에 노닐고〉, 2022, 혼합매체 45×53cm, 작가 제공

의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다수의 단체전을 열었다. 이 외에 한국미술협회 분과위원, 충청남도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서해미술대전 및 한겨레미술대전 심사위원, 도솔미술대전 운영 및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전문대 사회교육원 강단에 서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회이사, 충남중진작가운영위원, 천안미술협회 부지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연보

- 1953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
- 1987~1991년 《충청남도미술대전》 특선 4회, 우수상 수상
- 1992년 《천안미술작가회전》(천안, 아라리오화랑)
- 1993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수상
- 1994년 《한울타리전》(대전, 롯데갤러리) / 천안시 여성회관 강사 역임
- 1995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선정
- 1997년 《한국 구상작가전》(서울, 조선일보미술관)
- 1998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수상
- 1999년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지회 초대작가 선정 / 전문대학교 사회교육원 강사 역임
- 2000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역임
- 2001년 《독도기행전》(독립기념관)
- 2003년 『대전매일신문』 「연산군일기」 삽화 게재
- 2004년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전》(천안시민회관)
- 2006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 2007년 천안중진작가 운영위원회 결성
- 2008년 도솔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2012년 《제1회 개인전-화려한 외출》(천안시민회관)
- 2013년 《천안 시승격 50주년 기념 미술전》(천안, 예술의전당)
- 2014년 《제2회 개인전-KBS 초대 개인전》(여의도 시청자 갤러리)
《제3회 개인전》(서울, 갤러리 미술세계)
- 2016·2018년 《천안중진작가전》(천안, 리각미술관)
- 2017년 《제4회 개인전》(천안 지원 갤러리) / 《제5회 개인전》(안산문화예술회관)
- 2019년 《제6회 개인전- 대전지방방법원 천안지원 초대전》(대전, 공감갤러리)
- 2020년 《제31회 충남수채화 협회전》(천안, 리각미술관)
- 2021년 《충남미술 맥을 잇다》(천안, 리각미술관)
《제7회 개인전 자연, 화려한 외출》(서울, 라메르 갤러리)
- 2022년 《물 빛 담은 가을향기》(천안, 리각미술관) / 《상형전》(서울, 마루아트갤러리)
《홍주 천년미술을 찾아서》(홍주문화회관) / 《서해 천수만을 그리다》(서산, 서해미술관)
《전국 시, 도 미술로 다리놓기 교류전》(서울, 예술의전당)
《무아프 초대 개인전》(서울, 인사아트 갤러리)
- 2022년~현재 (사)한국미술협회 이사 및 (사)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부지부장 역임

박홍순(朴洪淳, 1953~)



박홍순, 〈황산운해-운천〉, 2006, 한지에 수묵담채, 114.5×195cm, 대전시립미술관



박홍순, 〈새벽연화(월류봉)〉, 2022, 화선지에 수묵담채, 180×130cm, 작가 제공

호는 백천(白泉). 1953년 충청남도 대전 출생의 박홍순은 대전 상업고등학교를 나와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1회 졸업생인 박홍순은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전국초등미술교육학회 이사를 맡았고 한국미술협회, 한국예문화, 대전충남한국화협회에 참여하고, 대전시·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대전시립미술관 운영위원, 공주교도소 교화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¹

박홍순은 ‘먹(墨)’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며 주로 자연 풍경을 소재로 작업하였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자연 속에 노닐다 보면 치유되는 것을 먹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그는 국내 명산과 계곡, 북한의 금강산, 중국의 장가계 등과 같은 자연 풍경을 소재로 삼은 실경산수화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박홍순은 진경(眞景)의 묘(妙)를 추구하는 작가로, 실제의 풍경이 기본이 되는 실경산수는 사의에 의한 관념적 그림과는 달리 사실적인 묘사로 인해 실재감을 갖게 한다고 보았다. 대전시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황산운해-운천(黄山雲海-雲喘)〉은 ‘구름이

숨이 차다’는 뜻으로, 황산을 감싸 오르는 거대한 구름을 보는 순간 작가는 두 가지의 광경을 목격하였다. 하나는 운무의 빠른 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운무의 이동을 저지하려는 듯한 거대한 황산의 자태였다. 작가는 이렇게 장대한 황산의 신비로움을 넘으려는 운해의 거친 숨소리를 조

¹ 「묵향· 자연을 벗삼은 한국화가 박홍순 초대전」, 『금강일보』(2015. 4. 28); 박홍순 개인 블로그 참조. <https://blog.daum.net/hongsoon1724/>

형화 한 것이다.²

물론 박홍순의 이러한 재현적인 경향의 그림에서도 강조와 생략 그리고 변화와 파격이 있다. 이러한 회화적 장치들은 박홍순의 그림에 숨겨져 있다. 따라서 그는 먹을 중심으로 한 작업에서 시작하여 화사한 채색 풍경, 먹색이 그윽한 수목 산수까지 세밀하고 꼼꼼한 붓 터치로 빈틈 없는 풍경을 그려내며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박홍순은 작가로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공주교육대학교의 교수로서 후학양성에 힘썼고, 아동미술교육의 이론가로서도 활동하며 교육분야를 포함한 미술계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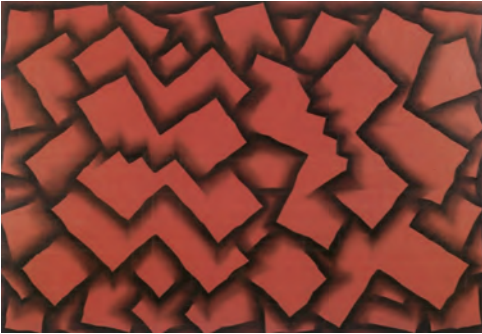
연보

- 1953년 대전 출생
- 1973년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1978년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85년 공주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 1987년 《박홍순 한국화전》(대전, 예가화랑)
- 1988년 《대전직할시 승격 기념전》(대전, 시민회관)
- 1992년 《오늘의 한국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
- 1997년 충청남도 학생미술대회 심사위원 역임
- 1998년 《박홍순전》(천안, 아라리오 화랑)
- 1999년 대전시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 2000년 금강보호 어린이 사생대회 심사위원 위원장 역임
《박홍순 목의 자연전》(대전, 타임월드 갤러리)
《문인화 정신의 새로운 향방전》(서울, 공평아트센터)
- 2002년 《대전시 문화제 일한 미술교류전》(일본, 동경미술관)
- 2003년 《박홍순 목-자연속으로 전》(대전, 롯데화랑)
《대전·충남 한국화 교수 초대전》(대전, 오원화랑)
- 2004년 《백천 박홍순전》(대전, 롯데화랑)
- 2006년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운영위원 위원장 역임
- 2011년 대전시미술대전 심사위원 위원장 역임
-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품 선정위원 역임
- 2015년 《박홍순 초대전》(대전시립미술관)
《제26회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 2019년 《박홍순 개인전》(충북, 영동문화원 전시실)

2 대전시립미술관 소장품 소개 참조. <https://www.daejeon.go.kr/dma/DmaArtworksList.do?menuSeq=6093#close>

3 박홍순, 『백천 박홍순』(도서출판 대명, 2015).

백준기 (白俊基, 1953~)



백준기, 〈필친그림〉, 1975, 캔버스에 유채, 112×162.5cm
(출처: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백준기, 〈Big Bang: 'cherry blossom'-No.01〉, 2009, 플라스틱 패널에 아크릴, 60×60cm(출처: 『사변의 고개-백준기展』, 대전: 이공갤러리, 2011)

1953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난 백준기는 1971년 부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 회화과(서양화 전공)를 졸업했다. 1985년부터 35년간 공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2020년 배재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아트앤웹툰학부 석좌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공주대학교에서 만화애니메이션을 지도하면서 『만화미학탐문』(2001), 『만화미학원론』(2008), 『현대만화미학』(2008), 『만화의 원형을 찾아서』(2015) 등 만화와 관련한 저서를 여러 권 출간했다.

백준기의 작품세계는 회화, 사진, 판화, 풀라주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든다. 작품 소재는 주변에서 채집된 자연물들을 다양한 제작방식으로 표현하는데 1980년대 초까지 《필친그림》 연작을 해오다가 1980년대 후반에는 단단한 재료(나무판) 위에 글루건을 이용해 독특한 재료를 쌓아 아랍권 문양세계를 연상케 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이후 1987년~1991년에는 《야투자연미술연구회》에 참여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설치작업을 선보였다.

2000년대에 이르러 자연을 소묘하듯이 그린 작업에서는 사진을 회화처럼 교묘하게 처리하여 관람자의 시선에 혼돈을 주기도 했다.¹ 이러한 표현은 때로는 곤충채집 표본처럼, 때로는 사진을 회화로 전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탄탄한 구성력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화면을 구현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듯 백준기의 작품세계는 변화가 많지만, 일관되게 “꽉 채워진 구축적 성향의 화면”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다.²

2006년에는 다양한 재료와 기법, 매체를 이용하여 제작한, ‘서사적 묘화’에 기반을 둔 작품

1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daejeon.go.kr/dma/index.do>

2 임동식, 「2011년 사변의 고개-백준기展 전시평」; 아트허브 홈페이지. <http://www.arthub.co.kr/>

들을 모아 개인전을 열었다. 이때 선보인 작품들은 ‘만화의 현실’과 ‘현실의 만화’에 대한 관심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제작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사진과 글·그림을 결합하고 텍스트와 이미지 등을 조합해 온 작업의 결과물들이다. 2011년 개인전에서는 ‘기능과 용도, 효력과 시의를 잃고 유효기간을 넘겨 폐기된 사물들(건축 자재와 가구, 문방사무용품, 음식물을 담은 그릇과 조리기구 등)을 취하여 오브제나 바탕 재료로 삼아 작품을 제작했다.

1983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전을 14회 개최한 백준기는 다양한 재료를 탐구하며 창작의 영역을 넓혀온 작가로, 열정적인 작품 활동과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만화애니메이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연보

- 1953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
- 1971년 부여고등학교 졸업
- 1973~1977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에서 수학
- 1979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서양화전공) 졸업
- 1983년 《개인전》(서울, 수화랑)
- 1985~2020년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부 교수 역임
- 1987~1991년 야투자연미술연구회에 참여
- 1988년 《개인전》(서울, 윤갤러리)
- 1991년 《개인전》(서울, 수나무갤러리)
- 1993년 《개인전》(서울, 수화랑)
- 1999년 《사진조형전》(대전시립미술관)
- 2000년 《대전미술문화의 조망전》(대전, 롯데갤러리)
- 2003~2006년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PISAF》
- 2004년 《한국현대미술전》(헝가리 사라예보)
- 2006년 개인전 《서사회 서사묘》(대전, 롯데갤러리)
- 2009년 《CKmaf》(중국 북경, 789아트센터)
- 2011년 개인전 《사변의 고개 - 백준기展》(대전, 이공갤러리)
- 2013년 개인전 《봄·풀 Spring Glasses-백준기展》(대전, 쌍리갤러리)
- 2016년 개인전 《디지털-로그: '알고리즘'》(대전, 대청문화전시관)
- 2018~2020년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역임
- 2019년 《백준기전》(고양, 아트스페이스 애니플)
- 2020년~현재 배재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아트웹툰학부 석좌교수

백철 (白喆, 1953~)



백철, 〈여로의 끝〉, 1998, Serigraphy, 35×50cm(출처: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백철은 1953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 일신국민학교와 배재중학교를 졸업했다. 1972년 서울예술고등학교 미술과를 졸업했고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다. 1979년 국내 최초로 슈퍼그래픽 및 멀티미디어를 도입해 외부 사인 디자인(sign design)을 제작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1978년 서울의 인덕전문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1979년부터 대전 소재 5개 이상의 대학에서 디자인 강의와 실기를 지도했다. 이후 **배재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를 거쳐 비주얼아트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했고, 배재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과 배재대학교 학생처장, 중국 남창대학미술대학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1979년 대한항공 국제선여객기 일등실 내부벽화와 인테리어를 제작했고 1984년 충남문화협회와 충남디자인협회 창립에 참여했다. 대전광역시 둔산 시범단지 아파트의 슈퍼그래픽 디자인 제작팀장, 2001년 대전동물원 심볼 및 로고 브랜드 제작, 2002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캐릭터 이미지 통합 작업 및 안내시스템 제작 등 대전에서 대형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2004년 대전·충청디자인지원센터 창설멤버로 활약했고 이 단체의 부센터장과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그리고 2006년 러시아 쏘비에트 최고디자인 전문가협회 주최 ‘포토 그라피라 브 아르디 국제박람회’에서 최고디자인상을 수상했다. 대전디자인발전협의회 회장, 대전디자인발전교수협회 회장을 비롯해 ‘디자인코리아 2014’ 대전유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¹

백철은 대전지역 디자인 생태계의 제일 중요한 기반인 전문기업의 컨설팅 역량 강화와 학생들의 디자인 기술 함양, 정책 담당자들의 디자인 인식의 제고를 위해 활약해온 디자인전문가이다. 특히 4대가 디자인 관련 일을 해온 집안의 일원으로서 대전·충남 디자인 분야의 발전과 역사의 산증인이다. 1980~1990년대에 판화개인전을 열기도 한 백철은 대전 미술계에서 판화 작품을 선보이며 활발히 작품활동을 했던 작가이다.

¹ 「4대째 디자인 전문가 집안, 디자인 역사의 산증인」, 『대전뉴스』(2013. 11. 4).

연보

- 1953년 서울 출생
일신국민학교, 배재중·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대학원(시각디자인 전공) 졸업
- 1979년 국내 최초 슈퍼그래픽 및 멀티미디어도입, 외부 싸인 디자인 제작(국무총리상 수상)
대한항공 국제선여객기 일등실(VIP ROOM)내부벽화 및 인테리어 제작
- 1984년 《충남시각디자인협회 창립전: 아름다운 충남》(대전, 반도화랑)
《충남관화협회 창립전》(대전, 반도화랑)
- 1988년 《충남 어제와 오늘전》(대전시민회관)
《관화작품초대전》(대구, 맥향화랑)
- 1991년 《백철관화전》(대전, 현대화랑)
대전광역시 둔산, 월평 지구 지하철도 슈퍼그래픽 디자인 제작(3지역)
《CNU국제관화기획전》(대전문화원)
- 1992년 《한발미술의 오늘전》(대전시민회관)
- 1993년 《대학미술의 흐름전: 교수작품》(대전문화원)
- 1995년 《대전미술의 어제와 오늘》(대전문화원)
- 1996년 《한발 어제와 오늘전》(대전시민회관)
- 1997년 《변화의 탐색전》(대전, MBC문화공간)
《한발미술의 미래 모색전》(대전시민회관)
- 1998년 《대전현대관화제》(대전시립미술관)
- 1998~2000년 배재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역임
- 2001년 대전동물원 명칭·로고·캐릭터·색션 별 심볼 및 로고 브랜드 제작
- 2003~2005년 배재대학교 학생처장 역임
- 2004~2008년 대전충청디자인지원센터 창설 멤버, 부 센터장 및 운영위원 역임
- 2006년 러시아 쏘비에트 최고디자인 전문가협회 주최 포토 그래픽아 브 아르디 국제박람회 최고디자인상 수상
- 2014년 '디자인코리아2014' 대전유치위원회 위원장 역임
- 2015년 《FACE 국제교류전》(중국, 하얼빈디자인대학)

복원규(卜元圭, 1953~)



복원규, 〈칠갑산〉, 1993, 수묵담채, 236×165cm(출처: 『복원규전』, 경인미술관, 1994)

1953년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서 출생한 복원규는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를 나왔으며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그는 목원대로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으며, 대한한국화회, 목목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여러 번의 개인전과 180여회의 단체전을 가지며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전개하였다.¹

복원규의 작품세계의 근원은 김동수(金東洙, 1935~2011) 산수의 핵심을 찌르는 듯한 날카롭고 명료한 선(線)과 조평휘(趙平彙, 1932~)의 무한한 산수의 공간을 활달한 필치로 절묘하게 재단하는 면(面)의 해석방법에 그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즉 김동수의 선과 조평

휘의 면에 대한 해석을 깊이 탐구하여 절충적인 면을 찾아 자신만의 세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복원규가 표현한 풍경은 작가 자신의 언어이며, 자연을 분석하기 보다는 자연과 조화되려는 동양적인 심미관을 바탕으로 '산수'에 몰두하였다. 그렇기에 복원규에게 산수란 그려져야 하는 대상을 넘어 교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첫 번째 개인전에 출품된 〈칠갑산〉은 주로 심원(深遠, 산 앞쪽에서 뒤쪽을 향해 들여다보며 깊은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과 평원(平遠, 가까운 산으로부터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의 시각으로 묘사하면서 산수의 정적인 명징성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주로 피마준을 사용하여 산과 돌을 표현한 것에서 작가의 전통에 대한 시각과 영향을 엿볼 수 있다.²

이처럼 작가는 “한국화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여백이라는 기묘한 단어는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이치를 땅에서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깨달아야만 하는 필수단어”라며, 자연의 담백함이 돋보이는 산수화 작업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특히 전통기법의 실경산수화 작업을 중점적으로 제작하였는데, 작가의 작품에 관해 장정란 문학박사는 “복원규 작가의 산수는 우리가 살

1 「맑고 단안한 한국풍경 느껴보세요」, 『e-청양신문』(2008. 10. 13).

2 장정란, 「복원규 淡逸한 詩情의 세계」, 『복원규전』(경인미술관, 1994).

고 있는 이 시대의 공간으로서 우리 삶에 대한 조용한 얘기를 담고 있다”고 평한 바 있다.³

따라서 수묵담채기법으로 실경산수를 주로 그리는 복원규는 오랜 시간 산수라는 소재를 꾸준히 탐색하면서, 현재도 섬세한 필체의 맑고 깨끗한 전통기법을 활용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연 보

- 1953년 충청남도 청양 출생
- 1976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77년 《두령전》(대전문화원)
- 1978년 《전국대학미전》 장려상 수상
《충청남도미술대전》 특선 수상
《교사미술전람회》 최우수상 수상
- 1979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동양화 석사 졸업
- 1979~1981년 《홍원회 창립 및 회원전》(서울, 세종문화회관)
- 1980년 《목원대학교 미술학부 동문전》(대전시민회관)
- 1980~1991년 목원대학교 미술학부 교수작품전(서울, 신세계미술관)
- 1984년 《한국화 단면전》(서울, 문예진흥원미술관)
- 1985년 《동양화 8인전》(서울, 관훈미술관)
- 1986년 《86 한국의 자연전》(서울, 중앙청지하미술관)
- 1991년 《복원규 자연전》(대전, 갤러리 수)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겸임교수 역임
《오사카 한국 현대미술 신세대전》(오사카, 대한민국영사관)
- 1995년 《문인화정신의 모색전》(서울시립미술관)
《청양문화원초대전》(청양문화원)
- 1998년 《복원규 개인전》(대전, 한림갤러리)
- 2006년 《복원규 개인전》(대전, 수갤러리)
- 2008년 《복원규 개인전》(대전, 롯데갤러리)

3 「복원규 회백 산수화전」, 『e-청양신문』(2008. 10. 20).

양충모 (梁忠模, 1953~)



양충모, 〈어디로 갈거나〉, 1992, 청동, 198×178×31cm(출처: 『양충모』, 대전현대화랑, 1992)



양충모, 〈영혼과 꿈〉, 2020, 아크릴칼라 오브제(혼합재료) 35×70×10cm(출처: 『소풍가는날』, 와야갤러리, 2020)

1953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출생한 양충모는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였다. 조각을 전공한 미술학도로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독특한 이력을 지닌 작가이다. 1975년 대학 3학년 재학 중 《제5회 충남미술전람회》에서 작품 〈향염〉으로 특선을 수상하였다.

작가는 공동체 의식을 늘 강조하며 “작품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참여되고 있기 때문에 관객 또한 작품 속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하였다.¹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행위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관객들을 보다 깊은 관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양충모의 작품은 감각적이며 서정적이라기보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식을 반영시키는 특색을 지닌다.² 재료의 선정에 있어서 작가는 한 가지 물질에 천착하기보다는 나무, 브론즈, 화장암, 흙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다.

1992년 첫 개인전에서 인물 군상을 테라코타로 제작한 〈밤은 깊고 아침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와 달리 청동으로 인물 실루엣만 표현한 〈어디로 갈거나〉 등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 2012년 선보인 〈난생(卵生)〉(2012)은 ‘가운데’, ‘속’, ‘핵을 의미하는 한자어 중(中)자의 초기 형태를 모티브로 인간의 중심 깊은 곳에 있는 생명력의 작용과 모든 활동의 중심인 에너지의 핵을 조형적으로 상징화한 작품이다. 작가는 2016년 개인전에서 부제 ‘삶의 찌꺼기에서 태어난 오브제들’에 맞게 인간의 의식주 생활 속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시간의 모퉁이를 돌아〉는 누군가의 집을 지탱하기 위해 사용된 콘크리트 속에서 버팀목이 되었을 녹이 슨 철근을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많은 시간을 지나 철근이 공간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

1 허진권, 「무한의 공간을 열러가는 종소리처럼」, 『양충모전』(대전현대화랑, 1992).

2 허진권, 위의 글.

지는 관람객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다.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인간 스스로 족쇄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인간의 한계이고 시간을 버리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묻고 있다.³ 최근 2020년 전시 《소풍가는 날》에서 〈가면의 기원〉과 〈영혼과 장미〉처럼 입체적인 요소에 회화적인 요소인 아크릴칼라를 적용해 조각이면서 평면성을 지닌 작품을 선보였다.

연보

- 1953년 충청남도 논산 출생
- 1973~1978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75년 《제5회 충남미술전람회》 조소 부문에서 〈향염〉으로 특선
- 1983~1986년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1988년 《1988 '서울-세계' 오늘의 미술전》(서울, 디자인포장센터)
- 1991년 《한국현대미술설치행위전》(서울, 국립중앙극장)
- 1992년 《제1회 양충모 개인전-하나됨을 위하여》(대전, 현대화랑)
- 1993~1996년 한남대학교 대학원 미술과(조소전공) 졸업
- 1995년 《대전미술50년전》(대전시민회관)
- 1997년 《양충모 개인전-사람들에 관하여》(서울, 나무갤러리 / 대전, 현대화랑)
- 1998년 《대전현대미술 표상전》(대전, 현대화랑) / 《목원조각회전》(대전, 한림갤러리)
《대전 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 / 《대전조각의 오늘》(대전시립미술관)
- 2000년 《우연갤러리 개관기념 초대전》(대전, 우연갤러리)
- 2001년 《한·일 현대미술 교류전》(일본, Saitama 미술관)
- 2003년 《양충모 개인전-내 안에 감춰진 몸짓》(대전, 우연갤러리)
- 2003~2007년 《금강 자연미술 프레비엔날레》(공주산성 / 공주국립박물관)
- 2007년 《양충모 조각전-바라봄의 미학》(대전, 우연갤러리)
- 2011년 《양충모 초대전-삶의 궤적》(대전, 흥인갤러리)
- 2012년 《프로젝트대전 2012: 에네르기》(대전시립미술관)
- 2013년 《양충모 개인전》(대전무역전시관)
- 2015년 개인전 《변방의 꿈》(전주, 교동아트스튜디오)
- 2016년 《양충모전- 삶의 찌꺼기에서 태어난 오브제들》(대전, 미룸갤러리)
- 2018년 《양충모전- 숨길 수 없는 사실》(대전, 화니갤러리)
- 2020년 《양충모전-소풍가는 날》(논산, 와야갤러리)

3 김희정, 「양충모 전- 삶의 찌꺼기에서 태어난 오브제들」, 『양충모전』(미룸갤러리, 2016).

윤여환(尹汝煥, 1953~)



윤여환, 〈사유하는 몸짓〉, 2004, 장지에 수묵, 130×162cm
(출처: <http://www.cnu.ac.kr/~yhyun/>)



윤여환, 〈곡신사유(谷神思惟) 순환 3〉, 2022, 캔버스에 아크릴, 《새롭게 걷다전》 출품작, 대전 MBC M 갤러리, 2022(출처: 윤여환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yhyun7070>)

호는 석천(石川). 윤여환은 1953년 충청남도 서천에서 태어났으며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70년대 말 일련의 극사실주의 전통에서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화법으로 동물화를 그렸으며, 1990년대 중반 염소를 소재로 하는 《사색의 여행》, 《사유하는 몸짓》 연작을 제작하면서 ‘염소 작가’로 불리기 시작한다.¹ 이처럼 염소그림을 통해 동양적 사실주의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면, 종교적 열정을 담은 추상양식의 《목시찬가》 연작을 통해 ‘추상적 경험적 미의식과 초월적 미의식의 융합’, 즉 현상 너머에 자리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지향하고 표출하였다.

최근에는 《곡신사유(谷神思惟)》 연작을 통해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고 있지만, 동양적 시방식(視方式)에 의한 면추상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윤여환은 약 40여 년 동안 자성(自性)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적인 동물 등의 소재를 철학적 사유로 풀어왔고, 새롭게 인식되는 동양화의 정신성과 음양원리, 그리고 동양적 자연관과 우주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에 윤여환은 1985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국내외 31회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다수의 초대·단체전을 가졌다.

또한 윤여환은 한국을 대표하는 영정 작가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며, 국가표준영정 등 영정작업을 통

해 영적 교감을 해왔다. 그는 백제도미부인(1996·제60호), 조현 전신상(1997·옥천 표충사 봉안), 유관순열사(2007·제78호), 논개(2008·제79호), 박팽년(2008·제81호), 김만덕(2010·제82

¹ 윤여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68018&cid=58863&categoryId=58863>

호)등 여러 국가표준영정의 제작 및 지정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윤여환의 영정작업은 초·중·고 교과서에도 등재되어 있다.

이와 함께 윤여환은 작가로서의 활동과 더불어 교육자로서도 활발히 활동하였다. 1986년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교수로 부임한 뒤 2020년 퇴임 할 때까지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충남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장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다.

이외에도 충남대학교평생교육원 한국화반 회원들을 지도하며, 한국화 단체 소식회(素石會)를 이끌고, 대전가톨릭미술가회 회장을 역임하며 충남 미술계의 발전을 이끌었다. 더불어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호암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대전가톨릭대학교, 홍익대학교박물관, 천안시 유관순열사추모각, 국립진주박물관, 충남대학교, 옥천표충사 등 국내 여러 주요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²



윤여환, 〈유관순열사 국가표준영정 전신좌상 제 80호〉, 2007, 비단에 채색, 200×120cm(출처: 전통문화포털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culture.or.kr/main/kculture>)

연보

- 1953년 충청남도 서천 출생
- 1976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1979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석사 졸업
- 1980~1985년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4회 수상
- 1981년 《중앙미술대전》 장려(우수)상 수상
- 1982~1986년 창원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재직
- 1985년 《제1회 개인전》(서울갤러리)
- 1986~2020년 충남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재직
- 1999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MBC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2005년 대전발전연구원 자문위원 역임
- 2007년 월간 미술세계작가상 수상
- 2011년 대전시이응노미술관 운영위원 역임
최북미술관 미술품 복제사업 평가 심의위원 역임
- 2012년 이동훈미술상 운영위원 역임

² 윤여환 프로필 참조. <http://yhyun.cnu.ac.kr/index2.htm>; 윤여환 네이버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yhyun7070>

- 2013년 대전시립미술관 작품수집 심의위원장 역임
- 2014~2016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역임
충남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장 역임
- 2016년 무령왕 표준영정 자문위원 역임
예산군 봉수산 성지 조형물 설치사업 심의위원 역임
- 2017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 2019년 《제15회 충청남도 출향작가 깃발 미술제 초대》(보령, 문화의전당)
세종시 지역문화예술특성지원사업 심의위원장 역임
유공교수 표창장(충남대학교 총장) 수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공채서류전형 심사위원장 역임
- 2020년 한국민영방송협회 주관 한국민영방송대상 최우수상 수상
홍조근정훈장 수훈 / 《중견작가전_떡의 시간》(대전시립미술관)
- 2020년~현재 충남대학교 회화과 명예교수로 재직
- 2021년 《MBC 금강미술대전》 운영위원장 역임
《'2021 대전에 색을 입히다' 국제미술교류전》(대전중구문화원)
- 2022년 제34회 대전광역시 문화상 수상
《새롭게걷다전》(대전, MBC M갤러리)
《제18회 소식회전》(대전예술가의집)
제20회 도솔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윤장열 (尹長烈, 1953~)

1953년 대전에서 출생한 윤장열은 1974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에 입학해 1978년에 졸업했다. 졸업 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다. 1981년 《중앙미술대전》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1984년 대전 신신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파스텔톤 색감의 동화 같은 그림을 그리는 윤장열은 일본, 베트남, 한국 등 국내외의 여러 단체전 및 기획전에 참가하며 작품활동을 해왔다.

윤장열은 캔버스 위에 유채로 작업을 하지만, 기름기로 표면이 반짝거리는 유화가 아니라, 수채화 같은 효과를 보여준다.¹ 이는 캔버스 위에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펄프를 깔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인데, 펄프에는 물감이 많이 스며들어 기름기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채로 치듯이 물감을 흘뿌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색의 농담이 만들어진다.

《귀향》, 《향(香)》 등의 연작에서 윤장열이 즐겨 다룬 소재는 꽃과 나무 등 일상에서 만나는 주변 풍경과 새, 호박, 말, 사람, 불상 등이다. 커다란 화면에 몇 개의 형상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바탕의 무늬와 중심 소재가 어우러져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새를 화폭에 많이 담았는데, 새는 '자유'를 갈망하기도 하고 '외로운 사람'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쟁기의 손잡이 모양을 닮은 Y자형 나뭇가지에 고무줄을 묶어 만든 새총을 병치시켜 유년 시절 농촌 생활의 향수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듯 고향이나 자연의 이미지를 단순화해서 화면에 담는 윤장열의 작품들은 단아한 풍경의 이미지를 통한 은유와 서정성이 돋보인다. 특히 담백한 배경처리와 단순한 기호들로 이루어진 화면을 통해



윤장열, 〈귀향〉, 2008, 캔버스에 유채, 90×72.7cm
(출처: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윤장열, 〈향(香)〉, 2009, 캔버스에 유채, 101.3×48.3cm(출처: 김종근, 『마음에 품는 현대미술』, ARTBLEU, 2009)

1 「수채화같이 담백한 유화의 향기」, 『서울신문』(2009. 3. 2).

서정적 감성을 잘 표현하는 작가라는 평을 받는다.²

연보

- 1953년 대전 출생
- 1978년 목원대학교 회화과 졸업 /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최고상 수상
- 1981년 《중앙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장려상 수상
- 1981~2001년 《대전시미술대전》초대작가 역임
- 1984년 《개인전》(대전, 신신화랑)
- 1985년 《Frontier전》(서울, 관훈미술관)
- 1985~1998년 《목원대학 교수전》에 참여
- 1987년 《아시아 현대 미술전》(일본, 도쿄미술관)
- 1989년 《한국정예작가전》(일본 도쿄, 긴자 아트센터)
- 1991년 《개인전》(서울, 청화랑)
- 1992년 《생명현상전》(서울, 미도와 갤러리)
《한국미술의 상황과 진단전》(서울, 공평아트센터)
- 1993년 《개인전》(서울, 서림화랑) / 《D.M.Z》(서울시립미술관)
- 1994년 《한국미술 2000년대의 주역들》(서울, 운현궁 미술관)
《한전프라자 개관기념 초대전》(서울, 한국전력공사) / 《청담미술제》(서울, 서림화랑)
- 1995년 《서울관화미술제》(서울, 예술의전당) / 《화상 십 년의 눈》(서울, 예술의전당)
- 1996년 《MANIF96 국제 아트페어》(서울, 예술의전당)
- 1997년 《2인 초대전(윤장열 · 정규석)》(서울, 갤러리 영)
- 1999년 용인대학교 출강 / 《역대수상작가초대전》(용인, 호암갤러리)
- 2001년 《목상의 향연》(대전, 오원화랑)
- 2002년 《한국현대미술의 전망과 기대》(서울, 공평아트센터)
- 2003년 《개인전》(서울, 갤러리썬앤문) / 《영남, 호남 그리고 충청》(대전시립미술관)
- 2004년 《공주국제미술제》(공주, 임립미술관)
- 2005년 《다면전》(서울, 모로갤러리)
- 2006년 《개인전》(서울, 갤러리 베아르떼)
- 2008년 《평론가 선정 현대작가 55인전》(서울, 한가람미술관)
- 2009년 《개인전》(서울, 갤러리 서림)
- 2011년 《봄춘: 윤장열 · 이희중 · 차병철》(서울, 가가갤러리)
- 2013년 《대전미술아카이브 2013: 대전미술의 새 물결》(대전시립미술관)
- 2016년 《공주국제미술제》(공주, 임립미술관)
- 2022년 《2022년 대전예술포럼: 숨 쉬는 봄》(대전갤러리)

2 김종근, 「윤장열-서정적 자연공간, 향」, 『마음에 품는 현대미술』(ARTBLEU, 2009), pp. 132~134.

이재호 (李在皓, 1953~)

호는 남강(南岡). 1953년 3월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계동리에서 태어났다. 이재호는 대전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983년부터 만 35년 6개월간 한남대학교 회화과 전임강사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다 2018년 퇴임했다. 또한 40대 초반에 대전미술협회장으로 선임되어 대전미술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나아가 대전국제미술교류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몽골과 문화교류를 하는 등 충남 지역 미술의 문화 발전에 일조하고 한국의 풍습과 문화까지 전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¹

이재호는 1984년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40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단체전 450여회, 국제전 60여회의 다채로운 전시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문화상, 한국예총예술인대상, 몽골교육훈장, 일본외무대신상 등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재호는 50여년 가까이 작품 활동을 해오면서 먹, 붓, 화선지, 벼루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는데,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연이라고 보며, 먹의 신비함이 농담(濃淡)에 의해 변화무쌍하게 화선지에 퍼질 때 마음 속 깊이 울림과 떨림이 그대로 표현된다고 하였다.² 특히 세밀하게 파고드는 작업으로 산수(山水)를 주로 그려내며 먹과 색을 적절히 조화시켜 진솔한 자연



이재호, <정>, 1980, 화선지에 수묵담채, 80호, 작가 제공



이재호, <백두산천지>, 1995, 화선지에 수묵담채, 153×372cm, 작가 제공

1 김구희, 「대전국제미술교류회, 국제교류의 향방을 논하다」, 『충청데일리』(2016. 1. 1).

2 「충청매거진, 이재호 한국화가, 먹색의 깊은 맛-여백에 번지다」, 『충청매거진』(2021. 4. 15).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³ 먹이 주는 느낌이 무겁고 안정된 것이라면, 그것을 중화시키고 그를 통해 작품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색의 역할이라 여겼다. 그렇기에 이재호의 작품은 두 가지 조형 수단이 갖는 역할과 효과가 적절히 배합되어 더욱 생동감을 주고 있다.⁴

이재호는 현재도 한결같이 자연을 주 소재로 하며 한국적인 풍격을 작가만의 비범한 풍치로 표현하고 있다. 하루하루 변하는 자연의 미학을 화폭에 담고 싶다고 전한 작가는 심오한 자연 세계를 독자적인 화면으로 구축하였다. 현재는 한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 작품 활동 또한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다.

연보

- 1953년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계동리 출생
- 1972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 1976년 《충청남도미술대전》 특선 수상
- 1977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충청남도미술대전》 특선 수상
- 1978년 《충청남도미술대전》 특선 수상 / 《청림회전》에 참여
- 1979년 《충청남도미술대전 대상 수상 / 2회 신라미술대전 특선 수상
- 1982년 《충청남도미술대전》 대상 수상
- 1983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1984년 《이재호한국화전》(대전, 신신화랑)
- 1984~2015년 《청도회전》에 참여
- 1986년 《목우회공모전》 입선 수상
- 1986~2006년 《아름다운 금강전》(대전, MBC갤러리)
- 1989년 《이재호전》(서울갤러리)
- 1998~2003년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 지부장 역임
- 2003년 제17회 예총예술문화 대상
- 2006~2007년 한남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역임
- 2011년 한남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역임
- 2012년 사단법인 한국예총대전광역시 부지부장 역임
- 2018년 대전문화인날 문화인상 수상
- 2019~2021년 《현대갤러리 초대전》(대전, 현대갤러리)
- 2021년 《향토작가초대전》(공주, 임립미술관)
- 2022년 《이재호개인전》(대전, 우연갤러리)

3 「남강 이재호 서른일곱 번째 개인전」(대전 우연갤러리, 2021).

4 박일호, 「진솔한 자연풍경 속에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 이재호의 작품 세계-」, 『한국의 섬·바다 풍경전』(갤러리도올, 1995).

정길호 (鄭佶浩, 1953~)

1953년 대전에서 태어난 정길호는 한남대학교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조소과를 나왔다. 1973년 한남대학교가 신설될 때 1기로 입학해 김수평(金水平, 1942~1989) 교수로부터 새로운 미술 추구에 대한 열정을 배웠던 정길호는 대학교 재학 시절 정장직, 이종협과 함께 '19751225'라는 3인 미술그룹을 결성했다. 이들은 3학년 겨울 방학 때 '19751225'의 전초전으로 대전역 광장에서 대전·충남 지역 최초의 현장 '해프닝'을 보여주었다.

1976년 1월 정길호는 '19751225' 회원들과 함께 대평리 금강 백사장에서 현장미술을 연출했다. 넓은 백사장에서 포대에 담긴 흰가루를 50m 길이로 뿌리며 이동해, 그 끝부분에 가서 무덤을 상징하는 옹돌이를 폈다. 그리고 당시 함께 현장미술제에 참여했던 작가 유근영(柳根永, 1948~)을 염하여 옹돌이에 묻었다가 다시 꺼내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정길호는 이 행위예술을 통해 끝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다.¹ 즉 이때의 이벤트는 개인의 일생에서 펼쳐지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다.

1992년 해체될 때까지 '19751225' 그룹에 참여했던 정길호는 이외에도 1982년 《야투 현장전》과 《충남관화가협회 창립전》, 《충남향토작가전》, 《우정의 만남전》 등의 각종 초대전과 단체전에 다수의 작품을 출품했다. 성남중·고등학교 예술계 교사로 재직했으며, 겸임강사로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출강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미술협회, 대



정길호, 〈WOOD 4枚〉, 1988, 작가 제공(《제10회 19751225-신신화랑초대전》, 신신화랑, 1988)



정길호, 〈H-93〉, 1993, 목판화, 35×25.5cm, 작가 제공

1 『대전현대미술의 태동: 시대정신』(대전시립미술관, 2018), p. 47.

전판화가협회에 회원으로 활동했다. 주로 굵은 각목을 활용해 입체작품을 설치했던 정길호는 1988년 신신화랑에서 개최되었던 《제10회 19751225》에서는 검게 그을린 긴 나무 토막을 가로 세로로 배치한 설치작품을 전시했다. 판화가로서도 활약했던 정길호는 1970년대 후반 구상미술이 주를 이루고 있던 대전·충남 화단에서 설치·행위미술이라는 새로운 현대미술의 방법을 보여준 작가 중 한 명이다.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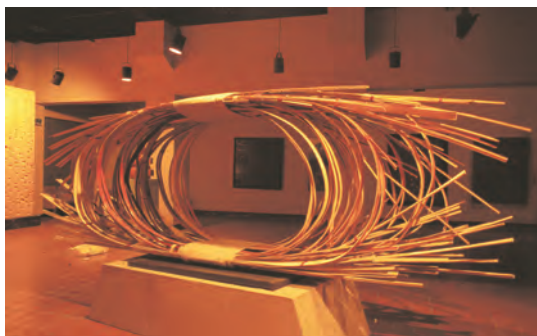
- 1953년 대전 출생
한남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조소과 졸업
- 1975년 ‘19751225’ 창립 회원
- 1976년 《19751225그룹 야외현장전》(세종, 대평리금강백사장·내담백사장)
- 1976~1992년 《19751225그룹전》에 참여
- 1977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졸업
- 1978년 《한남대학교 동문전》(대전문화원)
- 1979년 《한국청년작가 그룹초대전》(서울, 청년작가회관)
- 1980년 《제1회 금강현대미술제》(공주, 금강백사장)
- 1982년 《야투야의 현장전》(공주 청벽)
- 1983년 《반도화랑 개관 초대전》(대전, 반도화랑)
《한남대학교 상설미술관 개관 초대전》(대전, 한남갤러리)
- 1984년 《충남판화가협회 창립전》(대전, 반도화랑)
《판화작품 초대전》(대구, 맥향화랑)
- 1986년 《중앙갤러리 초대전》(대구, 중앙갤러리)
- 1987년 《제21회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
《충남향토청년작가 초대전》(대전문화원)
《'87 충남 오늘의 만남전》(대전문화원)
- 1988년 《한국미술협회 대전지부 회원초대전》(대전시민회관)
《제10회 19751225》(대전, 신신화랑)
- 1992년 《제10회 한밭미술의 오늘전》(대전시민회관)
- 1995년 《대전미술의 어제와 오늘전》(대전문화원)
- 1999년 《46번가관화전》(대전, 호텔롯데 대덕갤러리)
- 2002년 《46번가관화전: 뒤셀도르프》(대전, 우연갤러리 / 갤러리 프리즘)
- 2003년 《우정의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

홍성경 (洪性暲, 1953~)

1953년 경기도 이천에서 출생한 홍성경은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조각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배재대학교 미술교육과 전임강사 시절 1992년 대전으로 이사해 충남과 인연을 맺었으며 2018년 30여 년의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하였다.

1980년 《제1회 개인전》에서 작가는 ‘비조각적’ 즉 자연의 순수함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사람의 손에 의해 가공하지 않고 세로로 쪼개어 말린 거대한 대나무들을 활용해 인위적으로 전시공간의 천정과 바닥을 연결하여 채우려고 시도하였다.¹ 1980년 《한국미술대상전》 장려상 수상작인 〈Bamboo workshop〉에서 작가는 대나무가 갖고 있는 표면의 질감, 곧고 길게 뻗은 형태, 휘거나 부러질 것 같지만 꺾임이 없고 강직한 결, 바람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느낌을 살렸다. 작가는 이러한 대나무를 활용한 일련의 작품을 제작하면서 자연의 순수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연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² 이를 계기로 홍성경은 자연미를 살리면서 자연미를 이루는 ‘자연성’의 본질을 대나무 마디에서 찾아 작품에 구현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리석과 화강석을 소재로 자연과 상상력을 조형화한 작업 발표 이후 제2회 개인전 《WORK》에서 작가는 청동, 대리석, 화강석, 오석을 소재로 《Works》 연작을 소개하였다. 첫 전시에서 내세운 비조각으로부터 조각으로 복귀를 보여주었는데 대나무 마디의 의미를 강, 산, 바다의 매스와 볼륨의 형상화에 결부시켰다. 즉 대나무의 마디에 대지와 그 성장의 본질인 연속과 단



홍성경, 〈Bamboo workshop〉, 1980, 대나무, 《한국미술대상전》 장려상 수상작, 작가 제공



홍성경, 〈Bamboo workshop〉, 2001, 대나무, 작가 제공

1 김복영, 「자연과 상상력 : 홍성경의 WORK에 즈음하여」, 『제2회 홍성경 조각전』(현대화랑, 1988).

2 김택기, 「조각가 김택기가 만난 조각가」, 『경기신문』(2008. 10. 28).



홍성경, 〈마족탁자〉, 2017, 소나무, 옷칠, 90×35×75cm; 홍성경, 〈긴꼬리 호랑밥상〉, 2017, 느릅나무, 90×30×23cm, 작가 제공

질,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대지의 형상화를 의미하는 작품에 조각의 고유한 기능인 주제의 매스와 볼륨의 3차원적 해석이 되살아남으로써 기본적인 조각으로 복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

1992년 전시에서 작가는 1990년대와 다른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대나무 마디의 은유적 표정을 인체와 피리 등 인간적인 사물에 결부시켰다. 이는 작품으로 이어져 〈피리 부는 사람〉, 〈여인〉, 《얼굴》, 《연인》과 《생성》 연작 등에서 나타난다. 즉 작가가 주목하고 있는 주제의 사물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거나 인간적인 것을 상징하는 사물들, 즉 피리와 은유적 형태로 보여주었다.⁴

홍성경은 2000년에 들어서 예전의 열정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에 대나무 작업을 다시 시도했다. 이와 함께 전통 건축의 아름다운 미에 대한 관찰과 탐구의 결과를 ‘배흘림기둥’에서 찾아 현대적 감각으로 표출하였다. 작품 〈하늘기둥-0501〉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흰색의 ‘공포’와 그 아래로 자연의 부드러운 선이 남아있는 ‘배흘림기둥’은 전형적인 한국적 조형미를 보여준다. 전통 건축에 이어 전통 목가구에 심취한 작가는 2015년 전시에서 〈개다리 밥상〉과 〈개다리 소반〉을, 2017년 전시에서 새롭게 〈호랑다리 밥상〉, 〈쌍두호랑밥상〉 등을 선보였다. 작가는 동물다리 형상을 단순화 또는 과장하여 선조들의 해학과 공간미에서 기능적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였다.⁵ 홍성경은 25여년 재직한 배재대학교에서 정년퇴임 후 경기도 양평의 작업실에서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연보

- 1953년 경기도 이천 출생
- 1976년 《제1회 시위전》(서울, 미술회관)
- 1977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한국미술청년작가회관 개관기념전》(서울, 청년작가회관)
- 1980년 《제7회 한국미술대상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장려상
《제1회 홍성경조각전》(서울, 청년미술회관)
- 1981년 홍익대학교 대학원(조각 전공) 졸업 / 《17인의 조각전》(서울, 문예진흥원)

3 김복영, 「사물의 유전과 그 비유적 신체 : 홍성경의 근작들」, 『제3회 홍성경 조각전』(갤러리 아미, 1992).

4 김복영, 위의 글.

5 정관목, 「교직생활 30년 담은 조각작품 향연」, 『금강일보』(2017. 12. 26).

- 1982년 《82 젊은조각가전》(서울, 아람문화원)
- 1983~2006년 《홍익조각회전》(서울, 덕수화랑 / 서울, 문예진흥원 등)
- 1984년 《15인의 청년조각가전》(서울, 박여숙 화랑)
- 1984~2006년 《한국현대조각가협회전》(서울, 후화랑 / 미술회관 / 공평아트센터 등)
- 1985~1992년 《한국미술협회전》
- 1988년 《제2회 홍성경조각전》(서울, 현대백화점미술관)
《신작초대전》(서울, 연희조형관)
- 1989년 《한·일 현대조각전》(서울, 토탈미술관)
- 1991년 『두상제작을 위한 조소기법』(우람, 1991) 발간
- 1992년 《제3회 홍성경조각전》(서울, 갤러리 아미)
배재대학교 미술교육과 부임
- 1994~2006년 《대전조각가협회전》(대전문화원 등)
- 1998년 《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
《200인 조각가 소형작품전》(서울, 선화랑)
- 2001년 《제4회 홍성경조각전》(서울, 덕원갤러리 / 대전, 롯데화랑)
- 2004년 《제5회 홍성경조각전-열·두·기·둥》(대전, KBS전시실)
- 2005년 《놀이와 장엄 첫 번째》(남양주, 모란미술관)
- 2006년 《제6회 홍성경조각전》(서울, 큐브스페이스)
- 2008년 15년간 거주한 대전의 은산작업장을 경기도 광주로 이전
- 2015년 《홍성경조각전-개다리밥상》(서울, 예술의전당)
- 2016년 배재대학교 미술학부 환경조각과 정년퇴임
- 2017년 《홍성경조각전-호랑다리 밥상》(서울, 갤러리 아리수)
- 2020년 Bamboo Workshop(Laos Pakse) <https://youtu.be/fYREzu4SC5A>
- 2022년 정년 퇴임 후, 경기도 양평으로 작업실 이전

고석산(高錫山, 1954~)



고석산, <석가모니상>, 작가 제공

1954년 충청남도 보령에서 출생한 고석산은 2남 5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국민학교 졸업 후 아버지의 권유로 15세의 어린 나이에 석공기술을 배우러 고향을 떠나 상경하였다. 1968년 석공 정종섭 문하생으로 들어가 처음으로 석수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처음 4~5개월은 선배들이 쓰던 뭉개진 정으로 돌을 떼어내는 망치질 작업을 주로 하였는데 약 2년의 석공예 기초과정을 마치자 연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졸업장처럼 받았다.¹ 이후부터 작가는 자유롭게 작업장을 선택할 수 있어 1971년 신진 석재(사장 김진영)에 입사해 난이도 있는 고급과정의 경험을 쌓았다.



고석산, <심안>, 작가 제공

고석산은 1973년 제8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석공예 부문에서 2위를 한 후 석조각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불교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작가는 전통불교미술품 제작을 위해 이인호(李仁鎬, 1935~2012, 문화재 화공 164호)를 사사하면서 항상 겸허한 자세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다듬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며, 최고의 석공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였다. 작가는 1980년대 초 일어난 미술 붐을 보면서 불교 관련 전통미술품 제작에서 머물지 않고, 영역의 확장을 시도했다. 작품 활동을 하면서 조각가 전뢰진(田雷鎭, 1929~), 계낙영(桂洛永, 1948~), 임선빈(任先彬, 1950~), 안의중(安義鐘, 1958~) 등으로부

¹ 무보수로 약 2년간 기본자세와 돌의 결을 구분하는 방법, 안전 교육 등을 배웠다. 작가는 뾰족한 정으로 망치질을 세게 하면 정 끝이 부러지기 때문에 일부러 뭉개진 정으로 돌을 떼어낸다고 하였다. 첫 2개월 동안은 겁이 나서 팔을 쭉 뻗지 못하고 망치질을 했지만 2개월 지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이 시기가 바로 망치로 자신의 손등을 때리는 시기로 아물면 때리고 또 때려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였다. 작가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당시 졸업 선물로 받은 연장통에는 정 11가락, 떨이개 2개, 도드락 망치 16는 1개, 64는 1개, 기억자, 먹통 먹칼, 돌 쪼개는 쇠파기 7개, 끌정 2가락, 송곳정 3가락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작가 제공.

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그 결과 2000년 부산국제조각심포지엄과 공주국제자연미술제, 보령국제조각프로젝트 등에 한국 대표로 초대되었다.

작가는 서울 봉은사 미륵대불 설계를 시작으로, 선산 영명사 지장보살상, 덕계리 지장사 지장보살상, 울산 묘림사 지장보살상, 팔공산 동화사 약사여래대불 병풍석, 해인사 길상암 약사부처상, 양양 휴휴암의 지혜관세음보살상² 등 크고 작은 불사에 두루 참여하였다.

고석산은 1997년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석공예에 관심 있는 후배들의 창작 활동을 위해 뜻있는 동료들과 '한국석조각연구회'를 결성하였다.³ 2013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령석장 제48호로 지정되었으며, 저가의 수입 석재 조각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석공예를 지키고자 애쓰고 있다.

연 보

- 1954년 충청남도 보령 출생
- 1968년 서울 상경 / 정중섭 문하생으로 들어가 석공예 기초과정을 배움
- 1971년 신진석재 입사, 김진영에게 본격적인 석조 작업을 사사받음
- 1973년 제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석공예부문 2위 / 이인호(문화재 화공164호)에게 사사
- 1980~1981년 《불교미술대전》에서 특선
- 1983년 국가기술자격 석공2급기능사 취득 / 문화재수리기능자 석공 667호 취득
- 1986~1994년 《서울현대조각공모전》입선 6회, 1992년 〈印(약속의 언어)〉로 특선
- 1990년 《중앙미술대전》입선
- 1992년 국가기술자격 석공예기능사 자격증 / 문화재수리기능자 석조각 1303호 취득
- 1993~1995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약속의 언어〉 특선 및 〈심안〉 대상
- 1996~2011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 초대작가로 출품
- 1997년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대통령 표창
- 1997~2020년 《대한민국현대미술대전 초대작가전》
- 1999~2019년 《전국조각가협회전》(서울, 동숭미술관 / 전주, 소리문화회관(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1999~2001년 전국돌조각경진대회 심사위원 역임 / 《국제자연미술제》(공주 일원)
- 2000년 부산국제조각심포지엄 참가 / 《금강국제자연미술전》(공주 일원)에 〈돌이야기〉 출품
- 2007년 대한민국현대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2013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령 석장 제48호로 지정 / 《대한민국전통공예대전》에서 특별상
- 2018~2020년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선정 심사위원 역임
- 2020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전통미술 공예부문 운영위원장 역임

²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부처님으로 손에 책을 들고 다니며 학문이 부족한 사람에게 학문을 통달하게 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갖추게 하는 보살상이다.

³ 1999년 고석산을 회장으로 '한국석조각연구회'가 결성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2012. 3. 8)을 받아 (사)'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로 변경되었다.

김철겸 (金哲謙, 1954~)



김철겸, 〈개기일식〉, 1989, 혼합재료, 130×194cm(출처: 김철겸 작가 블로그)



김철겸, 〈돌담〉, 2010, 마직물 위에 먹물과 아크릴, 53×41cm(출처: 김철겸 작가 블로그)

김철겸은 1954년 충청남도 논산 출생으로 목원대학교와 계명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¹ 1978년 목원대학교 학생들이 결성한 ‘대전 78세대’의 창립 회원이다. 《OPUS전》, 《부산청년비엔날레》, 《서울현대미술제》, 《서울 세계 오늘의 미술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목원대학교에 출강하기도 했지만, 전업 작가로 작품 활동에 몰두해온 김철겸은 1988년 첫 개인전을 연 이래, 개인

전을 개최할 때마다 새로운 화면구성과 시도를 보여주었으며, 이에 비해 주제는 일관되게 ‘한국성’을 화두로 삼았다.

첫 개인전에서는 형식적인 실험이 두드러진 추상미술을 선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민족의 현실과 역사를 주제로, 한국역사를 기록한 빛바랜 사진을 이용한 작업을 했다. 조선 말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동양 재료인 먹과 서양 재료인 젯소나 아크릴을 이용해 작품을 제작했는데, 유화 물감과 다르게 아크릴은 먹물과 함께 물을 사용할 수 있어서 채택한 것이었다.² 《제2회 개인전》 출품작인 〈개기일식〉(1989)은 일제강점기의 답답함을 드러내고자 일제강점기 부산 본정통에 있었던 부산시청 건물에 구멍을 뚫어 표현했다.

이 작품에서 어두운 하늘은 일제강점기를, 하늘에 비해서 밝게 표현한 땅은 민족의 희망을 상징한다.

1990년대 이후에는 돌담, 짚신, 아낙네 등을 통해 한국적인 이미지를 담아냈다. 돌담이 길게 펼쳐져 있는 《돌담》 연작을 들여다보면, 각각 모양과 크기가 다른 돌들이 서로 아귀를 맞추며 이어져 있다. 늘어선 돌담과 마당의 색감에 한국적 정서를 담기 위해 울이 굵은 ‘마직물’을 사용해 표현하는데, 이는 마치 시골의 흙과 같은 느낌을 준다. 마직물로 만들어진 바탕 위에 돌담뿐만

1 「비움과 채움의 조화, 김철겸 작가 개인전 개최」, 『금강일보』(2017. 6. 29).

2 김철겸 작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kcg2505/40086480203>

아니라 역사 속 인물들의 사진 속 모습을 화면에 반복해서 그려 화면을 채우기도 하고, 기다란 끈으로 역사의 흐름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캔버스에 잘 사용하지 않는 먹을 천에 스며들게 해서 깊이감을 더하고, 마직물 위에 먹물과 아크릴 물감을 혼합해 돌담, 농악, 짚신, 봉화 등의 소재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화면에 구현되는 색은 대부분 세 가지를 넘지 않지만, 전경, 중경, 후경 간의 공간 구분이 명확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흙 마당에서 춤을 추는 승무의 몸짓이나, 농악대의 흥겨운 동작을 강조한 작품들을 발표했다. 농악을 주제로 한 작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작품에는 농악대의 움직임 을 커다란 그림자로 확대하고 화려한 색을 첨가해 화면을 추상적으로 구성했다. 즉 농악대의 사실적인 묘사는 점차 사라지고, 색면들이 이루는 역동적인 구성으로 추상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무거운 역사적 주제에서부터 시골의 돌담과 마당에 흔 들리는 빨래와 같은 소소한 모습까지 김철겸은 오랜 세월 자신이 바라보고 느낀 한국적인 이미지를 화폭에 담았다.³ 색다른 화면 구성과 소재를 탐구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조형언어를 찾고자 노력하는 김철겸은 한국성의 추구라는 일관된 주제만큼은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지켜오고 있다.



김철겸, 〈승무〉, 2010, 마직물 위에 먹물과 아크릴, 85×44cm(출처: 김철겸 작가 블로그)

연보

- 1954년 충청남도 논산 출생
- 1978~1983년 《대전 '78세대전》(서울, 대전)
- 1979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한국청년작가 초대전》(서울, 청년미술관)
- 1982년 《3그룹 연립전》(대전시민회관)
《평면 5인전》(대전시민회관)
《현대미술 현장에서의 논리적 비전》(대구, 강정)
《서울 현대미술제》(서울, 문예진흥원미술관)
- 1983년 《제3미술관 기획초대전》(서울, 제3미술관)
《부산청년미술제》(부산시민회관)
- 1984년 《제3현대 미술제》(제주, 한국투자신탁회관)

3 허나영, 《김철겸 전》(모리스갤러리, 2017) 전시 비평. 아트허브 홈페이지. <https://www.arthub.co.kr/>

- 1984년 《대전'84 드로잉전》(대전, 반도화랑)
《대전한발제》(대전문화원)
- 1984~1989년 《한발회화전》(대전시민회관)
- 1986년 계명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 1986~1987년 《목원대학교 미술학부 교수전》(대전문화원)
- 1986~1990년 《OPUS전》(대전, 서울)
- 1988년 《개인전》(대전, 쌍인화랑)
《충남 어제와 오늘전》(대전시민회관)
- 1989년 《개인전》(서울, 나우갤러리) / 《오늘의 지역작가전》(서울, 금호미술관)
- 1990년 《서울 국제 방법전》(서울, 동숭미술관)
《지역청년작가전》(서울, 자하문미술관)
- 1991년 《개인전》(서울, 인데코갤러리) / 《수 갤러리 개관 기념전》(대전, 수갤러리)
《전환시대 미술의 지평전》(서울, 금호미술관)
- 1992년 《청주 무심 갤러리 개관 기념전》(청주, 무심갤러리)
《동쪽 하늘 아래 끝땅전》(서울, 신세계미술관)
- 1994년 《대한민국 청년 미술제》(인천종합문화회관)
《새로운 형상의 패적전》(서울, 동아갤러리)
- 1995년 《대전·충남 작가 초대전》(대전, 한림갤러리)
- 1996년 《한국의 얼굴전》(대전, 흥인갤러리)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대전시립미술관)
- 1999년 《개인전》(서울, 인사갤러리)
- 2009년 《개인전》(대전, 성갤러리)
《대전 미술의 뿌리전》(대전, 정부청사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10주년 기념전》(대전시립미술관)
- 2010년 《개인전》(대전, 모리스갤러리)
《14회 대전아트페어》(대전, 대전갤러리)
《우정의 만남전》(대전, 중구문화원)
《OPUS 창립25주년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
- 2011년 《15회 대전 아트페어》(대전, 롯데갤러리)
- 2012년 《전업작가와 대전 중견작가와의 만남전》(대전, 연정국악원)
- 2013년 《조형문화표현》(세종, 소피아갤러리)
- 2015년 《OPUS전》(대전중구문화원)
《동행전》(대전, M갤러리)
- 2017년 《개인전》(대전, 모리스갤러리)
《한국미술 내일의 주역전》(대전, 현대화랑)
- 2019년 《11-111-1-1-11-11》(대전, 모리스갤러리)

유순식 (俞淳植, 1954~)

1954년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에서 출생한 유순식은 공주교육대학교부속국민학교, 공주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제1기에 수석으로 입학해 1978년 졸업했다. 공주대학교에 다닐 때 이남규(李南圭, 1931~1993)에게 지도를 받았다. 대학교 졸업 후 교사로 재직하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다녀 1985년 미술교육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비인중학교, 공주여자중학교, 공주사대부속고등학교, 충남예술고등학교 등에서 미술 교사로 근무했고 공주대학교와 공주교육대학교에 출강했다. 충청남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로 근무한 바 있으며, 서천여자중·고등학교, 충남예술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다.

1978년부터 공주대학교 졸업생 단체전인 《한길전》을 비롯해, 《한국미술협회전》, 《백제문화제 향토작가전》에 참여했다. 1980년대 중반 《르뽀동인》, 《OPUS》 등에서 회원으로 활동했고, 1990년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공주문화원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다. 《공주국제미술제》, 《향토작가초대전》(임립미술관), 《공주 한·일미술교류회전》(교토), 《한국-인도 미술교류전》(인도) 등에 참여했으며, 2018년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원에서 예술영재교육을 위한 미술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충청남도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교육부 미술 교육과정 심의위원장, 제6대 공주미협 지부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학교법인 예성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유순식은 한옥의 문을 주요 주제로 삼아 추상회화로 표현했으며, 문살들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무늬를 포착해 조화와 균형의 미를 추구했다. 1998년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에서는 바둑판처럼 가로·세로로 엮인 선 아래에 다채로운 색과 불규칙한 형태의 면이 어우러진 작품들을 선보였다. 2007년 공주문화원에서 가졌던 네 번째 《개인전》에서도 한지를 바른 문에 비친 빛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전시했다.¹ 최근에는 문의 형상에 집중했던 이전 작업과는 다



유순식, 《회상(回想)22-A》, 캔버스에 유채, 65×45cm(출처: 『추상하기』, 갤러리 쉬갈, 2002)

1 「유순식, 오늘부터 공주서 네 번째 개인전」, 『대전일보』(2007. 12. 24).

른 비정형의 자유로운 형태로 가득한 선과 면을 활용해 화면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다. 유순식은 1980년대 대전·충남의 현대미술이 발전하는 데 이바지했으며, 공주미술계와 미술 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써온 작가이다.

연보

- 1954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78년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83년 《제6회 한길미전》(공주문화원)
- 1984년 《제9회 르뽐동인회전》(대전, 반도화랑)
- 198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졸업
《Reportage · Époque》(대전시민회관)
- 1987년 《'87르뽐 상황전》(대전, MBC문화공간)
- 1988년 《서산미술관개관기념초대전》(서산미술관)
《충남 어제와 오늘전》(대전시민회관)
- 1990년 《개인전》(서울, 세종문화회관 / 공주문화원)
《제5회 OPUS전》(대전, 현대화랑)
- 1991년 《공주풍경전》(공주문화원)
- 1993년 《개인전》(서울, 서경갤러리 / 공주문화원)
- 1994년 《제2회 충청남도청년미술제》(천안시민회관)
- 1995년 《한러현대미술러시아초대전》(러시아, 레핀미술아카데미 박물관)
- 1997년 《제6회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작품전》(공주문예회관)
- 1998년 《개인전》(천안, 아라리오갤러리)
- 2003년 《충남 현대미술의 단면전》(천안시민회관)
- 2007년 《개인전》(공주문화원)
- 2014년 《지역미술작가 초대전》(공주문화원)
- 2016년 《제17회 향토작가초대전》(공주, 임립미술관)
- 2017년 《몽트뢰 아트페어》(스위스 몽트뢰)
- 2018년 《공주를 그리다》(공주, 아트센터고마)
- 2019년 《한 그림 내 곁에》(공주, 이미정갤러리)
- 2021년 《공주미협 공주지부정기전》(공주, 아트센터고마)
- 2022년 《추상하기》(공주, 갤러리 쉬갈)

이종구 (李鍾九, 1954~)

1954년 충청남도 서산에서 출생한 이종구는 1976년 중앙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1988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군 제대 후 모교인 인천 동산고등학교에 1980년 교사로 부임했고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에 들어섰다.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중앙미술대전》에 매해 출품해 입선, 특선, 장려상을 연이어 수상했고, 1982년 창립한 ‘임술년’ 회원으로 참여했다.¹ 그 무렵에는 차가운 도시 이미지를 극사실적인 초현실주의 화법으로 그렸다.²

1976년 《이종구 습작전》(인천공보관) 이후 20여 차례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기획전과 단체전에 500여회 출품했다. 1982년 《중앙미술대전》 특선, 1983년 《중앙미술대전》 장려상, 1994년 가나미술상, 2005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0년 인천문화재단 우현예술상을 수상했다.

1984년부터 이종구는 아버지와 농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제작했다. 특히 농부인 아버지의 생애, 심성, 정신 등 내면적인 요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화폭에 담기 위해 쌀부대를 사용했다. 이 쌀부대는 농민의 생활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자, 당시의 시대상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이다.³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사진을 활용해 인물을 섬세하게 재현했으며, 카메라 렌즈의 시점과 같은 구도를 이용해 세밀하게 묘사한 인물의 표정과 주름은 삶의 기록 그 자체이다.⁴

1990년대 중반에는 극사실적인 기법으로 소, 씨앗, 그릇 등을 화면에 단독으로 배치하여 농촌과 농민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었다. 1995년 오랫동안 창작의 중요한 동기를 제공했던 아버



이종구, 〈속농자천하지대본-연혁〉, 1984, 부대종이에 아크릴릭·콜라주, 170×100cm, 서울시립미술관

1 '임술년'은 1982년 창립한 형상미술을 추구하는 단체로 박홍순, 송창, 송주섭, 이명복, 전준엽, 권용현 등이 창립 회원이다.

2 이준희, 「도시에서 농촌으로... 시대의 표정 담은 '리얼리스트」,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공감" 홈페이지. <https://gonggam.korea.kr/>

3 아르코예술기록원 홈페이지. <https://www.art500.or.kr/blog/leejonggu.do?pageNumber=9>

4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s://sema.seoul.go.kr/>



이종구, <검은대지-무자년 여름>, 2008, 한지에 아크릴, 180×90cm(출처: 아르코예술기록원 홈페이지)

지가 세상을 떠나자 이종구는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고, 이 시기에는 땅과 동일시하는 밥상이라는 주제에 집중했다. 밥상 표면에 땅을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상징물을 배치시켰다.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깨진 그릇은 붕괴되어가는 우리 농경문화와 농촌의 경제를 상징한다. 거기에 더해 볍씨와 씨앗을 그려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감을 담았다.

1990년대 후반에는 다소 추상적인 《백두대간》 연작을 시도했다. 이 연작은 일반 풍경화와는 다르게, 인간의 역사·문화·생태·환경 등을 모두 포함한 ‘역사풍경화’이자, 한 편의 장대한 서사시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농촌 사람들과 소를 그렸지만, 전염병으로 잔인하게 생매장되는 가축을 위로하기 위해 《진혼》 연작을 새롭게 제작했다. 이렇듯 농촌을 주제로 한국적 삶의 원형을 탐구해 온 이종구는 촛불시위, 남북정상회담 등의 국가적 사건을 다루며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우리 시대의 농민화가’라 불리듯이 이종구는 순박한 품성과 진지한 태도, 그리고 성실함이 몸에 밴 화가로 잘 알려져 있다.⁵ 이종구가 지닌 화가로서의 성실한 시각에 대해 미술사학자 유홍준은 이 국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모순과 비리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네 민중의 삶 속에 어떤 상처를 남기고 지나가고 있는가를 눈에 붙을 켜면서 바라보는 작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⁶

2005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뽑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었던 이종구는 비판적인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농민들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눔으로써, 농민들에게 내재된 분노와 저항, 그리고 희망을 표현하는 리얼리즘 작가라는 평을 받았다.⁷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2022년부터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5 이태호, 『땅의 사람들』(학고재, 1992).

6 유홍준, 「이종구, 그의 진실된 눈빛을 생각하며」, 『80년대 미술의 현장과 작가들』(열화당, 1987), p. 183.

7 류한승, 「우리 농촌과 함께 그 희망을 찾아서」, 『올해의 작가-이종구』(국립현대미술관,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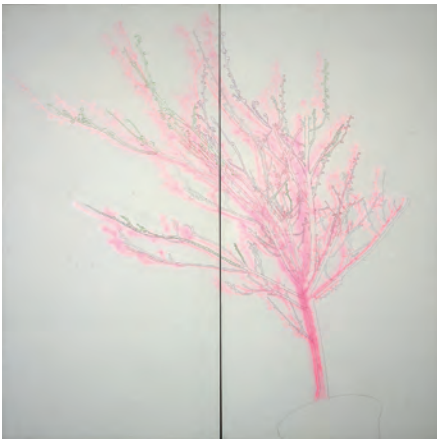
연보

- 1954년 충청남도 서산 출생
- 1972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입학(1976년 졸업) / 《이종구 습작전》(인천공보관)
- 1982년 《임술년-구만팔천구백구십이에서 창립전》(서울, 덕수미술관)
- 1982~1983년 《중앙미술대전》(중앙일보사) 특선, 장려상 수상
- 1983년 《임술년》(서울, 아랍문화회관 / 대구, 수화랑)
- 1984년 《해방40년 역사전》(서울, 아랍문화회관)
- 1985~1991년 《지평전》(인천시공보관)에 참여
- 1986년 개인전 《땅의 사람들》(서울, 그림마당 민 / 대구, 맥향화랑)
- 1988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졸업
- 1989년 《80년대 형상미술》(서울, 금호미술관)
- 1990년 《농촌 현실과 농민의 모습》(서울, 온다라미술관)
- 1991년 개인전 《오지리 사람들》(서산, 오지초등학교) / 《통일전》(서울, 그림마당 민)
- 1992년 《오늘의 삶-오늘의 미술》(서울, 금호미술관)
- 1993년 《땅의 현실-김정현·이종구 2인전》(서산, 서인화랑)
- 1994년 가나미술상(가나아트) 수상 / 《민중미술 15년》(과천, 국립현대미술관)
- 1995년 《한국현대미술전》(중국 베이징, 중국미술관)
- 1997년 《한국미술 '97-인간·기계·동물》(과천, 국립현대미술관)
- 1999년 개인전 《귀향-오지리 사람들 2》(서산문화회관)
- 2001년 《한국현대미술 시대의 표현-‘상처와 치유’》(서울, 예술의전당)
- 2004년 저서 『땅의 정신 땅의 얼굴』(한길아트, 2004) 발간
- 2004~2021년 중앙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 2005년 《올해의 작가-이종구》(과천, 국립현대미술관)
- 2006년 《한국미술 100년 2부-전통, 인간, 예술, 현실》(과천, 국립현대미술관)
- 2007년 《민중의 고통-한국미술의 리얼리즘 1945-2005》(일본,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 2009년 개인전 《국토-세 개의 풍경》(서울, 학교재 / 광주, 신세계갤러리)
- 2010년 개인전 《우현예술상 수상기념전》(인천, 아트플랫폼)
- 2011년 《올해의 작가 23인의 이야기 1995-2010》(과천, 국립현대미술관)
- 2012년 《한국현대미술: 거대서사 1》(국립현대미술관)
《한국근현대미술 특별기획전-여기 사람이 있다》(대전시립미술관)
- 2015년 《광복 70주년 한국근현대미술특별전》(대전시립미술관)
- 2016년 《한국 현대미술의 눈과 정신 II: 리얼리즘의 복권》(서울, 가나인사아트센터)
- 2017년 《키워드 한국미술 2017: 광장예술-햇불에서 촛불로》(제주도립미술관)
- 2018년 개인전 《광장-봄이 오다》(서울, 학교재)
- 2019년 《소화: 한국 근현대 드로잉전》(서울, 소마미술관)
- 2020년 《인물 초상 그리고 사람》(서울, 갤러리현대)
- 2022년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

이종협 (李鐘協, 1954~)



이종협, 〈매화중독 梅花中毒〉, 2010, 캔버스에 유채, 250×250cm, 작가소장



이종협, 〈매화중독 梅花中毒〉, 2010, 캔버스에 유채, 250×250cm, 작가소장

1954년 대전에서 출생한 이종협은 1973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에 들어가 실험적인 성격이 강한 미술 그룹 '19751225'를 직접 결성해서 활동했다. 또한 한국 실험미술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S.T그룹'의 멤버로 활동했다. 1985년 일본의 다마(多摩)미술학교에 입학해 판화를 통해 형식실험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한 이종협은 1980년대 말 귀국 후 대전에서 유일한 판화공방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판화 창작에 매진해오고 있다.

이종협의 판화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까지는 모노크롬의 동판화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중반에는 꽃과 같은 자연 소재와 더불어 칼라를 적극 도입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판화의 프로세스에 나타나는 우연성과 개연성의 조응관계에 주목한 작업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다. 이러한 연대기적 분류가 작품 변화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련의 변화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종협은 사물의 모사(模寫)나 재현보다는 판화 고유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이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온 작가다. 내용면에서는 자연과 생태와 같은 거대담론과 시간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형상화하는데 주력

해왔다. 이종협의 판화는 회화처럼 일품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모노타입에 맥이 닿아 있으면서도, 실물을 프린트한다는 점에서는 모노타입과 구별된다. 즉 어떤 이미지를 새기거나 찍어내는, 그리거나 만들어내는 판법 혹은 작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¹

판화에서 보여주었던 자연에 관한 미감을 이종협은 '그림자회화'라는 낯선 형식의 작품들과 일부 설치작품에 적용했다. '그림자회화'는 살아있는 식물이나 나무의 그림자를 그리는 방식이

1 고충환, 「판화 고유의 언어를 추구한 모더니스트」, 『대전미술의 지평: 유근영, 이종협 展』(대전시립미술관, 2005).

다. 초란(椒蘭)이나 나뭇잎, 꽃이 자라는 과정을 며칠 혹은 몇 주에 걸쳐 그리고, 그 옆에 그린 날의 일기를 적는다. 2010년 개인전 《매화중독》연작에서 선보인 작품들은 작업실로 들어 온 매화 한 그루에서 시작했다. 긴 겨울을 견디며 꽃을 피우고 잎을 틔우자 매향(梅香)에 빠진 작가는 그 옆에 캔버스를 세우고 그림자를 상감(象嵌)하였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꽃이 활짝 핀 매화, 꽃잎이 지고 푸른 잎을 틔운 매화가 대련을 이룬 이 작품들은 자연미술의 미학과 동아시아의 오랜 회화 미학이 고루 담겨있다. 매화의 ‘투명한 그림자’와 ‘그윽한 향기’를 새긴 일명 ‘그림자회화’는 나무 옆에 큰 캔버스나 종이를 세워 그림자를 지게 한 뒤, 그것을 선묘 방식으로 그린 것으로 ‘드로잉회화’라고도 부를 수 있다.²



이종협, 〈19822021〉, 2021, 캔버스에 먹·오일, LED, 135×135cm, 작가소장

이종협은 1981년 창립된 ‘야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30년 동안 자연미술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해 왔다. 판화·드로잉·설치가 주된 형식이라면, 그 형식의 현장성은 늘 자연미술의 창작 행위 안에 있었다. 따라서 “자연의 순환원리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하는 방식이다.³ 예컨대, 이종협의 판화는 목판이나 소멸판⁴처럼 특정한 판에 새김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콜라주기법과 유사한 콜라그래피(Collagraphy)나 실크스크린 인쇄법인 세리그래프(Serigraph)를 적극 활용했다. 드로잉은 ‘자연물’을 대상화했고, 설치 작품은 전시장 안팎을 구분하지 않았다. 수십 수백의 베고니아 꽃잎과 동백꽃을 판에 올린 뒤 바로 프레싱하는 콜라그래피와 디지털 꽃의 이미지를 세리그래프로 재현한 판화는 판 자체의 개념적 미학보다는 자연의 색감, 즉 꽃의 색감을 얼마나 생생하게 복원하는가에 있었고, 드로잉은 식물의 성장과 죽음을 그림자 드로잉으로 쫓는 일명 ‘자라는 드로잉’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 설치하는 작가가 문명의 이성을 벗고 자연에 혹은 공간에 맨 몸(순수한 자연의 몸으로서)으로 침윤하는 인지학(人智學, anthroposophy)적인 접촉에 있었다. 이러한 창작행위는 자연미술가 그룹 ‘야투’가 ‘사계절 연구회’를 통해 지속해 왔던 교감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종협의 작품세계는 “등근 순환구조와 같다”는 평가를 받는다.⁵ 늘 자연에서 미학적 동인을 찾기 때문이다.

이종협은 현재까지 국내외 단체전에 600여회에 참여했으며, 대전·서울·수원·동경·오사카 등지에서 개인전을 16회 개최했다. 2009, 2010년 《금강 자연미술비엔날레》총감독, 2010년부터

2 김종길, 「투명한 꽃그늘, 흰 그림자-이종협의 '매화중독(梅花中毒)'과 그림자 회화의 의미」, 『이종협 개인전: 매화중독』(모리스갤러리, 2010).

3 김종길, 위의 글.

4 소멸판은 한 장의 판 표면을 계속해 깎아내면서 그 과정을 종이에 찍어내 완성하는 소멸판법을 위한 판을 말한다.

5 김종길, 위의 글.

2014년까지 대전시립미술관 관장을 역임했다. 현재 진천 관화미술관 운영위원, 한국미술협회, 대전현대미술협회, 46조각 대표로 활동 중이다.

연보

- 1954년 대전 출생
- 1973~1979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80년 《제1회 개인전》(대전중구문화원) 개최
- 1985~1990년 일본 다마미술대학 대학원 졸업
- 1989년 《제2회 개인전》(일본 도쿄, +1갤러리) 개최. 이후 개인전 16회 개최
- 1997년 《서울관화미술제》(서울, 예술의전당)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초대전》(대전시립미술관)
- 1999년 《한국현대관화 스페인순회전》(스페인 마드리드, 국립관화미술관)
- 2000년 《현대 관화의 위상전》(대전시립미술관) / 《한·일 미술교류전》(대전시립미술관)
- 2001년 《Omori Bellport Art Exhibition》(일본 도쿄, 벨포트 아트리움)
- 2001·2003년 《제7회 서울관화미술제》(서울, 예술의전당)
- 2002년 《46번가-뒤셀도르프의 관화가들》(대전, 프리즘갤러리 / 우연갤러리)
《월드컵 개최기념 국제관화전》(대전중구문화원)
《제17회 아시아국제미술전람회》(대전시립미술관)
《한·일 국제미술제》(일본 오오다시)
《한국현대관화의 동향과 전망전》(전주, 전북예술회관)
- 2003년 제2회 이동훈미술상 특별상을 수상 / 《대전관화의 오늘》(대전시립미술관)
《중·한 문화교류 한국우수관화가 작품전》(중국, 청도문화국)
- 2004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참여작가 드로잉과 Printmaking》(대전, 이공갤러리)
- 2005년 《대전미술의 지평》(대전시립미술관)
《한·중 관화전》(중국, 흑룡강성 미술관)
- 2007년 《서사의 도입-꽃비와 텍스트》(서울, 모인갤러리)
- 2009~2010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총감독 역임
- 2010년 《이종협 개인전: 매화중독》(대전, 모리스갤러리)
《움직이는 城: 한일국제미술제 동경전》(도쿄, 한국문화원)
- 2010~2014년 대전시립미술관 관장 역임
- 2018년 《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 한국 행위미술 50년》(대구시립미술관)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대전시립미술관)
- 2019년 《ASIAN WAY》(서울, 마루갤러리)
- 2020년 《異空異間-DIEP국제관화전》(대전, 우연·이공·쌍리·하니갤러리)
- 2021년 《46번가 관화가들》(대전, 우연갤러리)
《관화에 의한, 관화를 위한 모두의 미술관》(진천생거관화미술관)
- 2022년 《Indoor 야투6인전》(대전, 갤러리고트빈)

임동락(林東洛, 1954~)

1954년 대전에서 출생한 임동락은 어린 시절부터 데생하는 것을 좋아해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직업군인인 아버지를 따라 자주 이사를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었던 작가는 미술책을 보고 데생과 그림을 그리며, 많은 시간을 홀로 보냈다고 한다.¹

대전고등학교를 나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에 진학한 작가는 1980년 《부산미술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후 국내·외 조각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국제비엔날레와 심포지움 등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문화행정가로 평가받는² 임동락은 한국에서 컴퓨터를 가장 빨리 창작에 적용한 작가 중 한 명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구조적으로 거의 완벽한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임동락의 작품은 견고한 형태와 수평, 수직의 구축적인 구조가 특징이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알맞은 규모의 덩어리에서 느껴지는 안정감과 동시에 기하학적인 형태에서 획득되는 운동감이 시각적 긴장감을 조성한다.³

작가 스스로 “나는 빛과 공간을 조각한다. 심성의 치환, 중도의 모색이 내가 추구하는 작품세계”라고 말하듯 그의 작품에서 수평과 수직, 안정성과 불안정성, 튀어나옴과 움푹 파임, 직면과 곡면의 이원성을 발견할 수 있다.⁴ 따라서 미니멀한 기하학적 조각은 음양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자연관에 조형적 현대성을 입힘으로써 현대 도시의 경



임동락, 〈point-croissance〉, 1999, 스테인레스 스틸·청동, 180×180×500cm, 작가 제공



임동락, 〈Point-The Gate of Space V〉, 2001, 스테인레스 스틸, 270×280×210cm(출처: 『임동락』, 인사아트센터, 2001)

1 미셀 누리자니, 김주영 번역, 『조화』, 『임동락: 2006~2016』(디자인웍스, 2018), p. 16.

2 최승훈, 『조각가 임동락』, 임동락 작가 홈페이지. www.limdonglak.net.

3 임영방, 『임동락의 작품세계-견고한 형태로 표현된 조화속의 운동』, 『임동락환경조각전』(가나화랑, 1994).

4 최승훈, 『조각가 임동락』, 『임동락 초대 야외조각전』(독일 바덴바덴시, 2007).

관에 어울리는 미적 특성을 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⁵ 하나의 개체가 모여 전체를 이루고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프렉탈’이론을 접목한 《Point》 연작을 통해 조합과 결합 구조를 모색하고 반복적인 구조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임동락의 조각은 주변 환경을 방해하지 않고 위협적이지 않으며 오만 속에 감히지 않는다고 평가받고 있다.⁶

임동락은 2006년 프랑스 파리의 라 데팡스 광장과 신개선문인 그랑다쉬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를 통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1999년 작품 〈Point-Croissance〉가 라 데팡스 광장에 영구 전시되는 성과를 얻었다. 작품 제작과 함께 작가는 후학을 양성하며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 등 대외적인 활동도 활발하게 하였다.

연보

- 1954년 대전 출생
- 1980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 졸업
 《부산미술대전》에서 금상
- 1984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각과 석사졸업
 《가나화랑 초대 개인전》(서울, 가나화랑)
 《한국 현대조각 단면전》(일본 도쿄)
 《시형조각회전-시각과 형질전》(서울, 문예진흥원미술회관)⁷
 《Monte-Carlo 국제현대미술전》(모로코 왕실 주최)
- 1984~2013년 여러 공모전, 미술대전 등의 자문위원, 심의위원, 심사위원 등 역임
- 1988년 《임동락 초대전》(서울, 예원화랑)
- 1989년 《임동락 환경조각전》(서울, 가나화랑 / 서울, 신라호텔 조각공원)
 프랑스 독립 200주년 《자유의 기》
 한국미술평론가 협회 선정 ‘석남미술상’ 수상
- 1991년 《도시환경조형전》(국립현대미술관)
- 1994년 《개인전》(일본 도쿄, 무라마쓰 화랑 / 일본 교토, Beny 갤러리)
 《조각의 산책》(일본 교토)
 《서울 국제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
- 1996년 《초대 개인전》(부산, 공간화랑)
 《예원화랑 초대 개인전》(서울 아트페어)
- 1997년 《공간화랑 초대 개인전》(서울 아트페어)
 《Triangle des Arts 특별초대전》(프랑스 니스)

5 윤진섭, 「자연의 본질에 대한 질문」, 『레온베르그시 초대전』(레온베르그 미술관, 2013).

6 미셀 누리자니, 「조화」, 『임동락 개인전』(인사아트센터, 2001).

7 ‘시형조각회’는 홍익대학교 조소과 동문의 모임으로 1977년 창립하였으며, 1978년 창립한 ‘후기조각회’와 통합하여 1990년 ‘조각그룹광장’으로 탄생하였다. 김달진미술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daljin.com/column/9152>

- 1997년 《니시하리마 국제조각 심포지움》(일본 고베)
- 1999년 《Fox art center 초대 개인전》(미국, Fox art center)
- 2001년 《임동락 초대전》(서울, 인사아트센터)
- 2003년 《조선화랑 초대-환경조형전》(서울, 조선화랑)
- 2004~2019년 《Art Paris》(프랑스 파리, 루브르미술관)
- 2005년 《임동락 초대전》(파리, Galerie Gana Beaubourg)
- 2006년 《임동락 조각 초대전》(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광장 및 그랑다쉬 미술관)
- 2007년 《임동락 초대 야외조각전》(독일 바덴바덴, 레오폴드 광장)
- 2009년 《MINIMAL MAXIMUM》(세종문화회관)
《한국국제아트페어》(서울, 코엑스)
- 2010년 《Sculpture 2010》(Triennale di milano Incheon Special Museum)
- 2012년 《임동락 야외조각 특별초대전》(이탈리아 베니스)
《Art Stage Singapore 2012》
작품 <Pont-Mass>가 베니스 영화제 특별상 수상자의 트로피로 선정됨
- 2013년 《레온베르그 시 초대 '빛의 기하학'전》(독일, 레온베르그 미술관)
《Art Miami》(미국 마이애미, FAMA gallery)
- 2014년 《초청 개인전》(미국 마이애미, Lelia Mordoch Galerie)
- 2014~2021년 《BRAFA2019, 2020》(벨기에 브뤼셀, Kalman-Maklary Fine Arts)
- 2015년 《Start Saatchi Gallery 2015》(영국 런던, 사치갤러리)
《SWAB 2015 Art Fair》(스페인 바르셀로나)
《Art & Antique Hofburg》(오스트리아 비엔나)
- 2015~2019년 제9대&10대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 역임
- 2016년 《가나화랑 초대 개인전》(서울, 가나화랑)
《CIGE(China International Gallery Exposition-Beijing)》(중국 베이징)
- 2018년 동아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교수 정년퇴임
《Gioielli D'Artista》(이태리 로마, Boutique Roberto Coin)
《Touch of Korea》(헝가리)
- 2022년 《Harmony of Korea》(헝가리)

전일국(全一國, 1954~)



전일국, 〈흔적 1〉, 2019, 캔버스에 혼합매체, 53×45cm(출처: 『전일국 개인전: 의식의 탈개념화』, 대전: 우연갤러리, 2019)

전일국은 **대전 출생**으로 1979년 배재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후, 1982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조형미술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대 초반부터 ‘대전실험작가회’, ‘대전 청년트리엔날레’, ‘미로회’¹ 등에 참여하며 대전 현대미술의 중심에서 활약했다. 이 시기에 실험적인 행위 예술과 설치미술, 조각 등 다양한 창작 방식을 실험했다.

최근 실험적인 미술이 아닌 평면회화에 집중하고 있는 전일국은 인생의 고비와 고뇌 등 복합적인 감정을 화면에 표출하는 추상회화를 제작하고 있다. 2018년 대전 현대갤러리에서 ‘무의식에서 의식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첫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에 관해 작가 정장직은 “수없이 솟아오르는 선의

강약은 끊어질 듯하다가도 강한 생명력으로 과생되는 그의 화면 안 공간은 과죽지세처럼 힘차다. 그의 삶과 세계에 대한 녹록지 않은 대결이 압축되어 있는 듯 의식적으로 선을 긋는 행위가 화면 안에서 자연스럽게 춤을 춘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²

첫 개인전 이후 전일국은 ‘의식의 탈개념화’, ‘의식·무의식’, ‘무·의식, 그 심혼의 세계’ 등의 제목으로 해마다 개인전을 열고 있다. 특히 개인전 때마다 하나의 일관된 작품 제목을 써 온 전일국은 《WORK》(2018/2020), 《흔적》(2019), 《無-意識》(2021) 연작 등을 선보였다.

작품 재료로는 페인트, 아크릴, 락카, 니스, 페인트, 크레용, 수채화 물감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섞은 혼합재를 사용해 색감의 변화를 주며, 다양한 이미지를 화폭에 구현한다. 여러 재료를 바르고 긁어내고 닦아내는 작업을 통해 불투명한 색감과 복합적인 질감의 표현에 집중하며, 시시각각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로운 형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품 경향에 대해 스스로 “미술의 이론적 장르를 벗어나 내면의 세계를 무계획적, 무의식적으로 표현한 추상회화

1 ‘미로회’는 배재대학교 미술과 동문들이 활동하는 미술단체로 1981년 창립되었다.

2 『전일국 개인전: 無意識에서 意識世界로』(대전 현대갤러리, 2018).

를 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³

2021년에는 야투자연미술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입주작가로 선정되어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에서 펼쳐졌던 《그린 스펙트럼 II》(2021)에 참여했다.⁴ 이 야외전시에서는 나무에 사각형, 원형, 삼각형 도형을 뚫거나 나무를 끊어낸 뒤에 거울과 투명유리를 설치한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작품은 ‘보는 것’과 ‘보이는 것’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설치 작품으로, 작가는 “인간의 시각을 통해 ‘보는 것’과 ‘보이는 것’과의 관계를 모티브 삼아 지각하는 주체로서의 나와 반사되는 타자의 시선과의 교차와 긴장 그리고 화해를 보여주고자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거울은 처음으로 나를 만나는 신비한 공간이다.”라고 하며 작업 의도를 설명했다.

이렇듯 다양한 창작 방식에 도전해왔던 전일국은 현재 대전실험작가회, 한국조형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2년 11월 램마스아트갤러리(대전일보사 1층)에서 가진 개인전에서 추상회화 30여 점을 선보이며 현재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일국, 〈‘보는 것’과 ‘보이는 것’〉, 《그린 스펙트럼 II》
(연미산자연미술공원, 2021) 출품작, 작가 제공

연보

- 1954년 대전 출생
- 1979년 배재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
- 1980년 《OVER전》(대전, 중앙갤러리)
《미로회전》(대전시민회관)
- 1981년 《대전실험작가회전》(대전시민회관)
《제3현대미술제》(대전시민회관)
- 1982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조형미술과 석사졸업
《동아미술전》(대전, 동아전시관)
《대전실험작가회 야외현장전》(공주, 유구일원)
《충남청년향토작가 초대전》(대전문화원)

3 전일국 작가와의 인터뷰(장소: 대전 램마스아트갤러리, 2022. 11. 22).

4 《2021 야투자연미술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리플릿.

- 1983년 《양태팡당전》(서울, 덕수궁 현대미술관)
《대전청년트리엔날레》(대전시민회관)
- 1984년 《10×10전》(서울, 제3미술관)
《대전행위미술제》(대전, 쌍인갤러리)
《오늘의 입체작가 7인 초대전》(대전, 예가화랑)
《동시대전》(대전, 현대화랑)
《매일 ART전》(서울, 관훈미술관)
- 1985년 《꽃 조각전》(대전, 현대화랑)
《보문산 현장미술제》(대전, 보문산 야외음악당)
《대전실험작가회, 난지도전》(대전시민회관)
《향방전》(진주, 전북예술회관)
《남부국제현대미술제》(진주, 전북예술회관)
- 1986년 《대덕미술가전》(대전, 대덕문화원)
- 1987년 《Network 21c전》(진주, 전북예술회관)
- 1990년 《대관령 자연미술제》(강원도 대관령 일원)
《대전국제미술교류전》(대전중구문화원)
《충남대·군산대 초청 퍼포먼스》
- 2010년 《Iconnotex전》(대전, KBS홀)
- 2018년 《몽골, 한국교류전》(몽골 울란바토르, 국립미술관)
1회 개인전 《무의식에서 의식세계로》(대전, 현대갤러리)
《심향맥전》(대전, 예술가의집)
- 2019년 2회 개인전 《의식의 탈개념화》(대전, 우연갤러리)
- 2020년 3회 개인전 《意識·無意識》(대전, 화니갤러리)
《12×12×12 자연미술큐브전》(공주, 금강자연미술센터)
《증평아트센터 개관기념전》(충북, 증평아트센터)
《한국현대미술 300인전》(서울, 라메르갤러리)
- 2021년 4회 개인전 《無·意識, 그 心魂의 세계》(대전, 이공갤러리)
‘야투’ 자연미술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공주, 연미산 자연미술공원)
《행복열차전》(대전, 이공갤러리)
《한국조형미술협회전》(세종, BRT작은미술관)
《현대미술주역전》(대전, 롯데갤러리)
- 2022년 5회 개인전 《無意識의 思索畫》(대전, 램마스아트갤러리)

지석철 (池錫哲, 1954~)

1954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지석철은 평범한 가정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서화가인 작은할아버지가 작품을 제작하는 모습을 보며, 직접 서예와 사군자를 배우기도 하고, 집안에 조선 말기 서화가이자 종친인 지운영(池雲英, 1852~1935)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을 정도로 예술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지석철, 〈흙에서 흙으로〉, 1991, 캔버스에 유채, 165×130cm, 작가 제공

중학교 2학년 때 미술선생님의 권유로 그림을 시작한 지석철은 미술부가 있는 공주고등학교에 진학해 미술부원으로 활동했다. 1973년 목원대학교 미술과 1회로 입학한 지석철은 졸업 후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 1985년 졸업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8년 《대전 '78세대전》에 참여했으며,¹ 1980년 이건용의 영향을 받아 목원대학교 재학 중 안치인, 송일영, 최병규, 김익규와 함께 신탄강변에서 《대전 '78세대전 현장이벤트》를 진행했다. 1980년, 금강권을 연고로 한 작가들로 이루어진 《금강현대미술제》에 〈던지며 던지면서〉를 발표했다. 이 작품은 백사장에 약 200m 길이의 직선을 긋고, 누운 자세로 돌에다 파랑색 끈을 묶어 던지기를 시작해 행위자의 힘에 의해 멀리 나가고 적게 나가는 현상이 드러나도록 하는 작업이다. 끈을 고정시킨 후 앉은 자세로 수십 번 던지다 신체의 한계가 오면 서서 던지고, 뛰어서 던지는 행위를 1주일 동안 수천 번 반복하면 200m 직선상에는 돌과 연결된 수천 개의 선이 남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1m 높이의 기둥을 꽂은 지점에서 던짐으로써 기둥을 중심으로 원형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작업이다.



지석철, 〈무당벌레 보호구역〉, 2002, 30×30m, 작가 제공

야투 창립 멤버인 작가는 《야외현장미술연구회》,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등에 참여했으며, 제9대 공주미협 지부장을 지냈다. 중고등학교 교사로 활동하

¹ '78세대'는 1978년 목원대학교 선후배를 중심으로 한 미술인 12명이 만든 단체로 당시 AG그룹 멤버였던 김한(목원대 미술과)교수와 1세대 로지컬 이벤트의 창시자인 이건용, 퍼포머였던 성능경, 그리고 미술평론가 김복영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 《'78세대의 창립전》에는 강정현, 김익규, 김철겸, 송일영, 신현태, 안치인, 이종봉, 장금자, 정상희, 지석철, 최덕희, 최병규가 참여했으며, 1986년까지 정기전 9회, 세미나 4회, 야외 작업 3회, 타그룹과 연합전 1회, 타지역 초대전 3회 등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전 현대미술의 태동』(대전시립미술관, 2018).

다 공주북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했으며, 다수의 단체전과 초대전에 작품을 출품했다.

지석철 작품에는 줄자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1980년대 초 가을 야외스케치를 갔다 오던 중 농부가 벼단을 묶으며 수확하는 모습을 보고 시작되었다. 벼단 하나하나를 묶는 과정에서 줄자의 형상을 착안한 작가는 현재까지 작품 속에 줄자를 이입시키고 있다. 거대한 시멘트 건물에 묻혀버린 이름 모를 풀잎을 캔버스에 하나 둘 심는 등 줄자와 연관된 작업을 하며 실생활에서 갈수록 잃어가는 순수한 자아를 일련의 회화작업 속에서 찾고 있다.²

연보

- 1954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73년 목원대학교 미술과 입학
- 1978~1983년 《대전 '78세대전》(대전문화원)
- 1979년 《대전 '78세대 초대전》(서울, 그로리치화랑 / 서울, 청년작가회관)
- 1980년 《대전 '78세대 야외현장 이벤트전》(대전, 신탄진 강변)
《금강현대미술제 창립전》(공주, 금강백사장)
- 1981년 《오오(五悟)현대미술동인전》(공주문화원)
- 1981~1982년 《서울현대미술제》(서울, 문예진흥원)
- 1981~1989년 《야투현장미술연구회 야외전》(공주, 금강, 안면도 외)
- 1982년 《대전 3group 연합전》(대전시민회관)
《겨울 대성리 35인전》(북한강 일대)
- 1985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
- 1988년 《실내에서의 자연미술전》(대전, 동아미술관)
《세 곳의 섬으로부터전》(대전, 문화원화랑)
《세계 오늘의 미술전》(서울, 디자인포장센터)
- 1989년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독일, 함부르크미술대학 전시관)
- 1991년 《'눈금과 풀잎' 개인테마전》(서울, 갤러리2000)
- 1992년 《서울 국제방법전》(서울, 디자인포장센터)
- 1993년 《충청남도 청년미술제》(서산문화회관 / 서산, 서인화랑)
- 1994년 《남부현대미술제》(대전시민회관 / 대전문화원)
- 1995~2003년 《여름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공주 일원)
- 2000년 《요코하마 자연미술 '자연의 소리' 초대전》(일본 요코하마)
- 2002년 《'2002 금강국제자연미술 프로젝트전》(공주문화원) 추진위원
- 2003~2005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공주, 세종 일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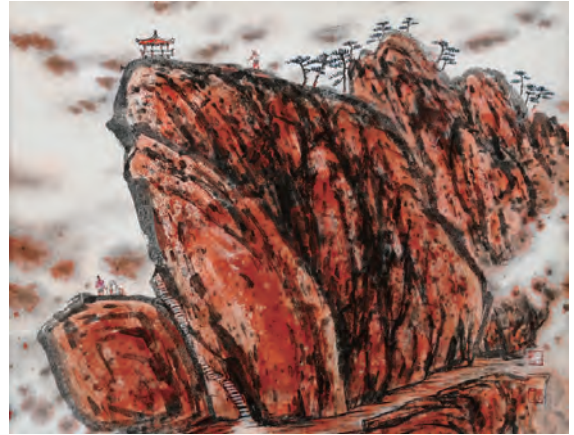
2 김정숙, 「지석철 줄자와 풀잎의 리얼리티」, 『미술세계』(1994. 4).

최기성 (崔基成, 1954~)

호는 토정(土丁), 갈산(葛山). 최기성은 1954년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에서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1962년 성연국민학교에 입학한 뒤 각종 미술대회에 학교대표로 참가했다. 1968년 서령중학교에 입학 당시 만난 ‘현대차원회(現代次元會)’¹ 회원이었던 성창경(成昌慶, 1942~)은 훗날 작가의 삶과 작품에 큰 영향을 주었다.

최기성은 1971년 국립공주사대부고에 입학한 뒤 석고데생 및 수채화를 단기간 내 학습하여 1974년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입학한다. 이때 강신철(姜信哲, 1935~1993)과 정승섭(鄭承燮, 1941~)에게 문인화, 수묵화, 산수화, 인물화를 지도 받았다. 1976년에는 서미회(瑞美會)를 창립하고 회장을 맡아 고향인 서산읍 향원다실에서 서산지역 최초의 단체전을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이후 1977년 《제7회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특선과 문교부가 주최한 《전국대학미전》에서 입선하며 본격적으로 작품활동을 펼쳤다. 특히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3회 연속 특선을 수상하면서 한국화 부문 추천작가가 되었다. 최기성은 작품 활동과 더불어 교사로 활동하였으며,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했다. 학과장을 역임하는 등 후학양성에 힘쓴 공로



최기성, 〈선경-황산(仙境-黃山) 2〉, 2016, 혼합기법, 68×55cm
(출처: 《임립미술관 화업 50년 기획초대전》, 임립미술관, 2021. http://www.limlipmuseum.org/bbs/board.php?bo_table=past&wr_id=123)



최기성, 〈백제산경 92-1〉, 1992, 혼합재료, 111×162cm(출처: 《임립미술관 화업 50년 기획초대전》, 임립미술관, 2021. http://www.limlipmuseum.org/bbs/board.php?bo_table=past&wr_id=123)

¹ 현대차원회는 1974년 ‘현대학회’로 출범했다가 해체되고, 1976년 ‘현대차원회’라는 명칭으로 한국화의 표현방법상의 고루함을 벗어나 새로운 조형언어를 만들어 낼 것을 지향한 단체이다. 창립회원으로는 성창경, 이설자, 박선희, 하영희, 김수길, 최영애, 주수일 등이 있었다. 오경란, 「새로운 조형언어의 지향, 그 지평의 현재-현대차원회」, 『미술세계』 193(2022. 12).

로 20년 근속 공로표창상을 받았다.

최기성의 작품세계는 일반적인 실경산수 작업으로 화업을 시작해, 점차 백제산경문전(百濟山景紋博)을 기본으로 한 사실적 산수풍경을 그렸다. 도가의 무위자연(無爲自然)적 이상향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백제의 와전(瓦搏)인 산경문전은 단순하면서도 정제된 형태가 빼어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에 최기성이 보여준 일련의 ‘선경(仙境)’ 작업은 필연적으로 도원경을 꿈꾸는 도가적 색채를 띠고 있다.

이처럼 최기성은 오랜 시간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했다. 2021년 공주 임립미술관에서 화업 50년을 되돌아보는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하였으며, 『화업 50년 회고집』을 발간하는 등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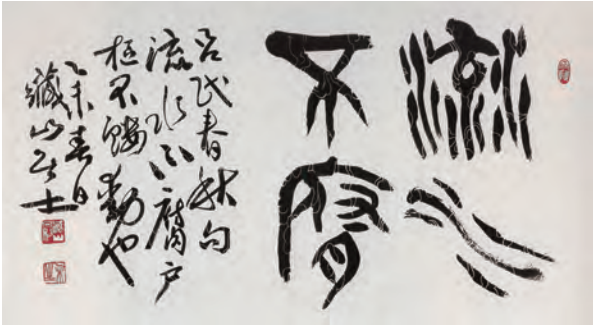
연보

- 1954년 충청남도 서산 출생
- 1974년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입학
- 1976년 《제6회 충청남도미술대전》 특선 수상
서미회 창립 및 회장 역임
- 1977년 《제7회 충청남도미술대전》 특선 수상
《전국대학미전》 입선 수상
- 1978년 충남 서산 음암중학교 교사로 부임
《제8회 충청남도미술대전》 특선 수상
- 1980년 충남 서산 서천여자중·고등학교 교사로 부임
- 1982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입학
《제12회 충청남도미술대전》 동양화 부문 초대작가 지정 및 심사위원 위촉
- 1983년 《충남한국화협회 창립전》(대전, 신신화랑)
- 1987년 공주고등학교 교사로 부임
- 1989년 대전 유성고등학교 교사로 부임
《제1회 대전시미술대전》 한국화부문 초대작가로 위촉
- 1992년 개인전 《백제산경전》(대전, MBC문화공간)
- 1993년 직무수행 및 교수-학습 평가방법 개선 공로 교육부 장관 표창(제9745호)
- 1994년 개인전 《始原으로 가는 山景展》(서울, 서경갤러리)
- 1995년 개인전 《仙境으로 가는 꿈展》(대전, 흥인갤러리)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
- 2000년 충남한국화협회 회장 역임

2 최기성, 『畫業50年 回顧集 崔基成』(두원, 2021), pp. 345~373.; 임립미술관 기획 초대 畫業 50년 화집발간 기념전 “최기성” 전시 소개 참조.
http://www.limlipmuseum.org/bbs/board.php?bo_table=past&wr_id=123

- 2001년 사단법인한국미술협회 공주지회장 역임
- 2005년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학과장 역임
- 2010년 중국 북경사범대학 초청 연구교수 역임
- 2012년 《중국 해외연수 귀국 발표 초대전 중국실경전》(충청남도역사박물관)
- 2015년 대학교 은사 장승섭 교수로부터 아호로 ‘토정(土丁)’을 작명 받음
- 2016년 《최기성 북경전》(북경798예술구, 삼도반예술공간)
- 2017년 공주대학교 총장 20년 근속 공로표창 수여
- 2018년 충남서예가협회 한·중·일 국제교류전 자문위원 역임
사단법인 대한민국면암서화협회 자문위원 역임
- 2019년 북경문화예술발전촉진위원회 특별전문위원 역임
- 2021년 《최기성 화업 50년 회고전》(공주, 임립미술관)
- 2022년 《제38회 충남한국화협회전》(공주, 민갤러리)

김두한(金斗漢, 1955~)



김두한, 《流水不腐》, 2015, 종이에 먹, 35×50.8cm, 작가 제공

호는 장산(藏山). 1955년 강원도 영월에서 출생한 김두한은 고등학교 진학 전, 대전으로 이사를 와서 1975년 대전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5년,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과를 졸업했으며, 1999년 동 대학교 대학원 서예학과에 진학해 미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두한은 1978년, 정태희(鄭台喜, 1951~)가 운영하던 송암한묵회에 입문

하면서 서예를 시작했다. 1984년 《제3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 부문에서 처음으로 입선을 했으며, 1991년에는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가 되었다. 대전에서 서예가로, 초대작가로 활동하던 중, 서예에 대해 더욱 깊이 배우고자 불혹의 나이에 원광대학교 서예과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김두한의 지도교수였던 선주선(宣柱善, 1953~) 교수는 “장산거사(藏山居士) 김두한 선생은 해서, 행서, 전서, 예서, 초서 등 오체(五體)가 모두 빼어나 구양순(歐陽詢, 557~641)과 같이 대기만성을 기약할 수 있는 서예가”라고 소개하였다.¹ 석사학위를 받은 뒤에는 대전대학교 인문대학 서예학과와 한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으며, 1987년부터 동학사승가대학교의 교수로 34년째 재직하고 있다.

2015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상을 수상한 김두한은 첫 개인전이자 초대전에 논어의 주자(朱子) 집주(集註)에서 ‘익힐 습(習)’ 자를 훈 ‘鳥數飛(조수비·새가 자주 날갯짓 한다)’를 써 출품했다. 2021년 김두한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영추(寧麤)연묵회’ 회원전을 개최하며 대전 서예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¹ 한성일, 「김두한 미술협회 대전시지회 부이사장」, 『중도일보』(2015. 5. 6).

연보

- 1955년 강원도 영월 출생
- 1975년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1984년 《제3회 대한민국미술대전》서예 부문 입선
- 1986년 《제5회 대한민국미술대전》서예 부문 입선
- 1987년~현재 동학사승가대학교 교수로 재직
- 1990년 《제2회 대한민국서예대전》한문서예 부문 입선
- 1991년 《제3회 대전시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 초대작가로 참여
- 1993년 《제23회 충청남도미술대전》참여
《제8회 공예-서예대전》한문서예 부문 특선
- 1994년 《충청서예가전》(서울, 예술의전당)
- 1995~1999년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과 졸업
- 1999~2001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서예학과 석사학위 취득
- 2001~2003년 대전대학교 인문대학 서예학과 강사 역임
- 2005년 《제5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2012~2016년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부회장 역임
- 2014~2016년 한남대학교 회화과 강사 역임
원광대학교 강사 역임
- 2015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기념전》(대전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소장품전》(대전시립미술관)
- 2021년 《영추연목회전》(대전예술가의 집)에 참여

김옥연 (金玉演, 1955~)



김옥연, 〈여행일기〉, 2019, 캔버스에 유채, 112.1×162.2cm, 작가 제공

1955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출생한 김옥연은 국민학교 2학년 때까지 경기도 포천에서 살았다. 유년 시절을 자연과 벗하며 자랐던 김옥연은 1962년 대전으로 이주해 삼성국민학교를 졸업했다. 1968년 무렵부터 6년간 김옥연은 신문배달, 의류 작업 등의 일을 하며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힘썼다. 중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졸업한 후, 1975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야간부에서 들어가 학업을 이어갔다. 공주교육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40년간 교직에 있었다. 교직생활 중에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과를 다니며 아동교육 및 미술 지도에 열정을 다했으며, 2021년 한남대학교 대학원 조형미술과를 졸업했다.

김옥연은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조영동(趙榮東, 1933~) 교수를 만나면서 그림을 시작했고, 1979년부터 공주교육대학 미술부 학생모임인 '빌리잔'에서 활동했다. 따뜻한 색감의 화려한 색을 주로 사용해 물감 층위를 두껍게 올리는 표현방식을 사용하는 김옥연은 여러 종류의 꽃을 형상화하지만, 그중에서도 야생 장미를 주로 화폭에 담고 있다. 김옥연은 일상의 경험을 자신의 생각과 기억으로 재구성한다. 즉 일상에서의 감정과 자연이 주는 느낌을 면으로 구성된 추상으로 표현하고 거기에 기억 속의 자신과 주변 인물을 사실적인 묘사로 더하는 표현 방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기록한다.

〈기억의 퍼즐-일상〉(2021)에는 화면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화면 중앙에 자화상을 그렸는데, 화려한 색면 조각이 대형 화면 가득 펼쳐져 있다. 감상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화면 오른쪽에는 숨은그림찾기처럼 기억 속에 존재하는 형상을 그렸고, 화면 왼쪽에는 작가의 젊은 시절 이야기들로 구성했다.¹

어렵게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꾸준히 화업을 이어온 김옥연은 2022년 오사카갤러리 우수작가상과 대전국제미술제 우수작가상을 수상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전초등교원미술교육연구회 부회장, 그릴회 사무국장과 부회장, 각종 아동미술대회 심사위원을

1 황효순, 「일상 속으로 찾아든 감성의 변주」, 『김옥연개인전』(갤러리고트빈, 2021).

역임했으며, 대전시미술대전 입선 및 특선,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울시회의장상 및 특선 등을 수상했다. 녹조근정훈장과 국민교육유공표창 교육부장관상을 받았으며, 현재 한국미술협회, 대전미술협회, 대전사생회, 그릴회 등의 미술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옥연, <기억의 퍼즐-일상>, 2021, 캔버스에 유채, 162.2×336.3cm, 작가 제공

연보

- 1955년 충청남도 논산 출생
- 1973년 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 졸업
- 1975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야간부 입학
- 1977년 공주교육대학교 입학
- 1978~2022년 《그릴회전》 및 《계룡만남전》에 참여
- 1979~2017년 초등학교 교사 및 미술지도 강사
- 1989~1991년 《대전시미술대전》(대전시립미술관)
- 1993~2000년 《대전초등교원미전》(대전, 대전갤러리)
- 1995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졸업
- 1995~1996년 《한국미술교육학회전》(청주, 한국교원대학교미술관)
- 1998~2003년 미술 미적체험 감상교재 및 창의성교재 공동개발(7권)
- 2000~2022년 《대전미술협회전》(대전시립미술관)
- 2010~2017년 《해밀전》(대전서구문화원)
- 2011년 개인전 《동아시아 아트페스티벌 'CEAF'》(중국 창춘, 창춘도서관갤러리)
- 2012년 《개인전》(대전갤러리)
- 2014~2018년 《대전시미술대전》(대전시립미술관)
- 2015~2022년 《대전사생회전》(대전시청갤러리)
- 2017~2022년 《한국미술협회전》(서울, 예술의전당)
- 2019년 《개인전》(계룡문화예술의전당)
- 2019~2022년 《대전미협초대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
- 2020~2022년 《대전여류화가회전》(대전, MBC갤러리)
- 2021년 한남대학교 조형예술과 석사졸업
《개인전》(대전, 갤러리고트 TJB점)
- 2022년 《개인전》 개최(서울, 가온갤러리 / 공주, 신소갤러리 / 대전, K-Water 전시실 / 세종, 줌 갤러리 등)

김인옥(金仁玉, 1955~)



김인옥, 〈항금리 가는길 14-104〉, 2014, 한지에 채색, 130 × 162cm, 작가 제공

1955년 대전에서 출생한 김인옥은 대전 삼성 국민학교, 대전여자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며 10대 시절을 대전에서 보냈다. 대전여고 재학 시절 한국화가 정명희와 신현국이 운영하는 화실에서 수채화를 배웠고, 방학 기간에는 서양화가 김철호로부터 기초적인 소묘를 학습 하였다. 또한 ‘미상록’에서도 잠시 활동하면서 미술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였고, 홍익대학교 동양화과를 진학하면서 서울로 올라갔다.

김인옥이 재학하던 당시 홍익대학교 동양화과는 크게 수묵화풍과 채색화풍을 추구하는 이원화된 분위기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인옥은 활동 초기 수묵과 채색을 접목한 현대적인 한국화 작업을 주로 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완전히 채색화 작업에 몰두하였다. 한지가 주는 포근함과 채색이 주는 담백함과 깊이감에 매료되어 현재까지도 전통적인 채색화 화법을 추구하고 있다.

김인옥은 따뜻하고 온화한 색채와 부드러운 화법으로 완성한 채색화를 통해 고향의 향수를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작가는 경기도 양평군 항금리에 작업실을 마련하면서, 대표작품인 《항금리 가는 길》 연작을 제작하였다. 《항금리 가는 길》의 주요 모티프인 동글동글한 산과 일렬로 늘어서 있는 나무들 그리고 어딘가를 향해 달리는 중인 버스와 기차 등의 서정적인 풍경은 작가가 어린시절 살았던 부여군의 풍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다. 작가는 대전에서 태어난 후 국민학교 진학 전까지 부여군 세돈면 가회리에 있는 조부모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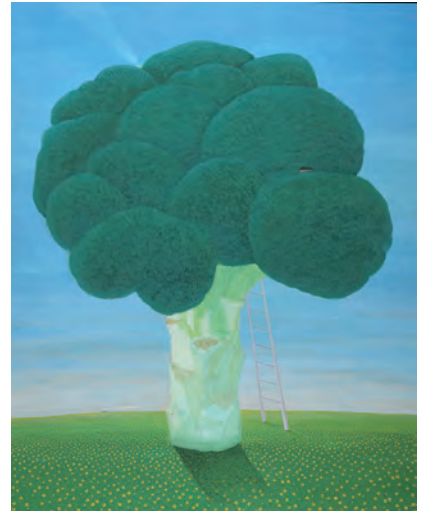


김인옥, 〈기다림〉, 2014, 한지에 채색, 55 × 125cm, 작가 제공

서 살았는데, 이때 보았던 금강, 황산벌, 채운산, 강경역 등 부여의 풍경들은 지금까지도 작품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이에 〈항금리 가는 길〉에서 ‘항금리’는 경기도 양평 항금리의 지역 풍경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

을 대변하고자 한 것이며 작가는 고향에 대한 향수, 추억을 이야기하고 한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의 연장으로 《기다림》 연작은 과거의 아름다움을 회상하고 미래에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생기길 바라는 설레는 마음, 즉 작가는 행복한 기다림을 표현하여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김인옥은 1986년 서울 윤갤러리에서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24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약 200회의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하였고 현재까지도 한국화단체 춘추회 회원으로 활발한 전시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김인옥은 홍익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하남시미술대전, 신사임당 미술대전, 소사벌 미술대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였다.¹



김인옥, 〈기다림〉, 2014, 한지에 채색, 162×130cm, 작가 제공

연보

- 1955년 대전 출생
- 1979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입선
- 1981년 ~현재 《춘추회전》에 참여
- 1982년 《채색화 4인전》(서울, 아랍문화회관)
- 1983년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미술교사 역임
- 1984년 《한국화 단면전》(서울, 미술회관)
- 1986년 《개인전》(서울, 윤갤러리)
- 1988년 《한국화의 새 흐름전》(서울, 위커힐 갤러리)
- 1991년 《오늘의 진체의식전》(강릉, 이화미술관)
- 1992년 《대한민국미술대전》특선 수상
 《오늘의 한국화전》(서울, 예술의전당)
 《자연 그리고 한국화 정신전》(서울, 미술회관)
- 1994년 《개인전》(대전, 오원화랑)
- 1997년 《동방의 한국화와 한국인의 표정전》(강릉, 문화의 집)
- 1998년 《현대한국화 창립전》(서울시립미술관)
 《한국화 126인의 부채그림전》(서울, 공평아트센터)

¹ 김인옥 작가와의 전화 인터뷰(2022. 10. 18).

- 1999년 《나혜석 기념 초대전》(경기도문화예술회관)
- 2001년 《한국화 새 천년전》(서울시립미술관)
- 2003년 《한국화 23인의 조형전》(서울, 가진화랑)
- 2006년 《5호의 풍경전》(서울, 백송화랑)
- 2007년 《대한민국-가나수교 30주년 기념전》(가나 아크라)
- 2011년 《여섯명의 작가, 세 가지 문화》(베이징, WITHSPACE GALLERY)
- 2015년 《물피리전》(서울, Js갤러리 / 양평군립미술관)
- 2016년 《우리시대의 유산전》(양평군립미술관)
- 2017년 《아틀리에 스토리전》(서울, 예술의전당)
- 2018년 《오늘의 여성미술전》(양평군립미술관)
- 2019년 《아트청주 2019 Art Fair&Art Festival》(청주, 예술의전당)
- 2020년 《리마인드 박영전》(파주, 박영갤러리)
- 2022년 《김인옥 개인전》(서울, 더 라라갤러리)

김준섭 (金駿燮, 1955~)

1955년 충청남도 당진에서 태어난 김준섭은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¹ 공주교육대학교에 다닐 때 조영동 교수의 영향으로 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당진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천안과 태안에서 근무했으며 다시 고향 당진에서 교감, 교장으로 40년간 재직했다.

1970년대 서양화 단체인 '그릴회'의 창립회원으로 참여해 40여 년 동안 활동해왔다. 또 당진에서 '학동인회'가 창립될 때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초등미술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당진의 설치미술 단체인 '큐브 설치미술회' 창립에도 참여해 예술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현재 한국미술협회, 그릴회, 학동인회, 한국전업미술가회, 큐브설치미술회, 충청예술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초기 작품에서는 사실 묘사에 주력하면서 화면을 분할 구성해 형상을 단순화한 인상주의 경향의 자연풍경을 그렸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풍경과 정물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던 화풍에서 변화를 추구해 추상적인 이미지로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기하학적인 도형과 직선 등으로 추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했고, 점차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분해한 다양한 형상으로 화면을 구성했다. 낙서를 즐기다가 다양한 글씨체를 탐구하게 된 김준섭은 글자를 그리고, 오리고, 붙이는 작업을 통해 한글의 조형미를 작품에 녹여내게 되었다. 글자를 구성하고 재배치하는 작업은 오랜 기간 교단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김준섭의 작품은 언뜻 보면 글자의 자음과 모음이 무질서하게 배치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짧은 문구와 시(詩) 언어들로 작가의 생각이 풀이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글자의 획은 사실적 형체에서 추상적 형태로 변형되기도 한다. 특히 구멍 뚫린 한지에 다른 질감의 한지를 겹쳐 붙여 여러 장의 한지를 중첩할 때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색과 형상에 집중했다. 그리고 스프레이



김준섭, 〈회상 1821〉, 2018, 한지에 혼합재료, 91×117cm, 작가 제공

1 「(지상전시) 한글, 새로운 상상이 되다...서양화 김준섭 작가」, 『당진신문』(2021. 6. 12).



김준섭, 《회상 2101》, 2021, 한지에 혼합재료, 73×50cm, 작가 제공

로 물감을 분사시켜 한지 속에 스며들게 하는 방식을 활용해 채색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를 내면서도 글자의 경계가 뚜렷해지면서 도드라지게 표현되는 효과까지 함께 구현했다. 이렇듯 한지를 주요 재료로 사용해 온 김준섭은 2015년 무렵부터는 망사에 한지가 입혀진 ‘망사 한지’를 주로 사용한다. 망사 한지 위에 원색의 강렬한 색채로 두껍게 물감을 쌓아 올려 입체감 있는 한글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2018년에는 전통문화를 활용한 이러한 독창적인 작업 방식과 당진 지역에서의 꾸준한 작품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아 당진문화재단의 ‘이 시대의 당진작가’로 선정되어 당진문예의전당에서 기념 전시를 열었다.² ‘한글, 한지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 전시에서 망사 한지를 캔버스에 붙이고 한글의 닿소리, 홀소리

리 문자를 조합·분해하여 새로운 시각 이미지를 선보였다.

이처럼 김준섭은 당진 지역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며 미술 시간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고 교감한 흔적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또 성실한 교육자로서 생활하면서 여러 단체전을 통해 꾸준한 작품 활동을 펼치며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현재 당진시 순성면 작업실에서 독창적인 방식으로 한글의 다채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작품을 창작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연보

- 1955년 충청남도 당진 출생
- 1975년 공주교육대학교 졸업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교육학 석사 졸업
- 1975년~현재 《그릴회전》에 참여
- 1982년~현재 《학동인전》(당진)에 참여
- 1983년~현재 《한국미협전》(서울·천안·서산·당진 등)에 참여
- 1987년 《독립기념관 개관기념전》(천안, 독립기념관)
- 1988년 《충남 어제와 오늘전》(대전시민회관)
- 1989년 《제14회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100호전》(천안문화원)

2 「당진문화재단, ‘이 시대의 당진작가전 2018’ 전시 개최, 『중부매일』(2018. 4. 3).

- 1989년 《충남동시대전》(대전문화원)
- 1991년 《아라리오 미술관 개관 기념 초대전》(천안, 아라리오미술관)
- 1993년 《오늘의 충남전》(천안시민회관)
- 1994년 《제19회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전》(천안시민회관)
- 2011년 《제8회 안산국제아트페어》(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개인전 부스 참여
 《당진문예의전당 개관기념전》(당진문예의전당)
 《동아시아미술축제》(중국, 장춘도서관)
- 2011년~현재 《충남 초등교원 미전》(천안· 부여· 보령· 당진· 내포)
- 2012년 《국제깃발아트페스티벌》(당진, 왜목마을 일원)
- 2013년 《내포현대미술제》(홍성문화원)
- 2014년 《충남출향작가 및 향토작가초대전》(서산, 해미읍성 일원)
- 2015년 《광양-당진 현대작가교류전》(광양, 당진)
- 2016년 개인전 《한글, 한지와 어우러지다》(당진, 문예의전당 / 원당초등학교)
- 2018년 《초대개인전: 한글, 한지에 물들다-이 시대의 당진 작가전》(당진, 문예의전당)
 《한국-네팔 현대미술교류전》(네팔, 당진)
- 2021년 개인전 《한글, 색을 입다》(당진, 안스갤러리)
- 2022년 《당진아트페어》(당진, 문예의전당)

민동기 (閔東基, 1955~)



민동기, 〈봄의 여운〉, 1999, 종이에 수채, 60.6×72.7cm(출처: 『중구작가초대전』, 대전중구문화원, 1999)

1955년 대전에서 출생한 민동기는 동중학교에 다닐 때 미술 교사였던 신현국, 신봉균에게 그림을 배웠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영수가 운영한 화실에서 입시미술을 익혔으며,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1974년 목원대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했다. 목원대학교 재학시절 1976년 산강화랑에서 《민동기·조재성 2인전》을 열었고 대전문화원에서 《제2회 민동기 유화전》을 개최했다. 목원대학교에 출강했던 박창돈과 김한 교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1977년 목원

대학교 미술대학을 1기로 졸업했다.

1985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충남대학교, 목원대학교, 우송대학교, 대덕대학교 등에서 강의하며 2021년까지 16번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신희, 화연전, 한국수채화협회, 대한민국의수채화작가협회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고 충청남도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대한민국의수채화작가협회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고 충청남도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대한민국의수채화작가협회 등에서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공주 경천중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와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소 디자인실에서 근무했다.

40여년 간 주로 종이에 수채물감을 사용해 작업하고 있는 민동기는 푸른색 계열의 색을 주



민동기, 〈바람소리〉, 2022, 종이에 수채, 45.5×53.5cm(출처: 『중구작가초대전』, 대전중구문화원, 2022)

로 활용해 차가운 계절을 상징하는 풍경화를 많이 그린다. 작품 주제로 ‘바람소리’에 천착해온 민동기는 결이 보이는 종이에 강렬한 푸른색의 수채물감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대상을 시각화한다.¹ 그 대상은 주로 나무와 물이다. 일렁이는 물결과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 바람의 동적인 움직임이 그림 속에 표현되는 것이다. 수채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작가는 “물과 색채가 만들어가는 자연의 미학이 바로 수채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채화는 누구나 쉽게 접할

1 「민동기 화백 ‘바람소리전」, 『데일리한국』(2021. 6. 27).

수 있을 뿐 아니라 표현의 방법도 매우 자유롭지요. 물이 주는 투명함과 순수함은 수채화의 또 다른 매력이지요”라고 설명한다.² 민동기는 수채화라는 장르를 통해 구상과 비구상을 넘나들면서 밝은 대기와 물체 위에서 반짝이는 햇빛, 눈 위에 비친 투명한 영상 등을 시각화하고 있다.

연 보

- 1955년 대전 출생
- 1975년 《개인전》(대전문화원)
- 1976년 《민동기·조재성 2인전》(대전, 산강화랑)
- 1977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제1회 졸업
- 1979~1982년 공주 경천중학교 교사로 재직
- 1981년~현재 《대전구상작가협회전》에 참여
- 1982년 《개인전》(대전, 공간사랑갤러리)
- 1982~1993년 한국조폐공사 디자인실 근무
- 1982년~현재 《한국미술협회전》에 참여
- 1984~1992년 《형상전》에 창립전부터 참여
- 1985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1985년~현재 《한국수채화협회전》, 《대전수채화협회전》에 참여
- 1986~1988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근무
- 1987년 《제21회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
- 1988년 올림픽공로 체육부장관 표창
- 1992년 《'92회화신조형전》(대구, 문예회관)
- 1995년 미술의 해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 1998년 대전미술협회 공로상
《개인전》(대전, 삼성문화센터갤러리)
- 2001년 《제1회 두즈믄전》(서울, 덕원미술관)
- 2004년 《개인전》(대전, 현대갤러리)
- 2005년 대전광역시 중구문화상 수상
- 2013년 《대전미술아카이브 2013: 대전미술의 새 물결》(대전시립미술관)
- 2014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2019년 《제21회 보문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 2021년 개인전 《바람소리》(대전중구문화원)
- 2022년 《중구작가초대전》(대전중구문화원)

2 「작가의 산실 (23): 서양화가 민동기씨」, 『중도일보』(2005. 3. 3).

박관우 (朴寬雨, 1955~)



박관우, 〈이상계의 자연〉, 1990, 캔버스에 유채, 145.5×112.1cm(출처: 『대전미술 하나 그림으로 말하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1955년 대전에서 태어난 박관우는 충남고등학교를 나와 1980년 경희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프랑스로 건너가 1998년까지 입체 조형예술을 익혔다. 르뽀동인회, OPUS, 대한민국 관화협회, 대전국제교류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향토청년작가초대전, 남부현대미술제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00년 부터 2015년까지 대전현대미술협회 회장을 맡아 대전·충남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 힘썼다.

박관우는 생계를 위해 도장 새기는 일을 직업으로 하다가 목판화로 미술을 시작했고, 1989년 대전문화원과 서울의 청년미술회관에서 《제1회 개인전》을 열었다.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교직의 길을 포기하고 공모전 출품을 목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주로 유화로 추상표현주의 경향

의 작품을 창작하면서도 유화뿐만 아니라 수채화, 목판화, 조각 등 다양한 표현 형식으로 작품을 제작했다.¹ 도시환경에도 관심을 갖고 2013년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구 대흥동 일대에서 벽화를 그리기도 했다. 2017년 전시에서는 콜라주 기법을 활용해 흰색 유성페인트에 유화 물감과 물을 섞어 화학적 반응을 효과적으로 응용한 방식으로 작업했다.

2022년 개인전에서는 푸른색 주조의 화면에 보라색과 분홍색 등을 활용해 변화하는 금강과 대청호의 다양한 색감을 표현한 유화를 선보였다.² 산·강·바위·집·마을·태양 등 우리가 늘 마주하는 사물을 푸른색으로 표현하는 박관우는 일상에서 만나는 소재들이 지닌 익숙한 형상을 조형적으로 변형시켜 새로운 추상표현을 통해 자연에서 느껴지는 생명력을 화폭에 구현하며, 이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심상을 담아낸다.

1 「"30년간 불태운 예술혼, 화폭에 담았죠" 21번째 개인전 여는 박관우 화가」, 『금강일보』(2013. 11. 29).

2 「(문화) 봄 맞은 지역 미술계 전시일정에 '분주」, 『중도일보』(2022. 2. 24).

연보

- 1955년 대전 출생
- 1976년 충남고등학교 졸업
- 1980년 경희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서양화 전공) 졸업
- 1980~1986년 《양대평당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0~1990년 《한국미술대전》에서 특선과 입선 12회
- 1981~1989년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에 참여
- 1984년 《서울국제 드로잉 비엔날레》(서울, 미술회관)
- 1985~1988년 《르뽀동인회전》에 참여
- 1985~2017년 《대전판화협회전》에 참여
- 1986년 《남부현대미술제》(부산) / 《제3현대미술제》(대전)
- 1986~2012년 《OPUS전》에 27회 참여
- 1987년 《오늘의 만남전》 / 《충남향토청년작가 초대전》
《대전 '87 청년 트리엔날레전》
- 1988년 《충남의 어제와 오늘》(대전시민회관)
- 1989년 《제1회 개인전》(대전문화원 / 서울, 청년미술관)
- 1991년 《여름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
- 1995~1998년 프랑스 유학(입체 조형 전공)
- 2000~2015년 대전현대미술협회 회장 역임
- 2002~2021년 《대전현대미술협회전》
- 2008년 《개인전》(대전, 공간플러스)
- 2013년 《개인전》(대전, 우연갤러리) / 《개인전》(대전, 갤러리봄)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벽화 제작
- 2013~2016년 《대한민국 판화협회전》에 참여
- 2014년 《국제판화교류전》(태국, 부라타대학교)
- 2015년 《제7회 몽골, 한국 작가전》(몽골, 울란바르트미술관)
- 2015~2020년 《대전 국제미술교류회전》에 참여
- 2017년 《개인전》(대전갤러리)
- 2018년 개인전 《나무에 그린 이야기들》(대전, 미룸갤러리)
- 2018~2020년 《46번가 판화회전》에 참여
- 2019년 《시서화는 한 몸》(대전, 미룸갤러리)
- 2022년 개인전 《계절을 건너온 풍경》(대전, 미룸갤러리)

박세관(朴世寬, 1955~)



박세관, 〈존재〉, 1995, 캔버스에 유채, 72.7×90.9cm(출처: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박세관, 〈이야기〉, 2003, 캔버스에 유채, 72.7×90.9cm
(출처: 『충청투데이』, 2003. 6. 2)

1955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출생한 박세관은 대전공업대학(현 한밭대학교) 시각디자인과와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원을 졸업했다.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특선 및 입선을 했으며,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했다. 일요스케치회, 이사회, 충남구상작가회, 한국방송미술협회, 한국시각디자인협회, 한국미술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전구상작가협회 회장을 맡았다.¹ 대전문화방송국 편성국 TV 제작부에서 미술부장으로 근무했으며, 한밭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박세관은 도자기, 고가구, 한복과 같은 전통적인 소재와 일상에서 마주하는 대상을 조합한 정물화를 주로 제작했다. 화면 중심부에 시선이 집중되는 공간에 토기나 청동기, 목기 등을 배치하고, 그 위에 과일이나 꽃잎 같은 정물을 구성해 안정감 있는 화면을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 소재인 정물은 사실감 있게 묘사하는 데 비해 배경은 추상적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방식은 인물화에서도 나타나는데, 인물이 그려진 배경에 꽃이나 바다생물 같은 환상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이미지들을 화면 군데군데 배치해, 배경의 이미지와 인물이 어우러지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1985년부터 1990년 대전MBC에 재직할 당시 충남한국화협회·이사회와 협력해 《아름다운 금강전》을 기획한 바 있다. 이 전시는 1991년부터 《금강미술대전》으로 이름을 바꿔 전국 단위의 공모전으로 발전했는데, 박세관은 이 《금강미술대전》의 출발과 전개의 주역이라 할 수 있다.²

1 「新구상 모색전, 대전 구상미술의 흐름 '한 눈에」, 『충청투데이』(2014. 11. 14).

2 《금강미술대전》은 2022년부터 《대전MBC 아트&미디어대전》으로 이름을 바꾸어 개최되었다.

연보

- 1955년 충청남도 논산 출생
대전공업대학(현 한밭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원 졸업
- 1974년 《일요스케치회 작품전》
- 1987년 《제21회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
- 1988년 《충남 어제와 오늘》(대전시민회관)
- 1988~1990년 《아름다운 錦江》(대전, MBC문화공간)
- 1989년 《충청미술 청년작가전》(대전시민회관)
- 1991년 《한발미술의 오늘전》(대전시민회관)
《구상작가 100인전》(천안 / 대전)
《충청미술청년작가전》(천안 / 대전)
- 1992년 《회화신조형전》(대구문화예술회관)
《이신회전》(대전, MBC문화공간)
《한발미술의 오늘전》 초대작가로 참여
- 1995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로 참여
《대전미술 어제와 오늘》(대전문화원)
- 1996년 대전문화방송국 편성국 TV제작부 차장
- 1997년 《제9회 대전시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
- 1998년 대전문화방송국 편성국 TV제작부 미술부장
《대전시립미술관 개관 초대전》(대전시립미술관)
《대전중구문화원 돕기 사랑의 50인전》(대전중구문화원)
- 2003년 《대전구상작가협회전》(대전시민회관)
- 2004년 《중구문화원소장전》(대전갤러리)
- 2010년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
- 2011~2015년 대전구상작가협회 회장 역임
- 2014년 《新구상 모색전》(대전, M갤러리)
《대한독도만세전》(대전, MBC문화공간)

박학규 (朴學圭, 1955~)¹



박학규, <불이선란도>, 판:은행나무, 테두리:참죽나무, 73×44.5cm, 작가 제공

호는 해초(亥峭). 1955년 충청남도 예산군 관장리에 서 출생한 박학규는 어려서부터 그리기와 만들기를 좋아했다. 1972년 16세 되던 해 서울로 올라와 소규모 가구 공방을 운영하던 작은 이모부 임병선에게 나무를 깎고 다듬는 소목일과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각자를 배웠다. 소목을 배운 덕에 작가는 톱이나 대패를 다루는 데 있어 자연스럽게 능숙해 직접 판목을 치목하는 작업을 한다. 만 5년간 가구 제작을 위한 도면 그리기, 연장 제작, 가구에 글씨 새기기 등 기초제작 과정을 모두 익힌 후 1976년 고향 예산으로 내려와 만물공예사를 차렸다.

예산에서 공예사를 운영하던 중 1978년 추사 김정희 고택의 영정단집을 제작하였으며, 추사의 후손 김성기로부터 추사 고택의 '죽로지실(竹爐之室)' 현판 제작을 의뢰받고 처음으로 완성한 현판작업이지만 작품성이 좋은 평을 들었다. 작가는 이를 계기로 좋은 글씨를 새기는

장인이 되기로 결심했다.² 김성기와 함께 충남 초대 도의원을 지낸 박창식은 추사 서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추사탁본을 계속 수집·제공해 주어 작가는 김정희의 <세한도>와 <불이선란도> 등을



박학규, <반아바라밀다심경>, 은행나무·참죽나무, 168×300cm, 작가 제공

제작할 수 있었다. 박학규는 두 사람의 도움으로 40~50여 점의 추사 판각을 완성할 수 있었으며 이 판각작품을 1989년 예산읍내 다방에서 처음으로 전시하였다.

예산 출신 김정희의 '불이선란'을 100번 이상 판각한 작가는 '불이선란'의 분위

1 본문은 작가가 제공한 자료와 장경희, 「6. 예산각자장의 전승활동」, 『예산 각자장』(민속원, 2019)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2 작가가 제공한 자료.

기와 느낌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박학규는 예산 무량사의 추사현판, 향천사나 천불선원의 현판 등을 새겼으며 충남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에서 추사 김정희의 유작인 ‘판전’(봉은사 소재)을 제작하였다. 추사 글씨 외 《반야심경 8폭 병풍》도 제작했는데 인기가 많아서 목판 8폭 병풍을 약 100과 정도 제작했다.

작가는 2014년 충남 무형문화재 제50호 각자장 보유자로 인정받았으며 현재 예산에서 운목산방을 운영하면서 제자 30여 명을 양성하는 등 꾸준히 전통 각자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연보

- 1955년 충청남도 예산 출생
- 1978년 추사 김정희 고택 영정단집 제작
- 1989년 《추사판각전시회》(예산읍내 다방)
- 1990년 《제21회 공예품경진대회》에서 금상
- 1991년 《제11회 서각회원전》(서울, 예술의전당 서예관)
- 1992년 《제12회 전통공예작품전》(예산문화원)
- 1994년 《제24회 공예품경진대회》에서 은상
- 2004년 양평 전각박물관 현판·주련 각자 완성
- 2009년 고덕 대의사 현판·주련·유래사 각자 완성
- 2010년 《박학규 개인전-추사체와 나무의 만남전》(예산문예회관)
《한국현대미술전》 장려상
- 2011년 향천사 구 현판 복각
- 2013년 《각자장 박학규 초대전》(예산, 수덕사 선미술관)
- 2014년 충남 무형문화재 제50호 각자장 인정
《제25회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전》(예산문예회관)
- 2015년 한국국학진흥원 삼국유사 목판사업 중중임신본(규장각본) 목판 판각 참여
- 2016년 《소통의 만남전》(예산문예회관)
한국국학진흥원 삼국유사 목판사업 조선 초기본 목판 판각 참여
- 2017년 《빛을 발하다》(예산문예회관)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충남대전지회 작품전》(부여, 백재문화단지 사비궁 회랑)
- 2018년 《제29회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전》(예산문예회관)
공주 충청도포정사 현판 복각 및 복원기 상량문 각자
- 2020년 《아름다운 서산전》(문화잇슈&번화로카페전시실)
윤봉길생가(예산 윤봉길의사기념관) 현판 6점 복원
예산 봉수산 휴양림 팔각정 제작 설치

방효성 (方曉星, 1955~)



방효성, 퍼포먼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사라예보, 터키 아트센터), 2007, 작가 제공

방효성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한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중·고등학교시절 부터 미술부에서 활동하며 화가의 꿈을 키웠던 그는 당시 미술부 학생들을 지도하던 이정갑 선생(후에 공주대학교 조각과 교수)으로부터 미술가가 갖춰야 할 덕목을 배웠다. 고등학교시절 이승택·김구림·하종현 등이 모인 《S.T 그룹전》 등을 관람하며 일찍부터 실험 미술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으며, 1974

년 경희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입학해 최덕휴(崔德休, 1922~1998), 유희영(柳熙永, 1940~), 이종각(李鍾珪, 1937~) 교수를 만나 작가정신을 배웠다. 그러나 군복무를 마치고, 기독교 재단인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에 다시 들어가 이건용(李健鏞, 1942~), 이인영(李仁榮, 1932~2021), 김세원(金世源, 1940~), 강광식(姜光植, 1939~) 교수에게 사사했다. 대학교 졸업 후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미술과에 진학하여 현대미술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한남대학교 재학시절 대학교 동문들로 구성된 ‘19751225 그룹’에 가입하여 실험미술을 시도했으며,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야투’에서 활동하며 안면도·공주산성·청주·북한산 등에서 자연을 소재로 자연미술을 발표했다. 1987년 《대전행위미술제》, 《대전트리엔날레》에 참여하는 등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미술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단체전에 초대되어 행위, 설치미술을 선보였다. 1987년 서울 제3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래 국내외에서 총 29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1989년과 1990년 한국과 일본의 미술 교류전을 기획하여 “동방으로부터의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과 일본 작가 각각 4명씩 8명이 참여한 전시가 서울과 동경에서 열렸다. 1994년에는 뉴욕 링컨센터 초청으로 퍼포먼스 공연을 하였으며, 1999년 사라예보에서 열리는 겨울 축제에 초청을 받아 동구권에서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된다. 《사라예보 윈터페스티벌》에는 최근까지 5차례 초청을 받았다.

2007년에는 헤이그 뉴커락 교회에서 이준열사 순국100주년 기념으로, 교회 마당에서 커다

란 화분을 망치로 깨 후 안에 있는 식물을 꺼내 땅에 심는 퍼포먼스를 통해 열사의 죽음을 추모하는 〈자유케 하라〉를 선보였다.

방효성은 드로잉부터 설치, 행위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해 왔다. 1980년대 민중미술과 모더니즘 미술로 미술계의 노선이 뚜렷하게 나뉠 때 방효성은 현대미술의 어법으로 저항정신을 보여주는 현실참여 미술을 시도했다. 1980년대 방효성의 설치미술에는 삽이 등장하는데, 이 삽은 손을 극대화시킨 노동을 상징한다. 삽을 쥐어 벽과 지면에 세운 설치작품 〈순응하는 삽〉은 군부 독재에 의해 꺾인 노동의 가치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990년 토탈갤러리에서 개최한 개인전에서 선보인 〈우루과이 라운드〉는 배추 잎을 뜯어 석고액에 담갔다가 전시장 벽면에 걸어놓는 퍼포먼스로, 당시

농민들이 결사반대한 ‘농식품수입자유화’를 조형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밖에도 〈경계를 넘다〉, 〈사유하는 쓰레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켄터키 치킨을 먹어보셨습니까?〉, 〈또다른 몸〉 등 300여회 퍼포먼스를 시도하며 ‘행동심리예술가’로 불리고 있다. 이는 무의식 속에 고착화된 몸의 태도를 통해 관객들에게 일상적인 것들을 낯설음으로 다가오게 하는 행위로 심리적 울림이 있는 작업을 하면서 붙여진 별칭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스위스 국제 환경미술제》, 《순천만 국제 환경미술제》, 2017년 《이스탄불 비엔날레》, 2019년 《조지아 현대미술전》과 대청호미술관 초대 《움직이는 물》전을 통해 환경 문제를 조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또한 1966년 창립된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24대 회장으로, 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협회를 이끌고 있으며, 퍼포먼스 그룹 ‘몸’ 대표로 있다.



방효성, 〈그 너머에〉, 2021, 종이에 아크릴, 78×56cm, 작가소장

연보

- 1955년 서울 출생
- 1974년 경희대학교 미술교육과 입학
- 1976년 경희대학교 미술교육과 자퇴
- 1980~1984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84~1986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미술과 졸업
- 1984~1986년 《야투현장미술연구회 야외전》(공주 금강, 안면도, 청주, 북한산) 참여

- 1984년 서울 송실고등학교 미술교사로 부임
- 1987~1990년 《19751225 전》(대전·서울) 참여
- 1987~2017년 서울 동북고등학교에서 정년퇴임
- 1987년 《제1회 개인전》(서울, 제3갤러리) 개최
《제1회 바다미술제 초대작가: 자연은 우리를 무엇이라 하는가?》(부산, 해운대)
《부산청년비엔날레》(부산, 시민회관)
《대전 행위미술제》(대전, 쌍인미술관)
- 1988년 《제3회 개인전》(오사카, 온갤러리)
- 1989~1990년 《東方으로 부터의 提案전》(서울, 동숭아트센터 / 도쿄, 사가쵸스페이스갤러리)
- 1990년 《제5회 개인전》(오사카, 온갤러리)
《제6회 개인전》(서울, 토탈미술관)
- 1991~1993년 《비무장지대 예술문화운동》(서울시립미술관 / 서울, 예술의전당)
- 1994년 링컨센터 초청 퍼포먼스 발표(뉴욕, 링컨센터 퍼포밍플라자)
- 1997년 《대청호 국제 환경미술전》(청주) 참여
- 1999년 《사라예보 윈터패스티발》(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초청 퍼포먼스 발표
- 2003년 《인천 미디어 비엔날레》(인천문화회관) 초청 퍼포먼스 발표
- 2007년 《이준열사 순국100주년 기념 퍼포먼스 〈자유케 하라〉》(미국 헤이그, 뉴커락 교회) 발표
- 2011년 《국제환경미술심포지움》(스위스 비엘-비엔느) 참여
《차마고도 국제환경심포지움》(네팔, 카투만두 박물관) 참여
- 2014년 《제23회 개인전》(서울, 트리니티 갤러리)
- 2016년 《순천 국제자연미술제》(순천만 국가정원1호)
- 2017년 《이스탄불 비엔날레》(이스탄불 하이다파사, 오리엔탈 특급 터미널)
- 2018년 《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 한국 행위미술 50년》(대구시립미술관)
- 2019년 《조지아한국현대미술초대전-드로잉퍼포먼스》(조지아 트빌리시, 국립현대미술관)
- 2020년 《사라예보 윈터패스티발》(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움직이는 물, 대청호미술관 기획초대전》(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 2021년 《수원시립미술관 기획 초대전: 강 이야기》(수원시립미술관)
- 2022년 《한·중 청주현대미술 교류전: 현대미술의 새로운 좌표》(청주, 쉼미술관)
《은세미로, 국제미술프로젝트》(수원, 101 CM)

손석만(孫錫萬, 1955~)

손석만은 1955년 충청남도 당진 출생으로 공주고등학교를 나와 공주대학교와 동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천고등학교, 서천여자고등학교 미술 교사로 재직했고 공주교육대학교 강사로 출강했으며,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정년 퇴임했다. 대전시미술대전과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길회, 빙바위회, 응우회, 충남구상작가회, 한국미술협회 등에서 활동했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풍경이나 인물, 정물 등을 주로 그리는 손석만은 세밀한 관찰력과 치밀한 화면 구성을 추구하며 포착한 대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자연 풍광을 근거리에서 포착해 주요 대상을 화면의 중심에 과감하게 배치해 구도상의 안정감을 확보한 화면을 연출했다. 정물화나 인물화도 화면 중심에 크게 배치한 대상을 섬세한 필치로 묘사하면서 각각의 대상이 지닌 질감을 사실적으로 구현해내고자 했기 때문에 돌, 인체, 나무, 흙 등이 지닌 표면의 질감을 화면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다.

1992년 《이신회전》에 출품한 <엄원>은 봉화 북지리에 있는 마애불좌상을 그린 작품으로, 고부조의 불좌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머리 윗부분의 돌이 떨어져 나간 부처의 얼굴은 온화한 미소를 풍기고 있는데, 거친 돌의 질감과 함께 마애불의 형상이 그대로 화면에 옮겨졌다. 이처럼 손석만은 미술교육에 힘쓰면서 꾸준한 단체전 활동을 통해 충남 지역의 구상회화 분야의 맥을 이어왔으며, 서천 지역 미술의 발전에 이바지한 작가이다.



손석만, <엄원>, 1992, 캔버스에 유채, 91×72.7cm
(출처: 『이신회전』, 대전 MBC문화공간, 1992)



손석만, <적(積)>, 1994, 캔버스에 유채, 116.8×91cm
(출처: 『1994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작품전』, 공주문예회관, 1994)

연보

- 1955년 충청남도 당진 출생
- 1978~1981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연4회 특선
- 1979년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79~1992년 《뽕바위전》(서천군민회관)
- 1983년 《제6회 한길미전》(공주문화원)
- 1984년 《제8회 충남구상작가협회전》(대전문화원)
《제9회 충남향토작가 백인초대전》(대전문화원)
- 1984~1985년 《옹우회전》(공주사범대학교)
- 1985~1990년 《아름다운 금강》(대전시민회관)
《도솔화랑 초대전》(천안, 도솔화랑)
- 1986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미술교육 전공) 졸업
《월간미술세계 충남작가초대전》(서울, 경인미술관)
《대전직할시 승격기념전》(대전, 신신화랑)
《공간사랑 초대전》(대전, 공간사랑)
- 1987년 《현대미술 '87 신춘기획초대전》(서울, 경인미술관)
《프랑스 국제미술대전》(프랑스, Hall Garnier)
- 1988년 《충남 어제와 오늘전》(대전시민회관)
《서울올림픽 기념 한·중·일 신춘초대전》(서울, 디자인포장센터)
- 1989년 《충청미술 청년작가전》(대전시민회관)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89 한·중·일 국제전》(서울, 세종문화회관)
- 1990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1991년 《구상작가100인전》(광주남도예술회관)
- 1991~1993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 1992년 《한길서양화전》(공주, 문예회관)
《이신회전》(대전, MBC문화공간)
《대전시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
《회화신조형전》(대구문화예술회관)
- 1993년 《오늘의 충남미술전》(천안시민회관)
《제23회 충청남도미술대전》(천안시민회관)
《회화신조형전》(부산문화회관)
- 1994년 《제3회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작품전》(공주, 문예회관)
《제2회 충청남도 청년미술제》(천안시민회관)
- 1995년 《제41회 백제문화제》(부여, 청소년수련원)
- 1997년 《제9회 대전광역시 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 / 대전문화원)
- 2003년 《대전구상작가협회전》
- 2018년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 교장 정년 퇴임

송인헌 (宋仁憲, 1955~)

1955년 대전에서 태어난 송인헌은 1975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1기로 입학했다.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을 졸업했고, 단국대학교 조형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 대전문화원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0회가 넘는 개인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충청남도미술대전 특선, 신상미술대전 초대작가상 등을 비롯해 2011년 제4회 서울모던아트쇼 대상, 2015년 제22회 석주미술상, 2020년 제1회 하인두미술상을 수상했다.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겸임교수로 재직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경기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미술협회 이사, 한국여류화가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송인헌, 〈추억이 있는 정물〉, 2004, 캔버스에 유채, 91×91cm(출처: 『송인헌』, 포스트, 2001)

송인헌은 추상적인 조형성을 바탕으로 ‘추억’이라는 주제에 천착해온 작가로 《추억이 있는 정물》, 《추억이 있는 풍경》 연작을 그린다. 초기에는 화병과 탁자를 소재로 아카데미한 화풍의 정물화를 주로 제작했다.¹ 1990년대 초반부터는 기하학적인 면 분할과 대상을 단순화한 화면 구성으로 작가가 보고 느낀 심상을 표출했다.² 2000년대에는 탁자에 놓인 화병을 포착해 클로즈업하거나 창가에서 바라본 풍경 속에 꽃과 정물을 더하는 구도와 형식을 선보였다. 2010년 무렵부터는 색면의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 색면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송인헌은 “유채 물감의 특성상 겹겹이 덧칠을 하게 되면 색다른 질감과 미묘한 색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켜켜이 쌓아 온 세월의 흔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색으로 화면에 감정을 표현한다고 밝힌 바 있다.³ 〈추억이 있는 풍경〉에서는 여행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풍광을 수



송인헌, 〈추억이 있는 풍경〉, 2014, 캔버스에 유채, 97×162cm(출처: 『아트조선』, 2015. 4. 9)

1 윤진섭, 「'포지'와 '네거'의 이원적 구조를 통한 대상의 해석」, 『송인헌』(포스트, 2001), p. 74.

2 신형섭, 「이미지의 물질화를 통한 회화적인 인상」, 위의 책, p. 145.

3 「송인헌 작가 인터뷰 '컬러의 들판」, 『아트코리아방송』(2021. 1. 29).

평구도로 구성하고, 색과 면을 분할해 여행자의 감성을 담아냈다.⁴ 상단의 화면은 정면에서 본 시점으로, 하단의 풍경은 위에서 본 시점으로 화면을 구성해, 다시점을 적용한 화면구성을 선보였다.

근래 작품에는 집과 바다, 들판 등 풍경을 소재로 조각보에서 영감을 얻은, 대담하게 분할된 색면이 전면을 차지하는 구상과 추상이 공존하는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즉 대비되는 두 요소를 한 작품 안에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추상에 구상을 접목한 작품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연보

- 1955년 대전 출생
- 1975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1기로 입학
- 1977년 《개인전》(대전문화원)
- 1978~1983년 《대전 '78세대전》(서울, 대전)
- 1979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한국청년작가 초대전》(서울, 청년미술관)
- 1982년 《3그룹 연립전》(대전시민회관) / 《평면 5인전》(대전시민회관)
- 1983년 《제3미술관 기획초대전》(서울, 제3미술관)
- 1984년 《대전'84 드로잉전》(대전, 반도화랑) / 《충남 미술협회전》(대전시민회관)
- 1984~1989년 《한밭회화전》(대전시민회관)
- 1986~1987년 《목원대학교 미술학부 교수전》(대전문화원)
- 1993년 《개인전》(서울, 인데코화랑) / 《오늘의 한국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대전시립미술관)
- 1999년 《대한민국회화제》(서울시립미술관)
- 2001년 《개인전》(서울, 가산화랑) / 《상형전 대작전》(서울, 공평아트갤러리)
- 2007년 《개인전》(서울, 라메르갤러리)
- 2009년 《개인전》(대전, 이안갤러리) / 《한국미술 대표작가 초대전》(서울, 세종문화회관)
- 2007년 《한국의 자연, 빛의 인상》(프랑스 파리, 시메 앵테나쇼날 데자르)
- 2011년 제4회 서울모던아트쇼 대상 수상
- 2013년 《대전미술아카이브 2013: 대전미술의 새 물결》(대전시립미술관)
- 2015년 제22회 석주미술상 수상 / 《개인전》(서울, 조선일보미술관)
- 2020년 《한반도평화미술대축전 초대작가전》에서 공로 대상 수상
 제1회 하인두미술상 수상
- 2022년 '제10회 대한민국 예술문화인대상' 예술인 부문 특별상 수상

4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s://sema.seoul.go.kr/kr/>

신동국(申東國, 1955~)

신동국은 1955년 대전에서 태어나 보문중학교와 보문고등학교를 나왔으며,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시절 김수평(金水平, 1942~1989) 교수에게 새로운 경향 추구에 관한 작가 정신을 배우며 미술철학에 영향을 받았다.¹ 이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중앙여자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1977년부터 '19751225' 그룹에 참여했고 '대전판화가협회'와 '46번가판화가회', '금강현대미술제' 등의 단체에서 활동했으며, 한남대학교와 대전실업대학에 출강했다.



신동국, 〈벽돌재배〉, 1979~1982(2018년 재현), 벽돌·강봉, 150×200×200cm(출처: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 대전시립미술관, 2018)

1980년 신동국은 《금강현대미술제》에서 〈그 늙은 창부는 강가에서 울었다〉라는 설치작품을 공주 금강백사장 현장에서 선보였다. 이 작품은 3m 정도 길이의 검은 망사 천을 백사장에 깔고 그 옆에 투명비닐 튜브에 모래를 다져 넣은 작품이다. 신동국은 설치작품뿐만 아니라, 회화 작품도 많이 제작했다. 1983년 대전시민회관에서 유화작품들로 이루어진 첫 개인전을 열었으며, 2년 후인 1985년에도 《신동국회화전》을 열었다. 1984년 창립한 '충남판화가협회'에 1985년부터 참여한 신동국은 판화가로도 활약했다. 1987년 제작한 목판화를 보면 목이 90도 각도로 꺾인 옆모습의 서있는 사람이 표현되었는데, 굵고 거친 선으로 외로운 인간의 형상을 표현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대전에서 반도화랑(1983), 현대화랑(1984), 신신화랑(1986), 수갤러리(1991) 등이 문을 열 때마다 개관전에 초대되었을 만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던 신동국은 2000년대에 외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귀국했다. 이로 인해 당시 창작한 작품과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작품세계 전반을 살피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1980~1990년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던 작가라 할 수 있다.



신동국, 〈수인(囚人)〉, 1987, 목판화, 30×30cm(출처: 『제5회 충남판화협회전』, 대전시민회관, 1987)

¹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대전시립미술관, 2018). p. 36.

연보

- 1955년 대전 출생
- 1977~1990년 '19751225' 그룹에 참여
- 1978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79년 《19751225·대전 '78세대전》
《한국청년작가회 지방초대전》(서울, 청년작가회관)
- 1980~1981년 《금강현대미술제》에 참여
- 1982년 《대전 '78세대·르뵘·19751225그룹연합전》
- 1983년 《개인전》(대전시민회관)
《반도화랑 개관초대전》(대전, 반도화랑)
《제3미술관 초대전》(서울, 제3미술관)
- 1984년 《대전현대화랑 개관초대전》(대전, 현대화랑)
- 1985년 《신동국회화전》(대전시민회관)
《경인미술관기획 충남작가전》(서울, 경인미술관)
- 1985~1990년 《대전판화가협회전》에 참여
- 1986년 《신신화랑 개관전》(대전, 신신화랑)
《충남판화가협회 연합전》(대전, 계룡미술관)
- 1987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향토청년작가 100인전》(대전문화원)
《충남판화협회전》(대전시민회관)에 참여
《한국미술협회 대전지부 회원초대전》(대전시민회관)
- 1987~1989년 《야투자연미술전》(대전, 삼시도)에 참여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
- 1988년 《제1회 충남동시대전》(대전문화원)
- 1988~1990년 《충청미술청년작가전》에 참여
- 1989년 《야투》(독일 함부르크, Aula Schule Averhoff)
- 1990년 《46번가 판화전》(대전, 현대화랑)
- 1991년 《'91새봄전》(대전, 현대화랑)
《수갤러리 개관기념초대전》(대전, 수갤러리)
- 1992년 《제10회 한밭미술의 오늘전》(대전시민회관)
- 2014년 《신동국판화전: 고양의 이야기》(대전, 우연갤러리)

신현진 (申鉉珍, 1955~)

1955년 충청북도 옥천에서 출생한 신현진은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 제1기로 입학해** 윤영자와 남철을 스승으로 조각을 배웠다. 대학 재학 중 충남미전, 국전과 미술대전 등에서 연이어 특선과 입선을 하면서 재능을 인정받았다. 1984년 대학원을 졸업하고 뒤늦게 1991년 조각 교육의 메카로 유명한 이태리 까레라 국립 조각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작가는 인체를 모티브로 석재와 목재를 활용해 작품을 하면서 사실적 묘사보다는 단순화 또는 변형하여 매우 정적인 형상을 선보였다. 지도교수였던 윤영자는 신현진의 장점으로 재료에 따른 인체의 창의적 왜곡과 변용 그리고 발랄하고 대담한 재구성을 들었다. 즉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웅장함보다는 내면적인 정신세계의 깊이와 소박함을 보이며 제작상의 테크니컬한 면과 감각적 재능 그리고 작가의 통찰력이 함축되어있다고 평가된다.¹ 돌과 나무를 통해 따스한 인간의 손길과 숨결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억에 지워졌거나 지워지고 있는 주요한 본성을 일깨워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² 작가는 “거칠고 차갑게 보이는 돌을 갈고 닦아 하나의 부드러운 형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며 그래서 힘든 조각작업에 자꾸 빠져드는 것 같다.”고 하였다.³

1983년 대전시민회관에서 개최한 첫 《개인전》에서 작가는 대리석으로 완성한 〈념(念)〉, 〈정〉, 〈기다림〉 등을 전시했는데 단순화된 풍만한 볼륨의 육체 속에 부드러움과 따듯함을 돌이라는 재료에 심화시켰다.⁴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웅장함보다는 내면적인 정



신현진, 〈모자상 II〉, 목조, 46×46×167cm(출처: 『신현진개인전』, 평화랑, 1988)



신현진, 1994, 미상(출처: 『신현진』, 진아트센터, 1994)

1 윤영자, 「신현진 개인전에 부쳐」, 『신현진 개인전』(평화랑, 1988).

2 윤영자, 위의 글.

3 「차가운 돌에 새기는 생명력」, 『중도일보』(1995. 3. 16).

4 윤영자, 「신현진 개인전에 부쳐」, 『신현진 조각전』(대전시민회관 전시실, 1983).

신세계의 깊이와 소박함을 추구하려는 작가 정신을 엿볼 수 있으며 동양인 특유의 시적인 감성을 살렸다. 1988년 《개인전》에서는 대리석과 화강석을 중심으로 〈모자상〉, 〈기다림〉, 〈둥지〉, 〈여인〉 등 여인의 신체를 주로 표현하면서 원초적인 미보다는 따뜻함이 내재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현진은 1994년 개인전에서 앞서 전시한 작품들과 유사하게 대리석과 나무를 사용해 여체와 가족을 중심으로 부드럽고 풍만하면서도 절제된 인체의 아름다움을 선보였는데 작가가 추구하는 따뜻한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연보

- 1955년 충청북도 옥천 출생
- 1973년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제1기로 입학
- 1976~1982년 《충청남도미술전람회》에서 조각 부문 특선
- 1979~1986년 《한국 구상조각회전》(서울, 동숭동미술회관 / 관훈미술관 등)
- 1980~1987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와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연이어 입선
- 1982~1987년 《목원 조각회전》
- 1983년 《대전 반도화랑 오픈기념 초대전》(대전, 반도화랑)
《제1회 개인전》(대전시민회관)
- 1984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 《대전 현대화랑 개관 기념전》(대전, 현대화랑)
《충남 향토작가100인 초대전》(대전, 문화회관)
- 1985~1990년 《목원대학교 교수작품전시회》
- 1986년 《제3조각회 한·일 교류전》⁵(서울프레스센터) / 《충남작가초대전》(서울, 경인미술관)
- 1987년 《대전조각5인 초대전》(대전, 오원당화랑) / 《제2회 서울조각회전》(서울프레스센터)
- 1988년 《신현진조각전》(서울, 평화랑)
《조각 5인(김영대·박병희·유영교·임선빈) 신작전》(대전미술관)
- 1990년 《한국구상조각회전》(서울, 동숭미술관)
- 1991년 《아미치전》⁶(서울, 갤러리 현대) / 《부산야외조각대전》
- 1991~1993년 이태리 카라라국립조각학교 유학
- 1994년 《신현진 조각전》(서울, 진아트센터) / 《전국환경조각대전》
《대전조각가협회전》(대전, 오원화랑)
- 1995년 《제이태리조각가회전》⁷(서울, 진화랑) / 《대전조각가협회전》(대전, 갤러리 씬)
《'95 화랑미술제-서울 아트페어》(서울, 예술의전당)
- 2006년 《대전조각가협회전》(대전, SPACE-D.S.A)

5 제3조각회는 박병희를 회장으로 전국각지방대학 출신 조각가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충남에서는 박병희, 김석우, 신현진, 정찬국 등이 참가하였다. 『조선일보』(1986. 2. 22).

6 이탈리아 카라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그룹전으로 김광재, 김동우, 김문규, 김종희, 김진수, 김창겸, 유영교, 임송자, 조형자, 한진섭, 최금화, 신현진 등이 출품. 『경향신문』(1991. 9. 13).

7 신현진은 귀국회원으로 참가하였다. 『경향신문』(1995. 3. 7).

안치인 (安致仁, 1955~)

충청북도 보은에서 태어난 안치인은 목원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나와 모스크바 러시아인 페아뜨르 인스티튜트에서 무대미술을 전공했다. 목원대학교 재학시절 '대전 '78세대'의 창립멤버로 활동을 시작한 안치인은 퍼포먼스, 드로잉,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며 기존의 미술 형식을 탈피하고자 노력해왔다. 대학교 재학시절부터 신탄진 강변, 대전 문화원 공터에서 현장 작업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금강현대미술제》, 《야투현장미술제》, 《광주비엔날레》, 《부산바다미술제》, 《금강자연비엔날레》 등 각종 대규모 전시에 참가했으며, 일본·러시아·독일·오스트리아·핀란드 등을 오가며 400여회 넘는 전시에 참여했다.¹



안치인, 퍼포먼스 〈구드레바람〉, 1991, 부여 구드레공원

1986년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서울 '86 행위 설치 미술제》에서 안치인은 수천 장의 카드를 뿌리는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았다. 1987년에는 대전 지역의 작가들과 함께 한국을 비롯해 독일·일본·인도·대만의 작가들이 참가하는 국제전 《대전 '87청년트리엔날레(The 1st Dae-jeon 87 Youth Triennale)》을 기획하여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이때를 전후로 일본 '사운드 팩토리(Sound Factory)'에서의 퍼포먼스 발표를 비롯해, 서울에서 진행된 《80년대의 행위미술》(바탕골미술관), 《대전 '87 행위미술제》(쌍인화랑) 등을 전개하며 1980년대 후반, 한국행위예술가협회의 발족에 큰 기여를 했다.² 또한 안치인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선정한 《'89청년작가전》에 윤진섭, 이불, 이두한과 함께 초대되어 국립현대미술관 중앙홀에서 허공에 수 백 장의 카드를 뿌리는 일종의 제의적 성격을 지닌 퍼포먼스를 실연함으로써 퍼포먼스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실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90년대 초반, 러시아로 유학을 떠났던 안치인은 귀국 후 국내외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서울국제행위예술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전위미술 운동에 앞장섰다. 1983년부터 2019년까지 27회의 개인전을 열며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안치인은 주로 물·돌·풀 등 자연적 소재를 사용하여 공간 안에서 작품과 행위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

1 김민기, 「2006 대전미술의 지평: 조평휘, 안치인전을 기획하며」, 『대전미술의 지평_안치인』(대전시립미술관, 2006), p. 11 참조.

2 윤진섭, 「안치인, 실험미술의 파이어니어」, 『대전미술의 지평_안치인』(대전시립미술관, 2006), pp. 12~17 발췌.



안치인, 〈Drawing-2019〉, 아사천 위에 아크릴, 88×150cm, 개인 소장

는지 실험해왔다. 대체로 그의 퍼포먼스는 ‘바람’과 ‘물’과 ‘인간의 호흡’과 ‘빛’ 또는 ‘그림자’와 관계되어 있다. 작가는 일관되게 인간과 자연과 사물 안에서 아주 섬세하게 관찰하고 그 관계론적 세계관을 세워왔다.³

윤진섭은 안치인 예술세계를 관류하는 키워드는 ‘개념’과 ‘프로세스’로 이 두 가지 요소가 드로잉, 퍼포먼스, 오브제, 설치 등 그의 작업 전체에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

어 있으며, 퍼포먼스를 제외한 안치인 작품세계의 본질은 개념미술적인 의미에서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보았다.⁴ 〈드로잉-2019〉는 객관성에 입각한 사실적 표현으로부터 벗어나 나뭇가지 3개의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행위를 통하여 현상화하는 개념적 드로잉이다. 따라서 화면 속 이미지는 일반적 회화의 요소, 즉 원근법과 명암 등이 배제된 핸드메이드적 조형의 성격을 띠며, 윤진섭의 말처럼 단색조로 디자인된 ‘개념’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연보

- 1955년 충청북도 보은 출생
- 1981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서양화 전공) 졸업
- 1978~1982년 《대전 '78세대전》(대전)
- 1979~1983년 《제7회~제10회 Independants전》(국립현대미술관)
- 1980년 《금강현대미술제 창립전》(공주, 금강) 참여
- 1981~1983년 《야투현장미술연구회 야외전》(공주 산성공원, 금강백사장) 참여
- 1983년 《서울국제 Mail Art전》(서울미술회관)
- 1984년 동국대학교 대학원(미술교육학 전공) 졸업
《서울국제 드로잉비엔날레》(서울미술회관)
- 1985년 《제2회 제3현대미술제》(전주예술회관)
- 1985~1987년 《부산비엔날레》(부산 시민회관)
- 1986~1987년 《요코하마·서울현대미술전》(일본, 요코하마 시민홀 / 서울, 아르코스모)
- 1987년 《80년대의 퍼포먼스》(서울, 바탕골미술관) 참여
대전트리엔날레 운영위원장 역임
- 1987~1994년 《대전트리엔날레》(대전문화예술회관)

3 이건용, 「메마른 문화 텍스트 밖에 서서 끝없이 중얼대는 신선한 악동」, 『대전미술의 지평_안치인』(대전시립미술관, 2006), p. 108.

4 윤진섭, 「안치인, 실험미술의 파이어나너」, 『대전미술의 지평_안치인』(대전시립미술관, 2006), p. 15.

- 1988년 《한국 젊은작가 드로잉전》(일본 도쿄, AI-갤러리) 참여
- 1989년 《'89청년작가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퍼포먼스 발표
- 1991년 《금강국제자연미술전》(공주, 문예회관)
- 1992년 《부산비엔날레》커미셔너
《서울현대미술제》커미셔너 역임
- 1996년 러시아 페아트르 인스티튜트(Russian Theatre Institute)에서 무대미술 전공
- 1996~1997년 제1회·제2회 《갑천문화제 퍼포먼스》(대전엑스포 고수부지)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개관기념 초대전》(대전시립미술관)
《KBS신축기념 초대전》 및 개막퍼포먼스(대전, KBS 특별전시실 / 야외 무대)
- 2000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광주, 중외공원)
《2000 서울국제행위예술제》(서울 인사동) 운영위원 역임
- 2001년 《EXIT 페스티벌 퍼포먼스》(핀란드 헬싱키, Nokias Cable Factory)
- 2004년 《Toll Wood 페스티벌 퍼포먼스》(독일 뮌헨)
- 2006년 《대전미술의 지평: 조평휘, 안치인전》(대전시립미술관)
부천국제아트페스티벌 자문위원
대관령자연미술제 커미셔너
- 2007년 《Segment 展》(헝가리, 루마니아, 한국)
《한국 퍼포먼스 1967-2007 展》(과천, 국립현대미술관)
- 2008년 《HICA-창립展》(대전, 이공갤러리)
- 2009년 《HICA-‘해협을 건너’展》(일본 오사카, CASO갤러리)
《10인 10색 10감》(대전, 이공갤러리)
- 2013년 《HICA-UNEASINESS 연합展》(일본 고베, 北野坂 gallery)
- 2015년 《파리에 서는 나무》(프랑스 파리, 89galerie)
《한·중·일 교류전》(중국 장춘, 동북 전력대학)
《한·일 국제 관화전》(일본 도쿄, Art garden)
- 2016년 《KGAF 화랑미술제》(서울, 코엑스홀)
- 2017년 《Text & Image전》(미국 앨버커키, 박파인아트갤러리 / 대전, 이공갤러리)
《KIAF 2017 ART SEOUL 특별전》(서울, 코엑스홀)
- 2018년 《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 한국 행위미술 50년》(대구시립미술관)
《대전 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 展》(대전시립미술관)
《Recycling story전》(강릉아트센터)
- 2019년 《한국관화국제레지던시》(대전, 작은창큰풍경 갤러리)
- 2020년 《광자진취(狂者進取): 대전미술 다시쓰기 7080》(대전시립미술관)
- 2021년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목포, 유달초등학교)
- 2022년 《대전시립미술관 2020~2021 신소장품전》(대전시립미술관)

양승호 (梁承豪, 1955~)

1955년 충청남도 태안 갯마을에서 출생한 양승호는 단국대학교 도예과에 들어가면서 도예에 입문하였다. 대학 졸업 후 양승호는 1981년 영국에서 도자기 표면을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하는 독특한 표면처리기법을 개발하였다.¹ 1200℃정도에서 굽는 도자기 제작방식과 다르게 전통가마에서 1350℃~1400℃를 넘나드는 고온에서 1주일을 구워 일명 ‘겉트임 효과’로 불리는 특징을 지닌 도자기를 탄생시켰다. 작가는 주로 유약을 바르지 않은 상태로 소성하지만 가마 안에서 날리는 소나무재와 연기가 자연스럽게 유약으로 입혀지면서 도자기는 현대적 미감을 지닌다. 양승호는 30여 년 동안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 여러 유럽국가에서 활발하게 작업을 해왔으며 작품은 기존 도자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신선함이 있다는 평을 받았다.²

양승호의 작품세계는 크게 地·水·火·風으로 설명된다.³ ‘地’는 ‘자연을 닮은 예술’, 즉 “흙은



양승호, <우주에너지> 1999, 42×18×23cm, 작가 제공



양승호, <갯벌도예> 1994, 27×40×20cm, 개인소장. 특징: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해바다에 매어 두었다 꺼냄.



양승호, <봄을 기다리며>, 2014, 35×35×40cm, 개인소장



양승호, <나무설치 - 삶과 죽음>, 2012년부터 작업 진행 중. 소나무 (Cedrus), 높이 230m, 작가 제공

흙대로, 불은 불대로 스스로 표현하도록 놔두는 것이 도예가의 일이다.”라는 작가의 표현으로 정의된다. ‘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삶의 찬가>, <나무의 추억>, <황해의 추억>, <님 생겨 달라 비나이다> 등이 있다. ‘水’는 ‘자연을 닮는 예술’로 작가는 갯벌도예작품을 ‘잉태’라 명명한다. 작가는 자신의 고향 “태안의 갯벌에 3년 동안 도자기를 매어 놓고 기다리면 밀물과 썰물의 주기적인 리듬을 타면

1 손민우, 「자연을 닮은 공예-한국적 자연미의 탐구-도예가 양승호」, 『crart』(2002. 11).

2 진용숙, 「터집기법, 도자의 관념을 깨다」, 『경북일보』(2008. 3. 11).

3 양승호 공식 웹사이트 <http://www.seunghoyang.com/cv.p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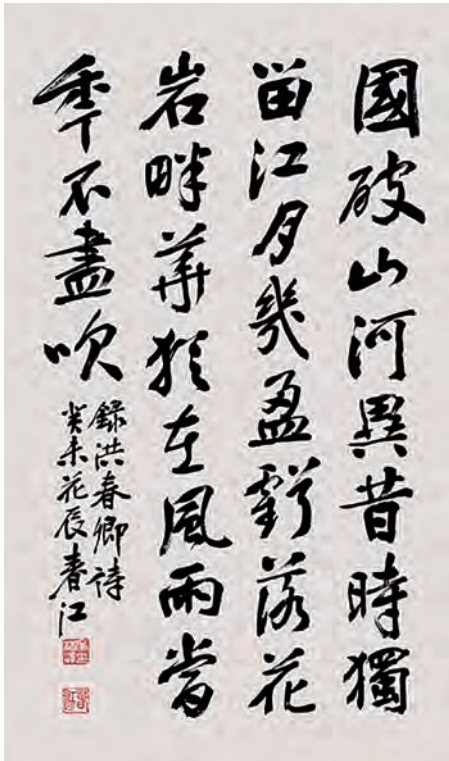
서 도자기 위에는 크고 작은 굴들이 아름다운 시를 써 놓는다.”고 표현한다. ‘갯벌도예’ 작품으로 <파도소리>, <잉태>, <에멘탈의 용>, <몽띠니의 정원> 등이 있다. ‘火’는 ‘자연을 재현하는 예술’로 대나무 바구니를 반년 정도 물에 담가 헐거워졌을 때, 바구니 표면에 진흙을 살짝 입혀 반으로 자른 다음 나머지 반은 흙으로 바구니 모양을 만들어 둘을 결합해 가마에 구웠다. 흙의 응집력과 결합력으로 맺어진 ‘火’를 재현한 작품은 <고향의 바구니>, <프랑스 바구니>, <쌀 까부는 키> 등이 있다. ‘風’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예술’로 산 나무에 죽은 나무를 접목한 ‘나무의 삶과 죽음’처럼 시공을 초월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과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風’을 표현한 작품으로 <우주의 시>, <우주의 혼>, <숲속의 이야기> 등이 있다.

양승호는 2000년 국제예술단체 ‘나오리’를 창설해 매년 프랑스와 태안 나오리에서 ‘나오리 생태예술 축제’를 주최해 오고 있다. 작가는 끊임없이 자연의 본질과 재료의 본성을 탐구하고 있으며 고향 태안에서 도예 장작 가마 운영과 예술교육을 기획하여 태안의 문화예술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연 보

- 1955년 충청남도 태안 갯마을 출생
- 1974~1978년 단국대학교 도예학과 입학 및 졸업
- 1981~1983년 영국 이주, 아트센터 및 공동작업장에서 일함
- 1983년 시각미술 분야 작품 활동비 (영국 중서부예술원) 수혜
작품 연구비 (웨일즈예술원, 교육청) 수혜
- 1983~1985년 프랑스 이주, 작업장 및 통가마 설치 후 작업
- 1985~2000년 스위스에 작업장과 통가마 설치. 프랑스와 스위스를 오가며 작업
- 1993년 작품 공로비 (스위스, 베른) / 《국제소금구이공모전》(독일 코브렌츠)에서 2등상
《플레처 챌린지 도예공모전》(뉴질랜드 오클랜드) 우수상
- 1994년 《자라는 흙 : 양승호》(서울, 토 아트스페이스)
- 1996년 바이에른 주정부상 수상(독일 뮌헨)
- 2000년~현재 국제예술단체 나오리 창설. 태안, 스위스와 프랑스를 오가며 전시
- 2012년 나오리 생태 예술제 개최
- 2013년 《양승호- L'arbre sacré du potier》(프랑스, La Revue de la Ceramique)
- 2014년 《Seungho Yang 개인전》(프랑스, 올레앙)
《양승호조각전》(네덜란드, Keramisch magazine KLEI)
- 2016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자연미술전》(공주, 임립미술관)
- 2021년 『ECO-ART by SEUNGHO YANG』 (충청남도과 충남문화재단 후원) 발간
- 2022년 《무유도기, 불의 흔적》(영암도기박물관) / 《국제예술단체 나오리 페스티벌》(태안, 프랑스)

염호택 (廉浩澤, 1955~2012)



염호택, 〈낙화암(落花岩)〉, 2003, 《전북세계서예비엔날레》 출품작

호는 춘강(春江). 1955년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태어난 염호택은 1974년 천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 토목교육공학과에 진학해 1981년 졸업했다. 그러나 서예에 뜻을 두고, 다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입학해 1995년 석사학위를 받았고, 2012년에는 한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 《제12회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차지했으며 이듬해 1983년 《제13회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해 본격적인 서예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1991년 《제3회 대한민국 서예대전》에 출품해 서예(한문 부문)에서 특선을 수상했고, 같은 해 《제3회 대전시미술대전》에서 초대작가로 위촉받았다.

염호택은 충남 곳곳에 세워진 기념비에 글씨를 쓴 작가이기도 하다. 산업화에 따른 지역개발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주민을 위로하는 ‘애향비(愛香碑)’에 글씨를 썼다. 1993년 ‘원천(遠川)택지 개발사업준공

기념비’를 시작으로 2001년 ‘노은 지족동 애향비’와 2004년 ‘반석동 애향비’ 등이 있다.¹

2008년에는 대전대학교 서예·한문학과에 교수로 부임했으며 2009년에는 학과장으로 취임해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으나 2012년 작고했다.

1 「토지공사, 대전시 반석동에 ‘애향비’ 제막」, 『연합뉴스』(2004. 12. 20).

연보

- 1955년 충청남도 연기군 출생
- 1971년 한밭중학교 졸업
- 1974년 천안고등학교 졸업
- 1981년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 토목교육공학과 졸업
- 1982년 《제12회 충청남도미술대전》 특선
- 1983년 《제13회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대전문화원) 대상 수상
- 1989년 《충청미술 청년작가전》(대전시민회관)
- 1991년 《제3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서예(한문 부문) 특선 수상
《제3회 대전직할시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 초대작가
- 1992년 《대전미술전》 참여
- 1993년 《제8회 서예대전》 한문 부문 입선 수상
원천(遠川)택지 개발사업준공 기념비
- 1994년 《충청서예가전》(서울, 예술의전당 서예관)
- 1995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제7회 대한민국서예대전》(과천, 국립현대미술관) 특선
《대전미술 어제와 오늘전》
- 1996년 《제14회 한밭회향전, 한밭 어제와 오늘전》(대전시민회관)
- 2001년 노은 지족동 애향비 제작에 참여
- 2003년 《전북세계비엔날레》 참여
- 2004년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반석동 애향비’ 석각
인천 월미공원 해군사령부 주둔기념비 석각(조각 및 설계: 박병희)
- 2005년 《제5회 세계서예 전북비엔날레》(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하기동(下基洞) 애향비 제작에 참여
- 2008년 대전대학교 서예·한문학과 교수 부임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준공 기념비
- 2009년 성성·백석동 애향비 제작에 참여
- 2010년 《개인전》(대전시립미술관)
- 2012년 한남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졸업(철학 박사)
작고

윤진섭 (尹晋燮, 1955~)



윤진섭, 〈서로가 사랑하는 우리들〉 퍼포먼스 현장, 《제6회 S.T그룹전》(서울, 견지화랑), 1977(출처: 『아트 오브 도플갱어 윤진섭』, 김달진미술연구소, 2022)

윤진섭은 1955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으로, 1975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서양화 전공)에 입학해 1970년대 후반 ST그룹에 참여하며 ‘이벤트’라는 이름의 퍼포먼스 아트를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사진과 신체를 이용한 개념적 성격의 설치작업을 선보이며 일찍부터 탈장르적 성격의 한국 실험미술을 이끌었다.¹ 대학 재학 중인 1977년 견지화랑에서 열린 《제6회 ST그룹전》의 오픈 행사로 발표한 퍼포먼스 〈서로가 사랑하는 우리들〉은 당시의 이벤트들이 지나치게 논리적이고 관념적인 것에 비해, 관객 참여적이고 놀이적인 성격의 신선한 시도로 평가받았다.²

윤진섭은 군대에서 제대한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영등포공업고등학교의 미술교사로 있으면서 1980년대 중반 잠시 목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1985년 홍익대 대학원 미학과에 입학하면서 퍼포먼스

활동을 재개했다. 1980년대 후반 윤진섭은 신체성을 강조한 퍼포먼스로 인간 실존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정장 차림으로 대학로를 중형무진 돌아다니며 정치 현실을 풍자한 퍼포먼스 〈거대한 눈〉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1989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89청년작가전》에서는 ‘Stop Terrorism’ 선언문을 뿌리며 중앙전시실 대형 유리창에 180여개의 날계란을 던지는 퍼포먼스로 눈길을 끌었다.³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전시 기획자로 활동하며, 미술 외 타 예술 장르 작가들과의 협업으로 탄생시킨 퍼포먼스 아트를 ‘행위예술’로 명명하고, 그 개념을 규정한 뒤 ‘한국행위예술협회’의 창립을 주도했다. 이는 예술간 통섭을 지향하는 다원예술을 선도한 사건으로 일컬어진다.⁴ 1990

1 조수진, 「윤진섭의 ‘노는’ 행위예술」, 『아트 오브 도플갱어 윤진섭』(김달진미술연구소, 2022), p. 17.

2 박지연, 「미술관의 개구장이들」, 『윤진섭, 한국 행위예술의 이론과 실천의 기수』(헬로우유지움, 2020), p. 32.

3 안소현, 「윤진섭론: 분열과 확장의 분신술사」, 『아트 오브 도플갱어 윤진섭』(김달진미술연구소, 2022), p. 49.

4 조수진, 앞의 글, p. 18.

년, 윤진섭은 포스트모더니즘 미학을 정리한 「로즈 셀라비여, 왜 재채기를 하는가?」로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미술평론가로 등단했다. 이후 비평과 전시기획을 이어가면서 2001년 호주 웨스턴 시드니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 이후 행위미술 활동을 재개하면서 왕치(王治/ Wangzie), Han Q 등 약 80여 개의 예명을 사용하며 활동하였다. 윤진섭은 하이힐을 신거나 히잡을 두르고, 당뇨로 고생하면서도 그 치료과정을 예술의 한 과정으로 삼아 작업하는 등 낙천적이면서도 유쾌한 퍼포먼스를⁵ 현재까지 약 70여 점 발표하며 한국 미술계에서 근대와 탈근대시기를 모두 주유하는 ‘크리큐라티스트(cricuartist)’로 활약하고 있다.⁶ 2014년



SoSo(윤진섭), 〈Vegetable Man〉, 2021, 작가 제공

열린 《사물은 초즈의 치즈를 골랐다》전은 크리큐라티스트 윤진섭의 작업세계를 보여주는 전시로 손꼽힌다. 미술계에서 활동한 지 40년을 한 해 앞둔 시점에 예술가로서의 삶과 함께 동료 선후배 예술가들과의 과거와 현재를 되새겨 보고자 기획된 이 전시에는 40여년 간 작가로 활동하며 만나 온 예술가들과의 대화, 그들과 교류하며 남겨진 편지, 오브제, 선물 등 다양한 흔적들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드로잉, 아포리즘, 오브제, 사진기록 등 시각, 청각, 촉각을 건드리며 거의 모든 매체를 활용한 아카이브 형태로 연출되었다.⁷ 이후 수많은 비평과 전시기획을 해오던 윤진섭은 코로나 19가 발발한 2020년부터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색연필, 면봉, 북어포 등의 재료를 이용한 드로잉들을 2021년 《아트 오브 도플갱어》전에 선보였다. 이 전시에서 작가는 죽어가는 예술을 수호하기 위해 ‘예술자유공생군’을 창단해 다시 퍼포먼스를 펼쳤다.

윤진섭은 30여 년간 제1회와 제3회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제3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전시총감독, 상파울루비엔날레 커미셔너, 포천아시아미술제 조직위원장 겸 전시총감독, 서울국제행위예술제 운영위원장 겸 예술총감독,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전시총감독, 타이페이 현대미술관 주최 《K-P.O.P/ 한국당대예술전》 총감독,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국제미술평론가협회(AICA) 부회장, 호남대 교수, 시드니대 명예교수를 역임했으며, 『현대미술의 쟁점과 현장』(미진사, 1997), 『행위예술의 이론과 현장』, 『한국 모더니즘 미술연구』(재원, 2000), 『몸의 언어』(터치아트, 2009) 외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⁸

5 김노암, 「예술이나 삶이나 그것이 문제구나!」, 『한류 개인전: 사물은 초즈의 치즈를 골랐다』(아트스페이스 휴, 2014).

6 조수진, 앞의 글, p. 43. 크리큐라티스트는 윤진섭이 본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묘사하는 키워드로 창조한 비평가(critic), 전시기획자(curator), 예술가(artist)의 합성이다.

7 김노암, 앞의 글.

8 『한류 개인전: 사물은 초즈의 치즈를 골랐다』(아트스페이스 휴, 2014). 작가 소개 인용.

연보

- 1955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
- 1975~1979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서양화 전공) 졸업
- 1976년 《한국미술대상전》(국립현대미술관)
- 1977~1981년 《S.T 그룹전》(서울, 견지화랑 / 동덕미술관)
《양테팡당전》(국립현대미술관)
- 1981~1989년 영등포공업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82년 《행위드로잉 개인전》(서울, 화사랑) 등 개인전 5회 개최
- 1985~1988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졸업
- 1986년 《서울 '86행위설치미술제》(아르코스모미술관)에서 〈숨쉬는 조각 I〉 발표
《대전트리엔날레》(대전문화예술회관)에서 퍼포먼스 〈숨쉬는 조각 II〉 발표
《신세대 목판화 12인전》 / 《판화5인전》(서울, P&P 갤러리)
- 1987년 《대전 행위미술제》(대전, 쌍인미술관)에서 퍼포먼스 〈두 번째의 죽음 I〉 발표
《80년대 퍼포먼스-전환의 장》(양평, 바탕골미술관) 참여
‘윤진섭 퍼포먼스그룹’ 창단 실연 〈거대한 눈 I〉(서울, 대학로) 발표
- 1988년 《평화의祭-장벽을 넘어서》(서울, 독일문화원) 기획
- 1989년 《'89청년작가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퍼포먼스 〈180개의 계란투척〉 발표
- 199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미술평론 「로즈 셀라비여, 왜 재채기를 하는가?」 당선
- 1995·2000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 겸 특별전 큐레이터 역임
- 1997~2001년 호주 웨스턴 시드니대학 대학원 철학박사(미술사 / 미술비평) 학위 취득
- 1998~2014년 호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역임
- 1999~2000년 《밀레니엄 난장 퍼포먼스 페스티벌》(서울, 씨어터제로) 기획 및 발표
- 2000년 《2000 서울국제행위예술제》 운영위원장 겸 예술총감독(서울, 인사동) 역임
제5회 월간미술대상 전시기획부문 대상 수상
- 2003~2007년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역임
- 2004년 《서울 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전시총감독 역임
- 2007~2009년 《인사미술제》 커미셔너 역임
- 2009년 제23회 예총예술문화상 미술부문 대상 수상
- 2012년 《한국의 단색화전》(국립현대미술관) 초빙큐레이터 역임
- 2013년 ‘1900년 이후 충남을 빛낸 문화예술인’ 100인에 선정
- 2014년 《사물은 초즈의 치즈를 골랐다》(파주, 아트스페이스 휴) 개최
《단색화의 예술전》(서울, 국제갤러리) 기획 / 국제미술평론가협회(AICA) 명예공로상 수상
- 2016년 《제3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역임
- 2018년 《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 한국 행위미술 50년》(대구시립미술관) 초대 큐레이터
《한국의 후기단색화》(서울 / 대구, 리안갤러리) 초빙 큐레이터
- 2021년 《아트 오브 도플갱어: 윤진섭》(서울,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개최

이병한(李炳韓, 1955~)

이병한은 1955년 대전 출생으로, 공주 대학교와 동 대학의 교육대학원에서 미술 교육을 전공했다.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제1회 졸업생으로, 1980년부터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생 미술단체인 '한길회'에 참여했고, '시현회' 창립회원으로 활약했다. 한길서양화회, 시현회, 현대미술교류회, 한국미술협회, 대전미술교육연구회 등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여러 단체전에 참여했다. 대전과학고등학교와 공주대학교에 출강했으며 한밭상업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대전시교육청 장학사를 비롯해 대전 중리중학교 교감을 역임했고 2017년 남선중학교에서 교장으로 정년퇴임했다.



이병한, 〈아리랑-그 영혼의 안식처〉, 1992, 나무판에 유채, 36×51cm(출처: 『이병한』, 갤러리 수, 1992)

1991년 대전 현대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연 이병한은 줄곧 아리랑을 주제로 한 추상 회화 연작을 제작해왔다. 이로 인해 '아리랑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초기에는 아리랑에서 전해지는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면, 1998년 이후 '바람'에서 포착한 심상 이미지를 추가해 화폭에 담았다.¹ 1990년대 후반부터는 오감으로 감지되는 '바람'을 작품에 구현하고자 했고, 2004년 대전갤러리에서 열렸던 세 번째 개인전에서도 '소리'와 '바람'을 품은 《아리랑》 연작을 선보였다. 당시 대전시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작품창작에도 충실히 임했던 이병한은 2005년 대전시교육청 대전교육미술관에서 소품전을 열기도 했다.



이병한, 〈아리랑〉, 2001, 캔버스에 유채, 72.7×90cm(출처: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이병한은 《아리랑》 연작의 창작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우리 모두의 못다한, 아니 차마 밝힐 수 없어 가슴 속 깊이 묻어 두어야 할 그 무엇들을 어느 순간 넘쳐나는 그리움으로 쏟아 부었다. 그리움도 한(恨)도 바람소리

1 「『우리의 것』 찾아 화랑가로 간다, 『충청투데이』(2004. 7. 2).

도… 아리 아리 아리리오.²⁾ 이렇듯 이병한은 대청댐 인근의 청아한 풍경을 포착해 추상 이미지로 변환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작가다.

연보

- 1955년 대전 출생
- 1978년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85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미술교육 전공) 졸업
- 1980~1984년 《한길전》에 참여
- 1981년 《제27회 백제문화제기념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 창립전》(공주문화원)
- 1981~1987년 《한국미협 공주지부전》에 참여
- 1983~1984년 《향토작가전》에 참여
- 1983~1990년 《울림미전》(공주)에 참여
- 1986년 《제20회 한구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
- 1987년 《대전문화예술인회전》(대전)
- 1988년 《한구미술협회 부여지부 창립전》(부여)
- 1989년 《충청미술 청년작가전》(대전시민회관)
- 《옹우회전》(공주)
- 1990년 《현대미술교류전》(대전)
- 1991년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 1992년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 《공주교육대학 미술교육과 교수작품전》(공주문예회관)
- 《제12회 한길서양화전》(공주문예회관)
- 1993년 《제2회 공주교육대학 미술교육과 교수작품전》(공주문예회관)
- 《대전 EXPO '93 특별회원전》(대전시민회관)
- 《오늘의 한국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
- 1994년 《제1회 홍성미술협회전》(홍성문화원) 1995년
- 《대전미술 어제와 오늘》(대전문화원)
- 2001년 《제4회 대전미술창작마을전》(대전시립미술관)
- 2004년 《개인전》(대전갤러리)
- 2005년 《개인전》(대전교육미술관)
- 2008년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

2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 2008), p.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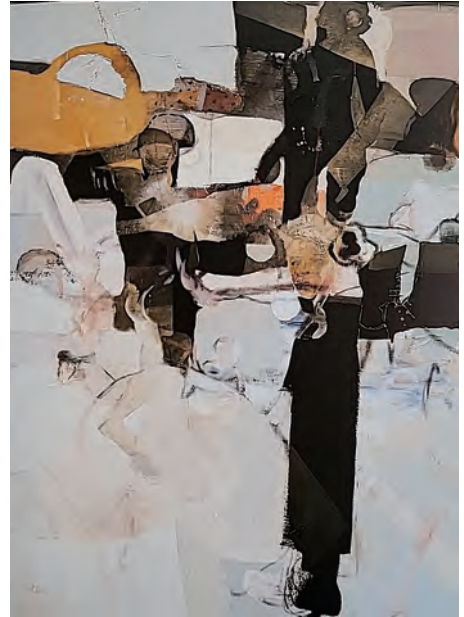
이열 (李烈, 1955~)

이열은 1955년 대전 출생으로 홍익대학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현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이다. 1989년 바탕골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연 이후 거의 해마다 개인전을 개최했다. 1990년 《제9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1993년 《제6회 방글라데시 비엔날레》에서 최고상, 《제12회 청년작가 초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또 1999년 제7회 한국미술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90년 초부터 이열은 ‘생성 공간’이라는 주제를 작업의 주요 테마로 삼고 있다.¹ 《생성공간》 연작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생성하는 공간’이다.² 이 시리즈 작업은 한국의 전통회화의 서체를 쓰는 방법과 서구의 추상표현주의 형식을 기본으로, 동양과 서양의 두 가지 다른 형식적 특성을 작가만의 조형적 언어로 현대화시킨 작업이다. 화폭의 주요색을 이루는 검정색과 미색, 크림색 등에 의한 생겨난 형상은 탄생과 소멸, 희극과 비극, 밝음과 어두움, 두꺼움과 얇음, 그리고 수직과 수평의 대립에 의한 조화 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열은 자신의 작업에 대해 “대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독자적인 생성의 장으로서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한다.³ 자유로운 필치로 가득 찬 화면은 수묵화나 수채화에서 볼 수 있는 번짐과 나이프를 사용한 색면, 무심히 그은 듯한 선들이 융합하며 미적 효과를 발현한다. 주로 황토색과 갈색, 검정색 형상이 대형 화폭에 펼쳐지는데 이러한 색들은 그 자체로 생성을 의미하는 ‘흙’을 상징하기도 한다.

십여 년 전부터는 유년 시절 어머니의 화장하는 모습을 기억하며 벼룩시장에서 구해온 거울을 작품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⁴ 이 거울 작품들은 거울에 비치는 상(像)이 장소에 따라 변화하



이열, 〈생성공간〉, 2012, 캔버스에 혼합재료, 291×218cm(출처: 『YEUL LEE』, 금호갤러리, 2012)

1 이열, 「건축구조 속에 다시 피어난 ‘생성 공간’」, 『LEE YEUL』(금호갤러리, 2012).

2 「추상적 표현주의 작업으로 완성된 〈생성공간〉」, 『파워코리아』(2012. 4); 「21세기 현대작가 시리즈 147: 「대지의 송고미를 담아낸 작가 이열」, 『미술시대』(2012. 11), pp. 80~93.

3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mmca.go.kr/>

4 「낡은 거울을 사랑한 홍대 회화과 교수. 이열 작가의 작업실」, 유튜브 동영상 ‘윤기원의 아티스톡 Artistalk’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



이열, <거울형 회화-배꼽에 어루쇠를 붙이다>, 2018, 혼합재료, 116×85.5cm(출처: 『민주신문』, 2018. 5. 14)

는 이미지에 관한 관심에서 시작된 작업으로, 추상 작업의 연장이면서 회화의 '그린다'라는 고정된 개념에서 벗어나고자 실험한 탐구의 결과이다.

'거울형 회화'로 이름 붙인 이 연작은 낡은 액자와 오래된 거울을 통해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탄생된다. '거울 작업'은 2015년 무렵부터 집중적으로 탐구해 과거에 있던 오픈 스튜디오에서 'another time'이라는 주제로 거울 작업 신작을 선보였다.⁵

거울 뒷면을 부식시키거나 도구로 긁어 작업하는데, 이미 오래된 거울 자체에 시간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기에 다른 행위는 절제한다. 거기에 빈티지 액자가 어울리면 끼우고, 아니면 거울 그대로 놓거나 혹은 투명한 천을 2~3겹 붙여서 거울의 반영을 부드럽게 만든다. 거울은 어디에 설치해놓는가에 따라 비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작품이 변화하는 변화무쌍한 연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이열은 오랜 기간 해온 《생성공간》 연작에서 벗어나 작품 경향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거울이라는 재료를 통해 평면을 넘어 새로운 회화 기법을 창출하고 있다.

연보

- 1955년 대전 출생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 1983년 《제1회 S-Pa 동인전》(서울, 관훈미술관)
- 1985년 《상황, 현존, 수용전》(서울, 공창화랑)
- 1986년 《젊은 의식전》(서울, 한강미술관)
- 1988년 《서울현대미술제》(서울, 미술회관)
- 1989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개인전》(서울, 바탕골미술관)
- 1990년 《제9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수상
- 1991년 《개인전》(서울, 시공화랑)
 《'91 화랑미술제》(서울, 예술의전당)
- 1992년 《개인전》(서울, 대림화랑)

com/watch?v=CQ3IJHoSQ7I

5 「오래된 거울과 낡은 액자로 선보이는 '거울형 회화'...이열 홍익대 교수 개인전, 『민주신문』(2018. 5. 14).

- 1993년 《제6회 방글라데시 비엔날레》 최고상 수상
- 1994년 《에폴드 서울전》(서울, 관훈미술관)
- 1995년 《한국현대회화 50년 조망전》(서울, 서울갤러리)
- 1996년 《제12회 청년작가 초대전》 우수상 수상
- 1997년 《21C 한국미술의 표상전》(서울, 예술의전당)
- 1999년 '제7회 한국미술작가상' 수상 / 《1999 KAF-도시의 꿈》(서울시립미술관)
- 2001년 《개인전》(일본 후쿠오카, MA갤러리)
- 2002년 《개인전》(서울,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 서울, 갤러리 리즈)
《한국현대미술제》(서울, 예술의전당)
- 2003년 《한일 현대회화 국제교류전》(서울, 세종문화회관)
- 2004년 《SFAF-한국미술 열흘장》(서울, 예술의전당)
- 2005년 《개인전》(서울, 갤러리 호)
《MANIF서울국제아트페어》(서울, 예술의전당)
- 2006년 《ORIGIN-현대회화의 환원과 확산전》(서울, 예술의전당)
- 2007년 개인전 《생성공간-변수》(서울, 가나인사아트센터)
- 2008년 《한·중동포럼 '한국의 미' 특별전》(이집트 카이로, 오페라하우스)
《대전시립미술관 개관10주년 기념전: 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
- 2009년 《현대미술의 Vision 2009》(서울, 세종문화회관)
《부산국제미술아트쇼》(부산문화회관)
- 2010년 《개인전》(서울, 예술의전당)
- 2011년 《부산 국제 아트 페어》(부산문화회관)
- 2012년 《이열 전-대지의 송고미를 담다》(서울, 금호미술관)
'제6회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정예작가상' 수상
- 2014년 《당진 아트 페스티벌》(충남 당진, 문예의전당)
- 2015년 《Another Time》(프랑스 파리)
- 2016년 《홍익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교수 작품전》(서울, HOMA)
- 2017년 《개관 20주년 기념 충남·서울 작가 교류전》(충남 아산, 당림미술관)
- 2018년 《대한민국 미술축전 KAFA 국제아트페어》(경기 일산, 킨텍스)
《개인전》(서울, 노화랑)
- 2020년 《제7회 청주국제현대미술전-한국 프랑스 Artist 특별전》(청주, 웨마미술관)
- 2022년 개인전 《거울형 회화: 반사의 반사를 그리다》(서울, 갤러리H)

정기해 (鄭基海, 1955~)



정기해, <이상과 현실>, 2022, 족자에 수묵, 22×50cm, 작가 제공

호는 석천(石泉). 1955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난 정기해는 1989년부터 2018년도까지 대전 소재 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지냈으며, 2012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중등미술수석교사¹ 1기로 충남 지역 미술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정기해는 약 40여년 가까이 충남 지역에서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예술성 개발에 힘써왔다. 2011년 대전 중등수석교사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부터 수석교사가 입법화 된 후 수석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창의인성 교육에 힘썼던 정기해는 수석교사제도시범운영과 법제화위원을 거쳐 대전시의 각종 중등 미술교육 자료 개발 및 심사, 미술과 수업을 컨설팅하며 충남 미술 교육 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하였다. 대표적으로 2013년에는 우리의 전통미술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한국화 민예품교육’, ‘전국중등미술수석교사 워크숍’ 추진 및 학생 자료전에 참여해 수석교사로서 전통적인 한국화 교육방식을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으로 확장한 바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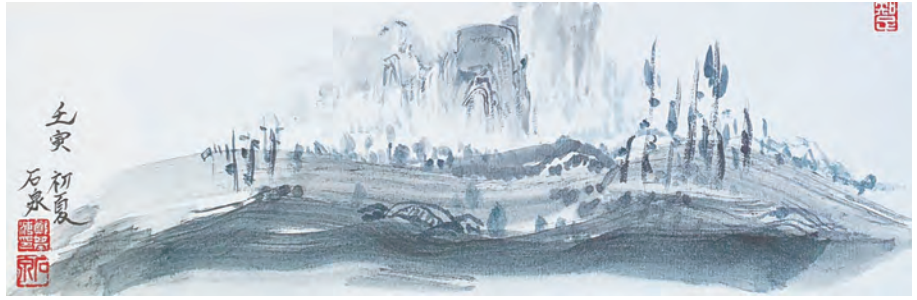
정기해는 그림에 나타나듯이 순수한 내면의 세계를 전통적 한국화 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현대적 예술성을 나타낸 작가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화가 백인현은 “산천과 함께한 체험은 작가 정기해의 자연에 대한 이해와 창작의 원천이 되었고, 또한 천진하고 순박한 수석선

생님 정기해의 삶의 방식으로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투영되었으리라 여겨진다.”고 했다.³ 정기해는 인위적으로 흉내 낼 수 없는 자연의 힘, 체득된 세월의 힘, 봄·여름·가을·겨울의

1 수석교사는 대한민국의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사 중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이 교감이나 교장 등의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고 지속적으로 교단에서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 채민정, 「대전 중등수석교사 정기해 초대전, 12월 31일까지 대전교육미술관 갤러리」, 『뉴스포르테』(2016. 11. 3).

3 임연희, 「정기해 교사의 금수강산 담긴 한지작품들」, 『디트 NEWS 24』(2015. 9. 6).



정기해, 〈自然의變化2〉, 2022, 두방지에 수묵, 12×34cm, 작가 제공

색감을 자연에서 느끼고 받아들인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조형화하는 대자연에 대한 찬미는 선과 먹의 응축된 음률로, 한국화의 기운생동의 드로잉으로, 인간 정기해의 순수한 자연의 관조로 현재까지 이어진다 할 것이다.

정기해는 공주미술협회와 충남한국화협회 그리고 대전한국화협회에서 활동했고, 대전미술교육연구회와 대전중등수석교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회장을 역임했다.

연보

- 1955년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출생
- 1971년 공주사대부속중학교 졸업
- 1974년 공주사대부속고등학교 졸업
- 1979년 공주사범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84~2020년 충남 및 대전미술교사전(12회 우수상 입상)
- 1985년 《충청남도미술대전》 및 《대전시미술대전》에 참여
- 1987년 대전 전민중학교 교지 창간호 표지 제작
- 1988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 1999년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심의회 미술과 위원 역임(대전광역시 중학교 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책자공동발간)
- 2001년 대전문지중학교 교지 창간호 표지 제작
- 2004~2006년 고입검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 2008년 고입검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 2008~2014년 대전고등학교 미술실기 대회 심사위원
- 2008~2022년 《한국화 민예품진》에 참여
《한길한국화회전》에 참여
- 2009~2011년 대전미술교육연구회장 역임
- 2010~2018년 대전두리중학교, 봉명중학교 및 대전중등미술수석교사 역임
- 2011~2013년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미진사 공동제작(2014학년도부터 활용)

- 2012년 대전중등임용고사 준비위원 역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대 개인전》(대전교육미술관)
- 2013년 《서대산 미술관 초대전》에 참여
- 2014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대 개인전》(대전교육미술관)
- 2015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대 개인전》(대전교육미술관)
- 2016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대 개인전》(대전교육미술관)
- 2016~2017년 한국중등미술수석교사협의회장 연수 주관
- 2017년 《제5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대 개인전》(대전교육미술관)
《대전미술교사초대전》에 참여
- 2020년 《대전미술교사초대전》에 참여
- 2022년 《제6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대 개인전》(대전교육미술관)

정영진 (鄭英鎭, 1955~)

1955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난 정영진은 1973년 공주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이 창설된 해에 1기로 입학해 회화를 전공했다. 대학 입학 전, 20대 초반에는 공주에서 충남 최초로 음악다방을 운영하고, 현재 공주연극협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극단 ‘함성’을 이끌기도 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조교를 하면서 공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정영진은 지난 20년간 계룡산 자락의 계룡면 중장리 화실에서 지내면서 《산촌 일기》와 《소나무가 있는 풍경》 연작을 제작했다. 특히 한국 토종의 적송(赤松)을 주로 그리는 작가는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꺾이지 버텨온 우리 민족의 표상”으로서 계룡산의 소나무에 주목했다.¹ 이러한 이유로 정영진은 자신의 그림을 서양화가 아닌 한국인의 심성과 자연이 융화된 ‘한국화’ 또는 ‘한국유화’로 설명한다.

공주교육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예술대학에서 강사를 역임했으며 한국미협 공주지부 회장과 한국미술협회 서양화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개인전으로는 1990년 공주문화원에서 《제1회 정영진 유화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1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최근에는 《이 시대의 작가전-정영진:소나무가 있는 풍경》을 개최하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영진, <강으로 가는 길>, 2022, 캔버스에 유채, 61×160cm, 작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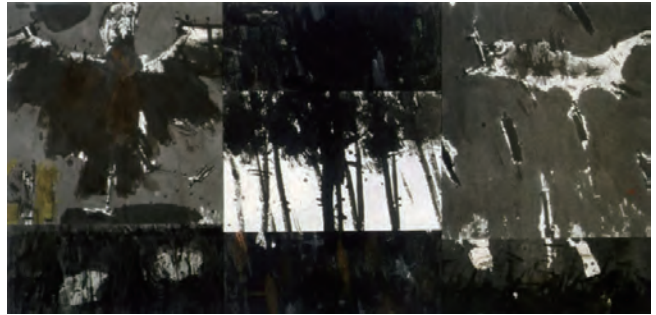
1 이충건, 「脈 인터뷰-‘소나무가 있는 풍경’의 작가 정영진」, 『문화저널 맥』(2022. 5. 23).

연보

- 1955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73년 공주사대부고 졸업
- 1982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입학
- 1984년 《Group, Touch 창립전》(대전, MBC문화공간)
- 1988년 《충남 어제와 오늘전》(대전시민회관)
《올림픽 성화봉송전》(공주문화원)
- 1989년 공주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과 석사 졸업
- 1990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강사 역임
《제1회 개인전: 정영진 유화전》(공주문화원)
《제2회 개인전: 자연과 인물전》(대전, MBC문화공간)
- 1991년 《일본 오사카 형상전》(대만, 한국영사관)
《공주풍경전》(공주문화원)
- 1992년 공주교육대, 충남대 예술대학 강사 역임
- 1994년 《제4회 개인전: 蓮花單章(연화단장)》(공주문화원)
- 1995년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 회장 역임
- 2010년 《제11회 개인전: 정영진유화 초대전》(중국 단둥, 한국문화원)
- 2013년 한국미술협회 서양화 분과 상임이사
- 2015년 《제12회 개인전: 한국 유화 초대전》(중국, 소진문화관)
- 2019년 《정영진 유화전-소나무가 있는 풍경》(공주문화예술촌)
- 2022년 《이 시대의 작가전-정영진: 소나무가 있는 풍경》(공주, 아트센터고마)

조순호(趙舜鎬, 1955~)

1955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난 조순호는 천안 남산국민학교, 천성중학교, 천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대부분의 수묵화 작업이 농담의 적절한 운용이라든가 유려한 필선을 중시하는 반면에, 조순호는 밀도있는 수묵화를



조순호, 〈무제〉, 1995, 종이에 수묵담채, 130×189.5×(3)cm, 국립현대미술관

꾸준히 보여준 화가로, 보다 과감한 흑백대비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조형세계를 일궈왔다. 필선에서는 힘찬 속도감이 잘 느껴지며, 대상의 재현보다는 대상을 통해 발현되는 자신만의 정서를 잘 드러내는 조순호의 수묵화는 ‘기운생동(氣韻生動)’의 맛을 잘 보여준다.¹

조순호의 수묵은 전통적인 것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독특함이 있다. 유독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는 수묵화는 유현하며 은유적이며 담담한 것을 미덕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조순호의 수묵은 즉발적이며 역세고 가하며 군더더기 같은 수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농담의 적절한 운용이나 유려한 필선의 구사와 같은 가장 일반적인 수묵의 조형 요소를 배제한 채 강한 흑백의 대비를 바탕으로 한 빠르고 강한 필세를 화면에 드러낸다. 이는 작가가 대상이 되는 사물이 어떠한 속성을 갖는 것이든 그것을 일방적으로 자신 쪽으로 끌어 당겨 날카로운 필선과 강한 흑백의 대비로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순호는 줄곧 색보다 먹을 중시하면서 회화의 사실성 보다는 표현성에 초점을 두고, 강한 표현력을 지닌 독특한 화면을 선보이고 있다. 치열한 구상과 필력을 비롯, 특히 우연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승려가 자신의 깨달음을 감필묘(減筆描)로 그려내는 선종화(禪宗畵)와도 유사하게도 느껴진다. 즉 조순호의 작품에서는 빠른 필치가 보이지 않지만,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화면의 정적속에서 고독과 관조가 베어나오는 것은 조순호의 수묵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²

2001년도 대전대학교에서 수묵화, 문인화 등의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노력한 작가는 2020년 퇴임했다. 또한 조순호 한국미술협회 이사, 월전미술관 연구원, 동방예술연구회 회원, 대

1 「조순호의 자화상..“이 순간 나의 실재감을 온전히 담아...”, 『헤럴드 경제』(2010. 9. 30).

2 작가 DB 사이트 뮤움에서 조순호 프로필 참조. <http://www.mu-um.com/?mid=01&act=dtl&idx=4988&flag=cv> : 장준구, 「조순호 전에 부처」, 『2019 월전미술문화재단 지원작가 초대전-취석재 일기』(월전미술문화재단 한벽원미술관, 2019).



조순호, 《무제》, 2003, 한지에 수묵, 141×173cm, 서울시립미술관

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전국 장애인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미술계 여러 분야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보여주었다.

현재도 조순호만의 독특하고 진솔한 수묵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금호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월전미술관, 모스크바한국문화홍보원, 아라리오미술관 등 주요미술관 및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연보

- 1955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
- 1989년 《국제현대미술전》(독일, 베를린시립미술관)
- 1990년 《사람들 이땅에선전》(서울, 금호미술관)
- 1991년 《제1회 개인전》(서울, 토아트스페이스)
- 1992년 《서울 현대한국화전》(서울시립미술관)
- 1994년 《유현의 미학 '수묵의 재발견전'》(서울, 공평아트홀)
- 1995년 《한국미술' 95 質·量·感》(국립현대미술관)
- 1996년 《도시와 미술전》(서울시립미술관)
- 1999년 《한국화의 위상과 전망》(대전시립미술관)
- 2000년 《수묵화, 새천년의 오늘》(서울시립미술관)
- 2001년 대전대학교 교수 부임
- 2003년 《한국현대미술전》(중국, 서안미술학원미술관)
- 2005년 《한·중 현대수묵전》(서울시립미술관)
- 2007년 《한국화 1953~2007》(서울시립미술관)
《월전미술관 개관기념전》(이천시립월전미술관)
- 2010년 《현대회화-수묵에 길을 묻다》(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만수묵비엔날레)
- 2011년 《한국화의 재발견》(성남아트센터)
- 2012년 《추상화로 감상하는 색채교향곡展》(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 2014년 《사유로서의 형식_드로잉의 재발견》(원주, 뮤지엄산)
-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중견작가초대전》(천안, 예술의전당)
- 2017년 《먹의 멋과 맛: 현대 수묵화 다시보기전》(이천시립월전미술관)
- 2019년 《조순호-취석재 일기》(서울, 한벽원미술관)
- 2020년 대전대학교 현대조형학부 정년 퇴임
- 2022년 《조순호 개인전: 가볍게 단순하게》(천안, 리각미술관)

허진권 (許鎭權, 1955~)

1955년 충청남도 보령 원산도에서 출생한 허진권은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와 경희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88년부터 모교인 목원대학교에서 교수로 후진을 양성하다 2020년 정년퇴임했다.

동양화를 전공했지만, 그의 작품은 동양화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스스로를 ‘자연미술가(Nature Artist)’로 규정하는 허진권은 ‘자연’을 대표하는 소재로 ‘물고기’를 주로 그려왔다. 이는 성서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자 나고 자랐던 고향 원산도가 내재되어 작품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자연적인 것은 상징성에서 시작되었다. 작가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순수한 평화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제 작업은 그것을 제 나름대로 예술적으로 표현해보고 있는 것이죠.”라고 언급한 바 있다.¹ 허진권은 기독교적인 내용이 읽혀지는 혹은 그런 현대적인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작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2004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독교미술과를 설립했다.²

작품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허진권의 주된 고민은 자연과학, 종교, 예술을 하나로 보고 평화의 상태를 구현하는 것이다. 1981년 《전국순회개인행위미술전》과 1982년 《결혼현장전》을 시작으로 나타난 작업의 흔적들을 보면 동양화인 듯 서양화인 듯, 회화인 듯 사진인 듯, 설치작업인 듯 행위미술인 듯 그 경계를 알 수 없는 실험을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평화와 통일의 프롤레고메나-전국 순회 PEACE쓰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작업 세계에 대해 미술 평론가 김병수는 1981년 7월 허진권의 행한 첫 개인



허진권, 〈평화는 사랑을 먹고산다〉, 2021, 인터미디어, 90×65cm, 작가 제공



허진권, 〈사랑의 피장〉, 2021, 캔버스에 아크릴, 120×120cm, 작가 제공

1 「자연미술가」 허진권 작가 개인전 “그가 물고기를 그리는 이유”, 『스포츠통아』(2021. 11. 17).

2 「기획특집」 “삶이 곧 예술이다”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Gospel Today』(2021. 9. 2).



허진권, 《성경을 먹자》, 2021, 가변설치, 작가 제공

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을 내린 바 있다. 허진권은 쌀 포대 앞면에 “삶이 곧 예술이다!”라 써넣었는데, 이는 1981년 7월 그가 행한 첫 개인전의 모토였으며, 쌀 포대 뒷면에 적어 넣은 “자연이 곧 예술이다!”는 그의 존재미학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즉 대상의 자연과 행함의 자연이라는 이원성을 예술적으로 응대하는 것이며, 삶 하나하나의 과정을 실천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라 이야기 하였다. 자연을 대상/객관으로서 인식하는 것과 실천을 통하여 감응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 성취를 예술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허진권의 작업은 서대전역에서 출발하여 목포를 거쳐 배로 제주에 닿았다가 부산을 돌아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는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 아트로서 퍼포먼스는 은사인 조평휘(趙平暉, 1932~) 교수, 당시 예술과 자연의 일치를 주장하며 야투를 이끌던 임동식(林東植, 1945~) 화백, 그리고 같은 학교에 재직하며 여전히 독특한 회화/예술 세계

를 드러내고 있는 김홍주(金洪疇, 1945~) 교수 등의 기억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다. 그래서 허진권은 회화작업 과정을 사진으로 포착하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상황 혹은 사건들을 다시 회화로 담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험에서 깨달은 일종의 망각에 대한 저항이자 이용처럼 보이며, 계기적인 작업 의식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채택했다고 보았다.³

허진권은 제20대 목원대 교수협의회장, 목원대학교 미술대학장, 충청남도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청 서화 감정위원, 충청남도 문화재단 이사, 대전시미술대전과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연보

- 1955년 충청남도 보령 원산도 출생
- 1973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서양화부 입선 수상
- 1975년 《충청남도미술대전》 동양화부 특선 수상
- 1976년 《충청남도미술대전》 동양화부 최우수상 수상
- 1976년 《두렁전》 창립에 참여

³ 미술 평론가 김병수의 평론글 참조. 작가 제공.

- 1977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충청남도미술대전》 동양화부 특선 수상
- 1978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추천작가로 선정
- 1980년 《중앙미술대전》 입선 수상
 《금강현대미술제》(공주, 금강백사장) 창립에 참여
- 1981년 《허진권 전국순회 개인 행위미술전》 개최
 《야투야외현장전》(공주, 금강백사장) 창립에 참여
- 1982년 《결혼현장전》(공주, 금강 백사장)
- 1983년 《충남한국화협회 창립전》(대전문화원)
 《울림미전 창립전》(공주문화원)
- 1984년 《동아미술제》 입선 수상
- 1986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
- 1987년 《중앙미술대전》 특선 수상
- 1988년 목원대학교 회화과 동양화전공 전임강사 부임
 《서울국제방법전》(서울, 미술회관)
- 1990년 목원대학교 동양화과 학과장 역임
- 1991년 《한국화 동질성 회복전》 창립에 참여
- 1999년 《한국화의 위상과 전망전》(대전시립미술관)
- 2002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학과장 역임
- 2004년 제20대 목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역임
- 2005년 목원대학교 기독교미술과 창설 및 학과장 역임
- 2007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역임
- 2014년 《사유로서의 형식》(원주, 뮤지엄산)
- 2014~2015년 「통일로 가는 길」, 『대전일보』 1면 총 77회 연재
- 2015년~현재 평화와 통일의 프롤레고메나 ‘허진권ILUK현장’, 전국 순회 ‘PEACE 쓰기’ 진행 중
- 2021년 《허진권 초대전》(대전, 문화공간 주차)
 《먹의시간》(대전시립미술관)
 《글로벌 노마딕아트프로젝트》(증도·새만금·공주)
- 2022년 《22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공주, 연미산 자연미술공원)
- 2022년~현재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재직

강정헌 (姜貞憲, 1956~)



강정헌, <관계(關係)>, 1978, 혼합재료, 300×120×250cm, 작가 제공

1956년 충청남도 금산에서 태어난 강정헌은 1979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1986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목원대학교 선후배를 중심으로 한 미술인 12명과 함께 '대전 '78세대'라는 그룹을 창설하고 1, 2회전의 회장을 맡으며 청년시절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예술활동을 이어갔다.¹ 대학을 졸업한 1982년부터 1996년까지 대전대신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으며, 1988년부터 1996년까지 목원대학교 강사를 역임했다.

강정헌은 '대전 '78세대'에서 활동하며 주로 신체미술 또는 퍼포먼스 등을 통해 개념과 논리에 바탕을 둔 행위미술을 선보였다. 1978년 《제1회 대전 '78세대 창립전》에 출품했던 <관계>는 초기 강정헌의 작품 경향을 잘 보여준다. <관계>는 '시간성'과 '장소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 여기에는 '인간의 흔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담겨 있다. 강정헌은 이 작품을 두고 "인간의 조형적 형상은 없으나 저의 관심은 인간이었습니다. 이곳은 목원대로 올라가는 목동 골목길에 6·25 사변 때에 판자촌이라는 한 오래된 골목의 언저리였죠. 어떻게 보면 원초적, 원시적 삶이 녹아져 있는 흙길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죠."라고 회고한 바 있다.² 인간의 흔적을 표현하기 위해 길바닥에 접착제를 바른 흰 천을 붙였다가 떼어 내 접착면에 붙은 손톱이나 머리카락 같은 흔적을 종류별로 찾아 전시했다.³

이러한 인간에 대한 강정헌의 관심은 또 다른 작업으로 이어졌다. 1982년 《제5회 대전 '78세대전》에 출품한 <toy+bond+sand>가 그것이다. 이 전시는 대구 강정 낙동강변에서 '현대미술 현장에서의 논리적 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대전과 대구, 서울의 작가들이 참여한 야외 전시였다. 출품작 <toy+bond+sand>를 통해 순수한 어린아이의 감정과 이미 굳어져 버린 성인의 감정을 대치시키고자 모래사장 위에 아이들 장난감과 입상의 마네킹을 배치시켰다. 이후, 모

1 『광자진취(狂者進取): 대전미술 다시쓰기 7080』(대전시립미술관, 2020), p. 22.

2 조상영,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다빈치기프트, 2009), p. 89.

3 박정구, 『강정헌 개인전』(오원화랑, 2004).

래와 본드를 섞어 장난감과 입상의 마네킹 위에 붙였다. 장난감과 마네킹의 표면에 마치 테라코타와 같은 느낌을 주어 감정의 죽음이나 굳어져 버린 인간에 대한 고뇌를 표현했다.

1980년대까지 작가가 직접 작품 제작에 개입함으로써 작가의 작위를 중시하는 작품을 주로 진행했던 강정현은 1990년대가 되면서 풍경화에 가까운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1994년 《제1회 개인전》을 통해 선보인 작품들은 대부분 자연이나 풍경의 일부를 포착해 스케치하듯 그린 그림들이다. 특이한 점은 실경이 아니라 작가의 머릿속에 담긴 이미지를 그대로 화폭에 옮겼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무의 밑동이 화폭의 중심을 차지하는가 하면, 사물들이 건성건성 담겨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여기에는 “작품의 대중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림의 형태나 색채에 크게 마음 쓰고 싶지 않다”고 밝혔던 작가의 내면이 내재하고 있다.

이후 2000년대에는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작업을 시도하는데 작품 〈2004-19〉에서 볼 수 있듯이 커다란 붓에 물감을 잔뜩 바른 다음 마음 내키는 대로 붓질을 가해 화면에 흔적을 남겼다. 여기에 1990년대부터 줄곧 사용해왔던 핸드코트를 얹어 섬 없는 붓질의 반복을 통해 퇴적되는 결과물을 작품으로 변화시켰다. 이와 같은 작품은 화업 초기에 강정현이 추구해왔던 예술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행위의 반복 속에서 쌓여지고 퇴적되는 결과물을 추구했던 작가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여전히 행위미술의 연장선에 있음을 알 수 있다.⁴



강정현, 〈2004-19〉, 2004, 혼합재료, 116.8×81cm, 작가 제공

연보

- 1956년 충청남도 금산 출생
- 1975~1979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78년 《제6회 앙데팡당전》(국립현대미술관)
《부산·대구·전북 현대미술제》(부산, 대구, 전주)
- 1978~1985년 《대전 '78세대전》(대전, 서울)
- 1982년 《상식, 감수성 또는 예감전》(서울, 관훈갤러리)
《한국현대미술 80년대 조망전》(서울, 미술회관)

4 박기성, 「작가의 산실-서양화가 강정현씨」, 『중도일보』(2005. 8. 4).

- 1982~1996년 대신중학교 교사로 재직
- 1983년 《'83 서울 국제 드로잉전》(서울, 미술회관)
- 1984년 《제3현대미술제》(제주, 동인미술관)
- 1986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미술교육전공) 석사 졸업
《서울 '86행위 설치미술제》(서울, 아르코스모) 미술관
- 1987년 《대전 트리엔날레전》
- 1988년 《'88 서울-세계 오늘의 미술전》(서울, 미술회관)
- 1988~1989년 한국미협 대전지회 서양화분과위원장 역임
- 1988~1992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작품전》(대전, 시민회관)
- 1988~1996년 목원대학교 강사로 재직
- 1994년 《제1회 개인전》(대전, 경암갤러리)
- 1997년 《제2회 개인전》(대전, 한림갤러리)
《한국현대미술 새로운 위상전》(서울, 조형갤러리)
- 1997~2013년 대신고등학교 재직
- 2000년 《21C 한,일미술교류전》(대전시립미술관)
- 2001년 《제3회 개인전》(대전, 이공갤러리)
- 2002년 《서울방법작가회전》(대전시립미술관)
《목원대 미대 '30년 동행'전》(대전, 한림갤러리)
- 2004년 《즐거운 미술관》(대전시립미술관)
《제4회 개인전》(대전, 오원화랑)
- 2008년 《대전미술 하나, 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
- 2009년 《DCAE-대전현대미술특별전》(대전, 우연갤러리 / DSA / 중구문화원)
- 2014~2020년 대전대신중학교 제11대 교장 역임
- 2015년 《화우전》(대전갤러리)
- 2018년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대전시립미술관)

고승현 (高昇鉉, 1956~)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한 고승현은 공주중·고등학교를 마치고,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학교 대학원 미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 공주에서 시작한 자연미술가 그룹 '야투(野投, YATOO)'의 창립 멤버인 고승현은 1983년 1월 29일 공주 금강변 어부집에서 진행한 워크숍에서 '자연미술'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후 야투그룹은 '야투현장미술연구회'에서 '야투자연미술연구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 1995년 '한국자연미술가협회-야투'로 오늘에 이른다.



고승현, 〈소와 나〉, 1983 봄, 공주 산성공원, 작가 제공

작가이자 기획자로서 현재까지 단체를 이끌어 오고 있는 고승현은 야투 창립 이후 40여 년 동안 총 156회의 자연미술 국제워크숍을 운영하며 자연미술방법론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금강국제자연미술전》(1991~),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2004~), 야투자연미술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2009~), 글로벌노마딕아트프로젝트(2014~ , 총 15개국 진행) 등을 창설하여 운영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1995년 《금강국제자연미술전》에서는 총 23개국 87명의 외국작가들과 50여 명의 한국작가들이 참가한 국내외 최대의 국제자연미술행사로서 자연미술을 해외에 알리고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1998년, 1999년의 《금강국제자연미술전》에서 '예술과 마을, 마을과 예술'을 주제로 한 기획은 농촌마을 주민들이 미술작품 제작과 전시에 참여함으로써 자연미술과 농경문화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예술문화를 시도한 선구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한 자연미술로 특성화된 유일의 비엔날레와 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 국경 없는 자연 속에 세계의 국토를 유랑하며 야투 자연미술을 구현하는 국제협력프로젝트인 글로벌노마딕아트프로젝트 등을 통해 전통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의 미학을 추구해왔다. 이처럼 한국의 자생적 미술 장르인 '자연미술'을 확립시키고,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 문화체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고승현의 초기 작업은 해가 지고 있는 강변에 벗은 몸으로 드러누워 석양을 받고 있거나, 가뭄으로 갈라진 천장호수 바닥에 알몸으로 누워 퍼포먼스를 벌이는 '자연 되기' 시도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자연 속으로 들어가 입에 풀잎을 물고 소와 나누고자 했던, 1983년 봄 공주 산성공원



고승현, 〈백년의 소리-가야금〉, 2005, 삭슨베르그 가야금, 작가 제공

에서 선보인 〈소와 나〉는 ‘동물 되기’를 통해서 송아지나 낙타의 마음을 읽고자 한 예술적 실험으로, 복잡다기한 오늘날 인간이 자연 속에서 성찰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담은 것이다.¹ 즉 두 발로 걷는 인간이 네 발로 걷는 소와 여물을 나누는 모습은 땅에서 자란 동식물과 관계하며 인간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생태계의 순환논리를 은유한 것으로, 지구 전체를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보는 생태학적 세계관에서 비롯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

고승현의 대표작인 〈백년의 소리-가야금〉은 자연에서 나는 소리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작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우리의 전통악기인 가야금에서 방법을 찾으며 시작되었다. 가급적 현장에서 발견한 버려진 나무를 활용해 작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나무의 종류와 크기, 모양, 재질이 다르며, 제작 방법도 다르다. 따라서 그 소리도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 그동안 고승현의 가야금 작업은 15개국 30여 곳의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서로 다른 자연물들이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듯이, 고승현은 가야금 소리를 통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평화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연보

- 1956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75년 공주고등학교 졸업
- 1983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80년 《금강현대미술제》(공주, 금강백사장) 참여
- 1981년 《오오(五悟)현대미술동인전》(공주문화원)
- 1981~1986년 《야투현장미술연구회》(공주, 금강, 안면도 외) 총 21회 기획 및 참여
- 1985년 《International Biennale Des Friedens》(독일 함부르크, 쿤스트하우스) 참여
- 1987~2021년 《야투자연미술연구회》(공주금강, 공산성, 대청호, 담양, 청산도 외), 22회~156회 기획 및 참여
- 1988년 《실내에서의 자연미술》(대전, 동아전시관) 기획 및 참여
- 1989년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독일, 함부르크미술대학 전시관)
- 1990년 《제4회 부산 바다미술제》(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대상 수상

1 김성호, 「자연과의 호흡 - 고승현의 자연미술」, 『고승현 제9회 개인전』(금강자연미술센터, 2019), p. 2.

2 박윤조, 「이승택과 고승현의 작품 속 자연공간 연구」, 『기초조형학연구』vol.14 no.4(한국기초조형학회, 2013. 8).

- 1991·1995년 《여름 금강국제자연미술전》(공주, 곰나루공원)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역임
- 1992년 《자연과 예술 심포지엄 (Hier Und Da)》(독일, 슈베르크동산)
- 1994년 《94년 사무가와 국제야외미술전》(일본 사무가와)
- 1995년 《(고승현) 개인전》(필리핀, 바기오 컨벤션센터)
- 1995~2010년 한국자연미술가협회-야투 회장으로 활동
- 1996년 《한국 야투5인의 자연으로부터의 작업전》(폴란드 루블린, 크로즈카갤러리)
- 1997년 《일본 양태팡당전》(일본 요코하마)
- 1998·1999년 《여름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마을과 예술, 예술과 마을 I, II》(공주, 원골) 운영위원장 및 참여
- 1999년 《바깥미술-대성리전》(경기도, 대성리)
- 2000년 한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졸업
- 2000년 《요코하마 국제야외미술전2》(일본 요코하마)
- 2000~2001년 제5회, 제6회 《금강국제자연미술전》(공주, 산성공원) 기획 및 참여
- 2001년 《오모리국제환경미술전》(일본 도쿄, 오모리벨보트센터)
《요코하마트리엔날레 2001》(일본 요코하마)
《고승현의 설치미술과 무용의 만남(언제, 어디로)》(대전시립미술관)
- 2002년 《국제 파이어 스킵처 페스티벌》(프랑스 튀링)
- 2003년 《HiKi 국제야외미술전》(일본 도쿄)
- 2003~2021년 《금강자연미술 프레비엔날레》 운영위원장 역임
- 2004~2020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참여 및 상임운영위원장 역임
- 2005·2013년 개인전 《백년의소리-가야금》(안성 / 영국 할던, 벨베데레 공원)
- 2009년 《난지한강생태공원 2009 프로젝트-다시 피고지다》(서울, 난지노을공원) 참여
- 2009~2022년 야투자연미술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 운영위원장 역임
- 2014~2022년 글로벌노마드아트프로젝트(총 15개국 진행) 운영위원장 역임
- 2016년 《2016 창원조각비엔날레》(창원, 용지호수공원)
《Yatoo》(헝가리, 한국문화원) 공동기획 및 참여
- 2017년 《백년의소리-가야금-숲속의 향연》(공주, 연미산자연미술공원) 개최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Arte de la Naturaleza》(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큐레이터 및 참여
《에치고츠마리 아트트리엔날레》(일본, 나카고그린파크) 큐레이터 역임
《베이징국제디자인위크 (자연지성전)》(중국, 광양구공원) 공동큐레이터
- 2021년 개인전 《나무상자-자연과 인간》(공주, 금강자연미술센터) 개최

고웅곤 (高雄坤, 1956~2022)



고웅곤, <동심으로의 회귀>, 1996, 대리석, 30×25×40cm(출처: 『제8회 대전조각가협회전』, 세종문화회관, 1996)

1956년 출생의 고웅곤은 대대로 목재 사업을 하는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목재를 접하면서 나무가 갖고 있는 결의 미학을 깨달았다.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였다.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좋아한 작가는 작품에 시적인 이야기를 더해 관람자로 하여금 제목에 국한된 감상에서 벗어나도록 작품을 제작하였다.¹

작가는 '동심'을 평생 화두로 때 묻지 않은 동심의 세계를 그리워하며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마음을 늘 표현하고자 하였다. <동심>(1994), <동심으로의 회귀>(1996) 등에서 인체의 사실적인 재현을 넘어 둥글 둥글 단순하게 변형한 외형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2003년 개인전 《이야기 조각전》에서 고웅곤은 **건양대학교 교수로 부임하기 전 긴 시간의 시간강사 시절** 느꼈던 외로움, 기다림, 그리움을 미래의 희망으로 해석해 작품 <화수분>에서 샘솟는 희망을 담기 시작해서, 잊고 지내는 것들을 '꿈'과 '기다림'으로 부양시키는가 하면 '섬'으로 떨어져 지내는 이 시대의 상징과 은유를 표현하고, 다



고웅곤, <동심>, 1994, 대리석, 30×25×20cm(출처: 『한밭조각회전』, 대전 대화문화사랑, 1994)

시 이야기로 회귀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작가는 작품 제목에 얽매인 감상에서 벗어나 시적인 이야기를 덧붙임으로써 대중이 보다 밀도 있게 작품을 감상하도록 배려하였다. 아울러 자신이 살면서 늘 그리워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자 동심의 세계를 펼쳐 놓은 듯 동산에서 미지의 꿈을 그리는 아이들의 모습과 소리를 통해

1 「빈소리검질을 불어로 끌어들이다」, 『오마이뉴스』(2003. 11. 29).

투영해 본 아득한 수평선의 바다, 따사롭고 풍만한 곡선과 절제된 표현의 아름다움을 작품 속에 담았다.²

2008년 《개인전-아이로 가기》에서 작가는 브론즈와 대리석, 테라코타 등으로 질료를 바꾸어 어린이들의 동심을 그린 11개의 조각품을 발표하였다. 작품에 대해 “세상 사람들 모두 어려서 는 순수하고 맑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선한 마음을 잃고 사는 것 같다. 각박한 세상, 천진난만 한 아이들의 모습과 동심을 그린 조각 작품을 통해 따스함을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하였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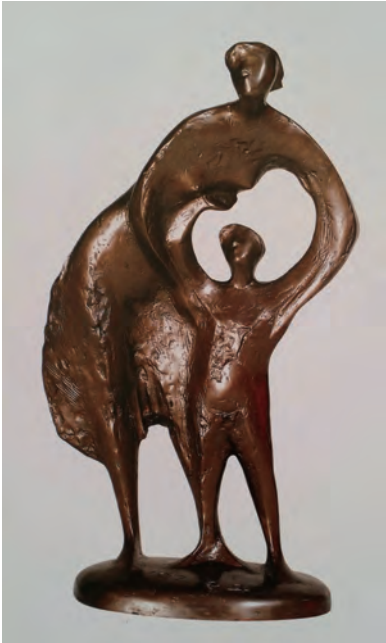
연 보

- 1956년 출생
한남대학교 미술대학 미술과 졸업
- 1993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미술교육 전공) 졸업
《EXPO 리사이클링전》(대전, 재생조형관)
- 1994년 《한발조각회전》(대전, 대화상호신용금고 전시실)
- 1996년 《고웅곤 개인전》(대전, 오원화랑)
《제8회 대전조각가협회전》(대전중구문화원)
- 1998년 《한발미술의 오늘전》(대전시민회관)
- 2002년 《제19회 전국조각가협회전》(세종문화회관)
- 2003년 《이야기 조각전》(대전, 화소갤러리)
- 2007년 《개인전》(서울, 코엑스)
- 2008년 개인전 《아이로 가기》(서울시립미술관)
《대전서구미술작가초대전》(대전서구문화원)
- 2012년 《제13회 전국조각가협회전》(광주, 상록전시관)
- 2016년 《충청조각가협회 초대 세종조각가협회 교류전》(공주, 임립미술관)
- 2018년 《제37회 전국조각가협회 정기전-부활을 꿈꾸다》(서울, G&J / 광주, 전남갤러리)
- 2021년 건양대학교 정년퇴임 / 국무총리 표창
- 2022년 작고

2 「어릴적 꿈꾸던 동심의 세계」, 『충청투데이』(2003. 11. 17).

3 「고웅곤 건양대교수, 서울시립미술관서 개인전」, 『대전일보』(2008. 7. 18).

김석우 (金錫宇, 1956~)



김석우, <긴 겨울>, 1992, 브론즈, 50×30×82cm, 작가 제공

1956년 충청남도 서천에서 출생한 김석우는 충남대학교 문과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였다. 김석우는 대학 재학 중 1979년 《제192회 France Le Salon전》에서 <봄내음>으로 동상, 이듬해에는 같은 공모전에서 <흙내음>으로 은상을 수상하였다. 1986년 《제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씩터나는 아침>으로 특선을 수상하였다.

인체조각을 주로 제작하는 김석우는 인체의 구조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다양한 인체 동작을 구현하면서 인체의 힘을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능력과 묘사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형상의 다양한 변주를 보이면서도 인체조각의 중심선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다.¹



김석우, <바람도 멈춘 바다>, 2021, 테라코타, 23×48×43cm, 작가 제공

초기에 김석우는 작품 <긴 겨울>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체 조각에 집중하여ダイナ미한 운동감을 포출한 인체의

미, 2~3인의 인물에 의한 스토리를 지닌 형상, 그리고 인물 두상 등에 전념하였다. 작가의 작품에서 정적인 포즈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이는 인체가 지닌 자기표현성으로 의미내용을 대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인한다. 심상을 표현하되 조각적인 긴장감 및 강조를 위해 동작이 때로 극대화되기도 한다. 반면 내면적인 심상의 표현을 위해서는 동작을 외부로 확장시키지 않고 동체에 집중시킨다. 때로는 인체의 일부가 축소되거나 확대되고 부분적으로 형태의 왜곡이 생기기도 하는데 형태의 변형이나 왜곡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은 작가 자신의 표현의지를 대상 자체의 심리적 신체적 요인에 전적으로 맡기는데 연유한다.²

요즘 작가는 테라코타 작품에 매진하고 있

¹ 신항섭, 「다양한 형상의 변주와 공간언어」, 『현대미술작가선 3. 조각작가』(미술세계, 1989).

² 신항섭, 위의 글.

는데 “흙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재료로부터 예술적 형상을 이끌어냅니다. 생명의 근원인 흙을 조형적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작품을 둘러싼 공간성과 흙의 물성을 탐구하며 실험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구상 단계에서 이미지를 드로잉으로 옮기고 흙을 손에 쥐어, 흙에 응축된 생명력을 느끼며 나의 에너지와 상응하는 것에 집중하며 작업에 몰두합니다. (중략) 감상자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스토리를 회상하게 하고 여운을 갖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저의 과제입니다. 테라코타의 형상들 속 안을 비워 보편적이거나 실체가 아닌 직접 경험하는 일상들을 두 손안의 기쁨으로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³

연보

- 1956년 충청남도 서천 출생
- 1979년 《제192회 France Le Salon전》에서 〈봄내음〉 동상
- 1979~2022년 《충청남도미술대전》(천안시민회관 등)
- 1980년 《제193년 France Le Salon전》에서 〈흙내음〉 은상
- 1986년 충남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 《제5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씩터나는 아침〉 특선
- 1986~2021년 《김석우 개인전》(서울, 대전, 대구, 부산, 밀라노, 동경, 북경 등) 총20회
- 1987~2014년 《한국현대조각 초대전》(춘천, MBC호반광장)
- 1988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미술교육 전공) 졸업 / 《조각가 22인전》(서울, 동숭미술관)
《B35-'88 초대전》(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 1989년 《오늘의 지역작가 초대전》(서울, 금호미술관)
- 1989~2022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 초대전》(대전시립미술관)
- 1990년 《현대조각 7인의 현재전》(서울, 청담미술관)
- 1991년 《제1회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과 교수 초대작품전》(서울, 아트그린 미술관)
- 1992년~현재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조소과 교수 재직
- 1993년 대전엑스포 '93 성공기여 교육부장관상 표창
- 1994년 《서울 600년 기념 도시환경 초대전》(서울, 동숭동대학로)
- 1996~1997년 이탈리아 피사아카데미에 객원교수로 파견
- 1997~1998년 (사)전국조각가협회 회장 역임
- 1999년 《100년의 경계 : 오늘의 대전미술》(대전시립미술관)
- 2004년 제3회 미술세계상 미술세계 작가상
- 2006~2008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장 역임
- 2018년 《제30회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상
- 2019년 제13회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미술인상
- 2020년 교육발전 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 2021년 제33회 대전광역시 문화상 수상

3 2022년 6월 24일 작가가 제공한 원고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김일환(金一煥, 1956~)



김일환, 〈고사리와 갈대가 무의가 있는 벼루〉, 오석, 작가 제공



김일환, 〈죽연〉, 백운진상 금사문, 40×30×7cm, 작가 제공

호는 오석(吾石).¹ 1956년 충청남도 보령에서 출생한 김일환은 아버지의 권유로 18세 되던 1974년 현 충남무형문화재 보령석장 48호 고석산의 문하생으로 입문하여 돌을 다루기 시작했다. 작가는 군 복무 중 석재를 다루는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호국연무석5층탑을 제작해 포상(2군 사령관상)을 받았다.

김일환은 석공 일이 고되고 50대를 넘으면 일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돌과 연관된 다른 일을 모색하였다. 제대 후 1983년 인사동 사거리에서 성주산방을 운영하고 있던 이창호(李昌浩, 1926~1990)(전 중요무형문화재 94호)를 만나면서 벼루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² 스승 이창호는 ‘돌을 깎는 기술보다 돌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였다.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돌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김일환은 이창호의 문하에서 품격 있고 독창적인 벼루를 만들게 되었다.³ 작가는 1982년 《제26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화초석어문 벼루〉, 이듬해 《제27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백운진미연〉으로 입선하였다. 1987년 《제2회 전통미술공모전》에서 〈墨人을 위한 벼루〉로 은상을 수상하였다. 2003

년 《제5회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2010년 《제12회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태고의 신비〉로, 2014년 《제44회 충청남도 공예품대전》에서 〈화초석 벼루〉로 특선을 수상했다.

김일환은 훌륭한 벼루는 훌륭한 돌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믿고 푸른빛이 감도는 검은색을 띠며 진흙처럼 다루기 쉽고 물이 잘 마르지 않는 특징을 지닌 벼루돌인 백운진상석(白雲眞上石)에 대해 듣고 이를 찾아 전국을 누볐다.⁴ 과거 백운진상석이 생산된 보령 성주산 일대를 약 7년간 돌아다니던 중 1991년 우연히 산비탈에서 식물 화석이 박힌 아름다운 문양의 백운진상석을

1 하찮은 돌이라도 자신을 거치면 보석이 된다는 의미로 지었다.

2 고 이창호(1926~1990)에 대해서는 『충남미술가편람 I』(충청남도&충남문화재단, 2021), pp. 144~145 참조.

3 <https://blog.naver.com/honesty0820/221088657134>

발견하였다. 1991년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선물로 김일환은 백운진상석으로 <화초硯>을 제작했다. 벼루의 덮개에 두 국가의 국기, 태극기와 성조기를 새긴 이 작품은 현재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⁵

작가는 ‘오석공방’이란 공방을 내고 직접 채취한 백운진상석으로 최고의 걸작품을 완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일환의 호 ‘오석’은 ‘烏(검을 오)’가 아닌 ‘흙(나 오)’를 사용하는데, 이는 ‘어떤 돌이라도 나를 만나면 하나의 작품으로 변신한다’는 작가의 의지를 담고 있다. 2013년 제1호 벼루명인으로 선정되었다.

연보

- 1956년 충청남도 보령 출생
- 1974년 고석산 문하생으로 입문
- 1980~1982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연속 3회 입선
- 1982년 《제26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국립민속박물관) <화조석어문 벼루> 입선
- 1983년 《제27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국립민속박물관) <백운진미연> 입선
《한국현대미술대상전》 입선
- 1984~2010년 《제26~35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국립현대미술관 / 경복궁내 전승공예관) 연속 입선
- 1987년 《제2회 전통미술공모전》에서 <墨人을 위한 벼루> 은상
- 1987~2003년 《대천문화예술인회원전》 꾸준히 참가
- 1991년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선물로 <화초硯> 제작 증정
- 1992~2013년 《한국미협대천지부전》 꾸준히 참가
- 1996년 《오늘의 충남미술전》(보령시보건소)에 <백제의 한> 입선
- 1997년 《제5회 충청남도 청년미술제》에 <백운진상석 금실문>
- 2000년 《제4회 보령예술제》(보령종합운동장)
- 2003년 《제5회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태고의 신비> 특선
- 2005~2013년 《향토작가초대전》 꾸준히 참가
- 2010년 《한국의 벼루-보령남포硯展》(보령문화예술회관) <연잎문양硯>
《제12회 충청남도 관광기념품전》 <태고의 신비> 특선
《제40회 보령시공예품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2013년 《대한민국미술대전》 공예분야 초대작가 선정
한국문화예술단체 주관 제1호 벼루 명인으로 선정
- 2014년 《제44회 충청남도 공예품대전》에서 <화조석 벼루> 특선
- 2017년 《보령예술·사진 초대작가회전》(보령문화예술회관 전시장)
《2017 한국예술문화명인 인증전 및 특별초대전》(서울, 미술세계갤러리)

4 백운진상석은 일제 강점기 보령 광산에서 석맥을 전량을 탈취하면서 그 맥이 끊어지는데다가 한국전쟁으로 갭이 허물어지면서 채굴이 불가능했다. 백운진상석은 상품인 금사문, 중품인 은사문, 최상품인 화초석으로 분류된다. 금사문에는 가느다란 금실무늬가 있으며 은사문에서는 은실무늬가, 화초석에는 화초무늬가 있으며 단단하고 매끄럽다. 화초석은 중국 황실에서 특별 관리하던 단계석 대서동 수암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5 작가로부터 이 작품이 실린 리플릿을 받았으나 해상도가 좋지 않아 본문에 실지 않았다.

김호중(金浩中, 1956~)

호는 금강(錦江), 노제(鷲齊), 노강(鷲江). 1956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의 김호중은 한국 산수 실경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서정묵(徐正默, 1920~1993)으로부터 사사받았으며, 홍익대학교 미술교육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하였다.

김호중은 어린시절부터 남다른 데생력을 보이며 사실적인 묘사 실력이 뛰어났다. 이에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는 전통적인 한국화풍을 기반으로 김호중만의 독자적인 실경 산수 작업을 선보였다. 초기에는 목가적인 농촌 풍경이나 인물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후 작품 활동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담아내고자 했다. 특히 대작을 즐겨 그리면서 각 지역의 명소를 생동감있게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김호중이 그린 대표적인 명소로 울산의 태화강, 반구대, 대왕암 등¹을 비롯하여 남도를 대표하는 명산 무등산, 월출산, 달마산 등이 있다.² 김호중의 작품은 섬세한 필선과 유려한 여백의 미감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언뜻 보면 산수화이면서도 문인화 같은 운치와 여유를 느끼게 한다. 현재까지도 김호중은 전통회화가 지니고 있는 깊은 정신적 세계를 지키면서도 어떻게 현대적 감각으로 수용할 수 있



김호중, 〈미상〉, 2011, 장지에 수묵담채, 210×150cm(출처: 『김호중 개인전』, 갤러리 라메르, 2022)



김호중, 〈운일암 반일암 소견〉, 2000, 수묵담채, 132×97cm(출처: 『노제 김호중 개인전』, 대전 현대화랑, 2001)

1 전상현, 「수려한 울산 풍경에 시민들 매료」, 『경상일보』(2009. 12. 29).

2 『노제 김호중 남도명산전』(남도에술회관, 2001).

을까 고민하며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스케치하면서 작가와 친숙한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아주 정직하게 옮겨내고 있다.³

김호중은 또한 2011년경 중국 기린성 장춘시에 있는 동북아문화중심센터 입주 초대작가로 선정되면서, 중국에서 10여년 간 활동하였다. 2014년 윈난성의 초청으로 쿤밍문화여행박람회에 40여점의 작품을 출품하는 등 국외에서도 활발한 전시 활동을 전개해나갔다. 특히 수년간 중국에 머물면서 동북 호림원에 있는 1,500여 마리의 호랑이를 모델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하여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한 호랑이 작품을 모아 《虎畫작품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김호중은 1987년 첫 번째 개인전을 개최한 이래로 현재까지 총 23회의 개인전과 약 300여회의 단체·초대전을 가졌다. 또한 현재 한국미술협회, 현대 한국화회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중국 동북아 예술문화센터 초대작가,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김호중은 현재 《중국 10대 명산 대형 작품전》과 《한국의 아름다운 산하 100대 美景 대형 작품전》을 준비하며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⁴

연보

- 1956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
- 1984년 《한성종합예술대전》 금상 수상
- 1985년 《후소회 공모전》(국립현대미술관)
- 1986년 《목우회 공모전》(국립현대미술관)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
- 1987년 《한발 한국화회 창립전》(대전, MBC 문화공간)
《제1회 김호중 성화전》(대전, MBC 문화공간)
- 1988년 《한국미술협회 부여지부 창립전》(부여군민회관)
《화랑 선정 정예작가 초대전》(대전, 오원화랑)
- 1989년 《국제 현대미술대전》 금상 수상
- 1990년 《놀뫼 회원전》(논산, 후지산화랑)
《일상과 수묵의 만남전》(서울, 세종문화회관)
- 1993년 《서울 한국화 비엔날레》(서울시립미술관)
- 1994년 《한국미협 충남도지회전》(부여, 청소년수련원)
- 1996년 《중원 한국화 오늘의 상황전》(대전, 현대화랑)
《전통산수화 소장작가 기획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 1997년 《대전 한국화의 뿌리를 찾아서》(대전, 창신갤러리)

3 이경희, 「김호중, 그가 다시 돌아왔다!」, 『내일신문』(2009. 12. 27).

4 『김호중 개인전 리플렛』(갤러리 라에르, 2022).

- 1999년 《대전·남경 서화 교류전》(대전시민회관)
- 1999년 《새천년을 향한 대전한국화의 비전》(대전, 롯데갤러리)
- 2000년 《전업미술가 회원전》(대전시립미술관)
- 2001년 《대전·충남 전업작가회전》(대전시립미술관)
- 2004년 《동방채목정신전》(중국 칭도, 한국성미술관)
- 2006년 《향토작가 초대전》(부여국립박물관)
- 2010년 《아름다운 울산풍경 초청 기획전》(울산예술문화회관)
- 2012년 제17회 중국 동북아 예술문화센터 입주작가 선정 및 1등상 수상
- 2014년 《곤명문화여행박람회 초대 개인전》(중국 운남성 곤명, 세계박람회장)
- 2015년 《백제의 후예들전》(부여문화원)
- 2022년 《호화(虎畫) 작품 개인전》(서울, 라메르 갤러리)

나진기 (羅鎭其, 1956~)

1956년 대전에서 태어난 나진기는 대전 보문고등학교를 나와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와 같은 대학 조형미술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충남 금성중학교, 성덕중학교 등에서 미술 교사로 재직했다.

교직에 임하면서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온 나진기는 1984년 첫 개인전을 연 이후 단체전에 참가하며 교사와 작가의 삶을 병행했다. 2002년 《제32회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생(生)〉으로

서양화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고, 대상 수상 후 대전 롯데갤러리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후 현재까지 27번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국제전 및 그룹전 등 300여 회가 넘는 단체전에 참여했다. 그밖에도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상(2013)’과 ‘제14회 이동훈미술상 특별상(2016)’ 등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전시미술대전, 금강미술대전, 보문미술대전 등 여러 미술 전람회에서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심향회, 대전환경미술협회, 세종조형미술협회 회원 및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 대전광역시 조형물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¹

초기에는 채색을 반복하며 색을 겹쳐 칠하는 과정에서 우러나오는 색의 느낌과 두터운 질감으로 깊이 있는 화면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나진기는 주로 자연과 꽃을 소재로 일상에서 느끼는 생명에 대한 감성을 ‘행복이야기’라는 주제의 연작으로 표현하고 있다.² 2000년경부터 흙, 씨앗, 꽃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꽃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에 대한 발견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운영하던 꽃 농장에서 일손을 돕던 추억으로부터 출발했다. 꽃의 성장 과정과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꽃을 보면 아름다움과 행복감이 젖게 되는데, 흙으로부터 시작해 씨앗이 식물로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의 결실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본 것이 바로 《행복 이야기》 연작의 창작 계기로 작용했다.

화면에 여러 번 밑 작업을 통해 재료를 겹쳐 칠하고 덧칠과 뿌림의 반복적인 작업을 시도하



나진기, 〈이야기〉, 2007, 캔버스에 혼합재료, 60.6×90.9cm(출처: 『대전 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1 「나진기 작가가 들려주는 ‘행복 이야기’」, 『충청매거진』(2021. 8. 18).

2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



나진기, <행복이야기>, 2013, 캔버스에 혼합재료, 40.9×24.3cm(출처: 나진기, 『화가의 꽃』, 벤포스타, 2015)

며, 때로는 물감이 흐르는 효과에서 묻어나오는 자연스러운 수채화의 맛을 그대로 살려둔다. 또 나이프로 긁어내거나 문지르는 기법을 활용해 밑 색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는 효과를 사용하기도 한다. 거기에 토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색을 만들고자 여러 번에 걸쳐 물감을 더한 다음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투명과 불투명의 색을 조합해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독특한 조형미를 화면에 구현한다.

나진기는 “일상의 한 부분처럼 흔하게 보여지는 생명을 찾아 행복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였다. 긴 시간 역경을 이겨낸 조그만 생명이 자연의 끈질긴 이치에 따라 소외된 현장에서 자기만의 개성을 찾아 기억을 더듬어 자연에서 얻어지는 아름다움과 대화를 꽃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며 꽃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³ 이렇듯 나진기가 바라보는 세상은 무한한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세계이며, 그러한 세상과 사람에 대

한 예찬이 행복이야기 시리즈를 통해 발현되는 것이다.

나진기의 꽃 그림들은 2020년 대한민국 대표 서양화가 40명의 꽃 그림을 단행본으로 엮은 『화가의 꽃: 나진기 편』(벤포스타)에 수록되어 꽃 그림 시리즈 중의 한 권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2022년 9월 세종시에서 27번째 개인전을 개최한 나진기는 특유의 꽃 그림으로 아름다운 감성을 선사하며 활발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보

- 1956년 대전 출생
- 1987년 《아름다운 금강전》(대전, MBC문화공간)
- 1994년 《오늘의 충남미술전》(부여청소년수련원)
- 2002년 《제32회 충청남도미술대전》(천안시민회관)에서 서양화 부문 대상 수상
《제2회 개인전》(대전, 롯데갤러리)
- 2004년 《대전미술제》(대전시립미술관)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
- 2005년 《개인전》(대전, 롯데갤러리)

3 아트메일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rtmail.com/>

- 2007년 《대전 아트페이》(대전, 성갤러리)
《연하장 그림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
- 2008년 《나눔과 섬김 전》(대전, 대청문화전시관)
《개인전》(대전, 롯데갤러리)
《사비 작가전》(대전, 갤러리 사비)
《새 봄》(대전, 대청문화전시관)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
- 2009년 《개인전》(대전, 갤러리 소호)
《삼천동 1234번지 전》(대전, 갤러리 사비)
- 2010년 《제4회 지움전》(대전, 롯데갤러리)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
《작은그림전》(대전, MBC 방송국 갤러리 M)
- 2011년 《개인전》(대전, 타임월드 갤러리)
- 2012년 《개인전》(대전, MBC 방송국 갤러리 M)
- 2013년 대전문화예술상 수상
《개인전》(서울, 갤러리 / 대전, 모리스갤러리)
- 2014년 《개인전》(부산, 해오름갤러리)
- 2015년 《개인전》(대전, 갤러리 봄)
- 2016년 제14회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
《개인전》(대구, 대백프라자갤러리)
《꽃의 나라전》(대구, 키다리갤러리)
- 2017년 《제14회 이동훈 미술상 특별수상 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
- 2019년 《나진기 초대전 '행복 이야기'》(세종, 소피아갤러리)⁴
《제16회 공주 국제미술제》(공주, 임립미술관)
- 2020년 화집 『화가의 꽃: 나진기 편』(벤틀포스타) 출간
- 2021년 《개인전》(대전, 갤러리고트빈)
《아듀 2021 대전중견작가 20인 초대전》(대전갤러리)⁵
《제26회 개인전》(세종문화재단 박연문화관)
- 2022년 《개인전》(세종, 밴가드1 아트센터)
《공주 국제미술제》(공주, 임립미술관)

4 「'생명에 대한 찬미' 나진기 세종시 초대전 개막」, 『세종포스트』(2019. 5. 21).

5 「기라성같은 대전중견작가들, 하나 되어 '전시회' 개최」, 『쿠키뉴스』(2021. 12. 20).

문정규(崔秉圭, 1956~)



문정규, 《그대에게》, 2016, 캔버스에 유채, 162×297cm, 작가 제공

문정규는 1956년 충청남도 보령에서 태어나 대전 보운초등학교와 동산중학교, 충남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군에 입대했다. 고교 졸업 10년 후에 배재대학교에 특별장학생으로 입학했고 대학 졸업 후 10년이 지나 충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에 입학해 졸업했다. 1984년 회화 개인전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45회의 개인전 및 개인 초대전을 국내외에서 개최했

으며, 《미술세계 커버 아티스트 특별초대전》, 《남한·북한·중국 대표 작가전》 등 890회에 가까운 전시에 참여했다.¹

1980년대 ‘OVER 그룹’과 ‘대전 트리엔날레’ 창립 멤버였으며, ‘야투자연미술연구회’ 창립에도 참여했고 1989년부터 ‘대전현대미술협회’ 회원으로서 대전의 현대미술 정착을 위한 노력에 힘써왔다. 1993년 대전 엑스포 대전관에 초대되어 27평 크기의 대작을 전시하기도 했다. 2003년 ‘국제현대미술협회’ 창립에도 참여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아시아미술대전, 아카데미 미술대전 등에서 운영위원·운영위원장·심사위원을 맡았다. 1995년 미술문화 공로상(문화체육부장관상), 1997년 환경미술제 대상(환경부장관상), 2010년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2019년 아시아문화예술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현대미술가협회(KAMA)’에서 활동하고 있고 명신대학교 한국미술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1980년대 한국의 퍼포먼스를 정착시킨 작가로서, 문정규는 회화·입체·설치·퍼포먼스 등 장르와 매체 사이의 벽을 허물고 작업한다. 미술이론가 김재권에 따르면, “문정규의 퍼포먼스가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직접화법이라면, 입체나 설치작업은 소통을 위한 간접화법이며, 평면(회화) 작업은 그가 무엇을 어떻게 사고(思考)하고 기호화(記號化)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프로세스”라고 평가했다.² 문정규는 1983년 ‘회화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대전 미래네트워크에서의 공연을 필두로 현재 국내외에서 150여 회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설치작품은 1986년 《'86 여기는

1 김재권, 「문정규 회화에 나타난 공간과 기호에 관하여」, 『안과 밖에서전』(대전: 우연갤러리, 2007); ‘다음카페 문정규 예술’에서 재인용. <https://cafe.daum.net/jkmoonart/LjTd/4>

2 김종영, 「문정규, 우리 시대를 위한 전위예술가」, 『사람과 사회』(2018. 10. 11).

한국전》(서울, 대학로)을 시작으로 50여 차례 전시했는데, 이 1986년 전시는 대학로 전철역 부근에서 직접 만든 오브제인 시체를 가마니로 덮어놓고 담배꽂초와 소주병을 늘어놓은 설치작품이었다. 이 작품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가족들의 절망을 꽂초와 소주병으로 항의하는 의미가 담겼기 때문에, 전시가 허용되지 않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평면 회화로는 1984년 ‘媒体로서의 object’라는 주제로 《제1회 개인전》을 열었으며 1988년 《제2회 개인전》은 ‘사각의 광장’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문정규의 회화는 주제 면에서 문명의 반대 개념으로서 자연을 중심에 둔다. 이는 얼핏 보기에 퍼포먼스와는 독립적인 작품 경향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자연을 다룬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을 지닌다. 즉 퍼포먼스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행해지는 폭력적인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생명의 가치를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지

만(예, 자동차에 매달린 물고기 등) 회화에서는 직설적으로 자연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³ 평면 회화에서는 다소 이질적인 소재들이 한 화면 안에서 결합하는데, 추상과 구상, 사진과 회화, 드로잉과 정교한 묘사 등 상반된 표현 형식이 조화를 이루면서 관람자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한다. 특히 문정규는 1989년부터 1998년까지 4권의 시리즈로 『현대미술의 단면』(일본: 경도국제예술기획)을 출간했고 이 외에 『문정규, 아방가르드의 시공간 여행』(미래디자인, 2009) 등을 통해 자신의 작업에 관한 내용을 단행본으로 정리했다.

문정규는 2022년 대전 우연갤러리에서 45번째의 개인전을 열어 회화 전시와 퍼포먼스를 동시에 선보였다. 근작에서는 화면을 압도하는 섬세하고 경이로운 꽃을 작가 자신과 관객에 빚대어 아름다움과 젊음, 영화로움과 사랑, 희망을 상징 메시지로 전달한다. 그리고 행운과 행복을 상징하는 ‘무당벌레’를 소재로 활용했으며, 바탕에는 훈민정음과 한글을 구성해 한국인의 자존감을 표현했다. 이처럼 문정규는 ‘안과 밖’, ‘넘나듦’이라는 일련의 주제로 회화를 창작하며 전시장에서는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작가로서, 40년 넘게 장르의 구분을 떠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작가이다.



문정규, 〈안과 밖, 넘나듦, 질편회화〉, 2022, 캔버스에 유채, 162.2×97cm, 작가 제공

3 윤진섭, 『異化와 同化(문정규의 작업에 대하여)』, 『자연으로부터전』(서울: 이후갤러리 / 대전: 흥인갤러리, 1998).

연보

- 1956년 충청남도 보령 출생
- 1983년 “회화의 꿈” 퍼포먼스 아트 첫 시현(대전, 미래네트워크)
- 1984년 개인전 《매체로서 오브제전》(대전, 공간사랑)
- 1985~1989년 OVER 그룹에 참여
- 1986~1996년 OPUS 그룹에 참여
- 1987~1997년 《대전 트리엔날레》에 참여
- 1989~1997년 현대미술 교류회에 참여
- 1992~1995년 야투 자연미술연구회에 참여
- 1993년~현재 국제 현대미술협회에 참여
- 1995년 ‘미술문화 공로상’ 문체부장관상 수상⁴
- 1997년 ‘환경미술제’ 대상-환경부장관상 수상
저서 『행위예술의 표현어법』(예광) 출간
- 1998년 대전 현대미술협회에 참여
- 2000년 저서 『현대미술의 아방가르드적 사고』(도서출판 미래디자인) 출간
- 2000~2002년 명신대학교 한국미술과 겸임교수
- 2002~2006년 배재대학교 미술학부 겸임교수
- 2003년 저서 『퍼포먼스 아트 도큐먼트』(도서출판 미래디자인) 출간
- 2003~2014년 명신대학교 서울교육관 한국미술학과 교수 역임
- 2005년 화집 『문정규 미술 20년』(도서출판 미래디자인) 출간
- 2005~2011년 사)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대전(서울) 심사위원 역임
- 2005~2017년 아시아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 역임
- 2010년 저서 『아방가르드의 시공간』(다빈치키프트) 출간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
- 2012년~현재 ‘한국현대미술가회(KAMA)’에 참여
- 2016년 《보문미술대전》(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 2019년 개인전 《넘나들-안과 밖》(대전, 우연갤러리)⁵
‘아시아문화예술대상’ 수상
- 2022년 《개인전》(대전, 우연갤러리)

4 포털 사이트 ‘다음’에 “문정규 예술” 카페 운영. <https://cafe.daum.net/jkmoonart>

5 「문정규 개인전, 넘나들-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다」, 『충청매거진』(2019. 11. 9).

박기호 (朴起鎬, 1956~)

1956년 충청남도 당진에서 태어난 박기호는 추계 예술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과와 프랑스 파리국립미술학교를 졸업했다. 1982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입선을 했고, 다음 해 《제2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서양화 구상 부문 대상을 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 부상으로 주어진 세계 여행의 기회를 얻어 동남아와 유럽을 다녀온 뒤, 1984년부터 파리국립미술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파리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1991년 귀국해 당진에서 작업해왔다. 1990년대 후반 《남부현대미술제》, 《서울방법전》, 《충남미협전》 등의 단체전에 출품했고, 추계예술대학 서양화과 겸임교수, 신성대학교 겸임교수, 당진미술협회 초대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1983년 《제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작 〈골목-83〉은 언덕 위로 이어진 가파른 계단과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둔 낡은 지붕의 집들이 묘사된 작품으로, 치밀한 화면 구성과 사실적인 묘사가 뛰어나다. 박기호가 담아낸 아현동 일대의 골목 풍경은 건물과 전신주들이 뒤엉킨 1980년대 도시 풍경을 마치 사진과 같이 세밀하고 정교하게 포착했다. 프랑스 유학 후에는 다양한 시도를 통한 화풍의 변화를 모색해 비구상 회화와 설치미술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박기호는 설치미술을 하는 아내 구현숙과 함께 당진시 순성면의 폐교인 순성초등학교 유동분교를 1993년부터 작업실로 사용해오다가 2001년 학교 대지를 매입했다. 그곳을 10여 년간 작업실로 활용하면서 미술관으로 가꾸어 2011년 아미미술관을 개관했다. 아미미술관은 전통문화 유산과 자연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사라져가는 현 상황에서 지역의 건축, 문화, 풍속, 생활상 등을 훼손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박기호, 〈골목-83〉, 1983, 캔버스에 유채, 162×130cm(출처: 『대상수상작가전』, 국립현대미술관, 1996)



박기호, 〈나의 정원...모두의 정원〉, 2021, 설치작품 전시 모습(출처: 아미미술관 홈페이지 <http://amiart.co.kr/>)

개방하는 생태미술관을 지향하고 있다.¹ 또한 신진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6년째 레지던시 작품전을 진행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당진시와 협력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반인들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데에 앞장섰다.² 이러한 공로로 2016년에는 문화예술유공자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인 대한민국문화예술상(미술분야)을 수상했다. 2021년 제5대 당진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기호는 당진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

연보

- 1956년 충청남도 당진 출생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과 졸업 / 파리 국립미술학교 졸업
- 1982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입선
- 1983년 《개인전》(대전, 영상화랑)
《제2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서양화 구상 부문 대상
- 1985년 《제1회 서울 아트페어》(국립현대미술관)
- 1986년 《대상수상작가 초대전》(서울, 미술회관)
- 1987년 《(1982-1986)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작가 초대전》(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1994년 《제5회 현대미술교류회전》(대전, 한밭도서관)
《추계예대 개교20주년 초대전》(서울, 덕원갤러리)
- 1996년 《오늘의 충남미술전》(보령시보건소)
《제16회 학동인전》(당진, 합덕대건 신협 전시장 / 당진, 충청은행)
《대상 수상작가전: 과천이전 10주년 기념》(과천, 국립현대미술관)
- 1997년 《오늘의 충남미술전》(천안시민회관)
《제2회 까마귀》(서울, 관훈갤러리)³
- 1998년 《제6회 충청남도 청년미술제》(예산문예회관)
《제21회 서울방법전: 한국현대미술전환의 새물결》(서울, 문예진흥원)
- 2000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작가 초대전》(서울, 예일화랑)
- 2011년 아미미술관(충남 당진) 개관
- 2016년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문화예술상(미술분야) 수상
- 2021년 (재)당진문화재단 이사장 취임
- 2021~현재 《나의 정원... 모두의 정원》(당진, 아미미술관)

1 아미미술관 홈페이지. <http://amiart.co.kr/pages/history>

2 「박기호 아미미술관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수상」, 『중도일보』(2016. 12. 21).

3 《까마귀》는 추계예술대학교 서양화과 동문 그룹 전시로, 1996년 제1회 전시를 열었다. 『제3회 까마귀』(서울: 관훈갤러리, 1998) 참조.

박수용 (朴壽用, 1956~)

1956년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에서 출생한 박수용은 1984년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약 8년간 서대전여자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으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였다. 이후 1991년 작가는 대리석의 산지이며 조각의 본고장인 이탈리아 까라라로 건너가 국립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하였다. 1994년 이탈리아 샤르테나에서 열린 《제6회 국제조각심포지움》에서 1등상을 수상하였다. 1996년 국립미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6년간 대리석을 주로 다루었으며 이는 작품의 주재료로 대리석을 선택한 배경이 되었다.

박수용은 돌을 고르고 쪼는 일부터 마무리하는 과정을 석공의 힘을 빌지 않고 직접 하는 작가이다. 박수용은 조소의 기본인 입체성을 유지하면서 중량이나 부피보다 선을 강조하여 그의 초기 작품은 회화 특히 산수화와 연결해 ‘조각으로 표현한 산수화’ 또는 ‘이야기가 있는 조각’으로 평가되었다. 작품은 다양한 색이 어우러진 채색 풍경화보다 여백미를 지닌 수묵 산수화와 같이 압축과 생략을 통해 주제를 극대화시킨다는 인상을 준다.¹ 이러한 작품성은 “전통 산수정신에 들어있는 자연에 대한 감성을 현대감각으로 해석하여 자기세계를 확립한 결과로 해석된다.”²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 또는 식물 등 소재들이 화자가 되어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대신 전하는 문학성이 돋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조각으로서의 특징을 보인다.³



박수용, 〈청산송〉, 2013, 대리석, 47×19×45cm, 작가 제공



박수용, 〈산수3〉, 2016, 대리석·구리, 34×29×32cm, 작가 제공

1 최태만, 「서문」, 『조각으로 표현한 소경산수』(박영덕 화랑, 2002).

2 류석우, 「서정적 감성으로 표현된 자연과 인간의 결합」, 『청작미술상 수상기념전』(청작화랑, 2000).

3 최태만, 앞의 글.

1990년대 작품은 고향의 산이나 언덕에 있는 나무와 동산 아래 앉아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주로 시골의 고향에서 느낄 수 있는 푸근한 서정성을 표현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작품에 물(水)을 도입해 새로운 시도를 보였다. 작품은 자연풍경이나 정원풍경을 압축한 듯 물확에 브론즈로 만든 연꽃을 배치해 연꽃이 피어오르는 것 같다. 또한 돌 외 스테인레스 스틸을 재료로 활용하는 변화와 함께 나비의 형상에는 LED 빛을 이용하여 작가가 꾸준히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였다.⁴

작가는 2011년 전시에서 석조 대신 브론즈로 완성한 작품을 주로 선보여 조각에서 소조로 작업방식의 변화를 시사하였다. 입체 조형의 대지 작업을 선보인 《테라 Terra》,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소노 Sogno》, 부조작업에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피아노》 연작에서 잔잔하고 느린 선율이 흐르는 명상적 감성을 담고 있다.⁵ 아울러 작가는 평면에 가까운 부조 작업 위에 환조의 조각을 덧붙여 형식미와 서사구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순수미학의 추구는 작가가 오랜 시간 천착한 주제이며 이를 서정적 감성과 완벽한 기술로 표현해 내고 있다.⁶ 석재를 바탕으로 그 위에 재질이 다른 구리와 조합으로 완성한 작품에서 작지만 아름다운 자연, 동화처럼 맑고 투명한 형상에서 작가가 추구하는 낙원의 이미지이자 그것에 대한 향수를 담았다. 2016년 작품 〈산수3〉에서 호숫가에 서있는 나무 한 그루와 물 먹으러 온 사슴 한 마리, 완만한 곡선미를 보이는 언덕 등에서 회화적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연보

- 1956년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출생
- 1984년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 졸업
- 1984~1991년 서대전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 재직
- 1987년 《시도미술대전수상작 초대전》(서울, 미술회관)
- 1988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미술교육 전공) 졸업
- 1990년 《제1회 개인전》(대전, MBC문화공간)
- 1991~1996년 이탈리아 까라라 국립미술학교 조각과 유학
- 1992년 《UMANISIMO 초대전》(이탈리아 피렌체)
- 1994년 《제6회 국제조각심포지움》Budduso(이탈리아 샤프테나)에서 1등상
《Lugi Russo 시립미술관 초대전》(이탈리아 베에프라산타)
- 1995년 《제2회 국제조각 심포지움 'Sulla via di Michelangelo'초대》(이탈리아 쉐라베짜)

4 오세권, 「자연 생명의 순환과 환희를 통한 동양성의 표현」(박영덕화랑, 2007).

5 김준기, 「절제에서 표현으로의 변곡점에서」, 『박수용개인전』(모리스갤러리, 2011).

6 최태만, 앞의 글.

- 1995년 《Atrlier Arti Visie 화랑 초대전》(이탈리아, 까라라)
- 1997년 《구상조각5인(박수용·심인자·유영교·이관기·한진섭)초대전》(서울, 인사갤러리)
- 1998~1999년 대전조각가협회 회장 역임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전》
- 2000년 《제2회 청작미술상 수상 기념전》(서울, 청작화랑)
- 2002년 《박수용 개인전》(서울, 박영덕 화랑)
- 2003~2012년 《KCAF 초대전》(서울, 예술의전당)
- 2006년 제1회 한국미술문화상 수상
《박수용 초대전 : 이야기가 있는 조각》(청주, 무심갤러리)
《호이안 국제조각 심포지움》(베트남 호이안)
- 2007년 《박영덕 화랑 초대전》(서울, 박영덕 화랑)
- 2008년 익산 국제조각 심포지움 초대 참가
- 2009년 《대전미술 둘 : 공예조각전》(대전시립미술관)
- 2011년 《박수용 개인전》(대전, 모리스갤러리)
- 2012년 《Beyond 현대미술 4인전》(대구, 소현갤러리)
《한국-이탈리아 조각교류전》(서울, 청아아트센터)
- 2014년 공주국제조각심포지엄 총 감독 겸 커미셔너 역임
《조각가 봄소풍전》(대전, 메르헨갤러리)
《충북의 산수》(국립청주박물관)
《모리스 갤러리 초대전》(대전, 모리스갤러리)
- 2016년 《봄 조각 향기 조각 초대전》(안산, 정문규미술관)
- 2017년 《대전시·대전문화재단지원 박수용 개인전》(대전, 고트빈 갤러리)
- 2020년 《박수용-Neo-산수》(보령, 모산조형미술관)
- 2021년 《아트뮤제 초대전》(서울, 아트뮤제 갤러리)
- 2022년 《박수용 초대전 : 조각으로 표현한 소경산수》(대전, 갤러리숨)

박홍준(朴洪駿, 1956~)



박홍준, 〈한글〉, 2019, 종이에 수묵, 200×70cm, 작가 제공

호는 현강(玄江). 1956년 대전에서 출생한 박홍준은 1976년 충남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같은 대전지역 고등학생이었던 손환일(孫煥一, 1955~), 유형재(兪衡在, 1955~), 김수천(金壽天, 1957~)과 함께 서예 그룹인 ‘청목회’를 창립해, 일찍이 지역 서예계에서 활동했다. 충남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서예에 뜻을 품고 한남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1990년 동양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박홍준의 서예는 ‘서예의 대중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서간체’라고 불려왔던 조선 시대 백성들의 서체를 연구해 손끝의 재주가 아닌 인격 수양의 도구로 사용되던 서예 본연의 모습을 탐구했다.¹ 이러한 연구는 ‘글을 잘 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해왔던 작가의 작품세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박홍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자를 모르는 젊은 세대를 위해 한글 주석을 병기하며 서예의 문턱을 낮추고자 인문학의 한 분야로서 서예의 가치에 대해 다른 각도로 접근했다.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프랑스 파리 보쉬르센느(Vaux-Sur-Seine) 고암문화유적지 내 레지던스’프로그램의 입주작가로 선정되어 3개월간 머물면서 한국 서예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한국 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했다. 한문이 아닌 한글서예작

품을 유럽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했던 박홍준은 “힘차고 투박한 서체로 문장보다는 한글 자체의 조형성에 집중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평가받았다.²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전미술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예총회장을 맡고 있다. 조종국(趙鍾國, 1943~), 이곤순(李坤淳, 1948~), 정태희 등 35명의 지역 서예가들과 함께 고고학적 발굴 유물 중심인 박물관의 소장 전시물을 다양화하자는 뜻에서 충남대박물관에서 서예 기증전을 개최했다. 최근에는 한남대학교에 자신의 서예작품을 기증하며 서예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1 오정현, 「현강 박홍준 개인전」, 『대전일보』(2011. 5. 10).

2 이상문, 「파리 이응노 레지던스 첫 입주 박홍준·이순규·송유림 작가」, 『중도일보』(2014. 6. 9).

연보

- 1956년 대전 출생
- 1976년 충남고등학교 졸업
- 1979년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졸업
- 1986년 '현강연서회' 창립
- 1990년 한남대학교 철학과 석사 졸업
- 1991년 《제3회 대전직할시미술대전 초대작가》(대전시민회관)
- 1995년 《대전미술 어제와 오늘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 수상
- 2005년 《서예 기증전》(충남대박물관)
- 2008년 《하얼빈 우순미술관 개관전》(하얼빈)
- 2009~2013년 대전미술협회 회장 역임
- 2011년 《현강 박홍준 개인전》(대전시립미술관)
- 2014년 파리 이용노 레지던스(Paris Lee Ungno Residence) 입주작가로 선정
《한글서예초대전》(파리, 퐁데자르 갤러리) 개최
- 2015년 《몽골울란바트로 국립현대미술관초대전》(몽골)
- 2016년 파리에용노레지던스 보고전 《세느강 언덕 위의 대전 작가들》(대전광역시청)
- 2017년 《파리지성, 한글 서예전 개최》(파리, Galerie Pont des Arts)
- 2017년~현재 대전광역시 예총 회장 역임
대전광역시 시립미술관 운영위원 역임
- 2018년 《러시아 이르크츠크 국립박물관 초대전》(러시아)
- 2018년~현재 이용노미술관운영위원 역임
- 2019년 《폴란드 카토비체역사박물관 초대전》(폴란드, 카토비체(Katowice)역사박물관)
- 2020년 한남대학교 서예작품 기증식
- 2022년 한국서예가협회부회장 역임

배결주(裵結珠, 1956~2017)



배결주, 〈산문(山門)〉, 2000, 캔버스에 아크릴, 90.7×60cm(출처: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 대전시립미술관, 2013)



배결주, 〈Facebook〉, 2015, 목판화, 20×30cm(출처: 『관화 개인전』, 대전 메르헨 갤러리, 2015)

배결주는 1956년 **대전 출생**으로,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와 같은 대학원 미술과를 다녔고 1993년 「Primitivism이 피카소의 초기 작품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졸업했다. 우송정보대학교 강사로 출강했으며, 2007년 한밭대학교 정문 앞에 이브갤러리를 열었다. 배결주는 이 공간을 자신의 작업공간으로 사용했지만, 지역 미술가들의 다양한 작품 발표의 장으로도 제공했다.

배결주는 기하학적인 형태의 이미지와 기호 같은 선묘가 한 화면에 어우러진 추상회화를 추구했다. 2016년까지 6번의 서양화 개인전을 가졌고 2015년 말 목판화 30점으로 관화 개인전을 열었다. 이 관화전에서는 풍경과 정물, 그리고 추상적인 이미지의 도상까지 다양한 형상을 묘사한 관화 작품을 전시했다. 군상이 표현된 관화 〈Facebook〉은 과감한 선과 면으로 구성되었는데, 눈을 부릅뜬 사람들, 날카로운 직선으로 표현된 코, 톱날처럼 보이는 머리카락 등의 요소를 통해 강인한 힘을 지닌 군중을 묘사했다.¹ 이들은 ‘페이스북’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뭉친 집단으로 보이기도 하고 익명화에 대한 군중의 저항을 의지를 보이기도 한다.

《자연전》, 《창형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금강목판화연구회’ 회원으로 활약하며 목판화를 탐구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다가 2017년 작고했다. 작고 후 2018년에 열렸던 《제4회 금강목판화연구회》에 동료 회원들이 추모의 마음을 담아 배결주의 작품을 전시한 바 있다.

¹ 「목판화가 배결주, ‘매거진 토마토’ 홈페이지 참조. <https://www.tomatoin.com/>

연보

- 1956년 대전 출생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86~1990년 《자연전》에 참여
- 1986~1999년 《창형전》에 참여
- 1987년 《제21회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
- 1988년 《설악 4인의 시각》(대전, 오원당화랑)
《제1회 충남 동시대전》(대전문화원)
- 1989년 《충청미술 청년작가전》(대전시민회관)
- 1992년 《제10회 한밭미술의 오늘전》(대전시민회관)
- 1993년 한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형상, 의미와 표현》(천안, 아라리오화랑)
- 1996~1997년 《제14회·제15회 창형전》(대전, 현대화랑)
- 1999년 《중견작가 초대전》(대전, 갤러리 우리)
- 2000년 《우연갤러리 개관기념 초대전》(대전, 우연갤러리)
《중견작가 초대전》(대전, 갤러리 우리)
- 2013년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
- 2015년 《판화 개인전》(대전, 메르헨 갤러리)
- 2016년 《이코노텍스트전 (Iconotext Exhibition)》(대전, 이공갤러리)
- 2017년 작고

백승업 (白勝業, 1956~)



백승업, 〈내 안에 상자〉, 브론즈, 120×90×60cm, 작가 제공



백승업, 〈우주탄생〉, 2009, 스테인리스 스틸, 500×350×500cm, 작가 제공

1956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출생한 백승업은 1980년 공과대학 기계과를 졸업한 후 4년간 공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꿈꾸던 예술가의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재입학하였다. 원하던 조각가의 길로 들어선 작가는 1987년 《목우회 미술대전》에 작품 〈여름〉으로 대상, 1986년부터 10여 년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9회 입선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대학 졸업 후 보다 전문적인 학습을 위해 홍익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조소를 전공하였다.

백승업은 초기 작품에서 주로 청동과 석재를 소재로 인체의 묘사를 중심으로 주변 공간을 구성하였다. 2007년 전시에서는 이전 시기의 작품들과 달리 공간이 확장되고 부피가 커지면서 비교적 가벼운 소재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공간을 조성하고 그 속에 인간의 모습을 담았다. 작가는 이 작품들에 대해 “자연을 소재로 작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간이 확장되고 그 일부분으로 인간을 다루게 되었다.”라고 하였다.¹ 스테인리스 스틸을 다듬고 빛나게 하는 작업과정에서 조각과 조각을 연결해 확산의 느낌을 살렸다.

조각을 회화적 이차원의 평면으로 환원하는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있는 반면 백승업은 조소 전공자로 조각 속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브론즈로

제작한 〈내 안에 상자〉는 무한한 우주와 함께하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작가는 공대에서 전공한 3D기계설계 및 용접기술을 작업에 반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3D 기술을 살려 좀 더 유려하고 우아한 형태의 공간구성을 이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²

1 작가가 제공한 노트에서 인용.

2 작가가 제공한 노트에서 인용.

조각가로서 백승업은 “회화적 영상을 조각으로 표현하고 물질을 물감으로 대체해서 구사하고 있다. 그는 첫조각을 가지고 공간에 그림을 그린다. (중략) 그가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금속질감은 빛을 받아 반짝인다. 그 모습이 마치 햇빛이 찬란하게 부서지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자아낸다. 그는 자연에서 받은 청량하고 신선한 느낌이 주변공간으로 확장되는데 더없이 효과적이고 자연에서 받은 감흥을 전달하는데 무리가 없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한 일종의 콜라주 조각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체는 브론즈로 제작하였는데 이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질감, 색채와 대비되는 연출이자 집약적인 이미지로 눈길을 끈다.”³고 평가된다.

연보

- 1956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
- 1986~1996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입선 9회
- 1987년 《목우회 미술대전》에 〈여름〉으로 대상
- 1988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88~1990년 《비무장지대전》(예술의전당)
- 1989년 《목우회 대상수상 작가전》(국립현대미술관) / 《감성과 표상전》(서울, 연희조형관)
- 1990년 홍익대학교 대학원(조각 전공) 졸업 / 《오늘의 지역작가초대전》(서울, 금호미술관)
《한·중목우회 교류전》(서울시립미술관)
- 1991년 《화랑미술제》(서울, 예술의전당) / 《비무장지대전》(서울, 예술의전당)
- 1993년 대전엑스포기념초대전(대전, 홍인미술관)
- 1994년 《한국청년조각가협회전》(서울, 조형갤러리)
- 1995년 《한국인의 얼굴전》(대전, 홍인화랑) / 《충남·대전작가초대전》(대전, 한림갤러리)
《대전조각가협회전》(대전, 오원당화랑) / 《향토작가 초대전》(대전시민회관)
- 1996년 《제8회 대전조각가협회전》(대전중구문화원) / 《목우회회원전》(국립현대미술관)
- 1997년 《충남미술의 미래모색전》(대전시민회관)
《대전지역 중견작가초대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
- 1998년 《1910~1945년 잃어버린 세월전》(대전, 서경 갤러리) / 《한발미술의 오늘전》(대전시민회관)
- 2007년 《초대 개인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
- 2009년 《백승업전》(서울, 인사아트센터)
《밀레니엄 국제아트전》(서울, 예술의전당)
- 2016년 《제32회 한국조각가협회전: 조각오감도》(서울, KOSA스페이스 갤러리)
- 2017년 《백승업 조각전시회》(대전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 전시장)
- 2021년 《세종호수조각전》(세종, 호수공원)

3 박영택, 「백승업-공간으로 확산되는 빛, 기억」, 『백승업전』(인사아트센터, 2009).

백인현 (白仁鉉, 1956~)



백인현, 〈계룡산의 가을〉, 2016, 격자창에 수묵석채, 60×117.5cm, 작가 제공

호는 송계(松溪). 백인현은 1956년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 송원리 송계동 출생으로 공주사범대학부속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주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하였다. 이후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현재까지도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한국화 가이자 미술 교육자이다.



백인현 저, 『한국화 민예품 부채 : 현대 한국화와 단오부채, 그 교육적 활용』, 한국화전통미술제 추진위원회, 2019, 작가 제공

백인현은 1981년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의 창립과 1983년 충남한국화협회의 창립을 주도하며 지부장과 협회장을 역임하고, 1982년부터는 충남·대전시미술대전의 초대작가, 운영·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충남과 공주의 미술발전과 제자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또한 백인현은 2004년부터 《한국화민예품전》을 기획, 주최하면서 우리 선조들의 사계절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한지를 활용한 전통생활용품인 부채, 등, 연, 우산, 탈, 옷, 포장지, 병풍, 가리개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작품으로 창작해오고 있다.

백인현은 현대의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화민예품 교육’에 관심을 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전통미술을 한국화의 학습방법으로 확장하는 교육도서를 출간한 바 있다.

2007년부터는 백제문화제 공주시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국공모전인 백제문화예술대전 및 백제문화상품전을 통하여 백제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백제문화예술네트워크를 통해 미술인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충남 지역 소외계층인 노인대학 어르신, 시민단체, 청소년을 위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도 주도하고 있다.¹

백인현 작품의 주제는 『논어』의 「옹야」 편에 나오는 ‘지자(知者)는 요수(樂水)요 인자(仁者)

¹ 백인현, 『송계산방 백인현』(공감투데이, 2014).

는 요산(樂山)이라 지자(知者)는 동(動)하고 인자(仁者)는 정(靜)하니 지자(知者)는 락(樂)하고 인자(仁者)는 수(壽)한다'는 <요산요수(樂山樂水)>이다. '요산요수'는 우리 전통 한옥의 격자창을 열고 금수강산의 자연을 체득한 정신적 이미지를 조형화한 것이다.



백인현, <한국화민예품-부채>, 2021, 격자창+접선, 각각 53×30cm, 작가 제공

즉 금강과 계룡산의 자연과 색감이 격자창 너머로 다가와 앉은 것 같은 산수화이다. 여백과 여운의 자연이 한국의 전통 격자창을 통해 확산되고, 고향의 산하가 더욱 정겹게 와 닿는다. 대담하게 흐르는 먹은 산의 유려한 곡선이고, 강렬하게 시선을 잡아끄는 석채(石彩)의 오방색은 자연의 힘을 닮았다. 자연이 가진 신비로운 오방색이 격자창을 통해 자연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자연으로 소통한다. 한옥 격자창 문은 삶의 문이자 밖과 안을 연결하여 내연과 외연을 이어주는 매체이고, 간혀 있는 공간에서 열려있는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백인현은 70년대의 사찰과 한옥의 맥(脈)연작부터, 공주 지역 명소인 계룡산, 금강의 산수를 사생한 실경산수 작품, 자연을 조형적으로 재해석한 금수강산의 요산요수는 석채를 활용하여 다양한 격자창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나아가 한지 부채, 등, 연, 우산에 이르기까지 전통생활용품을 활용한 한국화민예품 작품을 비롯하여, 도자기판 및 초벌도자기를 활용한 도자기 한국화작품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을 제작해오며 새로운 한국화 작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²

연보

- 1956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77~1980년 《충청남도미술대전》동양화 부문 특선 4회, 대상 수상
- 1979년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81년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 창립회원, 지부장 역임
- 1982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입선 수상
- 1983년 충남한국화협회 창립회원, 협회장 역임
- 1984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 1986년 《한국화 실경산수 개인전》(서울, 동덕미술관 / 대전, 시민회관)
- 1987~2022년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역임
- 1989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 역임

² 백인현, 『송계산방 백인현 樂山樂水』(공감투데이, 2016).

- 1989~2017년 교육부, 제5차, 제7차, 2007, 2015 교육과정 집필, 연구, 검정 심의위원(장)
- 1994년 충남한국화협회 회장 역임
- 1994~2004년 신수회 회원으로 활동
- 1995년 《한국부채그림전 기획·순회전》(공주, 천안, 서산)
공주시 웅진문화상 심사위원 역임
공주시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위원 역임
- 1997~1999년 안전미술기념사업회 이사 역임
- 1999~2000년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장 역임
-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평가원, 중등교사 임용고시 출제위원 역임
- 2003년 《백인현 요산요수 한국화전》(공주문예회관 / 대전, 오원화랑)
- 2004~2022년 《한국화민예품전》기획, 추진위원장 (공주문화원 / 서울, 아리수갤러리)
- 2005년 《아름다운 계림-백인현 요산요수 한국화전》(중국 북경, BIAC ART SPACE)
중국 당산사범대학 미술과 연구교수 역임
- 2006년 《백인현 중국기행 한국화전 및 사진작품전》(공주교육대학교)
- 2007년 《부채 그리고 바람-백인현 부채그림전》(공주, 금강아트센터)
-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평가원, 중등교사 임용고시 출제위원 역임
- 2009년 충청남도 문화재전문위원, 충남문화상,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
- 2009~2010년 문화관광부, 충청남도 거점문화예술교육 제1·2차 채움놀이이야기 시행
- 2010년 《백인현 요산요수 초대전》(중국 북경, 연우화랑)
- 2012년 《한국화민예품 초대전》(중국, 요동대학교 미술관)
- 2013년 교육서『한국화 한지민예품교육』(교수학습방법) 발간
- 2014년 《요산요수 도자회화 개인전》(성남, 아트센터 미술관)
《송계산방 백인현 초대전- 작품40년 회고전》(공주문화원) 개최 및 화집 발간
- 2015년 스승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화민예품 초대전》(중국, 연변대학교 미술관)
- 2016년 《요산요수 백인현 초대전》(공주, 임립미술관)
- 2017~2018년 충남문화재단 제1기 협력위원장, 사업 심의위원 역임
- 2020년 《한국화민예품-생활도자 초대전》(서산, 서해미술관)
- 2021년 공주문화재단사업 심의위원 역임
- 2022년 공주교육대학교 정년퇴임

변영환(邊英煥, 1956~)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난 변영환은 3살 때인 1959년 천안으로 이사해 천안에서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녔다. 1987년 동국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던 해 《중앙미술대전》, 이듬해 《동아미술제》에 입선했다. 1989년 《제1회 개인전》에서는 현대인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갈등을 가장 치열한 승부의 세계인 스포츠를 통해 강렬한 색채와 선으로 표현한 ‘관계’ 시리즈를 발표했다. 이후 변영환은 제3, 4회 개인전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조형화시킨 《사람들》 연작을 발표했다. 인물 군상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제작하며 자신만의 양식으로 인체를 정형화시켰다.

변영환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천안미술협회 사무장을 맡아 열악한 천안미술계의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1998년 단국대 대학원 회화과에 들어간 변영환은 작가로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2000년 말, 그때까지 해왔던 회화 작품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과 작업의 방향을 모색했다. 바로 삶의 현장인 거리에 시도한 설치와 파격적인 퍼포먼스의 발표가 그것이다. 변영환은 천안 아라리오 터미널 광장에서 작가의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누드 퍼포먼스를 계획했다. 동시에 거리의 70여 곳에 현수막 설치와 170여 곳의 광고 게시판을 통한 인체 누드 드로잉으로 소통을 시도했으나 거리전은 외설이라는 이유로 잘려나가고, 전시는 사전 봉쇄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작가는 1년 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검열을 이겨내고 다시 거리전을 재개하였다. 이 시기 작가는 현실에 대한 참여의식이 싹트기 시작해 사회의 모순과 장벽, 자신의 작품세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시도했다.

2003년에는 파리·런던·베를린·베네치아 등 유럽 순회 퍼포먼스를 통해 인류의 역사와 동서양의 갈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살고있는 시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2004년부터 자본주의의 표상인 ‘돈’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와 작품을 제작했다. 작품의 소재 역시 ‘화폐’로 지시체와 의미체를 동일시했다. 즉 “화폐는 회화작품으로서 걸작”이고, “동전은 입



변영환, 〈돌아갈 수 없는 자리-2〉, 1991, 보드에 아크릴, 122×84cm, 작가소장



변영환, <화폐(貨賤)의 딜레마>. 2021, 화폐 및 혼합재료, 가변크기, 작가 제공

체작품으로 손색이 없다”며 “돈을 이용해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그의 작품은 돈의 권위와 억압에 도전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고발하는 풍자와 해학으로 점철되었다.

‘전’에 예술을 덧칠해 ‘천민 자본주의’와 예술을 조롱하는 ‘전작가’ 변영환은 시니컬한 고발과 비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돈 세상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으로 <돈 꽃>을 선보였다.¹ 꽃이 아름다움과 향기와 달콤한 꿀을 제공하듯이 돈도 꽃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변영환은 2020년까지 24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머니토피아(Money-topia)에서 자신의 예술과 시대정신을 찾고 있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환경오염과 이상기후 역시 탐욕적 돈벌이와 직결된 문제라는 관

점이 작가의 예술철학을 잘 대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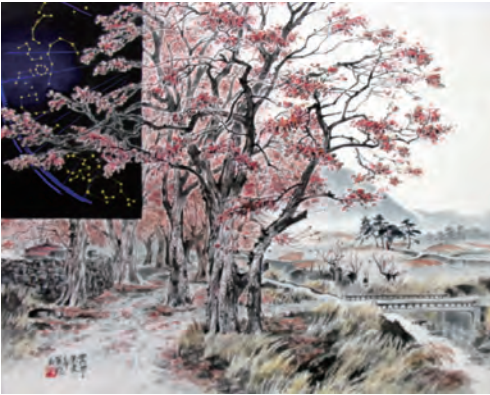
연보

- 1956년 부산 출생
- 1963~1975년 천안 일봉국민학교, 계광중학교, 천안고등학교 졸업
- 1987년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졸업
《중앙미술대전》입선
- 1988년 《동아미술제》입선
- 1889년 《제1회 개인전》(서울, 동덕미술관 / 천안문화원)
- 1990년 《제2회 개인전》(천안문화원) / 《천안수채화협회 창립전》(천안문화원)
- 1991년 《제3회 개인전》(서울, 관훈미술관 / 천안시민회관)
- 1992년 《제4회 개인전》(평립화랑) / 《충남수채화협회전》(천안, 아라리오화랑)
- 1998~2000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 2000년 《제6회 거리 개인전》(천안아라리오 터미널 광장)
퍼포먼스 <그 안의 존재들로부터> 발표
- 2001년 《제7회 거리 개인전》(천안 거리) 개최
퍼포먼스 <3.1절 기념-그 날의 함성>(천안, 독립기념관 광장) 발표
퍼포먼스 <너희가 칠지도를 보았는가>(충남학생회관) 발표

¹ 변영환은 사상, 종교, 예술마저 돈의 노예가 된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며, “돈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 늦도록 전장(錢場)에서 전투(錢鬪)를 벌이는 우리는 모두 전사(錢士)”라고 말한다.

- 2002년 《충남 행위미술제》(대전시립미술관)에서 퍼포먼스 발표
《김천국제행위예술제》(김천조각공원 야외무대)에서 퍼포먼스 발표
《한국퍼포먼스 30년》(씨어터 제로)에서 퍼포먼스 발표
- 2003년 파리, 베니스, 몽블랑, 베르린, 런던에서 퍼포먼스 발표
《민통선예술제》(공주, 석장리미술관)에서 퍼포먼스 발표
《인천미디어아트비엔날레》(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퍼포먼스 발표
《한국실험예술제》(서울, 라메르갤러리)에서 퍼포먼스 발표
- 2004년 《제8회 개인전》(서울, 인아트갤러리) 개최
《마일연극제》(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퍼포먼스 발표
《충남예술인대회》(홍성문예회관)에서 퍼포먼스 발표
- 2005년 《제9회 개인전》(도쿄, 한국문화원)
《제10회 개인전》(뉴욕, cps32갤러리)
《내포현대미술제》(홍성문예회관)에서 퍼포먼스 발표
- 2007년 천안중견작가회 창립(천안시민회관)
《판페스티벌》(천안시민회관)에서 퍼포먼스 발표
《한·중·일작가전》(평택예술회관)에서 퍼포먼스 발표
《한국퍼포먼스 40년 40인》(홍익대학교 앞 벨벳바나나 클럽)에서 퍼포먼스
- 2008년 《부천국제 퍼포먼스 페스티벌》(부천, 전철역사)
- 2009년 《충주국제퍼포먼스 페스티벌》에 참여
- 2010년 퍼포먼스 〈변영환의 씨굿〉(서울, 요기가가갤러리) 발표
- 2011년 《제15회 개인전》(서울, 인사아트센터)
《한국행위예술제》(서울, 씨어터제로)
- 2012년 《제18회 개인전》(서울, 한벽원 갤러리)
- 2013년 《제19회 개인전》(안동, 예술의전당)
- 2015년 《제20회 개인전》(서울, 미술세계갤러리)
- 2018년 《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 한국 행위미술 50년》(대구시립미술관)
《한국퍼포먼스 50년》(제주현대미술관)
- 2019년 충남문화예술연대 창립(아산, 옹기체험마을)
《제22회 개인전》(천안, 예술의전당)
《제주국제실험예술제》(제주탐라공화국)
- 2020년 천안문화예술포럼 창립(변영환화실)
《제23회 개인전》(서울, 라메르갤러리) / 《제24회 개인전》(천안, 리각미술관)
〈팬데믹 살풀이〉(서천문예회관) 퍼포먼스 발표
- 2021년 협동조합 문화마을유랑동 이사장 선출
《곡성국제실험예술제》에서 퍼포먼스 발표
- 2022년 《전주국제행위예술제》에서 퍼포먼스 발표
제21대 (사)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장으로 선임

손차룡(孫車龍, 1956~)



손차룡, 〈宇宙로부터-時·空〉, 2003, 한지에 수묵담채, 72×91cm, 청주시립대정호미술관

1956년 충청북도 보은에서 태어난 손차룡은 청주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였지만 학업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정명희(鄭莫熙, 1945~) 선생을 찾아가 사사받았다. 목우회미술대전, 대전시미술대전 등 다수의 미술대회에서 수상하고, 한국미술협회, 한국크로키회, 대전한국화회, 일청회 등의 단체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전시 활동을 펼쳤다.

손차룡은 1980년대 후반 별자리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한 후로부터, 작품의 주 소재로 별자리를 활용하였다. 이에 작품의 배경은 우주의 시간

과 공간속에서의 생명 존재에 대한 고찰과 동양 철학에 바탕을 둔 우주 자연관에 있다. 따라서 《우주로부터-時·空》연작을 통해 동양천문학적 별자리의 의미를 담아내면서도, 작가만의 현대적 감각으로 동서양 문화를 연결한 새로운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다.

손차룡은 1999년까지 총 4회의 개인전을 진행하면서 직업 화가로서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2000년경 작가가 마흔 중반이 되던 해에 모스크바에 있는 한 갤러리에 초청을 받게 되었고 전시를 성공리 마무리한 뒤, 이를 발판으로 유럽 지역에서 전시와 작품활동을 이어나갔다. 2004년경 후원자를 만나 프랑스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프랑스 노르망디에 거주하게 되었다.¹ 그는 노르망디의 작은 항구도시인 옹플뢰르의 유일한 동양인 화가로 작업실을 두었으며, 2006년에는 옹플뢰르에 아예 정착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그는 노르망디의 풍경을 동양적인 화풍을 접목하여 그려내는 등, 매체와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동서양을 아우르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에 손차룡은 작품 활동 초기에는 누드화를 즐겨 그렸으며, 점차 붓과 먹의 사용으로 동양미가 두드러지는 작업들을 제작하였다. 후에 자연의 경이로움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탄생시킨 산수화를 제작하였고, 인상파적 혹은 사진을 찍어놓은 듯 사실주의적 유화 작품들을 제작하였으며, 그의 감성을 담은 설치 작업도 선보였다.

나아가 손차룡은 작품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문화를 프랑스에 알리는데 일조하였다. 주로 프랑스 지역에 한국을 소개하는 미술 전시회를 기획하는 등 한국인 화가들의 유럽진출을 위한 가

¹ 박소영, 「한국의 문화유산,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충북인innews』(2015. 6. 19).

교 역할을 하였다.² 또한 그는 옹플뢰르에 아틀리에 드 아트 손차롱 갤러리를 설립하여 2011년 한국, 프랑스, 러시아, 몽골, 미국, 일본 등의 작가 8명을 초청해 《노르망디의 다리》, 《뉴욕의 다리》라는 주제로 국제교류전시회를 열었다.³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소금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대전 지역작가 29명의 179여 점의 작품을 프랑스 옹플뢰르의 소금창고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손차롱은 화가로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작품을 제작하고, 충남 미술을 포함한 한국 문화 예술을 유럽에 알리는 일에 이바지 하고 있다.

연 보

- 1956년 충청북도 보은 출생
- 1985년 《목우회미술대전》 입선 수상
《국제미술대전》 특별상 MEXICO 대상 수상
- 1990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입선 수상
- 1991년 《목우회미술대전》 특선 수상
- 1993년 《목우회미술대전》 CYC 미술상 수상
- 1994년 《대전시미술대전》 특선 수상
《대전 한국화 회원전》(대전, 한림갤러리)
- 1995년 《금강미술대전》 입선 수상
《대전시미술대전》 입선 수상
《일청회 회원전》(대전, 현대화랑)
《안전 이후 600년의 충청미술-향기와 맥전》(대전시민회관)
- 1998년 《아름다운 청주전》(청주, 예술의전당)
- 2000년 《손차롱 초청전》(러시아 모스크바, 예술의전당)
- 2002년 《우주로부터-時·空 8번째 개인전》(아산문화센터 갤러리 청)
- 2005년 《손차롱 개인전》(프랑스, Gallery Tougeville-Deauville)
- 2011년 아틀리에 드 아트 손차롱 갤러리(프랑스 옹플뢰르) 설립
- 2012년 대전시립미술관 및 대전미술사랑 후원 초대전 《옹플뢰르》(대전, 우연갤러리)
- 2013년 대전지역 현대미술 작가 단체전 《소금을 꿈꾸다》(프랑스 옹플뢰르, 그르니에아셀) 전시 기획 참여
《손차롱 초대전》(프랑스 파리, Gallery VENDOME)
- 2017년 정락석 저 『K-파리지앙』(파리지앙, 2017) 책에서 한국 문화의 가교역할을 한 미술가로 소개
- 2019년 재불 한인 예술가 단체 소나무SONAMU전 《'연'》에 참여

2 「손차롱 화백, 옹플뢰르의 백조가 되어 날아 오르다」(사단법인세계한인언론인협회, 2014. 3. 26).

3 왕길환, 「57년 전통 갤러리가 초청받은 재불화가 손차롱」, 『연합뉴스』(2013. 2. 5); 왕길환, 「프랑스서 한국 알리는 손차롱 화백」, 『연합뉴스』(2011. 9. 6).

오치균(吳治均, 1956~)



오치균, 《엠페이어 스테이트》, 1994, 캔버스에 아크릴릭, 150×225cm
(출처: 『OH, CHI-GYUN』, 가나화랑, 1995)

오치균은 1956년 충청남도 대덕군 반석리 출생으로 유성중학교와 충남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다. 1985년 백악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연 후, 미국 브루클린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1988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유학 중 1987년과 1988년 실기 장학금을 연속으로 받았으나 사기를 당해 고단한 유학 생활을 해야 했다. 유학 시절이었던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시의 삭막함과 비정함, 그리고

인간 소외 등을 주제로 삼았으며 집요한 관찰을 통해 포착한 이미지를 화폭에 담았다.¹ 즉 세상과 단절된 캄캄한 실내에서 TV 화면의 열은 불빛, 문틈으로 새들어온 빛 앞에서 괴로움으로 몸을 비튼 인체를 그렸다.

오치균은 뉴욕에서 네 차례 개인전을 개최한 다음 귀국했다. 1991년 금호미술관 개인전을 통해 뉴욕 유학 시절 겪었던 생활을 소재로 한 인물화인 《인체》 연작을 선보였고 이때 화단의 호평을 받았다. 이 전시 후 1992년 뉴욕으로 다시 건너가 3년을 미국에서 머물며 뉴욕과 산타페의 풍경을 그렸다. 1993년에는 프랑스에서 열린 FIAC 아트페어에 참가했고 그때 프랑스를 여행하며 파리 시내 풍경을 그리기도 했다.

1994년 뉴욕 마리사 델 레 화랑(Marisa del Re Gallery)에서 광활하고 대담한 뉴욕의 이미지를 그린 작품들로 개인전을 열었으며, 1995년에는 미국 뉴멕시코 주 산타페로 이주했다. 산타페에서는 1년 정도 머물며 유럽문화와 토속 인디언문화가 혼합되고 사막과 협곡의 대자연이 천연 그대로 남아 독특한 매력이 있는 산타페의 풍경을 화폭에서 담았다. 1996년 뉴욕 마리사 델 레 화랑에서 다시 개인전을 연 후, 1997년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귀국 후 서울 풍경을 집중적으로 그리다가 1990년대 말부터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감이라는 소재를 택해 오랜 기간 그려왔는데, 감을 그리

¹ 기혜경, 「오치균: 소외된 사람들」, 네이버 캐스트 “한국미술 산책”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68642&cid=58863&categoryId=58863>

게 된 계기는 1998년 무렵 시골 풍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고향에서 보았던 감나무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한다. 강원도 사북으로 갔을 때 그리기 시작한 감나무 그림에서는 푸른 하늘과 대조를 이루는 붉게 물든 감과 꿈틀거리는 듯한 감나무의 형상이 생생하게 묘사되었다.² 사북에서 그린 이 감나무 그림들은 ‘감나무 작가’라는 별칭이 생길 정도로 미술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2010년대 들어서는 《빛》 연작을 통해 빛이 전달해주는 희망과 밝음의 의미를 화폭에 담아내기도 했다.

《감》 연작을 그리기 전부터 ‘손가락 화가’로 불리던 오치균은 손과 손바닥을 모두 활용해 그림을 그린다. 오치균의 작품은 실상 가까이서 보면 무수한 반복에 의해 구축적으로 메꾸어진, 형태를 가늠하기 힘든 추상적인 색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³ 이 표현기법은 물감을 두텁게 올린 후 붓이 아닌 손을 이용해 석고 가루로 반죽한 안료를 손으로 쌓아 표면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처럼 오치균은 독창적인 표현기법을 연마해 치열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과 그림으로 소통하고자 했고, 특유의 거친 질감의 화면과 강렬한 표현 방식을 구축한 작가이다.



오치균, 〈감〉, 2010, 캔버스에 아크릴, 160×80cm, 개인소장

연보

- 1956년 충청남도 대덕군 출생
- 198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85년 《개인전》(서울, 백악미술관)
《다섯전》(서울, 미술회관) / 《한걸음전》(서울, 백악미술관)
- 1986년 미국 브루클린대학 대학원 입학
《79인전》(서울, 관훈미술관)
《새로운 정신전》(서울, 제3미술관)
- 1987년 《개인전》(미국 뉴욕, Pindar Gallery)
《동물전》(미국 뉴욕, 클라인 클럽화랑)
《국제 미술제》(미국 뉴욕, 아리엘 화랑)
- 1988년 미국 브루클린대학 대학원 졸업
《개인전》(미국 뉴욕, Brooklyn College Gallery / C & A Gallery)

2 이은주, 「화가 오치균에게 그림이란 무엇일까?」, 『월간미술』 353(2014. 6), pp. 128~135.

3 정영목, 「인상적 공간과 심리적 공간-오치균의 뉴욕풍경」, 『OH, CHI-GYUN』(가나화랑, 1995).

- 1989년 《이민전》(미국 뉴욕, 알파인화랑)
- 1989년 《화랑작가전》(미국 뉴욕, 디 아더화랑)
- 1990년 《개인전》(미국 뉴욕, BACA Downtown / C & A Gallery)
- 1990년 《미술시장에서의 화가》(미국 뉴욕, 브롱스 뮤지움)
- 1990년 《제3세계》(미국 뉴욕, 스카이 라이트화랑)
- 1991년 《개인전》(서울, 이인화랑 / 금호미술관)
- 1991년 《동향과 전망전》(서울미술관)
- 1991년 《세기말 인상전》(서울, 신세계미술관)
- 1991년 《레알리떼 서울》(서울, 미술회관)
- 1992년 《개인전》(서울, 가나화랑)
- 1992년 《자연-새로운 해석》(서울, 현대갤러리)
- 1993년 《개인전》(미국 뉴욕, The Gallery Three Zero)
- 1993년 《서울 화랑미술제》(서울, 예술의전당)
- 1993년 《FIAC 1993》(프랑스 파리, 그랑팔레)
- 1994년 《개인전》(미국 뉴욕, Marisa del Re Gallery)
- 1995년 《개인전》(서울, 가나화랑 / 부산, 공간화랑)
- 1996년 《개인전》(미국 뉴욕, Marisa del Re Gallery)
- 1997년 《개인전》(서울, 가나화랑)
- 1998년 《개인전》(대구, 맥향화랑)
- 2002년 《개인전》(서울, 인사아트센터)
- 2003년 《개인전》(광주, 신세계갤러리)
- 2007년 《개인전》(서울, 갤러리 현대)
- 2008년 《개인전》(미국 뉴욕, 첼시 아트 뮤지엄 / 서울, 갤러리현대)
- 2009년 《개인전》(서울, 갤러리현대)
- 2011년 《개인전》(일본 도쿄, Mizuma gallery / 서울, 갤러리현대)
- 2012년 《Collector's Favorite展》(서울, 슈페리어갤러리)
- 2013년 《개인전》(서울미술관 / 부산, 도시갤러리)
- 2014년 《개인전》(서울, 노화랑)
- 2015년 《관화속으로》(부산, 소울아트스페이스)
- 2016년 《개인전》(서울, 금호미술관)
- 2016년 《한국 현대미술의 눈과 정신 2: 리얼리즘의 복권》(서울, 가나인사아트센터)
- 2017년 《개인전》(서울, 노화랑)
- 2017년 《예술만큼 추한 Ugly as Art》(서울대학교미술관)
- 2021년 《2021 세종컬렉터 스토리 III》(서울, 세종문화회관)

이숙휘 (李淑徽, 1956~)

이숙휘는 1956년 대전 출생으로 상명대학교를 졸업했다. 1991년 《현대미술대전》 우수상, 1992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특선을 받았다. 한국미술협회, 형상회,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2년 개인전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나 작품 활동을 했다. 북극 빼고 안 가본 곳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여행을 좋아하는 이숙휘는 2년 가까이 미국에 거주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작품에 적용할 여러 가지 기법을 탐구했다.

2002년 개인전 이후 8년 만에 연 2010년 개인전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상을 묘사했던 사실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추상적인 표현으로 화면을 구성해 변화를 시도했다. 캔버스에 유화로 페인팅한 후 다시 프레스기를 이용해 색을 찍어냈고, 이런 과정을 6~7번 반복한 다음 작품을 완성했다.¹ 원색에 가까운 화려한 색채로 강렬한 인상을 주는 화면이지만, 나무·집·길·하늘 등 일상에서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화폭에 담은 까닭에 감상자에게 부드러운 감성을 선사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2011년 전시에서는 오랫동안 해왔던 구상표현에서 완전히 벗어나 추상회화를 시도했다.² 표현기법도 기존에 해오던 작업 방식과 다르게 스텐실 기법과 잡지를 이용한 콜라주 기법을 활용했다. 2012년에는 고가구를 쪼개어 만든 나무판에 그림을 그린 작은 크기의 작품으로 소품전을 열기도 했다.

2014년 전시에서는 평소 음악을 좋아하는 감성을 담아 악보를 실크스크린한 작품을 선보였는데, 화려하고 원색에 가까운 다양한 색감으로 면을 구성하고 분할하면서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화폭에 구현하고자 했다.³ 즉 자신의 삶을 위로해 주었던 음악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회화에 담고자 악보를 화면에 배치하는 시도를 한 것이다. 이렇듯 이숙휘는 대전에서 작품 활동



이숙휘, 〈untitled〉, 2011, 캔버스에 혼합재료, 40.9×24.2cm(출처: 『이숙휘 展』, 모리스갤러리, 2011)

1 「이숙휘씨, 대전중구문화원서 세번째 개인전」, 『대전일보』(2010. 5. 18).

2 「2인 2색' 그녀들의 이야기」, 『중도일보』(2011. 6. 28).

3 「색의 중첩과 혼재... 화폭에 녹여낸 '정열' 이숙휘 展」, 『굿모닝충청』(2014. 10. 20).

을 하며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해 생명력 넘치는 다양한 색채를 화폭에 구사한 작품을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

연보

- 1956년 대전 출생
- 1991년 《현대미술대전》에서 우수상 수상
- 1992년 《충청남도미술대전》(천안시민회관) 특선
- 1994~1996년 《형상전》에 참여
- 1995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작가 초대전》(대전, 한림갤러리)
《향토 작가 초대전》(대전시민회관)
- 1995~1999년 《한국미협전》에 참여
- 1996년 《한발 어제와 오늘전》(대전, 한밭도서관)
《4人行》(대전, 오원화랑)
- 1997년 《한발미술의 미래 모색전》(대전시민회관)
- 1997~2002년 《5人行》(대전, 오원화랑)
- 1998년 《개인전》(서울, 가진화랑 / 대전, 오원화랑)
《한발미술의 오늘전》(대전시민회관)
- 1999년 《화랑미술제》(서울, 예술의전당)
- 2002년 《개인전》(서울, 가진화랑 / 대전, 한림갤러리)
《여성작가 초대전》(진주, 경원화랑)
- 2009년 《lee & lee 갤러리 초대전》(미국 LA, lee & lee 갤러리)
- 2010년 《Star&Blue Artist》(서울, 힐튼호텔)
《개인전》(대전중구문화원)
- 2011년 《개인전》(대전, 모리스갤러리)
《미상록과 친구들》(대전중구문화원)
- 2012년 《개인전》(대전, 쌍리갤러리 / 아이비스페이스)
- 2014년 《개인전》(대전, 쌍리갤러리)

장금자(張金子, 1956~)

장금자는 1956년 충청남도 청양 출생으로,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 '대전 '78세대' 창립전 회원이며, 《제1회 금강현대미술제》에 참여했다. 1980년대 'OPUS', 'S.T.' 회원으로 활동하며 《서울현대미술제》, 《에폴드서울》 등의 전시에 참여했고, 현재 한국미술협회, 한국미술천안지부, 충남 여류작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¹ 1979년부터 2013년까지 천안서여자중학교 미술 교사, 교감으로 재직했다.



장금자, 〈Space〉, 2003, 캔버스에 유채, 53×61.5cm
(출처: 『우정의 만남전』, 대전중구문화원, 2004)

장금자는 1980년대 초반 진보적인 미술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작가이다. 1982년 대구 강정의 낙동강변에서 펼쳐진 《강정 현장에서의 이론적 비전》에서 보여준 행위는 자신이 가져온 물건들을 'S'자 모양으로 길게 늘어놓은 후 그 주변을 삽으로 파헤쳐 길을 만들었다. 장금자는 이 작업에서 완성과 미완성 그리고 보존성에 대한 논리가 드러나며, 스스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재해석을 가하면서 행위예술을 연구했다고 한다.² 다른 작품에서는 종이에 스케치를 하고 일부는 천을 콜라주 한 다음, 다시 천과 스케치한 종이를 이어붙여 연장해 나가기도 한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은 천 조직에 인쇄된 문양을 채색해 놓았으며, 어떤 부분은 흑백으로 명암을 처리해 놓은 곳도 보인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당시 '대전 '78세대'가 고민하던 새로운 예술론과 방법론을 보여주었다.

이후 단체전 활동을 이어온 장금자는 2005년 49세에 이르러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교직에 임하며 주로 방학 때 작업해왔던 까닭에 단체전을 통해서 많은 작품을 선보였지만, 개인전은 다른 작가들에 비해 다소 늦은 나이에 열게 되었던 것이다. 이 첫 개인전에 대해 '자연의 소리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다'고 말하는 장금자는 원색을 조합한 화면 구성으로 생동감 넘치는 색채를 화폭에 구현했다.³ 이 색들의 조합은 '공간(space)'이라는 주제로 일관했다.

장금자는 1980~1990년대 지역 미술이 다양하게 발전하는 데 이바지했으며, 대전·충남 소

1 '오푸스(OPUS)'는 1986년 충청지역에서 활동하던 20~40대 젊은 화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미술단체로, 1980년 10월 14일 대전 쌍인화관에서 창립식을 개최했다.

2 조상영,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다빈치기프트, 2009), p. 97.

3 「원색 자연 "눈이 즐겁네"」, 『충청투데이』(2005. 5. 27).

재의 대학을 졸업한 1세대 작가들과 함께 활발히 작품 활동을 이어온 작가이다. 2013년 천안서여자중학교에서 교감으로 정년 퇴임했고 옥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연보

- 1956년 충청남도 청양 출생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78~1980년 《제6회 앙데팡당전》(국립현대미술관)
- 1978~1985년 《대전 '78세대전》(대전문화원 등) 참여
- 1979~2013년 천안서여자중학교에서 근무
- 1980년 《제1회 금강현대미술제》(공주, 금강백사장)
- 1980~1982년 《서울현대미술제》(서울미술회관)
《야투 야회현장전》(공주, 산성공원)
- 1981년 《제2회 금강현대미술제》(대전문화원)
- 1982년 《강정 현장에서의 이론적 비전》(대구 강정, 낙동강변)
《한국현대미술 80년대 조망전》(서울, 미술회관)
《관훈미술관 초대 '예감전'》(서울, 관훈미술관)
- 1983년 《제3현대 미술관 기획 '서울초대전'》(서울, 제3미술관)
《서울국제드로잉전》(서울, 미술회관)
- 1984년 《제1회 한밭회화전》(대전문화원)
- 1984~2015년 《한국미술천안지부전》(천안시민회관)
- 1987~2002년 《남부현대미술제》
- 1989~1995년 《충청 청년작가전》(대전시민회관 / 천안시민회관)
- 1994년 《천안미술의 흐름과 그 가늠전》(천안문화원)
- 1995년 《동행3인전》(천안, 아라리오화랑)
- 1998년 《진주 트리엔나레》(진주시민회관)
- 1999년 《국회한마음 초대전》(국회의사당)
- 2001년 《현대미술PS(Personal Sensibility)1》(천안, 중앙도서관)
- 2002년 《서울방법전》(세종문화회관)
- 2005년 《개인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
- 2009~2011년 《OPUS》(대전, 모리스갤러리)
- 2013년 천안서여자중학교 정년 퇴임. 옥조근정훈장 수훈

장인성 (張寅成, 1956~)

장인성은 1956년 전라북도 익산 출생으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1997년 순천향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1985년 《강원미술대전》에 입선한 후, 의사와 화가라는 두 길을 동시에 걷고 있다.¹

1997년 천안과 대전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고, 본격적으로 회화를 익히기 위해 2002년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미술과에 입학해 서양화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목우회 공모전》과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입선했고 다음 해인 1995년에는 《충청남도미술대전》, 《한국미술문화대상전》, 《월간미술시대 공모전》에서 특선을 차지했다. 그 밖에 《현대미술대상전》과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의 특선 수상 등 많은 수상 경력이 있다. 2022년까지 16회의 개인전과 수많은 단체전에 참여했고 상형전, 한국미술협회, 의사미술회 회원이며, 대한민국미술대전 및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화업 초기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는 자연 풍광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화폭에 담담하게 담아낸 풍경화를 주로 그렸다. 《땅위에는》 연작을 보면, 주로 포착된 풍경은 흰 눈이 덮인 충청도 인근의 겨울 산야인데, 낮은 야산에 걸쳐있는 눈이나 밭이 그림의 주요 대상이다. 이 작품들에는 황토색이 주를 이루는 겨울 들판에 잔설이 덮여 포근한 느낌이 전해지는 설경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특히 색조의 표현에 중점을 두어 땅에서 느끼는 어머니 같은 감성을 드러내기 위해 색감을 가능한 자제하고 중간색을 많이 사용해 모노톤에 가까운 느낌의 풍경을 표현했다.

이렇듯 자연의 생명력을 화폭에 담아냈던 장인성은 2010년대에 들어 화풍의 변화를 시도했다. 피부과 전문의로서 관찰해온 인간의 피부를 그려내고 있는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피부 속



장인성, 《땅위에는》, 2007, 캔버스에 유채, 50.0×72.7cm, 작가 제공



장인성, 《skin-nature》, 2014, 캔버스에 유채, 45.5×53cm, 작가 제공

1 「천안 성모피부과 장인성 원장 '의사·화가 인생' 30년」, 『중부매일』(2017. 5. 7).

세포를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피부 속의 자연이라는 주제로 접근한 《skin-nature》 연작은 선과 면의 분할로 구성된 비(非)구상화로 여겨지지만, 피부 속 조직을 그린 구상화인 것이다.

이처럼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장인성은 1988년 천안에서 피부과를 개원한 전문의로, 현재 병원을 운영하며 작품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연보

- 1956년 전라북도 익산 출생
- 1981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 1985년 《강원미술대전》(춘천문화원)에서 입선
- 1988년 천안에서 피부과 개원
- 1990년 《의인미전》(세종문화회관)에서 최우수상 수상
- 1994년 《충청남도미술대전》(천안시민회관)에서 입선
《오늘의 천안미술전》(천안문화원)
《6인의 감성전》(서울, KOEX)
- 1994~1995년 《목우회 공모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입선
- 1995년 《월간미술시대 공모전》(서울, 갤러리 서호)에서 특선
《한국미술문화대상전》(서울, 아세아미술관) 특선
《대한민국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입선
- 1995~1996년 《충청남도미술대전》(천안시민회관)에서 2회 연속 특선 수상
- 1996년 《제16회 학동인전》(당진, 합덕대건 신협 전시장 / 충청은행)
- 1997년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졸업(의학박사)
《상형전 공모전》(서울시립미술관)에서 입선
《현대미술대상전》(산업디자인개발원 미술관)에서 특선
《대한민국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특선
《제1회 개인전》(천안시민회관 / 대전, 현대화랑)
- 1998년 《개인전》(서울, 공평아트센터)
- 2000년 《개인전》(서울, 대림아트갤러리 / 천안시민회관 / 대전, 타임월드갤러리)
- 2001년 《개인전》(뉴욕, Space World Gallery)
《창형특별기획전》(대전시립미술관)
《서양화15인전》(천안, 갤러리에술마당)
《PS1전》(천안시립도서관)
- 2002년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미술과 입학
《개인전》(서울, 예술의전당)
《월드컵기념 한중국제교류전》(영월문화예술회관)
- 2003년 《개인전》(대전, 오원화랑)

- 2004년
 - 《수원화성아트쇼》(경기문화예술회관)
 - 《화소갤러리 개관초대전》(대전, 화소갤러리)
 - 《개관초대 천안미술 100인전》(천안, 현민아트센터)
 - 《개인전》(서울, COEX 컨벤션홀)
 - 《인사동아트페어》(서울, 갤러리 라메르)
 - 《모던조형전》(수원미술관)
 - 《내포현대미술제》(홍성, 홍주문화회관)
 - 《대한민국 회화제》(세종문화회관)
- 2005년
 -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서양화전공) 졸업
 - 《개인전》(서울, 갤러리 라메르)
 - 《창형전 창립20주년 특별전》(대전, 아주미술관)
 - 《Korea Art Festival》(세종문화회관)
- 2006년
 - 《개인전》(서울, 예술의전당)
 - 《한국구상대제전》(서울, 예술의전당)
 - 《특별기획전-인연》(미국 뉴욕, 스페이스월드갤러리)
- 2007년
 - 《개인전》(서울, 인사아트센터 / O2갤러리)
 - 《한국대표 100인 시와 그림전》(세종문화회관)
- 2008년
 - 《개인전》(대전, 현대갤러리 / 천안, 범원화랑)
 - 《내포현대미술제》(홍성, 홍주문화회관)
 - 《현대미술의 원류를 찾아서-한국작가초대전》(프랑스 Vergeze시, 문화원전시관)
- 2009년
 - 《개인전》(서울, 예술의전당)
 - 《구상과비구상의 어울림전》(대전, 충남대 언어교육원)
- 2012년
 - 《개인전》(인천, 혜원갤러리)
 - 《천안예술의전당 개관기념전》(천안, 예술의전당)
- 2014년
 - 《아,대한민국전》(서울, 인사아트센터)
- 2015년
 - 《대한민국 중심작가초대전》(군포, 문예회관)
 - 《The Flower전》(서울, 미술세계 갤러리)
- 2016년
 - 《예술대학원 서양화동행전》(수원, 경기대학교 박물관)
- 2017년
 - 《개인전》(서울, 미술세계갤러리)
 - 《대전고 개교100주년 미술전》(대전갤러리)
- 2019년
 - 《아트그룹 마디전》(천안, 쌍용갤러리)
 - 《명사미술전》(서울, 미술세계갤러리)
- 2020년
 - 《갤러리JK 개관초대전》(천안, 갤러리JK)
- 2021년
 - 《M갤러리 개관초대전》(천안, M갤러리)
- 2022년
 - 《그림 그리는 의사들전》(대구, 고도아트갤러리)

정세훈 (鄭世薰, 1956~)



정세훈, 〈성산 일출봉〉, 2012, 캔버스에 혼합재료, 181×259cm(출처: 정세훈 작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jshbloge>)



정세훈, 〈상사몽-자작의 꿈〉, 2012, 캔버스에 혼합재료, 181×181cm(출처: 정세훈 작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jshbloge>)

1956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난 정세훈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¹ 《충청남도미술대전》, 《목우회 공모전》, 《대한민국미술대전》 등에서 여러 차례 입선과 특선을 수상했고 2001년 《제21회 대한민국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특선을 받았다. 씨올회, 시형회, 목우회, 파시몽 등의 미술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400여 회가 넘는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익대학교, 선문대학교 등에 출강했으며 강원도립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2000년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장을 역임한 정세훈은 2021년까지 개인전을 24회 열었다.

초기에는 인상주의 화풍의 풍경화를 그렸으나, 점차 대상의 형태를 잘게 쪼갠 사각의 면으로 표현했다.² 정세훈은 형상의 순간적인 변화를 포착해 대상을 작은 사각형으로 표현하는 독특한 점묘법으로, 원색의 화려한 색채가 주를 이루는 작품을 제작했다. 정세훈은 납작한 붓을 사용해 사각형의 작은 단위로 화면 전체를 덮고 난 뒤, 그 위에 사선 방향으로 굵거나 굵어낸 흔적을 더해 마치 화면 위에 비나 눈이 내리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정세훈은 ‘큐브 작가’, ‘사각형의 마술사’로 불린다.³ 특히 계절마다 달리 보이는 자연의 색감을 화폭에 담는 정세훈은 2010년 무렵부터 ‘상사몽(相思夢)’이라는 제목의 연작을 제작하고 있다. 색동저고리의 옷감에서 색감과 모티브를 얻은 이 연작에 대

1 아산갤러리 홈페이지 참조. http://www.asangallery.co.kr/new/artist_detail.asp?intSeq=49

2 김종근, 『마음에 품는 현대미술』(ARTBLUE, 2009), p. 168.

3 정세훈 작가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jshbloge>

해 작가는 “오방색을 통해 한국적 기(氣)를 표현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⁴

이렇듯 정세훈은 사물의 다양한 형태를 평면으로 분할해 사각의 점묘로 재구성하고, 화면을 가득 채운 작은 점과 면을 통해 자연에서 받은 오방색의 찬연한 느낌을 유화 재료로 표현하고 있다. 즉 한국적 색채를 유화 물감으로 표현하는 정세훈은 자연과 깊이 교감을 이루며 완성한 독특한 화면 구성과 색의 조합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를 표출하는 작가이다.

연보

- 1956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과 졸업
- 1982년 《7인전》(천안문화원)에 참여
- 1987~1994년 《신세대전》에 참여
- 1990년 《제20회 충청남도미술대전》(천안시민회관)에서 특선 수상
- 1993~1994년 《의식의 확산전》에 참여
- 1994년 《전국시도 미술대전 수상작가전》
《제31회 목우회공모미술대전》에서 특선 수상
- 1995~1997년 《천안미술의 흐름과 기념전》에 참여
- 1998~2001년 《한국미협전》, 《충남미협전》, 《천안미협전》, 《천안미술작가회전》에 참여
- 1998~2004년 《시형회전》에 참여
- 2001년 《제21회 대한민국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특선 수상
- 2002~2003년 《찾아가는 미술관전》(국립현대미술관)
- 2004년 《동방의 열전-베트남교류전》 / 《포스코 갤러리 초대전》
- 2005년 《Red & Blue전》(서울, 이형갤러리) / 《화가에애전》(천안시민회관)
《메트로전(홍익대미술대학원 동문전)》(서울, 예술의전당)
- 2006년 《인사동의 봄 전》(아트블루기획)
《월드컵기념 코리아-환타지》(독일, 갤러리 Die titat)
- 2007년 《아산갤러리 1주년 초대전》(천안, 아산갤러리)
- 2008년 《개인전》(서울, 인사아트센터 / 천안, 아산갤러리 / 천안시민문화회관)
- 2010년 《개인전》(천안, 지산갤러리)
- 2013년 《세종 호텔 초대전》(서울, 세종갤러리)
- 2015년 《‘자연 그 가을의 속삭임’ 초대전》(서울, 갤러리 바움)
- 2021년 개인전 《생의 기원》(서울, 갤러리 이오)

4 「정세훈 회백 독특한 점묘법 작품 전시」, 『충남신문』(2012. 4. 30).

조용복 (趙鏞福, 1956~)



조용복, 〈작업2010-V〉, 2010, 스테인리스 스틸에 혼합 매체, 80×80cm, 작가 제공

1956년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에서 출생한 조용복은 1977년 여의도고등학교를 나와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제12회~제13회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연이어 특선을 받았으며 충남구상작가회, 대전미술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목원대학교 동문전인 《존재전》과 《Free전》에 참여했으며, 《대전광역시 교사작품전》에도 출품했다. 여의도 고등학교 미술부 동문 모임인 ‘너섬회’에서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신탄진중학교, 대전 새일고등학교(현 대전이문고등학교) 등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조용복은 2001년 ‘대전미술창작마을’ 입주작가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창작 활동을 병행했다.¹ 당시 ‘대전미술교육연구회’ 회장을 맡아 폐교를 활용해 작품 창작에 집중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일미술학교’의 시작에 참여했다.

대학교에 다니던 시기에는 극사실주의 화풍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끊임없이 실험적인 작품을 시도하며 새로운 화풍을 탐구했다. 다양한 재료로 입체감 있는 작품을 창작하면서 작품의 소재로 태극기, 무궁화 같이 한국을 상징하는 이미지, 혹은 전통문화와 관련된 도상을 작품에 활용했다. 시계를 거꾸로 제작해 작품에 활용하거나, 천에 물감을 뿌리는 기법을 시도해 입체감을 표현하기도 했고, 얇은 스테인리스 스틸판을 두드리고 쪼아서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도안화된 이미지를 사진 위에 표현하는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작품에 적용했다. 또 바탕 재료에 스테인리스 스틸판을 사용해 배경에 작품을 마주하는 관람자가 비추어지도록 만들어 작품이 어느 장소에 배치되는가에 따라 바탕화면이 달라지는 효과를 담아내기도 했다.

다양한 창작 방식 중에서 시계와 관련한 작업에 상당히 집중했는데, 시계를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매체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 즉 세월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미지의 하나로 작품에 활용했다.² 실제 시계의 초침과 분침, 시침을 작품에 붙이고 시계처럼 동서남북 4방향에

1 ‘대전미술창작마을’은 대전미술교육연구회에서 개설한 것으로 1998년 대전시 옹호동 옹호분교를 활용해 미술교사들이 작품활동과 전시회를 개최했다. 『제2회 대전미술창작마을작품전: 대전미술창작마을작품전 새천년을 여는 자연 IMAGE』(한림갤러리, 1999).

2 『너섬회 20주년 기념전: 사람·자연 그리고 함께』(아리수갤러리, 2002), p. 18.

3, 6, 9, 12를 배치했지만, 숫자의 위치는 3과 9가 바뀌었고 6과 12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바뀌었다. 숫자는 판화기법인 스텐실 기법을 사용해 이미지로 화면을 구성했는데, 아리비아 숫자뿐만 아니라 한글, 로마자, 화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숫자를 표기했다. 이러한 창작 방식은 스스로 고정적인 사고의 틀을 깨고자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여러 가지 표현기법과 작업 방식을 탐구하며 끊임없이 고민하는 조용복의 창조 정신을 보여준다.



조용복, 〈시간이야기〉, 2022, 혼합매체, 75×90cm, 작가 제공

연보

- 1956년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 출생
- 1977년 여의도고등학교 졸업
- 1983~1986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특선 및 입선
- 1984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개인전》(대전문화원)
《제1회 한밭회화전》(대전문화원)
- 1984~1985년 《청년작가회》(서울)에 참여
- 1984~1986년 《충남구상작가협회전》에 참여
- 1998년 《대전미술연구회》
- 1999년 《제2회 새 천년을 여는 자연 IMAGE》(대전, 한림갤러리)
- 2002년 목원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 2005년 《대덕미술작가 초대 대덕미술 소통전》(대덕문예회관)
- 2010년 개인전 《나만의 시간과 공간여행》(대전갤러리)
- 2016년 《제16회 대전미술창작마을전》(대전교육미술관)
- 2022년 《너섬회 20주년 기념전: 사람·자연 그리고 함께》(서울, 아리수갤러리)

최병규(崔秉圭, 1956~?)



최병규, 〈무제〉, 1985, 한지, 163×180cm(출처: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 대전시립미술관, 2018)

최병규는 1956년 충청북도 출생으로, 1976년 목원대학교 4기생으로 입학했다. 1978년부터 '대전 '78세대' 창립 회원으로 활약했고, 1980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후 삼육고등학교에 재직했다.

최병규는 목원대학교 재학시절 참여했던 《대전 '78세대 창립전》에서 〈174〉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이 작품은 '174cm'라는 자신의 키를 상징하는 제목의 작품으로, 흰 분필과 매직을 이용해 전시장 벽과 바닥에 신체를 드로잉 하려는 계획을 스케치했고, 그 에스키스까지 전시 팸플릿에 그대로 실었다.¹ 마치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의 비트루비우스(Vitruvius) 인체 비례를 흉내 낸 것처럼 벽에는 174cm에 해당하는 원과 사각이 생기고 바닥에는 반원이 그려진 작품이다. 이때의 드로잉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전시장에 부착함으로써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까지 기록으로 남겼다. 이후 최병규가 '대전 '78세대' 전시에 출품한 작품들은 천을 접었다가 펴고 그 위에 먹으로 사각형을 그린다거나, 한지를 접었다 폈을 때 남아 있는 선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들이었다.

1982년 대구 강정의 낙동강변에서 펼쳐진 《강정 현장에서의 이론적 비전》에서 발표한 퍼포먼스에서는 모래 벽돌을 제작해 가지런히 놓아 강가에 길을 만들었다. 그때 모래로 만든 벽돌은 모래의 속성으로 인해 벽돌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단단하게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허물어져 갔다. 최병규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 물질의 덧없음과 문명의 쇠퇴를 보여주고자 했다.

1982년 대구 강정의 낙동강변에서 펼쳐진 《강정 현장에서의 이론적 비전》에서 발표한 퍼포먼스에서는 모래 벽돌을 제작해 가지런히 놓아 강가에 길을 만들었다. 그때 모래로 만든 벽돌은 모래의 속성으로 인해 벽돌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단단하게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허물어져 갔다. 최병규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 물질의 덧없음과 문명의 쇠퇴를 보여주고자 했다.

'대전 '78세대'가 창립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 최병규는 1986년 제9회 전시로 이 그룹의 활동이 마무리되었을 때까지 함께했다. 1992년경 30대 중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작고한 것으로 알려진 최병규는 대전·충남 지역의 실험미술이 태동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예술 형식의 탐구와 발표에 동참했던 작가이다.

¹ 조상영,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다빈치기프트, 2009), p.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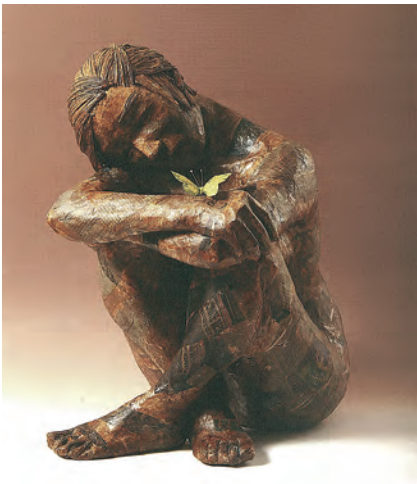
연보

- 1956년 충청북도 출생
- 1978~1985년 《대전 '78세대전》에 참여
- 1979년 《한국미술 청년작가회 초대전》(서울, 청년작가회관)
- 1980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82년 《'82강정 현장에서의 이론적 비전》(대구, 낙동강변)
- 1983년 《겨울·대성리 43인전》(경기도 가평, 북한강변)
 《제3미술관 기획 서울초대전》(서울, 제3미술관)
 《우연히 대한 사물과...》(서울, 제3미술관)
 《부산청년비엔날레》(부산시민회관)
- 1984년 《자화상 23인전》(서울, 제3미술관)
 《대전'84드로잉전》(대전, 반도화랑)
 《겨울·대성리 48인전》(경기도 가평, 북한강변)
- 1984~1985년 《한발회화전》(대전문화원)
 《제3현대미술제》(제주 / 진주)
- 1985년 《제3미술관 개관2주년 기념전》(서울, 제3미술관)
 《대전 '78세대, 쿼터그룹교류전》(진주, 전북예술회관)
 《상황·현존·수용》(서울, 여의도미술관)
 《입체작업 9인전》(서울, 제3미술관)
 《겨울·대성리 101인전》(경기도 가평, 북한강변)
- 1986년 《서울'86행위·설치 미술제》(서울, 아르코스모미술관)
 작고(연도 미상)

황인자(黃仁子, 1956~)



황인자, 〈삶〉, 1997, 나무·동판·동못, 100×70×79cm
(출처: 『황인자 개인전』, 백상기념관, 1997)



황인자, 〈희망〉, 2009, 종이·옷칠·오브제, 45×50×68cm(출처: 『황인자초대전』, 갤러리 서초, 2009)

1956년 충청남도 온양에서 출생한 황인자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했다.

황인자의 초기 작품은 돌과 나무를 소재로 추상적 관념을 조형으로 만든 결과물이었다. 이에 대해 “추상조각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서정성을 띠고 있다. 서술적이거나 설명적인 것이 아니라 시적인 것, 즉 운율과 압축을 통한 메시지의 전달에서 연유하는 특징”라는 평을 들었다.¹ 돌이 태초에 지닌 자연스러운 형태를 간직하도록 과도한 손질을 자제하면서 우연성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의 작품은 비유기적이면서 자연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어진 1997년 개인전에서는 목조와 못을 소재로 활용하는 변화를 보였다. 새로운 소재로 도입하면서 사물과 사물의 조화와 균형을 연결시키는 매개체로 못을 활용하였다. 작품 〈삶〉에서 나무의 속살을 파고들며 촘촘하게 박힌 못들은 그라인더로 갈아낸 동판 표면의 금속성과 나무의 유기질적인 구조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성질을 완화하고 이것들을 연결하려고 한 조형적 고민의 결과이다.²

황인자는 2006년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에서 활동 중인 여류 조각가 엠마 하디(Emma Hardy)를 만나 종이를 주재료로 선택하게 되면서 작품에 획기적인 변화를 보였다. 작가는 작품 소재의 변화에 대해 “나이가 들수록 작업장의 먼지와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무거운 재료로 인해 가끔은 남의 손을 빌려야 했고 재료 구입의 한계 때문에 일을 그만두려 했다. 우연히 만난 종이는 오랜 시간과 공을 필요로 하지만 무공해이며 오로지 손끝으로 완

를 보였다. 작가는 작품 소재의 변화에 대해 “나이가 들수록 작업장의 먼지와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무거운 재료로 인해 가끔은 남의 손을 빌려야 했고 재료 구입의 한계 때문에 일을 그만두려 했다. 우연히 만난 종이는 오랜 시간과 공을 필요로 하지만 무공해이며 오로지 손끝으로 완

1 최태만, 「서정적 추상 조각에의 지향」, 『황인자 개인전』(서울 공평아트센터 / 대전 홍인미술관, 1993).

2 최태만, 「성장과 변화의 추구」, 『황인자 개인전』(대화로 21세기, 백상기념관, 1997).

성하는 정직한 작업이라서 좋았다.”라고 토로하였다.³ 종이작업을 하면서 작가는 큰 주제에 얽매 이기보다 그때그때의 단상을 엮는데,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연결되어 다양한 변화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마무리는 작품의 깊이와 보존 효과를 위해 옷으로 하였다. 작가는 종이에 먹과 물감으로 서정성을 더하여 종이조각을 통해 보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표출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황인자는 전통 한지나 종이를 재료로 사람의 형상과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국내에서는 전 무후무한 독특한 기법의 작업을 하고 있다. 작품을 제작할 때 작가는 가능하면 어떤 의도를 품지 않으려고 한다. 무욕의 자세로 자연스럽게 종이의 거친 층의 표면을 과감하게 다듬으며 종이의 겹 층 속에 숨겨져 있는 미지의 생명성과 조우하게 된다. 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종이의 층이 축적되면서 하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종이조각은 서로 다른 형태의 종이에 내재된 생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공력의 결과물이다.⁴

연보

- 1956년 충청남도 온양 출생
- 198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 1989~1992년 《대전조각가협회전》(대전, 전주)
- 1990년 《제1회 황인자 개인전》(대전, 인테코 화랑) / 《New-Form》(대전, 윤갤러리)
- 1990~1992년 《서울조각회》(서울, 문예진흥원 / 예술의전당)
- 1991년 충남대학교 대학원(조각 전공) 졸업
- 1991~1992년 《한국 여류 조각회전》(서울, 문예진흥원)
- 1992년 《우성 김종영 10주기 추모전》(서울, 예술의전당)
- 1993년 《제2회 황인자 개인전》(서울, 공평아트센터 / 대전, 흥인갤러리)
- 1997년 《제3회 황인자 개인전》(서울, 백상기념관 / 대전, 대학로 21세기)
- 2007년 《Tactile and Art Challenge Show》(Colorado, Louisville)에서 1등상
《It's all about touch》(Colorado, Access Gallery)
- 2009년 《황인자 기획초대전》(서울, 갤러리 서초)
- 2011년 《Art International Zurich》(스위스 취리히, Congress House)
- 2012년 《제8회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세종문화회관 미술관)
- 2013년 《한지박물관 기획초대전》(전주한지박물관)
《제8회 한국, 인도현대작가교류전》(서울, 한벽원갤러리)
- 2020년 《한국여류조각가회 정기전-安息處》(서울, 금보성아트센터)

3 황인자, 「작가노트」, 『제5회 황인자 개인전-종이조각전』(전주한지박물관, 2013).

4 장준석, 「황인자-순수한 조형미로 이루어진 종이 조각」. 아트섬(artsum) 홈페이지. https://www.artsum.co.kr/artist_detail.php?art_id=injah

강위종 (姜渭宗, 1957~)



강위종, 〈길따라 계절은 오고가고〉, 2022, 장지에 수묵담채, 50×73cm, 작가 제공

1957년 대전에서 출생한 강위종은 홍익대학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남대, 충남대, 세종대, 홍익대 등에서 강사를 역임했다. 2000년 《동아미술제》에서 동아미술상을 수상하고 《제19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 부문에서 특선을 수상하며 작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강위종의 작품은 정교하고 깔끔한 화면이 특징이다. 두드러지지 않은 농

촌의 서정적인 풍경을 특유의 정돈된 필치로 담아낸다. 더불어 강위종이 그려낸 화면은 때 묻지 않은 이상향의 명징함을 지녀, 정제되어진 풍광을 통해 이상화된 현실을 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산수화가 시선을 옮겨가며 이루어지는 서술적 장면을 강조함에 반하여 작가의 화면은 포착된 장면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적 요소가 강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무안과 구례, 강화도와 도봉산 등 전국 각지의 답사와 스케치 현장에서 얻은 현장감을 위주로 하는 강위종의 작품들은 수묵담채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선묘 위주의 전통기법으로부터 탈피하여 붓의 터치나 명암 대비효과 및 원근법 등의 서구적 조형기법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술평론가 안영길은 강위종이 추구하는 예술세계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감각



강위종, 〈주전골추경〉, 2022, 화선지에 수묵담채, 68.5×113.5cm, 작가 제공

적 형상의 표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이치를 직관적으로 음미하는 자세에서 찾아야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자연 풍경과의 교감과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인생과 자연을 새롭게 만나 공감하며 즐기고자 하는 작가의 순수한 예술정신이 잘 드러난다”고 보았다.¹ 즉 강위종은 멈추어야 비로소 볼 수 있는 자연 풍경의 이미지를 심미

적 상생의 공간으로 새롭게 창조해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강위종은 “경물을 대하면서 일어나는 생생한 감응을 전달하고, 대지가 전해주는 땅의 기운을 표현하고 싶다”²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경물의 객관적인 표현과 재현의 단계를 넘어 다른 차원의 조형에 대한 희구이자 표현 욕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강위종은 주제적 작가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예술혼을 담아내는 작품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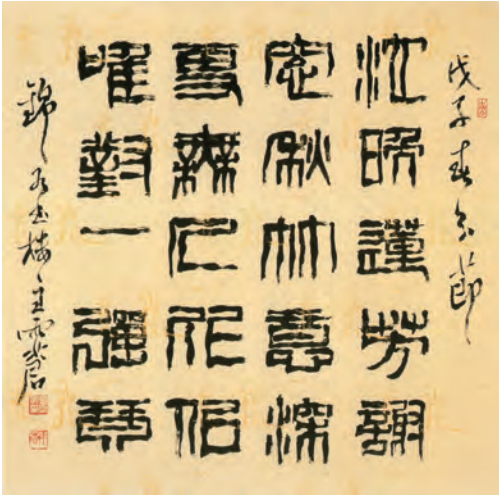
연 보

- 1957년 대전 출생
- 1987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1990년 《한중 현대 수묵화전》(서울시립미술관) / 《한국화 상황모색전》(서울, 문예진흥원)
- 1991년 《한국화의 오늘과 내일》(서울, 위키힐미술관)
- 1996년 《신묵 북경전》(중국 북경, 중앙미술원)
- 1998년 《제1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수상
- 1999년 《MBC 미술대전》 장려상 수상
- 2000년 《제1회 개인전》(서울, 공평아트센터)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수상
《제19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수상
- 2001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신묵회 정기전》(서울시립미술관)
- 2001~2003년 한남대학교 조형대학 미술학부 출강
- 2002년 《동양화 새천년전》(서울, 공평아트센터)
- 2002~2017년 홍익대학교 미술교육원 출강
- 2003~200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출강
- 2004~2008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출강
- 2006년 《한·중 수묵화전》(서울시립미술관)
- 2008년 《세계평화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제18회 회룡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 2010년 《제3회 안전회화 정신전》(서울, 갤러리도올)
- 2013년 《대한민국한국화우수작가전》(울산문화회관)
- 2016~2018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출강
- 2017년 《현대미의식의 중심모색》(추계예술대학교 갤러리)
- 2018년 《제9회 개인전》(서울, 인사동H갤러리)

1 2018년 갤러리 H 강위종 전시 소개 관련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gallh/221311496473>

2 김상철, 「이상화된 현실경-강위종의 작업에 대하여, 강위종작품전 : 자연과의 대화」, 『강위종 작품전』(갤러리 상, 2003).

김성경 (金聖卿, 1957~)



김성경, 〈낙천(樂天) 백거역(白巨易) 선생시〉, 2008, 69×69cm, 작가 제공

호는 우창(雨蒼). 1957년 충청남도 금산에서 태어난 김성경은 1990년 《대전·충남 서예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1995년 《충남서예대전》에 초대작가로 참여하면서 지역 서예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듬해 1996년 《대전시서예대전》에 초대작가로 참여했고, 2003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초대작가가 되었다.

2017년부터 한국서예협회 충남지부의 지회장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고양시 행주대첩 전국 휘호대회》(2020), 《추사 김정희선생 전국 휘호대회》(2022)와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997년에는 충청남도의 기념물 제83호인 금산 백령성의 현판을 제작했고, 2009년에는 용화리마을 비석 글씨와 천태산 정상 표석을 제작했다. 이 외에도 같은 충남 금산 출신이자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극작가 임희재(任熙宰, 1919~1971)가 작사한 「아씨」의 노래비에 가사를 썼는데, 이는 전국 각지에 세워진 노래비를 엮은 『한국의 노래비』(2018)에 수록되었다.¹

연보

- 1957년 충청남도 금산 출생
- 1990년 《대전·충남 서예대전》 대상
- 1995년 《충남서예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서예대전》 입선
- 1996년 《대전시서예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서예대전》 입선
- 1997년 《대한민국서예대전》 입선
충남 금산 백령성(栢嶺城) 현판 제작

¹ 심재영·이지환, 『한국의 노래비』(나무향, 2018).

- 1999년 《대한민국서예대전》입선
- 2003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초대작가
- 2004년 《한중서법교류전》(중국 대련)
- 2005년 《대한민국서예대전》특선
- 2006년 《대한민국서예대전》특선
- 2007년 《대한민국서예대전》초대작가
- 2009년 《아름다운 한글전》(독일문화원)
 용화리마을 비석 글씨 제작
 천태산 정상 표석 제작
 임희재 노래비(충남 보령) 제작
- 2017년~현재 한국서예협회 충남지회장
- 2020년 고양시 행주대첩 전국휘호대회 심사위원
- 2021년 세계 전북비엔날레 출품
 《광개토왕비 필혼을 깨우다》(서울, 예술의전당)
- 2022년 추사 김정희선생 전국휘호대회 심사위원

김영진 (金榮珍, 1957~)



김영진, 〈흔적 98-11〉, 1998(출처: 『한발미술의 오늘 전』, 대전시민회관, 1998)



김영진, 〈흔적〉, 2000(출처: 아코예술기록원 www.art500.or.kr)

1957년 부산에서 출생한 김영진은 어릴 적부터 흙을 가지고 놀기 좋아해 흙으로 집이나 동물 형상들을 빚었다. 작가는 흙을 주무르며 하나의 형상보다는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¹ 동아대학교 응용미술학과와 동대학원에서 공예교육을 전공한 작가는 현재 **우송대학교 영상·시각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작가는 1997년 캐나다 여행에서 돌아와 자신이 그동안 했던 작업에 회의를 느끼고 한동안 작품을 하지 않았다. 이때 역사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으며 유럽 등 외국의 작품에 현혹되어 그들의 문화를 답습하던 자신을 반성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문양에 시선을 돌렸다. ‘흔적’이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전통 문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 즉 재해석하여 우리 민족의 정서를 표현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를 “공간에 부조된, 지난 역사의 흔적 찾기”라고 표현하는 작가는 벽돌, 떡살과 기와 막새에 연꽃과 실구름을 새겼던 선조의 정신을 반영하여 단청, 꽃살, 외당 등 전통적인 것들이 한데 어우러진 작품을 선보였다.

1998년 작품 〈흔적 98-11〉에서 정사각형의 작은 도자편에 연꽃, 구름문 등 전통 문양이 분장과 상감기법으로 온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새겨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균일한 크기에 독창적인 문양 새기는 작업을 주로 선보인 작가는 전통 문양에 머물지 않고 상형문자 등 다양한 모티브를 작품에 반영하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1년 갤러리 프리즘에서의 전시

¹ 김영진, 「흙에 새긴 시간의 무늬」, 아코예술기록원 홈페이지. <https://www.art500.or.kr/blog/yjkim.do?>

에서는 균일한 크기의 도편에 전통문양을 담은 이전과 달리 깨지거나 각기 크기가 다른 도편을 정형 또는 비정형의 형태로 연결시켜 또 다른 흔적으로 선보였다. 전통적인 문양을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작가는 2006년 전시에서 소반, 창호 등 평면에 도편을 배치하는 방법에서 도편을 천정에 줄로 매달아 놓거나 탁처럼 쌓는 등 보다 입체적인 설치작업을 제시하였다.

2014년 개인전에서 작가는 도편을 활용한 설치작업 중심에서 생활용기로서의 도자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다. 작가는 “그릇이 가진 원래 목적에 충실하고자 최대한 얇고 가볍게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쓰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고 말한 바와 같이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²

연 보

- 1957년 부산 출생
동아대학교 응용미술학과 졸업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공예 교육 전공) 졸업
- 1996년 《한국 도예가 터키 초대전》(터키 앙카라, 국립미술관)
《한국 도예가 이집트 초대전》(이집트 카이로, 현대미술관)
- 1997년 《이태리 국립박물관 초대전》(이태리, 로마박물관)
《대전도예가회전》(미국 뉴욕, Cast Iron Gallery)
《한발 어제와 오늘전》(대전시립미술관)
- 1998년 《대전도예가회전》(대전, 평송수련원)
- 1999년 《제1회 김영진 도예전》(대전, 동양타임월드 갤러리)
《한국공예가협회전》
- 2000년 《제2회 김영진 도예전》(부산 현대아트홀)
《21세기 한·일미술교류전》(대전시립미술관)
《U.B.C 초청 개인전》(캐나다 밴쿠버, U.B.C. Asian Center)
《제14회 충남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역임
- 2001년 《뉴질랜드 한인회초대전-한국의 이미지전》(뉴질랜드 오클랜드, NorthShore Event)
《김영진도예전》(대전, 갤러리 프리즘)
- 2002년 《초청 개인전》(미국 뉴욕, 인디펜던트 아트 프로젝트 스페이스)
《김영진 도예전》(일본 시가현, 갤러리 유 / 미국 뉴욕, SOHO)
- 2003년 《제7회 김영진 도예전》(서울, 관훈갤러리)
- 2004년 《제8회 김영진 도예전》(부산, 롯데화랑)

2 「김영진 도예전, 도자기에 사랑의 온정을 담다, 「충청데일리」(2014. 6. 9).

- 2005년 《김영진 도예전》(서울, 세종문화회관)
《김영진 도예전》(미국 뉴저지, F.G.S. Korea Community Center)
《환경미술협회전-인간과 환경전》(대전, 연정국악문화회관)
- 2006년 《김영진 도예전》(대전, 대청문화전시관)
《김영진 초대개인전》(울산, 현대미술관)
- 2010년 《김영진 도예전》(대전, 거산갤러리)
- 2014년 《김영진 도예전 - Ceramic》(대전, 모리스갤러리)
- 2016년 《대전도예가회전》(대전서구문화원)
- 2017년 《블루 도큐멘타전》(대전중구문화원)
- 2018년 《시나브로전-먹과의 향유전》³(대전중구문화원)
- 2021년 《아듀2021 대전중견작가 20인 초대전》(대전갤러리)

3 '시나브로회'는 《보문미술대전》 초대작가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김해민 (金海敏, 1957~)

1957년 대전에서 출생한 김해민은 대전 공업대학 시각디자인과에 들어갔으나 디자인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다. 1980년대 초 군 제대 후 비디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지인을 만나 개인용 캠코더 카메라를 처음 접하며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비디오(video)’의 메커니즘(mechanism)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김해민, 〈신도안〉, 1994, Media Installation, 작가 제공

1987년 《제1회 대전트리엔날레》에 일종의 ‘미디어 퍼포먼스’ 작품인 〈이미지 섹션 I〉을 선보인 김해민은 1988년과 1989년 〈이미지 섹션 II〉, 1990년 〈이미지 섹션 III〉 등 《이미지 섹션》 연작을 발표했다. 〈이미지 섹션 I〉은 피아노 건반 위에 다섯 대의 비디오 캠코더를 연달아 놓고 피아노 연주자가 연주하는 장면을 무대 위에 놓인 다섯 대의 TCV 모니터로 전송하는 ‘미디어 퍼포먼스’다. 당시 비디오로 작업하는 작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보를 교환하거나 논의할 동료조차 없는 상황에서 김해민은 혼자서 비디오 아트의 개념을 정의하고, 결정하며 작업을 했다고 한다.¹

1980년대 말부터 김해민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작업한 주제 중 하나는 ‘샤머니즘(shamanism)’이다. 〈초생달과 그믐달〉(1991), 〈신도안 I〉(1994), 〈신도안 II〉(1996), 〈발광으로부터의 발광〉(1997), 〈부조리한 알리바이〉(1999), 〈조상에 관하여〉(2002) 등의 영상작품은 무당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세계, 저승과 이승, 초월 공간과 현실 공간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듯이 미디어아트는 무당처럼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그의 예술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다.²

작가는 작품을 구상할 때 모니터로 설치할 것인지, 프로젝트로 할 것인지 매체를 먼저 구상한 후 작업을 하는데, 설치작품 〈TV 망치〉, 〈RGB 칵테일〉, 〈발광으로부터의 발광〉은 모두 입체적인 형태를 갖춘 영상설치 작품들이다.³ 1992년, 대전 현대화랑에서 선보인 〈TV 망치〉(미디어 설치, 컬러TV, 사운드, 8분 20초)는 김해민이 자신의 작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1 「AliceOn 김해민과 인터뷰에서」 <https://aliceon.tistory.com/2697>

2 「AliceOn 김해민과 인터뷰에서」 <https://aliceon.tistory.com/2697>

3 「AliceOn 김해민과 인터뷰에서」 <https://aliceon.tistory.com/2697>



김해민, 〈TV망치〉, 1992, 모니터 1대, DVD플레이어 1대, Image Control Device 1대, media Installation, 10min 40sec, 작가 제공.

작품이다. 백색의 받침대 위에 TV 모니터를 마치 조각 작품처럼 설치한 이 작품에는 청명한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이 모니터를 통해 상영된다. 그런데 관객이 TV 모니터 앞에 다가서면 갑자기 파란 하늘에 망치가 등장하고, 무언가 내려칠 듯 관객을 향해 움직인다. 그러다 ‘팡!’ 소리와 함께 브라운관을 내려치고 TV 모니터가 꺼진다. 깜짝 놀란 관객 앞에 다시 켜진 TV 화면에는 흙집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작가는 키네틱아트처럼 받침

대 위의 TV 모니터를 움직이게 하는 기계장치를 만드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한다. 이 작품으로 미술계의 주목을 받은 김해민은 10년 후인 2002년 작품을 재제작하였다. 김해민은 영상의 입체화, 즉 현재 공간에 실제화, 물질화시켜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TV망치〉를 통해 이름이 알려진 후, 독일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6개월간 독일에 머물면서 다양한 작가들을 만난 김해민은 자신의 작업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된다. 일명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로 불리는 백남준의 계보를 잇는 김해민은 아날로그아트와 디지털아트를 넘나들면서 작업하는 1세대 미디어아트 작가다.⁴ 19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35년간 인간의 삶과 죽음, 남북분단, 종교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제작해온 그의 미디어아트는 ‘시각적’ 메시지를 넘어 ‘촉각적’ 맛사지, 기존의 오감에 ‘예술적 감각’인 영감을 접목시킨 ‘육감 맛사지(The Sixth Sense Massage)’를 구현한 작가라는 평가를 받는다.⁵

1994년 미건화랑에서 《MEDIA INSTALLATIONS》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연 이후 수화랑, 금호 갤러리, 일민미술관, 도쿄 니시오기화랑, 아라리오 뮤지엄 등에서 미디어 설치 개인전만도 수차례 열었으며, 수많은 단체전에 참여했다.

연보

- 1957년 대전 출생
- 1987년 《제1회 대전 트리엔날레》(대전시민회관)⁶
- 1989년 《한·일 퍼포먼스 페스티벌》(서울, 동숭아트센터)
- 1991년 《금강에서의 국제 자연 미술제》(공주, 문예회관) / 《NAN-DONG 전》(일본, Q화랑)
- 1992년 《GAIA 국제 설치 작가 심포지움》(독일, 겔슨 킬슨)

4 류병학, 『The Sixth Sense Massage』(KAR, 2021), p. 17.

5 류병학, 위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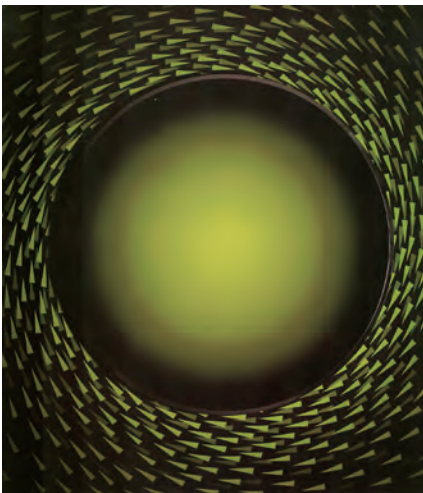
6 작가는 1987년 대전트리엔날레에 참여한 것이 작가로서의 공식적인 데뷔라고 말한다(MMCA작가와의 대화 중 2021. 10. 14).

- 1993년 《FILM FOR ART Video festival》(독일 Essen) / 《박람회 외연》(대전, 흥인화랑)
《제5회 '후쿠이' 국제 비디오 비엔날레》(일본 후쿠이, Fine art 미술관)
- 1994년 개인전 《MEDIA INSTALLATIONS》(서울, 미건화랑) / 《'94 과학+예술》(서울, COEX)
- 1996년 《Art at Home》(서울, 서미 갤러리) / 《IZUMIWAKU Project》(일본 도쿄, izumiwaku)
- 1997년 《제2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삶의 경계》(광주시립미술관) / 《SCOPE》(대전문화원)
- 1998년 《사진의 시각의 확장》(국립현대미술관) / 《일상의 신화》(경주, 선재미술관)
- 1999년 《전환의 봄》(대전 시립 미술관) / 《도시와 영상》(서울시립미술관)
- 2000년 《Media City In Seoul 지하철 프로젝트》(광화문역사)
- 2001년 《Excess' Multimedia Art Asia Pacific》(호주, Brisbane Powerhouse)
《상어 비행기를 몰다》(서울, 일주아트센터) / 《Science In Art》(대전시립미술관)
- 2002년 《Serendipity' Multimedia》(독일 쾰른, 일본문화원)
- 2003년 《다큐멘터리 비디오》(서울, 일민 미술관) / 《Homage A' PAIK》(서울, Space C)
- 2004년 《Reality Check》(대전시립미술관) / 《그 너머를 보다》(서울, Space C)
- 2006년 《부산 비엔날레 바다 미술제》(부산, 해운대 SK파빌리온) / 《차도살인지계》(서울, 카이스갤러리) / 《Color of Narrative》(서울, 인사아트사이드갤러리)
- 2007년 《Animamix 비엔날레》(중국 상해, 현대미술관) / 《역의 정점》(서울, 코리아나미술관)
《Video Dumbo 11th Video Art Festival》(미국 뉴욕, Dumbo)
- 2011년 《육감 맛사지》(서울, 아트센터 나비) / 《포스트 네이처》(청주, 우민아트센터)
- 2012년 《'오' 미디어 아트》(오산시립미술관)
《여기 사람이 있다: 한국 근현대 미술특별전》(대전시립미술관)
- 2013년 《The Flag Station》(서울, 쿤스트 독) / 《디지털 퍼니처》(서울, 아트센터 나비)
《정전 60주년' 기념 특별전 :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서울, OCI미술관)
- 2014년 《NeMaf : 서울 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서울, 미디어극장 아이공)
《미래는 지금이다》(국립현대미술관) / 《지록위마(指鹿爲馬)》(서울, 누크갤러리)
- 2015년 《The future is now》(이탈리아 로마, 국립 21세기 현대미술관)
- 2016년 《ACT Festival 2016' Heterotopia: 익숙한 세계의 다른 이름》(광주, ACC)
《홀리스의 도시》(서울, 아르코미술관) / 《김해민 개인전 "황!"》(서울, 아라리오뮤지엄)
- 2017년 《서울사진축제: 국가경찰의 공동체》(서울, 북서울미술관)
《안평대군의 비밀정원》(서울, 자하미술관) / 《Video Portrait》(서울, 토탈미술관)
- 2018년 《OVNi Video Festival 2018》(프랑스 니스, OVNi in Hotel)
《Try Again Try : 한국 퍼포먼스 아트 50년 기념전》(제주현대미술관)
- 2019년 《7090 한국 비디오 아트: 시간 이미지 장치》(국립현대미술관)
《미디어 핑크: 믿음 소망 사랑》(서울, 아르코미술관)
《미디어시네마 : 차이와 반복》(국립현대미술관)
- 2020년 《낮선 전쟁》(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100 Collective Signatures》(대구미술관)
- 2022년 《김해민 개인전 -'반색' 또는 그런기색》(서울, UM갤러리)
《백남준효과》(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박동교 (朴東敎, 1957~)



박동교, 〈설화〉, 1995, 도태+칠, 30×30cm, 작가 제공



박동교, 〈꿈〉, 1999, 목재+칠, 60cm×60cm, 작가 제공

1957년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출생한 박동교는 3살 되던 해에 논산으로 이주해 청소년기를 보냈다. 강경상업고등학교 미술부에 참가하면서 처음 상업미술을 접하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한남대학교 디자인학과에 입학해 목공예와 그래픽디자인, 제품디자인을 전공하였으나 다양한 전시에서 목공예 작품을 주로 선보였다. 대학 졸업 후 대전 신일여자상업고등학교 미술교사로 근무하며 1985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목공예 작품 〈바람〉으로 전체 대상을 수상하였다. 1992년 10여 년 재직하던 학교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해 칠공예를 전공하였다. 교직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로 작품 활동에 매진한 결과 1993년 일본에서 2년마다 열리는 《이시가와 국제칠공예디자인전》에서 목칠공예로 제작한 〈화병〉으로 최고 영예인 내각 총리대신 상을 수상하였다. 작가는 1996년부터 한남대학교 아트&디자인 테크놀로지대학 융합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목재에 칠을 더한 목칠공예 작품을 제작한 작가는 대학원에 진학해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칠공예표현기법¹⁾’을 연구하였다. 그래픽디자인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에어브러시를 칠공예에 적용한 실험적인 작업을 통해 칠공예 제작 기법의 현대화 가능성을 선보였다.²⁾ 작가는 나전, 계란껍질 등의 전통적이며

보편적인 매체 이외의 소재들을 칠공예에 접목해 원형에서 사각형에 이르는 기초 조형 형태를 응용한 패턴과 그물무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였다.

1995년 작품 〈설화〉는 1,050℃로 초벌구이 한 도자기에 칠을 6~7회 반복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다음 에어브러시를 이용해 흰색을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칠하고, 1차 마스킹테이프

1 박동교, 「Air brush를 이용한 칠공예 표현기법 연구」(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2 민혜란, 「박동교 개인전에 부쳐」, 『박동교작품전』(한신코아아트홀, 1994).

로 사각의 패턴을 만들어 붙이고 또 다른 색을 칠하고, 2차 마스크테이프를 붙인 다음 균청색으로 마감 칠을 하고 테이프를 떼어내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 다시 투명한 칠을 3~4회 하고 사포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광을 내어 제작하였다. 작가는 1999년 작품 <꿈>에서 입체적인 형태에서 영역을 확대해 평면적인 목재 바탕에 칠로 기하학적인 문양을 더한 새로운 시도를 보였다. 박동교는 전통적인 도자제작 방법에 머물지 않고 그래픽디자인의 에어브러시를 적용하는 바와 같이 여러 기법을 응용해 용기로서 또는 장식품으로서 활용 가능한 독창적인 도자기를 제작하고 있다.

연보

- 1957년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금곡리 출생
- 1959년 충청남도 논산으로 이주
- 1983년 한남대학교 디자인학과 졸업
- 1985년 《충청남도미술대전》 목공예 (바람)으로 전체 대상
- 1986~1987년 《대한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 1992년~현재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 / 《충남산업디자인협회 회원전》
- 1993년 《일본 이시가와 국제칠공예디자인전》에서 대상(내각 총리대신상)
- 1993~1995년 제11대 한국미술협회 대전시지회 사무국장 역임
- 1994년 《개인전》(대전, 한신코아아트홀) / 《한·중칠예교류전》(한국문예진흥원)
- 1995년 《개인전》(대전, 교보아케이드갤러리) / 《개인초대전》(서울, 갤러리-티)
- 1996년 한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목칠공예전공) 졸업
《중·한 칠예교류전》(중국 북경, 중국미술관)
- 1996년~현재 한남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교수 재직 중
- 1998년 《한·일현대칠예교류전》(대전, 일본 교토)
- 1999~2004년 제13~14대 한국미술협회 대전시지회 공예분과위원장 역임
- 1999년~현재 《대전공예가협회전》(대전, 갤러리 호텔롯데 / 타임월드갤러리 / 대전시청 전시실)
- 2000년 《개인전》(대전, 대덕호텔 롯데갤러리)
- 2000~2008년 대전 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 심사위원장
- 2005~2007년 제15대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부지회장
- 2006년 《국제아트페어 개인부스전》(대전시립미술관)
- 2007년 《한국칠문화협회전》(대전, 대청호미술관)
- 2008~2011년 제16대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지회장 역임
- 2009년 《디아트갤러리 기획초대전》(대구, 디아트갤러리)
- 2016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 2017~2020년 《제26~29회 대전디자인공모전-초대작가전》(대전시청 전시실)

박동윤 (朴東潤, 1957~)



박동윤, 〈애정이 깃든 사물들〉, 2008, 캔버스에 한지·유채, 30×30cm(출처: 「서양화가 박동윤.. '날', 거리 두기와 낯선 침범」, 『이코노믹 리뷰』, 2017. 9. 22)

1957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난 박동윤은 1980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1985년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계성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이후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조교를 지냈으며, 한국교원대학교, 홍익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에 강사로 출강했다. 1990년부터는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며 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2000년 미국 필라델피아 비버 칼리지(Beaver College)에서 대학원 과정(회화전공)을 수료한 후, 2012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그로리치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후, 30여 회에 이르는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한국현대판화가협회, 서울미술협회, 그룹 'WAVE' 등의 미술 단체 회원으로 활동했고 '오리진회화협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단원미술제, 경인미술대전, 서울미술대상전, 관악현대미술대상전, 형상미술대전 등에서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정서를 오랫동안 탐구해온 박동윤은 1987년 첫 번째 개인전에서 흑연 가루를 덧입힌 캔버스와 철판을 합친 작품들을 통해 심도있게 물질성을 탐구하는 회화 작업을 시도했다. 이후에는 판화에 매료되어 판화가로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선보였다. 박동윤의 판화 작업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되는데, 초기에는 화살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성에 주목하여 나무로 된 과녁이나 창틀 위에 등등 떠 있는 화살의 모습을 정밀하게 재현한 시리즈를 제작했다.

이후 1995년부터 향아리, 태극문양, 한자, 꽃문양 등 전통적인 소재를 주제로 삼은 연작을 발표하며 한국적인 정서가 드러나는 판화를 제작했다. 1999년 작품에 처음 '애정이 깃든 사물들(Affectionate Things)'이라는 제목을 사용한 뒤, 줄곧 이 제목을 쓰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다시 회화로 전향한 박동윤은 사실적이고 정확한 묘사를 바탕으로 삼았던 기존의 판화 작업과는 다른 모습을 선보이며 새로운 예술 세계를 구축해나갔다. 전통적인 재료인 한지를 캔버스에 덧입히는 '한지 콜라주' 방식의 제작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한국적인 미감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즉 2000년대 초반부터 한지를 덧입힌 캔버스 위에 유화를 사용한 다양한 크기의 사각형 한지들이 전면에서 색면으로 채워진 화면을 구성한 것이다.

2007년부터는 한지를 잘라서 화면 위에 입체적이고 두께가 있는 ‘날’을 만들어 세우는 방식으로 발전시킨 독특한 조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작 〈애정이 깃든 사물들〉은 캔버스 위에 한지를 여러 겹으로 붙이고, 그 위에 다양한 색상의 유화 물감으로 각양각색의 사각형들을 이어 놓은 작품이다. 크기와 모양이 다른 원색의 사각들이 다양한 구성으로 서로 대비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은 자투리 천을 이어붙여서 만드는 전통 조각보를 연상케 한다.

‘한지작가’로도 불리는 박동윤은 2020년 개인전에서 자신의 예술철학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 “현대인들이 시각적으로 느끼는 색감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 내 작업의 주요 화두다. 색채의 다양한 표현이 회화적 담론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인데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철학을 닮은 형상성을 찾아내는 것이 나의 예술목표이기도 하다.”¹ 이처럼 오랜 기간 교직과 작품활동을 병행해온 박동윤은 2023년 2월의 정년퇴임을 앞두고 2022년 12월 서울 그림손 갤러리에서 정년기념 작품전을 열어 그동안의 발자취를 정리했다.²



박동윤, 〈애정이 깃든 사물들 201513〉, 2015, 캔버스에 한지·유채, 150×100cm(출처: 『박동윤 회화전』, 서울 갤러리 그림손, 2017)

연보

- 1957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76~1989년 《앙데팡당전》(서울, 국립현대미술관)
- 1979~1983년 《중앙미술대상전》(서울, 국립현대미술관)
- 1980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1983~1984년 《울림미전》(공주문화원)
- 1983~1987년 《서울현대미술제》(서울, 미술회관)
- 1984~1986년 계성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85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졸업
《제5회 한국현대 판화가 협회 공모전》 특선 수상
《그룹 'WAVE'전》(서울, 관훈미술관)
- 1986년 《제6회 한국현대 판화가 협회 공모전》 우수상 수상

1 「서양화가 박동윤 “한국적인 요체 그 형상성 표현이 내 예술의 목표”」, 『인사이트코리아』(2020. 10. 8).

2 「(정년기념회집·도록 발간) 서양화가 박동윤 교수 ‘애정이 깃든 사물들’ 연작 발자취」, 『이코노믹 리뷰』(2022. 11. 26).

- 1986년 《오리진 회화협회전》(서울, 미술회관)
- 1986~1989년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조교
- 1986~1992년 목원대학교 회화과 강사로 출강
- 1987년 《개인전》(서울, 그로리치화랑) / 《'87 충남 오늘의 만남전》(대전문화원)
- 1989년 《제7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 1989~1990년 부산여자대학교 미술학과 강사로 출강
- 1989~1991년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강사로 출강
- 1989~2003년 홍익대학교 회화과, 판화과 강사로 출강
- 1990년 《개인전》(서울, 윤갤러리 / 대전, 오원화랑)
- 1990~현재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
- 1991년 《'91 현대 미술의 단면전》(서울, 미술회관)
- 1992년 《개인전》(서울, 강남화랑)
- 1993년 《한국 현대판화 40년전》(과천, 국립현대미술관)
- 1995년 《개인전》(서울, 예맥화랑)
《'95 오늘의 한국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
- 1996년 《한국 현대 미술 '현재와 미래' 전》(서울,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 1997~2004년 《개인전》을 매해 개최
《현대 판화의 조명전》(서울, 갤러리 도울)
- 1999년 《그룹 'WAVE' 그 이후전》(서울, 공평아트센터)
- 2001년 《한·중 국제판화교류전》(중국 하얼빈, 흑룡강성미술관)
- 2004년 《한국중진작가 초대전》(서산, 당림미술관)
- 2005년 《서울미술협회전》(서울시립미술관)
- 2006년 《개인전》(서울, 예술의전당)
- 2007년 《개인전》(서울, 예술의전당 / 서울, 인사아트센터)
《공주국제미술제》(공주, 임립미술관)
- 2008년 《개인전》(벨기에 겐트, Flanders EXPO)
《개인전》(스위스 제네바, Geneva Pale EXPO)
- 2008~2009년 오리진회화협회 회장 역임
- 2009년 《개인전》(서울, 갤러리호 / 서울, 갤러리아트사이드)
- 2010년 공주교육대학교 학생지원처장 역임
- 2017년 《개인전》(서울, 갤러리 그림손)
- 2020년 《개인전》(안양, 은유갤러리 / 공주, 이미정갤러리)
- 2021년 《개인전》(서울, 갤러리H)
- 2022년 《개인전》(서울, 갤러리 그림손)

박선영 (朴宣映, 1957~)

박선영은 1957년 대구 출생으로 호성여자대학교(현 가톨릭대학교) 회화과와 경북대학교 대학원 윤리학과를 졸업한 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조형미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대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전공 과정을 수료했다. 1980년 결혼하면서 대전에 정착한 박선영은 2001년 대전 타임월드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고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 《코리아아트페스티벌 초대작가전》, 《한국작가 100인 초대전》, 《대한민국 원로·중진 작가 100호 초대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대전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했고 대전미술협회 여성분과위원장, 안전기념사업회 대전 충남지회 감사, 환경미술협회 이사 등을 맡은 바 있다. 2010년 한국예총 주관 예술문화상, 2013년 대전예술인 시장상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4회 입선했고 《대전시미술대전》에서도 4회 특선을 받았다. 대전보건대학, 김천대학에 강사로 출강했고 대전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대전시미술대전 운영위원을 비롯해 국전, 신미술대전, 대전시미술대전, 안전미술대전, 보문미술대전 등의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처럼 박선영은 다양한 미술 단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첫 개인전 이후 거의 매해 개인전을 열어 현재까지 31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화업에 집중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 선보인 작품들을 보면 인상주의에 바탕을 두고 색채와 조형공간을 탐구한 회화였다.¹ 이는 한남대학교에서 「색채에 의한 조형공간 연구」로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했던 만큼 색채학에 관한 관심과



박선영, 〈그해 10월〉, 2002, 캔버스에 유채, 97×145.5cm(출처: 『박선영』, 대전 오원화랑, 2003)



박선영, 〈행복을 노래하다5〉, 2019, 혼합매체, 40.9×53cm(출처: 『창형전』, 대전 레드엘 갤러리, 2019)

사유의 결과가 담긴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섬세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구사하지 않으면서도 간략한 형상만을 활용해 작품에서 현장감을 획득하고자 했다.

이후 개인전을 열 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작품을 선보이는 박선영은 《행복을 노래하다》, 《역사의 저편》, 《염원》, 《지나간 자리》 등의 연작을 통해, 색과 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서정적인 추상화를 창작했다. 최근 들어서는 원시성을 지닌 이미지와 침단 회로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다소 상반된 형태를 하나의 화면에 구성해 나가면서 독특한 추상의 세계를 보여준다.

연보

- 1957년 대구 출생
- 1994~2002년 대전보건대학, 김천대학 출강
- 2001년 《개인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
- 2001~2004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연속 4회 입선
- 2002년 《개인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
- 2003년 《개인전》(대전, 오원화랑)
- 2004년 《개인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 / 서울, 코엑스)
- 2007년 《새천년의 한국성전》(대전, 시청전시실)
- 2008년 《개인전》(대전, 갤러리소호 / 일본 도쿄, 갤러리 호시)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
 《한일 국제 회화제》(세종문화회관)
- 2009년 《개인전》(서울, 인사아트프라자 / 중국 북경, 관음당 한국화랑)
 《감성지평전》(대전, 정부청사 특별전시관)
 《현대갤러리 개관 25주년 기념 초대전》(대전, 현대갤러리)
- 2010년 《개인전》(필리핀 마닐라, 국립현대미술관 / 서울, 이형아트센터)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주관 예술문화상 수상
- 2011년 《개인전》(대전, MBC방송국 M갤러리 / 대전, 아트존갤러리)
 대전미협 주관 공모상 수상
- 2013년 안전기념사업회 충남·대전지회 주관 감사장 수상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주관 대전시장상 수상
- 2019년 《2019 대전국제미술교류회》(일본 삿포르, Maruyama Campus)
 《창형전》(대전, 레드엘 갤러리)

1 『박선영』(대전 오원갤러리, 2003).

상성규 (尙成圭, 1957~)

1957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난 상성규는 제도권 밖에서 그림을 시작하면서 온전히 독학하였다. 후소회, 중앙미술대전, 동아미술제 등 다수의 주요 미술대전에서 수상하면서 화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였다. 이에 대전한 국화회, 후소회, 가톨릭미술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상성규는 40년 가까이 공주 반포면의 작업실에서 자연을 벗 삼아 작업을 하고 있다. 동양화 작업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캔버스에 유화물감 작업부터 테라코타 설치 미술 작품까지 진행하며 형식과 방법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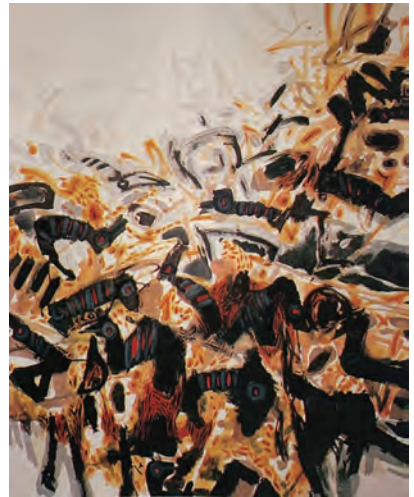
상성규는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전통적 산수화에 심취하여 인물에 대한 리얼리티 한 표정들을 스케치하는 과정에 접어들었다. 한편 점차 실경 산수나 도회의 인간상들에 대한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80년대 중후반부터 89년까지 강렬한 색채와 형상의 분해가 일기 시작하며 재료적 차원의 다원화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상성규는 자연의 거대한 모습을 하나의 감성으로 읽고자 하며 본격적으로 자연에 관심을 가졌다. 2000년 이후로는 물이나 불, 바람소리 등의 미세한 자연분자들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치밀한 관찰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바람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바람의 활발한 역동성을 시각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형상과 비형상, 물질과 비물질, 다양한 마티에르의 색채안료들과 수묵 등의 인식과 방법론이 교차되며 다양한 화면을 구축하였다.¹

또한 상성규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가톨릭미술협회 회원이기도 하며, 천주교 관련 작품들



상성규, 〈빛 그리고 소리〉, 1992, 종이에 수묵담채, 130×124cm, 대전시립미술관



상성규, 〈無爲의 서정〉, 1993, 지본수묵담채, 160×130cm(출처: 『無爲의 서정 숲속의 미학-상성규전』, 서울 덕원갤러리, 1993)

¹ 장정란, 「상성규 눈부신 바람의 변주곡」, 『제8회 상성규 개인전 도록』(롯데화랑, 2008); 최병식, 「무의의 서정, 숲속의 미학」, 『상성규展』(덕원갤러리, 1993).

을 다수 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2013년 해미순교성지 망루 전 층을 테라코타 부조물로 작품화한 것이 있다. 작가는 2012년 폐암 수술 후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음에도 이러한 망루 작품을 제작하며 창작의 혼을 불태웠다고 회고한다. 절단 분청사기를 구운 조각으로 무명 순교자들을 표현한 대성당 제대 벽면과 유해참배실의 14처 그림 등 성지 곳곳에 작품을 제작하여 배치하였다.²

현재도 상성규는 공주 작업실에서 다채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화법을 모색하고 작가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연보

- 1957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
- 1983~1985년 《대전시미술대전》입선 수상
- 1985년 《후소회 미술대상전》입선 수상
- 1986년 《목우회 미술대전》특선 수상
- 1987년 《중앙미술대전》입선 수상
- 1989년 《후소회 미술대상전》후소회장상 수상 / 《서울현대미술제》(서울, 문예진흥원미술회관)
- 1991년 《구상전》입선 수상
- 1992년 《제1회 개인전》(대전, 홍인갤러리)
《동아미술제》동아미술상 수상 / 《대전시미술대전》대상 수상
- 1993년 《대전시미술대전》특선 수상
제2회 개인전 《무위의 서정 숲속의 미학》(서울, 덕원갤러리 / 대전, 홍인갤러리)
- 1993~2002년 《한국화-동질성회복전》에 참여
- 1995년 《향기와 맥전-안건이후 600년의 충청미술》(대전, 한림갤러리)
《제3회 개인전》(서울, 도올갤러리 / 서울, 홍인갤러리)
- 1997년 《제4회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 1999년 《새 천년을 향한 대전 한국화의 비전》(대전, 롯데갤러리)
《제5회 개인전》(대전, 동양타임월드갤러리)
- 2000년 《21세기 한일 교류전》(대전시립미술관)
- 2000~2001년 《대한민국미술대전》입선 수상
- 2001년 《21세기를 향한 대전 한국화 표정전》(대전시립미술관)
- 2002년 《제6회 개인전》(대전, 한림갤러리)
- 2003년 안건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2004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운영 및 심사위원 역임 / 대전시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및 초대작가 선정 / 형상전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 2005년 제7회 개인전 《자연-公刊》(대전, 타임월드 갤러리)
- 2008년 제8회 개인전 《눈부신 바람의 변주곡》(대전, 롯데갤러리)

2 이주연, 「해미순교성지 망루 전 층에 테라코타 부조물로 순교 장면 표현한 상성규 화백」, 『카톨릭신문』(2018. 6. 3).

서성관(徐成寬, 1957~)

호는 가은(佳隱). 1957년 대전 동구에서 출생한 서성관은 충남대학교에 입학해 서예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서예를 시작했다. 당시 서예반 지도교수였던 조종업(趙鍾業, 1930~2014)과 동아리 선배였던 이곤순(李坤淳, 1948~)에게 글씨를 배웠다. 아호인 ‘가은’은 조종업이 서성관이 태어난 동구 가양동의 ‘가(佳)’와 고려말 삼은(三隱)의 ‘은(隱)’을 따서 지어준 것이다.¹



서성관, <중봉(重峯) 조헌(趙憲) 시비(詩碑)>, 2004, 작가 제공

1979년 《전국대학생미술전람회》 서예 부문에 이은상(李殷相, 1903~1982)의 ‘가고파’를 쓴 작품을 출품해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작품은 덕수궁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 이후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동아미술제》에 입선하면서 본격적으로 서예의 길로 들어섰다.²

1986년 대전 도룡동에 ‘가은서실’을 창립해 일반인과 학생들을 가르치며 작품 제작에 열중해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특선 2번과 입선 5번으로 1996년 초대작가가 되었다. 또한 2003년 《국제서법교류SEOUL大展》과 2006년 《제1회 실크로드 국제미술전》과 같은 해외교류전에도 참여해 충남을 대표하는 중견 서예가로 입지를 굳혔다.

2010년 성현의 말씀과 인생의 좌표가 되는 구절 등을 한글이나 한문의 여러 서체로 적은 36 점을 제작해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래 2019년까지 총 24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여 대전지역의 서맥(書脈)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서성관이 제작에 참여한 비석(碑石)으로 <이위(李偉) 신도비(神道碑)>(1988)와 <중봉(重峯) 조헌(趙憲) 시비(詩碑)>(2004)가 있다.

1 ‘삼은(三隱)’이란, 고려 후기 절의를 지킨 세 학자를 총칭하는 말로, 목은(牧隱) 이색(李穡),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아은(冶隱) 길재(吉再)를 일컫는다.

2 송익준, 「서성관 “화선지에 스미는 먹물의 번짐 보면 희열”」, 『중도일보』(2015. 10. 2).

연보

- 1957년 대전 동구 출생
- 1979년 《전국대학생미술전람회》에서 〈가고파〉로 장려상 수상
- 1986년 ‘가은서실’ 창립
- 1987년 《제17회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 대전문화원)
《한국미술협회 대전지부 회원초대전》(대전시민회관)
- 1988년 《한국서예청년작가전》(서울, 예술의전당)
〈이위(李偉) 신도비(神道碑)〉(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제작 참여
- 1989년 《충청미술청년작가전》(대전시민회관)
- 1990년 《대전시미술대전》참여
- 1991년 《제3회 대전시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 초대작가
- 1992년 《제4회 대전시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 초대작가
《제10회 한밭미술의 오늘전》
- 1993년 《제8회 서예대전》(한문서예 부문) 특선
- 1995년 《대전미술 어제와 오늘전》에 참여
《제7회 대한민국 서예대전》(과천, 국립현대미술관) 특선
- 1996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초대작가
- 1997년 《한밭미술의 미래 모색전》(대전시민회관)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전》에 참여
- 2003년 《제22회 대한민국 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 서예부문 심사위원
《국제서법교류SEOUL大展》(서울, 세종문화회관)
- 2004년 〈중봉(重峯) 조헌(趙憲) 시비(詩碑)〉(충북 옥천군 안남면) 제작 참여
- 2006년 《제1회 실크로드 국제미술전시회》(터키 튀르키예 이스탄불)
- 2010년 《제1회 가은 서성관 서예전》(대전, 롯데갤러리) 개최
- 2016년 《한국가톨릭미술가회전》(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 2017년 《대전중구작가초대전》(대전중구문화원)에 참여
- 2019년 《제24회 가은서회전》(대전예술가의 집) 개최
- 2021년 《제9회 부산서예 비엔날레》참여
- 2022년 《추사를 기억하다》(서울, 예산)

안재옥 (安在玉, 1957~)

안재옥은 1957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대전 호수돈 여자중·고등학교를 나온 안재옥은 당시 호수돈 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중이던 김철호의 권유로 미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로 진학하여 당시 교수로 재직 중이던 한국화가 김세원(金世源, 1940~)으로부터 한국화의 기초를 배웠다. 학부 졸업 후에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에 진학하여 당시 동양화과 교수 조복순(曹福淳, 1921~1981), 홍석창(洪石蒼, 1940~), 송수남(宋秀南, 1938~2013)에게서 수묵과 채색 기법을 배웠고, 이때부터 채색화 작업에 비중을 두게 되어 현재까지도 화선지에 수간채색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안재옥의 작업은 전통 채색화 기법을 기반으로 작품의 밑바탕부터 여러 번 물감을 올려 두텁게 처리하며 색채의 깊이를 보여준다. 또한 한국적·서정적이라 할 수 있는 대상들에 관심을 두어 도자기, 참새 등과 같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재를 작품에 담았다. 이에 작가는 소박한 자연 풍경을 담은 대표작인 《정이 있는 풍경》 연작을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情)과 작은 위안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 또한 안재옥은 《빛》 연작을 통해 자연에 대한 관심과 카톨릭 신자의 종교적 신념을 담은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¹

나아가 안재옥은 청림회, 춘추회와 같은 미술 단체전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전시 활동을 펼치며, 최근까지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다. 이와 함께 1987년도부터 2012년까지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 강의를 나가며 후학



안재옥, <정이 있는 풍경>, 2018, 장지에 채색, 116×182cm, 작가 제공



안재옥, <빛>, 2014, 장지에 채색, 72.5×91cm, 작가 제공

¹ 안재옥 작가와의 전화 인터뷰(2022. 10. 19).

을 양성하는데도 힘썼다. 또한 충남한국화협회, 대전한국화협회 등 충남 지역 미술 협회에 작품을 출품하고 대전시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충남 지역 한국화단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²

연보

- 1957년 대전 출생
- 1976~1980년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입학 및 졸업
- 1978년 《전국대학미전》 장려상 수상
- 1978년~현재 청림회에 참여
- 1980~1982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과 입학 및 졸업
- 1983년~현재 춘추회에 참여
- 1984년 《충남 향토작가 초대전》(대전문화원)
《창조회전》(중국, 국립역사박물관)
- 1984~1988년 《충남한국화협회전》에 참여
- 1985년 《제1회 개인전》(서울, 동덕미술관)
《구상전》 문예진흥원장상 수상
《창조회전》(일본문화원)
- 1985~1986년 《형상전》에 참여
- 1985~1988년 《아름다운 금강전》에 참여
- 1986년 《제2회 개인전》(대전문화원)
- 1987년 《충남 향토작가 초대전》(대전문화원)
《이 시대의 한국화 신표현전》(서울, 문예진미술회관)
충남대학교 미술학과에 출강
- 1987~2012년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 출강
- 1988~1990년 《충청남도미술대전》 및 《대전시미술대전》 특선 3회 수상
- 1990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작품전》에 참여
- 1991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
- 1993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숨바꼭질>로 입선 수상
- 1995년 《향기와 맥전》(대전시민회관)
- 1999년 《제3회 개인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
《제17회 한밭문화원 대전미술50년전》(대전시립미술관)
- 2000년 《대전시미술대전》운영위원 역임
《새천년 대한민국의 희망전》(서울, 국립현대미술관)

2 『안재욱 작품전』(단성갤러리, 2001).

- 2000~2005년 대전한국화회에 참여
- 2000년~현재 한국화여성작가회에 참여
- 2001년 《제4회 개인전》(서울, 단성갤러리)
《문예회관 기념 중견작가 초대전》(대전문화원)
- 2003년 《제5회 개인전》(서울, 가산화랑)
《채색화 23인의 조형전》(서울, 가산화랑)
- 2005년 《21C 채색회의 전망》(서울, 예술의전당)
- 2007년 《토포하우스 갤러리 초대전》(서울, 토포하우스 갤러리)
- 2010년 《춘추회 아트페스티벌》(서울, 예술의전당)
- 2012년 《대전시미술대전》 및 《민족평화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2015년 《대전 미술 150인 초대전》(대전예술가의 집)
- 2016년 《제8회 개인전》(서울, 가나아트스페이스)
- 2021년 《제9회 개인전》(서울, 콩세유갤러리)
- 2022년 《4인 채색화 기획전》(경기도 의정부, 갤러리 평화)

오금숙(吳錦淑, 1957~)



오금숙, 〈seed〉, 2006, 혼합매체, 53×72.7cm(출처: 『ART NEWS』, 2019. 11. 26)

1957년 대전에서 태어난 오금숙은 건축기사인 아버지의 지원 아래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유년 시절부터 화가로서의 꿈을 키웠다.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재학 중이었던 1976년과 1977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연속으로 특선을 받았고 1978년 《대학미전》에서도 특선을 수상했다. 1979년 대학을 졸업한 후 1981년부터 대전에서 중등학교 교사로 3년간 재직했고 공군 제2사관학교에서 교

수로 재직하다가 1990년 미국 캘리포니아로 건너갔다. 4년간 미국에서 활동한 뒤 1996년부터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알자스(Alsace)에서 조형예술학을 공부하며 영화와 사진도 연구했다.

2005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외 전시 활동을 병행하며 대전 전민동에 토탈갤러리를 열었다. 이후 오금숙은 매년 1~3회 자신의 개인전을 토탈갤러리에서 열고 있으며, 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고 다양한 분야의 담론을 논하는 건강한 프랑스식 살롱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오금숙은 사랑, 하모니, 씨앗을 작품의 주요 테마로 삼아 작품을 창작한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과 신의 세계에 대한 경외심과 거룩함이 커진다”는 오금숙은 20여 년 전부터는 작품에 보석물감을 덧입히는 독특한 창작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화면에 구현한 다양한 색깔의 보석물감은 평면 회화에 생기있는 빛을 더하며 작품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감상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준다. 즉 작품을 마주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각기 다른 느낌을 전달받게 하는 표현 방식인 것이다.¹ 오금숙은 해외에서도 많은 전시를 열었으며, 각국의 언론과 평론가로부터 동양 예술가의 열정적인 삶이 신화와 같은 작품으로 드러났다는 평을 받았다. 현재에도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해마다 개인전을 개최하며 열정적으로 창작에 임하고 있다.

1 「프랑스·러시아에서 잇따라 개인전 연 오금숙 서양화가」, 『중부매일』(2017. 7. 30).

연보

- 1957년 대전 출생
- 1976~1977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연속 특선
- 1978년 《대학미전》에서 특선
- 1979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79~1981년 중등교사 역임
- 1981~1983년 공군 제2사관학교 강사 역임
- 1982년 《제3회 한국전통예술대상전》 최우수상
- 1983년 《한국미술대전》에서 금상 수상
- 1984년 《서울국제미술대전》에서 금상 수상
- 1985년 《한국미술연구회》에서 창작 미술상
《신미술 대전》 대회장상 수상
- 1986년 《신미술 대전》에서 특상 수상
- 1987년 《샌프란시스코 우수작가 100인전》 특별상 수상
《제21회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
- 1989년 《한밭회화전》(대전시민회관)
- 1989~1994년 《남부현대미술제》에 참여
- 1991~1995년 《개인전》(대전, 프린스 아트갤러리) 연속 개최
- 1995년 《한국현대미술 뉴욕 초대전》(미국 뉴욕, Ipok Gallery)
- 1997년 《개인전》(프랑스 스트라스부르, La pierre large gallery)
- 1999년 《개인전》(독일 하이델베르그, Melinikow gallery)
- 2000년~현재 서울과 대전 및 프랑스(샤벤느, 스트라스부르, 콜마르) 등에서 매년 개인전 개최
- 2004년 《제17회 화랑미술제》(대전, 유성문화원)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
《제18회 화랑미술제》(대전, 토탈갤러리)
- 2005년 《자유의 시선 그룹전》(공주문화원)
- 2008년 《제42회 한국미술협회 초대전》(서울, 예술의전당)
- 2013년 《Oficina Cultural Osward de Andrade in Sao Paulo 초대전》(브라질)
- 2017년 《Expos du Cloitre in Saverne 초대전》(프랑스)
- 2018년 《러시아 야쿠티아 국립음악원 초대전》(러시아, 야쿠티아국립음악원)

이계길 (李啓吉, 1957~)



이계길, 〈빛-확산〉, 2020, 지본채색, 45×53cm, 작가 제공



이계길, 〈색동Ⅱ (stripes of many colorsⅡ)〉, 2021, 화선지에 채색, 45.5×45.5cm, 작가 제공

호는 소암(素岩). 이계길은 1957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났다. 한남대학교 미술교육학과에서 학사, 홍익대학교 동양화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는 미술 교육자로서 활동함과 동시에 청림회, 대전한국화회, 한국선면예술가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화 그 동질성의 회복전, 한일현대미술작가회, 채원회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¹ 1989년 서울에서의 《제1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오랜 시간 채색화 작품을 제작하며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을 가졌다.

이계길은 자연풍경을 소재로 한 채색화 작업을 주로한다. 그의 작품의 특징은 섬세하고 맑은 채색표현에 있다. 주로 서정적인 자연 풍경을 주제로 삼아, 순수한 조형적 시각으로 현실적 존재감을 내재시키면서도 평면적인 구성미를 작품에서 세심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에 미술평론가 황효순은 이계길의 작품에 관해 “풍경이지만 그냥 풍경이 아니고 나무이지만 그냥 나무가 아닌, 작가 이계길만의 감성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심상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한다.²

이계길은 몰선주채묘법(沒線主彩描法)을 사용하는데, 몰선주채묘법은 우리나라 기후에서 습윤한 풍경을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 먼저 배접한 한지위에 반수(攀水)³를 하고 그 위에 석채를 입혀 전체적인 느낌을 살린 다음 수간채색(水干彩色)을 하고 다시 석채를 써서

1 이계길 한남대학교 교수 프로필 참조. <https://my.hnu.kr/html/profDetail.html?param=821679>

2 황효순, 「단순화된 화면에 담긴 작가의 내밀한 감성」, 『이계길전』(대전 타임월드 갤러리, 2002).

3 아교를 더운 물에 녹이고 명반을 가하여 끓인 다음, 물을 가하여 냉각한 용액. 동양화에서 종이와 천에 그림을 그릴 때, 표면에 칠해서 흡수성을 약하게 하려고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든다. 『미술대사전 용어편』(한국사전연구소 편집부, 1998)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60693&cid=42635&categoryId=42635>

강조하며 음영이 필요한 부분을 중첩을 거듭하여 깊이감을 준다. 이것은 전통적인 채색화 방법과는 다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양화의 마띠에르 같은 거친 표면과 함께 부분적으로 긁어내고, 덧바르고, 짚어내는 기법 등으로 여러차례 변화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계길은 작품의 형식에는 변화를 피하여도 '자연'을 주제로 한 내용에서는 꾸준히 일관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계길, 〈새〉, 화선지에 채색, 30×40cm, 작가 제공

현재까지도 이계길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보

- 1957년 충청남도 논산 출생
- 1980년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 1983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 1989년 《이계길전》(서울, 갤러리 나우)
- 1993년 《'98 대전시립미술관개관, 대전공간의 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
- 2000~2001년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한국화 분과위원장 역임
- 2002~2005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한국화 분과위원장 역임
- 2003년 한국선면예술가협회 명예회장 역임 / 《대전시립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2008년 《금강미술대전》 제1차 심사위원 역임
- 2008~2009년 국제IT교육센터장 역임
- 2009년 사단법인 국민예술협회 충청지회이사 역임
- 2009~2011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주임교수 역임
- 2012년 《2012 금강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 《국제아트쇼 2013》 운영위원 역임
채원회 회장 역임 / 《제13회 충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역임
- 2014~2016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역임 / 한국화 동질성 운영위원장 역임
- 2015년 《제27회 한국화 동질성전- 먹과 빛과 향연》(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 2016년 《정명희 미술관 개관 5주년기념 45인 초대전》(대전, 정명희 미술관)
- 2017년 《2017 대전미술제 : 대전현대미술의 오늘》(대전예술가의 집)
- 2019년 《금봉미술관 기획 초대: 제27회 한일미술교류전 "유무상생"》(광주, 금봉미술관)
- 2020년 《제21회 향토작가 초대전》(공주, 임립미술관)
- 2021년 《아듀 2021 대전중견작가 20인 초대전》(대전평생학습관)
- 2022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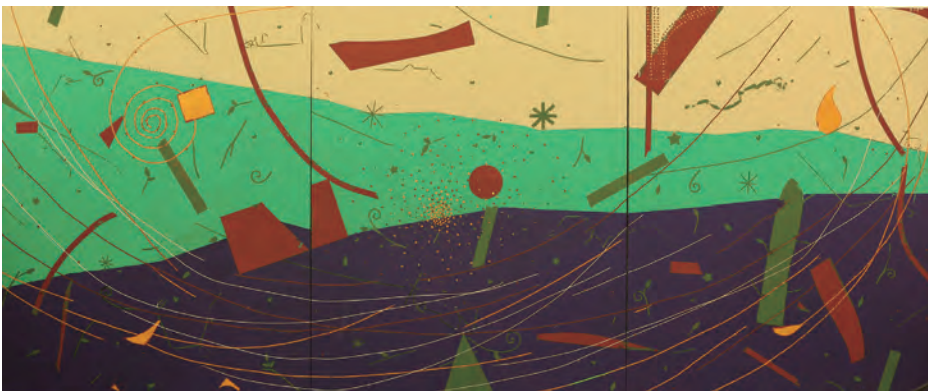
임재광 (林栽光, 1957~)

1957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난 임재광은 공주중·고등학교와 공주대학교를 졸업한 후 1996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1999년 미국의 롱아일랜드 유니버시티 대학원(MFA)을 졸업했다. 공주대학교 졸업 후 서산여자중학교 교사로 출발해, 서산여자고등학교, 해미고등학교 등에서 20여 년간 미술교사로 근무했다. 단국대학교, 충남대학교 등에 출강했으며,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며 미술교원 양성에 힘쓰다가 2022년 정년 퇴임했다. 미술교육자로서 공헌을 인정받아 2007년 부총리겸 교육인전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2022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미술평론 부분에서도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해온 임재광은 1995년 월간 '미술세계 미술평론상'을 수상했다. 『대전일보』에 '한밭춘추', '삼거리에서', '임재광의 미술읽기' 등의 칼럼을 연재한 바 있으며, 미국 유학 시절이었던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미술세계』의 뉴욕 통신원으로 미국미술을 소개하는 글을 연재했다. 이 시기 뉴욕에 거주하면서 세계 미술의 흐름과 미술계의 생리를 체험했고, 미국에서의 생활과 경험은 이후 작품 창작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4년 《충남청년미술제》의 전시기획을 담당했으며, 1999년 '뉴욕 힐우드 미술관'에서 개최된 《문턱을 넘어서》를 기획했다. '천안 판페스티벌 2007'의 총괄기획을 맡았고, 2016년에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총감독을 맡는 등 전시기획자로도 활동했다. 이처럼 임재광은 미술교육, 평론, 전시기획 등 미술계 전반에 걸쳐 활동해오고 있다.

임재광은 1980년대 초반 《구드레아의미술제》를 비롯해 다수의 전시회에서 오브제와 설치를 포함한 실험적인 작업을 했고, 31세 때 배낭을 메고 유럽 여러 나라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다



임재광, 〈하늘바람〉, 2015,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3×162.2cm×(3), 대전시립미술관

니며 미술품을 보는 안목을 키웠다.¹ 이때 보았던 서양의 명화들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자양분이 되었고, 작품 창작의 밑바탕이 되었다.

화업 초기에는 공주대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벽바닥 그리고 의식' 그룹 활동을 중심으로 강렬한 색채의 표현주의적인 그림을 그렸다. 1992년 첫 개인전 때에는 한지 캐스팅 작품을 제작하면서 한지와 탁본의 매력에 빠져 화선지로 사물을 복제하기도 했다.² 이후 1996년 미국 유학을 통해 개념미술과 설치미술을 접하면서 버려진 물건들을 전시장에 옮겨 놓는 행위를 통해 미술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는 작업을 했다.

2013년 무렵부터는 테이프 커팅을 작품제작의 주력 기법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군자를 소재로, 전통적인 회화 도구 대신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면서도 테이프 커팅 기법을 활용해 전통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했다. 2018년부터는 직선에 집중하면서 격자무늬를 화면에 구현해, 기하학적인 추상 작품을 시도했다. 그러다가 그리드를 이루는 직선에 부분적으로 색을 더해가는 작업을 시도하면서 색 자체에 주목한 색면 추상으로 변화했다. 이처럼 다양한 작품 경향을 추구해 온 임재광은 오방색을 이용한 색채 추상과 사군자의 테이핑 기법을 함께 적용한 골동품 오브제 작업을 2020년부터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전통 목기류를 비롯해 칼·톱·자귀 등의 연장들을 재료로 사용하면서도 테이프를 이용해 일정한 구획을 설정한 뒤, 그 위에 오방색의 아크릴 물감을 칠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목기 위에 기하학적인 무늬나 패턴을 그리는 방식을 창안했다.

독창적 발상으로 다양한 작품 경향을 보여준 임재광은 다수의 단체전과 개인전을 통해 작품 세계를 펼쳐왔으며, 여러 학술 활동에 참여하며 대전·충남 미술의 역사와 특징을 논하고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미술 이론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현재 공주에서 '갤러리 쉬갈'을 운영하면서 지역 미술가들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문화향유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임재광, 〈21211204〉, 2021, 혼합매체, 32.5×32.5×3cm, 작가 제공

연보

- 1957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80년 공주대학교 졸업
- 1984년 《금일의 상황전》(대전, 반도화랑)

1 「윤진섭의 비평프리즘: '놀이충동'에 의한 재미의 발현」, 『서울문화투데이』(2022. 5. 11).

2 『林裁光』(서울: 조성희화랑,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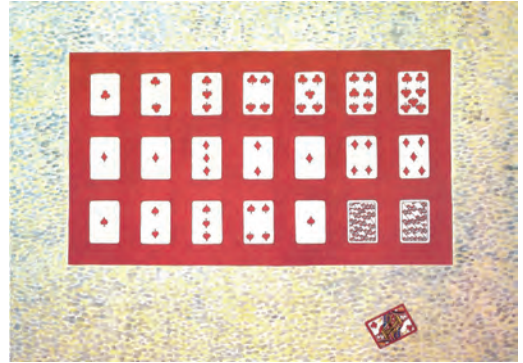
- 1985년 《벽, 바닥, 그리고 의식 展》
- 1987년 《한국형상미술제》(서울, 한강미술관)
- 1992년 개인전 《나를 찾아가는 여행》(서산, 서인화랑)
- 1994년 《충남청년미술제》 전시기획
- 1996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졸업
월간 『미술세계』 미술평론상 수상
- 1996~1999년 월간 『미술세계』 뉴욕 통신원
- 1999년 미국 롱아일랜드 유니버시티 대학원(MFA) 졸업
《개인전》(서울, 조성희화랑)
《문턱을 넘어서 전시》(미국 뉴욕, 힐우드 미술관) 전시기획
- 2000~2001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 2001년 《Rim Jaikwang》(미국 뉴욕, Hutchins gallery)
《Drawing Works》(미국 뉴저지, Palisades park Multimedia center)
- 2001~2003년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교과서 검정위원(교육인적자원부)
- 2002년 《Rim Jaikwang》(프랑스 파리, Oniva gallery)
- 2004년 《미술의 발견》(서울, 우림갤러리)
- 2004~2006년 교육과정심의위원(교육인적자원부) 역임
- 2005년 공저 『우리도시 이미지』(술과학) 출간
- 2007년 충남예술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
'천안 판페스티벌 2007' 총괄기획(천안예총)
- 2008년 《개입+간섭 Intervention》(천안, 파랑갤러리)
- 2009년 공저 『한국현대미술가 100인』(사문난적) 출간
- 2010년 《회화의 발견》(대전, 이공갤러리)
- 2011년 《한국현대작가100인토대전》(안산, 예술의전당)
공저 『30인의 작가 30개의 시선』(예서원) 출간
- 2013년 《繪+言》(대전, 우연갤러리)
《화이부동: 임재광전》(대전, 우연갤러리)
- 2014년 공저 『한국현대미술의 형성과 전개』(도서출판 신원) 출간
- 2016년 개인전 《겹 Layer》(서울, 가나아트스페이스)
- 2017년 《空 畫》(천안, 산새) / 《대전국제아트쇼》(대전무역전시관)
- 2019년 《임재광근작전》(공주, 갤러리쉬갈)
《공주국제미술제》(공주, 임립미술관)
- 2020년 《개인전》(서산, 조종분갤러리)
《60.6×60.6》(공주, 갤러리쉬갈)
- 2021년 《표상하기: 임재광 개인전》(공주, 갤러리쉬갈)
- 2022년 녹조근정훈장 수훈

장정란(張貞蘭, 1957~)

1957년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에서 태어난 장정란은 1979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에서 동양화를 전공하며, 목원대학교 동양화과 동문회 목묵회(牧墨會)에서도 잠시 활동하였다. 대학 재학 시절에는 글쓰기에도 관심을 가져 전국 대학생문예작품 공모 소설 최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학사 졸업 이후에는 동양 미술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자 대만 유학길을 택하였다. 대만 중국문화대학 예술대학원에서 본격적으로 미술사 공부를 시작하게 된 후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의 작품 연구에 흥미를 느껴 작품 제작은 중단하게 되었다.

장정란은 동양미술사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술사 연구를 지속하며 다수의 학술 논문 및 저서를 출판하였다. 대표 저서로는 『중국현대산수화의 대가 이가염』과 번역서인 『영남화과』를 비롯하여 학술논문으로는 「이유태와 부포석의 미인도 비교연구」, 「고검부의 신중국화 연구」, 「오관중 산수화연구」등을 게재하여 동양 미술사학의 학술 연구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목원대학교, 국민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단국대학교, 한남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진행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또한 장정란은 미술 평론가로도 활동하며 다수의 미술 평론글을 남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화가 고정곤, 복원규, 상성규, 정황래, 도예작가 박치수 등과 같이 충남 지역에서 활동 중인 미술가들에 대한 논평을 다수 남기고 있어 충남미술사 연구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장정란, 〈人生〉, 1986, 화선지에 채색, 90×120cm, 작가 제공



장정란 저, 『중국현대산수화의 대가 이가염』, 미술문화, 2004.

연 보

- 1957년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출생
- 1978~1980년 《목목회전》에 참여
- 1979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동양화 전공 졸업
- 1984년 대만 중국문화대학 예술대학원 동양미술사 문학석사 졸업
- 1986년 《제1회 개인전》(서울, 윤갤러리)
《86 향방여름전》(서울, 윤갤러리)에 참여
- 1987~1996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회화과 강사 역임
- 1994~2002년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예미술학과 강사 역임
- 1997~2007년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화과, 대학원, 교육대학원 강사 역임
- 2001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동양미술사 문학박사 졸업
- 2001~2006년 고려대학교 미술학과 강사 역임
- 2002~200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선임연구원 역임
- 2003년 학술논문 「이유태와 부포석의 미인도 비교연구」(동악미술사학, 2003) 게재
- 2003~2014년 단국대학교 조형대학원 박사과정 강사 역임
- 2004년 저서 『중국현대산수화의 대가 이가염』(미술문화, 2004) 출판
공동저술서 『제국미술학교와 조선인 유학생들』(눈빛출판사, 2004) 출판
- 2006년 번역서 『영남화파』(미술문화, 2006) 출판
학술논문 「고검부의 신중국화 연구」(동악미술사학, 2006) 게재
- 2009년 학술논문 「오관중 산수화 연구」(동아시아문화학회, 2009) 게재
- 2011~2019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 2012년 학술논문 「元代 청화자기에 나타난 몽고적 요소」(한국도자학연구, 2012) 게재
- 2014~2016년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과정 강사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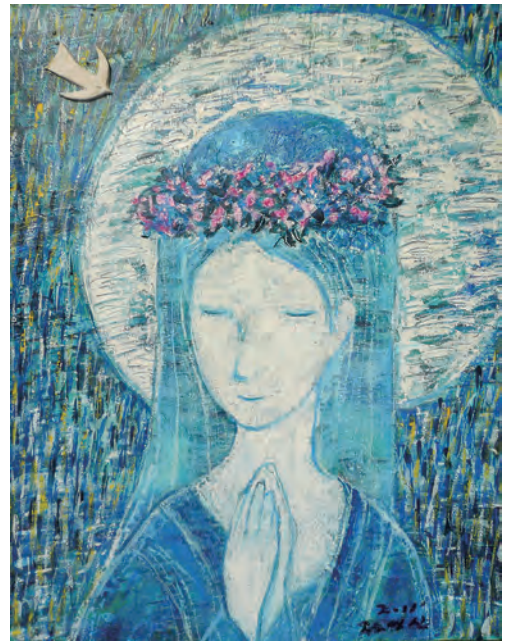
전영신 (田永信, 1957~)

1957년 대전에서 태어난 전영신은 공주 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과를 졸업했고 1990~1991년 뉴욕주립대학 미술과에서 관화를 전공했다.¹ 1999년 첫 개인전을 열었고,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한 바 있다.² 현대미술 연구회, 대전관화가협회, 대전미술교육연구회 회원이며, 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에 출강했다.

공주대학교에서 명동성당 유리화 복원의 주역인 이남규(李南圭, 1931~1993) 교수 휘하에서 작업하며 유리화 기법을 사사한 전영선은 2001년 독일에서 후라우에나우 스테인드 글라스마이스터 과정(Bild-Werk-frauenau Program)을 수료했다. 이때 유리화(Stained-glass)를 본격적으로 익히고 돌아와 전민동 성당 유리화를 제작했고 대전외국어고등학교의 벽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현재 여러 성당의 유리화, 십자가의 길 14처, 성화 등 성(聖) 미술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

전영신은 사회로부터 부당함을 겪으며 본인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비인간적인 상처를 첫 번째와 두 번째 개인전에서 표현해냈다.³ 민주화된 사회에서 빛어지는 여러 현상에 대한 회의나 분노가 세월이 지나 허심한 마음의 상태로 변해 버리는 과정을 작품에 담았다. 2002년 《개인전》에서는 사회와 인간에 관한 고민에서 나아가 바람과 물의 변화를 관찰하며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⁴ 화면을 긁어내는 스크래치 기법을 사용하거나 도자기를 구워서 해나 날아가는 새 등을 만들어 그림에 붙였다. 새를 통해 영혼의 정화와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며 신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이어 주는 매개자 역할을 부여했다.

전영신은 2015년 만년동 성당 유리화로 한국 주교회의의 문화위원회가 수여하는 제19회 한



전영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2011, 혼합재료, 50×40cm(출처: 전영신 홈페이지)

1 「사람이야기: 내 작품의 완성자는 하늘의 빛」, 『월간대전이즈음』(대전광역시, 2020. 12).

2 전영신 홈페이지 참조. <http://ysjeon.com/>

3 전영신은 1980년대 옹공조작사건 중의 하나였던 공주사범대학 금강회 사건 연루자로 지목되어 일주일간 물고문을 당한 후 무혐의로 풀려났다.

4 「물과 바람에 자유 담는다」, 『중도일보』(2002. 8. 8).



전영신, 대전 노은동성당 스테인드 글라스

국가톨릭 미술상(유리화 부문)을 수상했다. 전영신이 제작한 대전 만년동성당 유리화는 영적으로 풍요롭고 생명감 있는 성전공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색유리 조각을 작게 혹은 옆으로 길게 나눠 배열하고, 공중에 떠 있는 그물망에 색과 빛의 조각들이 매달린 듯 보이도록 유리화를 제작했다.

전영신은 교육계에서 명예퇴직한 후 시골에 작업실을 마련해 작품 창작에 몰두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전 노은동 성당, 대흥동 성당, 만년동 성당, 전민동 성당, 천안 성거산 성지의 유리화를 제작했고 대전 하기동 성당, 성환 소동공소, 천안

성거산 성지, 충남 청양 성당의 14처를 만들었다. 대전·충남 지역에서 유일한 유리화가로 활동하면서 지역 성당에 성심이 깃든 맑은 유리화를 걸어 대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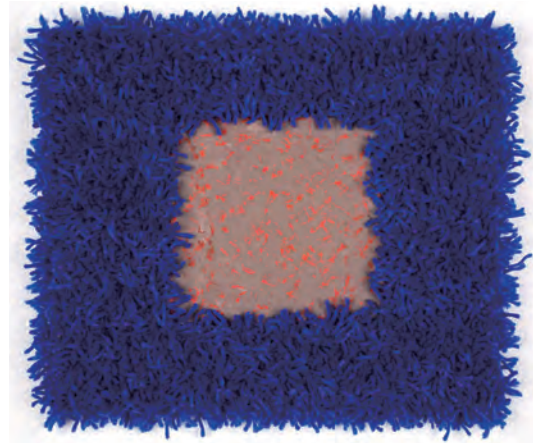
- 1957년 대전 출생
 공주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과 졸업
- 1990~1991년 뉴욕주립대학 미술과 관화 전공
- 1994년 《제10회 남부현대미술제》(대전시민회관)
- 1998년 《'98 대전현대관화제》(대전시립미술관)
- 2000~2001년 독일 후라우에나우 스테인드글라스 마이스터 과정 수료
- 2002년 《개인전》(대전, 한림갤러리)
- 2003년 《개인전》(대전, 전민동성당)
- 2010년 《제6회 개인전》(대전, 현대갤러리 / 서울, KBS시청자갤러리)
- 2014년 《제8회 개인전》(대전, 플랜트갤러리)
- 2015년 제19회 한국가톨릭 미술상 유리화부문 추천작품상 수상
- 2016년 《제9회 개인전: 빛, 전영신 유리화 전》(대전, 노은아트리브로)

정진숙 (鄭鎭淑, 1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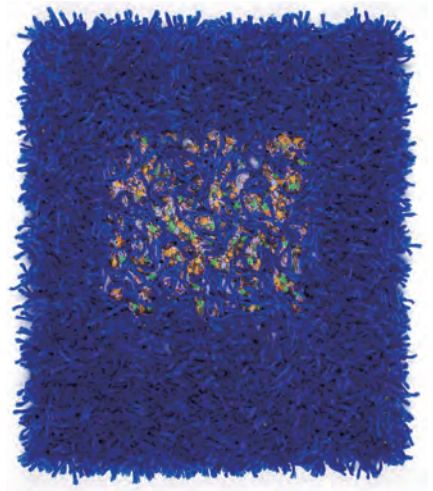
1957년 충청남도 청양에서 출생한 정진숙은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입학한 뒤 동양화과 동문회 '묵묵회(牧墨會)' 창립전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전시 활동을 시작하였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중앙미술대전》에 입선하였으며 1981년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뒤에는 서울 미술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단체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대표적으로 1998년 대전시민회관에서 주최한 《한국화-천년의 향기》, 2000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구상전》 등에 참여하며 여러 주요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2006년에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예술치료학과에 입학하여 미술치료를 전공하면서 미술치료 분야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에 정진숙은 '한국화'라는 국한된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심리학과 한국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실험성이 강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다. 특히 '뭇'을 작품의 주요 소재로 차용하여 현대인의 상처와 상실감을 이야기하고자 하면서 사람들의 깊은 상처를 소통을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 선하고 숭고한 세상을 추구하는 메시지를 작품에 담고 있다.¹

정진숙은 모든 작가들은 미술 작업 과정을 통해서 자신과 만나고, 싸우고, 화해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아니면 표현된 것에서 자신을 찾아내기도 한다고 보았다. 즉 이러한 작업과정이 미술치료과정과도 같다고 보았다. 특히 화지에 물감이 스며들고, 번지고, 받아들이고, 섞이고, 겹치는 채색화 작업 과정이 미술 치료 상담의 장면과 매우 흡사하다고 보며, 내담자를 공감 수용하며 기다려주는 상



정진숙, 〈201801〉, 2018, 혼합기법, 42×50cm, 작가 제공



정진숙, 〈201802〉, 2018, 혼합기법, 50×42cm, 작가 제공

¹ 허진권, 「정진숙의 작품세계 -아니마, 아니무스-」(갤러리 민, 2016).

담자와 같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진숙의 작품 활동은 《한국아동미술 전문가회전》과 한국청소년미술협회 산하단체인 미술심리연구회의 정기전 《마음의 창전》 등 미술 심리치료를 기반으로 하는 전시 등을 통해 주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2017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다문화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며 미술치료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였고, 2018년 갤러리 B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전시 활동 또한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는 한국통합미술심리치료학회 회장직과 한국미술치료학회 이사직을 맡아 한국 미술심리치료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2000년부터 최근까지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겸임교수로 재직하여 상담학, 미술치료, 미술교수학습방법론 등의 분야에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연보

- 1957년 충청남도 청양 출생
- 1980년 《중앙미술대상전》 입선
- 1981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동양화 전공 졸업
- 1981~1982년 서울미술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94년 《열린그림전》(서울, 출판문화회관)
- 1997년 《예담전》(서울, 백악예원)
- 2000년 《구상전》(서울, 국립현대미술관)
- 2000년~현재 한국미술치료학회 이사 역임
- 2001년 《예담전》(서울, 경인미술관)
- 2009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졸업
- 2009~2011년 《한국아동미술전문가회전》에 참여
- 2009~2022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미술학부 겸임교수 역임
- 2014~2020년 《마음의 창전》에 참여
- 2015년 《실마리전》(서울, 아트스페이스 벤)
- 2016년 《개인전》(서울, 갤러리 민)
- 2017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다문화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8년 《개인전》(서울, 갤러리 B)
- 2019년~현재 한국융합심리상담교육협회 회장 역임
- 2021년 한국통합미술치료학회 회장 역임

최명규 (崔明圭, 1957~)

호는 천산(芊山). 최명규는 1957년 충청남도 서천에서 출생하였다. 서예에 입문한 이후, 《제21회 근로자 문화 예술제》(2000)와 《제11회 공무원 미술대전》(2001) 서예·사군자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고, 《제11회 대전·충남서예전람회》(2003)와 《제15회 추사김정희선생추모 전국 서예백일장》(2004)에서 특선을 받았다.

《해동 서예대전》, 《대전·충남서예전람회》, 《충남미술협회》 등 13개 단체의 초대작가를 역임했고,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2018년 대한민국 명인(서예·문인화 부문, 제18-06-03-18호)에 올랐다.

2012년에는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초대되어 세계 24개국 정상과 관련자들에게 친필 휘호를 선물했고, 이후 청와대에서 선물용으로 제작한 도자기의 표면에 들어가는 그림으로 최명규의 문인화 작품이 채택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서예1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해 지역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가정을 교육하고 있으며 제3대 서천 예총회장을 거쳐 현재는 18대 서천 문화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최명규, <강가에 봄, 一長風媛 柳青青>, 40×70cm, 작가 제공

연보

- 1957년 충청남도 서천 출생
- 1999년 서천문예대학 서예 강의 출강
- 2000년 《제21회 근로자문화예술제》 미술 분야 동상 수상
- 2001년 《제11회 공무원 미술대전》 서예·사군자 부문 동상 수상
- 2003년 《제11회 대전·충남서예전람회》 문인화 부문 특선
- 2004년 《제12회 대전·충남서예전람회》 문인화 부문 우수상
《제15회 추사김정희선생추모 전국 서예백일장》 특선
- 2006년 《제14회 대한민국서예전각회》 입선
- 2007년 《제37회 충청남도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특선
- 2008년 《제19회 추사김정희선생추모 전국 휘호대회》 특선(제08-143호)
《제1회 창암이삼만선생기념 대한민국휘호대회》 우수상(제08-86호)
- 2009년 충남미술협회 초대작가
- 2010년 《제40회 충청남도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특선
한국서예협회 대전·충청지회 이사
- 2013년 《제10회 충청서도대전》 운영위원
- 2014년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초대작가 역임
충남 서예전람회 초대작가 이사 및 심사위원 역임
- 2015년 한국예총 서천 지회장(진)
- 2018년 제7회 한국예술문화(서예·문인화 부문) 명인 지정(제18-06-03-18호)
- 2019년 《제16회 충청서도대전》 심사위원
- 2021년 서예1급 지도자 자격 취득
한국을 빛난 무궁화 대상(경찰합동신문사 주관) 수상
《제18회 충청서도대전》 심사위원장 위촉
제 18대 서천 문화원장 역임

한인수 (韓仁洙, 1957~)

한인수는 1957년 충청남도 논산 출생으로 논산 대건고등학교를 나와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6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할 때 전교 수석을 차지했으며, 1988년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으로 「사실주의적 시각을 통해 본 나의 내면 세계」를 제출했다. 첫 개인전은 1987년 대전 현대화랑에서 가졌고 이후 활발한 단체전 출품과 함께 지금까지 10번의 개인전과 11번의 부스 초대전을 열었다.



한인수, 〈철로 I〉, 1988, 캔버스에 유채, 112.1×145.5cm
(출처: 『한인수 개인전』, 인데코갤러리, 1992)

대학 재학 시절이었던 1985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차지했고 이 공모전에서 1987년까지 연속 3회 특선을 수상했다. 그리고 《대전시미술대전》에서도 여러 차례 특선과 입선을 받았으며, 1995년 《금강미술대전》 대상과 2007년 이동훈미술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또한 금강미술대전 운영위원, 대전시미술대전 운영위원, 이동훈미술상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전구상작가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목우회, 이사회, 한국미협, 대전국제미술교류회, 안전기념사업회 등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400여 회가 넘는 단체전에 참여했고 현재 금강미술대전, 대전시미술대전,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약하고 있다.

석사논문 주제에서도 확인되듯이 한인수는 사실주의적 시각을 견지해온 작가이다. 작품활동 초기부터 치밀한 관찰력으로 자연에서 소재를 찾아 견실한 화면 구성과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화면에 포착한 대상을 입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하고자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많은 붓질을 가하는 표현 방식을 구사했다. 초기 작품인 1988년 작 〈철로 I〉을 보면, 철길 주변에 놓인 철, 나무, 돌 등의 사물이 지닌 고유의 질감이 화면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 정교하고 섬세한 붓질을 가해 사물을 극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작가의 치밀한 묘사력을 확인할 수 있다.

화폭에 담아낸 소재는 산과 바다, 바위, 들판, 숲 등으로 주변의 익숙한 풍경을 그려내면서, 밝은 색채와 짧고 강한 필치를 통해 생명의 약동을 느끼게 하는 화풍을 구현했다. 재료의 특징과 화면 구성에 집중해 대상을 묘사하는 한인수는 바다와 절벽을 강한 컨트라스트로 묘사하는 표현 방식을 즐겼다. 이는 남해안의 바다 풍경에서 검푸른 파도와 굴곡진 바윗덩이의 묘한 대비



한인수, <대비 1>, 1991, 캔버스에 유채, 90.9×116.7cm
(출처: 『한인수개인전』, 인데코갤러리, 1992)

를 관찰하면서 받았던 강한 인상을 화폭에 옮긴 것으로, 붓터치를 중첩해나가며 빛을 반사해내는 바위 특유의 질량감을 극대화하고자 한 표현 방식이다. 1993년 대전 오원화랑에서 가졌던 개인전에서는 화면에 붓자국이 확연히 드러나는 마티에르 효과를 통해 모노톤에 가까운 색을 구현함으로써 보일 듯 말 듯 한 색면으로 대상을 묘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로 자연에서 관찰한 빛과 대상의 질료(質料)에서 받은 인상을 화폭에 담아낸 한인수의 작

품은 2005년 개인전에서 평론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았다. “작가의 그림이 이렇듯 생명의 약동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작가 화면 특유의 아우라 때문이기도 하다. 단조로움 속에서도 무언가 복합적이고, 거친 듯하면서도 은근하며, 분방한 듯하면서도 무언가를 의식하면서 짜내려간 듯한 필치들이 화폭에 집적되어 이룬 아우라 말이다.”¹

근작에서는 직물의 질감이 느껴지는 배경을 구현하고 그 바탕 위에 김홍도가 그린 <맹호도>의 호랑이 모습이나, <백제금동대향로>와 같은 전통적인 소재가 등장한다. 이러한 작품은 한인수 작가 특유의 사실적 표현 방식을 통해 대상이 지닌 특성을 화면 가득 채워내면서도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조형적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렇듯 견실한 작화(作畵) 방식으로 고유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한인수는 공주 반포면에 작업실을 마련해 꾸준한 작품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구현해 온 사실주의 화풍을 이어가면서도 조형적 실험을 통해 화풍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보

- 1957년 충청남도 논산 출생
- 1985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특선
- 1986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전교 수석 졸업
- 1987년 《제1회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제21회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
《목원대학교 동문전》(대전시민회관)
- 1988년 목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대전구상작가전》(대전, MBC문화공간)
《한국미술협회전》(과천, 현대미술관)

1 이재연, 「질료들의 내재율이 이룬 또 하나의 자연」, 『한인수』(대전 현대갤러리, 2005).

- 1988년 《아름다운 금강전》(대전, MBC문화공간)
《한국미술협회 부여지부전》(부여군민회관)
- 1989년 《신신화랑초대전》(대전, 신신화랑)
《충남 청년작가전》(천안시민회관)
《놀뒤 미술전》(대전, MBC문화공간)
- 1990년 《초대개인전》(대전, 프린스갤러리)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전》(천안시민회관)
- 1991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대전시민회관)
- 1992년 《개인전》(서울, 인데코화랑)
《이신회전》(대전, MBC문화공간)
- 1993년 《개인전》(대전, 오원화랑)
- 1994년 《제5회 개인전》(서울, 관훈미술관)
- 1995년 《금강미술대전》 대상 수상
《청년구상 3인 초대기획전》(서울, 단성갤러리)
《의식의 확산전》(서울, 일민미술관)
《대전미술 50년전》(대전시립미술관)
- 1996년 《제6회 개인전》(대전, 한림미술관)
- 1997년 《목원대학교 교수작품전》(대전, 한림갤러리)
- 1998년 《제7회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대전시립미술관 개관초대전》(대전시립미술관)
- 1999년 《중견작가 초대전》(대전, 갤러리 우리)
- 2001년 《한국구상회화 70인 초대작가전》(수원미술관)
《대덕미술 21C전》(대전, 대덕문예회관)
- 2002년 《화랑미술제》(서울, 예술의전당)
《동방의 빛깔전》(서울, 세종문화회관)
《한·중 수교 10주년 기념》(중국 북경, 구미전람회장)
- 2003년 《한국미술의 새로운 도약전》(서울, 우림갤러리)
- 2004년 《동방의 얼-목우회·베트남 작가 합동 교류전》(서울, 세종문화회관)
- 2005년 《제8회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환경미술제》(서울, 코엑스 컨벤션홀)
《부산 APEC 유치 기념 목우회 초대전》(부산문화회관)
- 2007년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
- 2008년 《제9회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 2012년 《제10회 『이동훈미술상-역대수상작가 및 특별상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
- 2018년 《제10회 개인전》(서울, 인사아트스페이스)
- 2021년 《제7회 대전국제아트쇼》(대전, 골든하이 컨벤션센터)

홍정화(洪貞花, 1957~)



홍정화, 〈들풀소리〉, 2021, 캔버스에 아크릴, 162×130cm, 작가 제공

1957년 대전에서 태어난 홍정화는 1980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였다. 그 해 충북 덕산중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며 대전 진잠중학교, 변동중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근무하였다.

대학에서의 전공은 한국화로 초기 작업은 수묵담채화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판화와 아크릴로 작업을 하고 있다. 판화작업은 실크스크린과 석판화를 하고 최근 작업은 동판(에칭)으로 사람의 뒷모습(Glance)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다. 아크릴화로는 〈들풀 소리〉라는 제목으로 들풀과 들꽃을 소재로 작업하고 있으며 캔버스 위에 화선지를 붙이고 아크릴 물감과 먹물을 사용하였다. 질감을 내기 위해 화선지를 구기는 등 독자적인 화법을 전개해 나가고 특히 두

껍게 중첩된 색들이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그의 작품에서는 꽃들의 형태가 스타카토 형식으로 산뜻하게 분절되고 있다.¹

작가의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미술적 요인과 상관없이 자신의 휴식이다. 주로 주변에 대해 시각 일기를 쓰듯 자신의 행동반경 안에서 만나는 일상의 풍경을 클로즈업해 작품으로 옮긴다.



홍정화, 〈휴식〉, 2021, 캔버스에 아크릴, 70×140cm, 작가 제공

최근의 작업은 아크릴물감을 작품의 바탕에 뿌리고 흘리며 중첩된 마티에르 위에 무질서하게 자란 들풀과 꽃들을 캔버스에 담는다. 이에 화가에게 휴식은 단순히 쉬는 개념을 뛰어넘어 새로움과 소통하는 것이며, 이 소통을 화가는 ‘꽃과 들풀 소리’로 생각하며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추구하고 있다.²

1 김구희, 「홍정화 개인전, 그녀의 순수함 들꽃으로 피어나다」, 『충청데일리』(2016. 12. 13).

2 「〈전시〉홍정화 작가 개인전 ‘휴식」, 『금강일보』(2014. 8. 3).

연보

- 1957년 충청남도 대덕군 탄동면 외삼리(현, 대전시 서구 외삼동) 출생
- 1976년 충남여자고등학교 졸업
- 1978~1987년 《칭립전》(대전문화원)
- 1980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충북 덕산중학교 미술교사 부임
- 1985년 《충남한국화협회전》(대전문화원)
- 1986년 《충남작가초대전》(서울, 경인미술관)
- 2010년 《한·일 국제미술제 초대 부스개인전》(도쿄, 아마와끼갤러리)
- 2012년 《개인전》(대전, 흥인갤러리)
- 2013년 《대전작가 부스 개인전》(프랑스 노르망디, 소금창고 갤러리)
《대전미술제》(대전시립미술관)
《남부현대미술협회 국제 교류전》(전북예술회관)
《서구미술작가 초대전》(대전서구관저문예회관)
《전국판화가 협회 교류전》(대전, 우연갤러리)
- 2014년 《개인전》(대전, 옷다갤러리) / 《심향 맥전》(대전중구문화원)
《제1회 대전음식예술관광특구축제 창립전》(대전, KBS 전시실)
《국제 판화교류전》(대전, 대청담 문화관 기획전시실)
《대전현대미술협회전》(대전, 우연갤러리)
《46번가 판화가전》(대전, 이공갤러리)
- 2015년 《한·몽 초대작가 교류전》(몽골국립미술관)
- 2016년 《개인전》(대전 예술가의 집) / 《대전 국제미술 교류전》(대전중구문화원)
- 2017년 《한·태 국제교류전》(태국, 부라파대학교)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
- 2018년 《한·중 국제교류전》(중국, 무한미술관)
- 2019년 《개인전》(대전, 화니갤러리) / 《대전구제아트쇼》(대전, 무역전시관)
- 2020년 《국제화랑 아트페어》(부산, Bexco)
- 2021년 《국제아트쇼 2021》(대전, 골든하이컨벤션센터)
《아트광주 21》(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2022년 《서울조형아트페어》(서울, 코엑스) / 《서구미술작가 초대전》(대전서구문화원)
《IHAF 2022》(대구, 호텔인터볼고)
《경주아트페어》(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아트버디 기획전》(서울, 갤러리아아트버디)
《BAMA 호텔아트페어》(부산, 그랜드조선호텔)
《개인전》(대전, 롯데갤러리)

강구철 (姜求鐵, 1958~)



강구철, 《사색(思索)》, 2012, 혼합재료, 160×240cm, 작가 제공



강구철, 《사색(思索)》, 2012, 혼합재료, 194×259cm, 작가 제공

1958년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에서 태어난 강구철은 남대전고등학교,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후 중국문화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강구철이 동양화를 전공한 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서예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붓글씨를 쓸 때 느껴지는 평안함과 삶에 대한 직관은 동양화의 매력에 눈뜨게 했다. 또한 대학 졸업 뒤, 강구철은 다만 중국문화대학교로 유학을 떠나 동양이론과 명화들을 공부하며 학자로써의 길도 준비했다. 대만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후,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에서 강사생활을 하다가 1993년 한남대학교 회화과에 부임한 후 2014년 한남대학교 조형예술대학장을 역임하고, 2016년 한남대학교 교양교육대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¹

미술교육계에서 후학 양성에 힘쓴 강구철은 작가로서의 길도 병행했다. 전통 수묵화를

넘어서 한국화의 현대화라는 화두에 집중했다. 불교와 노장사상에 매료되어 자신만의 고유한 벽화 형식을 창안한 《회상》 연작과 나비와 잠자리 등 주변의 친근한 자연물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이 사색(思索)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사색》 연작이 대표적이다.² 또한 작업의 재료는 분명히 한국화이지만 색감과 표현기법은 서양화에 가까우며, 먹 대신 점토(흙)를, 은근하고 담백한 먹색 대신 노랑과 초록색과 같은 오방색 혹은 화사한 파스텔 색채 등을 즐겨 사용해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독자적인 한국화 작품을 완성한다. 이처럼 강구철은 전통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1 「나는 오늘도 삶을 배웁니다-한남대 교양대학장 강구철 교수」, 『금산중앙신문』(2018. 4. 12).

2 「디지털 시대에 주목받는 '무위의 미학」, 『한국일보』(2019. 11. 7).

새로운 형상성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³ 따라서 강구철의 작업들은 수묵화에 바탕을 두면서도 수묵화의 전통성을 극복하고 또다른 동양적 감성의 표출을 지향하고자 했으며, 40여년이라는 긴 회화적 여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대수묵과 벽화양식 작품에 이어 자연물을 중심으로 작가가 꿈꾸는 회화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⁴

강구철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외교통상부, 대전광역시청사, 중국2008올림픽기념관, 한남대학교 등에 소장되어있다. 또한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전시미술대전, 충청남도미술대전, 충북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금강미술대전, 안전미술대전 등에서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강구철, 《사색(思索)》, 2017, 장지에 채색, 201×150cm, 작가 제공

연보

- 1958년 충청남도 금산 출생
- 1977년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1983년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학사 졸업
- 1990년 대만 중국문화대학교 석사 졸업
《강구철전》(타이페이시립사회교육관)
- 1991년 《강구철전》(서울, 청작갤러리)
《'91 한국화산하전》(서울시립미술관)
《대전한국화회전》(대전중구문화원)
- 1992년 《문인화 정신과 현대회화전》(서울시립미술관)
《한국화 동질성 회복전》(광주, 인제미술관)
- 1993년 《한국화 그 동질성의 회복전》(대전중구문화원)
《'93 오늘의 미협전》(서울, 예술의전당)
- 1993~2022년 한남대학교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 대학 회화과 교수 역임
- 1994년 《한국화 오늘과 내일 '94》(서울, 위커힐 미술관)
《문인화 정신의 탐구》(서울시립미술관)

3 「지역 화가 강구철, 서울 백송갤러리서 개인전」, 『대전일보』(2009. 5. 27).

4 「임림미술관서 특별기획 '사색과 여정' 강구철展 열린다」, 『충남일보』(2022. 8. 31).

- 1995년 《대전, 충남작가 초대전》(대전, 한림갤러리)
《'95 문인화 정신의 모색》(서울시립미술관)
- 1996년 《'96 한국화 동질성의 회복전》(전북예술회관)
- 1997년 《강구철전》(대전, 흥인갤러리)
《'97 한국화 동질성의 회복전》(서울, 운현궁미술관)
- 1999년 《강구철전》(대전, 흥인갤러리)
- 2000년 《대덕문예회관 기념전》(대덕문예회관)
- 2001년 《강구철전》(서울, 명동화랑)
《영남, 호남 그리고 충청전》(대전시립미술관)
- 2003년 《강구철전》(대전, 롯데화랑)
- 2004년 《공주국제미술제》(공주, 임림미술관)
《무등미술대전》(광주비엔날레관)
- 2005년 《현대한국화 33인 초대전》(대구, 우봉미술관)
《남경, 대전 서화교류전》(중국, 남경미술관)
- 2007~2022년 한국미술협회 한국화분과 이사 역임
- 2009년 《강구철전》(서울, 백송화랑)
- 2010년 《강구철전》(대전, MBC 갤러리M)
- 2011년 《강구철전》(대전, 모리스갤러리)
- 2013년 《다양성과 시대정신》(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1, 2층 전관)
- 2014~2015년 한남대학교 조형예술대학장 역임
- 2016~2018년 한남대학교 교양교육대학장 역임
- 2020년 《먹의 시간》(대전시립미술관)
- 2022년 《강구철 특별기획 초대전: '사색과 여정'》(공주, 임림미술관)
- 2022년~현재 한남대학교 아트앤디자인테크놀로지대학 회화과 교수로 재직

고영환(高榮煥, 1958~)

호는 목취(木翠). 1958년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한 고영환은 어릴 적부터 만드는 것을 좋아해 아버지가 취미로 목기, 광주리, 삼태기 등을 만들던 연장을 가지고 팽이, 썰매, 딱총 등을 만들곤 했다. 동네에 있던 옹기공장에서 옹기토를 밟아 달라고 하면 신나게 밟는 등 흙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다.

홍익대학교 미술교육원에서 미술일반과 소묘를 공부한 고영환은 경기도 양평군에서 운영하던 목공예 교육센터에서 목조각을 이수한 후 조각가 이상수에게 현대조각을 배웠다. 1980년 초 우연히 떠난 부산의 바다와 어우러진 환경에 반해 학원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잠시 머물기도 했다. 부산에 머무는 동안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한 덕에 1993년 《부산 미술대전》에서 작품 〈象-A83〉으로 특선을 하였다.¹

작가는 1986년 천안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전국실기공모전》에서 작품 〈잉어동자〉가 당선됨으로써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공모전 수상을 계기로 부산에서 천안으로 거주지를 옮긴 작가는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약 20년간 독립기념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목조각 및 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도 열심히 작품을 제작하여 2009년 《대한민국환경미술대전》에서 〈Blooming〉으로 최우수상, 2013년 《대한민국환경사랑공모전》에서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한 작품 〈가족사랑〉으로 동상을 수상하며 작가로서 위치



고영환, 〈가족2〉, 2007, 석재, 36×17×26cm, 작가 제공



고영환, 〈Blooming〉, 2020, 오석, 52×27×11cm, 작가 제공

¹ 1975년 '부산 미전'으로 처음 개최되었으며 1983년 '부산 미술 대전'으로 개칭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향토문화전자대전 '부산 미술 대전' <https://terms.naver.com/>

를 확보하였다.

고영환은 특정 재료를 고집하기보다는 공사 현장이나 주변에서 우연히 채집한 콘크리트 파편, 철근이 박힌 시멘트 덩어리, 나무나 돌 등을 활용해 작업을 하고 있어 '전천후 생활조각가'로 불린다. 작가는 과도하게 만지거나 무엇을 의도해서 제작했다는 느낌을 최소화시키고 자신이 마주하는 재료와 긴 대화를 통해 재료가 갖고 있는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내면의 이미지와 조화시켜 작업에 옮긴다.² 이미 물질 자체가 작가에게 말을 건네고 그 물질 안에 박혀있는 특정 형상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재료 자체에서 연유하는 물활론적인 상상력을 근거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작가의 기본 어법이다.³

고영환은 목재와 석재를 재료로 얼굴, 꽃, 산, 모자(母子)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형상이나 종교적 도상, 그리고 유기적인 형태를 연상시키는 추상조각을 제작하는 등 꾸준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연보

- 1958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 출생
- 1983년 《부산미술대전》(부산시민회관)에서 〈象-A83〉으로 특선
- 1986년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주최 전국공모실기전》에서 〈잉어동자〉 당선
- 1998년 《오늘의 시각 그 이미지전》(천안문화원)
- 1998~2021년 《대전카톨릭미술가회전》
《천안미협전》에 꾸준히 출품
- 1999년 《고영환 초대개인전》(천안, 화랑 작은무대)
- 2000년 《새 천년의 충남미술》(천안시민문화회관)
- 2002년 《빛-색으로 선으로 형으로》(대전, 우연갤러리)
- 2006년 《향토작가 초대전》(천안시민회관)
- 2007년 《고영환 초대개인전-새 하늘 새 땅》(서울, 평화화랑)
- 2009년 《천안중견작가전》(천안시청)
《고영환조각전》(천안시민회관 /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대한민국환경미술대전》(서울, 보증보험갤러리)에서 〈Blooming〉 최우수상
- 2010년 《열린공감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
《전국조각가협회전》(부여일원아외전시장)
- 2011년 《제5회 개인전》(천안 지산 갤러리)
《아트 청주 2011》(청주, 예술의전당)

2 고영환 블로그, 「작업단상」 <https://blog.daum.net/goyounghwan/60?category=575154>

3 박영택, 「고영환-물질의 관점에서 보는 조각」, 『고영환전: 새 하늘 새 땅』(충청남도 도립도서관 기획전시실, 2020).

- 2012년 《기획초대전》(천안, 지산갤러리)
《개인전》(천안법원갤러리 / 미국 뉴욕, 우단갤러리)
- 2013년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대전, 쌍리갤러리)
《대한민국환경사랑공모전》〈가족사랑〉 동상
- 2015년 《한국현대조각의 새로운 물결》(대전, 예술가의 집)
- 2015~2021년 《향토작가 초대전》(공주, 임립미술관)
- 2016년 《한국미술전-새로운 도약의 발견》(서울, 예술의전당)
《천안미술의 지평전》(천안, 예술의전당)
- 2017년 《내포를 품다》(충청남도 도청전시장)
- 2018년 《파리에 꽃피다》(France, Le Genie de la Bastille)
- 2020년 『고영환전 : 새 하늘 새 땅』(충남도립도서관 2층 기획전시실)
《고영환 개인전》(충남도립도서관 기획전시실)
- 2021년 《충남ART21청립전》(천안, 예술의전당)
- 2022년 《찾아가는 미술관》(공주, 임립미술관)
《고영환개인전》(천안, 시민문화회관)

김기택(金基澤, 1958~)



김기택, 〈아침이슬〉, 2010, 캔버스에 유채와 아크릴, 162cm × 112cm, 개인소장

김기택은 충청북도 옥천에서 태어나 3살 때 대전으로 이사회 성장했다. 한밭중학교에 진학해 손부일 선생에게 그림을 배우면서 미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김기택은 충남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미술반원으로 활동했다. 대전지역 고등학생 연합 미술단체인 '미상록' 회장으로 활동하던 김기택은 3학년 때인 1977년, 문화공보부 주최 《새마을작품공모전》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대상)을 수상했다.

1978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입학해 1984년 졸업한 작가는 1988년 충청북도 제천군 신덕중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작품 제작에 매진해 1992년 《대전시미술대전》에서 대상, 《대한민국미술대전》에 입선을 수상했다. 이를 계기로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1994년, 서울 인덕로 화랑에서 '의식된 상황'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이 전시에서 작가는 한 화면에 또 다른 화면이 들어있는 것 같은 이중 구조로 이루어진 작품을 통해 평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소재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즉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나 물체지만, 전혀 다른 상황을 극사실적인 기법으로 한 화면에 병치시킴으로써 낯설고 비현실적인 시공간처럼 느껴지는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였다.¹

첫 개인전 이후 김기택은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들어가 2001년 졸업했다. 이후 작품의 영구적 보존을 위해 재료를 고민하고, 표현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던 중 컴퓨터사를 이용한 피스 작업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김기택 작품의 주된 소재는 새와 꽃으로, 그 중에도 매화(梅花)는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다. 김기택의 매화는 문인묵객(文人墨客)의 사랑으로 피어났던 사군자류의 매화 그림과는 완전히 다르다. 유채물감을 이용해 사실적인 기법으로 정교하게 그린, 물기를 잔뜩 머금은 매화와 새, 혹은 인간이 조우하는 《아침이슬》(2010~2014) 시리즈는 현대판 화조화(花鳥畵)라 할 수 있다.²

서양화가로 출발했으나 《아침이슬》 연작을 통해 동서양의 재료나 표현, 사상적 범주를 이

1 김기택갤러리. <https://blog.naver.com/kimkstart>

2 공광식, 「현대판 화조도(花鳥圖)를 그리는, 작가 김기택」(대전시립미술관, 2014).

분화하지 않고 집요하게 자신만의 세계를 탐색하던 김기택은 2017년부터는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시 ‘풀꽃’ 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구절처럼 익숙하고, 사소한 것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킨 《기억이 머무는 자리》 연작을 선보였다. 여행 후 기억을 기반으로 이미지의 조각들을 재구성한 <기억이 머무는 자리>에는 흐릿하게 처리한 배경 속에 돌과 돌담, 그 사



김기택, <기억이 머무는 자리>, 2022, 캔버스에 유채와 아크릴, 116.7×80.3cm, 개인소장

이에 자라는 풀과 나뭇가지,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새와 망울을 터트린 꽃들이 등장한다. 배경과 달리 자연물들은 섬세하게 묘사했지만, 가까이 갈수록 아름다운 형태와 색채로 이루어진 형상에서 회화적 감각을 느끼게 된다. 디지털 작업을 기반으로, 다른 시공간에 있던 이미지들을 재구성한 화면에는 각각의 형상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있다. 자연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최대한 재현하면서도 인위적으로 미적 요소를 결부시킴으로써 이미지들이 상호 작용을 일으키며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 허나영은 이러한 김기택의 화면을 “회화로 펼쳐진 자유로운 낙원”이라고 명명했다.³

김기택은 1988년부터 2019년까지 충청북도에 있는 중고등학교(옥천고등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고등학교, 충북외국어고등학교 등)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2002년부터 목원대학교·배재대학교·충남대학교·충북대학교에 출강했으며, 2002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미술대전》을 비롯해, 《대전시미술대전》·《충청남도미술대전》·《충청북도미술대전》·《공무원미술대전》 등 각종 미술전람회의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2004년 일본 아키타(秋田) 시립미술관 아토리온 전시실에서의 개인전이 계기가 되어 2007년까지 아키타 스키갤러리의 전속작가로, 2005년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오픈갤러리 전속작가로 초대전을 여는 등 19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 및 한국, 중국, 일본, 뉴욕 등에서 열린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2012년 이동훈 미술상 특별상, 2022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연보

- 1958년 충청북도 옥천 출생
- 1978~1984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입학, 졸업
- 1988년 충청북도 제천군 신덕중학교 교사로 부임

3 허나영, 「싱그러운 자연 속 자유로운 낙원」, 『김기택전』(대전시립미술관, 2022).

- 1992년 《대전시미술대전》 특선,
《한국수채화 공모전》 특선 수상
《대전시미술대전》 대상 수상
- 1994년 개인전 《의식된 상황》(서울, 인데코 화랑)
- 1998~2001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졸업
- 1999년 《개인전》(대전, 한림갤러리)
- 2002년 《목우회 광주전》(광주시립미술관)
- 2004년 《개인전》(일본, 아키타 시립미술관 아토리온2)
- 2005·2006년 《개인전》(일본 아키타, 스키갤러리)
- 2007년 《Open Gallery 초대전》(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 2008년 《개인전》(서울, 르씨엘갤러리)
《개인전》(일본 아키타, 스키갤러리)
- 2011년 《개인전》(서울, 장은선갤러리)
- 2012년 《한국미술의 이상과 현실》(서울, 서울미술관)
제11회 이동훈 미술상(대전시립미술관) 특별상 수상
《모리스 갤러리 초대 개인전》(대전, 모리스갤러리)
《개인전》(서울, 장은선갤러리)
《한국구상대제전》(서울, 예술의전당)
- 2013년 《개인전》(서울, 캐피탈갤러리)
- 2014년 《제11회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
- 2016년 《개인전》(서울, 장은선갤러리)
《한국구상대제전》(서울, 예술의전당)
- 2017년 《여수 국제아트 페스티벌》(여수세계박람회장)
《개인전》(서울, 비디갤러리)
- 2018년 《꽃피는 봄이오면》(울산, 현대미술관)
- 2021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상(대전시장상) 수상
《동상(同裳) 한국 현대미술 중국교류전시회》(중국, 산둥미술관)
- 2022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
《대전구상작가협회전》(대전, M갤러리)
《개인전》(서울, 비디갤러리)

김난희 (金蘭姬, 1958~2016)

호는 경산(憬山). 1958년 강원도 춘천에서 출생한 김난희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를 졸업하고 이어서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에 진학해 요업디자인을 전공하였다. 석사학위를 받은 후 보다 전문적인 학습을 위해 이탈리아 파엔자 국립도예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김난희는 이태리에서 귀국 후 초벌 한 작품 위에 백색의 불투명한 유약을 입히고 그 위에 채색을 한 후 다시 투명유를 입혀 약 920℃의 온도로 구워내는 마요리카(Majorica) 도기를 선보였다.¹ 1992년 조성된 계룡산 도예촌에 입주하여 공방을 열고 기존의 도자에서 영역을 확대해 분청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다.

김난희는 인간의 존재를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순환원리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작가가 경험하고 인식한 산·물·바람 등의 자연현상을 흙 등 소재를 빌어 자신만의 조형언어로 구현하였다.²

1995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산업미술학과 교수로 부임해 2004년 암으로 인한 휴직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간 후학양성과 작품 활동에 매진하였으나 2016년 질병으로 사망했다. 2017년 작고 1주년을 추모하는 《난희가 만든 레시피전》이 재직했던 충남대학교에서 열렸다.



김난희, 〈무제〉, 1990, 고령토, 36.5×33×35.5cm
(출처: 『김난희도예전』, 바탕골미술관, 1990)



김난희, 〈접시〉, 1994, 마요리카, 30cm(출처: 『김난희도예전』, 나무화랑, 1994)

1 수를 놓은 듯 화려하고 정교한 문양이 특징으로 르네상스시대부터 이탈리아 도기의 대명사로 지칭되며 파이앙스(Faience)라고도 한다.

2 「충남대 10일부터 고(故) 김난희 교수 1주기 추모전」, 『디트NEWS24』(2017. 1. 9).

연보

- 1958년 강원도 춘천에서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졸업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산업공예과 졸업
FAENZA(Italy) 국립도예학교 졸업
- 1981~1988년 《후기도예가회전》³(서울, 미술회관 / 서울갤러리 / 동덕미술관 등)에 꾸준히 출품
- 1983년 《제2회 대한민국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입선
- 1989년 《접시에 관한 몇가지 생각전》(서울, 한선갤러리)
- 1990년 《제1회 개인전》(서울, 바탕골미술관)
《제18회 동아공예대전》(서울갤러리) 현대공예부문에서 〈흙세트〉로 대상
- 1992년 공주 계룡산 도예촌에 입주
- 1993년 ‘Forme sotto la Luce 시민공원을 위한 공동작업’(이탈리아 파엔차)
- 1994년 《2000년을 향한 도조전》(서울, 갤러리아아트클럽21)
《제2회 개인전-920℃~1250℃》(서울, 나무화랑)
- 1995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창의학과 부임
- 1997년 《'97 진로국제도예워크숍》(창원, 경남대학교 예술관)
- 1999년 《제4회 개인전》
- 2000년 《꽃들을 위하여》(대전, 예맥화랑)
- 2005년 《제5회 개인전》(대전, 이공갤러리)
- 2006년 《대전시립미술관 주최 ; 열린미술관-미술가가 꿈꾸는 모델하우스》(대전, (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009년 《한일국제미술제-움직이는 성(城)》(대전, 이안갤러리 / 우연갤러리 / 쌍리갤러리 / 갤러리 게이트 / 중구문화원)
- 2015년 《충남대교수작품 특별전》(대전, 롯데갤러리)
- 2016년 작고

³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 출신 도자전공자들의 모임으로 1980년 3월 창립전을 가졌다.

김영호(金永鎬, 1958~)

1958년 대전에서 태어난 김영호는 대전고등학교를 나와 1982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 1987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첫 개인전에서 변형된 화면에 채색을 가미한 옅터결한 작품을 선보였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1996년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C.U.N.Y)을 졸업했다. 미국 유학시기부터 메시지가 강조되는 오브제와 설치 작품들을 주로 제작하던 작가는 귀국 후에도 한동안 동일한 작업을 지속했다. 그러나 2006년,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Asymmetric Scope'라는 제목의 개인전에서는 기하학적인 패턴이 두드러지는 회화 작품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매체와 장르를 시도했다. 이러한 그의 행보를 허구영은 형식주의자의 "반형식주의적 행각, 또는 반형식주의자의 형식주의적 행각"으로 표현했다.¹ 결론을 유보한 채 형식과 반형식 사이를 배회하듯 어느 한 지점에 머무르지 않던 작가는 2009년 대전 이공갤러리 개인전에서는 색을 칠한 수많은 낚시대를 바다와 벽에 드리운 설치 작품과 낚시바늘의 형상으로부터 고안한 하트 형상을 암시하는 작품을 전시하며 '행간 읽기'라는 전시명을 붙였다.

2010년 9번째 개인전 《across the road》에는 또다시 변화를 시도했다. 집에서 출발해 직장 과 경유지들을 통행하며 백일동안 보았던 '도로표지'와 그 도로 위의 동선을 대규모 벽면에 컬러 펜으로 나타난 '지도'와 같은 회화적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² 이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벽면 드로잉이나 페인팅이 전시 이후 철저히 폐기되는 모습을 통해 기념비적 작품이 지닌 단품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었다. 2012년 10번째 개인전 《쓸모있거나 혹은 쓸모없거나》는 표면적으로는 9번째 개인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미술의 상업적 병폐에 대한 저항과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선상에 있다. 이 전시에는 고철이 산적해 있는 고물상의 이미지를 디지털 프린트한 화면 위에 고철더미와는 상반되는 기하학적인 색면과 띠를 병치시킨 일련의 작품들로 이루어졌다. 이는 쓰레기 집합소와 같은 현대미술의 유용함과 비유용함 사이에서



김영호, 《across the road》 전시광경, 2010, 대전 우연갤러리

1 허구영, 「김영호의 〈행간 읽기〉/다리(die Brücke) 위에서」, 『김영호 行間읽기』(대전 이공갤러리, 2009).

2 유현주, 「영원회귀의 삶을 "가로지르다"-백일간의 로드맵」, 『The 9th Solo Exhibition: across the road』(대전 우연갤러리, 2009).



김영호, 《무제》, 2012, 캔버스에 아크릴과 디지털라이징, 130×96cm, 작가 소장

의구심과 회의를 품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즉 바탕층의 현란하고 스펙터클한 고철의 산적된 이미지는 황폐화된 현대미술의 상황을 은유한 것이며,³ 그 위에 모더니즘 회화를 상징하는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삽입하여 심미적 가치를 부여했다. 이 작업은 11번째 개인전 《독해연습·讀解練習》에도 이어지는 등 김영호는 산업사회로부터 용도 폐기된 상태로 폐품 신세가 된 쓰레기더미를 통해 현대미술을 환기시키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김영호는 2009년부터 목원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심의위원, 대전광역시문화상 심의위원, 충청남도문화재단 심의위원, 충청남도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까지 15회의 개인전을 통해 자신의 예술철학을

발표했으며, 다수의 단체전과 기획전에 참여했다.

연보

- 1958년 대전 출생
- 1982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84년 개인전 《Shaped Drawing》(대전, 현대화랑)
- 1987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 1994년 《뉴욕대학원생 초대전》(미국 뉴욕, 헌터캘리지 갤러리)
- 1995년 《Masking the Unknown》(미국 뉴욕, 하트워 뮤지움)
개인전 《Endless Game》(미국 뉴욕, 김튼-괴달 갤러리)
- 1996년 뉴욕시립대학원(new form / multimedia 전공) 졸업
《물성의 변증법》(미국 뉴욕, 오브젝티브 스페이스)
- 1997년 《Obsessed》(뉴욕, 한국문화원)
《Five Passages》(뉴욕, 456 브로드웨이갤러리)
《Daydreaming》(미국 뉴욕, 450 브로드웨이갤러리)
- 1998년 《KBS 미술초대》(대전, KBS방송국)
- 1999년 개인전 《간판그림》(대전시민회관) / 《출발 2000》(서울, 국립중앙극장)

3 허구영, 『“쓸모있거나 혹은 쓸모없거나”-김영호의 폐허 위에서』, 『The 10th Solo Exhibition: 쓸모있거나 혹은 쓸모없거나』(대전 이공갤러리, 2012).

- 2000년 개인전 《Candle-Garden》(대전시민회관)
- 2001년 《디지털 네트워크전》(서울, 테크노마트)
- 2002년 《대전 色전》(대전시민회관)
- 2003년 개인전《길들이기》(대전, 이공갤러리)
- 2004년 《대관령자연미술제》(삼양대관령목장)
- 2005년 《Peace-Plase》(공주, 동학혁명기념탑)
- 2005~2006년 《네트워크 21세기전》(전주민촌문예회관 / 대전, 우연갤러리)
- 2006년 개인전 《Asymmetric Scope》(서울, 인사아트센터)
- 《현대미술교류협회전》(대전시청 전시실) / 《대관령자연미술제》(대관령)
- 《미술가가 꿈꾸는 모델하우스》(대전시립미술관)
- 2007~2008년 《시장미술제》(대전, 중앙시장)
- 2007년 《청풍이명월(淸風異明越)》(대전, 이안갤러리)
- 《금강자연미술제 프레 비엔날레》(공주박물관)
- 《6인의 화가들》(미국 뉴욕, open space)
- 2008년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
- 《It's Daejeon, 대전창작센터 개관기념전》(대전창작센터)
- 2009년 목원대학교 교수 미술대학 서양화전공 교수로 부임
- 《김영호 行間읽기》(대전, 이공갤러리)
- 《현대미술협회전》(대전, 모리스갤러리)
- 《코리아 아트 페스티벌》(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국제무역센터)
- 《2009 중구작가 초대전》(대전중구문화원)
- 2009~2011년 《네트워크 21C전》(전주, 소리문화예술의전당)
- 2009~2012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작품전》(대전, 오원화랑 / 덕린화랑)
- 2010년 《The 9th Solo Exhibition: across the road》(대전, 우연갤러리)
-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 / 《대전미술협회전》(대전, 아트존갤러리)
- 2010~2011년 《HICA전》(대전, 이공갤러리)
- 2011년 《현대미술협회전》(대전, 성갤러리)
- 2012년 《The 10th Solo Exhibition: 쓸모있거나 혹은 쓸모없거나》(대전, 이공갤러리)
- 《길을 떠나다》(보령, 모란미술관) / 《Turn Over》(대전, 선화기독교미술관)
- 2013년 《The 11th Solo Exhibition: 독해연습·讀解練習》(대전, 선화기독교미술관)
- 2014년 《The 12th Solo Exhibition: 명명불가(命名不可)》(대전, 흥인갤러리)
- 2015년 《13번째 개인전 : A practice for reading comprehension》(대전, 변방갤러리)
- 2018년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전》(대전시립미술관)
- 2019년 《The 14th Solo Exhibition: 탈명명(脫命名)》(대전, 목원대학교 미술관)
- 2020년 《The 15th Solo Exhibition: de-jamais-vu》(대전, 흥인갤러리)

노상균(盧尙均, 1958~)



노상균, 〈쌍둥이 예수(Twin Jesus Christ)〉 설치전경, 갤러리현대, 2001, 폴리에스터 레진·유리섬유·시퀸, 각 267×265×78cm, 작가 소장

충청남도 논산에서 출생한 노상균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랫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1988년 관훈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연 이래 서울, 도쿄, 뉴욕 등지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노상균은 초기 단색조 기반의 회화 작업에서 1992년 뉴욕 유학 중 발견한 레디메이드 오브제인 시퀸(sequin, 일명 스팽글)을 이용한 작업으로 전환하였다. 노상균이 시퀸이라는 오브제를 선택한 배경에는 어린 시절 우연히 물에 빠져 익사

할 뻔했던 찰나의 순간 물고기를 떠올렸던 개인적 경험에서 연유한다. 물고기는 한동안 그의 작업의 주제로 1991년을 전후한 작품에서는 혼합매체를 이용했으나, 1992년 시퀸을 도입하면서 물고기의 사실적인 형상은 사라지고, 물고기의 비늘을 연상시키는 시퀸을 중첩한 형태만 남게 된다. 물고기 비늘의 미끌미끌한 표면을 환기시키는 시퀸의 촉각적 성질은 공감감적 감흥을 유발하며 노상균 작품을 연상시키는 중요한 재료가 된다.

1994년, 5년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노상균은 1995년 개인전에서 화려하고 값싼 장식용 재료인 시퀸을 사용해 고상한 미니멀 회화나 후기 팝아트 같은 느낌의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선보였다. 즉 노상균은 모더니즘 회화의 궁극적 본질인 평면성, 물질성, 시각성과 그와 연관된 일루전, 재현, 응시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시퀸 작업에서 얻은 것이다.¹ 붓질 대신 화면 위에 시퀸알이나 시퀸줄을 일일이 붙여나가는 손노동으로 점철된 작업은 상당한 인내력과 고통의 시간을 요구한다. 이렇게 수련하듯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작가는 시퀸이 가진 키치적 속성을 반전시켰다. 아울러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동양적 사유와 명상적인 분위기의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시퀸은 배열할 때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평면 공간에 입체감을 부여하게 되는데, 관람자가 보는 위치에 따라 색과 빛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관람객 참여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 김홍희, 「노상균의 올 댓 시퀸스」, 『Noh, Sang-Kyoon』(갤러리시문, 2011), p. 14.

1998년부터 노상균은 불상, 예수상, 마네 킹과 같은 입체물에 시퀀을 덮어 기존의 종교적 도상이 지닌 숭고함과 기념비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개념의 조각을 선보였다. 1999년 제 48회 베니스비엔날레의 한국관 대표작가로 참여한 노상균은 시퀀을 이용해 무한대로 확장되는 시각적인 패턴과 신비스러운 빛으로 가득한 공간 연출로 호평을 받았다. 빛에 따라 변화하는 착시와 환영의 효과를 통해 실재와 허구,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시도했던 노상균은 2000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었다.



노상균,〈The King Size Bed For A Daydreamer〉설치전경, 갤러리 시몬, 2020, 박스 스프링에 아크릴·축광안료·유화·폴리우레탄, 각 197×94×17cm, 작가소장

2011년, 별자리의 형상을 모티브로 제작한 《십이궁도》연작을 서울과 뉴욕에서 전시했던 작가는 2018년 개최한 개인전에서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시퀀 대신 축광(蓄光) 안료를 사용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산업 안전용품이나 벽화, 장식물 제작에 사용되는 축광 안료는 물감과 혼합된 액체형태로 자유로운 변형과 덧칠이 가능하다. 또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는 시퀀과 달리 어둠의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² 작가와 지인들의 지문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변형시킨 선부터 둥그런 과녁 같은 형태, 거대한 산의 실루엣 등 다양한 형태가 그려있는 화면은 축광 안료의 발광효과로 즉각적인 파악은 어렵다. 숨은 그림처럼 형상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관객의 인지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촉매역할을 한다. 따라서 축광 안료의 사용은 전통적인 회화가 지닌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작가의 또다른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연보

- 1958년 충청남도 논산 출생
- 1984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86~1989년 《로고스 & 파토스》(서울, 관훈미술관)
- 1987년 《'87 청년작가전》(과천, 국립현대미술관)
- 1988년 개인전 《The Field》(서울, 관훈미술관)
- 1992년 개인전 《Rainbow Fish》(미국 뉴욕, 히긴스 홀 갤러리)
- 1994년 미국 프랫대학원 회화전공 졸업
- 1995년 《노상균전》(서울, 갤러리 이콘)
- 1997년 개인전 《Happy New Year!》(서울, 갤러리 현대 / 윈도우 갤러리)

2 이추령, 「노상균의 빛나는 그림에 대하여」, 『Noh, Sang-Kyoon』(갤러리시몬, 2020), pp. 70-71 참조.

- 1998년 《노상균전》(서울, 갤러리 현대)
개인전 《The Deep and the Shallow》(서울, 금호미술관)
- 1999년 《노상균전》(이탈리아 밀라노, 지안 페라리 갤러리)
《제48회 베니스 비엔날레》(이탈리아 베니스, 한국관)
- 2000년 《올해의 작가전》(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노상균전》(영국 런던, 로버트 샌텔슨 갤러리)
《주요국제전 출판작가전, 1990~1999》(과천, 국립현대미술관)
- 2001년 개인전 《For the Worshipers, Art Unlimited-》(서울, 갤러리 현대 / 스위스 바젤, 메세바젤)
- 2002년 《노상균전》(일본 도쿄, 갤러리ES)
- 2004년 《노상균전》(미국 뉴욕, 브라이스 월코비츠 갤러리(Bryce Wolkowitz Gallery))
《일상의 연금술》(과천, 국립현대미술관)
- 2005년 개인전 《I LOVE YOU》(서울, 갤러리 시몬)
《20세기로의 여행: 피카소에서 백남준으로》(서울, 국립현대미술관)
- 2007년 개인전 《What Are You Looking For》(미국 뉴욕, 브라이스 월코비츠 갤러리)
- 2008년 《Micro-Narratives》(프랑스, 생페띠엔느미술관)
《YOUiverse, 세비아 비엔날레》(세비아, 안텔루시아 현대 미술 센터(CAAC) / 스페인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
- 2009년 《Medium Religion, ZKM-Center for Art and Media Karlsruhe》(독일, 칼슈르헤)
《Medium Religion》(아일랜드 슬리고, 모던 아트& 닐란드 갤러리)
- 2011년 개인전 《Conjuring Constellations》(미국 뉴욕, 브라이스 월코비츠 갤러리)
개인전 《Conjuring Constellations》(서울, 갤러리 시몬)
《올해의 작가 23인의 이야기》(과천, 국립현대미술관)
- 2012년 《SeMA Gold 2012: Hidden Track》(서울시립미술관)
《한국의 단색화전》(과천, 국립현대미술관)
- 2013년 《자이트가이스트_시대정신》(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출판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개관전: 장면의 재구성》(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 2014년 《부산 비엔날레 특별전(아카이브전)》(부산문화회관)
- 201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70년: 또 하나의 한국현대미술사》(서울대학교미술관)
- 2017년 《균열》(과천, 국립현대미술관)
개인전 《In the Midst of Shiny Dust》(경주, 우민아트센터)
《내가사는피부》(서울, 소마미술관)
- 2018년 개인전 《Light of Lightness》(서울, 갤러리 시몬)
《균열 II : 세상을 보는 눈 / 영원을 향한 시선》(과천, 국립현대미술관)
- 2019년 《원더랜드뮤지엄: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대전시립미술관)
- 2020년 개인전 《Daydreamer's Tears》(서울, 갤러리시몬)
- 2021년 《컬렉션_오픈 해킹 채굴》(서울시립미술관)
《현대불교미술전 空》(서울,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도병락(都秉洛, 1958~)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난 도병락은 1979년 **목원대학교 미술과에 입학**해 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2년 《구상전》,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특선했고, 졸업하던 해인 1983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입선하는 등 각종 공모전에서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졸업 후 같은 학교 대학원 미술과에 들어가 1987년 졸업했다.

도병락의 1990년대 작품은 생명체로부터 추출된 이미지를 작고 둥근 붓으로 얇게 펴서 바르고, 세필로 무수한 점을 찍어 촘촘하게 화면을 채워나가는 회화가 중심을 이루었다.¹ 1998년 선보인 《시간 속으로》 연작에서 작가는 무채색 배경에 화초나 선인장, 마늘, 나뭇잎을 닮은 이미지들을 반복적으로 배열하여 퇴락한 담벼락에 엉겨 붙은 식물이나 낡은 벽지와 같은 적조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를 통해 작가는 회상과 기억, 상실과 소멸과 같은 내적 심상을 보여주었다.²

2003년경부터 작가는 10mm 두께를 지닌 우드락이나 스티로폼을 아주 작은 단위로 깎아 다듬은 후 칠을 해서 계속 붙여나가는 작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우드락을 자르고 파서 입체적 구조물을 만들고 물감을 바른 후 다시 하나하나 붙여 집적시키는 작업은 고행과 같다. 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작가는 재료가 지닌 본래의 존재를 지우고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 또는 낡고 쇠락한 식물을 상기시켰다. 《기억가지(Memory Branch)》로 이름붙인 이 연작은 삶의 고뇌에서 얻어진 편린들을 공간화한 것이다.³ 즉 작가에게 삶의 이야기는 ‘기억의 가지들’이다. 여러 가지 형태와 복잡한 내부구조로 이루어진 무수한 그리드가 사방으로 연결되고, 거대한 구조물을 이루는 조형물처럼 ‘인생살이’란 단순한 구조로 교차하면서도 복잡하게 연결된 관계망임을 암시한다. 그것은 또한 나뭇가지 사이사이, 그리고 전통 창문의 격자무늬가 무한히 연결되듯이 작은 가지에서 공간으로 확장되는 무수한 언어를 표현한 것이다. 우드락을 깎아서 만든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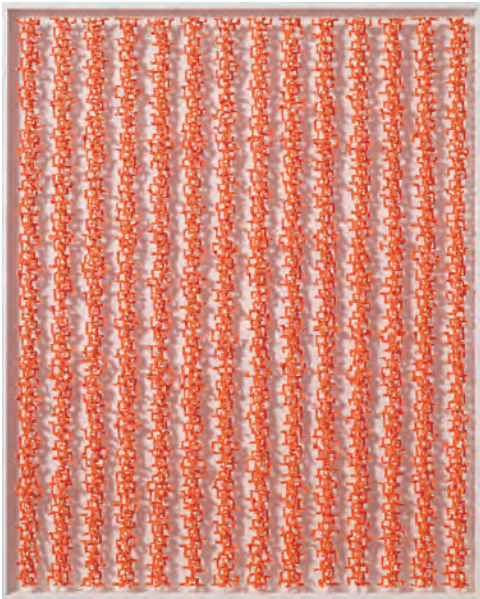


도병락, 〈시간속으로(Through the Time)〉, 1998, 캔버스에 유채, 145×112cm(출처: 『도병락-THROUGH THE TIME』, 박영덕화랑, 1998)

1 박영택, 「도병락의 그림」, 『도병락-THROUGH THE TIME』(박영덕화랑, 1998).

2 이정환 기자, 「[아트 이벤트] '서양화가 도병락 근작전」, 『한국경제신문』(1998. 12. 11).

3 「시간에 대한 기억·비움과 채움의 공간성」, 《도병락》(코엑스 인도양홀 D3 부스, 2007) 전시 리플릿.



도병락, <기억-존재(Memory-Existence)>, 2020, 혼합재료, 123×99×2cm, 작가소장

잘한 면은 매우 촉각적이다. 작은 그리드 사이로 난 구멍에는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지는데, 촘촘한 가지 사이로 번지는 빛은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오는 느낌이다. 여기서 빛은 생의 열망이나 찰나적인 반짝임으로 생명체의 존재성을 은유한다.⁴

2013년 도병락은 《기억-존재(Memory-Existence)》 연작을 통해 타이어 같이 두껍고 단단한 고무판을 칼로 저미는 작업들을 선보였다. 블록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작품은 의식 또는 무의식 세계에서 사라진 것들과 그 사라진 시간 속에서 기억은 삶의 조각을 맞추는 행위와도 같다는 작가의 생각을 보여준다. 즉 무의식 속에서 스쳐가는 수많은 순간들을 기억을 통해 확인하듯이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한다.

나아가 자신의 작품이 그러한 인생의 순간순간을 붙여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기대하며 작업에 임하고 있다. 도병락은 전업작가로 다수의 기획 초대전 및 단체전을 통해 활동하며, 국내외 아트페어(뉴욕, 홍콩, 스위스, 벨기에 등)에 참가했다.

연보

- 1958년 전라북도 전주 출생
- 1982년 《구상전》(서울, 미술회관) 특선 /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 특선
- 1983년 목원대학교 미술과 졸업 / 《대한민국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 입선
- 1983·1985년 《서울 신행상전 한·일 교류전》(서울, 아람미술관 / 서울, 미술회관)
- 1984년 《중앙미술대전》(서울, 호암갤러리) 입선
- 1984~1985년 《제3현대 미술제》(전주, 전북예술회관 / 대전)
- 1985년 《K.I.S.전》(전주, 전북예술회관)
- 1986~1993년 《구상전 소품전》(서울, 표화랑 / 선화랑 / 서목화랑 / 예술의전당)
- 1987년 목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 1987~1990년 《구상전》(서울, 미술회관)
- 1990년 《개인전》(서울, 옹화랑)
- 1991년 《개인전》(서울, 옹화랑 / 전주, 일화랑 / 전주, 예술회관)
《작은 그림 큰 마음》(서울, 송원화랑) / 《전북 청년작가전》(전주, 문화저널)

4 박영택, 「도병락-너무 검은 꽃, 너무 밝은 햇살」, 『영아트갤러리 기획초대전: 도병락』(영아트갤러리, 2009).

- 1992년 《구상전-인도 뉴델리 미술관 초대》(인도, 뉴델리미술관)
《한국의 구상성을 위한 제언》(서울, 갤러리서목)
《92 이콘 청년작가》(서울, 갤러리 이콘)
《지역 작가전》(서울, 금호미술관)
《92 한국미술의 상황과 진단》(서울, 공평아트센터)
《생명현상》(서울, 미도파화랑)
《92년대 미술의 진로와 모색》(서울, 청남미술관)
- 1993년 《90년대 전북 미술방향》(전주, 갤러리 예루)
《개인전》(전주, 갤러리 예루)
- 1994년 《갤러리 예가 개관기념: 다섯의 제안》(서울, 갤러리 예가)
- 1995년 《개인전》(서울, 서남 아트센터)
《작가가 만든 가구전》(서울, 박영덕 화랑)
《개관 4주년기념전》(광주, 캠프리지갤러리) / 《겨울 미술제》(전주, 예술회관)
- 1996년 《개인전》 청화랑(서울) / 《빈켈화랑 개관기념 2인전》(서울, 빈켈화랑)
- 1996~2003년 《청담 미술제》(서울, 예가화랑/ 청화랑)
- 1998년 《개인전》(서울, 박영덕 화랑) / 《11월전》(서울, 청화랑)
《구상회화 현상전》(대구, 동양갤러리)
- 2001년 《개인전》(서울, 조선화랑)
- 2002년 《식물성의 사유전》(서울, 갤러리 라메르)
- 2004년 《전북도립미술관 개관기념전》(전북도립미술관)
- 2005년 《화랑미술제》(서울, 예술의전당) / 《취리히 아트 페어》(스위스)
- 2006~2018년 《한국 국제 아트 페어 KIAF》(서울, 코엑스)
- 2007년 《아트스타 100인전》(서울, 코엑스)
- 2007~2008년 《뉴욕 아트 엑스포》(뉴욕)
- 2008년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특별기념전》(서울, 공평아트스페이스)
- 2009년 《소통과 모색, 그 방향성》(전북도립미술관) / 《깊은 표면전》(서울, 조선화랑)
《물질로서의 은유전》(서울, 공평아트센터)
- 2009년 《개인전》(서울, 영아트갤러리) / 《서울 아트살롱전》(서울, AT센터)
《Hongkong Art Walk》(홍콩, Gallery Gaffe)
- 2010년 《기획전 : 현대 미술의 선물전》(전북도립미술관)
《현대 미술 100인의 형형색색전》(전주, 전북예술회관)
- 2011년 《Art Docking Spot》(하남, 우영미술관) / 홍콩 호텔 아트 페어(홍콩, 만다리 호텔)
- 2012년 《대중의 새로운 시선 7》(서울, 슈퍼리어 갤러리)
- 2013년 《개인전》(전주, 교동 ART STUDIO) / 《개인전》(서울, 인사아트센터)
- 2015년 《윤율적 색채와 의미의 종합》(서울, SUPERIOR Gallery)
- 2018년 《서는 땅, 피는 꽃》(전북도립미술관)
- 2019~2021년 《서울 아트 쇼》(서울, 코엑스)

류승애 (柳勝愛, 1958~)



류승애, 《운계폭의 여름》, 1999, 종이에 엷은 색, 162 × 130cm, 《안전미술대전》 대상 수상작, 안전기념사업회 소장, 작가 제공

호 소정(小晶), 하정(河晶). 1958년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에서 6남매 중 막내로 출생한 류승애는 서산 부춘 국민학교와 서산여자중학교를 다니고 서울로 올라와 대학 진학을 준비하였다. 1976년 건국대학교 생활문화대학 공예학과에 입학하여 도자기를 전공하였다. 대학 재학 중인 1979년 《제10회 대학미전》 공예 1부에서 도자기 작품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대학 졸업 후에는 서예를 시작하여 서화동원(書畵同原) 같은 붓질의 한국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군자를 시작으로 약 4년 동안 관념 산수를 학습하였다. 이후 서양화 사생그룹 '현대사생회'에 참여하여 현장사생을 다니며 본격적으로 기행실경 작업을 시작하였다.

1986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첫 번째 입선하게 된 뒤, 1989년 낙원동 건국빌딩에 소정화실을 내고 인사동에서 화가로서의 삶을 이어나갔다.

1996년 실경산수화로 첫 번째 개인전을 열고 1999년 안전 선생을 기리는 《안전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후에도 미술활동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만봉스님(萬奉, 1910~2006)을 찾아 탕화초를 그리는 등 수련을 하며 인내의 시간을 보낸다. 이후 2000년에는 강상복, 박충호와 함께 개최한 《한국화 3인전》에서 보다 성숙된 필선과 필법을 보여주었고 당시 화단의 원로화가 분들에게도 주목받는 중요 전시로 회자될 수 있었다. 화가로서의 입지를 다졌음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2002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에 입학하여 만학으로 동양화



류승애, 《봄빛 고운날(서산 시청 앞)》, 2006, 종이에 먹 엷은색, 134 × 285cm, 작가 제공

를 전공 하며 석사 학위 논문으로 「紀行(眞景) 山水畵에 관한 研究」를 발표하였다.

졸업 이후 2006년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서산 출신 작가로서 고향의 뿌리와 정서를 모체로 한 그림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다. 2020

년 안전 기념사업회 서울지회장을 맡고 2022년 제22회 대한민국 안전미술대전에서 초대작가상을 수상하는 등 충남지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나갔다. 현재 류승애는 여전히 ‘외사조화 중득심원(外師造化 中得心源)’을 마음에 새기며 자연을 스승 삼고 벗 삼아 필묵 기행의 현장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¹



류승애, <마애삼존불(서산 운산 소재)>, 2006, 종이에 청묵, 36×76cm, 작가 제공

연보

- 1958년 충청남도 서산 출생
- 1984~1989년 《목우회 공모전》에 참여
- 1986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수상
- 1989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입선 수상
- 1989~1992년 《더 잘 3인전》에 참여
- 1996년 《제1회 개인전》(서울, 백악예원)
- 1999년 《대한민국안전미술대전》 대상 수상
- 2000년 《한국화 3인전》(서울, 갤러리 썬&문)
- 2001년 《제2회 개인전》(서울, 조형갤러리)
- 2002년 《동아미술제》 입선 수상
- 2003년 《제3회 개인전》(서울, 라메르갤러리)
- 2006년 《서산시문화회관 출향작가 초대전: 마음으로 그린 서산 풍경전》(서산시문화회관)
- 2015년 《제5회 개인전》(서울, KBS 시청자갤러리 / 갤러리 건국)
- 2016년 《서울아트쇼》(서울, 코엑스)
- 2017년 《제6회 개인전》(서울, 서부지방법원 로비갤러리)
《부산 BAMA 아트페어》에 참여
- 2020년~현재 안전기념사업회 서울지회장 역임
- 2022년 《대한민국안전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서울아트쇼》(서울, 코엑스)

¹ 류승애 작가와의 인터뷰(2022. 10. 24).

박상국 (朴尙局, 1958~)



박상국, 〈another space〉, 2022, 캔버스에 유채, 181.8×227.3cm, 작가 제공



박상국, 〈울릉도 정〉, 1999, 캔버스에 유채, 72.7×90.9cm(출처: 『대전미술 하나 - 그림으로 말하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1958년 대전에서 태어난 박상국은 1985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해 2009년 한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부터 2009년까지 천안에 있는 복자여자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으며, 2009년부터는 한남대학교에서 회화과 강사를 역임했다.

대상의 형태에 의존하지 않으며 색채의 대비와 화면구성을 통해 화면을 평면으로 단순화시키는 회화적 표현방법을 사용한다.¹ 이에 대해 박상국은 “나의 작업은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 사물의 형태를 배제시켜 각각의 요소들을 자유롭게 배치시키는 것이 나의 작업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² 1999년 제작한 〈울릉도 정〉은 이러한 박상국의 회화적 표현을 잘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박상국은 초기 충남미술을 일군 선구자로 평가받는 박성섭(朴性燮, 1903~1974)의 손자이기도 하며 충남화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88년 대전문화원에서 개최한 《제1회 충남동시대전》을 시작으로 《오늘의 충남미술전》(1993)과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2008)에 참여했으며 최근까지도 다양한 유형의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³ 또한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지부장과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하면서 천안지역 미술문화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1 『대전미술 하나 - 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 2008), p. 191.

2 『박상국의 작가노트』, 작가 제공.

3 충남문화재단, 『충남미술가편람 I』(충남문화재단, 2021), p. 38.

연보

- 1958년 대전 출생
- 1985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88년 《제1회 충남동시대전》(대전문화원)
- 1987~2009년 천안 복자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 재직
- 1992년 《제1회 박상국전》(천안, 아라리오 갤러리)
- 1993년 《오늘의 충남미술전》(천안시민회관)
- 1995년 《천안미술의 상황과 모색전》(천안문화원)
《창립20주년 기념 천안지부전: 한집 한그림 걸기》(천안시민회관)
- 1997년 《오늘의 충남미술전》(천안시민회관)
《제9회 대전광역시 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
- 1998년 《오늘의 천안미술전: 오늘의 시각 그 이미지》(천안문화원)
- 2001년 《현대미술 100인 초대전》(대전, 연정국악문화회관)
- 2007년 《연하장 그림展》(대전, 타임월드 갤러리)
- 2008년 《새 봄展》(대전, 문화전시관)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
- 2009년 한남대학교 대학원 미술과 졸업
- 2009~2017년 한남대학교 회화과 강사 역임
- 2019년 《창형展》(대전, 레드엘 갤러리)

심웅택 (沈雄澤, 1958~)



심웅택, 〈채집일기 1일〉, 2009, 캔버스에 혼합매체, 91×91cm(출처: 『심웅택초대전』, 갤러리 수, 2009)

심웅택은 1958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났다. 중앙대학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고, 강원대학교 철학과에서 미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 《구상전》에서 문예진흥원장상을 받았고, 1980~1983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연속 4회 특선을, 1985년 《중앙미술대전》에서 〈군상8567-2〉로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작 〈군상8567-2〉는 조형성을 강조한 인물 군상으로 사람들의 표정을 진실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고등학생 때부터 서양화가 임립(林立, 1945~)에게 그림을 배웠

으며, 〈군상8567-2〉 역시 임립의 지도를 받은 작품이다.¹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이듬해 《제1회 심웅택 개인전》을 개최했고, 구상미술가들의 단체인 구상전에 가담하여 1992년 《한국신구상화 동경전》에 참여하였다.

2000년 후반부터 공간 분할, 그리기라는 전통적 회화 기법뿐 아니라 콜라주, 스크래치 등의 기법을 사용한 《채집일기》 연작을 시도했다. 심웅택은 《채집일기 1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비가 강한 색상을 대치시켜 그 위에 파스텔 색상의 물감을 덧입혀 마치 얇은 한지를 그림에 붙였다가 뜯어낸 듯한 효과를 주었다. 잎맥, 꽃, 자동차의 바퀴 자국과 같은 일상의 기억을 소재로 삼아 안정적인 색의 접합과 반복적인 무늬와 점들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술철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1 『《중앙미술대전》 영예의 얼굴들: 양화부문 대상 심웅택씨』, 『중앙일보』(1985. 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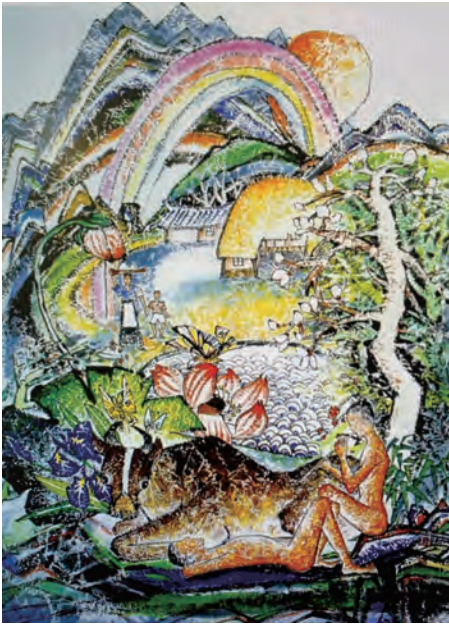
연보

- 1958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80년 《제9회 구상전 공모전》(미술회관) 특선 수상
- 1980~1983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연속 4회 특선 수상
- 1981년 《구상전》문예진흥원장상 수상
- 1982년 《구상전》우수 수상상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제31회 구상전》(여의도미술관)
- 1984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회화학과 석사 졸업
「OP Art 및 OP Art작가들에 관한 연구」로 석사 졸업
《제9회 충남향토작가 100인초대전》(대전문화원화랑)
- 1985년 《제8회 중앙미술대전》에서 〈군상 8567-2〉로 대상 수상
- 1986년 《제1회 심웅택 개인전》(서울, 동방플라자 미술관)
- 1988년 《심웅택 작품전》(대전미술관)
- 1991년 《제3회 대전직할시 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 / 대전문화원)
- 1992년 《한국신구상회 동경전》(일본 도쿄, 한국문화원)
- 1996년 《과천이전 10주년 기념: 대상 수상작가전》(과천, 국립현대미술관)
- 1997년 《제9회 대전광역시 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 / 대전문화원)
- 2007년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미학전공) 박사 졸업
- 2009년 《심웅택 초대전》(서울, 리더스 갤러리 수)
- 2012년 《잊혀진 근원으로의 회귀: 심웅택전》(서울, 스페이스 이노)
- 2012년~현재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교수 재직
- 2015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작품 특별전》(대전, 롯데갤러리)
- 2018년 《심웅택展》(서울, FILL GALLERY)
- 2020년 《심웅택 개인전: 시간의 포착》(구미, 금오공대 갤러리)
- 2021년 《제11회 대전아트포럼전》(대전, 갤러리 고트빈)

심응길 (沈應吉, 1958~2013)



심응길, 〈강변연가〉, 《故 심응길 추모展》 출품작, 대전 KBS 갤러리, 2013
(출처: 「[전시] 정미경작 '무제' / 故 심응길 추모展」, 『대전일보』, 2013. 10. 16)



심응길, 〈나 어릴적에〉, 162.1×130.3cm(출처: 『제 23회 충청남도미술대전도록』, 한국에총충남도지회, 1993)

등 국제적 활동은 물론, 다수의 개인전 및 초대전을 가지며 중견화가로 인정받았으며, 청양군지부 설립과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다했다.¹

또한 심응길은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심사위원, 대전시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충

호는 청양(靑陽). 심응길은 1958년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에서 태어났으며, 청송국민학교, 청양중학교, 청양농·공업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화가로서 충청지역을 오가면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펼쳐오다 2013년 5월 7일 새벽 5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작가는 학창시절부터 미술부 활동을 하면서 자연풍경을 화폭에 담아냈고, 대학교 2

학년 때부터 한국화에 심취 후 꾸준히 실력을 쌓아 비교적 이른 나이인 25살 때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로 선정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문인화, 대전시미술대전, 충청남도 서예대전 문인화 초대작가로 선정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심응길은 “미술의 매력은 이성과 감성, 상상력이다. 한국화는 특히 자연에 가장 근접해 있는 재료를 사용해 완성하는 선과 여백의 예술”이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린 산수화, 새와 고양이 등 털이 있는 짐승을 그린 영모화, 십장생도, 반추상화, 서예, 사군자·화조·인물 등 한국화를 총 망라해 표현, 많은 사람들이 미술작품을 좀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작가는 한·중·일 미술교류전에도 참여하는

¹ 「청양을 사랑한 화가 '고 심응길 회고전」, 『디트뉴스24』(2013. 10. 18).

청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대전·충남 서예대전 문인화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충청남도 서예대전 문인화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을 역임하며 충청지역 미술 발전에 이바지 하였다.²

연보

- 1958년 충청남도 청양 출생
- 1982~1984년 《충청남도미술대전》특선 3년 연속 수상
- 1984년 《후소회 공모전》특선 수상
 《제1회 개인전》(대전, 신신화랑)
- 1985년 《충청남도미술대전》최우수상 수상
 《후소회》공모전 입선
- 1992년 대전시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제2회 개인전》(대전, 삼성생명 전시관)
- 1993년 대한민국 서예대전 문인화 특선
 대전시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제3회 개인전》(대전, MBC 문화공간)
- 1994년 《2000년대 주역전》(서울, 운현궁 미술관)
- 1996년 《심응길부채전》(대전, 오원화랑)
- 1998년 《묵상회전》(대전, 현대화랑)
- 2002년 《청양 심응길전》(서울, 봉은사 보우당)
- 2006년 《심응길화백부채전》(당진, 충남도 홍보관)
- 2011년 《청양 심응길전》(청양문예회관)
- 2013년 작고

2 『청양 심응길』(대전 삼성생명전시관, 1992).

안의종 (安義鍾, 1958~)



안의종, <홀로 있음>, 1994, 석재, 34 × 35 × 72cm(출처: 『안의종 조각전』, 갤러리 서호, 1994)

1958년 충청남도 연기군 늘왕리에서 훈장 아버지의 2남 4녀 중 셋째로 출생한 안의종은 어릴 적부터 미술 선생님이 꿈이었다. 각종 미술대회에 나가 입상을 하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으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사꾼이 되었다. 어렵게 공주고등학교에 진학해 미술부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미술공부를 할 수 있었으며 당시 유명작가인 임동식(林東植, 1945~)이 공주고등학교 학생 3명을 여름방학 한 달 동안 자신의 작업실에서 합숙훈련을 시키며 미술공부를 해주는 특혜를 통해 더욱 실력이 향상되었다. 불교조각을 공부하기 위해 고교 재학 중 약 2년간을 절에 머물기도 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역시 어려운 환경으로 대학 대신 군대를 선택했다.

제대 후 농사를 짓던 중 1985년 28세 되던 해에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에 입학하였다. 대학 1학년인 1986년 《충청남도 미술대전》에서 특선, 《중앙미술대전》에서 입선, 《한국현대미술대

전》에서 대상을 동시에 수상하였다. 아울러 이듬해 1987년과 1988년, 1990년 3회 연이어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특선, 1990년 제2회 《대전미술대전》에서도 특선을 수상하면서 초대작가의 반열에 들어섰다. 1990년 첫 개인전을 열었으며, 1991년에 한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에 입학해 조소를 전공하였다.

안의종은 자신만의 언어, 즉 구성과 표현으로 주로 인체의 깊이와 맛을 보여준다. 작가의 탄탄한 기본기는 해부학적으로 흠이 없는 인체를 구현하는데, 작품 속 여인의 표정과 몸짓을 통해 내적 언어들을 나타내고 있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조형해낸 조상이 아니라 작품 하나하나 분명한 의식의 모티브



안의종, <순환으로 가는 용트림>, 2001, 화강석, 200 × 200 × 240cm(출처: 공공미술포털 <https://www.publicart.or.kr>)

를 설정하고 그것을 명징하도록 깊은 언어로 승화시켜 강한 호소력을 완성해 놓은 것이다. 초기에는 주로 브론즈로 작품을 했으나 이후 돌을 활용해 변신을 보여주는데 초기작에 비해 더욱 성

숙된 여인의 내면을 엿볼 수 있다. 1994년 《개인전》에서 선보인 《홀로 있음》 연작은 초기의 단아하고 청순한 느낌을 주는 매력에서 삶의 깊은 맛을 체득한 무게를 담고 있다. 안의종의 뛰어난 조형감각에 의해 등장한 리드미컬한 선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얼굴 표정은 삶을 정면으로 끌어안고 있는 여인의 성숙함을 보여준다.¹

안의종의 작업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체조각에서 작가들이 어려워 하는 목·어깨·허리·둔부·다리·손의 자세 등에서 조형구성과 해부학적으로 문제없이 완벽한 인체를 완성하고 인체의 선들이 성공적으로 부드럽게 연결되어 완벽한 인체를 완성하고 있다. 그의 인체들은 정적인 듯하나 사실은 동적이다. 둘째, 조형형식에서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움을 보여주는데 이는 작가가 작품의 공간감을 잘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추상적이지 않으면서도 직유적 표현이 가진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도 그의 자유로운 양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셋째, 그의 조형들은 여성의 온갖 감성을 다 담아내고 있어, 고뇌와 우수의 표정에서도 그리움과 갈망의 빛깔이 배어 있어 서정적이며 여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이다. 넷째, 상징성과 은유성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그의 조각은 단순히 일차적 시각이나 사실성을 전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조각의 표정과 몸짓을 통해 인생을 알고 느끼게 한다.”²

2015년 건양대학교를 정년퇴임하고 세종시 연기면에 마련한 작업실에서 작품 제작에 매진하고 있다. 2011년 연기군 작업에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일본, 인도, 한국 작가 3명을 지원하며 함께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후 2019년 조각을 동경하면서 생활을 위해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었던 미술계 후배들을 위해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조각계를 위해 애쓰고 있다.

연보

- 1958년 충청남도 연기군 늘왕리 출생
- 1978년 공주고등학교 졸업
- 1986년 《제16회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에서 특선
《제9회 한국현대미술대전》(서울, 디자인포장센터)에서 대상
- 1986~1993년 《제1~14회 충남조각연구회》(대전시민회관 / MBC문화공간)
- 1987년 《제17회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에서 특선
- 1988년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 시민회관)에서 특선 /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1990년 《제2회 대전시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
《제20회 충청남도미술대전》(천안시민회관)에서 특선
《제1회 안의종 개인전》(대전 MBC문화공간)

1 유석우, 「'홀로 있음'의 안의종의 두 번째 개인전에 부처」 『안의종 조각전』(갤러리 서호, 1994).

2 유석우, 위의 글.

- 1991년 한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조소전공)
- 1992년 《제4회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대전시민회관)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전》(천안, 아라리오 미술관)
《오원화랑 초대전》(대전, 오원화랑)
- 1993년 《제8회 한국 제3조각가 협회전》(부산문화회관)
- 1994년 《제2회 개인전》(서울, 서호갤러리)
교육부 장관상 수상
- 1996~1997년 인도 델리대학 연수
- 1997~2015년 건양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로 재직
- 2003년 《안의중 조각전》(대전, 현대갤러리)
대전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박사(미학전공) 취득
- 2004년 허균 문화예술상 수상
- 2006년 《안의중 조각스케치전》(미국 뉴욕, CPS32)
- 2016년 《세종미술협회 아트페스티벌》(세종컨벤션센터)
- 2017년 《안의중 조각전》(의정부, 윤갤러리)
《안의중 조각전》(세종보 주민센터 2층 전시실)
세종시 연기면 작업실에서 작품 제작 중
- 2020년 《세종조각가협회전》 온라인 전시

윤승호 (尹承鎬, 1958~)

호 소산(小山). 윤승호는 1958년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에서 태어났다. 목원대학교 미술과에 입학하여 한국화를 전공하였다. 이후 한국미술협회, 한국미술작가협회, 서미회, 충청현대한국화, 미술인협회, 아라메조형작가회, 안전기념사업회 등 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갔다.

‘충남한국화협회’는 공주대학교, 목원대학교, 한남대학교 등의 교수와 졸업생을 중심으로 탄생한 충청지역 최초의 한국화 전문작가 단체로 대전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2009년 충남한국화협회 회원들의 일부가 분리되어 ‘충청현대한국화’ 단체를 결성하였고 윤승호는 창단멤버로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안전미술대전》의 주춧돌 역할을 하며 한국미협서산지부 부지부장으로 실무를 맡아 단절된 《안전미술대전》의 정착을 위하여 2회, 3회 공모에 노력하였다. 나아가 2015년부터 안전기념사업회 이사로 《안전미술대전》 공모전 및 전국단위 안전미술모색 회원전을 시행하는데 협력하고 안전미술대전과 안전미술모색전 전람위원장을 역임하며 헌신하였다.

윤승호는 가장 동양적이며 한국적인 회화는 산수화 작품이라는 신념과 대중적 호응은 부족하나 전통을 계승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작업에 임하고 있다. 초기에는 바윗돌과 다양한 나무를 중심으로 보이는 풍경을 야외 스케치하거나 사진에 담아 인쇄하여 참고하면서 작업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무작위로 먹물, 또는 먹과 안료를 섞어 화선지 위에 떨어 뜨리는 발묵효과에



윤승호, 〈사인암 소견〉, 2020, 지본수묵, 70×55cm, 작가 제공



윤승호, 〈자연속으로〉, 2020, 지본수묵담채, 70×130cm, 작가 제공



윤승호, 〈구름위다리〉, 2017, 지본수묵담채, 70×54cm, 작가 제공

관심을 가졌다. 즉, 화선지 위에 펼쳐진 자연스럽게 번지는 발묵의 형태를 중심으로 구상을 하며 점차 작업을 완성해나가는 것이다. 최근 윤승호의 작업은 작품 활동 초기의 작가의 의도와는 다른 형태들이 나타나 투박하지만 자연스러움을 더해줘 더욱 친근하게 다가온다.

연보

- 1958년 충청남도 서산 출생
- 1977~1984년 목원대학교 미술과 한국화 전공
- 1980년 《서미회전》에 참여
- 1983년 《한국미협서산지부전》에 참여
《충남한국화협회전》에 참여
한국미협 서산지부 창립회원으로 참여
- 1983~2020년 서산 팔봉중미술교사 미술교사, 교감, 교장 역임 후 명예퇴직
- 1984년 충남한국화협회 참여
- 1985년 《아름다운 금강전》에 참여
- 1995년 《안전탄신기념 향기와 맥전》에 참여
- 2000년 《내포바람전》에 참여
- 2009년 충청현대한국화회 창립멤버 및 2대 회장 역임
- 2013년 《화춘전》에 참여
- 2015년 사)안전기념사업회 이사 역임
한국미협 서산지부 부지부장
- 2019년 《부여 세계문화유산전》(부여문화원)
《3·1 운동 100주년 기념전》(충주시문화회관)
- 2020년 홍조근정훈장 수훈
《해를품다전》(보령문화예술회관)
- 2021년 《아름다운 환경전》(인천, 갤러리오션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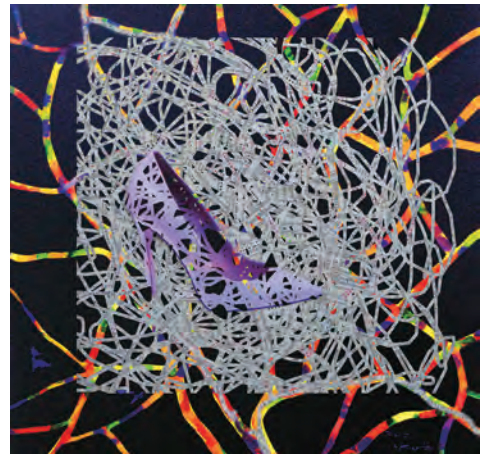
윤양숙(尹良淑, 1958~)

윤양숙은 1958년 충청남도 대덕군에서 태어나 시골 마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20대 후반 한양대학교 교육학 석사과정을 마친 후, 뒤늦게 시작된 미술에 관한 관심과 열정으로 서른이 넘어 새롭게 미술 실기에 도전했고 1999년(41세) 목원대학교 미술학부 회화과에 편입학해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5년 홍익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 미술학 전공으로 2012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목원대학교 대학원에 다닐 때였던 2003년 《제1회 대한민국 수채화 전람회》에서 대상, 《제33회 충청남도미술대전》 서양화 부문 대상, 《제15회 대전시 미술대전》에서 특선 등 여러 전람회에서 입상하며 작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각종 전람회 수상과 함께 같은 해에 대전 현대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고, 이후 현재까지 총 21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200여 회 이상의 전시에 꾸준히 출품했다. 2003년부터 목원대학교 미래창의평생교육원에 20년간 출강했고 2007년부터 목원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 겸임교수 및 외래교수를 역임하며 후학의 양성에 열정을 쏟고 있다. 또한 한국영상대학교 조형실기 강의와 한남대학교 사회문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이론을 강의하면서 작품 창작과 더불어 교육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윤양숙은 한 화면 안에서 이질적 이미지들을 조합해 풀어내며 그 속에서 역동적인 에너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주로 한다. 즉 드로잉(데생), 수채화, 판화, 유화 등 여러 장르의 회화를 공부하고 익히는 동안 윤양숙의 관심은 대중매체에 나타난 시사적인 이미지를 화폭에 재구성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going'이라는 명제로 작품을 창작하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의 매커니즘과 인간의식구조나 심리상태를 우회적으로 때로는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최근에는 'Figures play'라는 명제로 숫자와 사회의 역학관계 그리고 새로운 시대 감성의 스펙트럼을 여러 매체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화면에 숫자와 관련한 이미지를 많이 차용하는데, 이는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경제적 욕망의 가치 척도가 숫자로 표시되어 드러나고 이것이 비록 허상 혹은 환상일지라도 현대인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천으로 기능하



윤양숙, 〈Figures play-신데렐라 신드롬〉, 2014, 캔버스에 혼합매체, 45.5×45.5cm, 작가 제공



윤양숙, 〈Figures play(1)〉, 2021, 캔버스에 혼합매체, 112.1×145.5cm, 작가 제공

고 있음을 나타낸다.

《Figures play》연작에 표현된 콜라주 이미지는 대중매체에 드러난 시지각(視知覺)적 이미지를 변형시킴으로써 감상자에 따라 자유롭게 이미지가 수용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한 것이다. 대상의 낮익고 고정된 이미지를 해체하고 변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이미지를 재창출하고자 하며, 각각의 결이 다른 이미지를 연결하거나 다양한 재료를 도입해 회화적 조형성을 탐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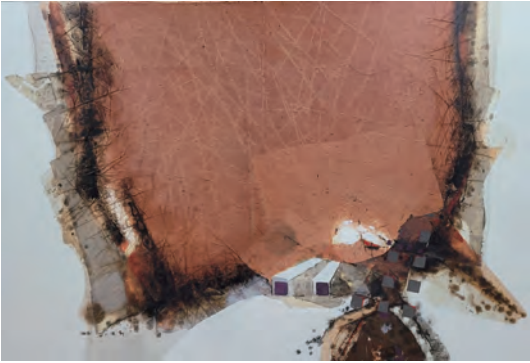
비교적 늦은 나이에 화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지만, 윤양숙은 유려한 터치와 인상적인 색조, 독특한 재료로 현대인의 변화하는 의식과 고뇌의 단면을 캔버스에 담아내는 작가다. 그뿐만 아니라 미술인 저변 확대와 후진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작품세계 탐구에 힘을 기울이며 국제적 시각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4년 《제5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대전광역시미술작품 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보

- 1958년 충청남도 대덕군 출생
- 1990년 《제18회 대전사생회원전》(대전시민회관)
- 1993년 《제1회 오인오행》(대전, 오원화랑)
《대전시미술대전》에서 입선
- 1997년 《제4회 오인오행》(대전, 오원화랑)
- 1999년 목원대학교 미술학부 회화과(서양화 전공) 편입학
- 2003년 《개인전》(대전, 현대갤러리)
《제1회 대한민국수채화 전람회》에서 대상 수상
《제33회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서양화 부문 대상 수상
《제15회 대전시미술대전》에서 양화 부문 특선 수상
《서울국제여성아트페어》(서울, 예술의전당)
- 2003~2022년 목원대학교 미래창의평생교육원 미술교육 강사
- 2004년 목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석사졸업
《제5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에서 서양화 부문 대상 수상
- 2005년 홍익대학교 대학원(회화 전공) 박사과정 입학

- 《요코하마 국제미술 대제전》(일본, 요코하마시립미술관)
- 《국제 환경미술 엑스포 초대작가전》(서울, 삼성코엑스)
- 2005~2006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문화예술최고지도자과정)에 출강
- 2006년 《개인전》(일본 다카마츠, ACT갤러리 / 대전, 토탈갤러리)
- 《서울화랑미술제》(서울, 예술의전당)
- 《4인4색전》(대전, 오원화랑)
- 2007년 《개인전》(미국 뉴욕, Hun Gallery / 대전, 영갤러리)
- 《KIAF-한국 국제아트페어》(서울, 코엑스)
- 《공주국제미술제 프리비유 전》(공주, 임림미술관)
- 《6인 현대회화 전》(미국 뉴욕, 맨해튼 MOC갤러리)
- 2007~2008년 한국영상대학교(만화창작과) 겸임교수 역임
- 2007~2022년 목원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 겸임교수 및 외래교수 역임
- 2008년 개인전 《Familiarity and Unfamiliarity》(서울, 인사아트센터)
- 《한·중 현대미술전》(서울, 세종문화회관)
- 《담음과 다름 전》(인도 뉴델리)
- 2009년 개인전 《르셀리에로의 초대XI》(대전, 르셀리에)
- 《개인전》(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 《아시아 아트 탐쇼》(중국 북경, 국제무역센터)
- 2010년 《윤양숙 카렌다전》(서울, 한국미술관)
- 《대전화랑미술제》(대전, 대전갤러리)
- 《한국 몽골작가 교류전》(몽골, 국립현대미술관)
- 2011년 개인전 《Figures Play-A drem of illusion》(서울, 가나아트스페이스)
- 《독일카스트시 초청 한국미술의 균형과 다양성 전》(독일, 카스트시립미술관)
- 《한·중 현대미술초대전》(서울시립미술관)
- 2012년 홍익대학교 대학원(회화 전공) 박사졸업
- 《개인전》(횡성, 자작나무숲 갤러리)
- 2016~현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시민대학) 미술 강사
- 2018년 《나르시시즘과 사디즘의 경계》(대전예술가의집)
- 2020년 《개인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
- 《회화의 발언 전》(대전, 이공갤러리)
- 2021년 《개인전》(대전, 이공갤러리)
- 2022년 《중구작가초대전》(대전중구문화원)
- 《국제미술교류협회전-2022, COVID를 넘어서》(서울, 인사아트센터)

이근희 (李根喜, 1958~)



이근희, 〈표정〉, 2021, 캔버스에 오일·혼합재료, 160호

1958년 대전에서 출생한 이근희는 1977년 서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1년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 진학해 서양화를 전공했다. 이후 1987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졸업한 이후에는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고, 2014년에는 남대전고등학교에서 제7대 교장을 역임했다.

1980년 대학 재학시절 《대학미술대전》에 참여해 동상을 수상했으며 1984년 《제1회 한밭회화전》에서는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충청남도미술대전》과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역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근희는 대학 재학시절부터 주로 구상보다는 비구상 작업을 해왔다. 캔버스 위에 한지와 양지를 덧붙이거나 여러 가지 혼합재료를 사용해 화면을 여러 겹으로 중첩시켰다. 그리고 그 위에 마치 조각을 하듯 나이프로 긁어 베어낸 자국에 드러난 색 면들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했다. 또한 액션페인팅처럼 물감을 흘뿌리고 번지게 한 뒤, 바로 칠하고 다시 나이프로 긁어내는 과정을 반복하며 이근희 작가만의 표현 방식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작업방식은 최근까지 이어져 여기에 두 다리로 걷지도 못할 만큼 아픈 시기를 지나 육체적 시련을 극복했던 작가의 개인적 경험이 더해지면서 작품에 깊이를 더했다.¹ 작가는 “삶을 바라보고, 명상함으로 찰라의 삶에 대한 처연한 응시를 작품 속에 담았다”고 전하며 자신의 캔버스가 현실을 비추는 단순한 창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임을 밝혔다.² 2019년에는 《이근희 개인전: 기억의 소환》을 개최하며 대전지역 비구상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미술협회, 구상작가회원이며 충청남도미술대전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초대작가를 역임하고, 《제1회 한밭회화전》, 《충남 어제와 오늘전》 등에 참여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로 향토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 도복희, 「이근희 작가 '기억의 소환' 개인전 개최」, 『불교공뉴스』(2019. 10. 7).

2 도복희, 「이근희 작가, '2020 아트대전 100인 부스전' 참가」, 『동양바이오뉴스』(2020. 11. 17).

연보

- 1958년 대전 출생
- 1977년 서대전고 졸업
- 1980년 《대학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 동상 수상
- 1981년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서양화 전공) 졸업
- 1982~1984년 《학동인전》 참여
- 1984년 《제1회 한밭회화전》(대전문화원)에서 우수상 수상
- 1984~1987년 《충청남도미술대전》 특선 4회, 우수상('85) 수상
- 1985년 《전국 12대 시도 미술대전 수상 작가전》(서울, 미술회관)
- 1985~1986년 《동락전》출품
- 1986~1987년 《대한민국미술대전》입선 2회
- 1986~1990년 《대전 교사 미술전람회》수상
- 1987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중앙미술대전》입선
- 1988년 《개인전》(미국 L.A. Modern Art Gallery / 대전백화점 아트홀)
《충남 어제와 오늘전》(대전시민회관)
- 1989년 《충청미술 청년작가전》(대전시민회관)
《오사카 한국 영사관 초대전》(일본)
《파리 그랑팔레 초대전》(프랑스)
- 1989~1990년 《제5회 아름다운 금강전》(대전, MBC문화공간)
- 1991년 《대구 국제비엔날레전》(동아미술관 / 대백갤러리)
- 1992년 《以新會전》(대전, MBC문화공간)
《뉴델리 국립 현대미술관 초대전》(인도)
- 1996년 《제14회 한밭 회향전》(대전시민회관 / 한밭도서관)
《개인전》(서울, 덕원갤러리 / 대전, 현대화랑)
- 1997년 《한밭미술의 미래 모색전》(대전시민회관)
- 2014~2015년 남대전고등학교 제7대 교장 역임
- 2019년 《이근희 개인전: 기억의 소환》(대전, 명화갤러리)
- 2020년 《2020 아트대전 100인 부스전》(대전예술가의 집)

이종관(李鍾貫, 1958~)



이종관, 《줍-픽(Joup-Pick)》, 2019, 쓰레기 6000개 · 백색 점토, 가변 크기, 작가 제공

1958년 충청남도 보령에서 출생한 이종관은 1980년 공주대학교 미술과에 진학해 서양화를 전공했다.¹ 이후 1998년 인도 Visva Bharati University에서 Diploma Course를 수학했으며, 2003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에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충북영동여자중학교에 미술교사로 부임해 영동고등학교 등을 거쳐 2015년에 청주중앙

여자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명예퇴직을 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공주대학교 미술과 강사를 역임했다.

학교를 졸업한 후,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출신의 임재광, 이용우, 이동구, 이경우 등과 함께 '벽, 바닥 그리고 의식'이라는 그룹을 창립해 활동했다. 그들은 사회 비판적 메시지와 탈(脫) 평면화된 작품을 추구했으며 가장 대표적으로 1985년 대전시민회관에서 열린 《제3회 벽, 바닥 그리고 의식전》을 꼽을 수 있다. 이 전시는 신군부와 5.18 광주항쟁의 시대적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이종관은 6개의 '데드 마스크'로 만든 《산사람 죽은 사람, 살아도 죽은 사람 죽어도 산 사람》을 제작해 국가의 통제와 폭력에 무참히 짓밟힌 인간 존재를 그림자의 표정을 통해 묵시적으로 드러냈다.²

이후 1998년 유학차 간 인도에서부터 출발하여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주워온 '쓰레기 오브제'로 작품을 제작했다. 과테말라의 아티틀란에 머물며 주변으로 밀려든 쓰레기로 작품을 만들 고자 했던 것이 단초가 되었고, 이후 장기 여행자가 되면서 그림 그릴 재료와 도구, 작업할 수 없는 환경적 여건에서 쓰레기를 물감대용으로 수집했던 것이다. 이종관은 이렇게 주운 쓰레기들을 모아 2016년부터 《거리의 물건들》, 《이종관: 줍-픽 Joup-Pick 전》, 《개인전: Collected Objets》, 《개인전: Continuous Lifespan》 등의 개인전을 개최해 각지의 쓰레기를 여행의 기록물들이자 각

1 실제 출생년도는 1957년이고, 주민등록상으로는 1958년이다.

2 조상영, 「대전 미술의 탈평면화 과정」,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다빈치기프트, 2009), p. 176.



이종관, <중남미 발품>, 2016~2018, 침대 스프링 · 쓰레기, 200×435×18cm, 작가 제공

각의 사연과 영혼을 간직한 일종의 기념품으로서 작용시켰다.³

대표적으로 2020년에 제작한 <중남미 발품>은 사물을 바라보는 이종관의 시각이 담긴 최근 작품이다. 이종관은 매트리스 스프링에 이국의 냄새가 나는形形色색의 오브제들을 걸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쓰레기들을 마치 간택된 영혼의 오브제로 둔갑시켜 새 생명의 이미지를 부여했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 남미, 중동, 인도 등 90여 개의 나라를 여행했으며, 최근에는 튀니지 등의 북아프리카에 머물며 다음 작업을 위한 오브제를 수집했다.

연보

- 1958년 충청남도 보령 출생
- 1976년 충남홍성고등학교 졸업
- 1980년 공주대학교 미술과 서양화 학사
- 1983~2015년 충북영동여자중학교, 영동고등학교, 청주율량중학교, 청주중앙여자중학교 등에서 교사로 재직
- 1984년 《벽, 바다 그리고 의식 창립전》(대전시민회관)
- 1985년 《제3회 벽, 바다 그리고 의식전》(대전시민회관)
《Frontier전》(서울, 프랑스문화원)
- 1986년 《제3현대미술제, 입체 17인의 작업》(서울, 제3미술관)
- 1987년 《벽, 바다 그리고 의식전》(서울, 관훈미술관)
- 1988년 《남부현대미술제》(전북예술회관)

3 김복수,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이종관표 쓰레기'를 간택하여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작품」, 『이종관개인전』(갤러리인사아트, 2019).

- 1989년 《양테팡당전》(서울, 국립현대미술관)
- 1991년 《의식의 확산전》(서울, 후인갤러리)
- 1994년 《JAALA전》(일본, 동경도미술관)
- 1995년 《해방50년 역사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
《개인전: 東에소리》(서울, 이십일세기화랑)
- 1997년 《한국미술동향전》(서울, 덕원갤러리)
- 1998년 인도 Visva Bharati University에서 Diploma Course(그래픽아트) 수학
《흙으로 본 性전》(국립청주박물관전시실)
- 1999년 《금일의 한국미술전》(독일, 뒤셀도르프미술관)
- 2002년 개인전 《석고붕어명상》(서울, 예술의전당)
- 2003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설치미술) 석사 졸업
- 2004년 《야투, 안으로의 문맥》(청주, 신미술관)
- 2006년 개인전 《미흐라브-벽감》(서울, 인사아트센터)
- 2007년 개인전 《비움과 채움》(청주, 신미술관)
- 2007~2013년 공주사범대 미술과 강사 역임
- 2008년 《한국 페루 현대미술전》(페루, 리마미술관)
- 2009년 《금강국제자연미술비엔날레》(공주, 특별전시관)
- 2010년 《한국현대미술초대전》(서울, 경인미술관)
2015년 청주중앙여자중학교에서 명예퇴직
- 2016년 《개인전: On Concrete 2》(서울, 가나아트스페이스)
- 2017년 《개인전: 거리의 물건들, Cuarto Creciente Galeria》(멕시코 과나후아토)
- 2018년 《개인전: 사물이 사람을 바라보다: 이종관의 사물들》(서울, 갤러리이즈)
《이종관초대전》(공주, 쉬갈갤러리)
- 2019년 《이종관: 줍-픽 Joup-Pick 전》(청주시립미술관)
《개인전: Collected Objets》(서울, 갤러리인사아트)
- 2020년 《신석기시대 또 다른 조우》(공주, 야투자연미술센터)
- 2021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원 《개인전: Continuous Lifespan》(청주교육대학교 미술관)

이종호(李鍾浩, 1958~)

1958년 충청남도 당진에서 태어난 이종호는 당진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줄곧 당진에서 거주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당시 경찰국장 주최로 개최된 《반공포스터 공모전》에서 ‘국장상’을 수상했다. 이 수상을 통해 이종호는 미술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광고사에 취직해 간판 글씨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로 상경해 1년 동안 도안학원을 다니며 4년간 상업미술을 배웠다. 이후, 순수미술을 배우고자 26세라는 나이에 관동대학교 미술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송악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23년간 교편을 잡으며 제자를 양성하는 데 힘썼다.

1991년 허수아비를 주제로 《제1회 개인전》을 개최했다. 외국 사조를 따르는 미술계에서 벗어나 민족적인 색채와 민중성을 화폭에 담고자 했다. 초기작업에서부터 한국적인 소재를 사용했던 이종호는 최근 작업에까지 나무껍질이나 한지와 같은 매체를 사용한 작업 방식을 이어오고 있다.

‘자연의 감성이 묻어난 예술가’라고도 불리는 이종호는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연에서 모티브를 찾기 시작했다. 그 처음은 《바위그림전》이라는 전시를 통해서였다. 이종호는 이 전시회에서 ‘바위’의 변치 않는 모습과 거친 표면 등을 사람의 모습과 연결시켜 작품의 소재로 사용했다. 2012년부터는 개인전 《Grass 2012》에서 ‘풀’을 모티브로 사용해 작은 초록색 풀들이 모여 부처나 동물 등의 형태를 이루는 작품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나무껍질과 가지’를 이용해 추상형태나 구상형태로 조형화시켜 다시 한번 예술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2천여 그루의 나무를 직접 가꾸고 있으며, 한지와 같은 가장 한국적인 재료를 사용해 민족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힘쓰고 있다. 이는 1991년 《제1회 개인전》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민족적인 색채를 현재까지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종호는 또한 자신의 작품활동 외에 후배 작가들의 양성을 위해 2019년 당진에 ‘풀빛 갤러



이종호, 〈흰 산21-1〉, 2021, 캔버스에 나무·한지, 190×122cm, 작가 제공

리'를 개관해 신인 예술가들이 마음껏 전시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미협 당진지부 회장과 학동인회, 당진문화연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미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연보

- 1958년 충청남도 당진 출생
- 1982~2021년 《학동인 정기전》
- 1983년 관동대학교 미술과 졸업
- 1991년 《제1회 개인전-허수아비그림전》(당진, 신협전시실)
- 1996~2021년 《당진미협 정기전》
- 1998~2010년 송악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98년 《바위그림전》(서울, 도올아트타운)
- 2002년 《우리꽃 그림전》(당진, 전담회의 그림)
- 2003년 《까치집 그림전》(당진, 갤러리)
- 2011년 《선정작가전》(서울시립미술관)
- 2012년 개인전 《Grass 2012전》(서울, 갤러리 록)
《하노이 국제아트페어》(베트남)
《제46회 한국미술협회전》(서울, 예술의전당)
- 2013년 《풀빛세상전》(서울, 가나인사아트센터)
- 2016년 《이 시대의 당진작가전》(당진문예의전당)
- 2018년 《Wood Skin Art전》(당진문예의전당)
- 2019년 《개관기념전 / Wood Skin Art2》(당진, 갤러리 풀빛)
- 2020년 《개인전: Wood & Paper전》(당진, 갤러리 풀빛)
《HEAR & THERE 전》(당진, 아미미술관)
- 2021년 《묵(墨), 지(紙), 목(木) 전》(당진, 갤러리 풀빛)
- 2022년 《아! 금강산 전》(당진, 갤러리 풀빛)

이창수(李昌洙, 1958~)

1958년 충청남도 청양에서 태어나 홍성에서 자란 이창수는 홍성고등학교 미술부에서 동양화를 배우면서 미술과 인연을 시작했다.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 입학해 처음 입체 조소를 접했는데 평면적인 회화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대학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조소를 시작했다. 작가는 다른 학생들보다 늦게 시작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1년간 휴학하고 조각에만 매달렸으며, 군대를 전역한 후에도 복학을 1년간 연기하면서 작업에 열중했다.¹ 노력의 결과로 1980년 3학년 재학 중 《전국대학미술대전》에서 〈향념〉으로 조각부문 최고상인 국무총리상,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대상과 특선, 1986년 《목우회 공모전》에서 신한상을 수상하였다.

이창수는 사실주의 조각과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이미지에 바탕을 둔 극사실주의 조각, 그리고 조형적인 프로세스와 일상적인 행위가 접해 있는 모호한 경계에서 예술의 당위성을 찾는 레디메이드에 대한 인식을 자기 속으로 불러들여 재조립하고 재편집한다.²

1986년 《제1회 개인전》에서 작가는 인체조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작가의 내면적인 심리를 이입해 〈울, 1986〉, 〈기다림, 1985〉 등을 선보였다. 이후 1988년 《제2회 개인전》에서 조립형 인간의 탄생을 보이며 인체의 일부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기계부품들로 대체하거나 강한 음각형태를 보여주었다. 이후 1993년 《제3회 개인전》에서는 또 다른 변화를 보여 〈잃어버린 신화를 찾아서〉를 타이틀로 연작을 완성하였다. 인간과 기계가 인체라는 틀에서 벗어나 분리, 독립하며 관람자들에게 사유를 권하는 관념미술을 지향하였다.³

1997년 개인전에서 첫 선을 보인 《자연 속에서》 연작에서 작가는 대지로 연상되는 토대 위에 다양한 사물들을 쌓았는데, 이는 의미의 심층화로 해석된다. 이 사물들의 개념이나 이미지는



이창수, 〈잃어버린 신화를 찾아서〉, 1993, 합성수지·밥상·도자기, 60×60×100cm(출처: 『제3회 이창수 조각전』, 현대화랑, 1993)

1 「사람이 희망이다8 목원대학교 조소과 학과장 이창수 교수」, 『홍주일보』(2015. 7. 17).

2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dma/DmaArtworksList.do?menuSeq=6093>

3 「기계문명의 정체성 검증작업」, 『이창수 개인전』(오원화랑, 2004).



이창수, 〈생활속에서-인내〉, 2022, 혼합재료, 28×24×50cm, 작가 제공

작가에 의해 다른 차원으로 규범화되었으며 이는 사물의 의미론적 비유화로 풀이할 수 있다.⁴ 〈자연 속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래의 맥락을 해체 시키고, 자기의 맥락 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한 작품이다. 이질적인 모티브들의 결합은 기하학적인 형상과 유기체적인 형상, 조형의지와 재현의지가 서로 상충하고 충돌하는 일종의 대위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물들이 홀로 있을 때는 미처 드러나지 않던 은폐되고 잠재돼 있던 의미가 이질적인 사물들의 결합으로 인해 비로소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다.⁵

작가는 2016년부터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을 조합하여 《生活속에서》 연작을 제작하여 〈생활속에서-여인의 향기〉를 비롯해 최근 2022년 〈생활속에서-도안동 비너스〉, 〈생활속에서-인내〉 등을 전시하였다.

연보

- 1958년 충청남도 청양 출생
- 1980년 《전국대학미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항념〉으로 국무총리상
- 1981~1987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조각부문 대상 및 특선 3회
- 1985년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에서 대상
- 1985~1987년 《대한민국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입선
- 1986년 《목우회 공모전》(국립현대미술관) 신한상 수상
《제1회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 1986~1987년 《중앙미술대전》(호암아트홀)에서 입선
- 1987년 목원대학교 대학원 미술과 졸업
《제1회 한국형상미술제》(서울, 한강미술관)
- 1988년 《제2회 개인전》(서울, 서울갤러리)
- 1989년 《80년대의 형상미술전》(서울, 금호갤러리)
- 1989~2007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

4 최병서, 「전통의 재인지+비유적 조형언어+의미론적 점층법」, 『자연 속에서 시리즈』(홍인갤러리, 1997).

5 최병서, 위의 글.

- 1993년 《제3회 이창수 조각전: 잃어버린 신화를 찾아서》(대전, 현대화랑)
《한국조각가33인 초대전》(서울, 조형미술관)
- 1996년 《제4회 이창수 조각전: 잃어버린 신화를 찾아서 II》(대전, 오원화랑)
- 1997년 《이창수 조각전: 자연 속에서 시리즈》(대전, 홍인갤러리)
- 1999년~현재 목원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 조형콘텐츠학부 교수로 재직 중
- 2004년 《월간 미술세계 창간 20주년 기념전》(서울, 인사아트플라자)
- 2005년 《IT와 현대미술의 만남전》(대전, 한국정보통신대학교)
- 2007년 《이면접촉 2인전》(파주, 공사진스튜디오)
- 2008년 《7가지 시간 찾는 방법》(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갤러리)
《뒤 돌아보기》(대전, S갤러리)
- 2009년 《지적세계를 위한 근본대책》(대전, 이공갤러리)
- 2010년 《한·중 현대조각교류전》(중국)
- 2017년 《이창수 조각전》(서울, 갤러리 코지)
- 2018년 《개띠 작가들의 견공전》(대전, 롯데갤러리)
- 2020년 《제5회 눈이 번쩍 왕십리전》(서울, 왕십리 광장 / 갤러리 허브)
- 2022년 《이창수 조각 초대전: 생활 속에서-작은 조각들》(공주, 갤러리 쉬갈)

정구인 (鄭求仁, 1958~)



정구인, 〈누가 바람이 되어줄까?〉, 2009, 수제한지에 담채, 75×67cm, 작가 제공



정구인, 〈꼬까똥 이야기〉, 2018, 혼합매체, 88.5×67cm, 작가 제공

정구인은 1958년 충청북도 보은 출생으로,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하였다. 작가는 충북민미협, 한국화동질성전, 채목화회전 등에 참여하며 충청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한국적인 느낌, 그 중에서도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에 공감한다는 작가는 옛것에만 묻혀있지 않고 한국적인 창조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한국화의 영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한국화 가로서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작가는 한국적인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환경의 중요성 또한 함께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¹

충청북도 증평 형석중학교 교감인 김병기(필명 섬동) 시인은 추상의 세계에서 찾아낸 정신은 작가가 살고 있는 청주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이야기하며, 정구인의 마음은 생태적으로 식물성이라 말한다.² 이처럼 작가는 자연 친화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토끼를 키우게 된 후, 한지 위에 실제 토끼 똥을 주 소재이자 재료로 활용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나아가 작가는 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환경이 더욱 훌륭해짐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작가는 작품에서 ‘자연(자원)순환-(토끼)똥의 재활용’에 초점을 두었고, 산업화 된 도시공간에 살면서 자연에 동화되고 순응하며 살기보다 말이 없는 자연을 지배대상으로 생각하며 환경훼손을 일삼는 생활패턴에 대한 문제를 작품을 통해 제기하고 있다.

1 「정구인 인터뷰: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충북일보』(2010. 5. 10).

2 섬동 시인, 「봄, 여름 그리고 봄-정구인의 마음을 엿보다」(2018. 5. 31).

현재 작가는 청주 오송에서 농사(화훼)를 지으며 한국화의 전통 보존과 창조성 확보를 과제로 삼고 미래지향적인 한국화를 선보이기 위해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연보

- 1958년 충청북도 보은 출생
- 1979~1982년 《충남미술대전》 및 《충북미술대전》 특선 및 입선 수상
《전국 대학미전》 한국화 특선 및 장려상 수상
- 1980년 《목목회 단체전》에 참여
- 1981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정교사 2급) 졸업
《전통예술대상전》 한국화부문 대상 수상
- 1983년 상명여자대학교 한국화과 미술학 석사
청전이상범 화실에서 이견걸에게 사사받음
- 1991~1999년 청주YMCA에서 시민운동 참여
- 2000년 《공군사관학교 성무제 작품전》(청주, 공사 전시실)
- 2000~2004년 공군사관학교 소양교육 한국화 강사 역임
- 2002년~현재 청주평생교육 한국화 강사
- 2005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특별전》(청주, 예술의전당)
- 2008년 《아트마켓 아름다운 소장전》(청주, 아트스튜디오)
- 2008년~현재 《채목화회전》에 참여
- 2009년 《아트썸머 페스티벌, 충북아트페어조직위원회 부스 개인전》(서울, 세텍전시실)
- 2010년 《5.18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전: 오월 그 물음에 답하며》에 참여
《한국화 동질성전-천년의 숨결》(서울, 예술의전당)
- 2013년 《대청호 프로젝트-미천리의 기록》(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 2015~2019년 《내 삶의 금상첨화, 향인회 작품전》(청주, 운보미술관)
- 2018년 《창작 10년의 기억, 24인의 인문학 보고전-빨간 토끼-나는 토끼인가?》(청주, 숲속미술관)
- 2021년 《예술, 일상으로부터의 시작-똥들의 잔치》(청주, 가람신작)
- 2022년 《청주민족예술제, 예술로 비추다》(청주, 예술의전당)

조재성 (曹在成, 1958~)



조재성, 《도자기》, 1978, 캔버스에 유채, 145×112cm, 작가 제공



조재성, 《인상》, 1986, 캔버스에 아크릴, 145.5×112.1cm, 작가 제공

1958년 충청남도 서산에서 출생한 조재성은 1973년 목원대학 미술교육과에 입학했고 졸업 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들어가 미술교육을 전공했다. 1984년 석사학위 졸업논문으로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회화 분석: 그 조형적 특성을 중심으로」를 제출했다. 대학원 졸업 후 충남 예산 삼교고등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했으며 서울 중구의 환일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2013년부터 서울 은평구의 예일디자인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으며 2017년 예일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했고 녹조근정 훈장을 수훈했다.

조재성은 대학교에 다닐 때였던 1975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 《도자기》를 출품해 특선을 받았고, 이듬해인 1976년 산강화랑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이해에는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제1회(1973) 입학생인 김학원, 복원규, 허진권과 의기투합해 《두령전》(대전문화원)을 열었으며, 민동기와 함께 《유화2인전》을 통해 추상회화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청조회, 홍익 M.A.E, 서미회, 한국미술협회 등의 단체전에 출품했다. 2015년 《KFA 뉴욕 아트 페어》(미국 뉴욕)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초기 작품세계는 1970년대 《도자기》 시리즈에서 나타나듯이 물체를 형태나 선으로 묘사하는 방식이 아닌 색의 차이로부터 전해지는 질감을 화폭에 표현하려고 했다. 점차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형태를 변형하고 생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재료를 혼합해 개성 있는 화면의 완성을 추구해나갔다.

1980년대에는 한국적인 전통의 이미지를 찾아 대상이 지닌 형태와 색채에 관해 고민하며 고전미를 화면에 구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는 점차 전통 소재에서 벗어나 《도시인상》 연작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형성된 도시의 건물이나 골목 풍경을 주요 소재로 채택했다. 이어 1990년대에는 1980년대에 《도시인상》 연작을 통해 보여주었던 형상의 묘사에서 벗어나, 선과 형태의 구체적인 표현을 생략하면서 색채표현에 집중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유화 물감이 아닌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며 재료에 따른 색의 변화를 탐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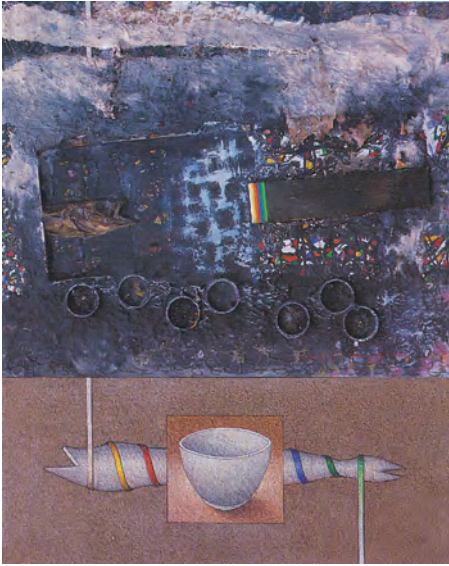
조재성, 〈도시인상〉, 1994, 종이에 아크릴릭, 32×48cm, 작가 제공

2000년대 들어서는 구상이든 추상이든 회화적 표현 욕구는 작가의 독자적 색채표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2차원의 평면에 공간감을 주면서 색채를 조화롭게 구성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를 《비전》 연작을 통해 보여주었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것에 있어서 누구나 지닐 수 있는 자유로운 감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피력해온 조재성은 오랜 기간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작품 활동을 병행해 온 작가이다.

연보

- 1958년 충청남도 서산 출생
- 1975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도자기〉로 특선
- 1976년 《제1회 개인전》(대전, 산강화랑)
《유화 2인전(조재성·민동기)》(대전, 산강화랑)
《두령4인전》(대전문화원)
- 1982~1983년 《청조회 작품전》(서울, 동덕미술관)
- 1985년 《청년 구상작가전시회》(서울, 안국역 전시실)
- 1986년 《서울·신형상전·일본청추회전》(서울, 미술회관)
《제20회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
- 1987년~ 《홍익 M.A.E 전시회》(서울 갤러리)
- 1992년~ 《서미회전》(서산, 시대갤러리)
- 1994년 《두령 4인전》(대전, 오원화랑)
- 1997년~ 《기독교 미술인 협회전》(서울시립미술관)
- 2000년 《한국미술협회전》(서울, 예술의전당)
- 2013년 예일디자인고등학교 교장 취임
- 2015년 《KFA 뉴욕 아트 페어》(미국 뉴욕)에서 특별상 수상
- 2017년 예일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 녹조근정훈장 수훈

최무용 (崔武鎔, 1958~)



최무용, 〈바라밀 9703〉, 1997, 혼합재료, 90.9×72.7cm(출처: 『최무용 개인전』, 천안문화원, 2000)

1958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난 최무용은 덕산초·중학교와 예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미술대학에 진학해 화가가 되고 싶었으나 집안 사정으로 포기하고 공주교육대학에 진학해 미술반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조영동 교수가 지도하던 회화 동아리 '빌리잔(Viridian)'의 회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미술가의 길에 들어섰고 그 후 더 깊이 있는 미술 공부를 위해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에 편입하였으며, 2009년에는 선문대학교 교육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당진 신촌초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아 교직 생활을 시작한 최무용은 10여 년간 당진과 예산 등지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첫 발령을 받던 해, 대전 흥

명화랑에서 열렸던 《그릴회전》에 참여하기 시작해 2022년까지 44년간 참여했다. 1989년 천안으로 발령을 받은 후에는 여러 화우와 교류하며 작품활동을 이어갔다. 1990년 이후 《교원미전》에서 연속 14회,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연속 7회 입상하는 등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이후 1997년부터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가 되었다. 직산초등학교 교장으로 42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2021년 정년퇴직하여 전업 작가가 된 최무용은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충청예술초대작가, 그릴회, 다락회 등 여러 그룹전을 통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무용의 작품세계는 여러 차례 변화를 보이는데, 공주교육대학 시절 스승이었던 조영동 교수는 초기에 해당하는 1979년 말부터 1980년대까지 최무용의 작품에 대해 “간결한 정물의 도식화 기간”으로 평가했다.¹ 이 시기 최무용은 사물을 단순화시키고, 평면적이고 구조적으로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정적인 관념의 세계를 추구했다. 1990년대에는 공모전 출품에 힘쓰며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에 편입해 ‘그릴회’에서 활동했던 시기다. 이 시기 작품은 바탕에 두터운 마티에르 효과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재료를 실험하면서 ‘7’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매듭이나, 사발과 북어의 형상을 화면에 표현했다. 최무용은 이 시기에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

1 조영동, 『최무용개인전』(천안문화원, 2000), p. 3.

제를 화면에 어떻게 담을지 고민하면서 불교의 윤회 사상과 참선에 관심을 두기도 했다.

마흔이 넘어 2000년 천안문화원에서 첫 개인전을 연 최무용은 황토를 사용해 요철을 만드는 자연스러운 질감을 추구하는 한편, 추상화한 문자 형상을 구현한 단순한 화면 구성을 시도했다. 2002년 《제2회 개인전》에서는 황토 대신 모래를 사용해 질감을 표현했으며, 부조처럼 돌출시켜 주제를 부각시키고 그 주변에는 기하학적인 도형을 배치해 공간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이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들은 소재를 물고기나 꽃 등 자연에서 취했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하는 순수의 세계”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²

2010년대 들어서는 조각보의 매력에 빠져, ‘따로 또 같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네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이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가진 2021년 《제7회 개인전》에서도 조각보가 따로따로 제각각의 모양을 하며 한 화면에서 이어져 아름다운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빚대어 우리 삶의 모습을 표현했다. 이러한 화면을 통해 각각의 개성이 하나로 뭉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자 한 것이다.

2022년 고향 예산에서 열린 《제8회 개인전》에서는 이전과 달리 색을 절제해 2000년대 초반에 시도했던 흙의 빛깔에 주목한 부조 작업을 선보였다. 이 전시에서 최무용은 “늦게 피는 꽃은 없습니다. 자기의 계절이 오기까지 그저 묵묵히 기다릴 뿐입니다.”라는 소감으로, 교직 은퇴 후 전업 작가로 발을 내디뎠음을 알렸다. 이처럼 최무용은 교직에 몸담으면서도 2000년 이후부터 개인전을 통해 꾸준히 작품활동을 펼치며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온 작가이다.



최무용, 〈WORK 2139〉, 2021, 혼합재료, 40×40cm(출처: 『최무용 개인전-순간, 그리고 지금』, 천안: 제이갤러리, 2021)

연보

- 1958년 충청남도 예산 출생
- 1979~2022년 《그릴회전》(서울, 대전, 천안)
- 1982년 《백제문화제 향토미전》(부여)
- 1982~1986년 《학동인전》(당진)
- 1983~1989년 《한국미협 서산지부전》(서산, 당진)
- 1985년 《도솔화랑 개관 초대전》(천안, 도솔화랑)
- 1988~2018년 《계룡만남전》(천안, 대천, 공주)

² 임재광, 『최무용』(천안시민회관, 2002).

- 1989~1996년 《천안시 교사미전》(천안)
- 1990년 《아라리오화랑 개관기념 초대전》(천안, 아라리오화랑)
- 1990~1991년 《충청미술 청년작가전》(천안)
- 1990~1993년 《신세대전》(천안)
- 1990~1996년 《충청남도미술대전》(천안)에서 특선 3회, 입선 4회 수상
- 1990~2003년 《충남교사미전》에서 1등급 외 14회 수상
- 1990~2022년 《한국미협 천안지부전》(천안)
- 1991년 《아름아트 91전》(서울, 관훈미술관 / 천안시민회관)
- 1992년 《천안문화원 개관 초대전》(천안문화원)
- 1993년 《오늘의 한국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
- 1993~2000년 《오늘의 천안미술전》(천안)
- 1994년 《다락 94전》(한국교원대학교)
- 1994~1996년 《전국 교사미전》(진주, 포항)
- 1995년 《현대미술교류회전》(대전시민회관)
- 1995~1996년 《남부현대미술제》(창원, KBS창원방송국 / 천안, 아라리오화랑)
- 1996년 《문학과 그림의 만남전》(천안문화원)
- 1997~2011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전》(천안)
- 2000년 《개인전》(천안문화원)
- 2001년 《대청현대미술제》(서울, 예술의전당)
- 2002년 《개인전》(천안시민회관)
- 2010년 《개인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화랑)
- 2011~2017년 《중견작가전》(천안, 리각미술관)
- 2013년 《개인전》(천안, 지산갤러리)
《공주교육대학교미술관 개관 기념전》(공주, 일락갤러리)
- 2016년 《도솔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작은갤러리 개관기념 '공간공감전'》(천안, 작은갤러리)
- 2017년 《개인전》(천안, 신방도서관 한뼘미술관)
- 2018년 《HANRYU now is ART 2018》(당진문예의전당)
- 2019년 《함성 그날의 발자취전》(천안, 시민문화여성회관)
- 2020년 《개인전》(홍성, 충남도교육청 갤러리 이음)
《오늘의 미술감성전》(천안, 삼거리갤러리)
- 2021년 직산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개인전》(천안, 제이갤러리)
- 2022년 《개인전》(예산, 더뮤지엄아트진)
《도솔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한정수 (韓楨洙, 1958~1998)

한정수는 1958년 서울에서 출생, 198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프랑스, 영국, 그리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의 미술관을 순례한 후 '돌'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또한 1984년도부터 1991년까지 묵조회(墨潮會)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88년 관훈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독자적인 수묵회화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계명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영남대학교, 한성대학교에서 강의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을



한정수, <돌>, 1993, 한지에 수묵담채, 90.5×119cm, 대전시립미술관

기울였던 한정수는 1992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전임강사를 역임하며 유성구 안산동 마을회관 2층에 작업실을 마련, 대전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작업실 주변을 산책하며 발견한 풀, 돌, 씨앗, 달팽이 등의 자연적 소재를 화폭에 담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수묵기법에 몰두하였다.

한지에 어우러지는 묵탄의 호흡과 울동, 뒷면에서 배어나온 색채와 거친 선의 결합, 아무렇지도 않게 뿌려진 먹의 흔적은 그의 작업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자연의 모든 기와 맥을 포착한 약동하는 생명의 소리들로 표현된다. 작가는 특유의 청감(聽感)으로 자연의 소리, 음성, 박동을 감지하여 동양철학의 음(陰)과 양(陽)의 조화와 합일을 '화훼연습'이라는 자신의 독특한 회화론을 통해 펼쳐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동양회화의 정신성과 격에 관심을 가졌던 한정수는 고아한 먹물의 유희와 관념의 형상화로 나오는 과정을 보여주며 점차 문인화풍의 현대적인 변용이라는 서울대풍의 동양화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서서히 확장시켜나갔다. 이에 그의 작품에서 적절한 선염과 함께 극히 정돈된 필획으로 추상화된 대상 표현과 여백으로 구성된 간결한 화면이 보여주는 색다른 깊이감은 옛 수묵화를 연상시키는데, 이는 한정수가 구축한 독자적 화면이라 이야기 할 수 있다.¹

한정수는 1996년 약 1년간 중국 사회과학원 초빙교수로 재직하며 북경, 상해, 소주, 항주 등 중국을 돌며 전통수묵의 현장을 답사하였고, 이 때 쓴 미술기행이 귀국 후 도서로 출간될 예정이었으나 1998년 지병으로 인해 작고하였다.²

1 박영택, 「한정수의 그림」, 『제5회 한정수 개인전』(금호미술관, 1999).

2 《대전미술 100년, 미래의 시작》 작가정보 참조. <https://www.daejeon.go.kr/dma/DmaExhibView.do?menuSeq=6083&exSeq=311>

연보

- 1958년 서울 출생
- 1984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8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전공 졸업
- 1988년 《제1회 개인전》(서울, 관훈미술관)
- 1989년 계명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영남대학교에 출강
- 1990년 《동아미술제》 특선 수상
한성대학교 강사 역임
- 1991년 덕성여자대학교, 한성대학교, 수원대학교에 출강
《MBC 미술대전》 입선
《제2회 개인전》(서울, 미술회관)
- 1992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전임강사 역임
《동아미술제》 특선 수상
- 1993년 《제3회 개인전》(서울, 토아트스페이스)
- 1994~1998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조교수
- 1996년 《제4회 개인전》(서울, 금호미술관)
- 1996~1997년 중국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미학분과 초청 연구 파견 근무
- 1998년 작고

허강(許疆, 1958~)

1958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한 허강은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미술과를 졸업했다. 1984년부터 1992년까지 공주 영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으며, 1997년부터 중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모스크바 주립대학교(Moscow State University of Printing Art. Art)에서 예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야투 창립멤버로 1981년 《야투현장미술연구회》부터 참여해온 허강은 자연에 대한 사유를 기반으로 자연에 내재된 아름다움을 도출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국내·외 자연미술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작가는 ‘자연으로부터’를 전시 주제나 작품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허강의 작품 속 자연미는 사라진 인간 본연의 고향으로서의 자연으로, 인간 실존의 답을 자연미의 형상화를 통해 찾고 있다.¹ 초기작이라 할 수 있는 1984년 작 <잃어버린 공간>이 극사실적인 기법으로 그린 초현실주의적 화풍이었던 것과 달리, 자연미술에 심취하면서 설치와 영상으로 작업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2000년 작품 <사유(Thought from the nature)>는 머리를 자른 작가 자신의 두상을 입체로 형상화 하고, 그 위에 자연물(바다 생물)을 영상화하여 설치한 작품이다. 여러 모니터에 영상을 담아 설치한 이 작품처럼 이 시기 허강은 모니터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제작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 작가는 더욱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자연물 상태의 나무토막을 끌어 모아 둥근 원형으로 배치해 새로운 형상을 재현한 설치작업 <자연으로부터>(2011, 나무), <자연으로부터-생각>(2012, 나무)와 <자연으로부터-꿈>을 선보였다. 나아가 원형, 또는 사각형의 스테인리스 스틸판 위에 식물과 동물의 형태를 전사하듯 드로잉하고, 스테인리스 스틸판을 양각과 음각으로 부식시켜 형상을 드러내는 <자연으로부터>(2011, 스테인리스 스틸)에서는 재료를 금속으로까지 확장시켰다. 이처럼 허강은 자연을 인위적으로 표본화하여 자연성을 상실한 ‘자



허강, <사유>, 2000, PVC, 영상, 1,550×1,000cm, 작가 제공

1 유현주, 「자연으로부터 사유, 자연미를 구현하는 허강의 작품」, 허강 展-자연으로부터 사유, “디자인정글” 홈페이지 <https://www.jungle.co.kr/exhibit/6319>



허강, 〈달빛드로잉〉, 2015, 목선, PVC, 가별설치, 작가 제공

연'의 상태를 보여주고자 했다.² 또한 자연석을 활용한 작품도 제작했는데, 매끄럽게 연마한 자연석 표면에 청동으로 캐스팅한 나뭇잎이나 새싹을 올려놓은 작품 〈자연으로부터〉(2012, 돌과 청동)가 그러한 작품이다. 우리가 늘 보는 자연이지만 허강은 현대적 감각으로 번안하여 생명의 공간으로 끌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즉 자연물을 소재로 삼지

만 차갑고 정제된 도시적 감성으로 표현한다.³ 이는 작가가 자연과 문명, 혹은 자연과 인간 어느 것에도 차별화된 시선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2015년부터 허강은 달 형상의 작품을 신고 국내·외를 떠돌며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글로벌 노마즘을 실현하고 있다. 흐르는 물위에 달 띄우기 작업은 금강에서 시작하여 유목인들의 루트를 따라 인도의 '소금사막'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달빛드로잉〉은 목선에 달을 실어 어디든 이동(유목)하는 작품이다. 작가는 '달' 작업에 대해 "현대인들이 잊고 있는 달의 서정성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낙동강과 금강, 한강에서 달과 쪽배를 통해, 또 강변 풍경의 가변성과 강물의 흐름에 따라 유동하는 현장 설치 등 실험적 작업으로 훼손된 자연과 변치 않는 달의 이미지를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⁴

2022년 현재 중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허강은 2004년부터 각종 공모지원 프로그램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를 주제로 한 여러 편의 학술논문과 백제 금동향로를 통한 문화원형 콘텐츠를 200여 편 제작 발표했으며, 『대학생활을 위한 컴퓨터』(중부대학교, 2009), 『관광과 한국문화재』(도서출판 세기, 2003), 『한국불교동자상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방법론』(야투 출판사, 2003)을 출간했다. 2010년 《금강자연미술비엔나레》에서 최우수 작품상, 2014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상, 2015년 이동훈미술상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충남 건축 미술작품 심의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 각종 미술대전의 심의위원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연보

- 1958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81~2022년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공주 일대) 참여

2 전원길, 「허강의 자연과 인위 사이에서의 조형술법」, 『HUR0KANG from Nature』(모리스갤러리, 2012).

3 전원길, 위의 글.

4 허강 포토폴리오, 작가 제공.

- 1984년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 1984~1992년 공주 영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85~2022년 《창형전》(서울, 대전)에 출품
- 1989년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독일, 함부르크미술대학 전시관)
- 1990년 《제1회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개최 / 《대전시미술대전》대상 수상
- 1992년 한남대학교 대학원 미술과 졸업
- 1996년 《아트 메모리 갤러리 초대개인전》(일본 교토, 아트 메모리 갤러리)
- 1997~현재 중부대학교 교수로 재직
- 1999년 《이형동질-사유 멀티미디어전》(대전, 타임월드 갤러리)
- 2000년 《대전미디어아트전》(대전시립미술관)
- 2002~2004년 《아시아수채화대전》(중국 북경, 서울)
- 2003년 《Moscow State University of Printing Arts 초대개인전》(러시아 모스크바)
- 2004~2014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공주 일원) 참여
- 2005년 《동경 히키 국제 자연미술전》(일본 도쿄)
- 2007년 Moscow State University of Printing Art 예술학박사
- 2007~2011년 《모스크바 국제자연미술전-Passport》(러시아 모스크바)
- 2009~2011년 《나자리아 자연미술 심포지움》(루마니아, 나자리아)
- 2010년 《서울 한강공원 Space》(서울) /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최우수 작품상 수상
- 2011년 《일상의 낙》(김해,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 2012년 《불가리아 두편 국제미술전》(불가리아 두편) / 《이란 노마딕 리포트》(이란, 테헤란미술관/
서울, 아르코미술관) / 《헝가리 에게르 국제 자연미술전》(헝가리 에게르)
- 2012년 《에네르기 대전프로젝트》(대전시립미술관)
《모리스갤러리 초대 개인전》(대전, 모리스갤러리)
《불가리아 도마아트페스티벌》(불가리아, 소피아국립미술관)
- 2014년 《유라시아 아트 익스프레스 프로젝트》(대전, MBC갤러리)
《글로벌 로마딕 프로젝트-움직이는 자연과 미술》(한국)
《대전 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초대개인전》(대전시립미술관)
- 2014~2015년 《IAAF SEOUL 2014》(서울, 예술의전당)
- 2015년 《오대산문화축전, 오대 세상을 품다》(평창, 월정사)
《유라시아 친선특급 프로젝트》(러시아, 폴란드, 독일)
《글로벌 로마딕 프로젝트: 발끝에 핀 꽃》
이동훈 미술상 특별상 수상 / 《이동훈미술상 수상작가 초대개인전》(대전시립미술관)
- 2016년 《순천만국가정원 환경 자연 미술제 초대전》(순천)
- 2019년 《경기 에코 뮤지엄》(고양시, 경기문화재단)
- 2021년 《달: 일곱 개의 달이 뜨다》(김해,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가국현 (賈局鉉, 1959~)



가국현, 〈filling&emptying〉, 2017, 캔버스에 유채, 100×100cm, 작가 제공

1959년 대전에서 태어난 가국현은 1987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1992년 세종대학교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¹ 1984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특선을 받았고, 1990년에는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을 받으며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1990년과 1992년에 《제1·2회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제2회 개인전》에서는 독특하고 대담한 구도의 풍경과 정물을 그린 작품 25점을 출품했다.²

가국현 작품의 특징은 보색 대비의 강렬함과 세련된 색채이다. 특히 대담한 색상의 대비는 그림에 대한 집중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색을 입히는 과정

에서 칠하고 말리는 중첩을 반복해 색의 풍부함과 깊이감을 더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물화는 가국현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 중 하나이다. 선명한 색으로 유려한 꽃의 모습을 담아내면서도 전체적인 구성에 신경을 쓴 점이 돋보인다. 초기에는 〈변형 8호〉와 같이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을 사용해 강렬한 색상의 대비로 작품에 생동감을 부여했다. ‘붓으로 도자기를 빚는’ 작가라는 별칭에 어울리듯 실제 도자기가 아닌 작가의 상상 속에 존재한 도자기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최근에는 〈filling&emptying〉처럼 은은하고 질박한 아름다움, 평면적이면서 입체적인 질감을 보여주는 정물화를 제작했다. 《화폭 속 도자기》 연작을 통해 장식적 요소로 쓰인 화병과 같은 도자기들을 전면으로 부각시키고, 반대로 화려한 장식으로 작품을 지배하던 꽃들은 도자기를 받쳐주는 보조적 역할로 치환했다. 이는 이전까지 제작했던 정물에서 탈피해 새로운 단계로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³ 대학 시절에는 극사실화를 그리다가 인상과 붓 터치를 시도하고, 이후 비구상 작업도 했던 작가는 “캔버스에 단 하나를 놓더라도 대중에게 각인되도록 한국적 질감을 가진 도자기를 선택했다.”며 먼 길 끝에 도달한 중착역이 한국적 도자기 정물화라고 밝히기도 했다.⁴

1 주민등록상에는 1959년 출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1958년에 태어났다.

2 「가국현씨 두 번째 개인전」, 『매일경제』(1992. 5. 6).

3 박영문, 「가국현 개인전」, 『대전일보』(2016. 6. 9).

4 전지현, 「마음 가는대로 그린 정물화」, 『매일경제』(2021. 4. 11).

이외에도 가국현은 최소한의 형태로 간결함을 추구하는 정물화와 달리 의도하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돋보인 풍경화를 제작했다. 화실과 집을 오가며 보는 일상의 풍경에서 선(線)만을 강조하거나 면(面)만을 잘라 재밌는 구성을 취했다. 가깝게는 우리나라의 시골 마을에서 멀게는 외국의 소도시까지 아우른 이미지를 객관화시켜 작품에 표현했다. 이렇게 제작한 작품들은 2021년 개최한 《가국현 개인전》을 통해 선보였으며 작가는 이를 《감성풍경》 연작으로 명명하였다.

2006년에는 대전·충청 지역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주어지는 ‘이동훈 미술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에는 지역화단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광역시장상(공로상)’을 받았다.

연보

- 1959년 대전 출생
- 1984~1989년 《충청남도미술대전》 특선 4회 수상
- 1987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88년 《대전시미술대전》 대상(문공부장관상) 수상
《제1회 충남동시대전》(대전문화원)
- 1990년 《제1회 개인전》(서울, 인테크갤러리) /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수상
- 1992년 세종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 《제2회 가국현 개인전》(서울, 청담갤러리)
- 1995년 《오늘의 한국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
- 1997년 《한발미술의 미래 모색전》(대전시민회관)
- 1998년 《한발미술의 오늘전》(대전시민회관)
- 2005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 대전광역시 미술협회 창작상 수상
- 2006년 이동훈 미술 특별상 수상
- 2010년 구상미술대제전 우수작가상 수상
- 2015년 《Hello Spring: 가국현, 지식철, 최인선》(성남, 분당 앤 갤러리)
- 2016년 《가국현 개인전: Filling & Emptying》(대전, 모리스갤러리)
- 2017년 《가을, 계룡산에서의 춤》(공주문화원)
- 2019년 《IN4IDE 100》(대전, 갤러리 고트빈)
- 2020년 대전광역시장상(공로상) 수상
《가국현 개인전: 감성정물》(서울, THE ART PLANT Jo Gallery)
- 2021년 《가국현 개인전: 감성풍경》(서울, 2448 아트스페이스)
- 2022년 《가국현 개인전: 감성정물》(서울, 돈화문갤러리)

강봉승 (姜奉昇, 1959~)



강봉승, 〈운무〉, 2012, 동, 30×30×35cm, 작가 제공



강봉승, 〈촛대 V〉, 2007, 금속, 480×210cm, 작가 제공

1959년 대전에서 출생한 강봉승은 한남대학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미술교사로 재직하면서도 쉬지 않고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1998년 원광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귀금속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강봉승은 초기에는 순수 예술 공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쓰임과 실용성이라는 공예 본래의 의미를 간직하면서 기하학적 형태를 기본으로 시각적 조형성과 미를 지닌 작품을 중점적으로 제작하였다. 판금을 위주로 하는 작업으로 레이징, 다이퍼밍, 돌을새김, 수지상감을 주로 활용하면서 녹청과 전해주조기법을 응용하였다.¹

강봉승은 차갑고 딱딱한 금속성 소재로 부드러운 곡선과 원형이 두드러지는 작업을 주로 한다. 단단한 금속에 열을 가하고 수백 번 두드리고 갈고 펴는 작업을 반복하여 얻은 작품은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 사라지고 선형의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작가는 선을 이용해 유기체적 움직임 표현하며 더불어 원에서 우주의 원리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공예가로서 강봉승은 작품 제작에 있어 늘 곁에 두고 볼 수 있도록 단순함을 기본으로 하면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한다.² 2007년 《제3회 개인전》에서 선보인 작품 〈풍요Ⅱ〉는 금속으로 만든 향아리로 표면에 부식으로 형상을 새겼다. 이와 다르게 〈촛대 V〉에서는 단단한 금속을 비틀고 꼰 형태로 곡선미를 강조하였다.

2021년 33년간 교직에서 정년퇴임한 후 작가는 금속공예 공방을 열어 더욱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1 강봉승, 「개인전을 준비하며」, 『강봉승 금속조형전』(동양타임월드 갤러리, 1999).

2 이종섭, 「차가운 금속에 생명을 불어넣다」, 『중도일보』(2007. 12. 18).

연보

- 1959년 대전 출생
- 1988년 한남대학교 응용미술학과 졸업
대전 소재 서일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 부임
- 1992~2022년 《충청남도 산업디자인전》(논산문화원, 논산문화예술회관 등)
- 1993~1996년 《대전의 숨결》(대전, 엑스포)
- 1993~2018년 《대전금속조형회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 등)
- 1998년 《강봉승 장신구전》(익산, 원광갤러리)
- 1998~2022년 《대전시미술대전》(대전시립미술관 등)
- 1999년 《제1회 강봉승 금속조형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
- 1999~2013년 《한국공예가협회전》(서울600년기념관 / 서울, 한전아트센터프라자 등)
- 2002~2005년 《원광 귀금속 공예가협회전》
- 2004년 《제2회 강봉승 금속조형전》(대전, 충청하나은행 갤러리)
《대전금속조형회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
- 2007년 《제3회 강봉승 금속조형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
- 2011년 《제16회 전주전통공예전국대전 초대전》(국립전주박물관)
《대전공예작가 초대전》
- 2012년 《3인 초대전》(대전, MBC Gallery)
- 2014~2022년 《신공예작가전》(대전, 이공갤러리 외)
- 2015년 《대전미술150인 초대전》(대전예술가의 집)
- 2016~2022년 《대전공예가회전》(대전시청 전시실외)
- 2017년 《생각하는 손 - 박영선, 이미희, 홍기화》(대전, 메르헨갤러리)
- 2019년 《대전 MBC 공예 3인전》(대전, MBC갤러리)
- 2021년 서일여자고등학교 정년퇴임
- 2021~2022년 《심향맥전》(대전예술가의 집)
- 2022년 《신공예작가전》(대전, 이공갤러리)

노재경 (盧載京, 1959~)



노재경, <동천연(洞天硯)>, 오석, 24×17×3.5cm, 작가 제공



노재경, <십장생문일월연(十長生紋日月硯)>, 오석, 43×25×3.5cm, 작가 제공

호는 석전(石田). 1959년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에서 출생한 노재경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 노장성(1904~1974)이 만드는 남포벼루를 보며 자랐다. 작가가 태어난 충남 보령은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벼루들의 산지이자 남포연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곳이다.¹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벼루를 만드는 연장을 가지고 놀다가 손가락을 다쳐 혼났던 기억이 있으나 호기심을 떨칠 수 없었다.

중학교 졸업 무렵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작가는 자연스럽게 벼루 만드는 일을 이어받게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벼루 제작을 배우기 위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6호 남포벼루 기능보유자인 김진한을 찾아가 전문적으로 입문을 하였다. 6여년 간 열심히 남포벼루를 제작하는 전통기법을 전수받고 군대 제대 후 남포연 제작을 생업으로 삼기로 정하고 개인 작업실을 열었다. 노재경은 자기 발전을 위해 벼루 관련 서적을 구해 읽고 박물관을 방문해 전시된 벼루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현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작가는 1984년부터 남포벼루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공모전에 지속적으로 자신이 만든 벼루를 출품하였다. 1995년부터 9년간 꾸준히 전승공예대전에 출품해 8회 입선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1999년 《제24회 전승공예대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동천연>은 1973년 월간 문화재에 실린 조선 중기 ‘동천연(洞天硯)’을 보고 재현한 작품이다. 일본 오사카 한국문화원에서 노재경이 완성한 <당초문연>,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 종이박물관에서 <십장생문일월연>을 구입하여 영구 전시하고 있다. <십장생문일월연>에는 먹을 가는 달 형태의 연당(硯堂)과 목즙이 모이는 해

¹ 남포연은 벼루돌이 생산되는 성주산 일대가 조선시대 남포현 관할이었기 때문에 지명 이름을 따서 그때부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루를 칭하게 되었다. 남포석으로 만든 벼루가 우리나라 벼루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남포연이 유명하게 되었다.

형태의 연지(硯池) 둘레에 소나무·대나무·영지·학·거북·사슴·물·돌 등 십장생물을 정교하게 새겼다.

2008년 10월 인생의 대표작으로 삼을 만한 버루를 만들 귀한 원석을 만나면서 5년에 걸쳐 <일천학문일월연(一千鶴紋日月硯)>을 완성하였다.² 해(먹을 가는 연당)와 달(먹물이 고이는 연지)을 만든 여백에 학을 입체감 있게 새김질한 작품으로 사용자에게 장수와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연 보

- 1959년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의형리 출생
- 1974년 청라중학교 1회 졸업
남포버루 장인 김진한의 제자로 버루에 입문
- 1987년 《제17회 전국공예품경진대회》에 <靑石>으로 관광협회 회장상
- 1995년 《제25회 충청남도 공예품경진대회》에서 <단청버루와 보석함>으로 금상
- 1996~1998년 《제21~23회 전승공예대전》에 연속 입선
- 1997년 《제27회 충청남도 공예품대전》에서 대상
- 1999년 《제24회 전승공예대전》에서 <동천연>으로 장려상
- 2000년 《제30회 충청남도 공예품경진대회》에서 <조롱박을 응용한 서예용품>으로 동상
- 2001년 《제31회 충청남도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생활용품>으로 우수상
- 2005년 《제35회 보령시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서예용품 세트>로 최우수상
- 2006년 《제35회 보령시 관광기념품 경진대회》에서 <보령남포석버루>로 우수상
충청남도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 2007년 《제37회 충청남도 공예품 대전》에서 <생활용품>으로 장려상
- 2010년 《노재경 개인전-남포연》(대전, 복합문화공간 CCT)
- 2011~2014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6호 남포버루전수자 작품전》(보령, 남포버루전수교육관)
- 2012년 《보령남포버루와 문방가구전》(보령석탄박물관 /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2018~2019년 《보령남포명연 특별전》(서울, 백악미술관 / 대구문화예술회관)
- 2019년 《노재경-홍철순 듀오 오석전》(일본, 후쿠오카시 미술관 / 부산, 갤러리UM)
- 2021년 《한국의 버루-보령남포 명연 특별전》(전주 공예품전시관)
《제41회 전통공예명품전》(서울,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전시관)
- 2022년 《보령의 공예, 의미의 확장》(보령, 대안공간 space TAN)

² <일천학문일월연>은 원석의 중앙부에 해를 상징하는 연당(먹을 가는 부분)과 달을 상징하는 연지(먹물이 고이는 부분)를 파내고 남은 여백은 학을 주제로 하여 천마리의 학을 대칭 배치하여 입체감 있게 새김질하였다. <일천학문일월연(一千鶴紋日月硯)>의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아서 본문에 수록하지 않았다.

류영석 (柳泳奭, 1959~)



류영석, 〈무제〉, 2020, 캔버스에 유채, 작가소장

충청남도 금산에서 태어난 류영석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농사를 도우며 화가의 꿈을 키웠다. 그림에 관심이 많았던 류영석은 대전 대성고등학교에 입학해 미술부에서 활동하는 한편, 겨울방학이 되면 서울에 올라가 아현동에 있는 화실에 다니며 미술 공부를 했다. 이 시기 작가는 틈틈이 인사동의 화랑에 전시된 작품들을 관람하고, 주변 화가들의 작품을 보며 평생 그림 그리는 화가로 살겠다는 목표로 하루 종일 화실에서 그림만 그렸다고 한다.

1979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입학한 류영석은 지도교수인 오세열(吳世烈, 1945~)의 반추상적인 구상화의 영향을 받아 초기에는 사회적 공간에서 느껴지는 구조적인 선과 면을 재해석한 작품을 주로 제작했다. 이들 작품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982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대한민국미술대전》에도 입상했다.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83년에는 《목우회전》과 《구상전》에, 1984년에는 《중앙미술대전》에 입상하는 등 각종 공모전과 단체전에 출품하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류영석은 색채 자체가 지닌 본질을 중시하면서도 선과 면을 이용한 회화적 처리에 뛰어난 감각을 보였다. 2020년 작 〈무제〉를 보면, 나이프로 물감을 칠하거나 긁어서 마티에르를 만들고, 그 사이사이 드로잉 하듯 스쳐지나가는 선과 공간을 암시하는 듯한 파벽, 살랑거리는 노랑색 잎사귀를 삽입해 색면과의 긴장관계를 조성한다. 이처럼 작가는 현실의 재현보다는 색면과 색면이



류영석, 〈공간〉, 2006년, 캔버스에 유채, 20호, 작가 소장

어우러진 회화미에 관심을 둔다. 류영석의 작품은 선과 면의 조화를 꾀한 추상계열 작품과 함께 또 하나의 축은 낙후된 도심의 풍경을 포착해 기하학적 형태의 공간으로 재구성한 작품들이다. 곧 철거될 것 같이 칙칙한 회색 건물들을 사실적인 기법으로 재현하고, 지붕선과 직사각형의 문과 담 등 기하학적 형태들의 변주를 통해 회화미를 부여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낡고 허름한 풍경이지만, 작가의 시선으로 면과 선으로 새롭게 탄생한 풍경이다.

1985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한 류영석은 1989년부터 2021년까지 공주정보고등학교에서 35년간 미술교사로 근무하며 후학을 양성하는데 힘썼다. 그 공로로 2021년 옥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작가는 또 지난 2007년부터 공주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평생 학습 동아리 프로그램인 '예성그림반'을 만들어 현재까지 15년 동안 지도하고 있다. 작가의 봉사활동에 힘입어 현재 20여명의 회원이 열정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며 지역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50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하며 작가이자 미술교육자로 지냈던 류영석은 2021년 정년퇴임 후 고향인 금산에 귀촌해 농사일을 하며 작품을 제작하는 농부화가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류영석은 자신이 재배한 농작물과 토양을 작품으로 재현하며, 농부의 심성과 땀이 스며든 화면을 창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연보

- 1959년 충청남도 금산 출생
- 1978년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 1982년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에서 특선
《대한민국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 입상
- 1983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목우회전》, 《구상전》(서울, 미술회관) 입상
- 1984년 《중앙미술대전》(서울, 호암갤러리) 입상
- 1985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대전문화원)
- 1985~1987년 《남부현대미술제》 출품
- 1989~1995년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미술전》 출품
- 1989~1997년 《공주풍경전》 출품
- 1989~2021년 공주여자상업고등학교(현 공주정보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92~2002년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강사 역임
- 1995년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에서 대상 수상
- 1995~2016년 충남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장 역임
《충청남도미술대전》, 《대전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역임
- 2019년 《안전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 2020년 《백제의 숨결전》 운영위원 역임
- 2021년 공주정보고등학교 정년 퇴임, 옥조근정훈장 수상
《백제 숨결전》(논산, 문예회관)

박애정 (朴愛正, 1959~)



박애정, <To Thine Own Self Be True: 참 나를 찾아서>, 2011, FRP, Dimensions variable(출처: 『달려라, 토끼』, 롯데갤러리, 2011)

1959년 대전에서 출생한 박애정은 1983년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섬유예술과를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대학원을 졸업하던 1985년, 작가는 평면작업만 가르치는 현실교육에 답답함을 느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¹ 섬유와 조각을 전공하기 위해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에 입학한 첫 해 박애정이 만든 한지작품이 최우수작품으로 추천되어 선배들의 졸업작품

전에 초대되었다.² 1989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9회 국제 태피스트리 비엔날레 공모전》에서 <Ritual in Six Acts>로 한국 섬유작가로는 처음으로 수상하였다. 1989년 《미시건 파인 아트 공모전》에서 <Pontiac's travail>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993~1994년 뉴욕의 Omi International Arts Center의 'Art Omi Residency Programs for International Artists'에 한국 작가로는 처음 초청되었다. 1995년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섬유예술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박애정은 1989년 《제19회 국제 태피스트리 비엔날레 공모전》에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사각형의 틀을 만들고 그 안과 밖에 컴퓨터선과 전통 한지를 겹겹이 반복적으로 집적한 후 동서양의 염원을 기리는 의미를 한데 담아 작품 <Ritual in Six Acts>을 완성하였다.³ 1991년 갤러리 빙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박애정은 '찰나'와 '영원'이라는 주제 하에 《설의(雪衣)》 연작과 <원시의 형상>, <멕시코의 아기무덤>, <여섯 막의 의식> 등 20여 점을 선보였다. 한지, 먹물, 전화선, 컴퓨터선, 플라스틱 튜브를 주 재료로 활용하였는데, 한지로 제작한 《설의》 연작은 한지를 섬유처럼 직조하여 현재에 고착된 의식의 테두리를 무너뜨리고 예스러운 것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설의》 연작에 대해 작가는 "미국 미시간 주에서 공부할 때 한꺼번에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다가 어느 날 날씨가 풀리면 그 많던 눈이 갑자기 녹아내리는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위자연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하나의 훌륭한 이벤트처럼 기억에 남은

1 작가가 제공한 작가노트를 참조.

2 박애정은 크랜브룩 아카데미오브아트와 프렛인스티튜트오브아트로 입학허가서를 받았으나 프렛의 학장이었던 존 배 교수의 조언으로 크랜브룩에 입학했다.

3 최승훈, 『Time Goes by...』(한백원갤러리, 2013).

그 광경을 되살려 만들어 본 것⁴이라고 하였다. 작가 나름의 철학을 바탕으로 충실하고도 풍부한 표현 언어로 완성된 박애정의 작품은 ‘찰나’와 ‘영원’으로서의 생명이 함께 만나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1994년 오마이 재단의 초청작가로 뉴욕에 머물면서 작가는 작품 소재와 기법의 확장을 시도하여 나무, 철제와 용접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1995년 서미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에 오마이 스튜디오에 머물면서 제작한 〈성역〉, 〈Yes, Sir〉, 〈긴장의 리듬〉, 〈반월에 비치는 큐브〉, 〈문자의 흐름〉 등 20여 점의 입체작품과 드로잉작품을 선보였다. 작가는 주로 동양과 서양의 이념적 만남 또는 상상력의 만남을 소재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⁵ 섬유예술에서 주로 실이나 천을 소재로 하는 것과 달리 작가는 나무줄기와 껍질, 철사, 전깃줄과 금속판에 이르기까지 표현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조형적인 측면에서도 대담한 입체작업을 통해 공간과 현장에 맞는 설치와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박애정, 〈설치작업〉, 2013, metallic thread, dimensions variable(출처: 『미술세계 기획 초대전-박애정』, 한벽원 갤러리, 2013)

2003년 얇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가느다란 선으로 부피감과 무게를 없앤 ‘선 조각 (Linear Sculpture)’를 새롭게 선보였다. 선 조각은 이후 스테인리스 스틸과 강철선으로 호랑이·원숭이·용 등 열두 동물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연결되어 《순간에서 영원(The Twelve Horary Signs)》(2008)에 선보였다. 새로운 재료와 주제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한 작가는 2011년 FRP(섬유강화플라스틱)를 이용해 〈To Thine Own Self Be True : 참 나를 찾아서〉를 제작하였다. 다산과 새 생명을 상징하는 토끼의 순수성을 통해 물질문명이 지배하는 현대사회 속 인간들의 갈등과 피폐된 인간성의 상실 속에서 참 ‘나’를 찾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담았다.⁶ 이어 2013년 ‘Time Goes by...’라는 부제의 개인전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위에 금속사를 감아 “생명의 윤희, 시간의 흐름, 인생의 덧없음, 진실의 순간을 만드는 화두 등을 미니멀하게 조형화⁷하는 설치작품을 전시하였다. 작가는 관람 시각의 자유로움을 추구하여 관람객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사방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LED 조명을 사용한 〈설치작품〉을 갤러리 중앙 공중에 매달아 놓았다.

미국에서 설치미술을 전공한 박애정은 평면적인 회화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설치미술에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 변신을 시도하였다. 작가는 “삶과 예술의 모태는 자연에 기인한다.

4 박애정, 「박애정전」, 『월간미술』(1991. 4).

5 「가족과 함께 찾는 불만한 조각전」, 『매일경제』(1996. 6. 21.).

6 박애정, 「작가노트」, 『달려라, 토끼』(롯데갤러리, 2011).

7 「섬유예술가 박애정 씨, 한벽원갤러리서 개인전」, 『한경라이프』(2013. 12. 11.).

예술은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 변화를 위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재료와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자신의 작품관을 이야기하였다.⁸

연보

- 1959년 대전 출생
- 1983~1985년 이화여자대학교 섬유예술 학사. 동 대학원 미술학 석사
- 1985~2015년 총24회 《개인전》(서울, 프랑스문화원 / 미국 디트로이트, 피터보로갤러리 등)
- 1987년 The Banff Centre School of Fine Arts, Canada
- 1988년 미국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대학원 설치미술 석사
- 1989년 《미국 Robert L. Maloney Creative Artist Award 수상자 초대개인전》(미시건, 폰티악 아트센터) / 《제14회 국제섬유비엔날레》(스위스 로잔, 칸토날 보자르박물관) 수상
《미시건 파인 아트 공모전》(Pontiac's travail) 최우수상 수상
- 1990년 The Pollock-Krasner Foundation 그랜트(미국 뉴욕) / 《틸버그 미술관 초대전》(네덜란드)
- 1991년 캐나다 퀘벡 정부 예술가협회상 수상
- 1992년 《서울섬유미술제》(서울시립미술관) / 《국제 섬유예술의 위상전》(경주, 선재현대미술관)
- 1993년 《한일(PULSE+AUF) 교류전》(교토시립미술관)
《오마이 국제미술가 초대전》(미국 뉴욕, 오마이아트재단센터)
- 1995년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섬유예술과 교수 부임 / 《마법의 성》(서울, 인데코갤러리)
《韓·日부드러운 조각전》(서울, 동아갤러리)
- 1996년 《한국 지성의 표상전》(서울, 공평아트센터)
《스멘드갤러리 초대작가전》(독일 쾰른, 스펜드갤러리)
- 1997년 《미술-부드러움-바람전》(서울, 성곡미술관) / 《초대전》(일본, 후쿠오카 현대미술관)
《Galerie Samuel Lallouz 초청전》(캐나다 몬트리얼, Galerie Samuel Lallouz)
- 1999년 《이태리 미니아트텍스틸 코모 국제공모초대전》(이태리 코모)
- 2002년 《진화랑 개관 30주년 기념전》(서울, 진화랑)
- 2003년 《환경미술-물(水)展》(서울시립미술관)
- 2005~2011년 건국대학교 섬유공학과 박사 수료
- 2006년 《이태리 미니아트텍스틸 코모 국제공모초대전》(이태리 코모)
《제11회 폴란드 태피스트리 트리엔날레》(폴란드) 입상
- 2010년 《산으로 간 쟁권》(용인, 백남준아트센터) / 청와대 본관·영빈관 카펫디자인 및 제작 총감독
- 2011년 《달려라, 토끼-현대미술, 토끼로 말하다》(서울, 롯데갤러리)
《이화섬유예술전》(서울, 대한민국예술원 미술관) / 프랑크푸르트 어워드
- 2013년 《SeMA Craft Collection : 재료의 발견》(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8 박애정, 「작가노트」, 『Time Goes by...』(한벽원갤러리, 2013).

박완용 (朴完用, 1959~)

박완용은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그는 현재 충청남도 논산의 건양대학교 예술치료학과에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예술심리치료 분야 전문가이자 화가로 활동 중이다.

박완용은 1980년대 초반 수묵화 운동이 한창일 때부터 채색화 작업을 해온 작가이다. 그는 전통적인 민화 등에서 나타나는 도상이나 의미 그리고 색채의 아름다움을 재해석하여 현대적 표현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¹ 이에 그는 주로 금박과 은박이라는 독특한 재료를 사용하면서 우리 땅에 살고있는 야생화와 곤충들을 그려내고 있다. 바탕화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채색으로 여러 번 되풀이해 쌓아올리고, 그 위에 금박과 은박을 붙여 화면 질감의 느낌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간다. 완성된 작품은 질감이나 형태가 퇴색된 것처럼 보여 마치 오래된 벽화란 느낌이 든다.² 이에 본인만의 새로운 채색화 표현을 구축하여 더욱 폭넓은 작품세계를 보여주었다.

박완용은 서울, 대전, 공주, 동경, 오사카, 베이징, 뉴욕, 시드니, 지바, 오키나와 등에서 총 24회의 개인전을 진행하였고 이외에도 다수의 단체·초대전에 참여하며 전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갔다.³ 2002년에는 자신이 연구한 채색화의 방법을 정리한 『한국 채색화의 기법』을 출간하였다.

박완용은 미술 치료 연구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2006년 「추사와 대원군의 묵란화(墨蘭畫)에 나타난 조형심리 고찰」을 시작으로 2009년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프



박완용, 〈생14-15〉, 2014, 종이에 비단·석채·금박·은박, 45×38cm, 작가 제공



박완용, 〈생18-10〉, 2018, 종이에 비단·석채·금박·은박, 45×114cm, 작가 제공

- 1 오세권, 「염원을 내재한 한국 전통화의 재해석」, 『박완용 개인전』(갤러리 피치, 2008).
- 2 「(미술) 전통 미의식 재해석 '박완용 개인전' 24일까지」, 『한경생활문화』(1999. 8. 19).
- 3 「제17회 2008년 박완용 개인전」, 『놀이신문』(2008. 6. 2).



박완용, 〈생19-7〉, 2019, 종이에 비단·석채·금박·은박, 45×38cm, 작가 제공

로그래미 정신분열병 입원환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2011년 「한국화를 통한 미술치료의 효과성」 등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국화와 미술치료를 접목한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⁴

또한 박완용은 충청남도 문화상 심사위원, 충남 교원미술전 심사위원, 금강미술대전, 충청남도미술대전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며 충남 지역 미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연보

- 1959년 서울 출생
- 1982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84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 1988년 《개인전》(서울, 동덕미술관)
- 1995년 충청남도 문화상 심사위원 역임
- 1995년~현재 건양대학교 교수 역임
- 1996년 《개인전》(대전, 오원화랑)
- 1996~1997년 《충청남도 교원미술전》 심사위원 역임
- 1999년 《한국미술협회 논산지부전》에 참여
- 2000년 《금강미술대전》(대전시립미술관)
- 2002년 저서 『한국채색화 기법』(도서출판 재원) 출간
- 2004년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 부회장 역임 / 논산시 예술문화대상 심사위원 역임
저서 『한국성을 바탕으로 한 아동미술실기지도』(취업매직센터) 출간
- 2004~2007년 한국미술협회 논산지회 회장 역임
- 2006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 2007년 《공주국제미술제》(공주, 임립미술관)
- 2009년 《금강미술대전 특별초대전》(대전, MBC 갤러리)
《박완용전》(공주국제미술제)
- 2014년~현재 아시아신미술교류회 회장 역임
- 2022년 저서 『명화의 심리』(학지사) 출간
건양대학교 예술치료학 학과장 역임

⁴ 건양대학교 박완용 교수 교원정보 참조. https://www.konyang.ac.kr/prog/profsrSearch/faculty/sub01_01/buseo/view.do?insa_no=MTk1MTA4&buseo_cd=30100100&searchCondition=buseo_cd&searchKeyword=30100100&pageIndex=1

복종순(卜宗淳, 1959~)

1959년 충청남도 청양에서 출생한 복종순은 1984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미술과를 졸업한 후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였다. 1997년 미국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의 초대 8주간 입주 작가로 머물면서 작품을 전시해 프리먼 파운데이션 펠로십(Freeman Foundation Fellowships)를 수상하였다.



복종순, 《대전미술의 지평》(대전시립미술관, 2011) 전시장 광경

대학 졸업 후 1985년 대전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첫 개인전에서 종이로 만든 거대한 바위를 천장에 매달아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작가는 입체적인 종이-돌과 달리 평평한 평면에 돌의 울퉁불퉁한 표면만 떼어놓은 듯 평면 작품도 선보였는데 이는 설치예술가로서 복종순의 ‘두드림의 미학’ 또는 ‘망치로 미술하기’의 시작을 알리는 전시였다. 작가는 공주 마곡사 근처의 산속에 들어가 바위 위에 종이를 대고 망치로 두드리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행위 결과물의 표면적 시각에 집중하였다. 이 반복된 과정을 거치며 종이가 단단히 굳어져 바위와 유사한 질감을 보이던 물건으로 칠해 일종의 종이-바위를 제작했다. 1987년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 개인전에서는 ‘거석문화’를 주제로 《영원한 상징을 찾아서》 연작을 발표하였다.

1990년대 종이를 대신해 새로운 재료를 통한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폐기된 깡통이나 양은냄비 등 금속이나 다른 재료들을 다루면서 이전과 달리 결과물이 아닌 두드리는 행위 자체에 몰입하게 되었다. 버려진 수십 개의 깡통을 망치로 두드려 납작하게 만들어 일종의 그림을 만들었으며 평면 작품의 프레임에도 깡통을 사용하였다. 복종순은 깡통에 머물지 않고 폐기된 양은냄비, 주전자, 쟁반 또는 그릇 등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하며 이 물건들이 너털너털하게 될 때까지 망치로 두드린다.

복종순의 ‘종이’에 망치로 두드린 작업이 특정한 형태 없이 부드러운 재료인 평평한 종이를 망치로 두드려 딱딱한 돌이나 바위라는 형태로 만든 조각 작품이라면, ‘금속’ 작업은 견고한 입체의 금속을 망치로 내려쳐 부드럽게 펼쳐내는 평면작품으로 평가된다.¹ 아울러 금속 작업은 “성



복종순, 〈금시〉, 2014, 알루미늄·나무·동·파운딩, 184×115cm(출처:『복종순 망치로 미술하기』, 세컨드에비뉴갤러리, 2018)

형의 의지에서 해체의지로의 이행”으로 해석되기도 한다.² 일련의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에 대해 작가는 “두드리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관념, 마치 관념을 두드리는 것처럼, 미술과 시각 그리고 나이기 때문이며, 사물의 형상이 있음과 없음은 나의 번민이다. 다시 말하면 징그럽게 두드리는 것이 어떤 표현에 대한 강한 욕구이기도 하고 동시에 억제이기도 하다.”라고 표현한다.³ 금속을 두드리는 ‘망치로 미술하기’는 오로지 몸으로 하는 작업으로 기존의 미술개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판단을 정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⁴

복종순은 2000년대 말 두드리는 행위 자체에서 결과물로 작업의 방향을 변경하는데 이는 깡통들을 쇠팅지로 두드려 기도하는 형상을 만든 〈기도〉(2009)에서 엿볼 수 있다. 어떤 표현에 대한 강한 억제에서 어떤 표현에 대한 강한 욕구로 변신 즉, 성형 의지에서 해체 의지로 다시 성

형 의지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⁵ 2016년 대전 갤러리 변방에서 열린 전시 《시간의 저 너머-석굴암에 대해서》는 양은냄비를 쇠팅지로 두드려 만든 조각 작품 〈부처〉를 선보였다.

꾸준히 변화를 모색하는 작가는 2014년 개인전에서 〈현대판 문인화〉 5점을 선보였다. 소동파의 ‘금시(琴詩)’를 붓글씨로 쓴 작품 〈금시〉에 금속을 두드려 만든 소동파의 반신상과 붓, 나무를 두드려 구멍을 낸 벽돌과 호리병 등 다양한 오브제를 함께 배치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인화를 완성하였다. 소동파의 시와 작가의 망치로 탄생한 오브제가 어우러진 이 작품은 복종순 작품 사용 설명서로 해석하기도 한다.⁶

복종순은 2018년 《망치로 미술하기》 전시에서 종이 작품, 금속작품과 문인화 작품 등 그동안 해왔던 작품들을 한데 모아 정리하듯 선보였다. 꾸준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입체예술가 복종순은 젊은 시절의 호기심과 다른 호기심이 생겨난다는 말과 함께 “깨진 그릇 또 깨기”로 여지를 남겼다.⁷

1 류병학, 『복종순의 '망치로 미술하기!'』, 『복종순 개인전』(2nd Avenue Gallery, 2018).

2 허구영, 『서문』, 『복종순 초대전』(UM갤러리, 2007).

3 류병학, 위의 글.

4 류병학, 위의 글.

5 류병학, 위의 글.

6 류병학, 위의 글.

7 RODIN의 미술평론세계 블로그. <https://blog.naver.com/rodin2004/222700573156>

연보

- 1959년 충청남도 청양 출생
- 1984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미술과 졸업
- 1986년 《86 서울 퍼포먼스, 설치미술제》(아르 꼬스모 미술관) / 《88向方여름전》(서울, 윤갤러리)
- 1987년 조선대학교 대학원 순수미술학과 졸업
《개인전》(서울, 윤갤러리 / 대전, 현대화랑)
《3 Counter》(서울, 동아미술관)
- 1988년 《개인전》(서울, 수화랑 / 대전, 동아미술관) / 《세 곳의 섬으로부터》(대전, 시민회관)
《하드코어19 대전코넥션전》(대전, 동아미술관)
- 1989년 《개인전》(대전문화원) / 《황영기·복중순·정광호전》(서울, 동아전시관)
- 1990년 《개인전》(Japan Osaka, A.B.C갤러리)
《멕시코현대미술교류전》(멕시코, 멕시코시립미술관) / 《대화의 모색전》(일본, 지바시립미술관)
《황영기·복중순·정광호전》(청주문화원 전시실)
- 1993년 《개인전》(서울, 제3갤러리 / 청주, 학천화랑)
《오늘의 지역작가전》(서울, 금호갤러리)
- 1994년 《개인전》(청주, 학천화랑) / 《단면전》(모란미술관)
- 1995년 《미술, 습관, 반성》(서울, 금호갤러리)
- 1996년 《개인전》(청주, 학천화랑)
- 1997년 《개인전》(미국 VT, Red gallery) / Vermont Freeman Fellowships 수상
- 1998년 《일상의 신화전》(서울, 선재미술관)
- 1999년 《전환의 봄》(대전시립미술관)
《끝없는 그림 그리기》(대전, 한림미술관 / 서울, 주한프랑스문화원)
- 2000년 《개인전》(서울, 금호미술관)
- 2002년 《개인전》(미국 뉴욕, Hutchins Gallery)
- 2004년 《금강자연비엔날레》(공주, 임립미술관)
- 2006년 《개인전》(대전, 이공갤러리)
- 2007년 《복중순 초대전》(서울, UM갤러리 / 대전, 반지하갤러리)
- 2008년 《Art at Home_Wonderful Life》(서울, 두산갤러리)
- 2009년 《새로운 창조자》(서울, 쉐마미술관)
- 2010년 《개인전》(대전, 롯데갤러리)
- 2014년 《개인전》(서울, 갤러리 I) / 《개인전-거센 흐름을 건너》(대전, 변방갤러리)
- 2015년 《개인전-무분별전》(대전, 변방갤러리)
- 2016년 《개인전-이판사판》(대전, 변방갤러리)
- 2018년 《개인전-망치로 미술하기》(서울, 세컨드에비뉴갤러리)
- 2019년 《개인전-망치로 미술하기》(대전, 화니갤러리)

안병국(安炳國, 1959~)



안병국, 〈항아리〉, 1994, 화장토·분청유, 26×26×27cm(출처: 『안병국도예전』, 갤러리로울, 1994.)



안병국, 〈분청두미호〉, 2019, 청자토·회장토·분청유, 30×27×27cm(출처: 『시간의 온기』, 대전시립미술관, 2021.)

1959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출생한 안병국은 1980년 **목원대학교 산업미술과에 입학**해 디자인에 관심을 가졌으나 도자공예를 전공으로 선택하였다. 물레질기에 심취한 것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대학 졸업 후 국민대학교 대학원 조형미술관에 진학해 도예 작업의 다양성에 관심을 가졌다.¹ 경기도 인천 울면에 ‘안향공방’을 개업하여 약 3년간 물레작업을 통해 제작한 작품을 1994년 첫 개인전에서 선보였다.² 1993년 이태리 파엔차 국립도예학교로 유학을 떠나 조형도자에 관심 갖고 예전과 달리 ‘이중석 고기법을 이용한 유한성’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해 파엔차 철도회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³ 1996년 귀국 후 해강도자미술관에 조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옛 도요지 발굴 조사작업에 참여하였다. **2000년부터 목원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 도자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안병국의 작품은 넉넉한 양감을 갖는 형태가 특징이다. 양감을 표현하기 위해 선을 의도적으로 절제하는데 절제로 인한 단순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식물을 덧붙여 주고 있다. 이러한 단순함은 표면에 질감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교한 양각, 타날문(打捺文) 등을 이용한 백토분장기법을 통해 장식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⁴

물레작업에 매료되어 도자를 전공으로 택한 것처럼 작가는 현대도예에서 추구하는 다양성

1 「안병국」, 『시간의 온기』(대전시립미술관, 2021), p. 34.

2 『안병국 도예전』(갤러리로울, 1994).

3 「안병국」, 위의 도록(2021).

4 최건, 「안병국과 그의 작업」, 위의 도록(1994).

에서 한 발짝 물러나 전통적인 물레작업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움보다는 물레 작업과 도자 그릇에 천착하는 것에 대한 애정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2017년 《분청도자전》에서 흙을 빚은 후 분청 작업을 거쳐 환원소성으로 분청의 멋이 깊고 완성도 있는 작품을 선보였다. 작가는 작품의 제작에 있어서 완성도보다는 자연스러움에 더 비중을 두고 규모가 큰 작품보다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소품의 제작에 주력하면서 교육자로서 후학의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연보

- 1959년 경상남도 밀양 출생
- 1980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미술과 입학
- 1993년 이태리 파엔차 국립도예학교 입학
- 1994년 《안병국 도예전》(서울, 갤러리 도울)
- 1996년 이태리 파엔차 국립도예학교 졸업
- 1996~1998년 해강도자미술관 조사원으로 근무하며 5기의 옛 도요지 발굴 조사에 참여
- 2000년~현재 목원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 도자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
- 2012년 《제8회 개인전》(대전, 이공갤러리)
- 2013년 《도원회정기전》(대전서구문화원)
- 2014년 《목원대 미술대학 교수작품전》(대전, 선화기독교미술관)
《안병국 개인전》(대전, 갤러리 웃다)
- 2015년 《한·중현대미술교류전》(대전, M갤러리)
- 2017년 《안병국개인전-분청자기전》(대전, 화니갤러리)
- 2019년 《도자 위에 편 철화전》(공주, 충남역사박물관)
- 2021년 《시간의 운기》(대전시립미술관)
- 2022년 '2022 작가조사 연구 비평 지원사업'(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가로 선정

양병호 (梁炳浩, 1959~)



양병호, <팔각 떡살문 스탠드>, 목재, 35×30×10cm, 작가 제공



양병호, <찰상>, 2004, 은행나무·꽃철, 60×60×25cm, 작가 제공

호는 평송(平松). 1959년 전라북도 진안에서 출생한 양병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따라 서울로 향했다. 10살 되던 해 대전으로 옮겨와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작가는 어릴 적부터 목재소를 운영하던 아버지 양덕목의 사업장에 자주 들러 온종일 나무와 시간을 보내곤 했다. 1981년 군대에서 전역한 후 진로를 고민하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지역에서 활동하던 조각가 최중빈을 찾아가 배움의 기회를 얻었으며 스승으로부터 ‘평송(平松)’이라는 호를 받았다.

아버지와 다르게 작은 소품 제작에 집중하는 작가는 외부 출장이 잦은 아버지의 일을 보면서 차분하게 앉아서 또는 한 곳에서 집중해 작업하는 일이 더 적성이 맞았다고 하였다.¹

1988년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한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어머니의 형상으로 완성한 작품 <어머니>로 특선을 수상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공예품대전에 작품을 출품하여 금상, 특선 등을 수상하였다. 2011년 《제1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공예부문에서 <나전 찻상>으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작가는 작품을 제작하면서 특별한 의도를 갖기보다는 나무 자체에 최적화된 것을 꺼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²

2022년 목공예 명인으로 선정된 양병호는 목공예 작품을 주로 제작하는 평송공예를 운영하며 목공예를 배우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후학 양성을 위해 대전 소재 중학교를 찾아 진로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1 2022년 9월 22일 작가와 면담(장소: 대전 예술가의 집).

2 양병호 작가의 해제문은 작가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연보

- 1959년 전라북도 진안 출생
- 1969년 대전으로 이주함
- 1988년 《대전광역시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어머니〉로 특선
- 1992년 《제12회 한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기러기 생활용품〉으로 금상
- 1999년 《제2회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민속인형 사물놀이〉로 금상
- 2001년 《제31회 대전광역시공예품 대전》에서 〈북·장고생활용품〉으로 장려상
- 2006년 《제9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일반상품 분야에서 〈탁상용품〉으로 특선
- 2007년 《제10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일반상품 분야에서 〈팔각 떡살문 스탠드〉로 특선
- 2010년 《제40회 대전광역시공예품 대전》에서 〈연화문합〉으로 장려상
- 2011년 《제1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민예술협회 주최) 공예 부문 〈나전차상〉 대상
《제14회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농기구 티스푼 세트〉로 은상
- 2012년 《제14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국무총리상 수상
《제15회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팽이 옷놀이〉로 금상
- 2017년 《제19회 대전보문미술대전》 입체미술 공예 부문 〈달 표면의 흠〉으로 최우수상
- 2022년 (사)공익법인 한국문화예술진흥회, 목공예 명인 인증

엄기환(嚴基煥, 1959~2014)



엄기환, <관운정>, 연도미상, 한지에 수묵담채, 46×63cm(출처: 「공주문화원, 엄기환 한국화전」, 『파워뉴스』, 2014. 9. 26)

호는 계산(桂山). 1959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으로 실경산수의 대가로 불리는 엄기환은 공주고등학교,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하였다. 1988년부터 2014년까지 총 8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동방예술연구회, 세계미술협회, 한국미술협회 등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엄기환은 1988년 첫 개인전 무렵부터 줄곧 산을 그려왔다. 농촌과 일상 풍경들도 그렸지만, 작가의 주된 소재는 산으로 생생한

계곡과 산자락, 안개무리 등을 화폭에 담았다. 대표적으로 내연산, 월출산, 오대산 등 국내의 명산과 황산, 계림, 장가계 등의 해외 명산까지 산세가 좋은 곳은 어느 곳이든 직접 답사하여 화폭에 담아내었다.

엄기환은 대학 시절 이원좌(李元佐, 1939~2019)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선조(線條) 위주의 탄탄한 골격 구성이 그것이다. 또한 성균관대 대학원에서는 농담과 담묵의 적절한 배합에서 오는 분위기 조성, 즉 원근감의 강조와 주종(主從) 설정에 있어 과감한 대비 등을 실험하였다.¹ 이러한 학습을 토대로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 작품활동을 주로 펼쳐왔다. 작가는 공주시 사곡면 회화리 마곡사 인근에 위치한 작업장 만허재(滿虛齋)에서 자연풍경을 바라보며 관찰력을 키우며 곳곳이 전통 수묵 산수화를 고수하였다.

이처럼 엄기환은 오랜 시간 현장스케치를 통해 실경산수를 그려왔다. 작가에게 있어 현장스케치는 단순히 현장의 분위기 또는 보이는 실체만을 스케치북에 담아오는 행위가 아니었다. 작가는 그림의 대상이 되는 산 풍경의 일정 부분을 현장에서 완성해나가며, 실경산수의 화폭 속에서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다듬어나갔다. 엄기환은 주로 먹을 사용하면서도 화면 중간 중간 채색을 하여 화면의 일부를 강조한다. 또한 화폭에서 조형성을 강화하며 여백의미를 표현한 그림도 다수 남기며, 아름다운 풍광들을 놓치지 않고 화폭에 표현해내고자 했다.² 따라서 엄기환은 작품 제작에 있어서 자연과의 교감을 특히 중시하며 다채로운 풍경의 실경산수를 남기고 있다.

1 이열모, 「엄기환의 자연주의」, 『柱山 嚴基煥 展』(백악미술관, 2007).

2 박기성, 「[작가의 산실] "자연 벗삼아 붓 가는대로"」, 『중도일보』(2005. 11. 17).

2014년 지병으로 작고한 후 작가의 새로운 실경산수화 작업을 더이상은 볼 수 없게 되었지만, 2017년 공주문화원에서 《엄기환 유작전》을 대대적으로 주최하며 계산 엄기환의 화업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 보

- 1959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78년 공주고등학교 졸업
- 1983년 《청림전》(대전, 시민회관)
- 1985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86년 《청림전》(대전, 신신화랑)
- 1987년 《충남청년작가전》(대전중구문화원)
- 1988년 《개인전》(서울, 백상기념관)
- 1991년 《대전 한국화회전》(대전중구문화원)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대전시민회관)
- 1992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 1992~1996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출강
- 1994년 《문인화정신의 탐구전》(서울시립미술관)
- 1995년 《향기와 맥전》(대전시민회관)
《대전미술 50년》(대전시민회관)
- 1996년 《남경·대전 서화교류전》(중국, 남경미술관)
- 1999년 《한국의 정자전》(서울, 삼정아트스페이스)
《새천년을 향한 도전전》(대전시립미술관)
- 2000년 《대전 미술문화 조망》(대전, 롯데갤러리)
- 2005년 《한벽동인전》(서울, 공평아트)
《동양화새천년전》(서울, 예술의전당)
- 2006년 《감성과 의식의 표현전》(대전정부청사 열린미술관)
- 2007년 《중견 수묵산수화가 엄기환 초대전》(청송, 야송미술관)
- 2014년 《엄기환 한국화전》(공주문화원)
지병으로 작고

유경자(柳京子, 1959~)



유경자, <영똥한 유영>, 2008, 흙, 설치, 작가 제공

1959년 대전에서 출생한 유경자는 어려서부터 만들기를 좋아해 손재주가 좋다는 말을 들었으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미술학원을 다녔다. 한남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에 진학한 작가는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 금속공예를 공부하고 싶었으나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하였다.

유경자는 흙을 만지면서 마음이 힐링되는 듯 빠져들었고 자신의 상상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 즐거움을 느끼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작가는 철분이 많은 흙을 주로 사용했는데 높은 온도의 불에 철분이 녹으면서 만들어내는 여러 모양의 자연 이미지가 흥미로웠으며 우연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바라보는 게임을 즐겼다고 하였다.

1995년 《제1회 개인전》에서 용기로서의 정형화된 도자 작품에서 벗어나 과일과 꽃병, 조리개를 부착한 액자, 벤치에 나란히 붙어 앉은 연인과 같은 형태의 병 등 파스텔 톤의 밝은 색감을 입혀 소조 느낌을 살린 도자 작품을 선보였다. 이 작품들은 유경자가 점토의 성질과 형태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조형성 실험에 매진한 결과이며 도자를 회화나 조소의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다.¹ 이어진 두 번째 개인전 《담겨진 형상》과 세 번째 개인전 《흙으로 빛과 가마구워》에서 선보인 자연을 기호화한 나무와 꽃, 추상적인 형상의 산 등을 통해 도예에 대한 작가의 고민을 느낄 수 있었다.

작가는 기형을 중심으로 제작하는 일반적인 도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공간 전체를 활용하는 설치작품을 선보였다. 2008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에 선보인 <영똥한 유영>은 테라코타 물고기 400여 마리를 산에 설치한 작품으로 도자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혼돈을 예고하였다.² 이후 2011년과 2013년 전시에서 새로운 버전의 <영똥한 유영>을 소개하여 이전의 테라코타 물고기들은 백색도가 강한 소지를 쓰고 그 흙에 투명유약을 적용한 순백의 수백 마리의 흰색 물

1 유현주, 「자유와 무애 無礙의 형상들」, 『유경자의 도예』(대전시립미술관, 2015), pp. 30~31.

2 이 작품은 국정교과서 『미술』(수학사, 2009)에 수록되었다.

고기로 변화였다.³ 수많은 물고기를 직접 제작한 작가는 도자 물고기를 활용해 자연 생명을 예찬하는 동시에 삶의 영속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⁴

유경자는 용기로서의 도자 또는 오브제 중심의 설치작품에서 벗어나 도예에 회화성을 더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흙



유경자, 《Variation-draw space》, 2022, 백자토, 80×37×4.5cm, 작가 제공

으로 캔버스를 만들어 흙에서 느낄 수 있는 질감을 표현하고 색을 더해 1250℃의 불에 구워낸 《Variation-draw space》 연작은 벽에 거는 형식의 작품으로 공간을 차지하는 도자에 대한 대안으로 탄생하였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아직 실험단계이지만 작품영역의 확장을 위한 작가의 노력을 느낄 수 있다.

연보

- 1959년 대전 출생
- 1979년 한남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 입학(전공 : 공업디자인, 부전공 : 도예)
- 1983~1985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예과에 입학, 졸업
- 1985년 《제15회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
- 1993·1994년 《제5·6회 대전시미술대전》에서 연이어 특선
- 1995년 《유경자 도예전》(대전, 교보갤러리)
- 2000년 《담겨진 형상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
- 2004년 《유경자 도예전》(청주, 무심갤러리)
- 2005년 《이 달의 작가 초대전》(대전, 오원화랑)
- 2006년 《멋을 아는 공예 초대전》(대전, 롯데갤러리)
- 2007년 《물과 흙전》(대전, 대청댐미술관)
- 2008년 《만공》(대전, 롯데갤러리) /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공주 연미산)
- 2011년 《유경자 개인전》(대전 롯데갤러리)
- 2013년 《유경자의 빈 그릇전》(대전, 모리스 갤러리)
- 2014년 《Flying in the space》(대전, 호수돈갤러리)
- 2015년 《제12회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 / 《락락유영》(대전, 롯데갤러리)
- 2021년 《상가 안 소우주-지역작가전》(세종, 상가 공실)
- 2022년 《우리글, 온누리를 비추다》(세종문화예술회관)
《개인전》(세종, 박연갤러리)

3 유현주, 앞의 책, p. 31.

4 류철하,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작가전에 붙여」 『이동훈미술상수장전』(대전시립미술관, 2015).

유천균(庾天均, 1959~)



유천균, 〈희구2(希求2)〉, 1991, 캔버스에 혼합재료, 80F, 작가 제공

호는 우강(宇剛). 1959년 대전에서 출생한 유천균은 탕화와 단청분야의 권위자인 금어 유봉래(庾蓬萊)¹가 아버지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1980년 공주대학교에 입학한 유천균은 1983년 《전국대학미전》과 《충청남도미술대전》에 입상하며 화가의 꿈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1984년 공주대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해 1987년 졸업했다.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 예산여자고등학교에 미술교사로 부임한 유천균은 40여년 간 충남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의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1983년부터 1991년까지 《충청남도미술대전》에 여러 차례 입상했으며, 1990년 《제1회 미술세계 신인공모전》과 1991년 《대전시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했다. 각종 공모전에서

입상하며 작가로서 입지를 다진 유천균은 1991년 대전 현대화랑에서 열린 첫 개인전에서 대학교 은사인 이남규(李南奎, 1931~1993)의 영향을 받은 실험성 짙은 비구상회화인 《희구(希求)》 연작을 발표했다. 이후 2021년까지 꾸준히 개인전을 개최하며 평면의 공간에서 벗어나 콜라주도 시도하고, 완성한 화면을 지우거나 다른 색을 덧입히는 등 실험적인 작품을 계속 해왔다.

“작품에 있어 완벽한 완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완성은 곧 사멸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유천균은 캔버스 위를 스쳐가는 색채들의 어울림과 자신의 행위가 혼합되어 퇴색된 형상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면 일종의 희열을 느낀다고 한다.² “그림은 틀에 박혀 굳어버린 모습이 아니라 볼 때 마다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작가는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사각의 틀로 이루어진 캔버스의 테두리를 없애고, 사방에서 각기 다르게 보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³ 아울러 재료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조형의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어

1 유천 유봉래는 김은호의 제자로 세필 사용에 매우 뛰어난 작가로 알려져 있다. 계룡산 신원사의 소림원에 머물며 불화를 가르치고 있으며, 동국대 정각원의 후불탱화를 제작했다.

2 유천균, 「흔적의 밑바탕에...」, 『庾天均展』(대전 현대화랑, 1991).

3 유천균, 위의 글(1991).

떠한 조건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화면에 여러 재료들을 실험해왔다. 붉은색 물감 대신 커피가루나 황토에 아교를 혼합하기도 하고, 단청의 원료를 연한 색부터 수십 번 입혀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붉은 색을 만들었다. 작품 경향으로 보면 뜨거운 추상 계열이지만, 탕화와 단청 분야의 권위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화려한 오방색을 적용한, 한국화 같은 감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천균, <생의 기원 20-4>, 2000, 캔버스에 혼합 재료, 30F, 작가 제공

<생의 기원1>은 영역과 한계를 초월해 끊임없는 탄생과 소멸의 반복이라는 주제를 표현한 작품으로, 그림 이전에 색채론자인 작가가 형상과 생명의 에너지를 인간관계 속에 봉헌한 오마주 작업으로 평가받는다.⁴ 이 작품은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변할 것이라고 한다. 이어진 <생의 기원(生의 起源)> 연작은 잠재된 무의식과 현실세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침체의 늪으로부터 벗어나 고사리의 피어남 같은 생명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제작한 작품이다.⁵ 유천균은 한국미술협회, 한국국제미술협회 회원으로, 대전시미술대전,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를 역임했으며, 11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연보

- 1959년 대전 출생
- 1978년 충남고등학교 졸업
- 1983년 《전국대학미전》(국립현대미술관) 특선
- 1983~2002년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 시민회관 / 천안, 시민회관)에서 특선 3회, 입선 7회
- 1984년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예산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부임
- 1987년 공주대학교 대학원(미술교육학 전공) 졸업
- 1990년 《원미술대전》(진주, 전북예술회관) 특선 / 《중앙미술대전》 입상
- 1990·1991년 《제1, 2회 미술세계 신인공모 대상전》(서울, 경인미술관)에서 특선 2회
- 1991년 《제1회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개최
- 1991~2001년 《대전시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 / 대전시립미술관)에서 특선 2회, 입선 6회
- 1994년 《오늘의 한국현대미술의 단면전》(미국 뉴욕, 노호갤러리)
《오늘의 충남미술전》(부여, 문예회관)
《미술세계대상 수상작가 초대전》(서울, 경인미술관)

4 「추상화가 유천균 화백」, 『월간 인터뷰(INTERVIEW)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press0105/221437834496"

5 「작가노트」(갤러리 이음, 2019).

- 1995년 《L.A. Sun Gallery 초대전》(미국 L.A., Sun gallery)
《캐나다 한국 현대작가 초대전》(캐나다 몬트리올, 국제갤러리)
《미술의해 우수작가전》(서울, 현대아트갤러리)
《'95 애플루트전》(서울, 단성갤러리) / 《OPUS '95전》(서울, 터갤러리 / 창신갤러리)
- 1995~2002년 《충청남도 교직원 미술작품전》에서 1등급 3회, 2등급 5회
- 1996년 《오늘의 충남미술전》(보령군청회의실)
《한국현대미술 상파울로 초대전》(브라질 상파울로, GAMS 갤러리)
《모스크바 중앙예술가 하우스 초대전》(러시아 모스크바)
《제17회 국제임팩트전 초대전》(일본, 교토시립미술관)
- 1997년 《일본국제미술협회공모전》(일본, 동경미술관)에서 특선
《한국 현대미술 러시아 초대전》(러시아 모스크바, 스테이트아트갤러리)
《일본 국제미술협회 초대전》(일본, 동경도미술관)
- 1998년 《제14회 남부현대미술제》(진주, 경남문화회관)
《천안시 중등미술교사전》(천안, 충남학생회관)
- 1999년 《제15회 남부현대미술제》(진주, 경남문화회관)
- 2001년 《P.S.I전》(천안중앙도서관) / 《제2회 개인전》(미국 뉴욕, 스페이스월드 갤러리)
- 2002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
《한·중 미술교사 교류전》(중국, 심양사범대학 미술관)
- 2002~2004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전》(천안시민회관)
- 2003년 《제19회 남부현대미술제》(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충남현대미술의 단면전》(천안시민회관)
- 2004년 《제3회 개인전》(서울, 인사아트갤러리) / 《제4회 개인전》(천안시민회관)
충남예술고등학교 교사로 부임
- 2005년 《제5회 개인전》(러시아, 모스크바국립미술관)
- 2010년 《제6회 개인전》(당진문예회관) / 온양여자고등학교 교사로 부임
- 2014년 《제7회 개인전》(서울, 예술의전당)
- 2015년 《향토작가 초대전》(공주, 임립미술관)
- 2016년 《제8회 개인전》(대전, Expo전시관) / 온양고등학교 교사로 부임
- 2018년 《제9회 개인전》(일산, 킨텍스)
- 2019년 《제10회 개인전》(충청남도교육청 이음갤러리)
- 2021년 《제11회 초청개인전》(아산갤러리) / 천안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2022년 《오스트리아 예술가와 충남작가 11인의 만남전》(예산, 문예회관)
《제1회 아트코리아 미술대전 알파색채상 수상전》(서울, 인사아트갤러리)
《충남중진작가회, 홍주천년 미술 맥을 찾아서전》(홍성, 홍주문화회관)

이순구 (李淳求, 1959~)

1959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출생한 이순구는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마친 후 2005년 공주대학교 만화영상학과에 들어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 회화과와 만화예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학예연구사로 재직했다. 직장생활을 그만 둔 후 현재까지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순구, 〈무제〉, 1988, 《서울현대미술제》 출품작, 작가 제공

대학교 재학시절인 1981년 야투 창립멤버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순구는 1982년 군 입대를 앞두고 《권용호, 이순구 2인 회화전》을 부여 고궁다실에서 열었으며, 대학교에 재학 중 《대한민국미술대전》, 《충청남도미술대전》, 《구상전》, 《동아미술제》, 《중앙미술대전》 등 여러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여 입·특선,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공모전 참여로는 작가의 길이 요원하다고 생각해 작업의 탈출구를 찾기 위한 일환으로 대학교 4학년 때 동료들과 '터'그룹(1986~1996)을 만들어 다양한 작품을 발표하였다.¹

1990년대 들어 사회문화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오브제들을 통한 설치작업을 평면작품과 병행하다가 2000년 이후부터 '이미지와 기호'를 주제로 극사실적인 회화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1990년 《제1회 개인전》부터 2006년 《10회 개인전》까지 이순구의 작품에는 일상과 문화, 그리고 역사적인 의식이 깔려있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회화와 만화의 경계를 허무는 '웃음' 연작을 통해 순수미술과 대중문화의 회화적 융합을 시도한 작품을 발표해오고 있다.

이순구의 《웃는 얼굴》 연작은 전통적으로 유화에서 사용되는 붓의 터치, 회화적인 선의 느낌, 그리고 명암법 등을 구사한다. 여기에 카툰의 단순화된 표현을 주제와 배경에 도입하여 힘 있고 절제된 화면으로 연출한다. 명도가 높은 화사한 색과 꽃, 새들로 구성된 배경이미지는 웃고

¹ 터 그룹은 1986년 한남대 출신 중심의 모임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3회전부터 충남대, 목원대, 배재대 출신 등 다양한 회원들이 합류하여 동문 모임의 단체에서 벗어나 실험적인 작품경향을 보였다. 청년미술 활동의 폭을 넓히고 지역 청년작가의 저변 확대, 동질성 회복으로 바람직한 단체활동의 모델이 되어 청년미술활동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각 개인의 예술활동을 지향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실현, 전개할 것을 표방했다. 실 내전시 외에도 여러 회원들이 야외현장미술 단체인 〈한국자연미술가협회-야투〉와 〈바깥미술회〉의 전시에 참여했. 정기전 외에도 2회의 기획전과 윤일암, 반일암과 공주 감사, 공암 등에서 가진 5회의 야외작업을 통해 회원 각자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였으나, 1997년 10월 대전중구문 화원에서 열린 10회전을 마지막으로 매너리즘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해체되었다. 『한국미술단체자료집 1945~19099』(김달진미술연구소, 2013), p. 194.



이순구, 《웃는 너-봄》, 2020~2021, 캔버스에 유채, 162.2×130.3cm, 작가 제공

있는 주인공들의 행복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² 웃는 얼굴 그림은 다양한 연령대의 인물, 배경, 다양한 인물그룹의 조화로 변화를 주지만 기본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인물들이 모두 삶의 매우 행복한 순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도, 형식적으로 간략화된 이목구비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점을 보고 나면 그것은 ‘바로 그 웃는 얼굴’로 인식된다. 또한 인물들이 처한 상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든 인물들이 정면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웃는 얼굴’이 관객에게 부여하는 감상방식은 열려 있다.³

그러나 사회적·문화적 관습에 도전적인 작가의 이력에 비추어볼 때, 이 웃음은 현실의 모순을 고발하는 해학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이순구의 《웃는 얼굴》

연작은 대중에게 쉽게 파고든다는 점에서 팝아트적인 성격을 띠지만, 사회 풍자화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작업과 연장선상에 있다.

“삶에서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에서 비롯된 《웃는 얼굴》 연작은 작가의 이러한 의도처럼 대중들이 쉽고, 편하게 받아들이는 특징 때문에 상품이나 공익광고에도 사용되었다. 2015년 출시된 대구은행의 통장 표지그림으로, 2016년에는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깃발로, 2016~2018년 광주에서 운행된 아트버스의 차량 전면을 장식하는 등 총 9종의 그림이 공공미술로 활용되었다. 이순구는 2022년 현재 26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서울현대미술제》, 《전환의 봄》 등 200여회의 국내 외 기획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2년부터 KIAF 등 다수의 아트페어에 초대되었다.

연보

- 1959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
- 1979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입학
- 1981~1990년 《야투자연미술연구회》(공주금강, 공산성, 대청호 외)
- 1982년 《권용호·이순구 2인 회화전》(부여, 고궁다실) 개최
- 1986~1996년 《터GROUP 전》(서울, 대전) / 《터 야외설치전》 4회(금산, 감사, 공암, 지량리)
- 1987년 《삶과 의식의 회화전》(울산, Amos미술관)
- 1988년 《충남 어제와 오늘전》(대전시민회관)

2 이지호, 「웃음, 삶의 리얼리즘」, 『이순구 개인전』(부산: 조이갤러리, 2014. 3).

3 이윤희, 「이순구의 '웃는얼굴'과 그 이후」

- 1988년 《현대미술의 장(場)》(서울, 도올 갤러리)
《정신·공간·물질·정신 4인전》(대전, 동아전시관)
《소멸-9인전》(청년미술관)
- 1988~1989년 《서울현대미술제》(서울, 미술회관)
- 1989년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독일, Hamburg대학 전시관)
- 1989~1990년 《충청청년작가전》(대전, 천안 시민회관) / Beaux-Arts비엔날레(프랑스, 그랑팔레)
- 1989~2000년 《구상전》(인도 뉴델리, 국립현대미술관)
- 1990년 《지역청년작가전-미술세계' 선정》(서울, 자하문미술관)
《1회 개인전-언어진행》(대전, 동아전시관) 개최
- 1991년 《90년대를 향한 오늘의 메시지전》(대전, 현대화랑)
《대전 트리엔날레》(대전시민회관) / 《새봄 91 전》(대전, 현대화랑)
- 1992년 《부산 청년비엔날레》(부산, 예술회관)
- 1993년 《대한민국 청년미술제》(인천, 문예회관)
- 1993~1997년 제2-4회 개인전 《관념의 정원》(서울, 제3갤러리 / 대전, 오원화랑 등) 개최
- 1994년 《제1회 공산미술제》(서울, 동아갤러리)
- 1995년 《대전·충남작가 초대전》(대전, 한림갤러리)
- 1995~2009년 《창형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 출품
가톨릭미술가협회 회원,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
- 1997~2009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 대전, 공간 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
《5회 개인전-K의 상실》(대전, 오원화랑)
- 2000~2001년 《한·일 현대미술 교류전》(대전시립미술관 / 일본)
- 2001년 《예술과 마을》(공주, 원골마을) 참가
- 2002년 《7회 개인전-이미지가 의미하는 것》(대전, HB갤러리)
- 2003년 《글과 그림전: 한국만화예술학회 창립기념 기획전》(공주대 미술관)
- 2004년 《세르비아 만화전》(유고세르비아, 불란서 문화원)
《제13회 대전 국제 만화전》(대전 시민회관 / 한성무역중시 / 서울, 코엑스)
『계간만화』 봄호에 카툰 발표 / 《향토작가초대전》(국립부여박물관)
- 2005년 《8회 개인전-카투니즘》(대전중구문화원)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
- 2008년 《11회 개인전-웃기 시작하는 회화》(대전, 갤러리 알트)
- 2008~2013년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재직
- 2010년 《장자크상페 국제만화특별전》(고양시, 아람누리 아람미술관)
- 2011~2014년 12, 13, 14회 개인전 《웃다》(대전, 쌍리갤러리 / 서울연극센터 / 서울, 갤러리WE)
- 2012년 《버스 안 미술관》(서울, 동아운수 213대 버스)
- 2012~2022년 15~27회 개인전 《웃음꽃》(부산, 조이갤러리 / 대전, 갤러리웃다 / 서울, 가나아트스페이스 / 서울, 올미아트스페이스)

이영배 (李永培, 1959~)



이영배, 〈석호리의 풍경〉, 1996, 캔버스에 유채, 90×116cm(출처: 『이영배 고향전』, 대전중구문화원, 1997)

1959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출생한 이영배는 20대 중반부터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¹ 목우회, 한국전업작가회, 대전사생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대전사생회 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1990년대 후반 두 번의 개인전을 열었는데, 1997년 대전중구문화원에서의 첫 개인전에서는 고향 풍경이 담긴 풍경화를 선보였다. 이 전시에서는 성실한 사생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릴 적 머물렀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화폭에 담았다. ‘고향’이

라는 주제로 대청호 주변의 호수·산·나무 등 익숙했던 자연환경이 수몰되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고향 마을 풍경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²

이후 대전 현대화랑에서 열렸던 두 번째 개인전에서는 2년 전 개인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화풍을 보여주었다. 자연을 주제로 삼아 작품세계를 펼쳤던 이영배는 이 전시부터 기하학적 대칭 구조로 분할된 화면 혹은 자유로운 원의 형상 속에 유년 시절 보고 느꼈던 심상을 표현하고자 했다.³ 그동안 그려왔던 구상회화가 아닌 추상과 구상이 혼재된 독특한 화풍의 회화로 작품 경향이 변화한 것이다. 바탕을 두터운 질감으로 표현해 색의 깊이를 구현했고 황토색 혹은 흰색이 주조를 이룬 투박하고 거친 화면을 구현했다. 화면에 고추와 숯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한옥 문살 사이로 빛이 비치는 장면을 주로 묘사했는데, 이는 아이가 탄생한 후 걸어놓은 시골집의 금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영배의 작품 경향이 변화한 것에 대해 화가 신현국(申鉉國, 1938~)은 다음과 같이 평했다. “형상보다는 바탕으로부터 힘이 우러나오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복잡했던 형상과 색채는 그 골격만을 남기고 화면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깊숙이 가라앉았다. 그 두텁고 투박하게 깊은 맛이 우러나는 바탕으로만으로도 회화적 완성도와 품격을 형성한다”라고 하며 이영배의 작품을 평가했다.⁴

1 「수박 농사 짓는 화가 이영배씨」, 『옥천신문』(2003. 7. 14).

2 『이영배 고향전』(대전중구문화원, 1997).

3 「2년만에 전혀다른 그림으로」, 『중도일보』(1999. 6. 8).

4 신현국, 「절실한 감정으로 태어난 사면적 회화성」, 『이영배전』(대전현대화랑, 1999).

이후 이영배는 민속문화에 관한 관심으로 토속적인 대상을 추상적 형상으로 화면에 구성하게 되었고 붓과 나이프 대신 막대기를 이용해 화폭을 두드리는 기법을 시도해 2000년대 초반부터 '난타화'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작업했다. 2~5mm 두께의 막대기로 '타작'의 개념을 응용해 오방색의 선들이 서로 어우러지며 독특한 느낌을 주는 새로운 창작 기법을 개발한 것이다. 전업 작가로 활동하며 민속, 민화, 토속신앙 등에 관심을 가진 이영배는 전통적인 요소를 회화에 접목한 다양한 화풍을 시도한 작가이다.



이영배, <옛이야기>, 1999, 캔버스에 혼합재료, 72.7×116.7cm(출처: 『한국전업미술가 대전·충남협회전』, 대전시립미술관, 1999)

연보

- 1959년 충청남도 논산 출생
- 1986~1997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 참여
- 1990년 《목우회전》(서울시립미술관)
《제21회 한국미술문화대상전》(서울시립미술관)에서 장려상 수상
- 1990~1993년 《대전시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에 참여
- 1996년 《아름다운 금강전》(대전, MBC문화공간)
《대전사생회 회원전》(대전시민회관)
- 1997년 《개인전》(대전중구문화원)
- 1998년 《한국미술협회전》(대전시민회관)
《한국전업미술가 대전·충남협회 창립전》(대전시립미술관)
《한발미술의 오늘전》(대전시민회관)
- 1999년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충북남부민예총 창립 초대전》(옥천, 관성회관)
《제2회 한국전업미술가 대전·충남협회전》(대전시립미술관)
- 2008년 《뒤돌아보기전》(대전, 에스닷갤러리)
- 2009년 《개인전》(대전, 현대갤러리)
- 2016년 《개인전》(대전교육미술관)

이응우(李應雨, 1959~)



이응우, <파르타푸르의 새싹>, 2009, 설치작품, 작가 제공

1959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한 이응우는 조선 호서산림 오현(五賢)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초려 이유태(李惟泰, 1607~1684)의 12대손으로 유교적 전통을 중시하는 가문에서 자랐다.¹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12년간 충남예술고등학교의 미술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연 미술활동을 지속해왔다.

자연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이는 1981년 공주 금강에서 자연미술이라는 새로운 예술장르를 연 ‘야투(野投)’를 결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작가는 ‘작가의 의식을 자연에 던진다.’는 의미로 시작한 자연미술그룹 야투를 지금까지 이끌고 있다. 이응우는 본격적으로 작품에 매진하기 위해 2014년 교직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14년부터 야투는 현장미술의 성격을 살려 ‘글로벌노마딕야투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였다.

2009년 인도의 파르타푸르에 설치한 작품 <파르타푸르의 새싹>에 대해 작가는 “나는 넓고 황량한 대지의 구릉 위에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힘차게 솟아나는 새싹의 이미지를 만들어 세움으로서 이곳 사람들의 미래를 축원하고 싶었다. 그리고 재료는 대나무를 쓰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곳 사람들이 영아(嬰兒)의 요람으로 대바구니를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즉 육아를 위한 바구니의 재료로 그들의 미래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나의 작품을 통해 메마른 대지를 뚫고 힘차게 자라나는 새싹의 이미지와 요람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기의 이미지가 만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²

이응우는 예술의 본질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연미술은 빈손으로 들로 나아가 현장에서 재료를 선정한 후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작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자연과 일치가 되는 시간이 필요해 대개 3~4일 정도 캠핑생활을 하며 자연의 문맥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¹ 이유태의 본관은 경주, 자는 태지,, 호는 초려이다. 김장생 김집 부자를 사사해 그 문하의 송시열 송준길 윤선거 유예 등과 더불어 호서산림 오현으로 꼽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5439>

²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 홈페이지. http://www.natureartbiennale.org/en/bbs/board.php?bo_table=exhibition&wr_id=859

고 하였다.³

이응우가 새로 선보인 바늘작업은 ‘바늘’의 단순성과 상징적 힘 때문에 2006년 이후 여러 곳에서 반복 설치하였다. ‘바늘’은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로 여러 의미를 지닌 도구인데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바늘은 인간에 의해 훼손된 자연을 치유하고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과 자연, 또는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상징물로 차용된 것이다.⁴ 작가는 야투의 창단부터 참여하여 약 40여 년 자연미술연구가로서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데 전념하였다. 특히 이응우는 공주에서 진행되는 자연미술운동을 ‘야투’와 함께 진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2014~2018년에는 총감독으로 글로벌노마딕아트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미술가들과 여전히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응우, 〈A leaf Korea〉, 2020, 자연현장작업, 작가 제공

연 보

- 1959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81년 야투 창립에 참여
- 1983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 1989년 《한국 야투 안으로부터 밖으로, 밖으로부터 안으로》(독일 함부르크)
- 1994년 《이응우 자연미술 14년 검증전》(서산, 서인사랑)
《자연과 회화의 사잇길》(공주문예회관 / 천안, 아라리오 화랑)
《자연 속의 인간 전》(공주문예회관)
《이응우 자연미술전》(일본 사무가와)
- 1995년 공주대학교 대학원 졸업
- 2002~2014년 충청남도 예술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
- 2005년 《바뀌쓰고 다시보기》(안성,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 2008년 《제6회 개인전 - 치유를 위한 바늘》(안성,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 2011년 《제7회 개인전 - 함께 가는 길》(공주, 금강자연미술센터)

3 「무엇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가?」, 『e-금강뉴스』(2016. 10. 18).

4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홈페이지. http://www.sonahmoo.com/index.php?page=4&document_srl=353550&mid=exhibition1&listStyle=webzine

- 2011~2021년 야투 자연미술 워크숍에 참가
- 2014년 글로벌노마딕아트프로젝트(한국 공주, 금강자연미술센터)
- 2015년 글로벌노마딕아트프로젝트(인도 구자라트 전역)
- 2016년 글로벌노마딕아트프로젝트(남아프리카, 이란, 한국)
- 2017년 글로벌노마딕아트프로젝트(프랑스, 독일, 터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 2018년 글로벌노마딕아트프로젝트(영국)
- 2019년 《공주문화원 향토작가초대전-이용우 자연미술유목전》(공주문화원)
- 2020년 《2020글로벌노마딕아트프로젝트성과보고전》(공주, 금강자연미술센터)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신석기 시대-또 다른 조우》(공주, 연미산자연미술공원, 금강자연미술센터)
 《불의 숨길 아트프로젝트》(제주 전역)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 회장
- 2021년 《우포 생태미술마을 프로젝트 자연미술제》(창원, 우포 생태미술마을)
- 2022년 《통영크레이티브 트리엔날레》(통영, 세자트리숲)

이장원 (李長遠, 1959~)

호(號)는 벽암(碧巖), 성암(誠菴). 1959년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광암리에서 태어난 이장원은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고 최근까지 총 16회의 개인전과 500여회의 단체전을 가졌다. 또한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와 회화과, 건양대학교 회화과,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과 등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썼다.

이장원의 작품은 청양의 산골에서 나고 자란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자연 풍경을 주요 소재로 한다. 더불어 먹의 농담 처리, 여백의 강조, 정교한 필법, 옅은 채색 등의 독자적 화법을 통해 생동하는 자연의 멋이 이장원의 작품에는 그대로 드러나 있다.¹ 아름다운 실경에 주목한 작가는 <계룡의 자연성룡>, <소나무와 대청호>와 같이 충남 지역을 비롯하여 <설악비선계곡>과 같이 국내 명소를 주 소재로 채택하여 담담하게 표현한다. 특히 먹물을 번지어 퍼지게 표현하는 산수화법 ‘발묵(潑墨)’과 일필휘지의 조합이 화면에 긴장감을 주기도 한다.

이장원은 대한민국미술대전, 금강미술대전, 대한민국한국화대전, 전국무등미술대전, 대한민국정수미술대전, 나혜석미술대전 등 다수의 미술대회에서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청림회, 대전한국화회, 표현회, 대전기독미술인회, 대전국제미술교류회, 호연지기회 회원으로 참여하며 작품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장원, <계룡의 자연성룡>, 2004, 수묵담채, 133×160cm, 작가 제공



이장원, <소나무와 대청호>, 2015, 수묵담채, 76×106cm, 작가 제공



이장원, <설악비선계곡>, 2022, 수묵담채, 133×160cm, 작가 제공

¹ 「이장원 개인전, 발묵으로 풀어낸 우리의 산하」, 『충청데일리』(2019. 11. 10).

연보

- 1959년 충청남도 청양 출생
- 1987년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 1988년 《이장원 개인전》(대전, 쌍인미술관)
- 1991년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한국화 전공) 졸업
- 1991~2013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회화과 겸임 교수 역임
- 1993년 《개인전》(대전, MBC문화공간)
- 1997년 《화랑미술제》(대전, 5개 화랑)
- 1997~2002년 건양대학교 회화과(한국화) 출강
- 1998년 《개인전》(대전, 오원화랑)
1998 《한국 100인의 자연전》(서울, 운현궁미술관)
- 2001년 《개인전》(대전, 롯데갤러리)
- 2001~2002년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 출강
- 2002년 《개인전》(서울, 단성갤러리)
《화랑미술제》(서울, 예술의전당)
- 2004년 《개인전》(서울, 단성갤러리)
- 2007년 《개인전》(대전, 롯데갤러리)
《안전회화정신전》(서산문화회관)
- 2008년 대전교육연수원 출강
- 2010년 《대전시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역임
- 2011년 《2010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기념전》(대전시립미술관)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2012년 대전광역시장 표창장 수상
- 2014년 《개인전》(대전, 현대갤러리)
《개인전》(대전무역전시관 DIAS)
- 2015년 《노닐다-한국의폭포展》(대전무역전시관 DIAS)
- 2017년 《개인전》(대전예술가의집)
- 2019년 대전서구문화원 이사 역임
- 2021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역임
《대한민국정수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역임

이진자(李鎭子,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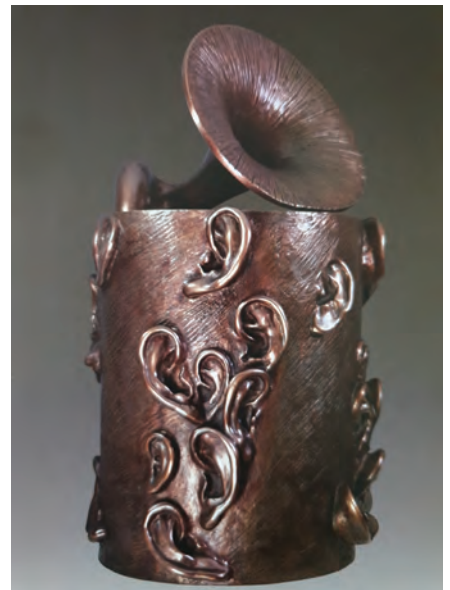
1959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출생한 이진자는 목원대학교 미술대학에 진학해 당시 여성 조각가 1호였던 윤영자(尹英子, 1924~2016) 교수와 자생조각가 강관욱(姜寬旭, 1945~)에게 석조각 지도를 받았으며 1981년 대학을 졸업한 후 예산 대흥 중·고등학교에서 10여년간 미술 교사로 재직하였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외래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양성에 힘썼다.

교직에 있으면서도 꾸준히 작품 제작에 매진하여 전시에 참여하였고, 1991년 학교를 떠나 전업 작가의 길에 들어선 이진자는 더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쳐 1999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조각 부문에서 〈상생2000년〉으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3년 한국전쟁 50주년을 기념해 한국전쟁 참전 16개국의 미술작가를 상대로 한 기념 조형물 공모전(미국 텍사스주 킬린시)에서 이진자의 〈유엔참전기념비〉가 선정되어 킬린시 공원에 제작 설치되었다. 이듬해에는 예당호 조각공원 조성 기획에 참여하였으며 〈탄생, 화합으로〉를 제작 설치하였다.

이진자는 현대조각이 추구하는 새로운 양식에 반대하며 추상과 구상을 떠나 각각의 형식에 내재된 조형으로서의 진정성을 담아 작품을 통해 조형예술 본질에 대한 질문을 풀어내고 있다고 평가된다.¹ 2004년 첫 개인전에서 작가는 완만한 곡선과 풍부한 양감, 외부공간과 격리되지 않는 공간성에서 자신만의 미적 조형성을 충실하게 드러냈다. 정겨운 가족의 모습을 담은 〈삶의 향기〉, 인체를 단순화시켜 추·구상의 경계를 넘어 은유



이진자, 〈공존의 이유〉, 2004, 대리석, 40×20×86cm, 작가 제공



이진자, 〈경청으로 소통하는 세상〉, 2009, 브론즈, 64×64×106cm, 작가 제공

¹ 이지완, 「이진자 개인전, 빛과 소리의 찬가」, 『서울문화투데이』(2022. 1. 26).



《이진자 초대조각전: 빛과 소리의 찬가》(서울 라메르갤러리, 2022) 전시장 광경

적인 표현이 강조된 〈애수〉와 〈휴식〉, 사색의 고독과 아름다움을 통해 삶의 풍요를 보여주는 〈공존의 이유〉를 접할 수 있었다.²

작가는 획기적인 재료들을 선정 조합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의 확립에 집착하고 있는 현대조각계의 시류를 따르는 대신 자신이 오랜 시간 추구해 온 자신만의 정체성을 오히려 담아내고 있다.³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미술평론가 제라드 슈리게라(Gérard Xuriguera, 1936~)는 작가에 대해 “초기부터 변모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본질적인 성장에 집착하며 추상적 관념 호소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관계를 세계에 말하기 위해 서술의 길을 취하지 않았다. 완전한 성숙에 도달하고 거대하거나 내면

적이며 강대하거나 상징적인 그녀의 작품은 삶을 모든 면에서 찬미하는 자유를 향한 찬가이다.”라고 평하였다.⁴

2022년 봄 《개인전》에서 선보인 〈빛의 외침〉은 태양의 신 아폴로를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가는 “아폴로 신이 인간에서 준 빛을 보는 매개체가 소리이며 그것이 바로 빛의 외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가을 《빛과 소리의 찬가》 전시에서 조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빛과 소리를 형상화하기 위해 시도한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작가는 무희의 동작 속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다양한 색의 비즈로 표현하는 《무희(L'Almée)》 연작을 새롭게 선보였다.

작가는 2016년 사단법인 내포문화조각가 협회를 창립하였으며, 대전과 세종을 포함 충청남도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함께 고감도 조형작품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고향 예산에 ‘더 뮤지엄 아트진’을 개관하여 문화교류의 공간이 부족했던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와 작업,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⁵

연보

- 1959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출생
- 1981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조소 전공) 졸업

2 홍경환, 「형상조각의 습속을 넘는 진정성으로서의 조각」, 『이진자 개인전』(인사갤러리, 2004).

3 김구영, 『이진자 : 빛과 소리의 찬가, 추사향 콜라보』(더뮤지엄아트진, 2022).

4 제라드 슈리게라, 「이진자의 작품은 삶을 모든 면에서 찬미하는 자유를 향한 찬가이다」, 『이진자』(파리 89갤러리, 2016). Gérard Xuriguera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생의 프랑스의 미술비평가이다.

5 지역문화 예술 발전과 후진양성에 큰 이정표를 세운 조형 예술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높이 여겨 2021년 시사투데이 주최 대한민국 사회공헌, 문화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 1981~1991년 대홍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1급 정교사)
- 1982~2004년 《한국구상조각회 전》(서울, 미술회관 / 세종미술회관 등) 출품
- 1987~2022년 《한국미술협회전》 지속적으로 출품
- 1991년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 《안전미술제》(서산문화회관)에서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수상
- 1999년 《충청남도 미술대전》 조각부문에서 <상생 2000>으로 대상
- 1999~2001년 (사)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장 역임
- 2000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미술교육 전공) 졸업
- 2001년 (사) 한국미술협회 전국지부장, 임원회의(덕산온천) 개최
충청남도 문화예술상 수상 (충남도지사)
- 2001~2009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외래교수로 재직
- 2003년 한국전쟁 50주년 기념 조형물 공모에서 <유엔참전기념비> 선정. 미국 텍사스주 킬린시 공원에 제작 설치
- 2004년 예당호 조각공원 <탄생, 화합으로> 제작 설치 및 기획 추진
《이진자 개인전》(서울, 인사갤러리)
제13대 예산문화원장 취임,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
- 2005년 태안군청 조각공원 추진 및 초대작가
추사 김정희 추모 전국 휘호대회 대회장 역임
- 2006~2007년 《찾아가는 미술관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 2007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조각부문 심사위원
《미술인의 날 기념 특별 초대전》(서울, 공평아트센터)
- 2008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특별전 : 여성, 오늘 전》(고양시)
- 2009년 《이진자 개인전: 경청으로 소통하는 세상》(서울, 하나로 갤러리 / 예산, 문예회관)
- 2012~2016년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예산지회장 역임
- 2012~2019년 행안부 국가기록원(문화부문) 민간기록조사위원
- 2013년 <충남경찰의혼>(충남지방경찰청) 제작 설치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 (한국미술협회)
- 2014년 《한국, 일본 지역미술관 연계 교류전: 협업의 묘미》(서울, 영은미술관) 출품
- 2016년 《특별초대전 : ABSTRACTIONS》(프랑스, 파리89갤러리) 개최
- 2016~현재 사단법인 내포문화조각가협회 회장, 《내포문화조각가협회전》 개최
- 2018년 한국미술협회 미술인의 날 기념 대한민국 미술문화공로상 수상
《(사)내포문화조각가협회 빛나는 충청의 얼 전》(천안시청) 출품
《(사)한국미술협회 충남도지회 충남도서관 개관 기념 특별초대전》(충남도서관) 출품
- 2020년 《더뮤지엄아트진 개관 기념 특별전》(예산, 더뮤지엄아트진) 출품
《충남미술의 맥을 잇다 전》(천안, 리각미술관) 출품
- 2021년 《충남조형작품전: 추사묵향 따라 내포까지》(예산, 문예회관)
(사)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문화예술교류 협력위원회) 위촉
- 2022년 《이진자 개인전 : 빛과 소리의 찬가, 추사향 콜라보》(예산, 더뮤지엄아트진) 개최
《이진자 초대전: 빛과 소리의 찬가》(서울, 라메르갤러리) 개최
(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공로상 수상

이창민 (李彰民, 1959~)



이창민, 〈그랭이 캔들〉, 2015, 《제45회 충청남도공예품대전》 특선 작품, 작가 제공

1959년 대전에서 출생한 이창민은 대전 한밭중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 돌연 청자 연구를 위해 교직을 그만두고 대전 계산동에 계산요를 설립한 아버지 이익용(1923~2011)의 영향으로 도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버지 밑에서 5년간 수련기를 마치고 두성도자기 교습소를 운영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자기 강습 등을 하였으나 보다 체계적, 전문적으로 도예를 배우기 위해 뒤늦게 충남대학교 산업미술학과에 진학했으며 1996년 대

학원에서 산업미술을 전공하였다. 작가는 학업과 함께 도예공방인 민토방을 운영하였다.

작가는 대학원 졸업 작품으로 전통 소성방법 중 가마와 흙과 불이 가장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한 ‘꺼먹이 소성법’으로 225cm길이의 큰 벽화를 제작하였다.¹ 작품 《꺼먹이 96》 연작은 마치 남해 다랭이 논처럼 리드미컬하게 구획된 공간도자벽화로 비정형화된 표면 속에서 규칙성과 부분적으로 검고 갈라진 거친 표면에서 작가의 독창성이 돋보인다. 1998년 전시에서 선보인 《토어(土魚)》 연작은 흙으로 빚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물고기를 오브제로 가변 설치하는 작품으로 변화를 주었다.

2004년 《개인전-분청사기와 식물의 만남》에서는 직접 구운 분청사기를 화분으로 활용해 그 안에 작은 식물들을 심어 전시하였다. 전시에 선보인 분청사기들은 빳빳다는 느낌보다는 돌을 쪼아서 만든 듯 거친 질감을 살렸다.

2005년 조선 다완의 거장 천한봉과 함께 이숙인 도예가를 위해 망댕이 장작가마 축조에 참여한 이창민은 2008년 자신의 작업장에도 망댕이 장작가마를 축조하여 작업을 하였다.² 작가는 망댕이 가마에서 도자작품을 제작하면서 익힌 지식을 기반으로 온돌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과 문화재기능인(온돌공) 자격을 취득하였다.

1 이창민, 「'꺼먹이' 소성법을 이용한 실내도자벽장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꺼먹이 소성법은 도자기에 강제로 연기를 먹여서 까맣게 변하게 하는 방법이다. 장작을 원료로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원하는 온도까지 소성온도가 상승한 마지막에 생 솔가지 등 탄소 성분이 많은 연료를 아궁이에 넣고 급히 굴뚝과 아궁이를 막으면 연료가 불완전 연수되면서 그을음이 발생한다. 이 그을음이 기물의 미세한 기공에 스며들어 그릇이 짙은 회색이나 검정색이 된다.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양 3국에서만 발달한 기법이다. 오주연, 「꺼먹이기법에 의한 기의 추상적 표현연구」(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 망댕이는 문경의 점토와 산청의 산청토를 배합해 가마지붕을 아치형으로 만들기 위해 원기둥 모양으로 만든 일종의 벽돌이다. 망댕이가마는 망댕이와 흙으로 짓는 것으로 1500°C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문경지역의 전통가마방식이다. 『매일신문』(2005. 12. 8).

이창민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2015년 개최된 《제45회 충청남도공예품대전》에서 전통 건축에서 측량도구로 사용하는 그랭이를 새롭게 해석한 〈그랭이 캔들〉로 특선을 수상하였으며, 같은 해 《보문미술대전》 공예부문에서 수행을 게을리 하는 제자가 잉어가 되어 수행을 계속하기 위해 서원을 세우고 그 위에 향로를 얹은 〈도어향로〉를 제작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전통가마를 활용한 제작기법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인 이창민은 도자와 수목화를 결합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연 보

- 1959년 대전 출생
- 1976~1980년 대전 계산동 소재 계산요에서 숙련
- 1983~1988년 두성도자기 교습소를 개업
- 1989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산업미술학과 입학
- 1989~2007년 민토방 운영
- 1996년 《이창민 작품전-꺼먹이 도자 벽화전》(대전, 흥인화랑)
- 1997년 충남대학교 대학원(도예전공) 졸업
- 1997~2000년 충남대학교, 중부대학교, 울산대학교 강사
- 1998년 《Interact with each other by color, color, color》(뉴저지, 소호갤러리)
- 2001년 《이창민 사발전》(대전, 이공갤러리) / 왕실도예가회 주최 《사발공모전》에서 입선
- 2002년 《제14회 대전시미술대전》 공예 부문에서 특선
- 2003년 《민토방작업장전》(대전 유성, 민토방)
- 2004년 《분청사기와 식물의 만남전》(대전유성문화원)
《류수민, 이창민, 복종순, 이재우 4인전》(대전, 우연갤러리)
- 2005~2007년 대전도예가회 회장 역임
- 2006년 《여섯개의 아뜰리에전》(대전시립미술관)
《박우진·윤정훈·이창민 철화분청사기전》(대전유성문화원)
- 2008~2017년 夷·希·微·休佳+라워 공방 운영
- 2013년 《대전도예가회전》(대전서구문화원) / 《2013 동북아도자전》(공주, 아트센터고마)
《제1회 대한민국 온궁미술대전》 특별상
《제15회 대한민국 안전미술대전》 특선 / 《제15회 보문미술대전》(대전중구문화원) 최우수상
- 2014년 《MOVE전》(대전, 롯데화랑) / 《제16회 보문미술대전》(대전중구문화원) 특선
《제16회 충남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 〈도어 향로〉 특선
- 2014~2015년 충남지방기능경기대회 도자기공예에서 연속 은상
- 2014~2017년 문화재기능인(온돌공) 자격 취득
- 2015년 《제45회 충청남도공예품대전》에서 〈그랭이 캔들〉 특선
《제17회 보문미술대전》(대전중구문화원) 공예 부문에서 〈도어향로〉로 대상
- 2016년 특허 제10-1689232호 취득(구들장을 이용한 이동식 온돌시스템)
보문미술대전 초대작가 지정

이헌구(李憲九, 1959~)



이헌구, 〈고궁담가의 개나리〉, 1993, 캔버스에 유채, 80.3×116.7cm(출처: 『李憲九作品展』, 서울, 백송갤러리)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난 이헌구는 1978년 충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 충북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 대학교를 입학하던 해인 1978년 대전문화원에서 오윤균과 2인전을 열었을 정도로 일찍부터 전시를 열었던 이헌구는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82년 대전 공간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그리고 이해 전라북도 장수군에 있는 계남중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해 1988년까지 장수군에서 지내다가 1989년 서

울 중앙중·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겨 2014년까지 근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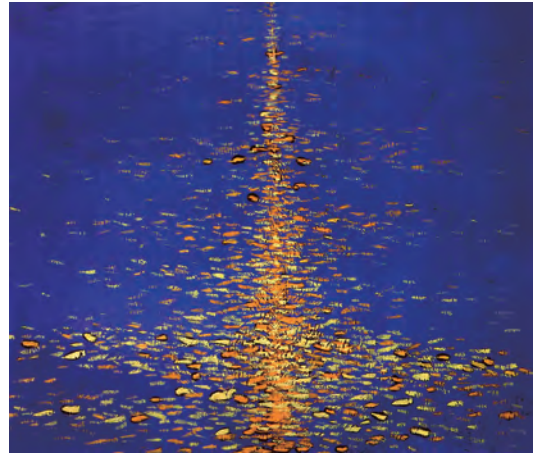
서울로 근무지를 옮긴 이헌구는 1993년 백송갤러리에서 네 번째 개인전을 마친 후 집 옆에 3평짜리 작업실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1996년 학생들과 수련원을 간 사이 작업실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한동안 방황을 하던 작가는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그림 그리듯 시를 쓰기 시작해 황금찬 시인의 추천으로 등단했다. 1997년, IMF로 화실의 건물주가 부도를 맞으면서 화실도 경매로 넘어가 작품을 뿔뿔이 흩어 놓을 수밖에 없었다. 작품들이 분산되면서 술에 의지하며 배회했으나 1999년 막내아들이 태어나고, 2001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입학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¹

2003년 대학원을 졸업한 후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고 10년만에 《5회 개인전》을 열고, 십년간의 흔적을 글과 그림으로 담은 『화시집: 꿈꾸듯 꿈과 같이』를 출간했다. 2001년 러시아 바이칼, 2005년은 중국 운남성 일대의 스케치 여행을 갔다오는 등 화업에 정진하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개인전을 열었고, 2014년까지 총 9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서양화가 정대영은 이헌구의 작품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크게 세 단계로 구분했다. 첫 번째 시기인 대학교 졸업 직후인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까지의 작품은 대상의 해석에 있어 공간과 색채에 대한 작가의 주관성이 보이지만 대상을 관찰하여 표현한, 자연주의적인 화풍을 견지한 시기로 보았다. 이 시기의 이헌구의 작품에는 감성적 필치와 주관적 색채가 엿보인다. 두 번째 시기인 2000년대의 회화 작품들은 여전히 대상을 전제로 하지만, 대상을 극도로 단순화시

¹ 이헌구, 「회상하며…」, 『이헌구 畫詩集: 꿈꾸듯 꿈과 같이』(詩文閣, 2003) 참고

키며, 색채 사용에도 작가의 주관적 해석이 두드러진다. 대상을 전제하지만 대상을 관찰하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주관에 의해 화면이 지배받는 추상화의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세 번째 시기 작품들은 단색조의 균일한 색채로 이루어진 배경과 단색계열의 붓 터치들에 의한 비대상적 형상들로 구성된다. 이 시기의 작품은 매우 절제된 색채와 비재현적 형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짙은 울트라마린 계열의 색채로 균일하게 바탕을 채색하고, 그 위에 크기가 비슷한 노란색 계열의 작은 붓 터치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평면성이 강조되고, 일종의 기호 같은 형상 이외에는 어떠한 메시지나 제시도 없다는 점에서 모더니즘 미술의 형태를 띠고 있다.²



이현구, 〈무제〉, 2014, 캔버스에 유채, 45.5×53cm(출처: 『이현구전』, space 선+, 2014)

이현구의 회화는 매우 시적이다.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며 그린 필치와 의도적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는 필치들의 집합에 의해 형성된 형상들은 대상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그림은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될 수 없는 느낌의 시각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는 치열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그렇게 제작한 결과물이 관람자에게 작가의 즐거운 몸짓이 그대로 전달되어 작품을 대면할 때마다 언제나 행복을 느낄 수 있길 원한다.”³ 고 했듯이 2014년 개인전에서 선보인 푸른색 바탕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기호적 형상들은 작가 이현구가 주변에서 상시적으로 느끼고 누리는 자연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일련의 기호와도 같은 형상들은 반복적으로 행해진 삶의 패턴에 관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록이다. 즉 켜켜이 쌓여 퇴적된 시간과 삶의 흔적들을 절제된 방식으로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현구는 2012년 평화예술제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했으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미술협회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하면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연보

- 1959년 충청남도 예산 출생
- 1978년 충남고등학교 졸업
《오윤균과 2인전》(대전문화원)
- 1982년 충북대학교 미술교육과(서양화 전공) 졸업

2 정대영, 「삶에 대한 시적 표현으로서의 회화」, 『이현구전』(space 선+, 2014).

3 이현구, 『이현구전』(space 선+, 2014).

- 1982년 《1회 개인전》(대전, 공간화랑)
- 1982~1988년 계남중학교, 번암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86년 《2회 개인전》(대전, 신신화랑)
- 1987년 《충남작가 초대전》(서울, 경인미술관)
- 1987~1992년 《아름다운 금강전》 출판
- 1988년 《3회 개인전》(전주, 전북예술회관)
- 1989~1992년 《한국청년구상작가회전》(서울시립미술관)
- 1989~2014년 서울 중앙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93년 《4회 개인전》(서울, 백송갤러리)
- 1995년 《청운미전》(서울, 운현궁미술관)
- 2001년 러시아 바이칼 일대 스케치 여행
- 2003년 《5회 개인전》(서울, 모로갤러리)
『화시집: 꿈꾸듯 꿈과같이』(詩文閣)발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우정의 만남전》(대전문화원)
- 2005년 중국 운남성 일대 스케치 여행
- 2005~2008년 배재대학교 미술학부 출강
- 2007년 《6회 개인전》(중국, 섬서성미술관)
- 2008년 《7회 개인전》(서울, 갤러리 영)
- 2010년 《8회 개인전》(서울, 메트로미술관)
- 2012년 평화예술제 국회의장상 수상
- 2014년 《9회 개인전》(서울, 아트스페이스 선)
- 2014~2020년 한국미술협회 이사로 선임
- 2015~2020년 《아시안웨이 회원전》 / 《한·중·러 교류전》
- 2016~2019년 《대전국제 아트페어》 초대 출판
- 2017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 2018년 《대전예술제 출향작가초대전》
- 2020년 《평화예술제 임원 초대작가전》

임의수 (林義洙, 1959~)

1959년 대전에서 태어난 임의수는 1983년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전북 남원 아영중학교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와 충청남도에서 35년간 미술교사로 근무했다. 교직생활을 시작한 이듬해인 1987년 《전북중등교원미전》에 출품한 작품이 문제가 되어 경찰에게 작품을 압수당하고 조사를 받았다. 이때 순수미술만을 그리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받은 뒤 그 충격으로 20여 년 동안 작품 활동을 접었다.



임의수, 〈전남 화순 만연사〉, 2018, 종이에 펜, 41×50cm, 개인소장

1997년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논산지회 주최 답사를 주도해 2017년까지 30회 실시했다. 이렇게 답사 모임을 진행해오던 중 답사자료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였다. 매년 답사 때마다 문화재나 경관이 빼어난 풍경을 보면 그리고 싶은 욕구가 솟구쳤던 임의수는 2010년경부터 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펜 하나만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고도로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지만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기도 했다.¹ 자의 반 타의 반 그만두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며 임의수는 동료 교사의 소개로 10년 넘게 펜화만을 그려온 김영택 화백의 작품을 인터넷으로 접하고 영향을 받았다. 교직을 그만두는 날까지 우리 문화재와 우리 자연을 100점 제작해 전시회를 열겠다는 목표로 수업이 비는 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그린 작품으로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2015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충남교육소식지』에 「충청지역 문화재 펜화」를 연재하는 등 교육지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작품을 공유하고 있다. 퇴직한 후에는 우리 문화와 문화재 강연을 하며, 민족미술협회 회원으로 펜화를 그리고 있다.

임의수는 오래 된 고찰과 성당, 장승 등을 펜으로 그리며 그것들이 지닌 역사와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 기존의 시각과 관점으로는 포획되지 않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의 작품은 한국적인 정서와 감성이 배어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1 임의수, 「답사지에서 만난 우리 풍경들」, 『임의수 작품전-답사지에서 만난 우리 풍경들』(2016), p. 3.

들의 간절한 욕구와 소망이 바다에 깔려 있다.² 이러한 감성은 펜으로 무수히 많은 선을 반복적으로 그으며 탄생된다. 성실함과 인내가 요구되는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임의수는 사물의 주름 속에 깃든 상처와 아픔을 보듬고 달래며 대상과 자신을 일치시켜 재구성하고 새롭게 창조해나가고 있다.³

연보

- 1959년 대전 출생
- 1983년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83~2018년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서 교사 생활
- 1997~2017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논산지회 주최 전국 역사문화 유적지 답사 30회 실시
- 2001~2002년 일본 구마모토현 교원조합과 전교조 충남지부 교류사업 전개
- 2001~200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참교육실천위원장(전임)
- 2003년 북한유적지 답사-평양, 개성 방문
- 2009~201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본부 전임 근무
- 2011년 《충남민족미술 17년展》(계룡, 문화예술의전당)
- 2012년 《제10회 충남민족미술전-삶의 조각 거울이 되어》(계룡, 문화예술의전당)
- 2013년 《임의수 작품전: 펜화로 피어나는 우리풍경, 우리 문화재》(대전, 관저문예회관)
 《제12회 충남민족미술인협회 정기전: 김구 마곡사를 거닐다》(공주, 마곡사)
 《아시아 그리고 쌀展》(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2013~2016년 《충남 중등 교원미전》출품
- 2014년 《충북 인문자연 진경전》(청주, 예술의전당)
 《충남민족미술협회 20주년 기념전: 미술 문학관을 거닐다》(부여, 신동엽문학관)
- 2015년 《제15회 충남민족미술인협회 정기전》(부여, 신동엽문학관)
- 2016년 《임의수 작품전: 답사지에서 만난 우리 풍경들》(홍성, 충청남도교육청 / 대전, 관저문예회관)
 / 《제16회 충남민족미술인협회 정기전》(서산, 별천포해수욕장)
- 2017년 《제17회 충남민족미술인협회 정기전》(서산, 별천포해수욕장)
- 2018년 《한국교직원미술대전 : 그날의 기억》(서울, 예술의전당)
 《임의수 작품전: 퇴임기념, 펜화로 만나는 우리 풍경》(대전, 관저문예회관)
 《임의수 작품전: 특별전-술밭 길 너머》(부여, 신동엽문학관)
- 2019년 《詩·書·畵는 한몸展》(대전, 미룸갤러리)
- 2020년 《임의수 펜화 초대전: 느리게 걷는 당진과 내포 풍경》(당진, 풀빛갤러리)
- 2021년 《임의수 펜화 초대전: 수덕사-펜화로 만나는 풍경》(예산, 수덕사 선미술관)
 《부여민족예술제 작품전 :신동엽과 금강》(부여, 신동엽문학관)

2 김창태, 「벼랑 끝에 서있는 소나무처럼-임의수선생님의 세 번째 작품전을 축하하면서」, 『임의수 작품전: 퇴임기념-펜으로 만나는 우리 풍경』(2018), p. 1.

3 황재학, 「사물의 주름에서 소요하다」, 『임의수 작품전-펜화로 피어나는 우리 풍경, 우리 문화재』(2013), p. 2.

전형주(全炯柱, 1959~)

충청남도 금산에서 태어난 전형주는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미술학과에서 서양화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학교 재학 시절 단체전에 참여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한 전형주는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전》, 《대전시미술대전》 등 각종 단체전과 기획전, 초대전에 500여회 참여했다. 또한 1984년 대전 신신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래 2022년까지 20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전형주, 〈...〉(063), 1995, 캔버스에 유채, 72.7×90.9cm, 작가 제공

대부분의 평자들은 전형주 작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 세필을 꼽는다. 전형주가 그동안 그려 온 대상들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세필 기법은 40여년 간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전형주의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대상은 여인의 모습과 수족관 풍경, 그리고 들판위의 나무, 붉은 석탑 등으로, 작품의 대상들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인다.

먼저 1980년대 작품을 보면 들판이나 실내 공간속에 여인의 모습이 등장한다. 의자에 기대거나 앉아있는 여인들의 다소 경직된 포즈와 견고한 형태는 현실 속 공간임에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로인해 그림 속 여성은 일상의 여성이라기보다는 신성화된 느낌이다.¹ 같은 시기 그린 정물화나 풍경화에서도 보이는 이러한 특징은 실제의 표현보다는 작가가 내면세계를 담는데 주력하기 때문이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여러 차례의 개인전을 열며 전형주는 자신의 색채가 더욱 뚜렷한 작품 세계를 선보였다. 1990년대 초반 발표한 《수족관》 연작에는 이끼가 덮인 돌 사이로 여유롭게 유평하는 열대어와 수초의 모습이 그려있는데, 어항 속 모습이라기보다는 작은 풍경화처럼 보인다. 어항 속의 풍경을 통해 꿈과 현실세계 사이의 판타지를 전달하는 《수족관》 연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풍경의 ‘침묵’으로 이어진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시작한 《사의적 정원》 연작은 문자 그대로 개인의 생각이나 뜻을 담은 정원을 그린 작품들이다. 사의적 정원의 초기작에서는 나무들만 나란히 서있는 구도를 이루며 배경은 단순하게 처리되었으나 차츰 탑이 등장하고 달도 뜬다. 화면에는 정제된 바

1 이순규, 「전형주: 신성(神性)의 정원-Garden of the Divinity」, 『전형주』(이공갤러리, 2012), pp.



전형주, 〈사의적 정원〉, 2005, 캔버스에 유채, 112.1 × 45.5cm, 작가 제공

닥에 심어진 나무들과 붉은 진흙으로 구운 것 같은 테라코타 색채의 탑이 위치한다. 탑을 그린 작품들은 대부분 대작들이다. 큰 화면에 그려진 주황색 탑과 그 위에 묘사된 초록색 이끼, 잘 다듬어진 잔디가 보색대비를 이루고, 석탑 주변에 배열된 추상적 형태의 나무가 현실공간에서 상징적 공간으로 유도한다. 탑의 형태는 백제탑 양식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짙은 이끼가 덮이고, 그 이끼에 비해 생생한 탑의 표면에서 이국적인 느낌과 함께 오랜 역사를 떠올리게 된다.

“풍경을 그린 작가는 많지만 그 풍경 속에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작가는 흔치 않다.”는 서양화가 서용인의 말처럼 전형주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풍경을 사의적

의미로 가득하게 만든다.² 여기에는 시원한 수평구도로 이루어진 배경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웅장하게 정면을 향한 탑과 나무는 엄숙한 느낌을 주며 보는 이에게 심미적 환상을 심어준다. 관객의 관념이 개입하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의도된 구성은 숭고한 감정을 불러들인다. 전형주 작품을 ‘심상의 정원’이라 부르는 것은 무엇보다 긴 시간을 통해 작은 세필의 오랜 흔적의 집적으로 쌓아 가꾼 정원이기 때문이다. 침묵의 세계로 읽혀지는 노동집약적 정원은 개인사에서 출발하지만, 엄청난 밀도로 이루어진 화면은 보는 이를 단번에 압도한다. 이 압도감은 작가의 작품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이전에 행해진 수많은 붓질의 결과이자 완벽하게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세계, 요란한 소음들로 가득한 일상적 감각 세계와 다른 세계에 대한 낯설음 때문이다.³

전형주는 1998년 제14회 전국무등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비롯해, 제2회 한독미협공모전 최우수상, 2020년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지회 미술예술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과 대전시미술대전, 목우회 공모미술대전 등 여러 미술공모전의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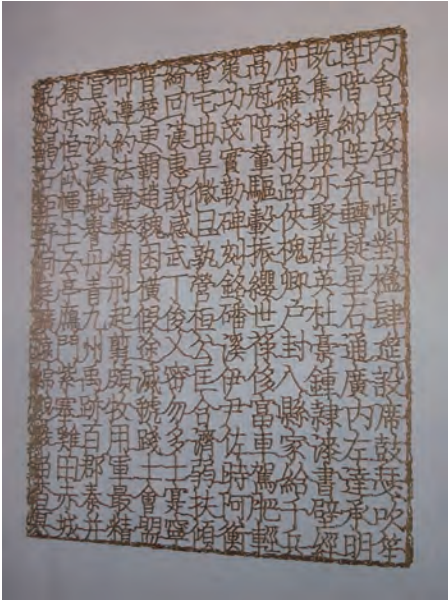
- 1959년 충청남도 금산 출생
- 1980~1986년 《투영전》(대전시민회관 / 현대화랑)
- 1983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2 서용인, 「전형주: 내면의 추상적 풍경을 고요함에 담다」, 『전형주』(이공갤러리, 2012).

3 조경진, 「침묵을 뚫는 파동의 언어-전형주 세필 회화의 진면목」, 『전형주』(이공갤러리, 2012).

- 1983~1985년 《모듬작가전》(진주, 전북예술회관)
- 1984년 《개인전》(대전, 신신화랑)
- 1985년 목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서양화 전공) 졸업
- 1986~2020년 대전미술제 참여
- 1988년 《충남의 어제와 오늘전》(대전, 시민회관)
- 1991·1993·1995년 《대구국제비엔날레전》(동아미술관 / 대백갤러리 / 문화예술회관 / 벽아갤러리)
- 1992~2009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전》(천안, 아라리오미술관 등)
- 1992~2011년 《대전시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 / 대전시립미술관 등)
- 1993년 《개인전》(대전, 갤러리비전 / 일본 도쿄, San Ban Kan 갤러리)
《의식의확신전》(서울, 예술의전당)
《오늘의 한국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
- 1998년 《전국무등미술대전》 대상
- 1999년 《제2회 한독미협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제13회 전국춘향미술대전》 대상
- 2003~2005년 《대전구상작가협회정기전》(대전, 시민회관)
- 2004~2011년 《사이전》(대전, 롯데갤러리 / 대정문화전시관 / 타임월드갤러리 등)
- 2005년 《목우회 70인 초대전》(프랑스, 쇼몽갤러리)
- 2006년 《21 한불대표 구상작가 총람전》(서울, 예술의전당)
- 2007년 《우주베키스탄 미술인협회 초청교제교류전》(과천, 국립현대미술관)
- 2008년 《대전 그림 하나, 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
- 2010년 《See&More 숲과 나무보다전》(울산, 현대예술관)
- 2011년 《대전구상미술의 진수전》(서울, 영아트갤러리)
- 2012년 《대전중견작가 초대전》(대전, 플랜트갤러리)
- 2013년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
《공주국제미술제 충남작가 초대전》(공주, 임립미술관)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청주 일원)
- 2014년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
- 2015년 《대전미술150인 초대전》(대전, 예술가의집)
- 2016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 2017년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서양화부문 공로상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기념전》(대전시립미술관)
- 2018년 《현대갤러리 33주년 특별기획전》(대전, 현대갤러리) /
《몽골미술협회 국제교류전》(서울, 금보성아트센터 / 몽골, UMA 갤러리)
- 2019년 《현대갤러리 특별기획 주역전》(대전, 현대갤러리)
- 2020년 《종로타워 · 퍼블릭갤러리 초대전》(서울, 퍼블릭갤러리)
- 2022년 《개인전》(서울, 통인갤러리)

정광호 (鄭廣鎬, 1959~)



정광호, <2-8 The Letters>, 2005, 황동선, 120×100×8cm(출처: 『화랑미술제』, 박여숙 화랑&러 갤러리, 2006)

1959년 대전에서 출생한 정광호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했다. 1980년 대학 재학 중 《금강현대미술제 창립전》에 참가해 모래사장에 대형 유리 여러 장을 깔고 그 주변에 모래를 자연스럽게 흩뿌려 덮는 실험적인 작품 <거울 깔기>를 선보였다.

조각의 매스지향성을 은근히 싫어하는 성향은 매스컴플렉스로 이어졌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¹ 가능한 가늘고 중량감이 없는 것을 좋아한다는 작가는 어떤 형태를 만드는 작업에 앞서 이미 형성된 것과 그 모티브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1994년 《개인전》의 제목으로 내건 ‘非조각적 조각’에 대해 작가는 “조각이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조각 이외의 어떤 외딴 곳이 아니라 바로 비-조각인 듯하다. 비-조각은 가장 광범위하게는 일상세계이며 또 그것과 같

은 모습이긴 하나 뚜렷이 다른 것이기도 하며(중략)², “조각은 비-조각일 때에 조각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³이며 “비-조각적 조각은 조각이 조각 아닌 세계와 가까이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의 동시적 표현”⁴이라고 설명했다.

작가는 ‘비조각적 조각’을 하게 된 배경으로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가장 가까이 주변에 있고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볼 수 있는 것들이 조각의 형태로 형상을 갖게 되는 데, 즉 철사가 있었고 용접기가 있었고 밖에는 낙엽이 텅굴고 있었기에 철사를 용접으로 이어 나뭇잎을 재현하였다.”고 하였다.⁵

정광호는 비조각적 조각에서 저온용접 기법으로 0.8mm 구리선을 일일이 땀질해 투명한 선으로 된 피부를 선보여 주변풍경과 관계를 맺게 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회화적인 것이며 사용하는 선묘 역시 회화적인 것이지만 그의 작품은 재료, 성형방식, 전시방법 등에서 기존 조각의 범

1 정광호, 「작가노트」,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On every border flower blooms』(대전시립미술관, 1997), p. 100.

2 정광호, 「자서」, 『비-조각적 조각』(녹색 갤러리 / 갤러리 신라, 1994).

3 정광호, 위의 글(1994).

4 정광호, 「정광호 : 철사로 만든 나뭇잎과 비-조각적 조각」, 『공간』(1997), p. 84.

5 정광호, 위의 글(1997), p. 100.

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⁶

작가는 조각적 형식에서 벗어난 조각을 하는 자신의 행위를 ‘물건 만들기’라고 명명한다.⁷ 즉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보는 가치가 있는 멋있는 물건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꽃잎을 재현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새로운 물질로 내 자신의 감각을 투영해 만든 것의 대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이하게 느끼고 재미있게 느낄 것을 예상하면서 작품을 만든다.

구리 조각으로는 재현하는데 있어 한계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인정하여 정광호는 지난 몇 년간 ‘시간 회화’, ‘운동 회화’ 개념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조각적 표면을 연장해 회화의 표면으로 넘어와서 운동의 표면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로서 작품에 운동과 시간을 담으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⁸



정광호, 〈The pot 8490〉, 2008, 구리, 90×90×90cm(출처: 『간격』, 청담갤러리, 2009)

연보

- 1959년 대전 출생
- 1979년 《금강현대미술제》(공주, 금강)에 출품
- 1980년 《금강현대미술제 창립야외현장전》(공주 금강백사장)에 〈거울갈기〉
《2인전 : 조형과 조형 넘어》(대전문화원)
- 198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제1회 개인전 : 사물, 오브젝트》(대전, 동아전시관)
《인·아웃 게임》(서울, 수화랑)
- 1988년 《제2회 개인전 : 체인드 & 언체이드 오브젝트》(서울, 윤갤러리)
《하드코어19대전코넥션전》(대전, 현대화랑 / 대전문화원)
- 1990년 《미술행각·迷術行脚》(대전문화원)
- 1991년 《聚우 8 覺 × …》(대전, 현대화랑)
《물·物-존재와 공간》(서울, 갤러리이콘)
《易, 雲, 淳, 9, 우 8, 覺, +, O&C》(대전, 현대화랑)
- 199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조소전공) 졸업

6 이윤희, 「정광호 작품의 표리부동함에 대하여」, 『정광호』(금호미술관, 1998).

7 리움미술관, 「작가를 만나다-정광호」.

8 리움미술관, 위의 자료.

- 1994년 《제3회 개인전 : 이미지&오브젝트》(대전문화원)
 - 1996년 《에스팩트 현대미술동인전》(청주, 무심갤러리)
 - 1997년 《제4회 개인전 : 非-조각적 조각》(서울, 녹색갤러리 / 대구, 신라갤러리)
 - 1998년 《제5회 개인전 : 표면 · 피부》(청주, 학천갤러리)
 - 1998년 《정광호 개인전 : 윈도우 갤러리》(서울, 현대갤러리 / 부산, 조현갤러리)
 - 1998년 《정광호 개인전》(서울, 금호미술관 / 네덜란드, 스테데릭뮤지엄 썬볼레)
 - 2000년 《정광호 개인전》(서울, 샵터화랑 / 경주선재미술관 / 부산, 전경숙갤러리)
 - 2001년 《정광호 개인전》(서울, 카이스갤러리 / 울산, 현대아트갤러리)
 - 2003년 《정광호 개인전》(독일 뮌헨, 갤러리토마스)
 - 2004년 《문자향》(서울, 김종영미술관)
 - 2004년 《개인전》(서울, 갤러리현대)
 - 2005년 《미술과 수학의 교감》(서울, 사비나미술관)
 - 2005년 《이동엽&정광호》(서울, 자넷오갤러리)
 - 2006년 《도자향 서권기》(서울, 박여숙 화랑 / 려 갤러리)
 - 2006년 《개인전》(서울, 백혜영갤러리)
 - 2007년 《개인전》(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캔버스인터내셔널아트갤러리)
 - 2008년 《Natura: 김홍주·정광호》(서울, 가나아트센터)
 - 2009년 《개인전》(서울, 연희동프로젝트)
 - 2009년 《모든경계에는 꽃이 핀다》(대전시립미술관)
 - 2012년 《현대미술을 이끄는 힘, 한국의 중견작가들》(서울, 슈페리어 갤러리)
 - 2012년 《ADAMAS253 Gallery 개관전》(경기도, 아다마스253 갤러리)
 - 2022년 《정광호 초대전》(대전, 갤러리 슴)
-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만화애니메이션 학부 애니메이션 전공 교수로 재직 중

정대영 (鄭大永, 1959~)

1959년 대전에서 태어난 정대영은 초·중·고등학생 시절을 대전에서 보냈다. 이후 1980년 홍익대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하면서 서울에서 생활했다. 1987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에 입학해 「Christo Javacheff의 예술세계 연구」로 1990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학교 졸업 후 서울 갤러리현대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수화랑(서울)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이후 1997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그룹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며 덕원예술고등학교, 신구전문대학교, 한남대학교, 배재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했다. 1997년 미국 뉴욕의 Brooklyn College(CUNY Brooklyn)에 입학해 1999년 회화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2002년 부산 영산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로 부임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정대영의 작품은 미국 유학을 전후로 하여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미국유학 이전(1986~1997) 시기 작품은 모더니즘, 후기모더니즘 등의 서구미술 사조의 영향으로 다양한 재료와 표현형식을 탐구하던 시기이다. 즉 평면, 입체, 설치 등의 형식과 함께 다양한 재료를 실험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미술의 영향에서 탈피하여 한국적인 정체성을 작품에 반영하기 위해 동양사상과 동양미학을 연구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두 번째 시기(1997~2001)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체류하던 시기로, 정대영은 이 시기 서구미술을 직접 경험하면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등 동시대의 매체적 경향을 작품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런 한편 이 시기 작품에는 동양의 자연관과 인간, 그리고 삶을 소재로 한 산수, 음양 등을 작품제목에 담는 등 동양미학을 적극적으로 작품에 도입했다.

세 번째 시기는 미국에서 귀국 후(2002~현재) 영상미디어, 드로잉, 평면회화 작업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대부분 자연과 인간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동양적인 사유와 형식을 반영한 풍경(자연, 산수) 연작을 절제된 표현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다. 영산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기초조형학회지 『기초조형학연구』에 「이야기의 시각적 서술방



정대영 〈state paradoxically 1988-15〉, 1988, 광목천에 염료, 설치작품, 130×300×200cm, 작가 제공



정대영, 〈바다풍경 2009-07〉, 2009, 캔버스에 아크릴, 45.4×91cm, 작가 제공

법 연구: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교육을 중심으로」(2004), 「연기의 관점에서 본 애니메이션 움직임 표현 연구」(2006) 등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부산광역시 영상애니메이션 산업 자문교수단 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만화애니메이션 교육위원회 운영위원, 부산·경남·울산지역위원 등을 역임했다.

연보

- 1959년 대전 출생
- 1966~1978년 대전 갈마국민학교, 동산중학교, 충남고등학교 졸업
- 1980~1987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1985년 《푸른 깃발전》(서울, 한강갤러리)
- 1986년 《앙테팡당전》(국립현대미술관)
- 1987~1990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 1987년 《필드 17전》(서울, 경인미술관)
- 《Ut·Most전》(서울, 갤러리P&P)
- 1987~1989년 《십이분의 일》(서울, 백송갤러리 / 갤러리현대 / 관훈갤러리)
- 1988년 《제1회 개인전》(서울, 갤러리현대)
- 《서울현대미술제》(서울, 미술회관)
- 《갤러리도올 개관 기념: 現代美術의 場展》(서울, 갤러리도올)
- 1988~1990년 《뉴 오리엔트》(서울, 갤러리도올 / 바탕골미술관 / 코스모스갤러리)
- 1990년 《제2회 개인전》(서울, 수화랑)
- 《중앙미술대전》(서울, 호암갤러리) 특선 수상
- 《대한민국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 입상
- 1990년 《1990 發想의 轉換: 밀물·썰물》(서울, 소나무갤러리)
- 《서울현대미술제》(서울, 미술회관)
- 《현존·모색·수용전》(서울, 인테코 갤러리)
- 《90년대 통합으로의 미술전》(서울, 타래미술관)
- 1991년 《MBC미술대전》(서울, 예술의전당)
- 《제2기 서울현대미술제 창립전》(서울, 미술회관)
- 《현대미술의 단면, 그 다섯 개의 비평적 시각-이미지 이후》(서울, 미술회관)

- 1992년 《개교50주년기념 청운령미전(靑雲嶺美展)》(대전문화원)
- 1992~2004년 《오리진 회화 협회전》(서울, 미술회관)
- 1993~1997년 덕원예술고등학교, 배제대학교, 한남대학교, 신구전문대학교 강사 역임
- 1995년 《1995여의도의 봄》(서울, 서남제2미술전시관)
- 1997~1999년 City University of New York, Brooklyn College(M.F.A.) 졸업
- 1999년 《석사학위 청구전》(New York, Art Building at Chelsea)
- 2001년 《Asian American Visual Arts》(미국 뉴저지, Center for Latino Arts and Culture at Rutgers University)
《Metamorphosis》(뉴욕, Gallery Korea at Korean Cultural Service)
- 2002년 《제4회 개인전》(공주문예회관)
- 2002~현재 영산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로 재직
- 2004~2005년 《Gada전》(울산문화회관)
- 2005년 《제5회 개인전》(울산, 홍강갤러리)
- 2005~2006년 만화애니메이션 강사풀 경상지역 위원회 위원장 역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만화 애니메이션교육 위원회 운영위원 역임
- 2006년 《청운령 미전-the CURist》(대전, 우연갤러리)
- 2006~2009년 부산광역시 영상애니메이션 산업 자문교수단 위원 역임
- 2007~2009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상애니메이션 교육분야 자문교수 역임
영산대학교 CT대학장 역임
- 2007~2011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만화애니메이션분야 부산·경남·울산지역위원 역임
- 2008년 《디지털아트 초대전》(부산, 백스코)
《부산비엔날레 2008 gallery festival》(부산, 윤갤러리)
- 2009년 《감성과 사색전》(양산, 에덴벨리리조트)
《홍익인간전》(청도, 갤러리 전)
《인간 자연 생명전》(포항, 포스코갤러리)
《갤러리 아이 2009 여름 기획 초대전》(서울, i갤러리)
《구축과 확산전》(부산, 동백아트센터)
- 2010년 《경인년 봄맞이 초대작가전》(남원, 송은갤러리)
《2010한중국제교류전시회》(중국 臨沂, 임기대학교 전시실)
- 2011년 《中國 臨沂大學70周年開校紀念 國際繪畫藝術交流作品展》(중국 臨沂, 임기대학교 전시실)

정태궁(鄭泰宮, 1959~)



정태궁, <섭리(providence)>, 1995, 나무에 혼합재료, 115×115cm(출처: 『정태궁』, 갤러리 터, 1995)



정태궁, <섭리1(providence1)>, 2021, 나무에 혼합재료, 100×80cm(출처: 『서산시대』, 2022. 3. 5)

1959년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난 정태궁은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를 다녔고 1979년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산중학교, 당진상업고등학교, 충남예술고등학교, 서산여자고등학교 등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대학원을 졸업하던 해부터 《한길서양화전》에 출품했으며, 1995년 서울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2022년까지 개인전 28회와 한길회, 누름결판화협회, 현대미술교류회,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여러 단체전에 참여했다. 공주대학교와 한서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충청남도미술대전》 우수상과 특선을 수상했고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운영위원, 안건미술대전 추진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태궁은 조각과 회화의 두 가지 영역을 한 작품에 동시에 아우르는 작가이다. 조각가들이 부분적으로 회화적인 이미지를 차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조각과 회화가 같은 비중으로 작품에서 발현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섭리(providence)’라는 주제로 일관된 이 부조회화는 목재를 활용해 자연성을 있는 그대로 살리는 가운데, 조각으로 다듬은 형태에 회화적인 채색으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주재료는 바닷가에 버려진 폐선이나 낡은 가옥에서 잘라낸 나무판이다.

서산시 1호 공식 등록 미술관인 서해미술관 관장 정태궁은 “좋은 작품은 보기에 자연스러워 편안하고, 멋이

있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¹ 서해미술관은 2003년 사비로 폐교(강당초등학교 부남분교)를 구입해 자신의 작업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미술관으로 개조해 서산지역 최초의 비영리 공공미술관으로 등록한 곳이다.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서

¹ 『정태궁』(서산시 문화회관, 2008).

산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마련해 주고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을 위한 미술교육을 지원하는 등 서산을 비롯한 충남 지역 미술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연 보

- 1959년 충청남도 서산 출생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서산중학교, 당진상업고등학교, 충남예술고등학교, 서산여자고등학교 등에서 미술교사로 재직
- 1979년 공주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 《한길서양화전》에 참여
- 1985년 《한국미술협회전》
- 1991년 《충청청년작가전》(대전시민회관)
《아라리오 미술관 개관 기념 초대전》(천안, 아라리오미술관)
- 1992년 《6인의 제안전》(천안문화원 / 서산, 서인사랑)
《현대미술교류회전》(대전시민회관)
- 1993년 《충청남도 청년 미술제》(서산, 문예회관)
《대한민국 청년 예술제》(인천문예회관)
- 1994년 《인사갤러리 개관기념 초대기획전》(서울, 인사갤러리)
- 1995년 《개인전》(서울, 갤러리 터)
《한·중 현대미술전》(중국 북경, 국립북경중국미술관)
《Cast Iron 갤러리 초대전》(미국 뉴욕, Cast Iron 갤러리)
- 1996년 《제16회 학동인전》(당진, 합덕대건신협 전시장 / 당진 충청은행)
- 2001년 《현대미술 PSI》(천안, 중앙도서관)
《개인전》(미국 뉴욕, 스페이스월드 갤러리)
- 2008년 《개인전》(서산, 문화회관)
- 2011년 《개인전》(서산갤러리)
- 2014년 개인전 《꽃에게》(서울, 조계사 나무갤러리)
- 2015년 《광복 70주년: 2015 충남미술 중견작가 초대전》(천안, 예술의전당 / 서산, 문화회관 / 계룡 문화예술의전당)
- 2016년 《개인전》(서산, 문화회관)
- 2018년 《정태궁초대전》(서울, 아트스페이스)
- 2020년 《제6회 보령미술 해를품다전》(보령, 문화예술회관)
- 2022년 《정태궁 기획초대전》(당진, 면천읍성 안 '그 미술관'²)

2 「정태궁 화백, 기획 초대전 개최」, 『서산시대』(2022.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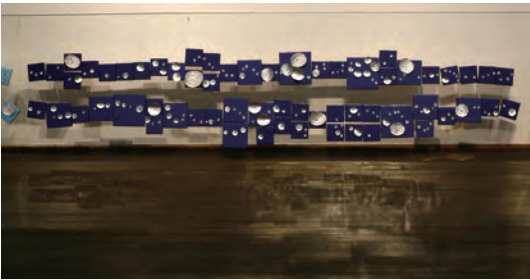
진정식 (陳正植, 1959~)



진정식, 〈그림 II〉, 1987, 캔버스에 유채(출처: 『인간중심에서 자연중심으로: 진정식 展』, 충주문화원, 1996)

1959년 대전에서 태어난 진정식은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충주 지역에서 16년간 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교직에 있으면서 1991년부터 2000년경까지 10여년 동안 《동아미술제》에서 동아미술상 수상, 《중앙미술대전》 입상,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 6회, 입선 12회 수상했다. 1993년에는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비구상, 구상 부문에 동시 특선했으며, 1998년에는 《충청남도미술대전》과 《충청북도미술대전》에서 동시에 대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각종 미술 공모전을 통해 작가로서 입지를 굳힌 진정식은 뒤늦게 홍익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 2004년 「키치 미술과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진정식의 그림에 대한 관심은 미술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석고상과 수채화를 배우던 시기부터 남달랐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세계미술화집을 탐독하고, 그때까지 배웠던 틀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판자촌 야경〉을 비롯해 표현주의적 화풍의 유희를 여러 점 제작했다. 이때부터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한 고민과 대상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작가는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87년 제작한 〈그림 II〉를 통해 인간의 삶과 기계문명을 소재로 100호 크기의 작품 100점을 제작하겠다는 야심찬 시도를 했다. 이 연작은 전체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선형(달팽이 모양)으로 바닥에 깔아놓고 관람자가 걸어가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구성을 중요한 표현 요소로 끌어들이는 작품이다.¹ 아쉽게도 이 작품은 작가의 경제 사정 때문에 13점만 제작하고 중단되었지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품에 독특한 질서를 부여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나가려고 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진정식, 〈23초〉, 2013, 혼합재료, 작가 제공

이러한 작가의 독특한 시각은 1996년 첫 개인전의 타이틀을 “인간중심에서 자연 중심으로”라고 붙이고 어떻게 자연과 관계를 회복하고 작품의 형식과 내용, 재료, 방법을 무궁해적

¹ 『인간중심에서 자연중심으로: 진정식 展』(충주문화원, 1996), p. 6.

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보여준 전시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작품에 사용된 재료들이 비자연적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회의를 느끼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김광환 교수는 진정식의 작품세계에 관해 “내용과 형식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었다. 기존의 예술형식에 안주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이미지 표현을 위한 요소로 매체가 가지고 있는 물성과 기능, 그리고 시간, 이 세 가지를 중시한다는 것이다.² 2005년 개인전에서 진정식은 시간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작품과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입체작품을 선보였는데, 스테인리스가 지닌 매체의 특성인 차가움과 거기에 사물이 투영되는 기능을 이용하여 ‘실상과 허상간의 경계가 어디인가’에 의문을 던졌다. 이밖에도 카메라와 애니메이션 기법을 결합한 동영상상을 통해 ‘작품의 시간성’을 구체화시켰다. 다양한 재료와 표현방식에도 불구하고 진정식의 작품에 일관되게 보이는 특징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미지에 대한 구축이다.

진정식의 대표작 중 하나인 <23초>는 설치작품 사이로 걷는 시간이 23초에 불과하다는 역설을 제목에 붙인 작품이다. 이 23초를 위해서 작가는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알루미늄 조각들을 해머로 두드리며 마치 빛을 받으면 하얀 꽃이 피어나듯이 물리적 흔적의 시간과 소리를 작품에 응축시켰다. 이견영의 설명에 의하면 이 조각들은 두드린 자국으로 반짝이는 “광물의 꽃”이다.³ 알루미늄 조각을 두드리자면 이웃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낮에만 작업을 했고, 여기에 파스텔 도장 작업을 위해 자동차 특수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전문가를 동원하는 등 많은 노력 끝에 피어난 꽃이었다. 이렇게 작가의 시간과 관람자의 시간을 대비시키는 동시에 금속의 물성과 그것을 두드리며 내는 소리를 환기시켰다. 근래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의 시간과 빛(회절)을 매체로 한 작업에 집중하는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2년 목원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현 웹툰학과) 교수로 부임한 진정식은 대전광역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 대한민국 창작만화공모전(한국 만화가 협회) 심사위원, 한국 콘텐츠학회 상임이사, 한국 만화캐릭터 공원 추진위원장, 한국 미술협회 만화애니메이션 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까지 17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00여 회의 단체전과 해외 초대전에 참여했다. 또 「현대사회에서 만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2003 봄), 「여백에 관하여」(2004, 춘계)를 한국콘텐츠



진정식, <하늘로>, 2013, 알루미늄·자연석·자동차도료·캔버스, 작가 제공

2 김광환,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미지 구축(陳正植)」, 『05 진정식』(충주 마그넷갤러리, 2005).

3 이견영, 「설치와 걷기 시간 속으로」, 위의 도록.

학회에 발표했으며, 「애니메이션 모션 타이밍을 활용한 입체 옥외 멀티광고물(NURI사업단프로젝트, 2006), 「친절여행 만화」(국세청, 2009)을 제작했다. 이밖에도 ‘색변질 방지 자외선차단’(특허번호 10-0682084), ‘광반사조형물’(특허번호 10-1588528), ‘옥조겸용침대’(특허번호 10-1624414) 발명특허를 냈다.

연보

- 1959년 충청남도 금산 출생
- 1986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서양화 전공) 졸업
《대전 '78세대전》(대전시민회관) /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시민회관) 특선
- 1987년 《대전트리엔날레》(대전시민회관) / 《한밭회화전》(대전시민회관)
《행위예술초대전》(대전, 쌍인미술관)
- 1991년 《중앙미술대전》(서울, 호암갤러리)
- 1992·1994·1996년 《남한강전》(서울, 운현궁미술관) 출품
- 1993년 《대한민국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비구상 <봄>, 구상 <가을> 동시 입상
- 1994년 《동아미술제》 특선 수상
- 1995년 《MBC미술대전》(서울, 예술의전당) / 《향토작가 초대전》(충주문화원)
- 1996년 《제1회 개인전》(충주문화회관) / 《남부현대미술제》(천안시민회관)
- 1996~2003년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7회
- 1997년 《동아미술제》 특선 / 《남한강전》(충주, KBS충주방송국)
《'97 청년작가 초대전》 / 《한국미술협회 충주지부회원전》
- 1998년 《충청남도미술대전》 / 《충청북도미술대전》 대상 수상
- 1999년 《Millennium identity FRONT 2000》 / 《20th International Impact Art Festival'99》
《홍익 M.A.E. 전》 / 《제30회 한국미술협회충주지부전》
- 2000년 《동아미술제》 수상 / 《2000 베를린 시초대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 《2000한·필리핀 현대미술초대전》
《2000 갤러리 회화제》 / 《제30회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전》
- 2001년 《중원사생전》 / 《2001갤러리회화제》 / 《대한민국미술대전》
- 2002년 《한국필리핀미술초대 국제전》 / 《동아미술제 수상작가전》
《서울 뉴월드전》 / 《청풍명월미술전》 / 《2002 인사동 포럼전》
- 2003년 《새로운 지평전》 / 《제1회 한국만화의 위상전》
- 2004년 《동아미술제 수상작가전》 / 《제4회 한국현대미술제》
- 2005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전》 / 개인전 <고양이> / 《중국천진미술제》(중국 천진)
《한국콘텐츠학회 디지털디자인 작품전시회》 / 《PISAF2005 국제교수초대전》
- 2006년 《개인전》(대전, 롯데화랑)
- 2012년 《Art TAIPEI》(타이완, 아트갤러리) / 《Art ASIA》(서울, 코엑스)
- 2012년~현재 목원대학교 웹툰학과 교수로 재직
- 2015년 《진정식 개인전》(통영, 시민문화회관)

황선익 (黃善翊, 1959~)

1959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난 황선익은 1984년 한남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졸업 이후에는 1987년부터 홍주중학교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홍주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고,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장'을 역임했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예총 홍성지부장'을 역임했다.¹ 지역문화 발전뿐만 아니라 홍성의 전통문화 명맥 유지를 위해 힘쓰며 현재는 '고암 이용노 생가 기념관'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며 홍성지역의 미술문화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황선익의 초기 작품은 주로 대상의 형태를 분할해 이미지를 표현하는 구상계열 화풍이었다. 2002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1회 개인전: 심상을 drawing 하다》에서 선보인 <시장(市場)사람들>(1988)과 같은 작품을 제작하거나 혹은 모노타이프의 판화, 펜과 먹 등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구상화 55점을 선보였다. 이 전시회에서 선보였던 여러 장의 <Drawing> 작품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심상의 Drawing》이라는 연작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최근 2021년에는 충남중견작가회 대표로서 충남 조형 미술의 맥을 이어가고자 《충남미술 맥(脈)을 잇다》라는 전시를 개최해 침체된 지역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²



황선익, <시장(市場)사람들>, 1988, 캔버스에 유채, 90×70cm, 작가 제공



황선익, <심상의 표현 Drawing>, 1988, 종이에 펜, 먹, 각 30×25cm, 작가 제공

1 윤종혁, 「지역문화 발전의 밑받침, 황선익 홍성예총 신임지부장」, 『홍성신문』(2007. 1. 26).

2 「충남미술 맥을 잇다」, 『천안아산신문』(2021.11.17).

연보

- 1959년 충청남도 홍성 출생
- 1984년 한남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1987~2022년 홍주중학교, 홍주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
- 1993년 《제4회 충남 수채화 협회전》(천안시민회관)
- 1994년 《제1회 홍성미술협회전》(홍성문화원)
《제2회 충청남도청년미술제》(천안시민회관)
- 1995년 《제2회 홍성미술협회전: 홍성향토작가초대전》(홍성문화원)
- 2000~2006년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장 역임
- 2002년 《제1회 개인전: 심상을 drawing 하다》(서울, 예술의전당)³
《제2회 개인전: Cyber(인터넷)에 drawing 하다》(인터넷전시)
- 2004년 《제3회 개인전: 홍주성을 drawing 하다》(홍주성 야외 문화공간)
- 2006년 《제4회 개인전: 자연&삶을 drawing 하다》(홍주문화회관 야외 문화공간)
- 2007~2010년 한국예총 홍성지부장 역임
- 2016년 《제5회 개인전: 심상을 drawing 하다》(아산, 모네갤러리)
《제6회 개인전: 심상을 drawing 하다》(아산, 모네갤러리)
- 2019년 《계룡산展》(보령문화예술회관)
- 2019~2020년 내포아트페스티벌 추진 위원회 운영위원 역임
- 2020년 《제6회 보령미술 海를 품다》(보령문화예술회관)
《빛을 모으다》(당진, 갤러리풀빛)
- 2020년~현재 충남중진작가회 대표 역임
- 2021년 《제7회 보령미술 海를 품다》(계룡문화예술의전당)
《충남미술 脈(맥)을 잇다》(천안, 리각미술관)
- 2022년 녹조근정훈장 수훈
- 2022년~현재 고암이용노기념관 운영위원 역임

3 김복실, 「구상화가 황선익 서울 개인전」, 『홍성신문』(2002. 10. 25).

참고문헌

신문기사(연도순)

- 『《중앙미술대전》 영예의 얼굴들: 양화부문 대상 심웅택씨』, 『중앙일보』, 1985. 8. 1.
- 「가국현씨 두 번째 개인전」, 『매일경제』, 1992. 5. 6.
- 「예술인의 향기; 풍경해체...수상작품 몰두」, 『중도일보』, 1995. 1. 26.
- 이정환, 「(아트 이벤트) '서양화가 도병락 근작전」, 『한국경제신문』, 1998. 12. 11.
- 「2년만에 전혀 다른 그림으로」, 『중도일보』, 1999. 6. 8.
- 「[미술] 전통 미의식 재해석 '박완용 개인전' 24일까지」, 『한경생활문화』, 1999. 8. 19.
- 「아틀리에 에세이, 화가 순화동」, 『당진시대』, 2000. 5. 22.
- 「물과 바람에 자유 담는다」, 『중도일보』, 2002. 8. 8.
- 「구상화가 황선의 서울 개인전」, 『홍성신문』, 2002. 10. 25.
- 「한발쭉추 독일인 친구」, 『대전일보』, 2002. 11. 1.
- 「수박 농사 짓는 화가 이영배씨」, 『옥천신문』, 2003. 7. 14.
- 「'우리의 것' 찾아 화랑가로 간다」, 『충청투데이』, 2004. 7. 2.
- 「토지공사, 대전시 반석동에 '애향비' 제막」, 『연합뉴스』, 2004. 12. 20.
- 「[작가의 산실] (23): 서양화가 민동기씨」, 『중도일보』, 2005. 3. 3.
- 「원색 자연 "눈이 즐겁네"」, 『충청투데이』, 2005. 5. 27.
- 「[작가의산실] (30) 서양화가 김동창 화백」, 『중도일보』, 2005. 7. 7.
- 「[작가의 산실]-서양화가 강정현씨」, 『중도일보』, 2005. 8. 4.
- 「도자기가 있는 단상 9. 수레질항아리」, 『영남일보』, 2005. 10. 26.
- 「[작가의 산실] "자연 벗삼아 붓 가는대로"」, 『중도일보』, 2005. 11. 17.
- 「김대열 화가 7번째 개인전」, 『청양신문』, 2005. 12. 5.
- 「지역문화 발전의 밑거름 될 터, 황선의 홍성예총 신임지부장」, 『홍성신문』, 2007. 1. 26.
- 「차가운 금속에 생명을 불어넣다」, 『중도일보』, 2007. 12. 18.
- 「유순식, 오늘부터 공주서 네 번째 개인전」, 『대전일보』, 2007. 12. 24.
- 「제17회 2008년 박완용 개인전」, 『농외신문』, 2008. 6. 2.
- 「고공곤 건양대교수, 서울시립미술관서 개인전」, 『대전일보』, 2008. 7. 18.
- 「맑고 단안한 한국풍경 느껴보세요」, 『e-청양신문』, 2008. 10. 13.
- 「복원규 화백 산수화전」, 『e-청양신문』, 2008. 10. 20.
- 「조각가 김택기가 만난 조각가」, 『경기신문』, 2008. 10. 28.
- 「수채화같이 담백한 유화의 향기」, 『서울신문』, 2009. 3. 2.
- 「지역 화가 강구철, 서울 백송갤러리서 개인전」, 『대전일보』, 2009. 5. 27.
- 「김호중, 그가 다시 돌아왔다!」, 『내일신문』, 2009. 12. 27.
- 「수려한 울산 풍경에 시민들 매료」, 『경상일보』, 2009. 12. 29.
- 「이숙희씨, 대전중구문화원서 세번째 개인전」, 『대전일보』, 2010. 5. 18.
- 「[문갑식의 하드보일드] 한국의 다빈치 조용진」, 『조선일보』, 2010. 6. 19.
- 「조순호의 자화상.. "이 순간 나의 실재감을 온전히 담아..."」, 『헤럴드경제』, 2010. 9. 30.
- 「현강 박홍준 개인전」, 『대전일보』, 2011. 5. 10.
- 「'2인 2색' 그녀들의 이야기」, 『중도일보』, 2011. 6. 28.
- 「[비전코리아] 박토를 작가, 예술 본고장 佛서도 인정한 한국 서양화 대가」, 『헤럴드경제』, 2011. 8. 4.
- 「수묵으로 펼친 청산유수...김대열 씨 개인전」, 『한경라이프』, 2011. 8. 29.
- 「프랑스서 한국 알리는 손차롱 화백」, 『연합뉴스』, 2011. 9. 6.
- 「추상적 표현주의 작업으로 완성된 <생성공간>」, 『파워코리아』, 2012. 4.
- 「정세훈 화백 독특한 점묘법 작품 전시」, 『충남신문』, 2012. 4. 30.
- 「먹으로 빛을 머금다... 붓으로 바람을 붙잡다」, 『조선일보』, 2012. 5. 15.
- 「21세기 현대작가 시리즈 147: 대지의 송고미를 담아낸 작가 이열」, 『미술시대』, 2012. 11.
- 「웃는 얼굴에 희망꽃도 '활짝'」, 『부산일보』, 2013. 1. 9.
- 「57년 전통 갤러리서 초청받은 재불화가 손차롱」, 『연합뉴스』, 2013. 2. 5.
- 「(내만사)의대 해부학교실에서 보낸 7년」, 『청년외사』, 2013. 7. 28.
- 「한국화가 김대열교수의 농묵과 담묵의 '상외지상' 전」, 『이주경제』, 2013. 9. 23.
- 「청양을 사랑한 화가 '고 심응길 회고전」, 『디트뉴스24』, 2013. 10. 18.
- 「4대째 디자인 전문가 집안, 디자인 역사의 산증인」, 『대전뉴스』, 2013. 11. 4.
- 「"30년간 불태운 예술혼, 화폭에 담았죠" 21번째 개인전 여는 박관우 화가」, 『금강일보』, 2013. 11. 29.
- 「손차롱 화백, 옹플리르의 백조가 되어 날아 오르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 2014. 3. 26.
- 「파리 이응노 레지던스 첫 입주 박홍준·이순구·송유림 작가」, 『중도일보』, 2014. 6. 9.
- 「〈전시〉 홍정화 작가 개인전 '휴식」, 『금강일보』, 2014. 8. 3.
- 「색의 중첩과 혼재... 화폭에 녹여낸 '정열' 이숙희 展」, 『굿모닝충청』, 2014. 10. 20.
- 「목숨보다 그림을 더 사랑했던 사내를 그리며...서양화가故 박권수 유작전」, 『국민일보』, 2014. 10. 30.
- 「新구상 모색전, 대전 구상미술의 흐름 '한 눈에」, 『충청데일리』, 2014. 11. 14.
- 「묵향·자연을 벗삼은 한국화가 박홍준 초대전」, 『금강일보』, 2015. 4. 28.
- 「김두한 미술협회 대전시지회 부이사장」, 『중도일보』, 2015. 5. 6.
- 「한국의 문화유산,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충북인innews』, 2015. 6. 19.
- 「사람이 희망이다 <8>: 목원대학교 조소과 학과장 이창수 교수」, 『홍주일보』, 2015. 7. 17.
- 「정기해 교사의 금수강산 담긴 한지작품들」, 『디트 NEWS 24』, 2015. 9. 6.
- 「서성관 "화선지에 스미는 먹물의 번짐 보면 희열"」, 『중도일보』, 2015. 10. 2.
- 「17일까지 서양화가 김기반 개인전」, 『금강일보』, 2015. 11. 9.
- 「가국현 개인전」, 『대전일보』, 2016. 6. 9.
- 「대전 중등수석교사 정기해 초대전, 12월 31일까지 대전교육미술관 갤러리」, 『뉴스포르테』, 2016. 11. 3.
- 「홍정화 개인전, 그녀의 순수함 들꽃으로 피어나다」, 『충청데일리』, 2016. 12. 13.
- 「박기호 아마미미술관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수상」, 『중도일보』, 2016. 12. 21.
- 「충남대 10일부터 고(故) 김난희 교수 1주기 추모전」, 『디트뉴스24』, 2017. 1. 9.

「천안 성모피부와 장인성 원장 '의사 · 화가 인생' 30년」, 『중부매일』, 2017. 5. 7.

「비움과 채움의 조화, 김철겸 작가 개인전 개최」, 『금강일보』, 2017. 6. 29.

「프랑스 · 러시아에서 잇따라 개인전 연 오금숙 서양화가」, 『중부매일』, 2017. 7. 30.

「조각(彫刻)에 담은 그리움, 사랑, 화해」, 『디트뉴스24』, 2017. 9. 6.

「지평선과 하늘... 끝모를 풍경서 만난 '중첩된 시간」, 『대구신문』, 2017. 12. 13.

「당진문화재단, '이 시대의 당진작가전 2018' 전시 개최」, 『중부매일』, 2018. 4. 3.

「나는 오늘도 삶을 배웁니다-한남대 교양대학장 강구철 교수」, 『금산중앙신문』, 2018. 4. 12.

「오래된 거울과 낡은 액자로 선보이는 '거울형 회화'...이열 홍익대 교수 개인전」, 『민주신문』, 2018. 5. 14.

「해미순교성지 망루 전 층에 테라코타 부조물로 순교 장면 표현한 상성규 화백」, 『가톨릭신문』, 2018. 6. 3.

「문정규, 우리 시대를 위한 전위예술가」, 『사람과 사회』, 2018. 10. 11.

「정장직 개인전, '얼굴표정'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 『충청매거진』, 2018. 12. 18.

「흐르지 않는 예술은 썩는다」, 『사람과사회』, 2019. 2. 8.

「해부학에 빠진 화가... 先賢 재현하는 '얼굴 학자'로」, 『조선일보』, 2019. 3. 16.

「'생명에 대한 찬미' 나진기 세종시 초대전 개막」, 『세종포스트』, 2019. 5. 21.

「전 대표 서예가 정국 박일규 '명가' 등극」, 『충청투데이』, 2019. 9. 12.

「'자연을 품다' 김정호 화가 청암아트홀 개인전」, 『세종포스트』, 2019. 9. 26.

「이근희 작가 '기억의 소환' 개인전 개최」, 『불교공뉴스』, 2019. 10. 7.

「김기반 드로잉 세계 삶의 근원에 대한 질문 담아냈다」, 『중도일보』, 2019. 10. 22.

「오후여담 : 권대섭 달항아리」, 『문화일보』, 2019. 10. 23.

「캔버스에 흠뻑된 내면의 세계」, 『대전일보』, 2019. 10. 23.

「디지털 시대에 주목받는 '무위의 미학」, 『한국일보』, 2019. 11. 7.

「문정규 개인전, 넘나들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다」, 『충청매거진』, 2019. 11. 9.

「이장원 개인전, 발목으로 풀어낸 우리의 산하」, 『충청투데이』, 2019. 11. 10.

「정옥희 세 번째 개인전」, 『홍성신문』, 2020. 7. 6.

「서양화가 박동윤 "한국적인 요체 그 형상성 표현이 내 예술의 목표"」, 『인사이트코리아』, 2020. 10. 8.

「(독자와의 만남) 이경숙 화가 "기자의 취재력 돋보여"」, 『당진시대』, 2020. 11. 28.

「사람이야기: 내 작품의 완성자는 하늘의 빛」, 『월간대전 이즈유』, 2020. 12.

「(J포럼 명사 인터뷰) 한국인 얼굴 탐구하는 조용진 한국형질문화연구원 원장」, 『월간중앙』, 2021. 2. 17.

「(지상전시) 한글, 새로운 상상이 되다...서양화 김준섭 작가」, 『당진신문』, 2021. 6. 12.

「민동기 화백 '바람소리전」, 『데일리한국』, 2021. 6. 27.

「나진기 작가가 들려주는 '행복 이야기」, 『충청매거진』, 2021. 8. 18.

「(기획특집) "삶이 곧 예술이다"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Gospel Today』, 2021. 9. 2.

「'자연미술가' 허진권 작가 개인전 "그가 물고기를 그리는 이유"」, 『스포츠통아』, 2021. 11. 17.

「충남미술 맥을 잇다」, 『천안아산신문』, 2021. 11. 17.

「대전대 정태희 특임교수, 제15회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본상」, 『충청뉴스』, 2021. 11. 23.

「기라성같은 대전경연작가들, 하나 되어 '전시회' 개최」, 『쿠키뉴스』, 2021. 12. 20.

「이진자 개인전, 《빛과 소리의 찬가, 추사항 콜라보》展」, 『서울문화투데이』, 2022. 1. 26.

「(문화) 봄 맞은 지역 미술계 전시일정에 '분주」, 『중도일보』, 2022. 2. 24.

「정태교 화백, 기획 초대전 개최」, 『서산시대』, 2022. 3. 5.

「윤진섭의 비평프리즘: '놀이충동'에 의한 재미의 발현」, 『서울문화투데이』, 2022. 5. 11.

「脈 인터뷰-'소나무가 있는 풍경'의 작가 정영진」, 『문화저널 맥』, 2022. 5. 23.

「"내가 장르다" 예술 경계 허무는 늦깎이 작가」, 『매일경제신문』, 2022. 7. 1.

「임림미술관서 특별기획 '사색과 여정' 강구철展 열린다」, 『충남일보』, 2022. 8. 31.

「웃는 얼굴로 삶을 헌사하는 이순구 작가」, 『뉴스프리존』, 2022. 10. 1.

「(정년기념화집 · 도록발간)서양화가 박동윤 교수... '애정이 깃든 사물들' 연작발자취」, 『이코노믹 리뷰』, 2022. 11. 26.

논저

강봉승, 「개인전을 준비하며」, 『강봉승 금속조형전』, 동양타임월드 갤러리, 1999.

고승현, 「지난 25년을 돌아보며...」, 『고승현』, 야투출판사, 2005.

고충환, 「관화 교유의 언어를 추구한 모더니스트」, 『대전미술의 지평: 유근영, 이종협 展』, 대전시립미술관, 2005.

공광식, 「현대판 화조도(花鳥圖)를 그리는, 작가 김기택」, 대전시립미술관, 2014.

김복수,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이종관표 쓰레기'를 간택하여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작품」, 『이종관개인전』, 갤러리인사아트, 2019.

김경아, 「수행자」, 『개인전』, 우민아트센터, 2017.

김광환,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미지 구축(陳正植)」, 『'05 진정식』, 충주 마그넷갤러리, 2005.

김노암, 「예술이나 삶이나 그것이 문제구나!」, 『한규 개인전: 사물은 초조의 치즈를 골랐다』, 아트스페이스 휴, 2014.

김민기, 「2006 대전미술의 지평: 조평휘, 안치인전을 기획하며」, 『대전미술의 지평 안치인』, 대전시립미술관, 2006.

김복영, 「자연과 상상력 : 홍성경의 WORK에 즈음하여」, 『제2회 홍성경 조각전』, 현대화랑, 1988.

김성호, 「김해심 생성, 소멸하는 자연의 시공간」, 『현대미술의 시공간과 존재의 미학』, 사문난적, 2016.

_____, 「자연과의 호흡 - 고승현의 자연미술」, 『고승현 제9회 개인전』, 금강자연미술센터, 2019.

김수현, 「실재와 가상 사이의 환상적 세계」, 『월간미술』, 2000. 7.

김연재, 「몽상가의 우주 그리고 입자의 회화」, 『Daydreamer's Tears』, 갤러리시몬, 2021.

김영나, 「시권의 미술가/마법사 노상균」, 『Noh, Sang-Kyoon』, 갤러리시몬, 2011.

김영숙, 『김영숙 개인전』, 대전 MBC방송국 갤러리, 2019.

김일환, 『충청남도-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신청서 석장(석공예) 부문』, 2017.

김정숙, 「지석철 출자와 풀잎의 리얼리티」, 『미술세계』, 1992. 4.

- 김종근, 『마음에 품는 현대미술』, ARTBLUE, 2009.
- 김종길, 『고요한 풍경으로 잠입하기』, 『자연과의 대화: 김해심 작품집』, 다빈치기프트, 2006.
- _____, 『투명한 꽃그늘, 흰 그림자-이중첩의 '매화중독(梅花中毒)'과 그림자 회화의 의미』, 『이중첩 개인전: 매화중독』, 모리스갤러리, 2010.
- 김준기, 『절제에서 표현으로의 변곡점에서』, 『박수용개인전』, 모리스갤러리, 2011.
- 김창태, 『벼랑 끝에 서있는 소나무처럼-임의수선생님의 세 번째 작품전을 축하하면서』, 『임의수 작품전: 퇴임기념-펜으로 만나는 우리 풍경』, 2018.
- 김해심, 『자연과의 대화: 김해심 작품집』, 다빈치기프트, 2006.
- _____, 『자연사용설명서』, 스물바처북스, 2015.
- 김해심 · 존그란데 공저, 『자연의 미술가, 김해심』, 보림출판사, 2013.
- 김혜경, 『노상균전』, 『월간미술』, 2001. 10.
- 김홍희, 『노상균의 올 댓 시퀀스』, 『Noh, Sang-Kyoon』, 갤러리사문, 2011.
- _____, 『IN THE MIDST OF SHINY DUST』, 『월간미술』, 2017. 10.
- 김희정, 『양충모 전- 삶의 찌꺼기에서 태어난 오브제들』, 『양충모전』, 미룸갤러리, 2016.
- 류병학, 『The Sixth Sense Massage』, KAR, 2021.
- 류철하,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작가전에 붙여』, 『이동훈미술상수장전』, 대전시립미술관, 2015.
- 류현승, 『우리 농촌과 함께 그 희망을 찾아서』, 『올해의 작가-이종구』, 국립현대미술관, 2005.
- 미셸 누리자니, 『조화』, 『임동락 개인전』, 인사아트센터, 2001.
- 민혜란, 『박동교 개인전에 부처』, 『박동교작품전』, 한신코아아트홀, 1994.
- 박동교, 『Air brush를 이용한 칠공예 표현기법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박영택, 『백승업-공간으로 확산되는 빛, 기억』, 『백승업전』, 인사아트센터, 2009.
- _____, 『시권의 일루전에 나타난 연속성과 반복성』, 『공간』, 1996. 8.
- _____, 『도병락의 그림』, 『도병락-THROUGH THE TIME』, 박영덕화랑, 1998.
- _____, 『도병락-너무 검은 꽃, 너무 밝은 햇살』, 『영아트갤러리 기획 초대전: 도병락』, 영아트갤러리, 2009.
- _____, 『고영환-물질의 관점에서 보는 조각』, 『고영환전: 새 하늘 새 땅』, 충청남도도립미술관, 2020.
- 박윤조, 『이승택과 고승현의 작품 속 자연공간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14 no.4, 한국기초조형학회, 2013. 8.
- 박정구, 『강정현 개인전』, 오원화랑, 2004.
- _____, 『현실과 비현실의 모서리에서 펼쳐지는 전형주의 풍경』, 『전형주』, 이공갤러리, 2012.
- 박지연, 『미술관의 개구장미들』, 『윤진섭, 한국 행위예술의 이론과 실천의 기수』, 헬로유유지움, 2020.
- 서용인, 『전형주: 내면의 추상적 풍경을 고요함에 담다』, 『전형주』, 이공갤러리, 2012.
- 송미숙, 『노상균』, 『48회 베니스 비엔날레 카탈로그』, 문예진흥원, 1999.
- _____, 『노상균의 시퀀스로그들』, 『공간』, 1996. 8.
- 신향섭, 『다양한 형상의 변주와 공간언어』, 『현대미술작가선 3. 조각작가』, 미술세계, 1989.
- _____, 『임선빈 초대전에』, 『임선빈 초대전』, 대림화랑, 1992.
- 신형건 글, 이순구 그림, 『이순구의 웃는 얼굴』, 뜨인돌어린이, 2013.
- 심상용, 『평면과 시각적 환영 사이』, 『월간미술』 7월호, 1998.
- _____, 『중립적 기호체계로서 시퀀스와 그 물성(物性)의 조율』, 『오늘의 미술가를 말한다』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0.
- 심세중, 『노상균』, 『episode : Chromatic Sensation by Hera』, Do Art, 2003.
- 심재영 · 이지환, 『한국의 노래비』, 나무향, 2018.
- 안소현, 『윤진섭론: 분열과 확장의 분신술사』, 『아트 오브 도플갱어 윤진섭』, 김달진미술연구소, 2022.
- 앤드류 매클, 『Noh, Sang-Kyoon - Where I Work』, 『ArtAsiaPacific』, 2007. 3/4.
- 양승호, 『ECO-ART by SEUNGHO YANG』, 충청남도 & 충남문화재단, 2021.
- 오경란, 『새로운 조형언어의 지향, 그 지평의 현재-현대차위원회』, 『미술세계』 193, 2002. 12.
- 오주연, 『꺼먹이기법에 의한 기의 추상적 표현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유재길, 『구축적 성의 형태에서 곡선의 추상 조각으로 변신』, 『김대열』, 공주문화원, 1993.
- 유석우, 『홀로 있음』의 안의종의 두 번째 개인전에 부처, 『안의종 조각전』, 갤러리 서호, 1994.
- 유현주, 『영원회귀의 삶을 "가로지르다"-백일간의 로드맵』, 『The 9th Solo Exhibition: across the road』, 우연갤러리, 2009.
- 유홍준, 『80년대 미술의 현장과 작가들』, 열화당, 1987.
- 윤영자, 『신현진 개인전에 부처』, 『신현진 개인전』, 평화랑, 1988.
- _____, 『신현진 개인전에 부처』, 『신현진 조각전』, 대전시민회관, 1983.
- 윤우학, 『흐르는 감성의 또 다른 시각적 섹슈, 개인전 카탈로그, 관훈미술관, 1988.
- _____, 『탈물질적 이미지의 증폭』, 『월간미술』, 1995. 3.
- 윤진섭, 『안치인, 실험미술의 파이어나너』, 『대전미술의 지평 안치인』, 대전시립미술관, 2006.
- 이건용, 『메마른 문화 텍스트 밖에 서서 끝없이 중얼대는 신선한 악동』, 『대전미술의 지평 안치인』, 대전시립미술관, 2006.
- 이선주,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며 변신하는 그림들』, 『TOPCLASS』, 2018. 8.
- 이순구, 『전형주: 신성(神性)의 정원-Garden of the Divinity』, 『전형주』, 이공갤러리, 2012.
- 이영재, 『원초적 자연을 향한 메시지』, 『김대열 조각전』, 서경갤러리, 1994.
- 이윤희, 『정광호 작품의 표리부동함에 대하여』, 『정광호』, 금호미술관, 1998.
- 이은주, 『화가 오치균에게 그림이란 무엇일까?』, 『월간미술』 353, 2014. 6.
- 이응우, 『고승현의 삶과 예술』, 『고승현』, 아투출판사, 2005.
- 이지윤, 『Constellation』, 『Noh, Sang-Kyoon』, 갤러리사문, 2011.
- 이지호, 『웃음, 삶의 리얼리즘』, 『이순구 개인전』, 부산 조이갤러리, 2014. 3.
- 이창민, 『'꺼먹이' 소성법을 이용한 실내도제벽장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추영, 『노상균의 빛나는 그림에 대하여』, 『Light of Lightness』, 갤러리사문, 2018.
- _____, 『노상균의 세계: 소우주와 우주』, 오늘의 작가전 카탈로그, 국립현대미술관, 2000.
- 이충우, 『이충우 정년퇴임전-자연속의 호흡』, 가나아트센터, 2016.
- 이현구, 『이현구 畵詩集: 꿈꾸듯 꿈과 같이』, 詩文閣, 2003.
- 임영방, 『임동락의 작품세계-견고한 형태로 표현된 조화속의 운동』, 『임동락환경조각전』, 가나화랑, 1994.
- 임의수, 『답사지에서 만난 우리 풍경들』, 『임의수 작품전-답사지에서 만난 우리 풍경들』, 2016.
- 장경희, 『예산 각자장』, 민속원, 2019.

장정란, 『복원규 淡逸한 詩情의 세계』, 『복원규전』, 경인미술관, 1994.

_____, 『상성규 눈부신 바람의 변주곡』, 『제8회 상성규 개인전 도록』, 롯데화랑, 2008.

장희정, 『아름다움과 본질』, 『김명태 정년기념 작품집』, 미강사, 2016.

전원길, 『허강의 자연과 인위 사이에서의 조형술법』, 『HUROKANG from Nature』, 모리스갤러리, 2012.

_____, 『고승현의 '백년의 소리-가야금'을 통한 기도』, 『고승현, 백년의 소리-가야금』, 2017.

정광호, 『자서』, 『비-조각적 조각』, 녹색갤러리, 1994.

_____, 『자서』, 『비-조각적 조각』, 갤러리 신라, 1994.

_____, 『작가노트』,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대전시립미술관, 1997.

_____, 『정광호 : 철사로 만든 나뭇잎과 비-조각적 조각』, 『공간』, 1997.

정대형, 『삶에 대한 시적 표현으로서의 회화』, 『이헌구전』, space 선+, 2014.

정신영, 『노상균』, 『ARTFORUM』, 2006. 2.

정영목, 『반복과 집중, 그리고 개념의 조형미』, 『개인전 카탈로그』, 갤러리이콘, 1995.

정유경, 『상식을 뒤흔드는 거대한 동심원들』, 『열린세계』, 2001. 5·6.

정찬국, 『정열과 사랑의 고리』, 『조각가 황교영 고리와 섬리』, 황교영 선생기념사업회, 1988.

_____, 『제2회 정찬국개인전』, 조형갤러리, 1993.

정현이, 『노상균의 무중력 궤도』, 『노상균개인전』, 금호미술관, 1998.

정형모, 『우리 민족의 DNA를 빛다, 달항아리 작가 권대섭』, 『Forbes』, 2019. 11.

제라드 슈리게라, 『이진자의 작품은 삶을 모든 면에서 찬미하는 자유를 향한 찬가이다』, 『이진자』, 파리 89갤러리, 2016.

조경진, 『침묵을 뚫는 파동의 언어-전형주 세필 회화의 진면목』, 『전형주』, 이공갤러리, 2009.

조상영,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 다빈치기프트, 2009.

조수진, 『윤진섭의 '노는' 행위예술』, 『아트 오브 도플갱어 윤진섭』, 김달진미술연구소, 2022.

존 그란데, 『김해심과의 대화』, 『Sculpture, may 2010: the site generates the sculpture』 33, 2010.

진휘연, 『21세기도상, 키치와 구도의 경계에 서다』, 『art in culture』, 2001. 10.

최병길, 『작가와 작품 이야기-4』, 『통인미술』, 통인미술관, 2015.

최승훈, 『조각가 임동락』, 『임동락초대 야외조각전』, 독일 바덴바덴, 2007.

최태만, 『서정적 추상 조각에의 지향』, 『황인자 개인전』, 서울 공평아트센터 · 대전 흥인미술관, 1993.

_____, 『성장과 변화의 추구』, 『황인자 개인전』, 21세기, 백상기념관, 1997.

_____, 『서문』, 『조각으로 표현한 소경산수』, 박영덕 화랑, 2002.

충남문화재단, 『충남미술가편람 I』, 충남문화재단, 2021.

하계훈, 『시권을 통한 현실과 허구의 대비』, 『월간미술』, 2005. 11.

『한국미술단체자료집 1945~19099』, 김달진미술연구소, 2013.

한국미술협회, 『(2016) 한국미술 50년사』, 이화문화출판사, 2016.

허구영, 『"쓸모있거나 혹은 쓸모없거나"-김영호의 폐허 위에서』, 『The 10th Solo Exhibition: 쓸모있거나 혹은 쓸모없거나』, 이공갤러리, 2012.

_____, 『김영호의 <행간 읽기>/ 다리(die Brücke) 위에서』, 『김영호 行間읽기』, 대전 이공갤러리, 2009.

허나영, 『싱그러운 자연 속 자유로운 낙원』, 『김기택전』, 대전시립미술관, 2022.

허진권, 『무한의 공간을 열러가는 종소리처럼』, 『양충모전』, 대전현대화랑, 1992.

홍경환, 『형상조각의 습속을 넘는 진정성으로서의 조각』, 『이진자 개인전』, 인사갤러리, 2004.

홍석출, 『구원의 여정』, 오늘의문학사, 2018.

황인자, 『작가노트』, 『제5회 황인자 개인전-종이조각전』, 전주한지박물관, 2013.

황재학, 『사물의 주름에서 소요하다』, 『임의수 작품전-편화로 피어나는 우리 풍경, 우리 문화재』, 2013.

황효순, 『대전 서예 · 문인화의 선구자들』, 『대전문화』 27호, 대전광역시, 2018.

도록 및 브로슈어

『강봉송 금속조형전』, 타임월드갤러리, 2007.

『강봉송 금속조형전』, 충청하나은행갤러리, 2004.

『강봉송 장신구전』, 원광갤러리, 1998.

『강위중작품전』, 갤러리 상, 2003.

『고승현 제9회 개인전』, 금강자연미술센터, 2019.

『고승현, 백년의 소리-가야금』, 2017.

『고승현』, 아투스출판사, 2005.

『고창환금속작품전』, 갤러리봄, 2018.

『고창환금속작품전』, 컬트갤러리, 2007.

『고창환금속작품전』, 홍화랑, 1998.

『광자진취(狂者進取): 대전미술 다시쓰기 7080』, 대전시립미술관, 2020.

『구권환 창작도예전』, 임림미술관, 2012.

『구권환 창작도예전』, 그로니치 화랑, 1984.

『구권환 창작도예전』, 덕수미술관, 1980.

『柱山 嚴基煥 展』, 백악미술관, 2007.

『김기택전』, 대전시립미술관, 2022.

『김난희도예전』, 나무화랑, 1994.

『김명태 정년기념전-회상의 서』,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원, 2016.

『김명태 목조형전』, 공주문화원, 2011.

『김명태 목조형전』, 갤러리 아트 유니온, 2010.

『김명태 가구조형전』, 코엑스 태평양홀, 2009.

『김명태 가구공예전』, 갤러리 동승아트센터, 1990.

『김석우 조각전』, 서울갤러리, 1986.

『김옥연개인전』, 갤러리고트빈, 2021.

『김호중 개인전 리플렛』, 갤러리 라메르, 2022.

『너섬희 20주년 기념전: 사람 · 자연 그리고 함께』, 아리수갤러리, 2002.

『노제 김호중 남도명산전』, 남도예술회관, 2001.

『땅의 사람들』, 학교재, 1992.

『대전공예가협회전』, 대전시청, 2022.

『대전미술 돌-공예 · 조각』, 대전시립미술관, 2009.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 대흥동예술가들 1950-1960』, 대전시립미술관, 2011.

『대전미술의 지평: 유근영, 이중협 展』, 대전시립미술관, 2005.

『대전미술의 지평-안치인』, 대전시립미술관, 2006.

『대전미술 50년展』, 한국미술 대전광역시지회, 1995.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 대전시립미술관, 2018.

『대한민국명장 장인전』, 대전 예술가의 집, 2022.

『더 뮤지엄 아트진 개관기념 특별전』, 더 뮤지엄 아트진, 2021.

『도병락-THROUGH THE TIME』, 박영덕화랑, 1998.

『목원조각회전』, 대전시민회관1층 별관, 1991.

- 『목가와 신조형체전』, 삼성갤러리, 1993.
- 『문정규초대전: 안과 밖에서』, 갤러리 영, 2007.
- 『박선영』, 대전 오원갤러리, 2003.
- 『박수용 개인전』, MBC문화공간, 1990.
- 『박완용 개인전』, 갤러리 피치, 2008.
- 『백전 박홍순』, 도서출판 대명, 2015.
- 『복원규전』, 경인미술관, 1994.
- 『복중순 개인전』, 서울 수화랑, 1988.
- 『복중순, 오늘의 거석문화전』, 서울 윤갤러리, 1987.
- 『상성규展』, 덕원갤러리, 1993.
- 『송계산방 백인현』, 공감투데이, 2014.
- 『송계산방 백인현 樂山樂水』, 공감투데이, 2016.
- 『송순영 개인전』, 서울 한기람미술관, 2011.
- 『송순영 개인전』, 현대아트갤러리, 1998.
- 『송인현』, 포스트, 2001.
- 『신현진 개인전』, 서울 평화랑, 1988.
- 『아트 오브 도플갱어 윤진섭』, 김달진미술연구소, 2022.
- 『안재욱 작품전』, 단성갤러리, 2001.
- 『양충모전-소풍가는 날』, 논산 와야갤러리, 2020.
- 『양충모전-숨길 수 없는 사실』, 대전 화니갤러리, 2018.
- 『양충모전- 삶의 찌꺼기에서 태어난 오브제들』, 대전 미룸갤러리, 2016.
- 『양충모 개인전-변방의 꿈』, 전주 교동아트스튜디오, 2015.
- 『양충모 개인전』, 대전무역전시관, 2013.
- 『양충모 초대전-삶의 패적』, 대전 흥인갤러리, 2011.
- 『양충모 조각전-바라봄의 미학』, 대전 우연갤러리, 2007.
- 『양충모 개인전-내 안에 감춰진 몸짓』, 대전 우연갤러리, 2003.
- 『안병국 도예전』, 갤러리 도울, 1994.
- 『오숙환 빛 · 시간 · 공간』, 학연문화사, 2017.
- 『OH, CHI-GYUN』, 가나화랑, 1995.
- 『유경자』, 대전시립미술관, 2015.
- 『윤진섭, 한국 행위예술의 이론과 실천의 기수』, 헬로우뮤지움, 2020.
- 『庚天均展』, 대명원색, 1991.
- 『이계길전』, 대전 타임월드 갤러리, 2002.
- 『이순구 개인전』, 부산 조이갤러리, 2014.
- 『이영배 고향전』, 대전중구문화원, 1997.
- 『이영배전』, 대전 현대화랑, 1999.
- 『이중협 개인전: 매화종독』, 모리스갤러리, 2010.
- 『이진자 개인전』, 미술세계, 2004.
- 『이창수 개인전』, 오원화랑, 2004.
- 『이충우 교수 정년퇴임전-자연 속의 호흡』, 서울 가나아트센터, 2016.
- 『李憲九作品展』, 백송화랑, 1993.
- 『이현구展』, space 선+, 2014.
- 『인간중심에서 자연중심으로: 진정식展』, 충주문화회관, 1996.
- 『임동락 in Venice』, MUSAEUM Edit, 2014.
- 『임동락 in BADEN BADEN』, Galerie Frank Pages, 2007.
- 『임선빈 조각 개인전』, 북경 주중한국문화원, 2014.
- 『임선빈 조각 초대전』, 세종 소피아갤러리, 2013.
- 『임선빈 조각개인전』, 대전 MBC문화공간, 1987.
- 『임선빈 조각개인전』, 대전 남계화랑, 1979.
-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 국립현대미술관, 2022.
- 『임의수 작품전: 답사지에서 만난 우리 풍경들』, 도서출판주영, 2016.
- 『임의수 작품전: 판화로 피어나는 우리 풍경, 우리 문화재』, 월간아트 뉴스, 2013.
- 『임의수 작품전: 퇴임기념-펜으로 만나는 우리 풍경』, 꿈과비전, 2018.
- 『임재광』, 서울 조성회화랑, 1999.
- 『자연과의 대화: 김해심 작품집』, 다빈치기프트, 2006.
- 『자연으로부터전』, 흥인갤러리, 1998.
- 『장지원 개인전』, 서울 갤러리 자작나무, 2022.
- 『장지원 개인전』, 서울 스페이스 금채, 2022.
- 『장지원 개인전』, 서울 가나아트스페이스, 2004.
- 『장지원 개인전』, 대전 갤러리섬, 2000.
- 『장지원 개인전』, 서울 토아트스페이스, 1995.
- 『장지원 도예전』, 서울 예총화랑, 1991.
- 『전일국 개인전: 無意識에서 意識世界로』, 대전 현대갤러리, 2018.
- 『전형주 美術世界』, 통인가게 출판사업단, 2022.
- 『전형주』, 이공갤러리, 2009.
- 『정진숙 개인전』, 갤러리 민, 2016.
- 『정장직: 대전미술의 지평』, 대전시립미술관, 2014.
- 『정채 개인전』, 이안아트컨설팅, 2019.
- 『정태궁』, 서산시문화회관, 2008.
- 『제2회 대전미술창작마을작품전: 대전미술창작마을작품전 새천년을 여는 자연 IMAGE』, 한림갤러리, 1999.
- 『제2회 진정식展』, 충주문화회관, 1997.
- 『제2회 충남 서양화회展』, 대전시민회관, 1988.
- 『제3회 까마귀』, 관훈갤러리, 1998.
- 『제3회 목원한국회전』, 대전시민회관, 1991.
- 『제8회 상성규 개인전 도록』, 롯데화랑, 2008.
- 『제9회고창환귀금속공예작품전』, 갤러리 봄, 2018.
- 『제3현대미술전』, 대전시민회관, 1986.
- 『진정식/ JIN JUNG SIK』, 롯데화랑, 2006.
- 『차상권 조각전』, 대전 쌍인미술관, 1988.
- 『충남 현대미술의 단면전』, 충청남도, 2003.
- 『최무용』, 천안시민회관, 2002.
- 『최무용개인전』, 천안문화원, 2000.
- 『八中山人 金文植 山水景』, 선화랑, 2012
- 『프로젝트대전 2012: 에너르기』, 대전시립미술관, 2012.
- 『한국공예가회 9회전』, 서울 디자인포장센터, 1982.
- 『한남디자인전』, 대전 한남대학교, 1988.
- 『한인수』, 대전 현대갤러리, 2005.
- 『한발미술의 미래 모색전』, 대전시민회관, 1997.
- 『한규 개인전: 사물은 초조의 치즈를 골랐다』, 아트스페이스 휴, 2014.
- 『허강 개인전』, 대전 현대화랑, 1990.
- 『畫業50年 回顧集 崔基成』, 두원, 2021.
- 『황인자 기획초대전』, 서울 갤러리 서초, 2009.
- 『황인자 개인전』, 서울 백상기념관, 1997.
- 『황인자 개인전』, 서울 공평아트, 1993.
- 『현대미술소품전』, 대전 오원화랑, 1990.
- 『'88 충남 어제와 오늘展』, 대전시민회관, 1988.
- 『'05 진정식』, 충주 마그넷갤러리, 2005.
- 『2007 韓 · 日 · 中 現代作家 東京交流展』, (사)韓國國際美術協會, 2007.
- 『2016 중구작가초대전』, 대전중구문화원, 2016.
- 『2018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춘천 MBC 호반광장, 2018.
- 『2019 월전미술문화재단 지원작가 초대전- 취석재 일기』, 월전미술문화재단 한벽원미술관, 2019.
- 『2021 공주 이시대의 작가전-김명태 '나무에 머물고 품고, 따르다'』, 공주문화재단, 2021.
- 『LEE YEUL』, 금호갤러리, 2012.
- 『Jin Jung Sik』, 명갤러리, 2009.
- 『Momory Existence: Do, Byung Lak』, 2013.
- 『Light of Lightness』, 갤러리시몬, 2018.
- 『Noh, Sang-Kyoon』, 갤러리시몬, 2011.
- 『Noh, Sang-Kyoon』, 갤러리시몬, 2020.

『The 9th Solo Exhibition by Kim Young Ho: Asymmetric Scope』, 미술세계, 2006.

기타(웹사이트)

건양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konyang.ac.kr/>
고영환 작가 블로그. <https://blog.daum.net/goyounghwan/>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mmca.go.kr/>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공식 홈페이지. <http://www.natureartbien-nale.org/>
금보성아트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
갤러리 H 블로그. <https://blog.naver.com/gallh/>
김기반 작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kimkiban/221758439540>
김기택 작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kimkirtart>
김달진미술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daljin.com/>
김용선 작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dragon52kr>
김철겸 작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kcg2505/40086480203>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다음 카페 '문정규 예술'. <https://cafe.daum.net/jkmoonart>
대전중구문화원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홈페이지. <http://www.sonahmoo.com/>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
대한민국가미술원 홈페이지. <http://www.knaart.com/932>
대한민국 1등 작가DB 사이트, 뮤움. <http://www.mu-um.com/>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https://edulife.donguk.edu/>
디자인정글 홈페이지. <https://www.jungle.co.kr/exhibit/6319>
매거진 토마토 홈페이지. <https://www.tomatoin.com/>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공감" 홈페이지. <https://gonggam.korea.kr/>
박홍순 작가 블로그. <https://blog.daum.net/hongsoon1724/>
사단법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홈페이지. <http://www.okja.org/>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s://sema.seoul.go.kr/>
아르코예술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t500.or.kr/>
아미미술관 홈페이지. <http://amiart.co.kr/pages/history>
아산갤러리 홈페이지. <http://www.asangallery.co.kr/>
아이옥션 홈페이지. <https://www.insaauktion.com/>
아츠앤컬처 홈페이지. <http://www.artsnculture.com/>
아트메일 홈페이지. <https://www.artmail.com/>
아트앤컬처 홈페이지. <http://www.art-culture.co.kr/>
아트허브 홈페이지. <http://www.arthub.co.kr/sub01/sub00.htm>
오숙환 작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ojh0918/222690346073>
앨리스온(AliceOn), 「김해민과 인터뷰에서」. <https://aliceon-tistory.com/2697>
양승호 작가 홈페이지. <http://www.seunghoyang.com/>
유튜브 영상자료, 「윤기원의 아티스톡 Artistalk」. <https://www.youtube.com/watch?v=CQ3JH0SQ7I>
유튜브 영상자료, 「작가를 만나다-정광호」. <https://www.youtube.com/watch?v=525ZLYGrr9o>
유튜브 영상자료, 「흙 그녀, 빛다! 유경자 도예가」. <https://www.youtube.com/watch?v=HpF6MHzfgug>
윤여환 작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yhyun7070>
윤여환 홈페이지. <http://yhyun.cnu.ac.kr>
인천투데이 홈페이지. <https://www.incheontoday.com>
임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limlipmuseum.org/>
임옥상 미술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oksanglim.com/index.php>
전영신 홈페이지 참조. <http://ysjeon.com/>
정세훈 작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jshbloge>
천안미술협회 홈페이지. <http://www.cfaa.or.kr/>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https://www.daarts.or.kr/>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홈페이지. <http://djart.or.kr/>
한남대학교 홈페이지. <https://my.hnu.kr/>

충남미술가 찾아보기

가국현(賈局鉉, 1959~)	372	박상국(朴尙局, 1958~)	336
강구철(姜求鐵, 1958~)	314	박선영(朴宣映, 1957~)	285
강봉승(姜奉昇, 1959~)	374	박세관(朴世寬, 1955~)	172
강위중(姜渭宗, 1957~)	270	박세은(朴世殷, 1952~)	68
강정현(姜貞憲, 1956~)	212	박수용(朴壽用, 1956~)	235
고석산(高錫山, 1954~)	134	박애정(朴愛正, 1959~)	380
고승현(高昇鉉, 1956~)	215	박완용(朴完用, 1959~)	383
고영환(高榮煥, 1958~)	317	박인규(朴仁圭, 1953~)	108
고웅근(高雄坤, 1956~2022)	218	박일규(朴日奎, 1950~)	20
고창환(高昌煥, 1952~)	58	박정옥(朴貞玉, 1953~)	110
구경희(具敬會, 1953~)	97	박토을(1951~)	48
구권환(丘權煥, 1951~)	34	박학규(朴學圭, 1955~)	174
권대섭(權大燮, 1952~)	60	박홍순(朴洪淳, 1953~)	112
김기반(金基班, 1950~)	10	박홍준(朴洪峻, 1956~)	238
김기택(金基澤, 1958~)	320	방효성(方曉星, 1955~)	176
김난희(金蘭姬, 1958~2016)	323	배결주(裴結珠, 1956~2017)	240
김대열(金大烈, 1951~)	37	백승업(白勝業, 1956~)	242
김대열(金大烈, 1952~)	62	백인현(白仁鉉, 1956~)	244
김동창(金東昌, 1953~2015)	99	백준기(白俊基, 1953~)	114
김두한(金斗漢, 1955~)	158	백 철(白喆, 1953~)	116
김명태(金明泰, 1951~)	40	변영환(邊英煥, 1956~)	247
김무호(金武鎬, 1953~)	101	복원규(卜元圭, 1953~)	118
김문식(金文植, 1951~)	43	복종순(卜宗淳, 1959~)	385
김석우(金錫宇, 1956~)	220	상성규(尙成圭, 1957~)	287
김성경(金聖卿, 1957~)	272	서성관(徐成寬, 1957~)	289
김영숙(金英淑, 1952~)	64	손석만(孫錫萬, 1955~)	179
김영진(金榮珍, 1957~)	274	손차룡(孫車龍, 1956~)	250
김영호(金永鎬, 1958~)	325	손화동(孫和東, 1950~)	22
김옥연(金玉演, 1955~)	160	송순영(宋淳永, 1952~)	70
김용선(金容善, 1952~)	66	송인현(宋仁憲, 1955~)	181
김인옥(金仁玉, 1955~)	162	신동국(申東國, 1955~)	183
김일환(金一煥, 1956~)	222	신웅순(申雄淳, 1952~)	72
김정호(金正鎬, 1950~)	13	신현진(申鉉珍, 1955~)	185
김준섭(金駿燮, 1955~)	165	심웅택(沈雄澤, 1958~)	338
김창일(金昌一/ CI KIM, 1951~)	46	심응길(沈應吉, 1958~2013)	340
김철겸(金哲謙, 1954~)	136	안병국(安炳國, 1959~)	388
김학원(金學園, 1953~)	103	안의중(安義鍾, 1958~)	342
김해민(金海敏, 1957~)	277	안재옥(安在玉, 1957~)	291
김해심(金海心, 1953~)	105	안치인(安致仁, 1955~)	187
김호중(金浩中, 1956~)	224	양병호(梁炳浩, 1959~)	390
나진기(羅鎭其, 1956~)	227	양승호(梁承豪, 1955~)	190
남영자(南英子, 1950~)	15	양충모(梁忠模, 1953~)	120
노상균(盧尙均, 1958~)	328	엄기환(嚴基煥, 1959~2014)	392
노재경(盧載京, 1959~)	376	엄호택(廉浩澤, 1955~2012)	192
도병락(都秉洛, 1958~)	331	오금숙(鳴錦淑, 1957~)	294
류승애(柳勝愛, 1958~)	334	오숙환(鳴淑煥, 1952~)	74
류영석(柳泳奭, 1959~)	378	오치균(鳴治均, 1956~)	252
문정규(崔秉圭, 1956~)	230	유경자(柳京子, 1959~)	394
민동기(閔東基, 1955~)	168	유동조(俞東朝, 1952~)	76
박관우(朴寬雨, 1955~)	170	유순식(俞淳植, 1954~)	139
박권수(朴權洙, 1950~2005)	17	유천균(庾天均, 1959~)	396
박기호(朴起鎬, 1956~)	233	윤승호(尹承鎬, 1958~)	345
박동교(朴東敎, 1957~)	280	윤양숙(尹良淑, 1958~)	347
박동윤(朴東潤, 1957~)	282	윤여환(尹汝煥, 1953~)	122

윤장열(尹長烈, 1953~)	125	정광호(鄭廣鎬, 1959~)	422
윤진섭(尹晉燮, 1955~)	194	정구인(鄭求仁, 1958~)	360
이계길(李啓吉, 1957~)	296	정기해(鄭基海, 1955~)	202
이근희(李根喜, 1958~)	350	정길호(鄭估浩, 1953~)	129
이병환(李炳煥, 1955~)	197	정대영(鄭大永, 1959~)	425
이숙휘(李淑徽, 1956~)	255	정덕영(鄭德永, 1951~)	50
이순구(李淳求, 1959~)	399	정세훈(鄭世薰, 1956~)	262
이 열(李烈, 1955~)	199	정영진(鄭英鎭, 1955~)	205
이영배(李永培, 1959~)	402	정옥희(鄭玉嬉, 1952~)	89
이응우(李應雨, 1959~)	404	정장직(鄭章植, 1952~)	91
이장원(李長遠, 1959~)	407	정진숙(鄭鎭淑, 1957~)	305
이장하(李長夏, 1952~)	79	정찬국(鄭燦國, 1952~)	94
이재호(李在皓, 1953~)	127	정 채(1951~)	52
이종관(李鍾貫, 1958~)	352	정태궁(鄭泰宮, 1959~)	428
이종구(李鍾九, 1954~)	141	정태희(鄭台喜, 1951~)	54
이종협(李鍾協, 1954~)	144	조순호(趙舜鎬, 1955~)	207
이종호(李鍾浩, 1958~)	355	조용복(趙鏞福, 1956~)	264
이진자(李鎭子, 1959~)	409	조용진(趙鏞珍, 1950~)	30
이창민(李彰民, 1959~)	412	조재성(曹在成, 1958~)	362
이창수(李昌洙, 1958~)	357	지석철(池錫哲, 1954~)	153
이춘호(李春浩, 1952~)	81	진정식(陳正植, 1959~)	430
이충우(李忠雨, 1952~)	83	최기성(崔基成, 1954~)	155
이헌구(李憲九, 1959~)	414	최명규(崔明圭, 1957~)	307
임동락(林東洛, 1954~)	147	최무용(崔武鎔, 1958~)	364
임선빈(任先彬, 1950~)	24	최병규(崔秉圭, 1956~?)	266
임옥상(林玉相, 1950~)	27	한인수(韓仁洙, 1957~)	309
임의수(林義洙, 1959~)	417	한정수(韓禎洙, 1958~1998)	367
임재광(林載光, 1957~)	298	허 강(許疆, 1958~)	369
장금자(張金子, 1956~)	257	허진권(許鎭權, 1955~)	209
장인성(張寅成, 1956~)	259	홍석출(洪錫出, 1951~)	56
장정란(張貞蘭, 1957~)	301	홍성경(洪性暎, 1953~)	131
장지원(張志媛, 1952~)	85	홍정화(洪貞花, 1957~)	312
전영신(田永信, 1957~)	303	황동희(黃東喜, 1950~)	32
전인선(全仁仙, 1952~)	87	황선익(黃善翊, 1959~)	433
전일국(全一國, 1954~)	150	황인자(黃仁子, 1956~)	268
전형주(全炯柱, 1959~)	419		

충남미술 연구총서
충남미술가편람Ⅱ

발행인 김태흠

발행일 2022. 12. 20.

총괄 충청남도

발행처 충남문화재단

충남 예산군 삼교읍 예학로 10-22

전문건설회관 2층

Tel. 041-630-2900

Fax. 041-338-7963

조사·연구 주관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조사·연구, 편·집필 신수경, 정경숙, 김미정, 이안나, 김재영

ISBN: 979-11-977032-1-8(세트)

979-11-977032-3-2(94600)

발간등록번호: 11-B553456-000001-10

이 책의 저작권은 충청남도와 충남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충남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22 충청남도 · 충남문화재단